장편소설

시대의 탄생

제 1 부

석 윤 기

문학예술출판사
주체94(2005)

장편소설 《시대의 탄생》(제1부)은 주체53(1964)년에 창작된 작품이다.

소설의 주인공 박세철은 정직하고 근면한 광산로동자출신의 평범한 청년이다. 닭모가지를 비트는 일조차 끔찍해하는 그는 보패와의 사랑에서도 어질기만 하여 진취적인 처녀에게서 《맹추》라는 놀림을 당할 정도로 순진하다.

그러나 조국해방전쟁의 발발과 함께 점차 조국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을 하나로 간주하며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귀중한 모든것을 다바쳐 싸운다. 그는 남조선을 해방하는 많은 전투에서 용감성을 발휘하며 대전해방전투에 참가하여 가문의 원쑤인 골드빈을 죽이고 미제침략군 사단장 띤을 생포하는 영웅적위훈을 세운다.

소설에는 박세철의 형상과 함께 전체 조선인민의 각계각층을 대변하는 각이한 성격들이 등장한다.

항일혁명투사인 인민군련대장 전학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군사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승리를 이룩해가는 인물로 형상되였다.

안휘태나 윤하응, 보패에 대한 이야기는 전쟁의 불길속에서 아름답고 강한 모습을 나타내보이는 인간들의 전형이다.

신종호와 같이 덤비는 학생출신의 사람, 문기수와 같이 능청스러운 농민출신의 수다쟁이, 지어는 노죽스러운 늙은이인 보패의 어머니 리씨의 형상을 통하여서도 시련속에서 당과 수령을 따르는 과정에 강하고 억센 인간들로 성장발전하는 인민의 모습을 볼수 있을것이다.

소설이 펼쳐보이고있는 거창한 력사의 서사시적화폭속에는 맥아더나 골드빈, 민성직이나 박인엽, 송치호와 같은 적진영의 인물들도 구체적인 개성으로 등장하는바 이들의 형상은 새롭게 태여나는 인민의 힘에 의해 사멸되여가는 악의 세계의 일단을 보여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발휘한 조선인민과 인민군대의 대중적영웅주의의 묘사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우리 인민의 힘은 필승불패이며 그이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과 의지로 굳게 뭉친 전체 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위대한 새시대가 탄생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준 소설은 우리 인민의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고무해줄것이다.

편집부

주 요 인 물

박세철 — 광산로동자, 후에 인민군전사

전학민 — 인민군련대장

김보패 — 열성농민, 세철의 애인

리 씨 — 보패의 어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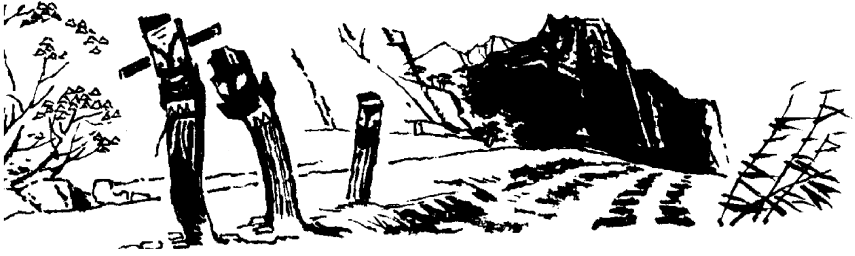
안휘태 — 광산 기사, 후에 인민군전사

윤하응 — 남조선 대학교수

민환규 — 대지주의 아들, 남조선 대학교수

맥아더 — 《유엔군》 총사령관

골드빈 — 미첩보기관 장교

송치호 — 간첩

서 장

갑자기 꽃샘이 시작되였다. 다 쫓겨간줄 알았던 겨울이 먼 산줄기에서 불리다 남은 눈을 휘몰아다가 겨우 눈뜨기 시작한 새싹들을 무자비하게 잘라눕혔다. 이 발악이 지나가자 미처 상처를 가실 사이도 없이 봄은 무르익어서 벌써 머지 않은 언덕우에 여름이 그 이글이글 타번지는 얼굴을 내밀었다.

이해따라 청명도 들기전부터 봄비가 잦았다. 번드르르 기름이 도는 살진 들판은 미처 풀단장도 못하였는데 어느새 은색 실비가 안개속에 거미줄처럼 늘어져있었다. 재차 눈석이가 시작되고 얼음덩어리가 흰곰처럼 웅크리고 바다로 바다로 떠내려가더니 제풀에 녹아버렸다. 어수선한 바람과 비와 움터오는 새싹속에 4월이 왔다.

길이란 길은 철이른 비와 봄시위물에 온통 죽탕이 되였다. 더구나 인천으로부터 의주에 이르는 중부조선일대의 신작로들은 함빡 끓여놓은 찰범벅처럼 엉망으로 버물어졌다.

검산벌을 끼고나간 이러한 길—수천년력사의 수레바퀴가 이미 짓이겨놓은 이런 진창길로 벌써 몇달째 일본군사들이 밀려들고있었다. 300여년전 소서행장의 떨거지들이 쳐들어오던 그 길로 오늘은 그 후예들이 산천을 짓뭉개며 넘칠듯이 흘러들었다.

네모반듯한 배낭에 깡뚱하게 흰 각반을 치고 99식보총을 둘러멘 일본제국군이 제물포(인천)를 비롯한 서해안일대에 상륙한지도 어언 두달,그 우악스러운 군화의 발구름소리에 잠든 아이들은 소스라쳐 깨여나고 개들은 때를 잊고 미친듯이 짖어댔으며 처마끝에서 풍경소리조차 날카롭게 비명을 질렀다. 10년전에는 갑오농민전쟁끝에 청일전쟁

이, 또 그 10년전에는 갑신정변이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도 산천이 들컹거려본적은 다난하다 다난하다 일러온 이마적 세월에도 있어본적이 없었다. 그러기에 오랜 세월 태평성대를 읊조리며 얼근히 취해서 몇대를 살아온 시골서생들의 깊이 든 낮잠조차 천리만리 달아났다. 경의선철도가 놓이기 시작하고 도로연선은 물론 군포, 호포에도 루락된 벽지의 백성들조차 부역에 끌려나왔다. 들리는 말에는 일로전쟁이 터졌다고 하였으나 그것이 일로전쟁인지 혹은 조일전쟁인지 아니면 조로전쟁인지 그 누구도 똑똑한것을 알지 못하였다.

10만의 일본제국군이 범람하고보니 세상에서 망각되다싶이 외따로 떨어져 나앉은 검산땅에도 소란한 시국의 파도가 덮쳐들었다. 송림에 상륙한 공병중좌 와다나베 겐지의 지휘하에 끌려나온 검산사람들은 진펄을 메꾸고 나무를 찍고 산을 허물면서 그들 스스로는 물론 자손 몇대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걸어가야 할 가시덤불길을 냈으며 미구에 그들자신의 가슴팍으로 파고들 탄알을 날랐고 군량을 져다바쳤다.

요컨대 새싹이 내불리기 시작한 버들숲과 동네와 아름다운 산천은 살벌한 전쟁냄새에 찌들어가고있었다.

큼직한 군화바닥에 콩마당처럼 징을 박아신은 보병들과 장교, 기병들의 말발굽 그리고 끝없는 치중마차, 산포들의 바퀴가 채 완공되지 않은 군용도로를 다지고 이기면서 지나갔고 길좌우에는 얼개화패거리들과 왜군수, 왜감사들의 권세에 떠밀려나온 어진것이 자주 어리석은것으로 오인돼온 조선의 부역군들로 한벌 덮여있었다.

한낮이 기운 광무 8년 갑진(1904년) 4월초순의 어느날이였다. 청명시절 질척거리는 원정길에 지친 일본군사들이나 그들의 길을 닦고 있는 조선농민들이나 한결같이 화가 나고 울분에 싸여 소란하고 살벌한 분위기가 자욱한 먼지처럼 피여오르는 이 길로 마치 유산객과 같이 유연한 기분으로 살진 군마등에 얹혀 거들거들하는 한 미국장군과 날카로운 매부리코에 우멍스럽게 패여들어간 눈확에서 살기가 뻗쳐나오는 장신의 미국인 청년장교가 있었다. 지난 2월 《한일의정서》가 조인된 이래 상감마마보다 일본군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찌의 군령이 더 엄해진 세상이다. 그런데 그 사령관도 우러러보는 미국장군이 나타났으니 그 위세가 응당 상감마마보다 더할듯하였으나 그런 푼수치고는 뜻밖에 전배도 없는 가볍고 간편한 행차차림이였다.

《아버지, 나에게는 슈펠트의 과오란 리해할수 없군요.》라고 키다리 청년장교가 날카로운 어조로 말하였다. 《아닙니다. 슈펠트

의 과오란 당초에 없었지요. 만일 과오가 있었다면 그것은 지금 저 워싱톤의 우유부단성에 의하여 진행되고있는 오늘의 이 연극이지요. 도대체 우리는 밤이면 호랑이가 우는 이 황량한 미개지를 누구를 위하여 행군하고있는것입니까? 과연 우리 미국사람들이 저 난쟁이 일본인들의 공훈을 본국정부에 보고하기 위하여 이 너절한 행군을 하고있단말입니까?》

《다그, 너는 아직도 이 나라의 진가를 모른다. 첫째로, 이것은 황량한 미개지가 아니라 미국본토와도 비길만한 보화가 묻혀있고 번영에로 열려진 미국의 관문이 있는 나라이다. 여기는 너의 할아버지가 인디안사냥을 하던 당시의 마사츄셋쯔나 내가 가있던 루손도가 아니라 수천년의 자기 문화와 력사를 가지고있는 아시아에서 가장 문명한 나라이다. 둘째로, 여기는 서뿔리 건드렸다가는 호랑이처럼 접어드는 용감한 민족들이 사는 땅이다. 〈1871년 사건〉(신미양요) 당시에 이미 로우는 조선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용감한 민족이라고 평가한바 있다. 국무성의 고관들이 작성한 새 각본의 내용은 다름아닌 그 위험천만한 호랑이의 발톱을 일본인들로 하여금 뽑아던지게 하자는것이다.》

아더 맥아더장군은 혈기에 날뛰는 아들을 부드럽게 타이르며 가슴에 드리웠던 쌍안경을 쳐들어 봄의 서기가 피여오르는 먼 산발의 다양한 굴곡을 바라보았다.

얼마전 저 루손도의 주민을 일거에 6분지 1로 줄여놓은 유명한 사령관이였던 그는 이번 전쟁에 일본군측의 관전무관으로 임명되였다. 그의 결단성과 용감성은 세상이 다 아는바이지만 자식에 대한 사랑은 용감한 장군을 턱없이 사람좋은 하나의 아바이로 만들어놓았다.

《슈펠트의 과오》에 대해 말한다면 맥아더장군은 1882년 조약당시의 유명한 미국제독이 치렬한 경쟁대상이던 다른 렬강들을 물리치고 최초로 조선왕을 협박하여 마침내 개항을 승낙하지 않을수 없게 만든것은 가장 미국인다운 용감한 행동이라고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였다.

1856년 3월 마사츄셋쯔의 미국 지리통계학회에서 《흑함전술》의 선구자인 페르리제독은 그의 군인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유명한》 발언을 하였었다. 그 말은 특히 아시아에 대한 그의 정열을 촉발시켰고 《태평양제국》론자들가운데 뚜렷한 존재로 만들었지만 그때로부터 적지 않은 세월이 흐른 오늘에도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정책을 평가하는 그의 척도는 여전히 페르리제독의 그 탁견이였다.

《…미국국민은 앵글로색슨민족이 아시아 동방해안들에 발을 붙이게 될 때까지 여러가지 형식으로 그들의 권세와 세력을 확대시키게 될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장차 미국의 가장 큰 적대국이 될 로씨야가 그 세력을 동방과 남방으로… 팽창하게 되여 결국 앵글로색슨민족과 까자흐민족이 맞서게 될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이 량대국이 그러한 최종적이며 치렬을 극할 대결을 향하여 서로 강대해지고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페르리의 말에 비추어 맥아더장군은 슈펠트의 단호한 행동과 권모술수를 평가하였고 뒤따라 신흥 일본의 패기있는 제국주의적팽창과 관련하여 아직도 6,000마일의 해외에서 렬강들을 물리치고 식민지를 유지할만한 군사력이 없는 조건하에서 조선침략의 권리를 깨끗이 일본에게 양보하고 그것을 적극 협조하며 그 대신 적지 않은 리권을 미국을 위해 보전한 루즈벨트정책 역시 《여러가지 형식으로 그들의 권세와 세력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페르리의 관점으로부터 높이 평가하는터이였다. 따라서 그가 아들에게 《슈펠트의 과오》를 운운한것은 정책상의 문제를 념두에 둔것이 아니라 단지 슈펠트가 지나치게 거칠게 굴고 로골적으로 조선인민을 업신여김으로써 오늘 이 려행에서 자기들이 조선인민의 랭대를 받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는것을 념두에 둔것이였고 결국 이것은 페르리의 말에 비추어볼 때 미국인들이 《아시아 동방에 발을 붙이게 될 때까지… 여러가지 형식으로 그들의 권세와 세력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여기로 파견될 많은 선교사들과 교원들,의사들과 상인들에게 슈펠트가 하나의 과오를 범한 셈이라고 말한데 불과한것이였다.

그러나 아들은 적어도 미국의 리익이나 정책을 옹호하는데는 병적일 정도로 신경이 날카로왔다. 맥아더장군은 자기 대를 물릴 아들을 호전적으로 (이 말은 20세기 후반기에 와서는 그닥 인기가 없으나 제국주의적팽창열이 역병처럼 만연돼있던 당시의 구미렬강에서는 가장 장래가 촉망되는 용감하고 똑똑한 청년의 대명사로서 권세있는 귀부인들과 대신,은행가들의 각별한 총애를 받았었다.) 교육하기 위하여 무진 애를 썼지만 오늘에 와서는 그 효과가 지나쳐서 아버지인 장군은 어느덧 길못들인 생매처럼 마구 허비려드는 아들의 성미에 눌려 그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해있는 형편이였다. 다행히 그는 신경이 튼튼한 사람이여서 다그라스가 웬간히 갈개는것쯤 재롱으로 치부하고 얼마든지 자기생각에 골몰할수 있었다. 쌍안경을 들여다보는 기

름기도는 그의 볼편에는 미소가 잔물결을 치는가 하면 다음순간 전류처럼 긴장이 지나가면서 근육이 막대기처럼 굳어지기도 하였다.

끝없이 뻗어간 산의 표정은 그닥 서정시를 좋아하지 않는 그의 가슴에 문득 한가닥 애수의 정을 불러일으키는가 하면 어디선가 돌각담뒤에서 불의의 복병이 튀여나올것만 같은 소름끼치는 전률을 느끼게도 하였다.

그러나 아들은 동화속의 오막살이같은 연선의 초가지붕들도 방금 도끼날을 맞아 피눈물같은 진을 뚝뚝 떨구는 나무들의 희고 붉은 등걸들도 그리고 토목수건으로 상투를 질끈 동인 조선농민들의 성이 났는지 신이 났는지 모를 적동색 얼굴에서도 전혀 아무런 시정도 공포도 느낄줄 몰랐다. 그에게는 늙은이들의 입에 물린 한발이나 되는 긴 장죽이 재미있다고 생각됐을뿐이였다. 다그라스는 자기의 울적한 심사를 감출 길이 없어 다시금 아버지에게 결고들었다.

《호랑이의 발톱이란 공상을 즐기는 아시아인들의 통속시에 불과한것입니다. 용감한 사냥군이라면 맹수의 발톱에 겁을 느끼기보다 오히려 매력을 느끼는것이지요.》

《너는 아직 정치를 몰라.》

하고 아버지는 천천히 쌍안경을 내리면서 아들의 름름한 몸매를 대견한듯 곁눈질해보았다. 그러면서 짐짓 엄한 말투로 다루기가 아름찰만큼 지나치게 자라버린 아들을 부질없이 얼려보는것이였다.

《용감한 사냥군이라고 하여 어찌 사냥개를 리용할수 없겠니? 더구나 지금은 조선이라는 화려한 호피를 두고 로씨야의 곰이 숲에서 기여나왔다. 만일 우리가 로우나 슈펠트의 신경질을 본받는다면 일본이라는 사나운 개와 흉물스러운 곰과 그리고 호랑이의 날카로운 발톱에 걸려 령락없이 넘어지고말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신의 은총을 받은 문명한 인간답게 행동한다면 사냥개도 곰도 다 지친 다음에 찬란한 호피를 아무 시비도 듣지 않고 차지할수가 있을것이다. 정치— 이것은 현대 미국군인들이 무엇보다도먼저 알아야 할 코란이다. 네가 마즈처럼 떠받드는 나폴레온도 실은 한날 정치의 리용물에 불과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다그라스는 번대수리처럼 날카롭게 빛나는 살기띤 눈을 번쩍거리며 아버지의 피둥피둥 살진 목덜미를 훑어보았다. 25살에 벌써 력사에 이름을 남긴 동서고금의 명장들을 우습게 취급하고있는 그에게는 아버지의 장광설이 시골 점쟁이의 넉두리처럼 역겹게

들렸을뿐이였다.

《아버지, 우선 나폴레온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론쟁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는 바보였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인류가 낳은 진정한 영웅이며 천재였던것도 사실이지요. 우리는 력사를 대함에 있어서 질투를 버려야 할것입니다. 저명한 미국장군인 당신에게서 크라우제위치의 속학을 듣는다는것은 나로서 천만뜻밖이군요. 내가 나폴레온을 마즈처럼 생각하는 그만한 정도로 정치를 잘 모르는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시민으로서 그리고 영광스러운 력사를 가진 미륙군의 장교로서 내가 확신하는바에 의하면 현대를 지배하는 최고리념은 그 아리숭한 정치가 아니라 참으로 신의 은총을 받은 미국시민들의 머리속에 싹터오르는 모든 종류의 욕망이지요. 만일 아메리카의 번영이 요구한다면 나는 당신의 그 호랑이를 발톱채로 토끼처럼 주물러놓을것입니다.》

이상의 대화에서 추측할수 있는바와 같이 다그라스 맥아더는 25살의 이 봄에 이 끝없는 산맥의 나라를 행군하면서 아무리 공상의 말을 채찍질해봐도 비슷한 나이에 벌써 이딸리아원정군 사령관으로서 알프스를 넘어가던, 그가 진정으로 존경하는 영웅이요 천재인 그 사람에 비해보면 자기의 처지가 너무나 초라하다는것을 통감하지 않을수 없었다. 더구나 자기는 코르시카와 같은 식민지의 태생이 아니라 당당한 미국장군의 가문에서 태여났지만 어쨌든 오늘은 방금 웨스트포인트사관학교를 졸업한 코흘리개 소위로서 아버지의 부관으로 자기에게는 아무런 공훈도 약속돼있지 않는 싸움터로 나가는것이였다.

아들의 불쾌한 심정을 또다시 자극했다는것을 깨달은 맥아더장군은 당황하여 입을 다물어버렸다. 아버지가 아들을 교양해야 한다는 널리 공인된 의무에 따라서 항상 가르치는 립장을 취하기는 하나 우선 몸집으로부터 기백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아들에게 눌려사는 그는 아들의 비위를 맞출 묘책은 없을가 하고 분주히 궁리하였다. 그러나 다그라스의 처지란 그렇게 간단히 돌려세울수 없는 기막힌것이였다. 바로 이 기막힌 처지로 하여 그의 기분은 좋지 못했고 항용 기분상태가 좋지 못한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과오로 그 역시 낯선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하여 공정성을 잃어버리고 돌돌 구르는 시내물에 대해서도, 어딘가 비취색 보석이 파묻혀있을것만 같은 산에 대해서도 한결같이 역정을 냈던것이다. 그는 가슴속이

부걱부걱 괴여올라 느닷없이 채찍을 휘두르며 박차를 가하였다. 주인을 닮아서 성깔 사납게 생긴 황부루는 화닥닥 앞발을 쳐들더니 갈기를 거슬려날리면서 신경질적으로 냅다 달려나갔다. 아버지의 체면도 장군의 위신도 여지없이 짓밟아버린 다그라스의 이 무례한 행동에 대해 선량한 아버지는 살진 볼이 버그러질만큼 미소를 지으며 기름이 함츠르르 도는 자기의 월다에 슬그머니 박차를 가하였다. 한사람의 미군 하사관과 두사람의 일군 통역 그리고 마사원,전령병들이 일제히 진흙을 휘뿌리며 상전들의 뒤를 따랐다.

언제부턴가 길옆에는 넓고 푸른 강물이 따라섰고 앞에는 큰산이 우뚝 막아섰다. 해가 뜨자부터 내내 들컹거리던 길은 한낮이 지나서부터는 자주 동강이 나서 한동안씩 비군하였다.

다그라스는 가슴에 차오르는 울분에 못이겨 마구 채찍을 휘둘렀다. 고개가 나타났다. 길가에 널린 부역군들의 한숨처럼 아득히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는 그 고개의 마루턱에 올라서니 길 한옆에 붉은천과 흰천오리들이 주렁주렁 매달린 찌글사한 서낭당이 나타났다. 사당안에는 누구의 행운을 빌었는지 방금 차려놓은듯한 제물이 놓여있었다. 문득 푸른 강물은 산기슭을 끼고 돌았다. 그에 따라 길도 산밑으로 바투 다가섰다. 또다시 두두룩한 고개가 나타났다. 그 고개마루에 여러개의 비석이 서있는것으로 보아 여기서는 이왕 있던 들길을 갑자기 군사적목적에 적합하게 확장하고있다는것을 쉬 짐작할수 있었다. 고개마루에서 강건너 산기슭을 향해 한가닥 외나무다리가 건너갔다.

이때 바로 외나무다리 건너 저쪽 강가에서 조선농민 두사람이 잔디를 뜨고있었다. 펼쳐놓은 가마니짝우에는 이미 다듬이돌만하게 뜬 잔디장들이 수북이 쌓여있고 그옆에는 진흙버럭이 벌겋게 드러나보인다.

먼눈에도 몸집이 실하게 보이는쪽이 가래채를 훌 내던지더니 괴춤에서 담배쌈지를 꺼냈다. 목고채를 들고있던 상대편도 가마니짝우에 퍼더앉으며 허리에서 담배대를 뽑아들었다.

뿔끈 들어서 콱 놓아주소
널널널 상사도야
산지 조종은 백두산이요
효부조종은 명성황후라…

한창 작업이 진행되고있는 고개밑에서 구성진 선소리가 울려온다.

《넨장, 올농사도 폐농했군.》

가마니 한귀에 엉덩이를 놓은쪽이 앙상하면서도 어딘가 팔팔해보이는 얼굴을 들면서 시름없이 말했다.

《폐농? 폐농이나 하고 끝장이 날 말이면 약과게. 흥, 세상이 다 망조가 들었는걸.》

몸집이 실한 수염쟁이가 토목수건으로 질끈 동인 국단지만한 상투를 득득 긁으며 벌레라도 삼킨듯이 오만상을 찌프렸다. 그의 왼편 어깨는 유난히 솟고 등은 구부러졌는데 더부룩하게 숱좋은 구레나룻끝은 불에 그슬려서 굽슬굽슬하다.

《임자야 풀무질이나 하면 되니까 큰 랑패 없을걸세만 우리네 농사군이야 봄한철 놓치면 어디다 씨를 박아보겠나?…》

《허, 답답한 군이군. 자네가 이게 무슨판인지 아직 셈을 모르는군. 나라가 망하는판이야, 나라가. 알겠나? 오랑캐들이 쳐들어오는데 나가 싸우는것이 아니라 길을 내주고있으니 이게 을축갑자가 아니고 무언가?》

《나도 짐작이 아주 없지는 않네마는 그러니 글쎄 답답한 일 아닌가?》

여원쪽은 순순히 수그러들면서 역시 맨머리를 동였던 수건을 풀어 목덜미로 흘러내리는 땀을 훔쳤다. 백동 동곳이 비뚜루 꽂힌 볼품없는 상투가 한결 서글프게 보인다. 땀을 훔치고난 그는 비듬이 허옇게 인 그 대추알만한 상투를 다칠세라 조심히 수건을 동여맸다. 고종황제 스스로 머리를 깎고 전국에 단발령을 내린 을미년으로부터 근 10년이나 지났건만 조선버선에 구두를 신고다니는 순검이 있는가 하면 량반부스레기들로부터 상사람에 이르기까지 《목은 잘라도 머리는 못깎는다》고 하여 크고작은 상투를 무슨 밸풀이처럼 짜고다니던 시절이였다. 사실 그 거치장스러운것을 보란듯이 머리우에 이고다니는것은 한편으로는 수백년을 내려오는 관습의 힘도 있었겠지만 어디서나 망조가 들어가는 시국풍조에 소극적이나마 엇서보려는 눈물겨운 앙심이 깔려있기도 하였다.

《억쇠, 가보자구. 〈송개〉가 또 짖어대는군.》

고개아래서 선소리, 가래질소리 속에 섞여 쨍하는 욕설소리가 울려오자 여원쪽이 담배대를 털고는 엉치를 일으켰다.

《치기영!》

《허기영！》

억쇠라고 불리운 텁석부리가 앞장을 서고 여윈쪽 농민이 뒤를 서서 위태로운 외나무다리를 휘청거리며 건너왔다.

옹이가 불뚝불뚝한 참나무목고채는 동저고리바람인 그들의 목덜미를 무섭게 파고들었다.

《허기영！》

《치기영！》

《놓고！》

두사람은 고개마루에 올라서자 짐을 부리우고 허리를 폈다. 날이 끊어진 억쇠의 짚신 감발옆에 회초리같이 어린 백양나무 한그루가 뿌리채 뽑히여 나딩굴어있었다. 벌써 어지간히 짓밟혀 시래기처럼 노그라진 그 나무줄기엔 그래도 진자주빛 새눈이 터서 바야흐로 벌어지려 하고있었다. 목고채에 피멍이 밴 목덜미를 어루만지던 억쇠의 북두갈구리같은 큼직한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그 짓밟힌 백양나무를 집었다.

조선의 들길, 더구나 강을 낀 이런 길목에서 흔히 보는 버들숲이요, 아이들이 호드기며 채찍을 만드느라 함부로 꺾는것을 아침 저녁으로 보아온 하찮은 나무가지였다. 이즈막에 와서는 그 흔한 버들숲이 급급한 도로공사로 해서 생벼락을 맞아 큰놈은 도끼날에 맞고 어린놈은 뿌리채 뽑혀 달아났다. 억쇠자신의 가래날밑에서도 얼마나 많은 나무뿌리가 찍혀났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렇게 길우에 뿌리를 내놓고 짓밟히는 나무를 볼 때 상어껍질처럼 타고 그을린 그의 꽛꽛한 볼편에는 제살을 저미는듯한 아픔이 어리는것이였다. 그는 회초리를 억센 손아귀에 틀어쥐고 싹트려다 움츠러든 진자주빛 눈들을 이윽토록 바라보다가 노기어린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갑수, 가자구.》

그들은 고개밑에까지 잔디를 메다놓고는 다시 외나무다리를 건너갔다. 억쇠는 여전히 그 어린 백양나무를 움켜쥐고있었다.

그는 잔디 뜨던 자리에 이르자 목고채를 내던지고는 종가래로 구뎅이를 파기 시작했다.

《이사람, 그건 뭘하자고 그러나？》

갑수는 담배대를 입에 물다가 수상쩍은 억쇠의 거동을 보고 물었다. 그러나 억쇠는 한마디 대꾸도 않고 묵묵히 가래질을 다우쳤다. 호박구뎅이만한 구뎅이를 파놓은 억쇠가 푸석푸석한 흙을 그 바닥에 깔자 비로소 짝패의 의도를 짐작한 갑수가 그 어린 나무

뿌리를 구뎅이에 박으며 중얼거렸다.

《부질없는 짓이라니까. 숲이 결단이 나는판인데 이런걸 옮겨 심었다구 자리가 날상싶나?》

억쇠는 들은척도 않고 그 어마어마한 상투가 흔들흔들하도록 억세게 가래질을 하더니 한동안이 지나서야 비로소 중얼거리듯 대척을 하였다.

《누가 아니라나… 그래두 심어두고 보세. 세상꼴이 어떻게 돼가는지 좀 구경이나 하라고말이지.》

불시에 말발굽소리가 높아졌다. 두사람은 거의 동시에 불안한 시선을 큰길쪽으로 돌렸다.

《아니 저건 또 뭔가? 저건 왜놈의 종자가 아니지 않나…》

때마침 흙탕을 휘뿌리며 달려오는 다그라스를 보고 갑수가 놀라서 중얼거렸다. 천천히 허리를 편 억쇠도 앞선 황부루와 잇달려오는 색다른 기마군사의 떼를 한동안 쏘아보더니 퉤— 하고 침을 뱉으며 가래자루를 틀어쥐고 우악스레 구뎅이속으로 흙을 퍼던졌다.

《서양 오랑캐로군. 전날 벽제선생이 말하기를 세상이 하도 어두워 대낮에 뭇귀신이 살판뜀을 한다더니… 갑수,이녁은 못본체 가만 있으라구.》

《저군들이 저기서 멈추어서는군,억쇠! 저놈들 보게. 저놈 부시치는걸… 아니 저런…》

이때 다그라스는 문득 자기 머리를 무엇인가 거대한 손이 움켜쥐고 내리누르는것만 같은 야릇한 인상에 무중 말고삐를 잡아챘었다. 여라문걸음 떨어져서 달려오던 그의 아버지는 또 다른 충격으로 말미암아 댓걸음뒤에서 역시 말고삐를 잡아채고 우선 험지에서의 모험에 익숙해진 군인답게 담배를 꺼내여 성냥을 켜댔다. 이 성냥이라고 하는 서양부시는 시골의 한 조선농민을 놀라게 했을뿐만아니라 다른 수원들에게 미국장군의 관록을 보이는데도 충분한 효과가 있었다.

그런데 수명의 미국인과 역시 수명의 일본인 수원들을 갑자기 멈추어서게 만든것은 별것이 아니라 하나의 산봉우리였다.

맥아더부자는 거의 동시에 쌍안경을 쳐들었다.

그것은 얼핏 보기에도 규산함유량이 대단히 많은 용암탑으로 이루어진 돌산이였다. 몇개의 봉우리가 서로 옹위하듯 일어섰는데 그 주봉은 알쭌히 돌로 이루어진 봉우리로서 마치 장수가 장검을 비껴짚고 서있는듯한 형국이였다. 쌍안경 시야에는 조물주가 이 땅을 냄에 동시에 이 땅을 침노하는 모든 원쑤들로부터 자기의 아름다운 창조

물을 수호하라고 만들어세운 파수병같은 거대한 자연형상이 들어왔다. 그것이 신의 창조물로 느껴지는 그만큼 그 위용은 장엄하여 그 아래기슭에 떨기떨기 피여난 진달래 무더기들은 마치 원쑤와의 싸움에서 장사가 흘린 선혈의 반점과도 같이 산록을 붉게 물들이고있었다.

산기슭아래는 눈을 뚝 부릅뜬,그들이 조선에 상륙한 이래 벌써 여러차례 보아왔으며 그때마다 불쾌한 인상을 받았던 장승목신 두대가 서있었다. 《천하대장군》은 입이 얼굴폭을 다 돌아갈만큼 찢어졌는데 그 이는 어찌나 굵든지 거기다 다그라스 맥아더자신의 대가리를 들이민다면 그대로 박살을 내버릴것만 같았다. 《지하녀장군》 역시 조금도 녀성다운데는 없고 오직 분노와 저주를 나타내고있을뿐이였다.

다그라스는 저도모르게 이를 앙다물고 말없이 이 모든 불쾌한 것들을 노려보았다. 아들에 비하면 미국인다운 실무성에 밝은 아버지 맥아더는 아들의 심중을 자기류로 해석하고 전령병에게 손을 내밀어 지도를 받아들었다. 그러나 일본인들도 세부측량을 하기전이였기때문에 미륙군성에서 발행한 지도에는 아직 그 절묘한 산이름을 기록해넣지 못했다.

《저것이 무슨 산인지 알아보십시오.》

맥아더장군은 은근한 말투로 누구에게라없이 일렀다.

《하!》

두사람의 일본군통역이 날쌔게 경례를 붙이더니 주저없이 외나무다리를 향해 급보로 달렸다. 두필의 군마는 다리앞에서 멈추어섰다.

여기서 통역들은 뜻밖의 실수를 저질렀다. 무슨 까닭으로 해선지 외나무다리앞에서 앞선 사람이 당치 않게도 박차를 주었던것이다. 배허벅을 까닭없이 내질리운 군마는 다행히 훈련이 잘돼있어서 20메터나 실히 되는 강폭을 한구름에 극복하려는 무모성을 발휘하지는 않았지만 길길이 뛰여올랐다.

《칙쇼!》

하마트면 물참봉이 될번한 군용통역은 가까스로 말의 목덜미를 쓸어안으면서 욕설을 퍼부었다. 물론 개명한 일본제국의 장교가 외나무다리를 말을 타고 건느거나 단숨에 뛰여넘을 궁리를 했다고는 생각할수 없다. 그러나 뒤따라온 조선말통역조차 똑같은 망발을 되풀이한것으로 보아 이 역시 산에서 받은 위압감때문이 아니라면 아마 그들이 처음으로 섬기게 된 아메리카상전에 대한 끓어넘치는 충성을 표시하기가 급해서 항용 바쁜 사람들이 잘 저지르는 그

러한 실수로 취급할수밖에 없을것이다.

다행히 두 통역은 인차 리성을 회복하고 뒤따라온쪽이 대안을 향해 소리쳤다.

《오이 요보상, 이리 좀 오너라. 바리바리…》

텁석부리 억쇠는 아까부터 외국인들의 거동에는 아랑곳없이 가래질만 계속하고있었다. 그러면서도 여원쪽만 못지 않게 큰길의 동정을 깐깐히 살피고있었던 모양으로 일군장교의 말에 인차 허리를 일으키려는 갑수의 바지춤을 잡아끌며 은근히 말했다.

《궁뎅이를 놓고 앉으라구. 이녁이 가서 무얼 할텐가?》

《바리바리 못왔소까. 영감이상이나 바리바리 오너라!》

일군통역은 거듭 소리쳤다.

그 위압적인 투가 조선농민의 기분을 잡쳤다는것을 눈치챘는지 이번에는 다른자가 나섰다. 그는 영어통역이였다.

《여보시오, 말씀 좀 묻겠습니다. 이리 좀 오십시오.》

제법 사람말같은 그 얌전한 말투에 갑수는 물론 텁석부리 억쇠까지 힐끔 돌아보았다.

어떤 민족이든 영어로 말하게 되면 사람이 음흉해진다고는 물론 생각할수 없다. 그러나 전업인 조선말 통역보다 비전문가인 영어통역이 조선말을 더 능숙하게 한다는 여기에 남의 나라를 넘보기 좋아하는 종족들의 어떤 기질적특징이 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영어통역은 더욱 상냥한 투로 말을 이었다.

《할아버지, 여기로 좀 와주십시오. 말씀 좀 묻겠습니다.》

《경칠놈, 내가 할아버지야?… 그래 무슨 말이요?》

벌써 한절반 허리를 솟군 갑수를 지레 막아서며 억쇠가 볼멘소리를 질렀다.

사실 그들은 한쪽은 얼굴절반이 수염으로 시꺼멓게 덮이고 다른쪽은 강대나무처럼 꿋꿋하게 말랐으나 이제 겨우 중년을 넘어선 나이였다.

《저 산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사통역은 입에 손을 오그려붙이고 소리를 질렀다.

《검산이웨다.》

《곰산? 곰이나 나왔소까?》

또다시 조선말통역이 거치른 목소리로 물었다.

《칼검자 검산이요. 모가지를 짜르는…》

억쇠는 우악스런 손바닥을 장검마냥 넙적하게 펼쳐서는 자기 목을 내리치는 시늉을 해보였다. 이 한토막 즉흥극이 어찌나 진실감을 자아냈던지 두 일본장교는 일순 목을 움츠러뜨리며 눈이 퀭해졌다.

《칙쇼. 후자께루나(개자식! 까불지 말아.)…》

말버릇이 곱지 못한 조선말통역은 밸이 발칵 뒤집혀 옆구리에 찬 진짜 칼자루를 틀어쥐였다.

이때 고개마루가 떠들썩해졌다.

《하라다대위!》

맥아더장군의 노기어린 목소리에 뒤를 돌아본 두 통역은 다시한번 눈이 퀭해졌다. 그들이 20메터나 되는 강을 사이에 두고 두 농민과 몇마디 대화를 나누는 사이 맥아더장군의 주위에는 알수 없는 조선사람들이 밀려들어 웅성거리고있었던것이다. 단순한 통역이 아니라 두 미국인의 신변을 보호할 임무까지 띠고있는 그들은 황급히 말을 달려 큰길로 갔다. 누구보다도 용감하다는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있는 조선말통역 《하라다》가 벌써부터 뺄 기회가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있던 그 니뽄도를 뽑아들고 마치 적진에 육박하듯 수상한 조선인들의 무리속으로 말을 몰아쳤다. 뒤따라 영어통역도 덩달아 말배때기를 걷어찼다. 이것은 그들이 저지른 또하나의 실수였다. 거기 모여든 조선사람들로 말하면 어떤 소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산이 많아서 그런지 비가 잦아서 그런지 어쨌든 걸채이는것이 많은 조선의 험한 길에 지쳐빠진 일본제국군과 그들의 포주격인 미국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총총히 달려온 조선의 지방인사들이며 고개밑에서 일을 하다가 처음보는 노랑대가리에 호기심을 느끼고 구경을 온 부역군들이였던것이다. 물론 두 일본장교의 경솔한 행동은 맥아더장군의 질책에 의하여 인차 수습되였지만 번쩍거리는 니뽄도에 넋을 잃은 조선유지들은 종시 기를 펴지 못했다.

유독 맥아더장군의 넙적다리앞에 바싹 붙어서서 마치 견마잡이처럼 그의 말고삐를 조심스럽게 잡고 서있는 키 큰 사람만이 여전히 화기를 잃지 않고있었다. 그 사람으로 말하면 비교적 나이 젊었으나 그 번쩍거리는 갓이며 흰 테를 두른 검정갖신이나 빳빳하게 풀을 먹인 두루마기로 보아 그 아근에 흩어져있는 맨상투바람의 부역군과는 구별되는 중요인물임을 인차 알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맥아더장군은 정중한 그의 인사에 가볍게 고개를 숙였던것이다. 그러나 실상 그는 맥아더장군을 비롯한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오해한것처럼 특별히

지체있는 사람도 량반도 아닌, 얼마전까지만 해도 한갖 감영의 리속에 불과했던 《송개》—송경팔이였다. 하긴 그가 해주감영에서 영리로 복무할 때부터도 작년에 려주 고향으로 락향해간 황해도관찰사 민지식의 두터운 신임과 총애를 받아 도사, 비장들도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던 선화당을 제집 안방출입하듯했다는 위인이였다.

이러한 특전이 어떻게 한갖 리속에게 베풀어졌는가 하는것을 두고 당시 사람들가운데 물론이 구구했지만 그의 남다른 리재 수완을 사또께서 특히 어여삐 여기신 까닭이라는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짐작하였다.

감영살이 3년동안에 구환처리요, 역둔전개간이요 해서 이 검산일대에서만도 만여석의 추수를 실어들이게끔 민씨네의 땅을 마련해준 경팔은 지식이가 락향한후 지식의 아들 진사 민태환으로 하여금 검산벌 한중간에 고래등같은 기와집을 짓고 들앉게 한 다음 눌러 집사로 민씨댁의 일을 보아오는터이였다. 그사이 시국의 변천도 소란스러워 몇번이고 물고가 날번했지만 용케 빠져나온 그는 최근에는 득세한 리용구일파에 가담함으로써 어느새 개화가 되여 린근토박이 량반쯤은 턱주가리로 상대하는 처지에 이르렀던것이다. 세상 움직임에 비상히 민감한 그는 이 벽지에 나타난 홍모이양인 일행이 벌써 심상한 위인들이 아님을 직감하였다. 그러기에 모처럼 유산을 떠난 진사님의 뜻을 물어볼 경황도 없이 총총히 알현인사를 여쭈려 나타난것인데 말이 통하지 않다보니 그러지 않아도 각별히 《대범한》 사람인 맥아더장군은 숨이 턱에 닿아 달려온 통역을 거쳐 짤막하게 한마디 질문을 던졌을뿐이였다.

《저 산이름이 뭔지 나는 알고싶소.》

《네, 저 산으로 말하면》 하고 경팔은 두팔을 배허벅우에 합장하고 가볍게 읍을 한 자세 그대로 급히 말을 받았다. 《세상에 이름난 검산이옵고, 이 강으로 말하면 쌍룡강으로 아뢰오. 옛날에 검부와 창을이는…》

장기간의 외국 근무기간에 벌써부터 토민들의 장황한 민속설화에 싫증을 느껴온 맥아더장군은 조급히 말허리를 끊고 아메리카인다운 실무적인데로 이야기를 돌렸다. 그는 아들 다그라스가 황급히 말을 멈춰세운것은 전적으로 이 근방 자연지형에 대해 어떤 군사적인 흥미를 느낀때문일것이라고 확신했던것이다.

《산의 표고가 얼마나 되며 물은 얼마나 깊소?》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중후한 장군의 이 실무적인 질문은 특

히 수자에 밝은 경팔이에게도 기상천외로 들리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삽시에 환하던 얼굴이 어리둥절해져서 눈을 꺼먹거렸다. 하나 그는 손롱간으로 몇천정보의 땅을 이 주머니에서 저 주머니로 옮겨놓은 비상한 재간이 있는 사나이였다. 잠시 당황해있던 그는 제꺽 곤경을 모면할 묘책을 생각해내여 침착하게 말하였다.

《강은 깊은데는 길이 넘고 얕은데는 다만 발등을 적실뿐이외다. 산의 높이로 말하면 소인은 자세치 않으나 저기 참녀암이란 바위에 옛 선비 한분이 검산에 대한 풍월을 새겨두었은즉 자세한 사연은 거기 적혀있을줄로 아뢰오.》

경팔은 똑똑은 하였으나 행인지 불행인지 무식한 사나이였다. 강의 깊이에 대해서는 보편타당성있는 주석을 달았으나 산에 대해서만은 부당하게도 《풍월》이라는 말을 쓰다보니 경팔이만 못지 않게 무식한데다 겸하여 조잡하기까지 한 일군통역들은 어느사이 그 애매몽롱한 말을 자기류로 해석하여 《기록》이라고 고쳐버렸다.

뒤전에서 초조하게 서있던 다그라스 맥아더는 산에 대한 기록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경팔이가 손짓하는 참녀암을 향해 쏜살같이 말을 달렸다. 그는 외나무다리앞에서 훌쩍 뛰여내려 뒤따라온 마사원에게 고삐를 넘겨주고 채찍을 허공에 대고 한번 휘두른 다음 강을 건너갔다. 아들의 과감한 거동에 고무된 장군도 뒤따라 강을 건넜다. 두루막자락을 휘날리며 달려온 경팔이도 뒤따라 강을 건넜다. 외국인들의 류다른 행동에 눈이 둥그래진 구경군들은 익히 잘 아는 참녀암을 새삼스럽게 바라보며 쑥덕거리다가 한사람, 두사람 발볌발볌 검산주봉인 력사봉의 깎아지른 낭떠러지앞으로 다가섰다.

다그라스는 강가에 바투 나앉은 너럭바위앞에 마주섰다. 륙척장신인 그도 그 거창한 바위앞에서는 한낱 딱정벌레같은 존재에 불과하였다. 병풍같이 펑퍼짐한 그 바위에는 과연 수백자의 활달한 상형문자가 새겨져있었다.

《미스터 하라다, 이건 무슨 주문이요?》

《하—》

장군인 아버지보다 소위인 아들이 더 강력한 상전임을 재빨리 간파한 하라다대위는 전례에 따라 대답은 힘차게 하였으나 슬프게도 그는 이미 말한바와 같이 무식한 사람이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경팔이를 돌아보았다. 경팔은 두손을 마주잡고 다시한번 정중하게 읍을 한 다음 입을 벌렸다.

《이것은 어떤 선비가 지은 풍월로서 소인은 자세치 않으나…》
《무슨 소리？ 흠, 바가까(바보로군). …》
하라다대위는 저으기 실망하여 구원이나 청하듯 주위를 휘둘러보았다. 이때 억쇠가 가래자루를 틀어쥔채 다가왔다.
《옳지, 영감이상이나 저거 읽을줄 알았소까？》
억쇠는 어정쩡한 표정으로 한번 빙그레 웃더니 불쑥 대답하였다.
《저건 오랑캐들을 한놈도 이 땅에 들여놓지 말라는 조상들의 당부웨다.》
《오랑캐？ 오랑캐 무슨 말이？…》
그러자 구경군들속에서 와—하고 웃음통이 터졌다. 다그라스는 장화를 탕 구르고 아더 맥아더는 이마살을 찌프리며 조심스럽게 사방을 살펴보았다. 일순 어수선한 분위기가 떠돌기 시작한 이러한 때 산속으로 난 오솔길쪽에서 호령기있는 목소리가 울려왔다.
《어— 그 무슨 일들인고?》
그것은 오래간만에 친구와 더불어 한나절 검산의 봄경치를 즐기고 돌아오는 진사 민태환의 목소리였다. 태환의 뒤에는 키가 후리후리한 40대의 선비가 따라섰는데 그가 이 한겨울을 태환의 사랑방에서 난 화서의 문하생이요, 한때 의암과도 친교가 있었던 벽제 윤함집이였다. 곤두박히는 시국에 실망하여 지금은 허망하게 웃기를 잘하는가 하면 때로는 엉엉 목놓아 울기까지 하는 그를 두고 《아까운 량반이 미쳐버렸다.》고 애석해하는 사람도 없지 않았지만 검산사람들은 량반선비가운데서는 드물게 출중한 인물이라고들 하였다.
태환이가 나타나는바람에 웅성거리던 군중들은 삽시에 진정되였다. 많은 사람들이 무릎이라도 꿇을듯이 허리를 깊숙이 꾸부리며 길을 피하였다.
아직 산산한 날씨였으나 죽선을 펼치고 팔자걸음으로 다가오는 태환의 거드름스러운 거동이며 벽제의 당당한 풍채에 당돌한 두 미국인도 어지간히 기가 질렸던모양으로 부지중 눈길을 떨구면서 자세를 바로잡았다. 경팔이가 허리를 구부린채 다람쥐처럼 민첩하게 상전앞으로 다가가는 사이 하라다대위는 두 미국인에게 말하였다.
《조선량반입니다. 대단히 높은 량반인것 같습니다.》
《량반？ 조선귀족입니까？》
다그라스는 그 소리에 귀가 번쩍하여 허세를 부리노라고 말채찍으로 장화목다리를 두들기며 큼직한 태환의 산호장식을 한 통

영갓이며 봄바람에 펄럭거리는 옥색 장옷을 훑어보았고 벽제의 반백이나 되여 날리는 풍신좋은 구레나룻을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경팔이로부터 사연을 얻어들은 태환은 서서히 죽선을 접어들더니 웅글은 소리로 불렀다.

《여봐라, 게 통변 있거든 이리 나오너라.》

《하.》

하라다는 태환의 위엄찬 목소리에 저도모르게 상전앞에 나서듯 두발을 모두고 한걸음 앞으로 나섰다. 태환은 경망스럽게 생긴 하라다의 초라니같은 행색을 못미더운 눈매로 잠간 훑어보더니 점잖게 입을 벌렸다.

《그대는 내 말을 저 어른들에게 똑똑히 전하여라. 어험, 귀인들께서 루지에 이렇듯 왕림하시니 영광스럽거니와 참괴하기가 또한 그지없소이다. 나는 려주사람 진사 민태환으로 자는 청해요, 호는 고주라하는 사람이요. 구관 황해도 관찰사 지자 식자 함자를 쓰시는 어른께서는 곧 나의 가친이시오, 현 주미 전권공사께서는 나의 당숙되는 어른이요. 손님대접이 소홀함을 과히 허물치 말기를 바라오.》

《하!》

하라다는 다시한번 고개를 가볍게 숙이고나서 영어통역에게 되도록 태환의 틀스러운 말투를 본따려고 애쓰면서 갑절이나 시간이 걸려 가까스로 번져놓았다.

영어통역의 말을 초조하게 다 듣고난 맥아더장군은 새삼스럽게 완미한 조선량반의 그 장황하고 격식바른 례절에 위압이 되기도 하여 한동안 눈만 꿈쩍거리다가 그 역시 군사외교관다운 틀을 갖추고 답변을 주었다.

《당신의 친절한 말씀에 감동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미국인들에 대한 조선귀족의 그런 친절한 환대를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한평생 잊지 않을것입니다. 아울러 당신의 귀족다운 언행에 경의를 표하는바입니다.》

태환은 고개를 끄덕거리며 윤함집을 돌아보더니 다시 입을 벌렸다.

《다시 한말씀 여쭈어라. 비록 루추하지만 내 집이 과히 비좁지 않으니 잠시 들려 로독을 풀고감이 어떠한가 하오?》

맥아더장군은 통역의 말을 듣자 은근히 구미가 동하여 아들쪽을 돌아보았다. 이때 다그라스는 처음 한동안 조선귀족이란바람에 품었던 호기심이 거지반 사그러들무렵이라 체소한 주제에 별

로 거드름스럽게 구는 태환이가 아니꼬와 옆눈으로 매섭게 쏘아보고있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그런 눈치를 채자 인차 자기의 경박한 마음을 눌러버렸다.

《아니 성의는 감사하나 우리는 보는바와 같이 매우 건강하고 또 길이 바빠 예정외의 휴식을 할 형편이 못됩니다. 지금 나의 아들 다그라스와 나는 저 바위에 새긴 글에 대해 매우 큰 흥미를 느끼고있습니다. 당신께서 저 글의 내용을 가르쳐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팔이가 옆에서 또 주석을 달아서야 서양손님들이 무엇을 요구한다는것을 어슴푸레 깨달은 태환은 눈에 의아함을 감추지 못한채 버릇처럼 고개를 끄덕거리며 벽제를 돌아보았다.

《이분들도 시문을 좋아하는 모양이군. 벽제가 한번 읊어드리지. 서양시객들앞에서 고시를 읊는것도 운치있는 일이 아니겠나?》

벽제 윤함집은 아까부터 류다른 양인들의 거동을 엄한 눈매로 훑어보고있었다. 그는 태환의 말을 들었는지 못들었는지 력사암의 거연한 모습을 한동안 우러러보더니 다시 고개를 떨구어 도도히 흘러내리는 쌍룡강의 물줄기를 바라보았다. 그 얼굴에는 이름할수 없는 수심이 비끼고 억실억실한 두눈에는 물기가 어리였다.

《고인의 뜻이 산정기를 이루고 물소리에 젖었으니 어찌 사람의 목소리로 읊어야만 뜻을 알겠나? 허지만 이 어둡고 한스러운 때를 당해 옛글을 읊으며 자칫 어지러워지기 쉬운 마음을 다시한번 가다듬는것도 노상 부질없진 않을것이네.》

벽제는 떨리는 목소리를 진정하듯 잠시 말을 끊고 부역군들을 내려다보더니 갑자기 석쉼하게 쉬여버린 목소리로 애원하듯 말을 이었다.

《여러 동포들, 오랑캐들앞에서 내가 광대놀음을 한다고 생각지 말고 내 경망한 소행을 용서해주기 바라오.》

벽제는 너럭바위의 부를 한옆으로 바라보며 그자리에서 조선말로 새겨 랑랑한 목소리로 읊조렸다. 뜻밖에 조선의 랑송시인을 만난 맥아더부자를 비롯한 외국인들은 물론 이왕부터 벽제와 면목을 익히 아는 조선농민들도 갑자기 엄숙한 표정이 되여 벽제의 우는듯 피를 토하는듯한 절절하고 침통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쌍룡으로 태여났더라, 검부와 창을
태산을 뿌리뽑아 동으로 밀어가니

기름진 천리옥토에 연기가 솟는구나
뉘라서 천지개벽이 하늘의 조화라 하더뇨

남해의 오랑캐 백만군을 양하여도
두 장사 동서에 뻗쳤으니 어찌 강토를 범하리오
다만 두렵건대 싸움에는 언제나 대군이 쳐들어오기 앞서
계집과 중이 지경을 범하는법
가는 허리 반달눈섭 한번 추파에 나라가 기울어지니
요사한 풍류싣고 일엽편주 쌍룡강에 떴구나

간악하다 오랑캐의 흉포, 야릇하다 계집의 롱간
한강물을 먹고 자란 의리 태산같거늘
아깝다, 두 장사 한 미인을 두고
쌍룡강기슭에 백날을 다투는구나

청룡은 구름을 타고 황룡은 비를 불러
검과 창이 서로 부딪치는곳에 번개가 일더라
틈을 엿보던 원쑤들 이미 국토를 범하였는데
어이하랴, 검부는 눈이 멀고 창을이 팔을 잃었으니

연대에 홰불이 타고 고각소리 하늘땅에 어지럽다
후세의 사람들아, 이 일을 명심하라
사나이 한평생 장검을 벼림은 옳은지
이때를 당해 나라의 위태함을 구하고저 함이거늘
오랑캐 지척에 짓쳐온들
눈이 없으니 어이하랴
팔이 없으니 어이하랴

두 장사 통분함에 피눈물 토하는데
도망치는 계집의 요사한 웃음소리 페부를 찌른다
이에 충분히 뻗치지 않는다면
어찌 산천정기를 받았다하리오

눈먼 장사 원한으로 겨냥삼아 장검을 휘둘렀더라
달아나던 배우에서 계집의 비명소리 울릴 때

다시금 휘두르는 장검끝에 아깝다 스스로의 팔이 떨어졌구나

《그대 창을은 듣거라, 내 스스로 이 팔을 참함은
이 팔이 그대 팔을 잘랐기때문
우리는 이적을 물리쳐야 하나니
그대 이 팔을 달고 남으로 가라》

푸른귀 서리발 말발굽이 울린다
기치창검 해빛을 가리우며 군마 싸움터로 갈 때
눈멀고 팔벤 장사 산우로 오르더라
삼년석달 첩보를 기다리며 산우에 섰더라

바람비 눈서리에 굳어졌다
불같은 위국충성에 몸이 불탔나
장검 짚고 선채 바위로 변했더라
남쪽하늘 바라보며 간성처럼 굳어졌더라

아아 쌍룡강 물소리 어이하여 높으냐
참녀암 높은 뜻이 력사암에 굳었으니
불같은 우국충절 후손만대 전하여
칭송의 노래불러 저렇듯이 높더라

벽제가 부를 다 읊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검산에 주둔하고있는 공병중대 책임자인 스가중위가 황급히 달려왔다.

벽제가 읊은 고시의 영향은 상상외로 컸다. 벽제자신은 어느덧 눈물이 취한듯 불카해진 량볼을 타고 줄줄이 흘러내렸으며 목소리는 흐느꼈다. 이에 따라 바위아래 모인 조선사람들의 얼굴에는 비장한 기색이 떠돌았으며 그중에도 억쇠는 틀어쥔 종가래로 그앞에 딩굴어있는 돌멩이를 사정없이 내리쳐서 산산이 바스러뜨려놓았다.

터질듯이 넘쳐흐르는 적의는 둔감한 아더 맥아더장군조차도 부지중 뒤걸음치게 만들었다. 팔도강산 방방곡곡에 의병이 활개치던 때요, 남의 나라를 통과하는 외국군대가 의례히 봉착하는 반항보다 몇갑절이나 날카로운 적의에 한시도 발편잠을 못자는 일본 군사들이였다.

다그라스는 그러지 않아도 살기띤 눈을 한층 날카롭게 번뜩이며 도전적으로 아까부터 불쾌하게 보아왔던 《천하대장군》을 힘껏 발길로 걷어찼다. 그러자 《천하대장군》은 그 수천년 벼려왔던 분노를 일시에 터뜨렸다. 오랜 비바람에 썩은데다 봄비를 함빡 머금은 장승은 다그라스의 힘찬 발길질에 와르르 쓰러지면서 진흙탕같은 곰팽이와 물티를 휘뿌려던졌다. 말쑥하던 사관복은 삽시에 불성모양이 되였다. 와— 하고 웃음이 터져올랐다.

《거 장하군, 개화한 량반들 보아…》

억쇠가 다그라스를 가리키며 유독 크게 로골적인 야유조로 웃었다. 다그라스는 성이 꼭뒤까지 치밀어 주먹을 부르쥐고 농민들을 쏘아보았다. 험악해진 분위기에 당황한것은 민태환이와 스가중위였다.

《어, 이 무슨 짓들인고?》

태환이 발을 구르는것과 동시에 스가는 맥아더장군에게 경례를 붙이고나서 큰길쪽을 가리켰다. 거기에 한 일본장군이 말을 멈추어세우고있었다.

《다그라스, 어서 가자. 데라우찌장군이 벌써 우리를 따라왔구나.》

자칫하면 무슨 일을 저지를것만 같은 아들의 등을 떠밀다싶이 앞세운 맥아더장군은 조선귀족에게 정중히 인사를 하고 조선농민들에게도 눈인사를 보낸후 총총히 그 자리를 떴다. 외나무다리앞에서 걸음을 멈춘 그는 자기들이 미국본토와 필리핀 등지에서 원주민들을 길들이던 경험을 당지주둔 일군장교인 스가에게 일러주었다.

이튿날 스가는 헌병분견소에 말하여 민태환의 사랑방에서 벽제를 체포해갔는데 민태환은 동문수학하던 시우가 잡혀가는것을 차마 보기 딱했든지 무슨 하찮은 핑게를 대고 집을 비웠다. 그날밤에 대장쟁이 억쇠와 검산농민들이 부당하게 체포된 벽제를 빼오도록 탄원하러 오자 오히려 사랑앞에 꿇어앉혀놓고 물볼기를 치면서

《이 불칙한것들, 너희 상놈들이 감히 국사를 론하다니 릉지처참을 할것들!》하고 호통하였다.

벽제는 수일후에 놓여났으나 옷이 찢어지고 갓이 망그러진채 태환의 집은 본체도 않고 표표히 먼길을 떠나갔다.

민진사네 마당에서 장독이 올라가지고 나온 억쇠는 달포를 몸져누웠다가 기동을 하자 도끼 한자루와 창 한틀을 벼려가지고 밤을 타서 동네를 빠져나가고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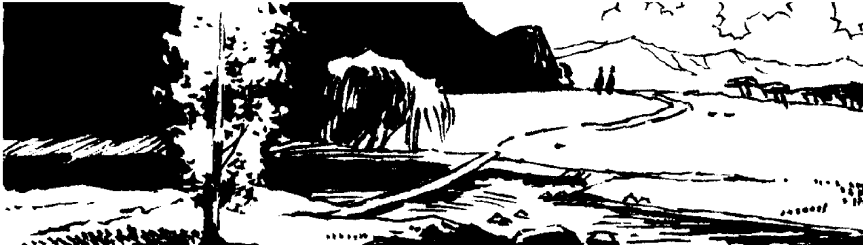
후날 벽제와 억쇠가 같은 의병부대에서 싸우고있는것을 직접 보

았다는 사람도 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다.
　한편 맥아더부자는 기마행군을 계속하였다. 까치가 어지러이 우짖는 동네를 지나고 실개천을 낀 버들방천을 걸었다. 졸음이 함빡 서려있는 나루가 있고 악마디진 주먹같은 산이 있었다. 과연 조선이라는 나라는 산이 많은 나라이다. 그런데 북으로, 북으로 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따라 꽃의 계절도 따라오는양, 간데족족 함빡 벌어지기 시작한 진달래와 영산홍이 그들을 맞이하는것이였다.
　이제는 역정에도 만성이 돼버린 다그라스는 어느날 문득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실로 놀랄만한 한가지 발견을 하였다. 그것은 말썽 많고 오끗잖은 이 자그마한 나라가 몹시도, 지어 인간에게는 과분할 정도로 아름답다는 그 점이였다.
　어느 산기슭에서 휴식하던 다그라스는 갑자기 사춘기의 소년처럼 마음이 들떠서 바위앞에 핀 진달래 한가지를 꺾어들고 냄새를 맡았으며 강아지가 내불린 미끈하게 물오른 버들가지를 매만져보았다. 포근한 봄안개가 떠도는 연록색 들판에서 아득한 옛날에 잊어버린 그의 노래인양 종다리가 지지배배 우짖었고 등뒤 어딘가 깊은 골짜기에서는 꿰여진 양말짝처럼 오래전에 내동댕이친 그자신의 인간성을 조상하듯 구슬픈 뻐꾹새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다그라스는 눈물이 핑 돌아 쓰러지듯 금잔디밭에 드러누웠다. 일찌기 그가 밟아온 어느 유명한 별장지대도 값비싼 쏘파도 밤새도록 다둑거린 깃털 베개도 그렇듯 아늑하고 부드럽게 그의 몸을 감싸주지는 못했다. 아름다운 땅 그리고 저 푸른 하늘… 다그라스는 두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났다.
　《이 각본은 너절하게 씌여졌어. 어찌하여 이 훌륭한 땅을 일본인에게 내맡긴단말인가? 루주벨트나 다프트가 현미경으로 찾는대도 세계지도에서 이이상 아름다운 식민지를 얻어내지는 못할것이다. 각본을 다시 써야 한다. 어느때인가 이 다그라스 맥아더의 손으로 새로운 연극을 공연하고말테다. 이 조선이라는 화려한 무대에서…》
　얼마후 그는 일본군들이 차지한 금주성 부근의 어느 고지에 있었다. 그의 몸에 지나치게 많이 흘러들어간 호전적인 스페인계 미국인의 피는 북부조선을 지나면서 철석같이 다진 자기 맹세를 어느새 잊어버리고 그가 그처럼 경멸하던 조선을 일본인에게 넘겨주기 위한 서투른 각본에서 적지 않게 중요한 출연자로 등장하는 경망한 행동을 감행케 하였다.
　그날 일본군보병들은 로씨야병사들이 차지한 맞은편 고지를 공격하다가 여섯차례나 격퇴당했는데 그 참담한 패잔상을 목격한 그의

몸에서는 피가 끓어번졌다. 이딸리아평야를 향해 원정군을 호령하며 뛰여내리는 청년나폴레옹의 형상이 눈앞에 언뜻언뜻 지나갔다. 다그라스는 하느님만이 알 야릇한 충동에 이끌리여 《와—》하고 야생적인 고함을 지르며 로씨야인들의 진지를 향해 질풍같이 내달렸다. 의기소침해있던 일본군사들은 다그라스 맥아더의 광란적인 정열에 이끌리여 그의 뒤를 따랐다. 마침내 고지의 정점은 점령되였다.

실전에서의 청년 맥아더의 작전지휘능력은 이때부터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그 망발이 있은지 얼마가 못되여 로일전쟁은 일본의 승리로써 결속되였고 미일군국주의두목들의 이미 합의된 계획에 따라 조선은 일본에 완전히 예속되였다.

다그라스 맥아더는 그후 화려한 승진의 길을 밟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꿈많은 청년시절에 그처럼 자기의 가슴에 영웅심과 전투의욕을 불러일으킨 조선땅이 왕청같이 일본에 예속된것을 생각할 때마다 가시가 걸린것처럼 가슴을 뜨끔뜨끔 찌르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그러나 실상 다그라스는 무서운 오해를 하고있었던것이다. 그는 일본인들이 발행한 지도만 보았지 실지 조선을 보지 못했고 아름다운 조선의 자연, 꿈결같이 포근하기만 하던 버들방천과 연두빛 들판과 우짖는 까치, 지저귀는 종달새, 붉게 핀 진달래와 도끼날을 맞아 눈물같은 진이 배돌던 나무등걸만 기억했지 자기 덜미를 내려누르는것만 같던 검산의 장엄한 모습이며 피눈물을 토할듯 고시를 읊조리던 애국서생의 랑랑한 목소리 그리고 적의에 차서 종가래자루를 틀어쥐고있던 대장쟁이 억쇠와 같은 조선인민에 대해서는 기억이 희미해지고있었다. 허영심이 강한 인간들의 기억력이란 편리하게 돼있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는 당초에 없었던 무훈담도 창조하여 기억하는가 하면 제 녀편네를 강간당한것과 같은 사건도 쉽사리 잊어버린다. 그리하여 다그라스는 자기들 부자를 우습게 취급하던 조선사람들의 그 당당하던 자태는 죄 잊어버렸던것이다. 그것이 근 반세기나 지난후에 그의 필생의 야심을 한바탕 봄꿈으로 만들어버릴줄 알았다면 필리핀 주둔군 사령관이나 미륙군 총참모장과 같은 높은 직위에 있으면서도 그 당시 조선에서 특히 백두산일대에서 미국위정자들이 작성한 범죄적인 세계분할계획의 일환으로서의 일제조선강점을 반대하여 조선인민들이 얼마나 영웅적으로 싸웠고 또 조선인민이 얼마나 강력하고 지혜롭고 전투적인 민족으로 성장하였는가에 대하여 상식의 범위에서나마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았을것이다.

제 1 편

1

세월은 흘렀다. 비극의 단서를 열어놓은 갑진년으로부터 어느덧 마흔여섯번째 봄이 찾아왔다. 이해의 봄은 류달리 수집어 면사포같은 안개를 폭 쓰고 검산기슭에 살그머니 얼굴을 내밀었다. 피비린내와 흙먼지속에 지고새던 그 시절에조차 어김없이 찾아오던 봄이였다. 그러한 봄이기에 제철이 무르익기도전부터 쌍룡강기슭에는 벌써 버들강아지들이 부풀어올랐으며 검산의 바위짬에는 나리가 황금처럼 박히고 또다시 진달래가 떨기떨기 붉어올랐다. 청명,곡우를 지나 5월달에 접어들자 모든 산과 들이 새각시같이 성장을 하고 나섰다. 진달래가 철쭉으로 바뀌고 검산일대에 향기를 뿜던 수수꽃다리가 시들어지더니 벌과 나비가 뚝뚝 듣는듯한 초록빛 잎사귀들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지금은 검산벌과 쌍룡강기슭 어디라할것없이 하얗게 버들꽃이 날리고있다. 내리려다가는 아쉬운듯 다시 중천을 훨훨 날아가는 이 꽃눈은 검산벌을 단장하는 분가루와도 같다.

오랜 시련을 거치는 사이 력사봉도 검산벌도 몰라보게 변하였다. 민태환의 집도 이제는 그앞에 마주선 정거장과 교회당,미국인선교사들과 와다나베 겐지에 의해 개발되기 시작한 검촌철광의 사원사택들에 둘러싸여 그 오만하던 서슬이 한풀 꺾여버렸다. 새로 치도가 생기고 철길이 놓였으며 검산벌 한쪽구석에는 로천광산이 점점 터를 확장하여 어느덧 《두더지》라고 불리우는 굴착기의

소음이 온 들판을 뒤흔들어놓았다. 서너개 해묵은 비석이 외롭게 서 있던 비석재에는 민태환의 아들 민성직이 군수로 취임하면서 민씨네 일가가 배출시킨 선정관의 송덕비,치적비에 효자비,렬녀비 따위가 수두룩이 들어찼었다. 그리고나서 세상은 또 태질을 하듯 다시한번 뒤집혔다. 사랑방에서 하는 기침소리가 검산벌 10리사방에 메아리친다던 서슬푸른 민씨네 일가도 오늘은 서울 어느 구석으로 쫓겨가고 갑진년 당시의 유일한 목격자인 송경팔은 이미 로망하여 방안에서 오줌똥을 싸게 된 여든두살의 고령에 광복과 토지개혁을 당하여 요강항아리와 함께 토지문서보따리를 한짐 걸어싣고 민씨네 제2대 마름인 아들 근배의 지청구를 들으며 38선을 넘어갔다. 지금 민태환의 아흔아홉간짜리 집은 군인민병원이 되였고 중시원리 송경팔의 집에는 모범농민이며 군대의원으로 된 김갑수의 둘째아들 김병모일가가 들었다.

이제 검산벌에는 그 옛날의 어느 이러한 봄날 력사봉앞에 찾아들었던 서양나그네도 그앞에서 고시를 읊조리던 벽제 윤함집의 랑랑한 목소리도 그리고 텁석부리 대장쟁이 박억쇠가 장독이 오른 몸으로 도끼와 날창을 벼려들고 의병을 찾아가던 사연도 그 모든 기구했던 세상풍파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봄은 구질구질한 온갖 력사의 오물들을 말끔히 쓸어버린 오늘에 와서 한결 정갈하고 아늑하고 다정해진듯싶다. 벌써 봄갈이에 바쁜 들판우에 종다리가 높이 떴고 검산 깊은 골짜기에서는 산비둘기소리가 구성지게 목청을 돋군다. 귀가 따갑도록 소란을 피우던 광산의 《두더지》소리도 오늘은 봄기운에 무르녹아 포근히 들판에 찾아드는 졸음을 퉁탕퉁탕 부드럽게 날려준다.

검산사람들이 눈물과 한숨으로 자기 수난의 길을 내던 그 군용도로도 오늘은 조선의 농촌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는 한산한 달구지길로 변하고말았다. 경의선철도가 황주,사리원으로 빠지게 되자 일등도로도 철길을 끼고 새로 뻗은 우에 철광이 들어서면서 송림으로 통하는 새 치도가 나고보니 검산아래 세 시원리동네를 거쳐 멀리 구월산을 에돌아간 이 길은 한가해질수밖에 없었다.

처음 길을 낼 때 애처롭게 찍혀나간 버들이며 소나무며 은행들은 길가에서 형체를 감추었다. 검질긴 아카시아만이 뿌리를 뻗고 새순을 내밀더니 지금은 어느새 아름드리 거목으로 되여 벌써부터 뭉클한 꽃향기를 풍기며 황토먼지가 자욱하게 깔린 길바닥우에 짙은 그늘을 드리우고있다.

봄날 한낮때의 이 한적한 가로수길로 기름묻은 작업모를 뒤통수에 삐딱하게 붙여쓴 목대가 가느다란 청년이 역시 기름묻은 작업복주머니에 두손을 찌르고 혼자 빙글빙글 웃으며 걸어가고있다. 후리후리한 몸집으로 보나 스물두엇에 났음직한데도 어딘가 애숭이처럼 수염 한대 없이 맨숭맨숭한 희고 기름한 얼굴로 보나 그가 텁석부리 억쇠의 손자라고 알아보기는 힘이 들다. 그러나 군살없이 긴장된 살갖은 말할것도 없고 기름묻은 작업복밑에서 흔들리는 늘씬한 몸매에서는 대장쟁이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강철의 근육이 느껴진다.

억쇠가 야음을 타서 스가와 민태환이 늘여놓은 올가미에서 빠져나가던 날 밤 검산아래 하시원리 한귀퉁이의 찌그러져가는 대장간에서는 아직도 젊던 그의 안해가 여덟살짜리 외아들 수동이를 끼고 눈물로 한밤을 지새웠었다. 그후 열화같은 넋을 어느 산정에 묻었는지 감감 소식이 없는 남편을 기다리며 안해는 아들을 다시금 대장쟁이로 키웠다. 후에 남편이 남겨놓고간 손바닥만하던 땅뙈기도 송근배에게 들리우고 한해에 모진 홍수끝에 가물이 겹쳐들었다. 동네가 몽땅 페농하다싶이 되여 낫가락 하나 벼릴 일거리조차 없게 되자 수동이는 광산에 들어갔는데 바로 그해에 어머니는 부황이 들어 몸져눕더니 끝내 돌아오지 못할 길로 떠나고말았다. 그 몇해후에는 수동이도 굵은 몸으로 광차를 밀다가 쌍룡강부두로 난 내리막길에서 쇠돌무지에 깔리고말았다.

시운이 빚어낸 가풍처럼 수동이도 세진이와 세철이 두 형제를 역시 젊은 안해손에 남겨두고 그렇듯 비명의 횡사를 했던것이다. 그런데다 큰아들 세진이는 열다섯살 잡히던 해에 드난살이하던 선교사 골드빈의 집에서 골드빈의 아들 윌리암과 대판으로 싸운끝에 식당에서 상아자루 달린 나이프를 들고 도망쳐가더니 광복이 되여 벌써 다섯해가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었다. 그리고보니 억쇠의 피줄로 남아있는것은 이 목대 가는 세철이 한사람뿐인셈이다.

봄기운이 소리없이 찾아든 한산한 길, 부형 삼대의 피눈물이 피여있는 이 들길을 걸어가는 그에게는 지금 악몽같은 시절에 대한 기억이란 전혀 없다. 저혼자 빙글빙글 웃는품이 일견 좀 모자라는것 같은 인상조차 자아낸다. 문득 걸음을 멈춘 세철은 방금 자기가 나온 광산당부를 피뜩 돌아보았다. 마광기가 목갈린 소리를 질러대고 그에 따라 넉장의 유리가 달린 출입문이 가볍게 흔들리고있을뿐 별다른 동정은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 다시 걸음을 옮겨놓

은 세철은 이번에는 입밖에 새여나올만큼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내가 대학생이 돼？ 허참…》

그는 방금 광산당위원장으로부터 **김일성**종합대학 예비과에 추천됐으니 시험준비를 든든히 하라는 말을 듣고 오는 길이다. 세철은 아직 대학생이란것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다. 더구나 자신이 대학생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본적은 전혀 없었다. 그렇기때문에 당부앞에서 만난 안휘태기사에게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한답시고 한 말이 고작 《기사동무, 내가 대학생이 된대요.》하는 밑도 끝도 없는 싱거운 말이였다.

안기사도 그의 말을 처음 듣고는 다소 어리둥절한 낯색이였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미리 무엇인가 눈치를 채고있었던 모양으로 인차 고개를 끄덕거리며 말했었다.

《그래？ 그참 반가운 소식이군.》

안기사의 표정이 예상외로 평범한데 다시한번 떨떨해진 그는 그 선량해보이는 허여멀쑥한 안경잡이 얼굴을 바라보았다. 휘태는 얼마전 발파현장에서 흙덩이에 얻어맞아 부러진 꺼먼 안경다리를 흰실로 동여매고 다녔는데 최근에는 그 위태위태한 안경다리를 매만지는 버릇이 생겼다. 그는 방금 어디서 돌멩이가 또다시 날아올가봐 겁이 나는듯 그 볼품없이 돼버린 안경다리를 매만지며 이윽히 세철을 들여다보더니 어깨를 가볍게 두들겼다.

《로동계급이 공부를 해야지, 이젠 나라의 당당한 주인이 됐으니.》

뚜벅뚜벅 걸어가던 세철은 안기사의 이러한 말이 생각나서 걸음을 멈추고 억지로 심중한 낯빛이 되였다.

《이건 참 보통문제가 아닌걸. 당부에서 나를 추천했다니 이게 그럼 당적과업이 아닌가？…》

다양한 봄볕이 자글자글 내리쬐는 들길우엔 어디로 가나 함박눈같이 소담하게 버들꽃이 날린다. 바람도 없는데 이 때아닌 함박눈은 사처로 훨훨 날아다녔다. 아카시아꽃향기가 진한 액체처럼 떠도는데 꿀벌들이 소란할만큼 붕붕거린다.

세철은 흥분때문에 손바닥에 질펀히 땀발이 내뱄으나 주머니에서 손을 뺄 궁리도 않고 그냥 생각에 잠겨 걸었다.

안휘태가 방금 한 로동계급이요, 나라의 주인이요 하는 말들을 다른 자리에서도 한두번만 아니게 들어왔으나 세철이자신에게는 아무래도 그런 거창한 말은 생활상 개념으로 똑똑히 안겨오지 않았

다. 그러기때문에 공교롭게도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입가에 어려있군하는 경망한 웃음을 억지로 내리누르며 엄숙한 표정을 짓느라고 애를 써보기도 한두번이 아니였다. 그러나 이마에 주름살을 새기고 저도모르는 사이 까다롭게 돼버린것만 같은 자기 처지를 억지로 자각한다는것은 천성이 무른 스물두살의 그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수 없었다. 하긴 광복직후 얼마동안은 그자신이 그러한 말을 목이 쉬도록 했고 입당을 심의하는 회의같은데서는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맹세도 다졌었다. 그러나 점차 흥분이 가라앉고 광복직후의 혼란이 하나하나 정리돼나가자 어느덧 세철이도 철광공무직장의 한 로동자라는 평범하고 관습적인 처지에 몸도 마음도 잦아들고말았다. 그런데 대학에 간다는 뜻밖의 새소식이 평지풍파와 같이 잔잔하던 가슴에 새로운 돌개바람을 일으켜놓았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처리해야 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닐것 같았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의례 빠지는 미궁에 그역시 빠져들어 머리속이 엉클어지기만 했다. 당면한 극히 단순하고 하찮은 일들, 가령 어머니에게 어떻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야 할것인지, 자기가 평양으로 가게 되면 다리를 저는 어머니는 누가 모시게 될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남의 눈에 뜨이지 않게 보패를 만나겠는지, 또는 겨우 소학교와 성인중학교를 나왔고 군당강습을 몇번 받았을뿐인 자기가 대학입학시험을 치기 위하여 소문에 듣기는 삼복에 화로를 끼고 앉았기보다 더 땀을 뺀다는 그 수학이며 로어며 하는 따위 무시무시한 과목들과 어떻게 씨름을 해야 할것인지 하는따위 일들에 대해서조차 아무런 궁리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가슴은 언젠가 동무들에게 끌려가서 처음으로 입에 대본 소비조합식당의 18도짜리 소주를 한꺼번에 병채로 들이킨것모양 활랑거렸다. 입가에는 남이 보면 면구스러울만큼 실없는 웃음이 자꾸만 피여올랐다. 그런 자신을 발견하자 세철은 황급히 웃음을 거두고 눈을 부릅뜨며 괜히 엄숙하게 중얼거렸다.

《아니야, 그럴수야 있나?》

물론 그 말뜻은 그자신도 모른다.

이런 착잡한 머리속때문에 세철은 자기뒤를 따라오는 보패의 발걸음소리를 전혀 감촉하지 못하였다.

보패는 지금 세철이 이상으로 마음속이 어수선하였고 그우에 초조하기까지 했다. 그는 읍내 언니네 집에서 여기까지 근 두마장

길을 반달음을 놓다싶이 급히 걸어왔다. 그런데 앞서가는 세철이의, 그것도 한절반 미쳤거나 반편같이 된 어처구니 없는 뒤모양에 부닥친것이다. 급한 마음 같아서는 얼른 앞질러나가고싶었다. 그러나 사내앞을 처녀가 앞지를수도 없고 혹 용기를 짜낸다 해도 당돌한 행동을 하다가 그러지 않아도 지꿎은 세철이에게 무슨 싱거운 소리를 들을지 알수 없었다. 인기척이라도 내면 길을 비켜줄가해서 우정 바투 다가서보는것이였으나 알은체도 않고 혼자 히죽히죽 웃으며 여드레 팔십리로 흔들거린다. 아무래도 정신이 온전한것 같지를 않았다. 괜히 무섬증이 나기도 했다. 자동차도 어길만큼 길은 넓었으나 보패는 괜히 또 하나 시름이 늘어 가끔 아니꼬운 눈매로 후리후리한 몸집에 비해서는 떡판처럼 든든해보이는 세철의 넙적한 작업복등을 쏘아보군하였다.

《흥, 게으름뱅이같이… 기름은 잔뜩 묻혀가지고… 광산일은 혼자 하는가부지…》

작업복등에 게발린 그리스며 손바닥만큼씩이나 번진 윤활유자욱이 보패의 가슴을 언짢게 만들었다.

그러나 다음순간 남자옷차림에 공연한 걱정을 하고있는 자신을 발견하자 갑자기 가슴속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럴사해서 그런지 이른봄인데 날씨가 몹시 무덥게 느껴졌다. 소매자락에서 손수건을 꺼내여 코등을 문지르며 괜히 어머니때문에 옷을 껴입고 나왔다고 후회가 되여 새삼스럽게 자기 옷매무시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스스로 보기에도 흠잡을데는 없었다.

새하얀 옥양목 겹저고리에 검정통치마가 날렵한 몸매에 어찌나 잘 어울렸던지 뉴똥이며 비로도며 하는따위 색스러운 옷가지를 휘감은 전날의 멋쟁이 아낙네들이 오히려 무색해질것만 같았다.

검산의 주봉인 장사 검부가 장검을 짚고 섰다는 력사봉의 이목구비가 똑똑해질만큼 가까와지고 산기슭을 씻으며 흐르는 쌍룡강 물소리가 들려왔다. 움푹 패인 두줄기 달구지바퀴자리가 아슴푸레 비석재를 넘어서고 그 령우에 엇비듬히 실그러지고 넘어진 관찰사 민아무개의 선정비며 진사 민 아무개의 효자비따위가 형체를 드러냈다.

보패는 아무래도 실성한것처럼 생각에 골몰해있는 세철이가 자기를 돌아볼 기미도, 길을 비켜줄 눈치도 보이지 않자 잠시 웃이로 아래입술을 자근거리다가 갑자기 부르터서 치마자락으로 바람을 일으키며 앞으로 빠져나갔다.

《아 보패.》

불시에 씽 소리가 나게 옆을 빠져나가는 처녀의 뒤모습을 보고서야 제정신이 든 세철은 깜짝 놀라 필요이상 큰소리를 질렀다. 무척 뜻밖이였고 또 그만큼 반가왔던것이다.

보패는 본체도 않고 고개를 오연히 세운채 표일한 태도로 썩썩 걸어갔다.

《이봐 보패, 같이 가자구. 그러지 않아도…》

어리둥절한 세철의 목소리였으나 처녀는 여전히 야릇한 반발심에 끌려 걸음만 다우쳤다. 그러다가 《자, 이건 귀가 먹었나…》 하는 소리가 들려서야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자기는!》

《응, 나? 하하하, 날 불렀댔나?》

세철의 이런 넉살좋은 반문에 보패는 어처구니가 없어 말도 못하고 눈만 말똥말똥 떴다. 스물두살에 벌써부터 녀자앞에서 우쭐하기 좋아하는 모든 사내들에게 고유한 파렴치성을 갖추기 시작한 세철은 보패가 자기를 뒤따라오면서 애타게 불렀다고 속단해버리고 그에 대한 보수나 지불하듯 제법 상냥한 투로 묻는것이였다.

《그런데 어데 갔다 오는 길이야?》

녀자란 사내들의 그런 비위에는 숙명적으로 약하다. 세철이가 주머니에서 손을 빼내고 서둘러 따라서자 보패는 모든 노염이 다 풀려 경솔하게도 입귀를 벌려 새하얀 이속을 알릴듯말듯 드러내보이며 방그레 미소까지 지었다.

《언니네 집에… 언니가 몸풀게 됐어.》

보패의 이런 대답에 세철은 놀랐다.

《몸을 풀다니? 그건 무슨 병이야?》

《병은 무슨 병, 해산하게 됐다는데…》

《아이를 낳는단말이지 경패가? 오—라, 그래서 안기사가 안절부절 못하댔군. 그래 아일 낳았나?》

《으응.》

보패는 불시에 시름겨운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 모습은 큰 불행이라도 겪는 사람 같다. 그때문에 세철이도 부풀어오르는 자기 마음을 억지로 누르며 저 역시 매우 무거운 기분이노라는 표정을 짓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면서 해산에 대한 지식이라고는 자신이 해산을 거쳐서 이 세상에 태여났다는것밖에 모르는 사람답게 농통한 질문을 한마디 하였다.

《왜 무엇이 잘못됐나?》

《아니, 낳을듯 낳을듯한데 못낳지 뭐야? 끔찍해서 못보겠어.》

보패가 자기 말을 심중하게 대해주는데 자신을 얻은 세철은 다시한번 대담한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돌아가면 어떻게 하지? 미역국도 끓이고 그 배꼽도 떼줘야 하잖어?》

《피— 배꼽은 왜 떼?》

여기서 세철은 여지없이 당황망조해버렸다. 그는 떨떨해서 그러지 않아도 큰눈을 디룩거리며 더듬거렸다.

《그래두 뭐 배꼽떨어진다고들 하잖어? 그 뭐야…》

《떨어지긴 어디서 떨어진다구그래? 자르지. 그런건 어머니가 계셔. 어머니 말이 아무래도 오늘밤중으로는 낳을것 같지 못하대. 그래서 나더러 돌아가 집일을 보라는거야. 난 언니가 불쌍해서 못견디겠어.》

보패는 몹시 근심스러운 모양으로 가볍게 한숨까지 지었으나 자기대로 흥분해있는우에 쓸데없는 배꼽바람에 주눅이 들어버린 세철은 그까짓 일은 다 하찮은 일이라고 치부해버렸다. 사실 그의 생각에 의하면 경패가 아이를 낳는것때문에 그 녀자를 불쌍하게 생각할 까닭은 조금도 없을상싶었다. 그래서 보패의 부질없는 수심을 날려줄양으로 여태 억지로 짓고있었던 그 근심스러운 안색을 제먼저 깨끗이 씻어버리고 사뭇 들먹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봐 보패,그건 다 쓸데없는 생각이야. 녀자란 다 아이를 낳게마련이거던. 그런데 내겐 진짜 굉장한 일이 생겼어. 내 말 들어볼테야?》

보패는 말없이 세철이를 돌아보았다. 긴 살눈섭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검은 동자가 의아스러운 표정과 함께 여태 자기 말에 대해 조금도 심중한 관심을 돌리지 않은데 대한 비난을 만만찮게 풍기고있었다.

세철은 움푹 패인 달구지홈에 걸채여 비칠거리면서 말하였다.

《나말이야, 오늘 당부에 불려갔는데…》

이때 빵빵— 하고 불시에 자동차경적이 울려왔다. 그바람에 두사람은 소스라쳐 길량쪽으로 화닥닥하고 떨어져 달아났다. 다행히 쌍룡강에서 째낸 물도랑의 토관이 큰길밑을 지나고있었다. 두사람은 마치 콸콸 흘러가는 물이라도 구경하는것처럼 깊숙이 고개를 떨구고 물도랑을 들여다보았다.

이 근방에서는 보기드문 군용 윌리스 한대가 누런 먼지구름을

피우면서 달려오더니 삽시에 두사람사이를 들컹거리며 지나쳐갔다. 돌아서있던 두사람은 먼지가 가라앉은 다음에도 인차 얼굴을 돌릴 엄두를 못냈다. 무엇인가 못된 장난을 하다가 들킨것처럼 쑥스럽고 거북한 기분이였다. 게다가 차안에서 웬 군관이 고개를 내밀고 두사람을 유심히 돌아보는바람에 얼굴들이 홧홧 달아올랐다.

《싱거운 사람 다봐…》

보패는 얼굴이 빨개져서 입속에서 중얼거렸다.

《누구 아는 사람 아니야? 자꾸 내다보는걸…》

얼핏 보기에 젊어보이는 그 군관이 중성을 세알이나 박은 고급군관임을 알아보자 두사람 다 더욱 의아스러운 표정이 되였다.

《어디로 갈가? 이 근방엔 부대가 없는데.》

《별걱정 다하지. 정말 사내들이란 다 싱거운가봐. 뭘 그렇게 자꾸 내다볼가.》

광복직후 보안간부훈련소에서 근 1년간 훈련을 받은 일이 있기때문에 당시의 상관들 얼굴을 하나하나 그려보던 세철은 별로 뾰로통해있는 보패가 민망스러워 한마디 퉁을 주었다.

《내다보면 뭐래?》

《그래두 창피하니까…》

자동차가 비석재너머로 사라진 다음에야 두사람은 나란히 서서 걸었다. 그러나 말문은 둘다 막히고말았다.

세철은 자동차바람에 삼켜버린 그 말을 다시 꺼내기가 어쩐지 멋적게 생각되였다. 보패는 보패대로 대낮에 사내와 나란히 걸어가는꼴을 누군가 어려운 사람에게 들킨듯하여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였다.

길은 비석재너머로 곧게 뻗어나갔다. 무르녹은 봄기운속에 꽃향기와 풀냄새가 침전된듯이 무겁게 잦아있었다. 고개마루우 이끼낀 비석들이 흰빛을 뿌리고 길우에 비낀 가로수그늘이 금을 그은듯 선명한 륜곽을 드러내고있었다.

타박타박하는 두사람의 발걸음소리가 동강나면 그 짬짬으로 넓은 들사처에서 소의 영각소리가 음매— 하고 긴 여운을 끌며 아지랑이 낀 움직이지 않는 대기속에 한동안씩 떠돈다. 버들꽃이 날린다. 발걸음을 옮겨놓을 때마다 곱게 친 떡가루같은 보드라운 먼지가 세철의 투박한 로동화우에,보패의 고무신과 흰 버선발우에 사뿐히 올라앉는다.

보패는 고개를 숙이고 나란히 옮겨놓이는 두사람의 크고작은 발등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당부에 가서 어쨌다는걸가? 갑자기 벙어리가 됐는가봐! 정말 얄미운 자동차…)

비석재턱밑에 이르니 길은 검산기슭으로 바투 다가서면서 바로 발밑에 싱그러운 물비린내를 풍기며 쌍룡강이 흘러간다.

세철은 자기의 크나큰 흥분과 감격을 보패에게 말하기에는 시간도 장소도 부적당하다는것을 문득 통감하였다. 고개만 넘어서면 하시원리로 들어가는 갈림길인데 보패는 거기서 두마장이나 큰길을 더 내려가서 중시원리로 들어가야 하는것이다. 그렇다고 이렇게 길가에 서서 더구나 동네를 코앞에 두고 《나 대학교 가게 됐어.》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버릴수는 도저히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러자 대담성이 떠올랐다.

쌍룡강우에는 예나 다름없이 무슨 철학적명상에 잠긴듯한 한가닥 외나무다리가 건너갔다. 그는 입술을 꾹 다물고 대안에 서있는 한그루 백양나무를 향해 자신만만한 태도로 외나무다리를 건너갔다.

세철이가 다리한가운데 이를 때까지도 보패는 고개우에 서서 망설였다.

그는 강을 건너가자는 세철의 말없는 제의에 선뜻 응할수가 없었다. 세철이가 돌아서서 하다못해 눈짓이라도 해주었으면 덜 주저가 될것이였으나 그는 제가 건너가면 의례 따라오겠거니 하고 우쭐해서 곧장 강을 건너가기만 한다.

보패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섰다. 마치 자기 운명을 점쳐보듯 외나무다리를 바라보는 보패는 무시무시한 생각이 났고 왜그런지 눈앞에 핑하고 물안개가 서리기도 하였다. 그는 하얗게 날리는 버들꽃속에 서서 이 몇해동안에 갑자기 부자집 마나님처럼 몸이 나고 그에 따라 점차 주책이 없어져가는 어머니를 생각하였다. 어머니에 비하면 살림이 펴이기 시작한 이즈막에 와서도 늘 뼈대가 꿋꿋하고 앙상해있는 아버지 병모의 다정한 눈매도 떠올랐다. 어머니가 광산 운수부장 장인택을 집에 붙여서 자주 자전거를 타고 들락날락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는 시나브로 말싱갱이가 늘어갔다. 광복전에는 쪼들리는 살림에 어디 목노판에서 대포나 한잔하고 돌아오는 날이면 어머니의 머리끄뎅이를 일쑤 잘 두르던 아버지였다. 그때문에 경패며 오빠 성기와 함께 보패는 늘 어머니편이였고 아버지가 행패를 부리고 훌쩍 집을 나간 다음이면 어머니의 무릎을 하나씩 안고 울면서 아버지를 욕하고 숫제 따로 나가살자고

곧잘 조르기도 하였었다.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말했었다.
《철없는 소리들 작작해! 아버지가 오죽 속이 상하시면 그러겠니. 속썩이지 말고 어서 잠들이나 자!》
그러던 어머니가 요즈음 몸이 나면서 딴사람처럼 사나와지고 심술까지 생겼다. 한편 짐을 바꾸어진듯 아버지는 온순해졌고 그에 따라 집안의 대소사는 모두 어머니의 주관아래 들어갔다. 어머니의 세력이 늘어가서 아버지가 움쭉 못하게 되자 아이들은 모두 아버지편으로 기울어졌는데 최근에는 보패 혼사문제를 두고 건드리면 당장 터질것 같은 험한 공기가 떠도는터이였다. 집안을 쥐락펴락하게 된 어머니는 큰사위 안휘태의 반연으로 장인택이를 알게 되자 제꺽 작은사위감으로 점쳐놓고 요즘은 적잖은 직장간부를 《자네》,《하게》로 불러댄다. 그것이 못마땅한 아버지는 노상 혀를 차고 바깥으로만 나돌았고 그것이 또 어머니의 비위를 상하게 해서 사사건건으로 티각태각이였다. 보패는 그 틈새에 낀 맘고생도 조련치 않거니와 맘속의 수심이 또한 적지 않았다. 차라리 의논을 걸어왔으면 제속을 열어보이기라도 하겠는데 아직도 이렇다하게 공론이 되지는 않았다. 눈치가 뻔한 속을 못본체 못들은체해야 하는것이 처녀로서의 그의 처지였다.
이제 이 외나무다리를 건너가면 장차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있을지 보패는 두려움에 가득찬 눈매로 터슬터슬 닳아빠진 그 락엽송의 굵직한 등을 이윽토록 바라보았다. 잔물결을 일으키며 흘러가는 강물은 《어서 어서》하고 끝없이 귀전에 속삭여주는것만 같다. 그런데 건너가라는것인지,제깍 돌아서라는것인지 어이 알랴.
보패는 문득 고개를 쳐들었다.
그는 무엇때문에 내려진 결심인지 스스로도 모르면서 성큼 한발을 외나무다리우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꿋꿋이 아무 주저도 없이 시원시원하게 다리를 건너갔다.
이미 다 건너간 세철은 대안에 서있는 거대한 백양나무밑에서 이쪽을 돌아보며 씩 웃었다. 그가 기대선것은 반세기전 그들의 할아버지들이 비석재아래에서 뿌리채 뽑혀 나딩구는 어린것을 주어다가 세상돼가는 꼴을 지켜보라고 심어놓은 그 어린 백양나무였다. 이미 아름이 넘게 벌어진 갑주같은 그 밑그루에는 억쇠와 갑수의 당부로 귀밝혀 듣고 목격한 인간세상의 성쇠흥망을 기록해놓은듯 세월이 새긴 주름살이 깊숙이 패였다. 그러나 신록으로 변하기 시작한 수만잎사귀와 잔가지들은 바람도 없는데 살랑살랑 까불고

설레이며 그들의 귀전에 축복처럼 노래를 속삭여주는것이였다.

2

검촌철광이 개발되기전부터 금전군들이 드나들던 검산에는 파먹다 내던진 구뎅이들이 수두룩한데 지금은 그것들이 모두 오리나무와 소나무숲으로 덮인데다 쌍룡강의 물기를 받아 락엽층의 습한 냄새가 산허리에까지 배여들었다.

그들은 숲속의 오솔길을 따라 오래전에 폐갱된 구뎅이와 강기슭의 절벽을 톺아서 력사봉으로 올라갔다. 호젓한곳으로 가는것이 두려운 보패는 몇번이고 자꾸 앞서올라가기만 하는 세철을 멈추어 세우려 하였으나 한번 내친 걸음을 돌려세울수도 없었다. 그저 세철의 뒤모습을 원망스레 바라보며 절망적으로 작은 한숨을 내쉴뿐이였다.

산허리를 벗어나면 그우에는 나무가 드물고 이따금 바위짬에 관목무더기가 듬성듬성할뿐이였다. 해빛아래 반반 드러난 력사암의 정수리가 열기를 뿜는다. 바로 눈앞에서 자그마한 물거품같은 무지개빛 아지랑이들이 가물가물 피여올랐다.

비석재우에서만 해도 팔다리와 얼굴의 이목구비까지 뚜렷하던 장사의 형상은 실상 산봉우리 하나를 다 차지한 엄청난 크기이고보니 그우에 앉아서는 그저 들쑹날쑹한 돌산이였다. 갓 패기 시작한 강아지풀이 소북이 자랐고 장사차림으로 단장시키는 갑옷인양 해묵은 이끼가 력사봉정수리에 한벌 둘려있었다.

서로 은근한 뜻이 있으면서도 남에게나 자신에게나 아무것도 감출것이 없는것처럼 가장하기 좋아하는 풋내기애인들이 흔히 그런것처럼 그들도 나무 한그루 없는 이 빤빤한 산꼭대기에 보란듯이 자리를 잡았다.

개인 하늘에서는 높은 한낮의 태양이 심술궂게 눈을 똑바로 뜨고 세찬 직사광선을 내쏘면서 그들의 무모함을 비웃는가 하면 설렁하고 관목숲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소리도 그들의 대담성을 시험하려 들었다. 메새떼들이 바위우까지 날아와서는 진한 밤빛 대가리를 얌치없게 갸우뚱거리며 짹짹하고 시까슬렀다. 산까치도 까악까악 우짖으며 덩달아 날아다닌다.

세상이 다 봐도 두려울것이 없다는듯 환히 드러난 등성이에 앉

았다고는 하나 역시 남의 눈에 띄우는것이 한량없이 두려운 그들이였다. 얼마가 못되여 두사람은 약속이나 한듯 좀 아래 으슥한 바위 틈새기로 내려앉았다. 말없는 가운데 공모를 한 이 이동이 보패의 얼굴을 다시한번 붉게 만들었다. 조심스럽게 치마자락을 들어서는 앞폭으로 무릎을 감싸면서 한옆으로 돌아앉은 보패는 새침해서, 그러면서도 꺼져들어가는듯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이런데 다 끌고와선…》

《끌고 오긴… 제가 왔지.》

세철의 말투는 더욱 우쭐했다. 보패는 정말 새침해서 야무지게 말했다.

《무슨 말애요? 난 바빠요. 저녁때가 다 됐는데…》

안달이 난 보패의 상기된 얼굴을 보자 세철은 자기가 하자는 말이 불쑥 한마디로 내뱉아버릴수는 도저히 없는 굉장히 귀중한 그 무엇으로 느껴졌다. 그래서 씨물씨물 웃으며 늑장을 부렸다.

《어디 알아맞춰보지.》

《아이 싱겁긴… 말하기 싫으문 그만둘게지 누구보구 알아맞추래.》

《체, 이건 멋도 모르고 이래. 내가 대학에 가게 됐단 말이야.》

《예?!》

보패는 불시에 고개를 홱 돌려 머리카락이 푸시시 일어선 세철의 얼굴을 말뚱말뚱 쳐다보며 큼직하게 그리스가 게발린 무릎을 다급히 잡아흔들었다. 그 손은 섬세한 얼굴륜곽이나 가냘프게조차 느껴지는 균형잡힌 몸매에 비해서는 유난히 크고 억센것이였다.

《아니, 그게 정말이애요. 네?》

《정말이 아니구, 당위원장이말이야, 일부러 불러서 그렇게 말했어. 7월달에 시험이 있대. 그러니 시험공부를 잘하라는거야.》

보패는 믿을수가 없었다기보다 너무나 큰 충격에 일순 멍한 표정이 되였다. 세철의 얼굴이 단순하고 소박했기때문에 대조적으로 두드러지는 보패의 큰눈이 한참동안이나 깊은 골짜기의 잔잔한 호수와 같이 그윽한 빛을 뿌렸다. 자그마한 입술이 그 녀자의 수집은 성품을 나타내고있다면 반듯한 이마아래 울창한 수림속같은 길다란 살눈섭과 그속에서 빛을 뿌리는 그 크고 검은 눈은 그 녀자의 정열과 힘과 예지를 나타내고있었다.

세철은 그만 어리둥절해졌다. 한동네에서 자라나면서 하얗게 서캐가 쓴 머리를 쥐여박기도 하고 쌍룡강에서 미역을 감다가 물을

끼얹어주기도 한 보패였다. 그때마다 얼굴이 새파래서 돌멩이를 쥐여뿌리군하던 깜찍한 계집애, 어느새 처녀가 되였고 어쩌면 서로 사랑하고있는지도 모르는 이즈막이였지만 그러나 그 보패가 이렇게 아름답고 진실한 녀자로 느껴지기는 처음이였다.

《아이 어쩌면…》

보패는 장정들 손처럼 악마디진 큼직한 손을 세철의 무릎우에 놓은채 그리고 그 커다란 눈으로 세철의 순박한 얼굴을 똑바로 마주바라보면서 한숨처럼 조용히 중얼거렸다.

세철은 눈시울이 화끈해졌다. 만일 이때 보패가 단 한마디 말이라도 더 보탰더라면 그것은 전혀 허위에 불과한것이였고 따라서 세철의 가슴을 그렇게 울려주지 못했을것이다. 안휘태도 별로 수다스럽게 축하의 말을 늘어놓지 않았었다. 그렇기때문에 세철은 그가 진심으로 자기 전도를 축복해준다고 확신할수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순결 그것이라고밖에 할수 없는 보패의 자그마한 입에서 새여나온 그 한마디 말은 지금 그가 돌아올것을 기다리고있을 어머니를 제외한다면 자기 앞길에 대해서 그처럼 간절한 기대와 희망을 걸고있는 이 세상에 유일한 사람이라는 믿음이 더욱 굳어지게 하는것이였다. 세철은 슬그머니 고개를 돌려 번듯이 바위우에 드러누웠다. 마주바라보고 앉아서는 당장 가슴이 터져나올것만 같은 뜨겁고 강력한 그 무엇이 온몸에 그들먹이 차올랐다.

×

근년에 검산일대에는 찔레꽃이 많아졌다. 처음으로 찔레가 피기 시작한것은 다난하던 이 세기초의 일인데 당시 뜻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심상치 않은 조짐이라고들 말했다. 떠도는 말에는 장사검부가 제칼로 제팔을 자를 때 뿌려진 피가 먼 후세에 이르러 찔레꽃으로 변신해 피여났다고도 하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꽃도 흰것은 적고 붉은것이 많았다. 가을에 찔레가 새빨갛게 익을 때면 사람들은 부지불식간에 검산봉우리의 력사암을 바라보며 어느 옛날에 죽었는지도 모르는 아득한 조상의 명복을 비는것이였다. 진달래가 지고 철쭉이 만발할 때면 바위틈이며 골짜기에 찔레덩굴이 함께 무성하여 험하게 모가 진 산모습을 한결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보패는 볼록하게 망울이가 진 찔레꽃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러니 동무가 우리 동네에서 세번째 대학생이군요?》

《세번째? 왜 세번째야?》

하늘을 바라보며 저대로 생각에 잠겨있던 세철은 드러누운채 이마우 한자쯤 되는곳에 묵직하게 드리워있는 보패의 머리태를 얼없이 바라보고있었다. 그것을 한번 매만져보고싶은 충동이 불같이 가슴속을 확 태웠다. 그러나 천근철추를 매단듯 팔은 움직여지지 않았다.

《글쎄 생각해봐요. 세번째야요. 저 민군수네 아들…》

《민환규말이지? 그 사람이야 우리 동네 사람인가? 그건 서울량반인걸.》

《그래두 우리 동네에 드나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송마름네 아들…》

《그렇게 치면 동무네 형부도 쳐야지. 안기사도 우리 동네에 살았거던.》

《참, 그러니 네번째로군요.》

《아니야. 광복후에 우리 중시원리에서 **김일성**종합대학에 간 사람이 또 있어. 그 왜 귀머거리 고춘도령감네 막내아들 있지 않어?》

《알아요. 그 기관구에 다니던 사람…》

《그럼, 그런데말이야… 난 참 야단났는걸…》

너무나 큰 행운에 부닥쳤을 때 떨떨해졌던 한순간이 지나가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 불안감이 세철에게도 찾아왔다. 일제시대 그가 넝마같은 옷을 걸치고 소학교에 다닐 때 조선갑부라고 불리우던 민성직의 아들이 사각모를 쓰고 붉은 비단으로 안을 받친 검정만또자락을 날리며 검산에 있는 민씨네 선영으로 찾아들기도 하고 소작인들의 집에 다니면서 살림형편을 묻기도 하고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세상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던 일이 생각났다. 얼핏 보기에도 귀공자같던 민환규는 유식할뿐아니라 인정이 있고 인품이 의젓하여 소작인들의 가난한 살림형편과 딱한 사정을 참을성있게 들어주었으며 함께 고르지 못한 세상을 개탄하면서 그 절박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결하여 지주들과 싸워서 소작료를 탕감하고 공출부담을 지주에게 넘겨씌워야 한다고 열렬히 주장하기도 하였다. 동네사람들은 물론 그것이 현실성있는 말이라고 곧이듣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무척 놀랐고 군수의 자제가 선비가 돼서 의젓하고 착하다고들 칭찬도 하였다. 뿐만아니라 봄철이면 의례 일어나군하던 소작권문제며 흉년에 소작료탕감청원을 하게 될 때면 환규가 방학이 되여 동경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없지 않

았다. 환규가 방학에 군내 각지를 돌아다닐 때면 일본관리나 경관들도 쩔쩔맸고 중시원리에서 작은 호랑이 행세를 하던 송근배나 당시 칠순이 넘는 그 아버지 송경팔이조차 버선발로 뛰여나가 맞아들이군하였다. 민환규를 떠받들어 검산일대의 군소지주들이나 작인들이 부르던 《학생서방님》이라는 말이 어린 세철의 머리에 각별히 깊이 박혔고 그래서 그 말을 보통 사람들은 죽었다 깨여나도 들을수 없는 굉장한것으로 생각하였었다. 그렇기때문에 어릴 때부터 잘 아는 근배의 아들 망나니 치호가 서울서 중학을 다니더니 얼마후에 동경류학을 가서 사각모를 쓰고 돌아왔을 때는 눈앞이 아찔하게 놀랐던것이다. 그따위 너절한 자식이 어떻게 대학생이 됐을가 하고 고개를 기웃거리던 천진란만한 의문은 그것이 어린시절에 박혔던 의문이였던만큼 지금토록 깨끗이 가셔지지 않고있었다.

《그런데말야 보패, 난 사실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어.》

《뭘 어떻게 해요?》

이때 보패의 눈은 해빛이 아니라 황홀한 생각에 부셔서 절반쯤 가슴츠름히 감겨지고있었다. 그 눈망울우에는 보라빛으로 채색된 미래의 생활이 있었고 행복에로 열려진 드넓은 길이 얼른거리고있었다.

참말로 꿈같은 사실이였다. 보패가 생활이며 미래며 행복이며 하는 따위 찬란한 어휘들을 알게 된것이 언제였던가? 몇해전까지만 해도 그에게 있어서 생활이란 가난의 대명사였다. 그의 집에는 언니가 시집가게 됐을 때까지도 변변한 거울 하나 없었다. 어머니가 자기의 반평생을 비쳐본 손잡이가 달린 거울이 하나 있었으나 진작 더덕더덕하게 수은이 벗겨진우에 뿌옇게 안개가 껴서 아무 모상도 비쳐주지 않는지가 오래되였다. 어린 보패의 생활이란 철들기전부터 고역에 늙어버린 앙상하고 꾀죄죄한 제 모습을 퀴퀴한 개수물통에 비쳐보는것이였고 시래기죽을 눈물과 함께 훌쩍거리던 명절날의 찝찔한 인상같은 것이였다. 미래란 열두세 무명치마가 눈물에 다 썩어내린다는 시집살이였고 행복이란 검산의 호랑이가 질겁해서 도망칠만큼 굉장한 나무짐을 지고 장에 갔던 아버지가 조갑지같은 고무신을 지게끌에 매달고 돌아오는 저녁이 기껏 큰 행복이였다. 그리고 꿈이란 무엇이였던가? 보패의 유일한 꿈은 이야기로만 들어온 어머니들의 소녀시절— 자기 어머니나 세철의 어머니처럼 낯선 고장에 민며느리로 팔려가지 않도록 칠성님께 빌어보는것이 고작이 아니였던가?

참말 세상은 놀랍게도 변하였다. 이 몇해사이 보패는 자기의 처지

가 얼마나 변했는가를 새삼스럽게 돌아보지 않을수 없었다. 술독에 빠져사는것 같던 아버지가 모범농민이 되고 군대의원이 된것은 말할것도 없고 자기자신은 어느새 민청초급단체 간부로 되였고 그의 말이면 동네어른들도 귀를 기울이는 실농군이 되였다. 일손이 억척같다고 집안에서뿐만아니라 한번은 군에까지 뽑혀가서 토론을 한적도 있다. 그런데 세철이는 또 얼마나 변했는가? 보패는 벌써 열서너살짜리 계집애적부터 왜 그런지 같은 매를 맞아도 세철이에게 맞으면 덜 억울하던 지난날을 회상해본다. 세철은 장난이 궂어 한편으로는 과부자식이라고 욕도 먹었지만 일찍부터 홀어머니를 모시고 집안살림을 각근히 돌보아 어른들사이에서 숙성하고 착실하다는 칭찬을 듣군하였다. 그것이 어린 마음에도 대견하였지만 생각해보면 그역시 칠성판을 지고다닌다는 광산로동자에 지나지 않았다. 지금도 어머니는 그를 막로동자의 자식이라고 은근히 수모하는 눈치가 완연하다. 그때마다 보패는 피가 맺히도록 입술을 깨물군하였지만 실상 세철의 생활이란,그의 행복이며 미래란 어차피 시꺼먼 땅밑,굴속에서 누구도 못보게 피였다 시들어진다는 동발꽃과 같은 것이였다. 그것이 어린 마음에도 서글프고 억울하던 보패였다.

세철이가 대학에 간다.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할 때 아직 아무런 표상이 떠오르기도전부터 그의 가슴은 활랑거리기 시작하였다.

《솔직히 말해봐. 내가 꽤 대학생이 될수 있을것 같아?》

《예?》

보패의 눈은 반짝하고 빛났다. 자그마한 입술은 어처구니가 없어 잠시 벌어진채로 다물어질줄 몰랐다.

《정말 솔직하게 말해봐.》

《동무는 정말 숙맥이야.》

세철의 목소리가 진지하게 울린 그만큼 보패의 가슴은 모욕이라도 당하는듯 뒤틀렸다. 그는 자기도 뜻밖이리만큼 표정이 랭랭해져서 중얼거렸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구…》

보패가 까닭없이 역정을 내는데 얼떨떨해진 세철은 그 탐스러운 머리태도 잊어버리고 뻔히 보패의 토라진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보패가 노한 까닭을 그로서는 아무래도 짐작할수 없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갑자기 공기가 무거워진듯하였다. 한동안이나 지나서야 보패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재작년 봄이였어요. 우리 형부가 하던 말이 생각나요. 동무

는 그때 왜놈들이 망가뜨려놓고 달아난 굴착기를 고쳐놓았지요? 3년씩이나 아무도 기술이 없다고 내던져둔것을 동무가 달라붙어서 고쳐놓았지요. 그땐 동무에게 별다른 기술이 없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났어요? 우리 형부는 기사라 해도 그걸 고쳐쓸 생각은 못했대요. 지금도 난 광산앞을 지나며 그 집채같은 기계가 용을 쓰는걸 보면 동무생각이 나군해요. 우리 형부도 그래서 말했던거예요. 역시 로동계급이 다르다고말이예요.》

《그건말이야, 동무 오해야.》

세철은 마음 한구석이 저으기 뜨거워지는것을 느끼면서도 공연한 고집을 부렸다.

《그건 내가 기술이 없었다고 해도 몇해씩 눈에 익은게고 또 한때 조수질까지 해봤거던. 그러나저러나 그게 녹이 쓸어서 벌판에 나딩구는게야 어떻게 눈뜨고 볼수 있더라구. 그리구 사실 말은 내가 냈지만 결국 그걸 고쳐서 써먹게 만든거야 안기사지뭐야. 나야 그 덕분에 기술만 배웠지. 그러니 그것하구야 생판 문제가 다르지뭐야.》

《그러게 동무는 숙맥이라지요.》

보패는 안타깝게 되풀이하였다.

《오늘낮에도 우리 형부는 금년에 8.15까지 년간계획을 끝마치자고 흥남공장 로동자들이 호소를 해왔는데 만일 세철동무가 그 〈두더지〉를 고쳐놓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번했다고 그러더군요. 동무는 너무 마음이 용해서 틀렸어. 왜 대학생이 못돼요? 남만 못한게 뭐예요?》

《그래두 나야 공부를 못했지. 또 나야 막로동자가 아니야?》

《그러니 어쨌다는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동무흉만 봐요. 용해빠진게 어디다 쓰겠느냐구… 아버지는 흉을 안보는줄 아세요?》

보패가 눈물이 글썽해지자 세철은 당황하였다. 한편 밸이 꿈틀하고 일어서기도 하였다.

《흉을 볼테면 보라지. 흥, 뚱뚱보 로친네가… 동무네 아버지는 또 뭐야. 그까짓령감 군대의원이면 제일인가, 체.》

보패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세철의 무례한 반발이 차라리 시원스럽기도 하였다. 녀자란 리기적인것이다. 자기 부모가 모욕당하는것쯤 상대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보면 심지어 맞장구를 치는것조차 주저하지 않는다.

버들피리소리가 삘리리 삘리리하고 저아래 쌍룡강기슭에서 아슴

푸레 들려왔다. 봄갈이가 끝나가는 검산벌의 검실검실한 논이랑들이 김을 문문 피워올리며 해빛에 번쩍거린다. 하늘과 대지와 먼 산발들은 채운같은 아지랑이에 덮여있다. 지심속에서인양 구수한 흙냄새가 뭉클뭉클 솟구쳐오른다. 멀리 멸악산맥 변두리를 에돌아나간 철길이 허공에 걸린 거미줄모양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면서 반짝거리는데 그 한끝에 읍거리와 광산사택마을 그리고 선광장건물이 장난감같이 앉아있다. 읍거리에서도 유표한것은 복숭아며 사과꽃이 만발한 과수원에 에워싸인 양촌의 비죽비죽한 끄직식 건물들이다. 그 읍내 어느 지붕아래선가 언니 경패가 산고에 시달리고있다는 생각에 문득 보패의 가슴은 다시 저려났다. 방금 세철의 기쁜 소식으로 해서 잠시 잊어버렸던 일이 왜 그런지 부끄럽고 죄스럽게 생각되였다. 보패는 솜털이 보르르한 웃입술을 자근거리며 조용히 돌아앉았다. 동그스름한 등이 흰옥양목적삼아래서 천천히 오르내렸다. 그러자 팽팽한 탄력과 싱싱한 생기가 풍겨나왔다. 세철은 한동안이나 귀밑머리가 날리는 보패의 새하얀 목덜미를 홀린듯이 바라보다가 문득 게면쩍은 생각이 들어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맥락없이 중얼거렸다.

《난 아무래도 자신이 없어. 학교라는 말만 들어도 벌써 골치가 아픈걸.》

보패는 말없이 앉아있었다. 아까와는 달리 아무 반응 없는 보패가 무엇을 생각하고있는지 궁금해진 세철은 한마디 더 보탰다.

《이왕 간다고 말이 났으니 그까짓 학교는 걷어치우고 군대에나 되돌아갈가봐. 아까 그 군대 멋이 있지 않아? 나도 제대만 안됐더면 지금쯤 상당히 발전했을거야.》

이건 물론 세철의 진심은 아니였다. 보패가 입을 꼭 봉하고있으니 이 소리 저 소리 해서 비위를 좀 건드려보자는것이였다. 아닌게아니라 보패는 우정 미련을 부리는것 같은 세철의 거듭되는 말에 터질듯이 약이 올라 쏘아붙였다.

《군대에 가서 며느리고금이나 몇직 앓고 또 쫓겨나지요.》

《뭐야?》

광복직후 보안간부훈련소에서 평양학원으로 추천돼갔다가 때마침 공교롭게도 지독한 학질끝에 페염을 앓아 할수없이 제대당한 일이 있는 세철은 울컥해서 상반신을 벌떡 일으켰다. 한여름 딸기처럼 함츠르르 젖은 자그마한 입술이 눈앞에서 바르르 떨고있었다.

《심술쟁이!》

《심술은 누가 부리구…》

세철은 와락 보패의 어깨를 잡아당겼다. 뭉클한 살결이 느껴지는 순간 오돌차던 처녀의 몸은 바람맞은 락화처럼 흐트러졌다. 보패는 가쁜숨을 내쉬며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심술쟁이, 심술쟁이!》

오뚝한 코마루에 보송보송 땀방울이 내돋았다. 몸이 한쪽으로 실리는바람에 묵직한 머리태가 앞가슴으로 철썩하고 넘어왔다. 그 부드러운 촉감이 세철의 목덜미를 간지럽혔다. 온몸의 피가 머리로 다 몰려온듯도 하고 한꺼번에 발밑으로 다 새여버린듯 눈앞이 아찔해지기도 하였다. 바람결에 달콤한 꽃향기가 풍겨왔다. 무슨 새소리같은것도 떠돌고 저아래서 주절주절 개울물소리도 울려왔다. 그리고 숲속에서 버스럭하는 소리가 났다. 동시에 삭정이 밟히는 소리도 간신히 들려왔으나 천길락차를 가진 폭포처럼 요란스레 쿵쿵거리는 심장때문에 두사람은 아무런 소리도 느낄수 없었다. 온 천지가 갑자기 운동을 멈추고 오직 두사람의 심장만이 그렇듯 세차게 들먹이는듯싶었다.

《에그머니…》

세철의 검실검실한 눈이 위험할지경으로 가까이 다가왔다고 느끼는 순간 보패는 본능적으로 커다랗게 확대된 사내의 얼굴앞에 한팔을 갖다뻗치며 낮게 부르짖었다. 그와 함께 숲속에서 이번에는 누구 귀에나 다 들릴만큼 버스럭하고 락엽 밟는 소리가 뚜렷이 났다. 두사람은 소스라쳐 한길이나 뛰여일어났다. 보패는 바위속으로 파고들기라도 하듯 까짓거 옹송그리며 고개를 깊숙이 떨구었다. 숫제 숲속을 돌아볼 용기도 나지 않았다. (소문을 낼테면 내라지. 차라리…) 이런 반발심까지 일어난 그는 무서운 선고라도 기다리는듯 조용히 눈을 감고 하회를 기다렸다.

한편 세철은 얼굴이 벌개서 사뭇 부셔오는 눈을 억지로 뜨고 숲속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러자 듬성듬성한 떡갈나무와 자작나무 사이사이로 머루 다래 덩굴이 마구 뒤엉킨 잡관목림속에 몸을 감춘 불의의 침입자가 이미 이쪽에 들킨 눈치를 챘는지 화닥닥하고 달아났다. 촘촘한 나무그루들사이로 그 모습이 언뜻하는 순간 세철은 벌떡 일어났다.

《야, 너 진기로구나, 거기 좀 섰거라. 못된 자식!》

《헤, 때려줄려구…》

일제시대 선교사 골드빈이 홀동에서 금전군들을 데리고와서 한동안 수굴을 하다가 내던진 폐갱아가리에 몸을 감추면서 진기

는 혀를 쑥 빼물었다. 풀발이 아직 꽛꽛한 여름학생복이 어디서 메기사냥을 하다가 왔는지 벌써 진흙으로 매닥질이 되였는데 그 오지랖에는 또 새깃뭉치같은것을 한아름 안고있다.

보패는 동생의 목소리에 발딱 일어섰다. 숯불을 담아 부은듯하던 얼굴에 갑자기 표일한 기상이 돌았다. 세철은 한손으로 보패를 제지하며 슬금슬금 숲쪽으로 다가갔다.

《때리긴, 너 가슴에 안은게 뭐야! 어디 구경 좀 하자!》

《헤, 얼릴줄 알구?》 진기는 마음을 늦추지 않고 한걸음한걸음 물러서며 주어섬긴다.

《이거 보고싶어? 이거 산비둘기야. 볼테면 우리 집에 와. 둥지랑 다 만들어놨거던.》

《뭘 깍쟁이같이 그러니? 난 바빠서 집에 갈새 없어. 여기서 좀 보자. 용케 잡았구나. 진기가 꽤란말야.》

《가까이 오지 말아요. 체, 누가 속을줄 알구…》

진기는 조금도 곁을 주지 않고 떡갈나무뒤에 숨어서 뛸 자리를 봐두었다. 그러면서 할말은 할말대로 하고 약은 약대로 올렸다.

《이거 어디서 잡았는지 알으켜줄가? 저 곰바위앞에 있는 느릅나무에 있던게거던. 동네애들이 봄부터 제거라고 떠든건데 그래도 너무 높아서 아무도 못잡아갔거던. 이제 열흘만 있으면 막 난다나!》

보패는 더는 참을수 없어 앞으로 썩 나섰다.

《너 거기 서지 못하겠니? 왜 숙제는 안하고 돌아댕겨? 그 옷주제는 뭐냐…》

《헤, 숙제가 다 뭐야? 누나 큰소리치지 말어. 난 조금도 겁나지 않아!》

《뭐야, 너 혼 좀 나보겠니?》

보패가 종주먹을 을러메고 달려가자 진기는 호들갑을 떨며 깡충깡충 내뺐다.

《야 무섭다… 시집가는 새악시 늙은 새악시… 가마 타고 말타고… 누나 난 다봤거던, 히히히.》

《아이구 분해!》

진기가 빽 돌따서서 다시한번 혀를 빼무는바람에 보패는 너무나 억이 막혀 그 자리에 우뚝 서버렸다.

세철이는 《하하하》하고 큰소리로 웃어넘겼다. 보패는 웬일인지 자기의 온갖 귀중한것을 송두리채 다 빼앗긴것모양 분하고 안타까

와 눈물이 쑥 나왔다. 웃고있는 세철이가 얼마나 얄미운지 몰랐다.
이때 내빼던 진기가 또다시 돌아섰다.

《형, 손님 온것도 모르고, 헤헤헤. 발바리자동차 타고 손님왔다나. 큰어머니가 아까부터 찾던걸. 얼레얼레—》

《애, 그건 무슨 소리냐. 거기 좀 서라는데…》

세철이가 와락 달려들자 진기는 급한 산길을 돌멩이가 구을듯이 데굴데굴 뛰여내려갔다. 세철이 머리속엔 아까 비석재앞에서 만난 윌리스차생각이 났다.

《보패, 어서 내려가자구.》

《몰라, 난 몰라.》

처녀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다.

《자 이건 또 뭐야. 어린애같이…》

세철은 두팔을 척 늘어뜨리고 어이없어 중얼거린 다음 가볍게 물결치는 동그스름한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러자 보패는 용수철처럼 튕겨올랐다.

《저리 가요. 아이 징그러워!》

세철은 불에 덴 사람처럼 얼른 손을 움츠러뜨리고 잠시 멍하니 섰다가 다시한번 껄껄하고 선웃음을 터뜨렸다.

3

산비탈을 숨가쁘게 달리던 진기는 누이와 세철이가 따라오는 기미가 없자 비로소 마음을 놓고 걸음을 늦추었다. 산비둘기 한쌍을 가슴에 안은채 급한 바위벼랑을 구을듯이 달려오느라고 숨이 턱에 닿았으나 누나를 골려준걸 생각하면 얼마나 고소한지 몰랐다. 언제든지 누이앞에서는 기를 못펴던 진기였다. 형도 누이처럼은 까다롭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막냉이들과 마찬가지로 진기 역시 늙은 부모의 사랑을 독점했고 일가의 조그마한 폭군으로, 응석받이로 자라났다. 올봄에 갓 시집온 형수는 《도련님, 도련님》하고 여적 아무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말로 열두살난 자기를 깍듯이 공대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보패만은 진기의 그런 특권적인 지위를 전혀 무시하고 매사에 까다롭게 대할뿐아니라 아예 머리도 못쳐들게

몰아댔다. 여물솥에 불을 지펴라, 목을 깨끗이 씻으라, 옷은 왜 찢었느냐, 코를 풀어라, 학습장을 보자, 하여간 걸리지 않는것이 없다. 늙마에 본 자식이라 해서, 또 이왕에는 자식을 자식답게 길러보지 못했다고 해서 지나칠만큼 얼리기만 하는 부모들도 오누이가 옥신각신할 때엔 웬일인지 진기역성을 드는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목소리로나마 오히려 진기를 꾸짖었다. 그럴 때면 진기는 더욱 약이 올랐었다.

그런 누이를 보기 좋게 골려주었으니 원님의 따귀친 아전만큼이나 우쭐하고 기분이 났다. 골짜기로 내려서니 울창한 숲속에서 방울새며 메새들이 회의라도 하는지 서로 다투어 우짖고있었다. 머리가 빨갛고 배때기와 등이 희고 검고 얼쑹달쑹한 클락새가 시끄러워 못견디겠다는듯이 클락 까르륵하고 날아갔다. 축축히 젖은 폭신폭신한 골짜기 바닥에는 땅귀래풀이 쭉—깔렸다. 두터운 락엽층을 뚫고 도라지며 패랭이가 고개를 쑥 내밀었는데 그끝엔 어느새 망울이가 부풀어올라 방금 벌어지려 하고있었다. 할미꽃은 벌써 백발이 되여 목대가 구부러졌다. 폭포처럼 급류가 쌍룡강으로 흘러드는 계곡을 따라 내려가니 병풍같이 산기슭을 둘러선 참녀암절벽우에 나섰다. 진기는 문득 뒤가 켕겨 내려오던 길을 되돌아보았다. 그러자 추격자들은 비석재쪽으로 곧장 내려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다만 푸른 창공을 배경으로 산봉우리만 산사람같이 솟아올랐다.

진기는 인적드문 이 참녀암우에서 그렇게 력사봉을 바라보기를 좋아하였다. 바위우에 설 때마다 어린 그로서는 도저히 설명할수 없는 깊은 감회에 잠기군하였다. 드넓은 고향벌이 한눈에 안겨오고 사랑하는 누나 경패가 시집간 읍내가 손에 잡힐듯이 바라보인다. 학교도 보이고 광산도 보이고 또 멀리 멸악산맥의 골짜기들을 구석구석 훑어서 검산벌로 모여드는 쌍룡강의 물줄기도 제 손금처럼 환하게 가려볼수 있다. 그것은 조선의 어디서나 볼수 있는 지극히 평범하고 그래서 그 자연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는 지어 단조롭고 따분하기조차한 너무나 일상적인것이지만 자기를 둘러싼 세계라는것에 대해서 아는것보다 모르는것이 더 많은, 그리하여 매사에 의혹과 호기심을 가지고 대하게 되는 진기와 같은 소년에게는 매양 새 발견을 하게 되는 신비스런 정경이기도 하였다.

벌판에 이르자 갑자기 흐름이 넓어진 쌍룡강은 천천히 검산벌을 적시면서 도도하게 서해로 흘러간다. 진기는 그 기슭 모래사장에서 소도 먹이고 꼴도 베고 동무들과 씨름도 하고 미역도 감군한다. 그러나 그

자장가처럼 달콤하기만 하던 쌍룡강의 물소리도 이 참녀암절벽우에서 들을 때면 각별히 장엄하게, 마치 절벽에 새겨진 옛시인의 노래를 소리높이 읊조리며 자기의 어린 가슴에 북소리를 둥둥 울려주는것만 같았다.

아아 쌍룡강 물소리 어이하여 높으냐
참녀암 높은 뜻이 력사암에 굳었으니
불같은 우국충절 후손만대 전하여
칭송의 노래 불러 저렇듯이 높더라

진기는 물론 그 노래의 내용을 알수 없었다. 그러나 검산의 남녀로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검부와 창을의 전설은 횅하니 따로 외우고있었다. 때로 고개를 쳐들어 력사봉을 바라보면 한팔은 창을에게 베여주고 나머지 한팔에 장검을 짚고서서 멀어버린 눈을 지릅떠 남쪽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섰다는 검부의 형상에 그만 눈물이 머금어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어느땐가 자기도 나라를 위하여 제 한팔을 가령 웃마을 봉식이같은 아이에게 베여주고 저렇게 서서 굳어지리라는 맹세도 다져보는것이였다.

오지랖에서 구구구구— 하고 비둘기가 울었다. 겨우 눈을 뜬 한쌍의 햇비둘기는 동서도 모르고 부리로 마구 가슴을 짓박았다. 진기는 얼른 새들을 둥지채 바위우에 내려놓고 호주머니를 뒤졌다. 미리 알맞추 불궈가지고 온 콩을 한줌 꺼내서는 그 다갈색과 등색이 엇섞인 깃털채 움켜쥐고 고무처럼 물렁물렁한 부리를 벌렸다. 주둥이를 가까스로 벌리고 그끝에다 당콩만큼 불어난 먹이를 끼워놓으면 눈도 못뜬놈이 물렁물렁한 부리로 우물우물해서 닁큼 삼켜버린다. 그 삼키는 재간에 흥이 난 진기는 시간가는줄도 모르고 한놈한놈씩 엇바꾸어 먹이를 섬겨주었다. 한놈이 먹을 때면 다른놈은 기다리기가 초조한듯 다리를 바들바들 떨면서 아직 까칠한 깃을 부채질하였다.

쌍룡강우에 저녁노을이 비꼈다. 눌어지기 시작한 해발이 어느덧 백양나무 늘어선 하시원리 변두리우에 걸렸다. 강기슭의 진펄이며 갈밭 그리고 모래톱우에 다양한 락조가 피였다. 읍내로 통한 큰길에는 나들이군들이 돌아오고 비석재우에는 들에서 돌아오는 마을사람들의 얼굴이 점점이 나타났다. 음매— 비석재아래쪽 진펄에서 낯익은 송아지 영각소리가 들려왔다.

《얼룩이로구나! 아버지—》

진기는 발딱 일어나 손나팔을 불었다. 아니나다를가 《오—냐》하는 웅글은 대답소리가 들려왔다. 어딜가 하고 몸을 기웃거려보니 송아지와 누렁이는 진펄에서 풀을 뜯고있는데 아버지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보나마나 비석재아래 모판에 있을것이였다. 아버지는 재작년부터 거기에다 랭상모판을 만들었다. 그때문에 아버지는 여러차례 군이나 도의 손님들을 모시고 비석재아래로 드나들었고 여느때도 이른봄부터 모내기가 끝날 때까지 심지어 들일이 없는 겨울에조차 짬만 있으면 그 반날갈이 논뙈기에 가서 살다싶이하였다.

진기는 어쩐지 아버지가 거기로 자주 가는것이 마음에 언짢았다. 아버지가 그 반날갈이를 일구기전에는 억새만 설레이는 모래톱이였다. 광복후 토지분여를 받고났을 때 아버지는 그 땅을 혼자 힘으로 일구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비석재아래로 찾아가는것은 벌써 일제시대 진기가 젖먹이적, 아니 훨씬 그 이전부터의 일일는지 모른다. 진기는 물론 그 깊은 사연을 아직 모른다. 가끔 동무네 집에서 늦도록 놀다가 밤중에 돌아올 때면 비석재아래 우두커니 앉아서 생각에 잠겨있는 아버지를 만나군하였다.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 물으면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아직 어려. 가자, 밤이 늦었는데…》하고 일어서군하였다.

잠시 진펄쪽을 살펴보던 진기는 혼자 중얼거렸다.

《헤, 아버지 또 심화병에 걸렸구나…》

그리고는 얼른 비둘기를 오지랖에 싸안고 일어섰다. 산짐승처럼 벼랑을 달려내리는 진기의 등뒤에서 노을이 불탔다. 가슴에 안긴 산비둘기들은 장차 하늘을 날아야 할 천성에도 불구하고 연신 구구— 하고 비명을 질렀다.

쌍룡강우에 높이 걸린 외나무다리에 훌쩍 뛰여올랐을 때 비석재아래서 찌렁찌렁 자전거종소리가 울려왔다. 걸음을 멈추고 고개밑을 내려다보니 곤색신사복을 쭉 뽑아입은 사람이 막 급한 고개를 올리추느라고 마치 결승테프를 끊는 운동선수처럼 안장우에 높이 일어서서 디디개를 번갈아 밟아대고있다. 그에 따라 종소리가 덩달아 찌렁찌렁하였다. 진기는 그 멋쟁이를 보자

《체.》하고 외나무다리 중간쯤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볼멘소리를 질렀다.

《우리 누나 없어요.》

올림받이 턱밑에서 최후의 기력을 짜내고있던 자전거군은 불

의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농촌에 흔치 않는 모직신사복을 떨쳐입은 그 청년은 땀발이 번지르르한 둥실한 얼굴에 언제나 준비해가지고 다니는듯한 애매한 미소를 띠우려 하였다. 그 순간 맥이 빠진 발바닥에서 발디디개가 떡 하고 맞섰다. 동시에 자전거는 옆으로 기우뚱하였다. 멋쟁이는 별수 없이 고개턱밑에서 자전거를 내려서 손잡이를 밀고 올라왔다. 그는 고개마루에 올라서자 비로소 진기를 향해 반갑다는듯이 떠들썩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진기 잘 있었나?》

그러나 진기는 한자리에 멈추어선채 의심스런 눈초리로 빤히 마주 바라보며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였다.

《우리 누나 없어요.》

《어머니는 계시지?》

《어머니도 없어요.》

《모두 어디 갔니?》

《큰누나네 집에 갔어요.》

《그래? 그럼 아버지는?》

《아버지는 들에 갔어요. 집에 아무도 없어요.》

《허허허, 내가 너희집에 갈가봐 걱정이냐? 안간다. 어머니 오거든 내가 지나갔다구 말이나 전해라.》

청년은 알릴듯말듯 얼굴이 불그레 물들여져서 자전거를 와락 겨드랑밑으로 끌어당기더니 훌쩍 뛰여올라서는 내키지 않는듯 내림받이길을 천천히 내려갔다.

《헹!》

진기는 괜히 우쭐해서 멋쟁이등에 대고 혀를 한번 내보인 다음 쏜살같이 다리를 건너 랭상모판 있는데로 달려갔다.

《아부지—》

《오—냐, 여기 있다.》

아버지는 진펄가의 둔덕에서 연기가 그물그물 피여오르는 담배대를 흔든다. 우렁우렁한 아버지목소리에 누렁이와 얼룩송아지가 덩달아 음매— 하고 울었다. 그러자 고삐가 매인 높다란 백양나무 우듬지에서 까치 두마리가 후르륵 깃을 치며 날아오른다. 까치둥우리에서는 삭정이 한가지가 검부레기처럼 날리면서 쌍룡강우에 떨어졌다.

아버지는 진펄에서 꼴짐을 한지게 줘구고있었다. 옆으로 삐딱이 문 곰방대로 자주빛 담배연기를 그물그물 피여올리며 지게끄

리를 조이는 아버지의 뒤모습은 흡사 검산골짜기의 강대나무와 같다. 꽛꽛하게 메말랐으나 허구한 세월 헐벗은채 서있는 강대나무와 같이 억세게도 보였다.

《아부지, 이거 뭔지 알아？》

진기는 비둘기를 오지랖에 꽁꽁 싸감추며 코소리로 물었다.

병모로인은 눈으로 흘러드는 독한 써레기연기에 한쪽 눈귀를 찌프리며 돌아보았다. 물부리를 질경질경 씹는 잘탄 고동색의 주름진 얼굴에는 아직도 검은 구레나룻이 락조를 받아 빨간색으로 날리고있었다.

《이거 뭔지 알아맞춰보라는데…》

진기는 자기의 굉장한 로획물에 그다지 놀라와하지 않는 아버지의 맥빠진 태도에 볼이 부었다.

《뭐긴 이자식아, 내가 그걸 어떻게 아니？ 어서 소나 풀어라.》

《씨—아부지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게 대관절 뭐게 그렇게 까불어대니？》

《알아맞춰 보라는데…》

진기는 정말 부어서 트집을 부렸다.

이때 오지랖에서 비둘기가 숨이 가빴던지 구구—구구 하고 울었다.

《하하— 그게 비둘기로구나. 또 산비둘기둥지를 냈구나. 산에 갔댔냐？》

《체, 아부지는 울지만 않았음 모르는건데…》

진기는 아버지를 골려먹지 못한것이 분하여 비둘기를 꺼내서는 시름겹게 쓰다듬었다.

병모는 꼴짐이 단단한가 다독거리다가 불쑥 아들을 돌아보았다.

《그런데 너 이제 누구와 무슨 수작했니？ 그게 운수부장이 아니더냐？》

《운수부장인지 뭔지 내가 알게 뭐야. 아무두 없다구 쫓아버렸지뭐.》

《쫓아버리다니？ 사실대로 말해야지. 무슨 볼일이 있어서 왔는지 아느냐？》

《아버지는 찾지도 않아요.》

광산운수부장 장인택의 소위가 어쭙잖다고는 생각하면서도 늘 가슴 한구석이 켕기던 병모는 진기의 당돌한 대답에 어처구니가 없어 《허, 그자식！》하고 웃고말았다.

진기의 안중에는 그까짓 운수부장같은것은 다 하찮은것이였다. 그의 관심은 한쌍의 산비둘기에 몽땅 쏠려있는것이다.

《아버지, 이거 어디서 났는지 알아요?》

《그래, 그게 어디서 났니?》

병모는 마지못해 대꾸를 하였다. 아버지의 눈치를 돌아볼 경황이 없는 진기는 갑자기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력사바위앞에 굴 있지요? 매부가 숨어있었다는 굴 있지 않아요?》

병모는 오금을 꺾고앉아 신이 나서 늘어놓는 아들의 무훈담을 신중한 낯빛으로 들었다. 이따금 따뜻한 미소가 주글주글한 볼편에 그려졌다.

《잘했다. 장하다. 헌데 이담부터는 다시는 그런짓 말아라. 엄지들이 알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니. 그리고 너두 그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당장 죽는다.》

《헤, 누가 떨어진대? 그런데 아부지, 난 거기서 재미있는거 봤다―》

《떨어지지 않구. 잔내비도 나무에서 떨어진단다. 이젠 그만큼 지껄이고 얼른 소나 풀어오너라. 기다리겠다.》

두달전에 맞아들인 며느리 봉임이를 귀여워하던나머지 스스로 며느리앞에서 시집살이를 하기 시작한 이 어리무던한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저녁을 지어놓고 기다릴 일을 생각하니 송구스러워 고개에 가리워 잘 보이지도 않는 중시원리쪽을 몇번이고 힐끗힐끗 건너다보았다. 그러나 자기대로 궁리가 있는 진기는 아버지의 말이 한심스러워 픽하고 코웃음을 쳤다.

《기다리긴? 누난 이제 겨우 돌아왔는걸. 아직 저녁짓자면 차례가 멀었어.》

병모는 버쩍 긴장되여 엉거주춤 일어섰다.

《누나가 오다니? 그럼 큰누나가 해산을 한게로구나. 뭘 낳았다더냐? 딸이라더냐, 아들이라더냐?》

《아부지도 참, 난 력사바위에서 재미있는거 봤다지 않아?》

《이자식아, 뭘 아까부터 봤다고 야단이냐? 대관절 뭘 보구서 그 야단이냐?》

《그건 비밀이거던, 안대줘.》

진기는 주저없이 딱 잘라버렸다.

《허 그녀석, 그래 큰누나가 뭘 낳았는지 물어보기나 했느냐?》

《큰누나? 그까짓거 내가 알게 뭐야?》

《에끼 고약한녀석! 네까짓 철딱서니가 웬걸 그런 궁냥이 있을라구. 쯧쯧.》

《아부지는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물어봐? 둘이 끌어안구…》

순간 진기는 눈이 올롱해서 얼른 손으로 제입을 틀어막았다.
아들의 거동에서 비로소 수상한것을 감촉한 병모는 작시미를 움켜쥐고 위협을 했다.
《이눔 무슨 말이냐? 너 무엇을 감추었지?》
《아이구 배야, 감추긴 뭘 감춰요. 난 갑자기 배가 아파. 아이구 배야.》
진기는 입에 가져갔던 손을 얼른 아픈 배로 가져가며 엄살을 부렸다. 매번 아들의 이런 빤한 계교에 넘어가군하는 병모는 벌써 이지경이 되면 도저히 그속을 뽑아볼수 없다는것을 잘 안다. 그는 어이없어 중얼거렸다.
《허 참 맹랑한녀석이로군. 이자식아, 이젠 그만 앓고 어서 고삐나 끌러.》
제깐에도 좀 어색하게 된 진기는 엄살은 그쳤으나 인차 일어서기는 어쩐지 게면쩍어 비둘기깃만 쓰다듬고있었다.
《아니 이녀석아, 종일 그것만 쓰다듬고있겠니? 그건 가져가면 대체 어쩔 모양이냐? 뭘 먹이겠니?》
《콩을 먹이지.》
진기는 그 자리에서 기분이 전환되였다.
《콩을 얼마나 잘먹는지 알어? 한번 볼테야?》
《콩을 잘 먹는줄은 나도 안다만 비둘기 봉양할 콩이 어디 있니?》
《왜 없어요. 고간에 콩이 네토리나 있는데.》
《그걸 비둘기를 먹일 작정이냐?》
《그럼, 이제 볼테요? 이 새끼가 한달만 있으면 또 새끼를 한쌍 까지. 그러면 네마리거던. 그 네마리가 한달에 한쌍씩…》
《잘은 한다. 그러니까 정말 콩섬을 몽땅 비둘기배속에 처넣을 작정이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진기는 시무룩해서 눈치를 살피며 중얼거렸다.
《그까짓 비지 맛도 없더라.》
병모는 슬그머니 오금을 꺾고 도로 앉았다. 곰방대에 또다시 써레기를 잿였다. 따뜻하게 떠돌던 미소는 뻑뻑 빨아대는 독한 담배연기와 함께 사라져갔다.
진기는 아버지의 변한 안색에 뒤가 저려났다. 아버지는 좀처럼 성이 나지 않지만 한번 성이 나는 날이면 무서웠다. 성만 나

면 당장 세상을 뒤엎을듯이 무섭게 덤빈다. 갑자기 흐려진 안색이 십상 그럴 징조같기도 했다. 더구나 땅이며 낟알이며 농사에 대해서는 무섭다는 소리를 듣는 아버지였다. 군적으로 랭상모를 제일 먼저 시작한것도 아버지요, 필지마다 소출을 제일 많이 내는것도 아버지라고들 하였다. 세정보나 되는 논밭을 하나하나 손으로 매만지고 주물러서 젖을 짜내듯이 곡식을 거둬들인다고들 하였다. 철없는 진기지만 집안식구들중 누구나 낟알을 허술하게 다루다가 아버지 벼락을 들쓰군하는것을 너무나 자주 보았고 당해보기도 했기때문에 아버지의 그런 괴벽한 성미만은 익숙히 알고있었다. 그런 아버지가 콩 네토리를 몽땅 비둘기에게 먹이겠다는 소리를 들었으니 암만해도 위태롭다고 생각되였다. 진기는 괜히 까불어댄것이 켕겨 눈치를 슬슬보며 비둘기를 오지랖에 슬그머니 걷어안았다. 벼락이 떨어지기전에 줄행랑을 놓자는것이다.

이때 아버지가 불시에 눈을 슴벅거리며 아들의 거동을 유심히 살피더니 비죽이 웃었다. 그러면서 약간 갈린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흐흐흐 자식두, 그래 콩을 먹여라. 그까짓 비둘기 몇놈 먹였다고 우리 고간이 흔들거리겠느냐? 자꾸 새끼를 치는대로 자꾸 먹여라. 허허허, 자식두. 비지도 해먹고 두부도 해먹고, 콩나물도 길러먹고… 그래도 콩이 모자라지는 않는다. 땅이 있지 않니. 우리 땅이 있지 않니?》

진기는 아버지의 심상치 않은 부드러운 소리를 듣자 웬일인지 더 불안해졌다. 아무래도 무슨 일을 든든히 저지른것만 같아 무시무시한 생각까지 들었다.

고개를 푹 떨군 막냉이를 바라보는 병모로인의 눈은 펑하고 흐려졌다. 그는 꿋꿋한 손으로 풋밤송이같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른 손으로 억새가 마구 자라나는 모래톱을 가리켰다.

《콩을 먹여라. 허지만 넌 이것을 알아야 한다. 저 모래불에 할아버지가 묻혀있다. 벼 몇섬을 위해서 할아버지가…》

진기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왜 저기 묻혔나?》

병모는 무릎을 흔드는 아들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으며 락조가 번져가는 말없는 모래톱과 진펄을 바라보았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니 저녁바람에 설레이는 억새소리가 땅속에 묻힌 이의 숨결소리처럼 유심히 울렸다. 병모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진기야, 너 송마름 아느냐?》

《그전에 우리 집에 살다가 서울로 도망친 로망한 령감태기？ 그 똥싸개 나도 알아.》

《너희 할아버지는 그 령감태기에게 매를 맞아 죽었다.》

《정말？ 정말이야 아버지！》

진기는 주먹을 부르쥐고 다그쳤다. 병모는 얼빠진 사람처럼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렇다— 이것은 벌써 옛날이야기다. 지금은 소식도 모르는 네 큰아버지가 너만하고 내가 저 사돈댁 봉식이만할 때 그때부터 이 검산벌은 몽땅 민진사네 땅이였다. 할아버지도 민진사네 소작인이였지. 민진사는 읍내와 서울에 큰집을 가지고있어서 그 로망한 송경팔이가 마름으로 농사를 감독했다. 우리 가난뱅이들의 목숨은 그 송령감손탁에서 오락가락했지. 그러노라니 송마름네도 어느새 지주로 돼갔다.》

저녁으스름이 밀려들었다. 동네쪽에서는 주인을 반기는 개소리가 들려오고 아까 달아났던 까치들이 백양나무둥지로 돌아와서 깍깍 우짖었다.

저녁안개가 산허리를 감돌자 검산봉우리는 구름우에 둥실 뜬것처럼 한결 장엄해보였다. 으스름과 함께 쌍룡강물소리는 쏴— 쏴— 웅심깊은 소리로 울부짖었다.

병모는 곰방대를 뻑뻑 빨다가 말을 이었다.

《할아버지는 송령감에게 잘못뵈서 그만 땅을 떼우고말았다. 그래서 저 모래밭을,그때는 저기가 모래밭이 아니라 갈밭이였지. 저기다 한해에 반나갈이씩 뚜져서 두어해후에는 착실한 땅을 장만했단다. 그땐 그게 모두 임자없는 나라 땅이였지. 그런데 송가란 놈이 소출이 괜찮으니까 흑심이 생겨서 왜놈관가를 끼고 제앞으로 그 땅의 문서를 만들어놓았구나. 그리고는 할아버지더러 당장 땅을 내놓으라고 성화같이 야단이지. 너의 할아버지가 몸은 약했어도 성미가 대단했느니라. 곁바르기를 대쪽같아서 경우가 틀리면 작두날우에라도 올라서는분이였다.

기유년에,그러니까 꼭 40년전 봄갈이때였다. 할아버지가 보습을 들이대려고 하는데 송경팔이 망나니들을 데리고와서 마구 보습을 갖다붙이지 않았겠니. 그때 경팔이 맏아들 희배란놈이 광산덕대질을 하고있었는데 그놈이 부랑배를 거느리고왔다. 그 불한당패들과 싸움이 붙었구나. 그러니 할아버지 혼자서 어떻게 하겠니？ 더구나 그 희배란놈은 순망나니패란다. 후에 광산에서 너무

못되게 굴다가 저 돌아가신 세철이 부친손에 혼쭐이 났지만. 그 못된놈이 딱따구리지팽이로 할아버지면상을 내리쳤구나. 비석재아래서 싸움이 붙었다는 소문을 듣고서 할머니가 아직 어리던 큰아버지와 내 손을 끌고 달려갔는데 그때는 벌써 일이 끝난 뒤였다. 동네에서는 사람들이 와— 쓸어들었지. 그래서 다시 그 불한당패들과 동네사람들사이에 큰 편싸움이 터져서 전쟁마당같이 됐단다. 그때 왜놈경찰들이 말을 타고 달려오지 않았겠니? 마구 군도를 휘두르며 마을사람들을 다 쫓아보내고 다시는 얼씬을 못하게 파수를 세웠지. 그래도 진정이 안되니까 눈가림으로 희배란놈과 불한당 몇을 징역을 살린다면서 데리고갔다. 우리 식구는 쓰러져 누운 할아버지를 놓고 갈발에서 그냥 목놓아 통곡을 하였다.》

《아버지는 머저리야. 머저리. 그 자식을 그냥 살려보내구 머저리—》

진기는 주먹을 움켜쥐고 부르짖었다. 왜 그놈들 숨통을 그 자리에서 눌러죽이지 못했단말인가.

병모는 40년전 어린 소년으로서 체험했던 그 망국노의 기막힌 처지에 새삼스럽게 소름이 끼쳐와서 몸을 부르르 떨며 중얼거리듯 말하였다.

《그래 아버지는 머저리였다. 하지만 그때 세상은 그런 세상이였단다. 그해에 임금조차 왜놈들에게 쫓겨나지 않았겠니. 그래 사방에서 의병들이 들고일어나 싸우고 우리 동네에서도 세철이 할아버지랑은 창을 벼려들고 나갔지만 아버지는 그때 너무 어려서 할머니무릎에 매달려 울기만 했단다. 그날은 날이 흐렸더랬다. 우리 세식구가 하도 슬피 우니까 하늘도 무심할수 없었던지 벼락을 내리더구나. 해질무렵부터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면서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나는 지금까지도 그런 무서운 비를 겪어보지 못하였다. 그래도 우리는 비속에 앉아 하늘을 부르며 통곡을 했단다. 그러니까 밤중이 되여 저 큰길옆으로 난 방천이 터지고말았다. 그게 본시 든든하던 방천인데 왜놈들이 철길을 놓느라고 물굽이를 돌리는바람에 약해져서 허망하게 터지고말더구나. 방천이 터졌다는 소리를 듣자 동네어른들이 노했다. 그래 손에손에 몽둥이며 쟁기를 들고 송가네 집으로 쳐들어가지 않았겠니. 그러니까 또 왜놈들이 쓸어들었단다. 물은 무섭게 넘쳐나지, 한쪽에서는 싸움이 붙었지 정말 끔찍한 날이였다. 동네사람들이 우리 세식구를 물속에서 건져주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못했더면 우리는 할아버지와 함께 빠져

죽을번했지. 그 큰물이 송가놈이 제 땅이라고 우기던 그 땅을 싹 쓸어서 저렇게 모래밭이 되고말았다. 할아버지도 그때 그속에 묻히고말았단다.》

진기는 주먹으로 눈물을 훔치며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었다. 할아버지, 보지도 못한 불쌍한 우리 할아버지, 진기는 그렁그렁하는 눈으로 어둠에 묻혀드는 진펄을 바라보았다. 한식이며 추석때 이 진펄에 와서 제사를 지내던 까닭을 비로소 알았다. 아버지가 종일 들일을 한 피로도 돌보지 않고 한괭이한괭이씩 억새밭을 쪼으면서 그 모래톱 어덴가로 흘러가 묻혔을 할아버지를 찾노라고 애를 썼을 정상이 어린 마음에도 방불히 지펴왔다.

병모는 중얼거리듯 다시 말을 이었다.

《그 논에서 벼 넉섬을 거둬들였지. 그 넉섬지기 땅때문에 할아버지는…》

《아버지, 송경팔령감태기 지금도 살아있을가?》

《살아있겠지. 그놈이 이제 나이 아흔이 가까운데 아마 백이라도 살아있을것이다. 여든이나 돼서 방바닥에 똥을 싸면서도 논밭문서는 횅하니 꿰고있었다는 무서운 령감이다. 벼락을 맞기전에야 어떻게 죽겠니. 그놈이 토지개혁때 쫓겨가면서도 땅문서는 호령호령하면서 다 꿍져가지고 갔다는 독종이다.》

진기는 입술을 앙다물고 남쪽하늘을 바라보았다. 력사봉의 검부가 진기와 함께 남쪽하늘을 바라보고있었다.

4

세철이는 급한 걸음으로 하시원리골목길 초입에 접어들다가 때마침 무명치마폭에 까마귀병을 싸쥐고 절뚝거리며 내려오는 어머니와 부닥쳤다.

그 다리는 15년전 선교사 제임스 골드빈의 골프채에 얻어맞은것인데 천천히 걸으면 그리 눈에 띄지 않아도 그렇게 급히 걸을 때면 몹시 절었다.

비죽이 한 귀퉁이를 드러낸 널쪽 대문가의 뽕나무밑에서 윌리스차의 뒤모양이 보이자 세철은 대뜸 어머니가 중시원리소비조합상

점으로 술받으러 간다는것을 알았다.

《아이구 이애야, 넌 어찌자고 오늘따라 인제사 오니? 퇴근은 벌써 했다던데… 그러나저러나 귀한 손님이 아까부터 기다리고있다.》

어머니 최필녀는 반색을 하며 전에없이 수다를 떨었다. 세철은 은근히 얼굴이 벌개져서 《누가 왔어요?》하고 시뿌둥하게 물었다.

《글쎄 너 성하고 같이 있던분이라는구나. 너 성이…》

필녀는 무슨 비밀이라도 있는듯이 바투 다가서서 목 하나는 더 큰 아들의 귀전에 대고 속삭였다.

《**김일성**장군님부대에서 혁명투쟁을 하다가 잘못됐다는구나.》

《예?》

어머니의 훈훈한 입김에 게면쩍은것을 억지로 참고있던 세철은 흠칫하며 부르짖었다.

《그분도 같이 일하던분이란다. 너 성 소식을 전해주려구 사처에 수소문하다가 며칠전에 평양에서 우리 군당위원장어른을 만나서 검산이야기를 듣고 그길로 달려왔다는구나. 글쎄 이런 기막힐데가 어디 있겠니…》

금시에 옷고름을 눈굽에 가져가는 어머니를 멍하니 내려다보며 세철이는 또다시 머리가 핑 도는것을 느꼈다.

어머니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세철이로서는 알수가 없었다.

형 세진이가 집을 떠난지는 벌써 17년이나 되였고 소식이 없어진지도 15년이 넘었다.

풍문엔 갑산땅 어데서 머슴살이를 한다고도 하였고 청진부두에서 품을 판다는 소문도 있었다. 그러다가 문득 소식이 끊어지고말았다. 어머니는 광복이 되였을 때 행여나 큰아들이 어느 후미진 구석에 배겨있다가 광명한 천지에 빛을 따라 돌아오지나 않을가 해서 은근히 기다리는 눈치가 완연했다.

징병, 징용에 남편과 자식들을 보낸 어머니, 아낙네들과 함께 어머니도 덩달아서 그 란장판을 이루었던 정거장으로 날을 번지지 않고 마중을 나가기도 하였다. 그러나 달이 바뀌고 해가 지남에 자연 어머니마음도 다시 얼어붙은듯이 잦아들고말았다.

그대신 갑자기 늙음이 밀려와서 새벽잠을 못자는가 하면 때론 멍하니 먼 하늘을 바라보기도 하였다.

아들의 주검을 보기전에는 어머니의 그 미련과 기대는 좀처럼

사그라질것 같지를 않았다.
이제 형이 죽었다는 소식은 어머니 가슴에 마지막 아픈 못질을 했을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 사랑하는 아들이 저 낯선 이국벌판을 헤매다가 속절없이 객사했으리라는 절망적인 불안에 시달리고있던 어머니로서는 아들이 **김일성**장군님의 부대에서 떳떳하게 전사했다는 소식은 커다란 기쁨이 아닐수 없었다.
이 슬픔과 기쁨이 엇섞인 커다란 감동은 세철의 가슴에도 삽시에 번져왔다.
《그이가 형을 틀림없이 봤대요?》
《보지 않구,성과 그중 친하게 지냈다는구나. 아이구 사람두 어찌나 무던한지 내가 너 성을 본것 같아서 성이 좋아하던 설기를 좀 찌려고 절구질을 하는데 기어코 제가 찧겠다는구나. 운전수 량반이 또 어찌 텁텁한지 부엌바닥에 펄쩍 주저앉아서 불을 지피고있질 않겠니? 어서 가봐라. 내 상점에 얼른 다녀올게. 술을 못한다고 우기더라만 웬걸 그런 장사들이 술을 안하겠니.》
《그럼 어머닌 들어가세요. 내 상점에 갔다올테니.》
《아니다. 반찬감도 좀 구해야지. 그리구 성기아버님두 좀 청해와야겠다. 네가 얼른 가서 손님들과 이야기도 하고… 참,내가 그 연계를 붙들다가 그만 놓쳤다. 그걸 잡아서 좀 퉤라.…》
《어머니두 참,내가 그걸 끔찍해서 어떻게 목을 비틀어요. 내가 잡아놓을테니 어머니가 하시우…》
《아이구,애두 원… 커다란게 어지기만 해서 어따 쓰겠는지… 그럼 어서 붙들어놓기나 해라.…》

하현달이 검산봉우리에 반나마 걸려서 푸른 빛을 뿌렸다. 그래서 우중충한 산그림자는 한결 우람차게 다가서는상싶었다. 소리없이 내리는 밤이슬에 축축히 젖은 뽕나무잎사귀가 달빛을 받아 번들거렸다. 먼데서 소쩍새소리가 들려오고 마루밑에서 귀뚜라미가 울었다.
벌써 자식이 셋이나 된다면서 초저녁부터 입담을 부리던 젊었는지 늙었는지 분간하기 힘든 키다리운전수도 어느새 잠이 들어 기둥이 들썩하도록 코를 골고 어머니도 아래방에서 잠잠해졌다. 병모로인이 얼근해서 돌아간지도 퍼그나 되였다.
단정한 군복차림으로 소풍이나 하자고 먼저 문전을 나선 전학민군관은 지난해에 세철이가 만들어놓은 뽕나무밑의 평상우에 걸터앉았다.

《좋구만, 세진동무가 저 산이야기를 자주 해서 내 머리속에도 환하던 고장인데 막상 이렇게 대하고보니 새로운 맛이로군. 시간이 있었으면 한번 올라가볼 생각이 나누만.》

젊은 련대장은 두팔을 뻗치고 뒤로 비스듬히 몸을 젖히며 감개무량한 어조로 말하더니 꿋꿋이 서있는 세철을 돌아보자 껄껄 웃었다.

《앉소. 그렇게 주인이 서있어서야 되겠소. 동무도 보아하니 형을 닮아서 무척 용하군, 허허허.》

세철은 우렁우렁하면서도 정이 느껴지는 학민의 말을 들을 때마다 웬일인지 가슴이 찡해지면서 얼빠진 사람처럼 그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게 되였다. 키가 크다는 말을 듣는 자기 키보다도 더 큰 장대한 체구에 낮에 봤을 때는 목덜미에 벌둥지같이 숭숭한 산탄자국이 났으나 이렇게 달빛아래서 보니 희고 단정한 얼굴이 전진에 으깨여진 투사라기보다 어덴지 모르게 선비와 같은 인상을 주는 사람이였다.

그런데 목소리는 포화속에서 굵어진것이 대뜸 알려질만큼 웅심깊은 힘이 느껴졌다.

세철이는 어느 모로 보나 당당한 이 젊은 사람이 자기 형의 둘도 없는 동무였다는 그리고 형도 살았으면 이 젊은 련대장과 같이 돌아왔으리라는 그 한가지 생각때문에 가슴속에 크낙한 자부심이 생겨남을 느꼈다. 세철이가 조심스럽게 평상에 나란히 걸터앉자 학민은 다시 입을 열었다.

《평화스러운 밤이군. 아름답소. 무척 아름답소. 동무네 고향은…》

정거장쪽에서 평양행 막차의 기적소리가 들려왔다. 그밖에는 우주가 숨을 쉬는 소린지 시간이 흐르는 소린지 쏴—쏴— 하고 정체모를 소리가 밤의 대기속에 하나가득 들어찼다. 이따금 개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쌍룡강쪽에서 무엇에 놀랐는지 밤새가 후두둑 깃을 치며 날아났다.

《어머니는 올해에 장가보낼 생각이신 모양이더군.》

《괜히 그러지요뭐. 장가는 무슨 장가예요. 창피하게…》

《왜? 어머니를 모셔야지. 다리까지 불편하신데 그냥 시중을 시켜서야 되겠나? 그 처녀는 웬 처년가?》

세철은 얼굴이 화끈 달아와서 얼굴을 떨구며 퉁명스레 말했다.

《동무지요뭐. 아까 그 령감 딸이우다.》

《그마침 잘됐군. 아까 두로인의 눈치가 수상하다 했지. 허허허, 얼마나 좋소? 성례를 올리고나서 대학에 가면 되지 않아?》

학민의 허심한 말에 세철은 어느새 쑥스러움도 잊어버리고 생각에 잠겼다. 정말 어머니를 그냥 부엌에서 고생시킬수야 없지 않는가? 그리고 보패와의 사이도 어차피 이렇게 된바에는 어떻게든 매듭을 지어야 할것 같았다.

《내가 때마침 찾아온것 같군. 살발은 일가도 없다는데 내가 동무형노릇을 대신해주지. 어때? 좋아? 그래 그럼 당장이라도 무슨 어려운게 있거든 서슴없이 의논을 걸어보오.》

학민은 우선우선하며 궁글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 세진동무에게 참 신세를 많이 졌소. 내가 입대했을 때는 아직 코흘리개적인데 세진동무는 나보다 넷인지 우이였으니까. 꼭 친형처럼 나를 돌봐주었소. 참 동무들사이에 또 형제분이 한분 있었다면서…》

《난 잘 모르는데 세곤이라는 형이 있었답니다. 군관동지가 우리 큰형보다 네살아래라면 꼭 그만한 나이입니다. 지금 살아있으면 스물아홉이나 서른이지요. 그밑에 누이도 하나 있었다는데 난 통 모르겠어요.》

《이것보오. 세철동무.》

학민은 새삼스럽게 세철을 부르더니 불시에 생각이 난듯 주머니를 뒤져서 담배를 꺼냈다.

《피우오?》

《일없습니다, 뭐…》

《피울줄 알면 붙이오. 그런데 입당은 언제 했소?》

세철은 담배를 붙이다말고 힐끗 학민을 올려다보았다. 목소리가 갑자기 엄숙해진것 같아서였다.

《48년도 가을에요.》

《그 잘했소. 입당을 했다니 우선 마음이 놓이오. 세철동무, 형과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잊지 마오. 내 세진동무에게 대강 들었소만 동무는 책임이 중한 사람이요. 참 오래간만에 동무네 부형들이 그렇게 원하던 생활이 왔소. 그분들은 이런 생활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지만 종내 보지 못하고 눈감고말았구만. 그런데 그 광복된 조국에서 평화스럽게 살 행복이 동무에게 돌아왔소. 동무도 가끔 그런것을 생각해보오?》

《네… 때때로 생각은 합니다만…》

세철은 전혀 자신이 없어 우물우물하였다. 왜 그런지 불시에 자기의 생활이 무의미하고 자기라는 인간이 한없이 너절한 인간으로 생각되였다. 때때로 생각한다?… 사실은 그보다 더 자주 잊

어버리지 않았던가?

담배재가 손가락 한마디만큼이나 자랐으나 다시 빨 용기도, 꺼버릴 결심도 나지 않았다.

《때때로? 그래, 때때로 잊어버릴수도 있지.》

학민은 부드러운 말로 은근히 세철의 마음을 풀어주면서 말을 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한시도 잊어버릴수 없게끔 세상형편이 돌아가는것 같소. 특히 동무같은 젊은 당원들은말이요. 이 평화로운 고향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다정한 물소리를 듣는다는것이 동무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를수도 있소. 동무는 지금 아름다운 처녀와 결혼을 하고 대학에 공부하러 가게 됐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동무는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동무에게 조국이 있다는것을 의미하는거요. **김일성**장군님께서 간고한 싸움길에 찾아주신 그 조국말이요.》

세철은 몸이 옹송그려졌다. 무엇인가 커다란 죄를 지어놓고 판결을 듣는것만 같았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전혀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다만 솨—솨— 하는 20년이나 거의 밤마다 들어온 그 소리가 쌍룡강물소리였구나 하는 우습강스러운 생각만이 떠올랐다.

《그러나 동무가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것을 좋아하지 않는놈들이 있소. 동무는 스톡홀름 호소문에 서명을 했던가?》

《네 물론 했습니다.》

《했을테지. 우리 인민들은 모두 서명을 했소. 북반부에서만도 벌써 수백만이 서명을 했소. 그런데 38선에선 매일 전투가 그치지 않고 있소. 사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볼 때 완전한 평화라고 말할수가 없소. 남조선에는 미국놈들이 고문단입네 하고 그냥 둥지를 틀고있소. 지난 3월달에 리승만이는 맥아더에게 불려가서 곧 전쟁을 하겠으니 무기만 대달라고 애걸을 했다오. 미국놈들이 허락만 하면 당장 북진을 시작하겠다는거요. 김석원이란자는 〈북벌을 개시하면 조반은 해주에서 먹고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게될것〉이라고 큰소리요…》

세철은 고개를 들었다.

《김석원이라니? 그 함흥련대 련대장하던?》

《그렇소. 그놈이 우리 유격대를 〈토벌〉하겠다고 간삼봉까지 쳐들어왔었소. 동무의 형님도 그 간삼봉에서 싸우다가 부상을 입었

댔지. 그놈은 간삼봉에서 부대를 전멸시키고 겨우 목숨이 붙어 돌아갔는데 요 얼마전까지 괴뢰군의 1사 사단장을 하댔소.》

《아무러면 그런 로골적인 개를 사단장을 시킨단말입니까?…》

세철은 흥분해서 부르짖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나 강연같은데서 이미 들은바있는 말들이였으나 그것이 이렇게 생활적으로 실감있게 안겨오기는 처음이였다. 얼마전 신문에서 은파산전투에 대한 보도를 읽은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적지 않은 농민들이 희생되였고 랍치도 돼갔으며 한 세포위원장의 안해가 사살되였다는 소식도 들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맥아더란놈은 작년초봄에 신문기자들에게 말했소. 〈오끼나와에다 25개의 비행장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초중폭격기가 하루에 3,500회이상 출격할수 있다. 현재 태평양은 미국의 호수로 되였다.〉고 이렇게 호언장담했소. 그런데 우리가 알고있기는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의 수가 그놈이 말한것보다 몇갑절이나 되오. 태평양이 미국의 호수라고 한다면 우리 조선은 대체 무엇이란말이요? 알겠소? 세철동무, 우리는 이 평화가 어떤것인가를 알아야 하오. 작년에 미국 국방장관 쩨임스 폴래스타르란자는 너무나 전쟁열에 들떠서 그만 미치고말았소. 그래서 16층이나 되는 병원들창에서 〈빨갱이가 쳐들어온다, 큰일 났다!〉하고 소리치면서 떨어져죽었다오. 동무도 신문에서 그런걸 읽었겠지? 세상은 이렇소. 동무는 당원이니까 특히 세진동무와 같은 투사를 형으로 모신 사람이니까 이러한점에 대해서 남달리 깊은 생각을 가져야 하오. 조금이라도 마음을 늦추면 어떤 도깨비가 우리를 업어갈지 모른단말이요. 나는 동무가 학교에 가든 어디에 가든 행복하면 할수록 막로동자의 아들인 동무가 고운 안해를 가지고 대학생이 되고 하는것을 아주 못마땅하여 미쳐날 지경으로 괘씸하게 생각하는놈들이 욱실욱실하다는것을, 모르긴 해도 그자들의 졸개들이 동무의 코앞에도 있을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하는거요. 내보건대 동무도 좀 취해있는것 같소. 행복에말이요.…》

마음속을 꿰뚫어보듯 찬찬히 들여다보는 학민의 시선은 어둠속에서도 빛이 느껴졌다. 세철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나 인차 쳐들었다. 어떻게 가만있을수 없는 심정이였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대학에 가고 결혼을 할수 있단말입니까? 나는 당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일 맥아더가 조선을 저희네 호수라고 했다면…》

《조선이 아니라 태평양이요. 침착하오. 당은 동무에게 모든 사업에서 규약이 요구하는데 따라 충실하게 사업할것을 요구하고있소.》

《그렇지만 놈들이 쳐들어온다면…》

《그놈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세상을 볼줄 안다면 그런 망발은 못할게요. 서뿔리 접어들었다간 사등뼈가 부러질테니말이요. 어떻소? 동무는 이 생활을 그놈들에게 그냥 내줄수 있소?》

《무엇때문에 그것을 묻습니까? 나도 어린애가 아닙니다.》

《좋소. 그러나 내가 걱정하는것은 그놈들은 이미 미쳐버렸다는거요. 미쳐서 16층에서 내리뛰는놈들이요. 원자탄만 있고 하루 3,500회씩 비행기를 띄울수 있는 기지만 있다면 동무가 어떤 결심을 했던 그건 별 아랑곳할바가 못된다고 생각하고있는것 같소. 이게 바로 문제란말이요.》

《어째서 내 결심은 그놈들에게 그렇게 시시하게 보인단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하찮은 광산의 한 수리공이지만 그러나 그깐놈들 목이나 비틀라면 자신이 있습니다.》

《물론 동무의 결심이야 든든하겠지. 허지만 그놈들이 미쳐버렸는데야 어떻게 하겠소.》

《그렇다면…》

세철은 무엇인가 반대를 하고싶었으나 말을 이을수 없었다.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너무나 지식이 없었다. 폴래스타르란놈이 16층에서 떨어져 죽었다는것도 생소한 이야기였지만 어떤 미국놈이,미쳐서 제멋대로 떨어져 죽은놈이 무엇때문에 자기 생활을 이처럼 휘저어놓게 되는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다.

그는 조국의 평화적통일에 대한 조국전선호소문이라든가 남반부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신문보도를 읽으면서도 그만 못지 않게 막연한 생각— 말하자면 이제 머지 않아 통일이 될것이고 어찌면 인차 서울구경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그저 열성스럽게 일손만 다그쳤다. 만일 형편이 그렇다면 어찌하여 당은 나에게 그것을 일깨워주지 않는가? 나도 군사훈련을 받은만큼 당장이라도 총을 잡고 나설수 있는 몸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째서 이렇게 가만 있습니까? 그놈들이 원자탄이나 가지고 그렇게 되지 못하게 논다면 우리도…》

《세철동무…》

학민은 밤이슬에 축축해진 세철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부드럽

게 불렀다.

《내 이야기를 잘 새겨들어야 하오. 내가 말하는건 동무가 언제 어디서나 형의 뒤를 따라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우리 혁명에 충실해야 할 로동당원이라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것이요. 그리고 이제 말한것처럼 혁명의 적들은 세계도처에서 미쳐날뛰고있으며 특히 우리 조국을 엿보고있다는 그것이요. 이것이 어떤 조국이요? 물론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이 귀중한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온갖 대책을 다 세우시고계시오. 그러니 동무와 같은 청년들이 장군님의 뜻을 잘 받들어야 한단말이요. 우리를 넘보는놈들이 만만한놈들이 아니라는것은 동무도 잘 알거요. 미국놈들은 원자탄을 휘두르면서 30시간이면 세계를 제패한다고 떠들고있소. 동무는 원자탄이 무섭지 않소?》

《글쎄요. 난 아직 원자탄을 못봤기때문에… 그게 무서운게라구들 하더군요.》

《무섭지. 그렇기때문에 지금 세상에는 그 원자탄바람에 미친 사람이 적지 않소.》

《아니, 미치긴 왜 미친단말입니까?》

《허허허, 이제 두고보오만 자본주의국가들에서는 많은 사람이 미쳐서 짐승흉내를 내고있다오. 그중에는 한때 공산주의자노라고 자칭하던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요. 그자들생각엔 당장 죽을텐데 도덕은 해서 무얼하며 정의는 무엇이고 혁명은 무어고 인간은 다 뭔가 하는거요.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강간하고 아들은 어머니를 강간하는 판이요. 원자탄을 휘두르는놈들이 바로 그것을 노리고있단말이요. 한심한 일이요. 이게 무슨 판인지 알만하오?》

《알듯도 합니다만…》

세철은 숲속에서 길잃은 사람처럼 떨떨해졌다. 세계라는것은 그가 무의식중에 생각해오던바 봄에는 씨를 뿌리고 가을이면 황금파도가 물결치는 검산벌, 쌍룡강 두 장사의 비장한 전설이 깃들어있는 검산의 바위벼랑, 굴착기를 수리한 자기의 커다란 사진이 정문에 붙어있던 광산과 일요일이면 영화구경을 가던 읍거리만이 아니였다. 세계란 얼마나 넓은가. 그리고 알수 없는 괴물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으며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날마다 일어나는것인가? 그런데 무엇때문에 그 모든 잡다한것을 다 알아야 한단말인가. 그것을 몰라도 그는 어머니 한분을 모시고 어쩌면 미구에 자기집으로 시집올지도 모를 보패와 함께 충분한 식량과 봉급을 타면서 오붓하게 잘살수 있는데…

학민은 그것을 알아야 하며 단지 알아야 할뿐아니라 그것을 똑똑히 주시하고 그속에서 가장 정확하고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형의 피줄을 이었으며 무엇보다도 혁명을 하겠다고 당앞에 맹세한 로당원이기때문에…

《알듯도 하다? 솔직한 말이요. 나 역시 이 세계를 휩쓸고있는 어수선한 분위기가 어떻게, 어데로 폭발할것인지 똑똑히는 모르겠소. 그러나 내 생각에는 동무나 나나 어떤 폭풍속에서도 동무의 어머니를 다시금 헐벗고 굶주리게 할수 없으며 또 동무가 그… 뭐라고 했지? 그 처녀말이요?》

《보패입니다.》

《그래 그 보패와 행복하게 살며 또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할수 있는 권리를 빼앗길수 없다는거요. 비록 어떤놈들이 원자탄으로 위협한다 해도말이요. 안그렇소?》

《그야 물론 그렇지요.》

세철은 알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간신히 대답했다. 학민은 잠시 침묵을 지키고 앉아서 반나마 력사봉뒤로 기울어져가는 달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그뒤에 커다란 발광체를 감추어두고 희여스름한 수만필의 천으로 둘러막아버린듯한데 군데군데 바람으로 부풀어오르기도 하고 지나치게 부풀어서 꿰여져나간듯도 한 그 짬짬으로 별빛이 초불처럼 반짝이고있었다. 머리우에 드리운 뽕나무가지들은 이제는 이슬의 무게에도 견딜 힘이 없는지 무겁게 처져드리웠다. 중시원리의 버들숲 상공에 기울어진 삼태성이 유난히 밝은 빛을 뿌린다. 그아래서 보패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폴래스타르가 미쳐죽었다는것도, 맥아더가 리승만이를 불러들여서 무슨 지시를 주었다는것도 그리고 오늘도 은파산에서 괴뢰군들과 치렬한 전투가 있었다는것도 모르고 쌔근쌔근 잠들고있으리라…

《참 아름답소. 이 평화를!… 세철동무!… 세철동무, 내 동무에게 전할게 있소. 잠시 여기 있소.—》

학민은 갑자기 노기 띤 목소리로 말하더니 뚜벅뚜벅 안마당으로 들어갔다. 그때까지도 아래방에서는 최필녀가 잠들지 않았는지 불을 켜고 무엇인가 부스럭거리고있었다. 학민은 자기 려장을 풀어놓은 웃방에서 자그마한 꾸레미 하나를 들고나왔다. 그것은 양회포장지로 꽁꽁 여러겹을 싸서 노끈으로 단단히 동여맨것인데 얼마나 오래됐는지 밤바람에 뭉클하고 곰팡내가 풍겼다. 학민은 먼저와 같은 자세로 앉아

그 꾸레미를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끄르면서 입을 벌렸다.

《형님이 집을 떠날 때 생각이 나오? 그때 동문 몇살이였지?》

《어슴푸레 기억이 됩니다. 내가 다섯살때 일이니까 벌써 17년이나 됐는데.》

하고 세철은 어처구니 없이 흘러가버린 세월에 새삼스럽게 놀라며 말을 이었다.

《정말 세월이 류수같다더니… 금방 어제같은데…》

《이크, 이게 이제는 세멘포대가 다 삭았구만. 참 동무말대로 세월이 많이도 흘렀소. 이걸 꼭 13년만에 주인을 찾아주는군. 그런데 형은 그때 선교사아들놈과 싸웠다면서?》

《네, 골드빈이라구… 그때 아버지가 광산에서 돌아가셨기때문에 그놈들 집에서 드난살이를 했답니다. 그런데 골드빈이라는놈이 콜프라고 저 막대기로 치는것 있지 않습니까?》

《나도 구경한적이 있소. 동무형 말을 들으니까 그놈아들이 공을 가지고 달아났는데 동무에게 넘겨씌워서 싸움이 되였다더만… 하하하, 이거 속지가 더 녹았군. 녹이 쓸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

《그래요. 골드빈이 콜프를 칠 때면 우리 형제가 그 공을 주어서 바쳐야 했지요. 그런데 매일 풀밭에서 마구 쳐대는놈을 어떻게 일일이 다 찾아냅니까? 그중에는 오래전에 잃은놈을 후에 찾아내는것도 있고 그러다가 종내 잃어버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날 어떻게 돼서 공이 잃어졌는데 아마 골드빈이란놈이 그 공 하나때문에 내기에서 지게 됐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눈이 뒤집혀서 찾느라고 야단인데 사실 그 공을 윌리암이란 그 아들놈이 가지고 달아났거던요. 그런걸 내 주머니에서 다 헐어떨어진 공을 뒤져내서는 나보고 훔쳤다는 거지요. 내가 콜프채에 맞아서 우니까 형이 윌리암멱살을 끌고왔지요.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바람에 질겁한 어머니가 싸움을 말리러 뛰여들었다가 골드빈의 콜프채에 얻어맞아 다리가 부러지고말았습니다. 그놈은 후에 저도 싸움 말리자고 한게 실수를 해서 그랬다고 말했지만 형한테 윌리암이 얻어맞고 또 손님앞에서…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저 검촌광산의 아오끼라는 왜놈 광주도 오고 화이트라는 자혜병원 원장도 오고 또 나중에 들으니 홀동에서도 손님이 왔답니다. 그러니 그 손님들앞에서 제 아들이 공을 훔쳤다는게 드러났기때문에 그 분풀이를 한거지요. 형은 원쑤를 갚는다고 벼르다 벼르다 그날로 도망을 치고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처음에는 괜찮을것 같다던 다리를 화이트란

놈 병원에서 수술을 해가지고는 종내 절뚝발이가 되지 않았어요.》
세철은 학민이가 껍데기를 다 끌러서 알맹이를 꺼내든것도, 그리고 그 너덜너덜해진 포장지로 알뜰히 닦아내고있다는것도 모르고 열이 올라서 17년전의 이야기를 단숨에 쏟아놓았다.
《그렇소. 그놈들이라는게 그렇게 병주고 약주는놈들이라오. 그러기때문에 동무 형은 죽는 날까지 원쑤를 갚는다고 별렀던거요. 이게 기억이 나오?》
달빛에 무엇인가 번쩍하였다.
《아!》
세철은 흠칫하며 한걸음 물러앉았다. 그것은 칼이였다. 17년전 형 세진이가 골드빈을 찔러죽인다고 식당에서 들고나왔다가 그길로 가지고 도망쳤던 그 흰 상아자루가 달린 식탁 나이프였다.
스텐레스합금으로 된 그 무딘 칼은 녹이 나기는커녕 얼마나 갈았던지 손끝에 닿으니 면도칼처럼 날이 서서 선뜩하였다.
《세진동무는 이 칼을 짬만 있으면 갈군했소. 어떻게 날이 섰던지 우리 중대에서는 이 칼로 내내 면도를 했댔소. 세진동무가 전사했을 때 배낭에는 탄알외에 공책 한권과 물부리가 있었는데 공책은 다른 사람이 쓰고 물부리도 딴 동무가 기념으로 가져갔소. 이건 모두 면도를 하던 칼이 돼서 광복될 때까지 남았는데 형의 유물이니 받소.》
세철은 칼을 받아들고 이윽히 들여다보았다. 뿌옇던 달빛이 좁다란 칼날에 반사되여 그속에서 불타는듯 번쩍거렸다.
세철은 그속에서 세기를 두고 흘린 조상들의 피와 눈물의 흔적을 읽는듯하였다.
《아까 어머니에게 전하려다가 너무 마음 아파하실것 같아 드리지 못했소. 후날 어머니 마음이 좀 가라앉거든 기회봐서 말을 전하오. 형님의 불타는 적개심을 꼭 말씀드려야 하오.》
세철은 학민의 말은 통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멍하니 앉아서 조선을 자기 호수라고 말했다는— 어쩐지 그에게는 태평양이란 말이 그렇게만 기억되였다.— 맥아더와 혹 지금쯤 저 남조선이나 일본 같은데 와있을지도 모르는 골드빈 부자를 생각하며 먼 남쪽하늘을 바라보았다.
저도모르는새 칼자루는 억세게 틀어쥐여져있었다.
《세철동무, 형을 잊지 마오. 세진동무는 **김일성**장군님의 높은 신임을 받았고 장군님 품에서 혁명가로 자라났소. 내가 아까 동

무의 입당문제를 물어보았지만 동무의 형은 수령님께서 우리 당을 창건하시기 위해 눈보라치는 밀림속을 걸으시면서 혹은 눈무지우에 피워놓은 우등불가에서 밤을 새우시면서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던 1936년초에 당에 들었소. 그때 우리 혁명이 얼마나 간고했는지 아오? 내가 아까 우리 빨찌산들이 어떻게 싸워왔는가는 대충 이야기했지만 특히 세진동무가 입당을 준비하던 그 시기는 어려웠었소. 그것은 말하자면 우리 혁명전반의 시련이였소.》

학민은 잔잔한 목소리로 반《민생단》투쟁시기와 간고한 두차례에 걸치는 북만원정의 장엄한 서사시적화폭을 펼쳐보이였다.

《한쪽에서는 〈관동 100만 대군〉이 우리 뒤를 조이고 한편에서는 김성도, 송일 같은 종파쟁이들이 안을 쏠고있었소. 거기다 우둔하고 암매한 민족주의자들이 덩달아 춤을 추는 판이였소. 그통에 아까운 동지들이 얼마나 희생되였는지 모르겠소. 만일 그때 **김일성**장군님과 같은 위대한 령도자께서 우리 혁명의 위험을 한몸에 막아나서지 않으셨던들 오늘의 우리 조국도, 행복한 생활도 생각할수 없었을거요. **김일성**동지께서 다홍왜회의에 편찮으신 몸으로 나오셨을 때 그리고 그이의 천재적인 말씀을 전해들었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벌써 오늘의 조국을 그려보았던거요. 알겠소? 동무의 형은 이런 간고한 무장투쟁과 복잡한 정치사상투쟁속에서 단련되였고 장군님께서 직접 길러내신 당원이였소. 동무 당증에 배여있는 혁명선배들의 피를 잊어서는 안되오. 내가 동무 형을 대신해서 우선 하고싶은것이 이 말이요. …》

학민은 가끔 세철의 어깨를 두들겨가며 시간이 가는줄도 모르고 준절하면서도 정어린 목소리로 간곡하게 타이르고 일깨웠다. 그 웅글고 차분한 목소리를 들으며 세철은 자기가 서있는 대지를 무엇이 뻗치고있는가를 느끼는것이였다. 그리하여 그는 발밑이 든든함을 새삼스럽게 깨달으면서 동시에 어깨우에 실린 크나한 짐을 어렴풋이 느끼는것이였다.

달이 지자 사위는 갑자기 어둑어둑해졌다. 어딘가 먼 상시원리쯤에서 선잠을 깬 닭이 홰를 치며 울어제꼈다. 그러자 중시원리에서도 하시원리에서도 그리고 아득히 읍내쪽에서도 다투어 홰를 치는 닭소리가 울려왔다.

《날이 새는군, 이젠 들어가기요.》

학민은 벌떡 일어서더니 생각에 잠겨있는 세철을 보자 먼저 마

당으로 사라졌다. 그리고도 세철은 한동안을 그렇게 앉아있었다.

5

겨우내 헛간에 쌓아두었던 장작은 바짝 마른줄 알았더니 정작 아궁에 들어가니 지글지글하고 비누거품같이 진물을 뿜어대면서 툭툭 튀였다.

그런대로 불은 잘 붙었다. 이글이글 타는 불길사이로 검은 연기가 타래져오르는것이 열을 더 세차게 내뿜는것 같다.

반들반들 검은 윤이 나는 솥안에서는 아까부터 설설 물이 끓었다.

부지깽이를 짚고앉아 부엌강아지처럼 졸고있던 휘태는 먼데서 들려오는 닭소리에 문득 눈을 떴다. 시계를 보니 벌써 두시가 다 됐다. 그런데도 방안에서는 여전히 신음소리가 들려온다.

초저녁부터 노전귀를 박박 할퀴며 두간 통방만치 넓은 방을 아래우로 마구 헤매다니던 안해는 이제는 힘이 진하였는지 아이구,아이구 하는 가는 신음소리사이로 숨소리가 할딱할딱한다.

장모는 구석에서 쓰러졌는지 기척이 없다.

휘태는 부러진 안경다리를 어설프게 매만지고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미닫이를 다시한번 올려다보았다. 해산이 힘들다는 말을 어디서 들은듯하지만 이렇게 장이틀을 신고하는것을 목격하고나니 더럭 무섬증이 났다. 몇번이고 병원으로 달려가려 하였으나 그때마다 장모가 괜히 멋없이 덤빈다고 퉁을 주어서 주저앉군했었다. 장모의 말에 의하면 경패가 그렇게 야단을 치는것은 엄살이라는것이였다. 자기는 아이를 하도 많이 낳고보니 이제는 얼마나 낳아서 얼마나 죽이고 얼마나 길렀는지 회계도 똑똑치 않지만 매번 모래밭에서 무뽑듯했기때문에 침 한번 뱉은것만한 기억밖에 없다고 오돌오돌 떠는 딸과 사위를 안심시키려 하였으나 그 말은 꾸며낸 말이 아니라 엄연한 사실이였기때문에 위안은커녕 무시무시한 생각을 키질해주었을뿐이였다. 그런데도 수다스러운 장모가 무엇인가 야단을 치고 명령을 하고 할동안은 짜증이 날만큼 부산스럽기도 했지만 어쨌든 마음이 듬직해서 아궁앞에 북데기를 깔고앉아 건들건들 졸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렇게 밤이 깊고 사위가 괴괴해지자 당장 무슨 괴물이 쳐들어올것만 같은 을씨년스런 생각이 엄습해왔다. 벽에 주련이 매

달린 바가지짝들이 데룽거린다. 바깥에서는 쏴—쏴 바람소리가 요란하고 단속을 하지 않은 널쪽대문이 삑—삑 하고 여닫긴다.
　휘태는 부지중 사위를 휘둘러보았다.
　광복전 일본인 사원사택의 하나였던 한일자로 내지은 함석지붕의 맨 끝에 위치한 이 부엌은 그전 세월에는 이 읍거리에서 가장 넓고 편리하게 꾸려진 부엌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단 두식구가 살던 휘태네에게는 부엌안을 채울만한 세간도 없어서 어쩐지 휑뎅그렁한 느낌을 주었었다. 그래서 겨울엔 허청간이 따로 있었지만 몸이 무거운 경패가 바깥출입하기 힘들어할가봐 장작을 가득 들여 쌓아두었었다. 그러던것이 해동이 되면서 장작이 없어지고보니 어수선한 자리만 남았다. 그런대로 경패가 부엌일을 할동안은 항아리며 식장이며 선반우에 놓인 그릇들이 반들반들했었는데 며칠째 주인이 산고에 시달리게 되자 부엌안은 나간놈의 집처럼 더 어수선해졌다.
　부뚜막우에 놓인 크고작은 두개의 버치에는 빨아서 불궈놓은 미역과 일어둔 쌀이 차분히 갈앉아있다.
　휘태는 두려운 눈매로 이 모든것을 휘둘러보며 어쩐지 자기가 현실이 아니라 어떤 악몽속에서 시달리고있는것만 같이 가슴 답답함을 느꼈다. 안해가 저렇게 신음소리를 내며 만 이틀을 시달리고있는것이 전적으로 자기의 그 어떤 불순한 욕심때문이라고 자기를 무섭게 꾸짖기도 하였다.
　휘태는 지금 자기가 아들을 —사실 그것이 아들이 될는지 딸이 될는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 가지게 되는 이것이 기쁜것인지 혹은 언짢은것인지 분명치 않았다. 자기가 아이아버지가 된다— 보통인간들이 거의 모두가 그런 체험을 가지게 되는것이요, 자기도 언젠가는 그렇게 되리라는 막연한 생각은 있었지만 그것이 기쁜것이라고 자신을 납득시키는외에는 어쩐지 쑥스럽고 거북함을 느끼게 되는 휘태였다. 아버지란 말은 적어도 중년이나 돼서— 그런데 자기는 어느덧 서른고개를 넘었으니 이젠 중년이 됐는지도 모를 일이였지만 하여간 아버지란 말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감정이였다. 그러나 이제 안해의 그처럼 지독한 고통을 목격하자 힘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가슴이 바질바질 타번질만큼 초조하게 기다려지는 것이였다. 그는 자기가 졸았다는 생각이 나서 어둠속에 혼자 낯을 붉혔다. 저렇게 안해가 신고를 하고있는데 셈평좋게 앉아서 졸다니, 가장 친근한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온 안해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이런 마당에서조차 그리고 의식적으로 기다렸는지 안기다렸는지는 모른다 해도 어쨌든 자기의 피줄을 이은 자식이 태여나려는 이러한 마당에서도 꺼떡꺼떡 졸수 있다는 여기에 자기의 인간면모가 있지나 않는가 생각되였다. 하긴 최근 얼마간은 8.15까지 년간계획을 완수하자는 전국적인 증산경쟁운동과 함께 직장일이 무척도 바빠서 변변히 눈을 붙여보지 못한것도 사실이였다. 새로 벌려놓은 3호채광장은 아직도 자리가 잡히지 않았다. 매번 박토때문에 채광공들은 한시가 바쁜 이런 대목에 멍하니 일손을 놓고 한담을 나누는 때가 드문하였다. 박토가 걸린것은 버럭처리능력문제때문인데 이것은 전적으로 운수직장에 책임이 있었다. 그러나 운수부장 장인택은 합리적인 대책을 세울 궁리보다는 많은 운수기재들이 공무직장에서 낮잠을 자고있기때문이라고 모든 책임을 공무직장에 넘겨씌웠다.

그때문에 공무직장, 운수직장, 채광직장의 간부련속회의가 있었고 당회의가 련달아 열렸었다. 어떤 경우에나 책임의 많은 부분이 기술부에 돌아왔고 또 기술부는 기술부대로 자기 립장을 밝히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다보니 휘태도 자연 장인택의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하게 되였다.

그러나 인택은 약은 사람이여서 결코 기술부와 맞서지를 않았다. 따라서 휘태의 지적을 정면으로 반대한적은 없었다. 그러나 어쨌든 결과는 공무직장에 기본 책임이 있고 다음은 기술부에서 많은 일을 잘못하거나 전혀 하지 않은것으로 락착되군하였다. 이바람에 휘태는 보름동안을 거의 현장에서 살다싶이 하였다.

휘태는 자기가 잠을 자지 못한 이러한 사실들을 상기한다는 그자체가 자기의 비굴성과 교활성을 드러내놓은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어쨌든 그 소부르죠아인테리의 메스꺼운 비굴성과 리기심때문에 한평생 잔침질을 당해야 할 숙명을 타고난것이라고 쓰겁게 자기를 조소하였다.

입안이 텁텁해서 혀바닥으로 입천장을 한번 가셔서는 걸찍한 침을 자기 조소와 함께 내밸았다. 그러나 입안은 더 텁텁해지고 한편 갑자기 어깨가 찌뿌드하게 무거웠다. 그러고보니 바깥에서는 바람이 불고있는모양 찬기운이 서늘한 부엌문으로 마구 쓸어들어와서 등을 싸늘하게 얼구었다. 그런데도 이글이글 타오르는 통장작불은 앞가슴이며 얼굴을 마구 지지고있는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온몸이 몸살이 오는것처럼 으시시하였다. 문득 신음소리가 높아졌다.

《아이구, 아이구, 어머니— 나 죽어요. —》

휘태는 긴장되여 저도모르게 안경테를 매만지며 한절반 허리를 솟구었다. 부시럭소리가 나더니 장모의 잠에서 덜깬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렇게 서서 바라단기지 말구 반듯이 누워라. 얘야,거 뭐 떨어진다. 저런,아이구.》

와지끈 하고 높은데서 무엇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원 쯧쯧! 부산도 떤다. 하마트면 깨여질번했구나. 원 그렇게 참을성이 없다구야.》

《아이구— 아이구.》

《이리와 누워라. 진정해서 힘을 모아야지. 그렇게 미친년처럼 설설 긴다구 일이 되느냐.》

잠잠해졌다. 잠시후 또 가는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그사이 휘태는 자기가 숨을 쉬지 않고있다는것을 깨달았다. 안해의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온다.

《아이구,아이구—… 어머니,아이구… 그이를 웃방에 들어와서 자라구 해요. 괜히… 아이구…》

《별걱정을 다한다. 어떤년은 정 급하면 사내 신짝을 내동댕이친다는데 이건 쯧쯧.》

휘태는 불시에 코등이 찡해졌다. 어찌하여 저 녀자는 자기의 고통도 잊어버리고 나를 생각하는가? 이 안휘태가 뭐란말인가? 저 바람에 불려다니는 지난해의 락엽처럼 광막한 천지를 마구 흘러다니다가 어느 뒤뜨락으로 휘몰려들듯이 여기 검산땅에 기여들어온 자기가 아닌가?

《걱정도 팔자지. 아이애비 구실하기가 그렇게 쉬운줄 아느냐?》

그렇다! 장모의 말이 옳다. 그것이 보통사람들의 생각이요,또 일반적으로 말해서 아이애비 구실한다는것이 결코 헐한 일이 아닐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대구 약전골목 한 귀퉁이의 조그마한 지물상가게방에서 일본으로 공부를 내보낸지 8년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생각하여 이젠 진갑이 가까운 나의 아버지도 벌써 잠이 깨여 담배연기로 좁은 방안을 자욱히 채우며 허무한 부자인연에 대해 생각하고있을지도 모른다. 하긴 학병으로 나간다는 소식을 보냈으니 아마 지금쯤 왜놈들의 북지전선이나 남방전선에서 죽은것으로 단념해버렸는지도 모른다. 그러고보면 자기 휘태가 이렇게 황해도 한 귀퉁이의 함석지붕아래서 새벽세시 림박에 장작불을 지피면서 비록 심한 산고를 거친다고는 하나 어쨌든 미구에 태여나고야말 아들을 기다리고있다는 이 사실이 어쩐지 현실의 일같지가 않

았다. 더구나 어머니도 아니요, 누이도 아닌, 몇해전까지만 해도 생판 알지도 못하던 경패가, 동네에서 달덩이 같다던 그 무던하고 복상스럽던 경패가 자기를 그렇게도 진심으로 생각해준다는것은 현실에서는 도저히 바랄수 없는 일인것 같았다. 날이 가면 갈수록 자기라는 인간이 보잘것없는 특히 이런 격동적인 현실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임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이즈막이고보니 휘태의 이런 생각은 눈물이 쑥 나올만큼 가슴속을 야릇한 애수로 채웠다. 어느덧 이글이글하는 불길우에는 비상하다면 비상하고 너절하다면 너절한 스스로의 과거사가 무슨 환영처럼 언뜻언뜻 지나갔다.

전국적으로 의병투쟁과 독립군운동이 진압되고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이 불타오르기 시작할무렵 벽제윤함집을 사숙하여오던 휘태의 아버지 안오당은 고향인 팔공산 동화사아래에다 구학서당을 차렸었다. 중일전쟁이 시작될무렵까지 고집을 부리고 상투를 안깎던 그는 하루아침 장성하는 아들들을 뜰앞에 세우고 점명이나 하듯 하나하나 나이를 물으며 찬찬히 얼굴들을 들여다보더니 불시에 백코칼을 들고 뒤마당으로 가서 뭉턱 상투를 잘라버렸다. 눈물방울에 젖은 그 상투를 거름통으로 홱 뿌려뿌린 오당은 순식간에 개화를 해서 오래전부터 졸라오던 휘태의 류학을 승인했다. 휘태가 동경으로 건너간후 아버지는 땅과 집과 일체 가산을 다 정리해서 대구부내로 나와 약전골목 한 귀퉁이에 한지며 장판지따위 수록지를 취급하는 조그마한 지물상을 내였다.

휘태는 내내 쪼들리는 학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방학때도 번번이 집으로 갈수가 없었다. 도로공사장에 가서 일공일도 하고 우유배달도 하였으며 있는집 아이들의 노트정리를 해주고 약간씩의 푼돈을 벌기도 했다. 그에게 믿음성있는 일거리를 제공하는것은 공부를 하러 류학을 온것이 아니라 전문학교 졸업장을 사기 위해 왔노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송치호였다.

휘태는 조막만한 머리며 말총같이 촘촘히 박힌 머리칼이며 정수리로 달려올라가듯 주름이 조글조글한 발은 이마 등으로 한눈에도 저능아임을 알수 있게 하는 송치호가 마음에 싸지 않았고 더구나 그의 노트를 정리해주고 그에게서 동냥이나 얻듯 푼돈을 얻어쓴다는것이 참을수 없는 모욕이였다. 그러나 휘태역시 치호만 못지 않게 그 전문학교 졸업장이 필요했던것이다. 이 필요성때문에 휘태는 자주 목구멍으로 넘어오는 정의의 목소리를 눌러버리지 않을수 없었다.

하루는 어떻게 하여 두사람이 우에노공원을 함께 산보하게 되였는데 공원초입에 서있는 사이고 다까모리 동상앞에서 결정적인 싸움을 하고말았다. 치호는 말하기를 무르팍과 앞가슴이 다 드러나는 왜옷에 머리를 빡빡 깎고 개사슬을 손에 쥔 그 일본 최초의 륙군대장이 가장 존경할만한 위인이라고 주장하였다. 휘태는 상대가 워낙 무식한 사람이라는것을 고려하여 그 동상의 주인이 조선을 정벌할것을 주장한 《정한론》의 주창자임을 귀띔해주었다. 그러자 치호는 의기양양해서 말하는것이였다.

《그러기때문에 조선청년은 사이고 다까모리를 특히 존경하는게 아닌가? 이 사람 만일 저 사람이 아니더면 우리 조선이 아직도 상투를 짜고 당나귀를 타고 다닐거란말이야. 우리 집은 량반집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동경과 같은 대도회지에서 사각모를 쓰고다닐 엄두나 낼것 같은가?》

《예끼 너절한놈!》

《뭐야! 아니 이 새끼가!》

치호는 다짜고짜로 멱살을 틀어쥐였다.

《개자식! 사이고 다까모리가 네 할애비냐!》

휘태는 난생처음으로 그렇게도 격분하여 사람을 쳤다. 치호는 말려놓은 무쪽같이 시들시들한 휘태에게서 불의에 코등을 쥐여박혀 모직학생복을 코피로 적시며 발광적으로 접어들었다.

휘태는 뒤돌아도 보지 않고 하숙으로 돌아왔다. 그후 그들의 관계는 절교이상의 험악한 상태로 되였다. 치호는 휘태에게 복수할 기회만 노렸고 그때문에 휘태는 한동안 불안한 상태에서 세월을 보냈다.

그러다가 히바야공회당에서 동경류학생들을 모아놓고 검정두루마기를 입은 리광수가 나타나서 학병으로 가라고 권고했을 때 치호가 열광적으로 박수를 치는바람에 휘태의 개인적인 불안은 일소되였다. 모든 동경류학생들에게서 돌려난 치호는 차라리 만만한 휘태에게 접근해올사하는 눈치조차 보였던것이다.

《대본영》 발표와 평출인지 돌출인지 하는 대좌의 담화가 연방 《무적황군》의 전과를 요란스레 떠들고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간에서 히틀러가 망했다는 소식이 떠돌고 《대동아전쟁》도 거의 끝나간다는 추측이 차츰 우세해졌을무렵 그들은 공교롭게도 함께 학병에 끌려나가 한분대에서 훈련을 받게 되였다. 입대직후의 어느날 휘태가 현수를 못해서 왜놈오장에게 죽도록 경을 치고 나가넘어져있을 때

마침 휴식시간이 되였다. 10분간이라는 짧은 시간내에 소변을 보고 담배를 피우고 목마른 사람은 물을 마시고 그야말로 눈코뜰새없이 바삐 돌아쳐야 하는 그 귀중한 시간에 치호가 은근히 다가왔었다.

《몹시 아퍼?》

휘태는 오장의 구두발길에 걷어채인 정갱이가 아팠다기보다 전에없이 상냥한 치호의 말투에 저도모르게 눈살을 찌프리며 침을 꿀꺽 삼켰다.

《그래도 참아야지 어떻게 하나. 들으니 저놈들도 끝장이 날 때가 됐대.》

슬그머니 휘태옆에 엉뎅이를 놓으며 시름없이 하는 치호의 말에 휘태는 다시한번 놀랐다. 그러고보면 입대전후해서 치호는 눈에 띄우게 활기가 죽었었다. 멀뚱멀뚱 쳐다보는 휘태의 눈에서 반문하는 의사를 느꼈는지 치호는 쑥덕쑥덕 휘태에게 수군거렸다.

《왜 민환규선생 왔다가지 않었어? 우리 입대하기 직전에 말야.》

민씨네일가와 주종관계로 얽혀져있는 치호는 불과 4～5년 선배인 환규를 깍듯이 선생이라고 공대하였다.

하긴 그곳 동경에서 환규의 신망은 높았었다. 그가 제대를 우등으로 졸업하여 《천황》이 하사하는 금시계를 탄것도 탄것이지만 조선굴지의 대지주의 아들로서 《독서회》사건에 관련되여 후에 전향을 했다고는 하나 어쨌든 동경 경시청 특고의 요시찰인명단에 올라있었다는 그 한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그가 동경을 떠난지 벌써 여러해가 되는 오늘토록 류학생들가운데서 그의 이야기가 때때로 오르내릴만한 근거가 있었다.

휘태는 그와 직접 면식은 없었으나 소문은 익히 들었고 몇번 한자리에 앉기도 했으며 또 얼마전에 불쑥 동경을 다녀갔다는것도 알고있었다. 그러고보면 내각이며 군부계통에 아는 사람이 많은 환규로부터 어떤 새소식을 얻어들었는지 모를 일이였다.

《민선생이 말하는데 련합함대는 벌써 오래전에 에므덴해구에 송두리채 가라앉고 관동군 백만대군이라는게 가까스로 쏘만국경을 뻗치고있다는군. 그런데말야, 군부에서는 본토작전을 하겠다고 기를 쓰는 모양인데 그 고노에있지 않어?…》

여기서 치호는 갑자기 말을 뚝 끊더니 사위를 휘둘러보고나서 휘태의 얼굴에 더운김을 뿜어대며 목소리를 더욱 낮추었다.

《고노에 후미마로가 천황폐하앞에 상소문을 올렸다네. 사실

은 민선생이 그 내막을 좀 알아보자고 왔대… 암만해도 그게 항복하자는 소청인것 같다고 말야. 왜 그런고하니 로씨야와 불가침조약기한이 다 됐기때문에…》

《아쯔마레！(모엿)》

빈 깡통 두드리는것 같은 오장의 찌릉— 하는 쇠소리가 울리는바람에 이야기는 중단되였다. 그것이 1945년 4월달의 일이였다.

한달후 그들은 다같이 병장의 견장을 달고 화북전선의 한 영구화점속에 두더지처럼 틀어박혀있었다. 뒤에는 다 파괴된 동네가 있었고 앞에는 대지의 느릿한 기복이 가까스로 구릉같은 형태를 나타낸 야산 몇개가 있을뿐 끝간데를 모를 광야가 펼쳐져있었다. 일본군들이 차지한 진지도 그런 야산가운데 하나였다. 시누런 황토물을 야전밥통에 퍼담아 주렁주렁 꿰여들고 그 구릉우에 서면 마치 쥐죽은듯 고요한 광야의 정적이 가슴을 압착하듯 죄여들어 꼭 인생이라고 하는 긴 려행의 마지막 리정표를 바라보는듯하였다. 돌아가는 말로는 그러한 정적을 설명하여 거기가 제2선이라고도 했지만 비교적 전국의 움직임을 잘아는 일군장교들은 제1선이라고도 했다. 그러다가도 지옥의 암흑속같은 그 정적이 불안을 몰아올 때면 틀림없이 여기는 제2선이거나 혹은 제3선일거라고들 스스로 안심시키며 그러니 《무운장구》를 빌자고 어느 밀주집을 털어온 빼갈을 들이키군하였다.

아— 아노 가오데 아노 고에데
(아 그 얼굴, 그 목소리)

이런 혀꼬부라진 그러면서도 어딘가 절망적인 애조가 느껴지는 일본군가를 들으면 치호도 마음이 불안하여 그 쥐눈같이 작고 반들거리는 눈이 뿌옇게 빛을 잃어버리군하였다.

하루는 중대장이 그들 두사람을 자기 엄폐부로 불렀다. 얼근히 취한 중위는 한손으로 얼굴의 절반이상을 덮은 밤송이같은 수염을 쓸면서 다른 한손으로 손잡이에 붕대를 감은 일본도를 자루채 끄당겨 무릎사이에 끼고 피발선 눈으로 그들을 쏘아보았다.

《너희들은 내지에서 대학을 댕겼다지？》

중대장은 뚝뚝한 구주지방사투리로 말했다. 부동자세로 선 두사람은 영문을 몰라 간신히

《하—》

하고 대답하였다.

《절도가 없다. 절도가! 단전에 힘을 넣고 똑바로 서라.》 항상 자기가 사쯔마 근왕파의 후예임을 자랑하던 중대장은 군도자루로 그들의 아래배를 번갈아 두들겼다.

《너희들은 내지에서 교육을 받았는가?》

《하!》

두사람은 동시에 뒤로 기울어질듯 아래배에 힘을 주고 힘차게 대답하였다.

《요로시— (대단히 좋다.)》

고개를 끄덕거리며 털보장교는 말하였다.

《너희들은 대일본제국의 군인이다. 군인칙유를 아는가?》

《하!》

《한번 외워보라!》

《하! 우리 나라의 군대는 대대로 천황이 통솔하는바이나니라. 그 옛날 신무천황…》

휘태가 입을 벌릴사이도 없이 치호는 류창하게 외웠다. 누구에게나 다 저능아로 인정된 그가 《군인칙유》를 그처럼 류창하게 암송하는 천재를 발휘한데는 실로 놀라지 않을수가 없었다. 일본군국주의가 얼마나 지독한가 하는것이 여기서도 나타났다. 휘태는 여기가 려질그저 입만 뻥하고있었다.

치호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계속하였다.

《하나, 군인은 충성을 다함을 본분으로 삼아야 한다. … 군인은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야 하며…》

《좋다! 그만해라. 그런데 야스다병장, 너는 어째서 정치를 지껄이느냐?》

뜻밖의 질문에 안휘태는 눈이 둥그래졌다.

《나는 정치를 지껄인 일이 없습니다.》

《거짓말 말어! 나도 다 안다. 한번 〈골짝넘기〉를 해볼텐가?》

《사실 말한것이 없습니다. 나는 전혀 정치에 대해 무식합니다.》

《정치에 대해서 무식하다! 하하하 반도인이, 특히 너희같은 인테리반도인이 정치를 모른다면 누가 곧이 듣겠는가? 너희들은 정치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쓴다. 그렇기때문에 너희들은 렬등민족으로 남아있다. 고바야시병장! 너는 무슨 말을 했는가?》

《하, 나는 우리 황군병사가 동양평화를 위하여 웃으며 목숨을

바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천황폐하의 적자인 우리들의 넋은 야스꾸니진쟈의 벗꽃으로 만발할것입니다.》

《요로시이.》

중대장은 흡족하여 책상우에 놓인 큼직한 차잔에 빼주를 하나 가득 붓더니 쭉 들이켰다. 그리고는 휘태앞에 잔을 내밀었다.

《야스다병장, 너 한잔 마셔라!》

《나는 술을 못합니다.》

《빠가! 대장부가 술을 못하다니! 마셔라! 그리고 나와 정치를 한번 론해보자!》

휘태는 마지못해 그 독한 술을 강심을 먹고 다 기울였다. 가슴에 갑자기 불이 달린듯 절로 카— 소리가 나왔다.

눈앞이 핑 돌았다. 중대장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거리며 편포쪽을 찢어서 휘태앞에 내밀었다.

《대단히 좋다. 정치를 론하려면 술쯤 마실줄 알아야 한다. 고바야시는 야스꾸니진쟈에 가서 많이 마셔라. 거기 가면 매일 술을 준다.》

은근히 군침이 돌던 치호는 중대장의 해괴한 말에 갑자기 눈이 올롱해서 저도몰래

《하!》

하고 꿋꿋이 자세를 바로잡았다.

《내가 들은바에 의하면 너는 전국의 추이에 대하여 매우 불안스럽게 생각한다는데 사실인가?》

휘태는 기가 질려 말을 못하고 텁석부리 일본장교를 바라볼뿐이였다.

찍어서 전국을 우려해본적은 없으나 어쩐지 련일 계속되는 기분나쁜 정적과 또 미국인 스틸웰장군이 총참모장으로 취임한 장개석군대가 일본군과 싸우는것이 아니라 팔로군과 싸운다는 풍문에 대해 같은 중대 병사들에게 몇마디 불안스러운 심정을 비친적이 있었던것이다.

《그렇다! 나도 잘 모르지만 전국은 대단히 불리한듯하다. 더구나 여기는 장개석이가 처박힌 중경전선이 아니라 팔로군의 작전지역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보급이 끊어졌다. 팔로군이 스틸웰장군휘하의 국부군의 공격을 물리치고 황군이 차지한 해안쪽으로 본격적인 공세를 취한지는 이미 오래다. 우리의 남방전선도 대단히 불리한듯하다. 동맹군은 지금 백림에서 전투를 하고있다 한다. 너희들은 반도인인만큼 객관적으로 한번 말해봐라. 그래도 우리 황군이 이길것 같은가?》

알수 없는 불안에 가슴이 볶이우고있던 치호는 기회를 놓칠세라 제 먼저 입을 열었다.

《무적황군은 한번도 패배한적이 없습니다. 원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호조 도끼무네…》

《호조 도끼무네? 하하하 고바야시는 일본력사를 잘 아는군. 어쨌든 너의 신념은 좋다. 그런데 야스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불이 이는듯한 중대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똑바로 쏘아보자 휘태는 한잔 빼갈에 떨떨해졌던 머리속이 갑자기 돌개바람을 만난듯 뒤설레였다. 그는 얼어드는듯한 자기 심장을 스스로 느끼며 말했다.

《나는 지금이야말로 가미가제가 불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불면 진단말이지? 그렇다면 가미가제가 불것 같으냐?》

《…》

《개자식…》

중대장은 다짜고짜로 휘태의 따귀를 후려갈겼다. 성이 머리끝까지 치민 그는 군도자루로 배를 마구 질러대며 소리쳤다.

《어째서 말하지 못하느냐! 가미가제? 개수작을 걷어치워! 인테리란놈이 가미가제가 불어야 한다고…》

중대장은 그러지 않아도 비칠거리는 휘태를 끝내 방바닥에 쓰러뜨려놓더니 숨을 씩씩거리며 치호에게 달려들었다.

《중대장님! 나는 한번도!》

《비겁한 자식! 네깐놈이 황군병사야! 너따위는 똥통이나 멜놈이다.》

번쩍거리는 장화로 정갱이를 걷어차던 중대장은 치호가 빌붙으면 빌붙을수록 약이 올라서 나중에는 애원하는 치호의 멱살을 틀어쥐고 방바닥에 공중거리로 멨다치고말았다.

이튿날 새벽, 그들이 불침번(직일병)에게 업혀 자기들의 엄폐부로 가까스로 돌아왔을 때 난데없이 구성진 나팔소리가 들려오더니 팔로군들이 새까맣게 돌격해왔다. 언제 포위됐는지도 모르는 일군방어진은 응전다운 응전도 못해본채 허물어지고말았다.

휘태와 치호는 많은 일본인병사들과 함께 앉은자리에서 포로로 붙잡혔다. 포로대렬이 호송병사에게 끌려 중대장엄폐부앞에 이르렀을 때 휘태와 치호는 또치까 꼭대기에 단정히 앉아서 동쪽을 향하여 배를 가르고 죽은 중대장을 보았다. 두사람은 몇시간전 일을 생각하고 치를 떨었다.

…포로들은 오구구 한자리에 모여앉아 날밝기를 기다렸다. 보초를 선 사람은 한사람밖에 없었다. 휘태는 자기의 수치스러운 몰골에 구역질이 나서 고개를 푹 떨구고 꿈인지 환영인지 맥락없는 정경들을 눈앞에 그려보고있었다. 팔공산의 가파로운 벼랑길을 톺아오르던 일,아이들과 키크기를 겨룬다고 캄캄한 밤중에 우들우들 떨며 고총의 기와쪽을 주으러가던 일… 아버지앞에 무릎을 꿇고앉아 천자를 배울 때 끊어져라고 무릎이 저려오던 일… 그런데 정말 무릎이 저려왔다. 부시럭하고 자세를 고쳐앉는데 옆에서 치호가 보초에게 애걸하는 소리가 들렸다. 어느새 견장을 떼버린 그는 밤눈에도 애숭이같은 그 병사에게 매달려 서투른 중국말로 자기는 조선사람이라는것을 저저히 설명하고있는것이였다. 얼마후에 그들 두사람은 복색이 똑같아서 직위는 알수 없으나 어쨌든 몸이 다부지고 얼굴이 약간 얽숨얽숨한 사람에게 불리여갔다.

《당신들이 조선사람이라는것이 사실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학병으로 끌려나와서 지난 밤에도 중대장놈에게 매를 이렇게 맞았습니다.》

담화는 전적으로 치호가 하였다. 조선말을 류창하게 하는 그 팔로군 청년은 송치호의 이야기를 귀담아듣더니 사실이 틀림없느냐고 묻는듯 마마자국이 더욱 뚜렷해지게 눈을 크게 뜨며 휘태를 돌아보군하였다. 그러면 휘태는 송구스러워 오히려 눈덕을 내리깔고 몸을 옹송그렸다.

그 사람은 미대와 지폐 몇장씩을 나누어주며 해방지구를 찾아가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해방지구와는 반대쪽인 일본군의 후방쪽으로 밤에는 걷고 낮에는 자면서 한걸음 한걸음 전진해갔다. 한달가까이나 걸린 이 간고한 행군은 전적으로 송치호의 주장에 의한것이였다. 그는 어쨌든 우리는 고향에 돌아가서 현인답게 대세를 관망해야지 팔로군쪽으로 갔다가 만약에 잘못해서 무적황군에게 포로가 되는 날이면 꼬량미대나마 구경을 못하고 황천에 가게 될것이라고 루루이 설복하였다. 휘태는 벌써 자기 의지를 상실하고있었다. 회오리바람속에 휘감긴 검부레기처럼 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판별할수 없게 된 그였기때문에 나중에는 어떤 파멸이 기다리든지 우선 어딘가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것만해도 다행으로 생각하였다. 인천으로 가는 밀선을 얻어 탄 그들은 6월초에 치호의 고향 검산땅에 이르렀다. 휘태가 자기 고향을 버리고 왕청같이 검산으로 오게 된것 역시 치호의 주장때문이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이런 비상

시국에 배경이 든든치 못한 고향으로 간다는것은 범의 굴을 찾아가는 것이나 다름없지만 자기 아버지가 면경방단장으로 있는 검산으로 가면 거기서 대를 이어가며 산대도 의심받을것이 없다는것이였다.
그러나 정작 검산에 당도해보니 불갈구리로 B29를 떨구겠다고 야단치는 비상시국이라 서슬 등등한 면경방단장 송근배로서도 어찌할수 없을정도로 삼엄한 형편이였다. 헌병과 경관들이 쉴새없이 드나들고 면서기들이 유기밥그릇까지 걷어내갔으며 환갑넘은 로인이나 코흘리개아이들까지 군사적동원에 끌려다녔다.
안휘태가 치호의 권에 쉽게 응한것도,치호가 그를 자기 고향으로 데리고 온것도 따지고보면 결국은 불안때문이였던것이다. 점차 정체를 드러내는 군국주의의 어마어마한 단말마의 비명앞에서 혼자 뻗치고 서있기에는 그들 두사람은 다 같이 의지도 신념도 너무나 약하였다. 더우기 휘태는 저 북지전선(화북전선)에서부터 한절반 정신적허탈상태에 빠져있었던것이다. 그의 머리속에서는 쿵쿵 뛰는 심장을 억지로 누르며 낯선 밤길을 걸을 때나 먹을것을 얻어보겠다고 인가변두리로 기여나왔을 때나 심지어 어떤 해안도시의 막다른 뒤골목에서 헌병완장을 두른 일본군조를 만났을 때 그리고 폭풍치는 서해우가랑잎처럼 들까불리는 밀선의 손바닥만한 부리찌에서 물방울처럼 튕기고 굴러다니던 때조차 헐어빠진것이나마 누데기처럼 걸치고 다니던 자기의 량심과 넋을 갈보집에 가기위하여 전당포에 팔아넘긴듯한 메스꺼운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때로 뒤늦게나마 그것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안든것도 아니였다. 그러나 자기에게 남아있다는것은 무엇인가? 고학을 해서 배웠다는 지식과 불행인지 다행인지 심한 근시가 있을뿐 겉보기와는 달리 고뿔 한번 걸려본적없는 젊은 육체와 그리고 되지 못하게 때로 부담이 될만큼 커버린 소부르죠아 인테리의 자존심이며 인간성이며 하는따위 잡것들을 송두리채 다 고물상에 갖다판다고 해도 그 전당포에서 내미는 《정치》라는 표쪽에 알맞을 값을 치를것 같지 못했다. 그런데 그 전당포는 무엇인가? 그것이 일본군국주의인가? 아니면 약한자에게는 한층 살기가 거북해진 이 시대라는것인가?
휘태는 끝없는 사색의 미궁속에서 헤매느라고 그저 치호가 손을 쳐드는 방향으로 발길을 옮겨놓았고 그의 구령에 따라 행동하였다. 그들은 검산골짜기의 한 페갱속에서 보름가량 같이 지냈다. 다행히 바로 그 골짜기에 군수 민성직의 지시로 김병모령감이 송탄유

가마를 걸어놓고 기름을 짜고있었다. 조석은 병모령감이 갖다나르기도 하고 병모가 산속에 불박이로 들어앉았을 때는 딸 경패가 밥함지를 이여날랐다. 산속에서의 따분한 은신생활은 어느정도 휘태의 헛갈린 생각을 정돈시키고 우울증도 아물궈주었으나 그와 반대로 치호에게는 초조감과 불안감을 싹틔웠다.

어느날 치호는 결연히 자리를 차고 일어나더니 자기는 민환규선생을 찾아가볼텐데 자네는 어찌하겠느냐고 물었다. 휘태는 어리둥절하였다. 그는 치호의 생각이 경솔하고 무모함을 지적하고 마음을 가라앉힐것을 준절히 타일렀으나 근 두달가까운 탈주단계에서 항상 지휘하기에 습관이 되여버린 치호는 그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치호는 그날 밤 야음을 타서 홀쩍 떠나버렸다.

휘태는 자기 목숨이 이제는 전적으로 병모령감의 처분에 달렸다는것을 깨달았다. 이튿날 아침에 그는 비장한 결의를 품고 송탄유가마앞으로 나가 사실을 이야기하고 병모의 눈치를 살폈다. 사뭇 심각해진 휘태의 얼굴을 바라보며 유심히 듣고있던 병모로인은 갑자기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허 참 독립운동을 한다는 량반이 어찌 그리 눈치가 무디시오? 그래 여직껏 잡순것들은 그게 송마름댁 음식인줄 알았소? 원, 쯧쯧 그 량반들이 무엇때문에 그따위 맹랑한짓을 하겠소? 만일 들키는 날이면 온 집안이 경을 치겠는데… 그 사람들은 비록 친자식이라고 해도 그런 어리석은짓을 하지는 않습네다. 정 수틀리면 우리는 몰랐노라고 잡아떼자는 약조가 다 돼있답니다. 원, 부자량반들이 독립운동을 도울가? 허허허, 기가 막힐 일이군.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랑 말고 움쭉 바깥출입을 삼가토록 하시오. 얘야, 얼른 안으로 조반을 갖다드려라!》

휘태는 발그레 얼굴이 상기된 경패의 둥실한 얼굴을 바라보며 대두박이 섞인 만주좁쌀밥을 눈에서 코로 흘러들어오는 찝찔한것과 함께 게걸스레 삼켰다. 그제야 보름동안 먹어온 그 똑같은 잡곡밥이 면경방단장이요 200석을 추수한다는 송씨네가 그 맏아들에게 보내는 밥치고는 너무나 참담하다는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휘태는 살그머니 무릎을 일으키고 나갈 눈치를 보이는 경패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잊지 않겠소. 이담에 꼭 은혜를 갚겠소.》

경패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여 굴밖으로 종종걸음을 쳤다. 두달 남짓한 은거생활에 그 불안하고 갑갑하던 생각도 경패의 그 환한 얼굴을 대하면 씻은듯이 가셔지군하였다.…

그런데 경패의 신음소리가, 아니 찢어지는듯한 비명소리가 들려온다. 불시에 휘태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쭉 내뱄다.

《힘을 주어! 그렇지. 한번 더… 여보게 이사람, 그 곁가마에 불을 옮기라구!》

《예, 곁가마도 끓는데요. …》

휘태는 엉겁결에 큰소리로 대답하고 괜히 두주먹을 불끈 쥐였다.

×

폭풍이 지나간뒤와 같은 그 꿈결같은 정적이 깃들었다. 간밤에는 바람이 부는것 같았는데 어느새 초여름 밝은빛이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아늑하고 평화스러움이 온 집안에 스며드는것 같다. 미닫이의 창호지도 벽도 천정도 널직한 장판방도 유난히 밝아진듯하다.

산모는 약간 얼굴이 부석부석해서 조용히 누워있다. 자는것인지… 그런데 그 훤한 얼굴에는 알릴듯말듯 미소가 어려있다. 너그럽고 자애로운 그 웃음이야말로 새 생명을 싹틔우고 기르는 근1년에 걸치는, 정신적 육체적 노력과 또 지난 며칠간의 격렬한 진통을 거쳐서 쟁취한 어머니의 웃음인것이다.

휘태는 부엌을 장모에게 내주고 어줍은 동작으로 방안으로 들어왔다. 경패는 조용히 눈을 뜨고 밤새 몹시도 휘주근해진 남편을 바라보더니 가볍게 입귀를 열어보인다. 미안하다는 말같기도 하고 수고했다는 말같기도 한 그런 미소였다. 휘태는 저도모르게 얼굴이 벌개져서 그 옆에 눕혀놓은 새빨간 피덩이같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얼마전에 첫 울음소리가 터져나오자마자 뒤미처

《여보게 이사람, 고출세 고추야!》

하고 부르짖던 장모의 목소리가 생각나서 무심코 기저귀를 들추어보았다.

아이는 이상하게 치째진 검정동자만의 그 쬐꼬만 눈을 가로 뜨고 알수 없다는듯 눈끔쩍이를 하였다. 어떻게 보면 꼭 무슨 생각이 있는듯한 매우 심각하고 사색적인 표정이였다.

《여보게, 내가 자네 아버질세. 그렇게 흘겨볼게 있나? 이제부터 자네 이름을 국보라고 하세. 알겠나, 허허허.》

휘태는 전에없이 들뜬 기분으로 짧은 팔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긴 애기의 팔소매를 가볍게 흔들어보고나서 은근히 안해를 돌아보았다.

《당신 참 수고했소, 용서하오.》

《고단하시겠어요. 얼른 눈을 좀 붙여요. 웃방에 자리해둔대로 있어요.》

《아니 여보게.》

부엌에서 장모가 미닫이를 열고 얼굴만 들이민다. 《국보라니 꼭 늙은이 이름갈구만…》

《이제 저 애도 세월이 가면 늙은이가 됩지요. 나라를 받든다는 뜻인데 어떻습니까?》

휘태는 웃으며 말했으나 웬일인지 그 어조에는 눈물겨운것이 느껴졌다. 장모는 사위의 도수 높은 그 위태위태한 안경테를 새삼스럽게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하며 미닫이를 닫았다.

《하긴 그래. 그러고보면 장수할 이름이군. 이름이사 아무러면 일이 있나. 무탈하게 오래 살면 되는거지. 이 좋은 세상에…》

6

상반년계획을 150프로이상 해야만 8.15까지 년간계획이 끝나리라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전망이였지만 벌써 5월달도 한중간이 부러졌는데 월계획조차 빳빳하게 물려있었다.

직장간부들뿐아니라 로동자들의 속도 바질바질 탔다. 바쁘다면 옭맺힌다고 이해따라 비가 잦았다. 검산벌의 찰떡같은 흙이 비물을 머금자 자동차바퀴들을 꽉 물고 짓씹다가 바퀴가 신경질을 부리면 마지못해 흙덩이를 한덩이씩 척 붙여서 가까스로 떼보내군했다. 앙—앙—선광장에서 검산벌과 쌍룡강 부두쪽으로 난 두가닥 길우에서는 흙탕에 빠진 자동차들이 울음보를 터뜨리듯 비명을 질러댔다. 한대가 빠지면 뒤따라간 차들이 어길 길도 없었다. 자동차꽁무니에서는 시꺼먼 연기가 타래져나오고 바퀴는 기관총같이 흙탕을 사방에 휘뿌리는데 그 진흙탕속에서 고무타는 냄새가 풍기도록 맹렬한 공회전을 하였다.

공무직장에는 이렇게 혹사된 자동차들이 쓸어들어왔다.

후야근으로 밤을 밝힌 세철은 조립단계에 들어간 수리차의 뒤바퀴밑에 드러누워 덧쇠(붓싱)를 처박다가 저도모르게 건들건들 졸았다. 그러다가 새벽 발파소리에 번쩍 눈을 떴다. 아무래도 덧쇠가

좀 커서 아까부터 애를 먹던 그는 그리스 묻은 손을 작업모밑에 넣어 머리를 득득 긁었다. 쾅! 쾅쾅! 련이어 일어나는 발파소리가 가슴에 들어찼던 울혈을 시원스럽게 날려준다.

세철은 자동차밑에서 기여나왔다. 기지개를 한번 켠 그는 벌써 아침교대동무들이 인계를 받고있는 기대들앞으로 달려갔다.

세철은 자기 기대에 다가가 얼른 스위치를 넣었다.

작업복이 팽팽할만큼 살집이 좋은 나이 듬직한 한 선반공이 청소를 하다가 고개를 돌렸다.

《순필아바이,내 이것 하나만 깎구요. 별로 인계할것도 없어요.》

《원 사람두,이리 내고 들어가게. 난 어디로 갔나했지.》

《애를 먹여요. 어제 그 3단기야때문에 밤새 씨름했습니다. 망할놈의 길이 자동차들을 다 녹여내고 나중엔 우리 수리공들까지 다 녹여낼 모양입니다.》

《자넨 그 아무데나 덥적덥적하는 성미때문에 더하다니까.… 국으로 선반이나 돌릴게지.》

《일손이 모자라는데 그러고있다가 언제 년간계획을 하겠습니까? 난 이젠 회의 그만하고 일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허허,왜 아니래.》

김순필은 세철이손에서 일감을 빼으려던 생각은 어느새 잊어버리고 또 비질을 하기 시작했다.

《길이 말이 아니더군. 이래가지구선 계획을 못할것 같다.》

《그런데 날마다 회의는 하는데 길이야기는 한번도 안나오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철은 인물대를 조이면서 말했다.

《안나오긴 왜 안나왔나? 운수부장이,그 사람이 약은사람이거던. 자기에게 책임이 돌아올것 같으니까 우리를 걸고 들었지.》

《흥,정작 수리할건 자동차가 아니라 길이지요. 그깐놈 진짜 수리공이 되자면…》

세철은 문득 번개같이 떠오른 생각이 있어 입을 다물었다. 순필아바이는 꽃보라처럼 곱게 타래진 쇠밥이 하얗게 깔려있는 기대밑으로 허리를 구부린채 여전한투로 중얼거렸다.

《하긴 똑똑한 수리공이 되려면 자네처럼 선반도 하고 제관도 하고 기관도 하고 용접도 하고 그렇게 척척 제낄줄 알아야 제구실을 하는 수리공이라 할수 있지. 허지만 그게 쉬운 노릇인가.…

난 열다섯살에 공장에 들어갔지만…》

《순필아바이, 진짜수리공이 되려면말입니다. 그보다… 에이 모르겠다. 나 이것 제꺽 맞춰놓고 올테니 그사이 먼저 시작하십시오.》

세철은 다 깎인 덧쇠를 뽑아들고 씽 달려나갔다.

《원 저런, 궁뎅이에 모타가 달린것 같군.》

순필아바이는 혀를 끌끌 차며 젊음이 약동하는 세철의 뒤모습을 부러운 눈매로 바라보았다.

세철이가 덧쇠를 다 박고났을 때 번쩍거리는 자전거살이 차체옆에 나타났다. 진창길을 어떻게 타고왔는지 자전거바퀴는 방금 도금을 한듯 번쩍거렸다.

《아니, 이건 32호가 여적 여기서 뭉개고있어. 동무 어떻게 된거요? 동무네 공무직장에서는 낮잠을 자고있는게 아니요?》

세철은 차바퀴밑으로 고개를 내밀었다가 성이 독같이 난 장인택을 보자 슬그머니 밖으로 기여나왔다.

《부장동무, 일찍 나오셨습니다.》

꾸벅하고 인사를 하는 세철의 기름이 게발린 얼굴에 야유조의 정중성을 느낀 인택은 이마살을 찌프리며 쏘아붙였다.

《좀 책임감을 느끼란말이요. 토론할 때 같아서는 큰일을 칠것 같더니 이게 뭐요. 시다마와리 조금 손질하는것도 일주일, 베아링 하나 갈아넣는것도 일주일…》

《일주일이 아니라 일주야지요. 그런데 이 32호차 운전수가 누군지 단단히 추궁해야겠어요. 3단기야 이가 두대나 부러졌어요. 그런걸 말도 않고 갖다 팽개쳤지요. 수리청구서를 다시 써야 하겠습니다.》

《남의 일 걱정 말고 동무네 일이나 똑똑히 하오.》

사태가 불리해지자 인택은 자리를 피하려고 자전거를 앞으로 밀었다. 잠을 못자서 피발이 진 눈으로 아니꼽게 흘겨보고있던 세철은 얼른 번쩍번쩍하는 자전거손잡이를 잡으며 말했다.

《그 자전거 참 좋다. 그런데 길은 다 고쳐졌는가요?》

다리를 막 안장우에 걸치려던 인택은 손잡이가 붙잡히는바람에 몸의 균형을 잃고 기우뚱하면서 혀를 갈겼다.

《이 동무가 정말 잡꼬대를 하는것 아니요! 길은 무슨 길을 고쳤단말이요?》

《아니 자전거가 깨끗하기에 말입니다.》

《난 진창길을 다니지 않소.》

세철은 두손으로 손잡이와 안장을 꽉 움켜잡고 다가섰다.
《부장동무, 내 어제 협의회에서 발언하려다가 못했는데 어째 우리 공무직장만 낮잠을 자느니 어쨌느니 하고 다그치면서 길을 수리할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까? 도대체 그 물웅뎅이로 만짐을 실은 광석차를 마구 몰아대니 그게 견디겠습니까?》
《이거 놓소! 아니 동무가 뭐요?》
인택은 그제야 세철의 태도에서 도전적인것을 느끼고 눈을 딱 부릅떴다. 쾌남아로 자칭하는 그의 둥그스름한 얼굴에 전광같이 신경질이 지나갔다. 그러고보면 살이 잘 오른 약간 불룩한 아래볼에 심술이 하나가득 들어차있는것 같기도 했다.
《나야 수리공이지요.》
세철은 웃음어린 눈으로 멀끔한 인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죽겠습니다. 글쎄 저 길을 그냥 두고야 밑빠진 독이지 뭡니까? 마사먹는건 눈 깜짝할 사이지만 고치는거야 졸지 않는다 해도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게 일을 혁명적으로 해야 된다고 얼마나 강조했소. 동무도 어제 회의에 참가했댔소? 그래 동문 당원이고 모범로동자라는 사람이 그따위소리 하는법이 어데 있소?》
《혁명적으로?》
세철은 쓰겁게 상대의 말을 받아외웠다. 키는 거의 같았지만 몸이 부한편인 인택이와 마주서고보니 후리후리한데다 목대가 가느다란 세철은 꼭 어린애 같았다. 그우에 직위로 봐도 그렇고 차림차림으로 봐도 그렇고 누가 보나 세철이가 일을 잘못해서 꾸중을 듣고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그래서 공무직장 로동자들이 한사람 두사람 모여들었다. 그러나 언성이 더 높은것은 세철이였다.
《그런데 어째서 당신들은 혁명적으로 일을 못하는가말입니다. 조금 품을 들여서 길만 고쳐놓으면 우리 자동차들도 당신의 이 번쩍거리는 자전거처럼 깨끗할것이 아닙니까? 당신이 연설만 하고 돌아다닐 때 맥아더가 무어라고 지껄였는지 알기나 합니까? 조선을 자기네… 자기네…》
여기서 세철이는 갑자기 말이 생각나지 않아 우물거렸다.
《아—니 이 동무가 정말… 여보 공무직장장동무 없소? 이 동무가 누구한테 이따위 건방진 수작인가? 돼먹지 않게스리…》
성이 머리끝까지 치민 인택은 서슬이 등등해서 부르짖었다.
한동안 눈을 끔쩍거린 뒤에야 《호수》라는 말이 가까스로 떠오르

긴 했으나 이미 때가 지나갔다는것을 깨달은 세철은 에라 그까짓 유식한 소리는 집어치워라 하고 공무직장 본토배기 말투를 꺼냈다.

《여보시오. 직장장을 부르면 누가 벌벌 떨줄 아시오. 체, 당신들이 정 못고치겠으면 싹 집어치우고 물러나앉소. 우리라도 고쳐놓을테니. 젠장, 이따위 마구 굴려놓은 자동차를 주무르기보다야 그쪽이 사이다맞이지 뭐요. 그게 당신 개인 자동차면 그러지 않을거요.》

세철은 홱 밀어던지듯 자전거를 놓아주고 주섬주섬 땅바닥에 널어놓은 공구들을 걷어모았다.

《흥, 8.15까지 년간계획을 끝내겠다는게… 그놈의 골통에 보링을 좀 들이댔으면 좋겠군…》

《하하하, 잘한다. 골통부터 수리해!》

《허허허, 세철이 경칠라.》

《세철동무, 그 교양을 못받았군. 부장동무앞에 무슨 말버릇이요?》

《수리할게 많긴 많다.》

어느새 두사람둘레에 모여들었던 수리공들속에서 폭소가 터져오르고 중구난방으로 한마디씩 하는바람에 인택은 속으로 이를 북북 갈며 황급히 자전거에 올라탔다. 일이 안될 때라 세철이가 어떻게 주물러놓았는지 종소리가 그냥 찌릉찌릉하고 울렸다.

《비켜라. 치인다 치인다.》

로동자들은 너스레를 떨며 좌우로 흩어졌다.

공무직장의 로동자들이 도로공사에 나섰다는 소식은 삽시에 전 광산에 퍼졌다. 처음에 후야근을 한 몇동무가 쌍룡강기슭으로 나와서 광석을 부리고 돌아가는 운전수를 구슬려서 자갈을 한 자동차 싣고가서 웅뎅이를 메우기 시작했는데 마침 작업장을 돌아보던 당위원장 엄익준이 그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어줍게 인사를 하는 세철이며 다른 수리공들을 마치 책망이나 하듯 말없이 바라보더니 슬그머니 웃동을 벗어붙였다. 다른 사람이 말릴 겨를도 없었다. 원체 광산로동에서 단련된 몸이라 씩씩— 소리를 내며 삽질을 해대는품이 무시무시할 정도였다. 그는 확실히 누구에겐가 화를 내고있는듯하였다. 처음에 자기들이 시키지도 않는 일을 승인도 받지 않고 시작한것때문에 당위원장이 성을 내는가싶어 은근히 조마조마해진 세철은 괜히 익준의 투박한 얼굴이며 드센 일손을 돌아보게 되였다. 마침 통계원이 무슨 문건을 가지고 비준을 받으러 엄익준을 찾아왔다. 모래가 게발린 손

을 엉치에 대고 문지른 익준은 그 문건을 들여다보더니 혀를 갈겼다.
《또 회의군. 여보, 이건 좀 검토해봐야겠소. 동무는 이제 가서 이 동무들에 대해 벽보를 큼직하게 하나 써붙이요. 그리고 각 부서장들에게 연설만 하지 말고 일하는 본때를 로동자들에게서 좀 배우라고 하오.》
통계원이 뒤통수를 긁적거리며 달려가자 지나가던 로동자들, 빈차로 돌아가던 자동차들이 말없이 삽질을 다그치고있는 엄익준을 보고 송구스러워 쩔쩔매다가 옷을 벗어붙이기 시작하였다. 방금 조직하려던 회의는 중단되고 황급히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부서책임자들이 제때에 귀띔을 해주지 않은 통계원을 원망하면서 달려나왔다. 열시쯤 됐을 때는 길에 하얗게 사람이 덮였다. 길과 직접 리해관계가 있는 운수직장로동자들은 말할것도 없고 채광공들, 굴진공들, 선광장과 사별장의 녀성로동자들과 사무실에서까지 떨쳐나왔다. 통계원은 게시판에다 세철이 발기한 도로수리작업을 대서특필하고 이에 호응하자고 감탄부호를 세개씩 찍어서 내붙였다.
《로동계급이 어쨌든 로동계급이지 될말인가?》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리며 비로소 빙그레 웃는 엄익준을 보자 세철은 가슴이 후끈하였다. 익준은 세철을 건너다보며 눈을 끔쩍하더니 알만한가 하는 태도로 하얗게 밀려드는 사람들을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삽을 딴 사람에게 넘겨주고 어딘가로 가버렸다. 세철은 비로소 그가 노한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조그마한 발기를 심각하게 접수하고 크게 평가한 까닭에 그렇듯 엄엄한 표정을 지었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는 식전에 벌써 장시간 자갈을 퍼올리노라고 가뜩이나 밤을 팬 몸에 시장기까지 겹쳐들어 눈이 절로 감겨왔으나 자기의 우연한 발기를 당위원장이 그처럼 높이 평가하고 또 전 광산이 떨쳐일어나게 되고보니 웬일인지 가슴이 뜨거워올라 일손을 늦출수 없었다.
《참 그 〈호수〉란 말이 제때에 생각났더면 한번 멋있게 곯려주는건데 깜빡 잊어버렸거던. 그런데 그 자식은 우리 나라를 저희네 〈호수〉라고… 개같은 자식!》
장인택이와 다투던 생각끝에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른 세철은 또다시 울컥하고 분노가 치받쳐서 와락와락 삽질을 했다. 밑에서 자갈을 퍼담던 같은 후야근패들이 롱조로 투덜거렸다.
《난 저 세철이바람에 오늘 식전턱을 든든히 하지 않나! 벌레들이 꿈틀거리는걸…》
《그러기에 아까부터 후야근은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소.》

《흥, 저만 열성분잔줄 아는 모양이군. 나도 열성을 좀 내야겠는걸.》
《가만내버려둬. 녀편네가 내다주는 밥이 더 맛이 있다네.》
《이젠 늦으면 의례 밥해들고 찾아올줄 알거던. 훈련은 잘 시켰어.》
아닌게아니라 미구해서 사택마을 아낙네들이 밥구럭을 해들고 최근 자주 교대시간이 넘어도 돌아오지 않군하는 아버지며 남편이며 아들들을 찾아나왔다. 갱기슭과 도로에는 흰머리수건이며 행주치마까지 얼른거려서 한층 일손이 흥겨워졌다.
세철이는 어머니가 절뚝거리며 밥곽을 싸들고 오는것을 먼발치서 발견하자 슬그머니 삽자루를 놓았다.
《어머니, 이리 오시우. 곧 들어가자고 하는판인데 또 나오셨군.》
《아이구, 너는 무슨 아이가 때를 모르느냐.》
그들은 기슭의 땅버들그늘에 앉았다.
어머니는 볼이 메여지게 밥을 퍼넣는 아들을 흡족하게 바라보며 귀전에 대고 속삭였다.
《얘, 이게 모두 네가 말을 냈다는것이 사실이냐?》
세철은 한입 쓸어넣은 밥때문에 눈을 딱 부릅뜨고 어머니를 마주 보다가 꿀꺽하고 억지로 밥덩어리를 밀어넣고난 다음에야 어줍게 웃으며 말하였다.
《그건 누가 그래요?》
《얼른 무엇을 좀 집어라. 원 그렇게 넝큼넝큼 삼켜서야 찔개가 어디 따라가겠니. 모두들 하는 말이 네가 선참 들고 나섰다고 큼직하게 써붙였다는구나.》
《다 쓸데없는 소리우다. 모두 같이 한거지요 뭐.》
세철은 우물우물하면서 또 주먹만한 밥덩이를 쓸어넣었다.
《언칠라… 그래두 네가 이젠 일을 더 잘해야 한다. 형을 생각해서라도 앞장을 서야지. …》
세철은 잔정속에 깊이 묻혀있는 어머니의 두 아들에 대한 크낙한 자랑과 심려를 느끼며 심상히 말했다.
《나도 다 생각이 있수다. 형이 섭섭하지 않게 해야지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자기가 선반기앞에서 우연히나마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것부터도 따지고보면 전사한 형이 자기를 도와준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광산의 실정이 어제 오늘 변한것이 아니고 또 그때문에 회의도 많이 해왔으나 전에는 별 신통한 묘책이 떠오르지 않았던것이다. 일전에 전학민련대장이 들려준 형의 소식

과 세상형편이야기가 자기에게 새로운 눈을 달아주지 않았다면 오늘도 여전히 골을 썩이며 두덜거리기가 고작이였을것이다. 그러고보면 빈소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업을 혁명적으로 대하고 모든것을 주인답게 대한다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것을 이 자그마한 경험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고 세철은 생각하였다. 그는 그날밤 학민이가 들려주던 말을 새로운 감격을 가지고 상기하였다.

《혁명선렬들은 이런 생활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지만 종내 보지 못하고 눈감고 말었구만. 그런데 그 광복된 조국에서 평화스럽게 살 행복이 동무에게 돌아왔소. 동무도 가끔 그런것을 생각하오?》

들을 때처럼 그렇게까지 송구스럽지는 않았으나 얼굴이 뜨뜻해지는것은 여전하였다. 그는 낯빛이 한결 신중해져서 말했다.

《어머니, 이젠 들어가시지요. 난 일 좀 하다가 들어가는길에 안기사네 집에 가서 책을 빌려가지구 가야겠어요.》

《읍내 들어갔다오려면 늦겠구나. 내 그럴줄 알구 아예 점심까지 가지구왔다. 그런데 얘야.》

어머니는 아들이 밀어놓는 밥곽을 책보에 싸며 다시 목소리를 낮추었다.

《내 오늘 이상한 소리도 다 들었다.》

《무슨 소린데요?》

세철은 담배를 붙여물고 한모금 깊숙이 들이빨며 무심히 물었다.

《참 해괴한 일도 다 있지. 여기 광산운수부장인지 하는 사람이 보패네 집에 뻔질나게 드나든다는구나.》

《드나드는데 누가 뭐래요. 그건 누가 그래요?》

세철은 어쩐지 가슴이 띠끔하였으나 전혀 내색은 하지 않고 여전한 투로 물었다.

《이리로 오다가 마침 봉임이를 만나서 들었는데 그애 말이 그게 그런게 아니라 딴 꿍꿍이가 있다는구나.》

《봉임이가 누구예요?》

《봉임이라구 그집 며느리 있지 않니? 봄에 잔치한 그 성기색시말이다. 그런데 보패당자보다 그집 로친네가 더 반해서 야단이라는구나.》

《그럼 잘됐군요. 아예 사위로 정하라지요. 그 사람 인물이 잘났습디다. …》

《아니 그럼…》

《어머니, 먼저 들어가시우. 난 가봐야겠수다.》

세철은 퉁명스럽게 한마디 남기고 휘적휘적 일자리로 걸어갔다.

《원 요즘 애들속은 알다가도 모르겠더라. 쯧쯧…》

최필녀는 아들의 뒤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설레설레 내저었다.

7

오늘이 첫칠이라고 해서 아침에 장인이 다녀가더니 낮에 또 보패가 오는바람에 점심은 두리반에다 차렸다. 경패는 몸이 부실하여 자리에 누워서 따로 국그릇을 받고 휘태는 장모, 처제와 함께 한 상에서 점심을 먹었다. 어쩐지 비위에 거슬리던 미역국도 여럿이 둘러앉아 먹으니 별로 달았다.

땀을 후줄근히 흘리면서 큼직한 국그릇을 다 비운 휘태는 담배를 가지러 웃방으로 올라갔다. 그러는데 자전거종소리가 나더니 뜻밖에도 운수부장 장인택이 나타났다. 그는 눈이 휘둥그래진 휘태와 장모의 면전에서 짐틀에 비끄러매가지고 온 펄펄 뛰는 잉어를 풀어들며 말하였다.

《산후보신에 잉어가 좋다는 말을 듣고 잘 아는 낚시군에게 부탁했더니 방금 가져왔군요. 뭐 두키로나 된답니다.》

장모는 입이 함지박만해서 신을 거꾸로 끌며 부엌으로 달려나갔다.

《어이구 사람이 겉보기와는 딴판이라니까. 여북 싹싹해야지.》

《아니 자네가 어떻게 된 일인가? 아무튼 좀 올라오게. 점심이나 했나? 했다구? 그럼 담배나 한대 피우다 같이 가세.》

부엌문전에서 휘태는 사뭇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인택의 소매를 끌었다. 인택은 못이기는체하고 번쩍번쩍하는 구두를 벗었다.

《어떻게 될게 있나. 자네 사람 됨됨을 잘아는터에 내라도 아주머니공양을 해야 될게 아닌가?》

《고마우이. 자 이 침대에 그냥 걸터앉게.》

휘태는 여직껏 인택이에게 품고있던 좋지 못한 감정을 생각하고 은근히 거북함을 느꼈다. 이렇게 살뜰하고 친구에 대한 심려가 두터운 사람을 사업상의 약간한 의견차이라든가 떠도는 소문만 듣고 표리부동한 인간으로 치부했다는것이 얼마나 경박한짓이였던가 하고 뉘우쳐졌다. 하긴 그가 언제부터 자기의 친구로 됐는지는 똑똑치 않았다. 그러면서도 생전

처음 오는 집에서 아무런 스스럼없이 자유롭게 말하고 활달하게 움직이는 인택을 보니 그가 오래전부터 자기를 자별한 친구로 치부하고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은근한 뉘우침속에 가지게 되는것이였다.

《그래 아주머니는 산후가 깨끗한가? 애기도 든든하고…》

《뭐 좀 고생은 했지만 별일 없는 모양이네. 그래 도로공사는 어떻게 되였는가? 난 좀 먼저 들어와서…》

《잘 되지. 아마 수삼일 하면 끝날것 같아.》

《그거 잘됐군. 그럼 운수부에서는 한시름 놓게 되겠네.》

《그리게 난 답답하단말야. 사람들은 그게 그저 공무직장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충동인것이라네. 난 워낙 성질이 급해서 그까짓 옳다고 생각하는것은 기어코 내밀어야지 참지를 못한다네. 그래서 오늘도 지배인하고 싸움까지 했다네. 참,참을성이 없어서 야단이라니까. 이제 잔뜩 미움을 받게 되지 않았나?》

《아니 그건 어떻게 된 일인가?》

인택이가 그렇게 성질이 급하고 참을성이 없다는것을 전혀 모르는 휘태는 공무직장을 충동이는데 그 성급하고 참을성이 없는것이 어떤 의의가 있는지 갑자기 리해가 잘되지 않았지만 그보다는 도로수리에 대한 문제를 그도 참가하지 못한 어떤 비밀회의같은데서 발언했는가싶어 은근히 놀람을 금치 못했다.

《어떻게 될게 있나? 내가 지배인에게 그 도로문제를 몇번 이야기했는지 모른다네. 그런데 들어줘야말이지. 하는수없이 로동자들과 맞부딪쳐보자는데 우리 직장이야 맨 운전수들판이니 말을 들어주나. 그래 결김에 오늘아침 공무직장에 가서 한바탕 연설을 하지 않았겠나, 허허허.》

《흠— 일이란 그렇게 됐군. 그런걸 모두…》

휘태는 새삼스럽게 안경테를 매만지며 자기모르는사이 맹활동을 하고 돌아간 친구에게 내심 충심으로부터 경의를 표했다.

《뭐 일이 있나. 일만 잘되면 칭찬이야 누가 받든지 상관할게 없지만 난 원래 그런놈이라네. 그래서 번마다 손해를 보지만 어떻게 하겠나. 타고난 성미가 그런걸. 좀 남들처럼 마음을 누긋하게 가져보자해도 도무지 안된다네. 수틀리면 상부고 뭐고 눈에 들어오지 않거던.…》

휘태는 활달한 인택의 말에 점점 눈을 크게 뜨며 자기가 얼마나 인택이란 사람을 오해하고있었는가 하는것을 더욱 깊이 깨달았다. 그가 여태까지 알고있는바에 의하면 인택이가 인내성이 부족하여 성을 내는 경우가 있긴해도 그것은 지배인과 같은 상부가 아

니라 주로 아래직원들이나 로동자들이고 또 성질이 급한것이 아니라 당장 계획미달로 분기나 달이 넘어가도 눈섭 하나 까딱않고 하루하루 그럴듯한 리유들을, 같이 일한 사람조차도 감탄할만큼 그렇게 경우에 딱 들어맞는 핑게를 찾아낼줄 아는, 말하자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류의 인간이였다. 그런데 오늘 그는 구렁이가 허물을 벗고 귀공자로 변신하듯이 판다른 인간으로 나타난것이다. 그가 강조하는 성급하다든가 참을성이 없다든가 하는 약점이야말로 이런 시기 일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장점인가?

휘태는 뜻밖에도 친구에게서 발견한 이런 좋은 측면에 가슴이 후더워졌다. 더구나 그가 예상치도 않았던 호의를 베풀어준데는 친구가 적은 그로서는 눈물이 나올만큼 감격하지 않을수 없는 일이였다.

한편 힘들게 몸을 푼 딸이 은근히 걱정스럽던 리씨는 산후 보신에 안성맞춤으로 뛰여든 잉어가 어찌나 생광스럽든지 사위와 마주앉은 인택을 자꾸만 아래방으로 내려오라고 성화를 대였다. 마침 이런 좋은 기회에 잘 휘여들지 않는 보패와 마주앉혀보자는 내숭스런 궁냥에서였다.

《뭘 허물할게 있나. 이젠 첫칠인데. 이리 좀 내려오게. 우리 손주도 볼겸…》

《정말 휘태동무 맏상제구경을 좀 해야겠군.》

인택은 두어번 사양하다가 휘태마저 내려가보라고 권하는바람에 못이기는체하고 아래방으로 건너갔다.

설마하고 태평으로 누워있던 산모는 당황하여 누운채로 매무시를 바로잡으며 방금 빼놓은 기저귀를 웃목으로 밀어놓았다.

그러나 인택이는 산모의 방을 지극히 소탈한 태도로 자연스럽게 들어섰다. 보패는 그런 인택이가 민망했다기보다 리씨의 망발에 그만 얼굴이 뜨거워져서 어머니의 늙은이답지 않게 실팍한 넙적다리를 꼬집었다. 리씨는 한손으로 딸의 손을 뿌리치며 여전히 주책을 떨었다.

《이리로 내려앉게, 아이구 사람이 칠칠도 하다니까. 우리 집 안서방은 언제나 주변이 생길는지. 이담에 색시 될 사람이 호강하겠네.》

《어머닌 별말씀 다 하십니다. 친구지간에 그만 성의도 못보이겠습니까? 참, 아주머니, 수고 많이 했습니다.》

경패는 가까스로 미소를 지어보이고는 인차 볼편이 강직되여 이불귀를 여몄다.

《그럼, 친구지간이면 좀 다정한 친구겠나. 큰 직장에서 같이 간부노릇하는 처진데 그래 집에서는 다 무고하다던가?》

리씨는 딴사람이 입을 벌릴 사이도 없이 독판으로 이야기를 끌고나갔다. 인택은 한구석에 옹송그리고 앉은 보패 당자보다는 그렇게 서글서글한 어머니쪽에 더욱 마음이 끌린다는듯이 입가에 미소를 띠우고 마주바라보며 대꾸했다.

《그러지 않아도 일전에 댁에 들렸댔습니다. 어머니가 쉬 한번 놀러 오시겠다구요. 그래서… 어,그놈 잘났다. 순한게 얼굴모습도 아버지를 쏙 빼놓았군.》

인택이는 온 집안사람이 들어붙어서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보고 해도 종내 누구를 닮았는지 분간하지 못하였던 그 피덩이같은 갓난애의 이상스럽게 불거져나온 정수리와 솜털투성이 얼굴에서 아버지와의 류사점을 그렇듯 재빨리 찾아내여 자신있게 말하였다.

《그래？》

리씨는 인택의 어머니가 쉬 온단말에 흠칫해서 저도모르게 보패를 돌아보았다.

《그래 언제쯤 오시겠다던가？》

《딱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월말께나 돼야 오실것 같습니다. 가게일이 지금 바쁜 모양입니다.》

《월말이래야 얼마 남았나？》

리씨의 목소리는 저으기 가라앉았다. 월말에 사돈될 사람이 며느리선보러 온다면 그사이 결판을 지어야 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당자 보패는 우격다짐으로 잡아꿇린다치고라도 령감에게는 반승낙이나마 받아놔야 할것이였다. 그런데 그 령감이 아무 근본도 없는 세철이에게 딸자식을 여의려고 마음 둔지가 벌써 오래된다는것을 리씨는 잘 안다.

옛날에 처지가 기박하고 지체있는 일가가 없어서 천대받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이에서 신물이 나는 리씨는 고이고이 기른 보패를 함부로 치워버릴수 없다고 처음부터 마음먹고있었다. 광복덕분에 이제는 그 옛날 송마름네가 살던 중시원리동네에서 으뜸가는 기와집에서 살게 됐을뿐만아니라 이제는 그 술망태같던 령감이 자그만치 군대의원이고 게다가 도에서까지 손님이 찾아드는 모범농민이다. 게다가 큰사위로 말하면 군에서 한다하는 유식자고 아들 역시 어디 내놓아도 짝지지 않는다. 이런것을 생각할 때 모자가 비둘기살림을 하는 세철이네와 혼사를 치른다는것이 은근히 마음에 싸지 않아서 씨뿌둥해있던차에 인택이를 만났다. 겉볼안이라고 우선 미끈한 외모에 눈이 흐릿해졌

는데 청산류수로 흘러나오는 인택의 말재주에 그만 취하고말았다. 혼자 엎고 뒤집고 하는 그 롱간에 떨떨해있는사이 어느덧 리씨는 인택이의 장모로 되여있었고 그 녀인역시 인택이를 사위로 치부하게 되였다. 그래서 세철이문제에 대해서는 필요이상 더 박절하게 나오게 되였다. 아예 뚝 잘라버리지 않으면 이쪽 저쪽 다 맹랑하게 될것 같아서였다. 하긴 세철이네로 말하면 옛날 안면도 있고 품앗이를 해 갚아야 할 신세가 노상 없는것도 아니지만 그런 인정때문에 귀한 딸의 앞길을 그르칠수야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번에 그 집 큰아들이 **김일성**장군님부대에서 싸우다 전사했다는 새 소식을 그도 들었고 적지 않게 충격을 받은것도 사실이였다. 은근히 자기 처사가 뒤돌아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인택이와는 이미 물릴수도 드틸수도 없을만큼 약조가 돼버렸던것이다. 그러니 그의 속은 탈대로 탔다. 집안식구들을 둘러보아야 만만히 자기 말을 들어줄 눈치들이 아니다. 게다가 딸 경패로 말하면 팥으로 메주를 쑨대도 곧이 듣는 맹물이요 사위 또한 칼칼하지 못한데다 봐하니 눈치가 세철이를 은근히 좋아하는것 같다. 그러나 일이 이 지경으로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으니 그것저것 가릴 형편이 못된다고 생각하였다.

리씨는 당장 결판을 내야겠다고 저도몰래 무릎걸음으로 조금 나앉았다. 그가 막 입을 벌리려고 할 때였다.

《기사동지 계십니까?》

현관쪽에서 어줍은 목소리가 웅글게 들려왔다. 모두 말없이 고개를 들고 보이지도 않는 현관쪽을 내다보았다. 그 시선들은 모두 각이한 빛으로 《이건 또 뭐야?》하는 뜻을 나타내고있었다. 오직 한사람, 보패만이 더욱더 고개를 숙였다. 귀뿌리에서는 눈에 알리게 홍조가 붉게 타올랐다.

허둥지둥 휘태가 달려나가더니 이윽고 수작소리가 들려왔다.

《오 왔구만. 내 다 찾아놨소. 그러지 않아도 이제 나갈 때 가져가려던 참이요. 우선 좀 들어오오.》

《난 후야근이 돼서…》

변명하는듯 더듬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오더니 휘태를 뒤따라서 세철이가 나타났다. 방금 목욕을 하고 나오는듯 붉게 상기된 얼굴은 깨끗하였으나 옷은 기름우에 흙탕까지 튀여서 말이 아니였다. 열려진 장지문사이로 퍼뜩 아래방정경을 바라본 세철은 그만 흠칫하여 목을 자라목처럼 움츠렸다.

《자네 뽕나무집 세철이로군.》
리씨말에 이어 인택이도 한마디 하였다.
《동무가 어떻게 된 일이요?》
《안녕들 하십니까? 전 책을 좀 빌리려구…》
세철이는 그저 당황하여 구원이나 청하듯이 휘태를 쳐다보았다.
《내가 빌려주겠다구 들리라구 했습니다.》
책은 다 찾아놨다면서 공연히 책장을 들추는 휘태의 말도 무엇때문인지 변명조로 나갔다.
《이리 와 잠시 앉게. 내 곧 찾아줄테니‥》
《저 아주머니랑 애기랑 다 무고한가요?》
세철은 바로 코앞에 당자들이 있었지만 휘태를 통해서 얼마전까지 자기의 소꿉동무였던 사람의 안부를 물었다.
《다 일이 없대. 자— 이건 내가 근로자중학교에서 선생노릇할 때 쓰던 수학책이고… 이건 로어책,그런데 이건 좀 어렵지 않을가? 내가 자습하던 책인데…》
휘태는 책가위가 헐어빠진 로어교과서와 프린트한 중등수학책을 꺼내놓았다.
그 사이 아래웃방에는 몹시 긴장된 분위기가 떠돌았다. 방금 중대한 발언을 하려던 리씨는 말허리를 끊긴 느낌이였고 인택이는 아침에 모욕을 당한 생각과 또 자기가 휘태앞에 허무맹랑하게 꾸며낸 이야기들의 바닥이 드러날것 같은 위구심을 느끼면서 오래전부터의 적수나 바라보듯이 고개를 푹 떨군 세철의 목대를 훑어보았다.
휘태는 내막을 잘 알수 없으나 안해에게서 전해들은 단편적인 이야기들로써 세철이와 인택이 그리고 그 장모와 처제가 한자리에서 맞부딪친 이 불의의 조우가 어쩐지 신파연극과 같은 비상한 결과를 빚어낼것만 같은 예감을 느끼는것이였다.
이때 보패와 세철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비슷한 심리상태에 있었다고 할것이다. 그들은 싸늘해지는 방안분위기를 본능적으로 느꼈으며 그리고 그 중요한 원인이 그들 자신임을 예민하게 자각하였다. 그 싸늘한것 속에는 적의가 있었고 질시가 있었고 격분이 있었고 원망이 있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러한 인간감정을 친한 사람들,적어도 친한척 가장하고있는 사람들가운데서 느껴야 한다는것은 서로 칼을 뽑아들고 마주섰을 때보다 훨씬 고통스러운것이다. 그우에 세철이와 보패에게는 똑같이 그들자신의

질시가 있었고 적의가 있었고 격분이 있었고 원망이 있었다. 그것은 그들 두사람사이에 직선적으로 련결된 감정이였다.

민망하고 송구스러운 가운데도 세철이머리에는 아침에 어머니에게서 들은, 그당시는 무심히 웃어넘긴 이야기가 아프게 되살아났고 직장에서 아니꼽게 굴던 인택이가 생각났다.

(흥, 네가 그런 계집애로구나. …)

한편 보패는 현관에서 세철이의 어줍은 목소리가 들리던 그 첫 순간부터 단 한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으나 그러면서도 그 볼꼴사나운 옷주제며 그 허둥거리는 몸짓 그리고 입가에 어설프게 피여오르는 애매한 미소까지를 낱낱이 다 느끼고 관찰하였다.

(싱겁게 하필 이런델…)

그리하여 그의 눈섭에는 어디다 하소연할데 없는 억울한 심정때문에 눈물이 괴여올랐다.

이 무거운 방안의 분위기를 경패는 각별히 예민한 산모의 감수력으로 자리에 누운채 속속들이 다 느꼈으며 동생의 딱한 처지를 십분 리해하였다. 그는 살그머니 손을 뻗쳐 제무릎밑에서 치마자락을 쥐여뜯고있는 보패의 커다란 손을 꽉 쥐여주었다.

세철은 책을 받아들자 인사도 변변히 못하고 허둥지둥 거리로 나왔다. 바깥날씨는 활짝 개여있었다.

때마침 방안에서는 속세의 마음걱정때문에 잠시도 여유가 없는 어른들로부터 아득히 망각되여버린 안국보— 피덩이같은 갓난애가 치사스런 갈등에 항의하듯 세차게 울어제꼈다. 방안에서는 한동안 긴장되여있던 마음을 늦구기라도 하듯 일제히 속빈 웃음들을 터뜨렸다. 물론 그 시기적절하지 못한 웃음소리속에는 자기들의 부질없는 로심초사를 한바탕 웃음으로 날려보자는것 외에는 특별한 악의가 섞여있는것도 아니였다. 그러나 막 현관문을 나서던 세철은 그 웃음을 자기의 그 어떤 주제넘은 생각에 대한 조소로, 야유로 접수하였다. 그는 진창길을 마구 걸었다.

설렁한 바람이 불었으나 가슴에 봉창을 하나 내고싶도록 속이 답답하였다. 비개인 뒤의 푸른 하늘에는 햇솜같은 구름이 떠가고 태양은 높이 떠서 만물을 웃음으로 어루만지고있었다. 그러나 세철은 상처에 소금물을 끼얹힌듯이 눈부신 해빛이 아리고 쓰렸다.

문득 걸음발을 늦추며 새삼스럽게 자기의 아래우를 훑어보았다. 그러자 다시 한번 목덜미가 후끈해졌다. 미끈하게 차려입고 앉아있

던 인택의 멀끔한 신수가 생각났다. 그 둥실한 얼굴에 큼직한 눈— 그 눈은 쌍까풀이 졌는데 어떤 녀자라도 그 눈에는 호감을 가질것이였다. 그리고 이 수세미같은 작업복은 왜 걸치고 갔더란말인가? 거기서 공교롭게도 보패와 맞다들릴 생각은 못했다해도 경패가 있는 집이요 또 보패의 어머니가 요즘 거기 가있다는것도 미리 알고 있었는데 이건 마치 리도령이 거지행색으로 장모를 찾아가듯…

해주행 낮차가 도착했는지 정거장쪽에서 우르르 짐을 든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러나 사람이 오는지 차가 오는지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철은 자기의 못난행동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용서할수 없다는 한가지생각에만 사로잡혀있었다. 한편 이런 자책과 함께 가슴속 깊은곳에서는 항거의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당신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지? 어디 보자. 당신들이 나를 비웃었지만 나도 너절하게 빌붙지는 않는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마치 복수를 다지듯 기어코 공부를 잘하여보리라 결심하였다.

역전네거리앞에 이르니 군당청사앞 전주에 매달린 스피카에서 흥그러운 노래소리가 흘러나왔다.

에야 데야 새벽닭 운다
에헤야 사립문 열어젖혀라…

꿱—하고 기적소리를 울리며 혼합렬차가 해주쪽을 향해 출발하였다. 정거장앞은 벌써 손님들이 다 흩어지고 한산하였다. 그런데 커다란 트렁크와 네댓살 먹은 아들애를 사이에 놓고 젊은 내외가 옥신각신하는것이 눈에 띄였다.

《글쎄 너보다 더 큰 가방을 어떻게 들고 가니? 어서 이리 주고 걸어라. 할머니가 기다리겠다. 우리 용남이 정말 용치.》

어머니가 아무리 얼려도 용남이는 도리머리를 흔들며 기어코 그 사과궤짝만한 가죽트렁크를 붙잡고 놓지를 않는다.

《그럼 너 어디 들고 걸어봐라. 열걸음만 걸으면 아버지 자전거 사줄게. …》

《아이구 여보, 당신이 자꾸 그러니까 애가 말을 더 안듣지요. 어서 얼려봐요. 이러다간 해 저물겠어요.》

《저물겠으면 저물라지. 용남이, 엄만 깍쟁이지. 응?》

《아이구, 속상해. …》

오래간만에 시어머니를 보러 가는 길인듯 화려하게 성장한 그 젊은 어머니가 속이 상해서 안달아하는 모습이며 젊은 아버지의 행복에 겨운 모양을 세철은 얼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행복한 일가의 모습은 웬일인지 세철의 가슴에 또 하나 아픈 상처를 내였다.

8

두키로나 나간다는 잉어 덕분인지 경패는 그 며칠후 곧 자리를 거두고 일어났다. 장모도 돌아가고 집안에는 새 식구가 하나 는 가운데 일상적인 생활이 흘러갔다. 최근 휘태의 기분상태는 들떴다고 하리만큼 좋았다. 그렇게 속을 태운 난산이였던만큼 안해가 건강을 회복한것이며 아들 국보가 남달리 튼튼하다는것이 그에게는 기적같은 행운으로 느껴졌다. 게다가 도로수리가 끝나자 직장일은 녹쓸었던 기계에 기름을 흠씬 친것처럼 소리도 없이 잘 페워나갔다. 년간계획을 8.15까지 완수할 전망이 환히 내다보일뿐아니라 운수부와 기술부 사이에 은근히 신경을 쓰게 만들던 그 미묘한 알륵도 없어지고 진흙탕속에서 발견한 보석처럼 속으로 언짢게 보아오던 운수부장 장인택이가 각별히 친한 친구로 되였다. 그런 가위에 오래동안 지절지절 궂던 날씨조차 활짝 개였다. 안해가 매만지던 측백나무울타리밑 두어평 되나마나한 터밭에서 상추, 쑥갓, 배추 등이 싹이 텄구나 하고 느낄 사이도 없이 벌써 수북이 좋아져서 점심참이면 제법 쌈구경을 다 하게 되였다. 이것 역시 휘태의 마음을 아늑하게 감싸주는 행복의 하나였다.

어느날 저녁 휘태는 월계획을 끝낸 축하턱이라고 인택이가 끄는바람에 국영식당에 가서 한잔하고 거나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가 저녁상을 받고있을 때 마침 해주행통근차가 지나더니 한 절반 밥그릇을 비웠을무렵 현관에서 사람 찾는 소리가 났다.

안해가 마침 젖을 물리고있었기때문에 입안에서 밥을 우물거리며 현관으로 나갔던 휘태는 그만 입을 쩍 벌렸다. 그는 거기서 검정색인민복을 단정히 입고 역시 검은 모자를 단정히 받쳐 쓴 중키의 사나이를 보았다.

《아니 이게 누구야!》

《바로 찾긴 찾았군. 이사람 휘태, 얼마만인가?》
손님도 두팔을 벌리며 환성을 질렀다.
《아니 자네가…》
서로 말을 잇지 못하던 두사람은 다음순간 와락 달려들어 힘차게 끌어안았다.
《치호, 자네가 어떻게 여기엘 나타났나. 응?》
《참 오래간만일세. 우선 좀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구. …》
《이런 정신 봤나. 그래 짐은 없는가?》
《짐? 짐이 무슨 짐이야. 평양에서 잠간 다니러 왔는데…》
《평양에서? 자네 평양 있었나? 좌우간 들어오게. 저녁전이겠군. 여보—》
휘태는 치호를 떠밀듯이 안으로 들어가며 안해에게 소리쳤다.
《저녁은 차안에서 대강 했네만 너무 소란을 피우지 말게.》
《여보, 이리 좀 나오우. 귀한 손님이요. 참 당신도 알겠구려. 송치호동무요.》
어찌 경패가 송마름댁 맏아들을 모르랴. 그러나 그는 남편 말대로 동양3국 수륙수만리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사선을 함께 넘어온 처지가 아니라 그 옛날 검산벌일대 농민들이 기침소리만 들어도 고개를 수그려야 하던 송마름댁 도련님이요, 자기로 말하면 그들이 쫓겨난 집에 들어있는 소작농의 딸인것이다. 경패는 얼른 젖을 뽑고 앞가슴을 여미면서도 남편이 그처럼 수선스럽게 맞아들이는 그 손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우선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그런데 치호가 아무 군색스러움도 없이 그 녀자의 그런 착잡한 생각을 깨끗이 가셔주었다.
《아주머니, 참 오래간만입니다. 어이구, 첫아들인가요? 이거 신혼축하대신 생남축하를 드려야 되겠군요.》
말은 오래간만이라 하였으나 그 말투는 어찌나 스스럼없던지 경패는 일순 광복전후를 통해 이날이때까지 한번도 헤여지지 않고 그대로 한이웃에 살았던 사람, 그것도 지주와 작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허물없는 남편의 다정한 친구로 대해왔는듯싶은 생각이 드는것이였다.
치호는 활달하게 웃으며 아무 꺼리낌없이 아직 젖에 미련이 있어서 조그만 입술을 오물거리고있는 국보를 들여다보며 껄껄 얼리기 시작했는데 그 태도는 마치 그 옛날의 그 시시한 관계는 다 잊어버리시오, 우리는 벌써부터 이렇게 다정한 사이가 아닙니까 하고 말하는듯 하였다.

그 호탕한 태도며 수수한 옷차림이며 어느것 하나 그 엄엄하던 송마름댁 도련님을 상기시키는것은 없었다. 하긴 그도 검산굴속에서 초라하게 숨어있을 때 자기가 날라다준 잡곡밥을 보름씩이나 얻어먹은 사람이였다. 경패는 저으기 가슴속이 가벼워져서 상냥하게 인사를 하였다.

《참 오래간만입니다. 그사이 안녕하셨어요?》

《네, 보시는바와 같이… 허허허, 내 평양에서 종종 소식은 듣습니다만 워낙 나라는 인간이 이렇게 인사범절에 밝지가 못한 위인이 돼서… 이번에 광복후 처음으로 휴가를 받고 한번 몇해 쌓인 인사빚을 갚아보려구 왔지요. 허허허, 휘태 안그런가? 난 사실 편지는 못하면서도 늘 자네 생각이였네.》

《그러기말이지. 내 저 사람한테는 가끔 이야기하네만 우리가 걸어온 길을 어떻게 잊어버리겠나. 나도 자네 생각을 자주 하군하네. 그런데 평양 있는걸 몰랐군. 평양 어디 있었길래 그렇게 소식이 없었나?》

《배운게 없으니 별로 해먹을 노릇이 있더라구. 결국 코흘리개들하고 씨름을 하게 됐지.》

《훈장질인가?》

《그럼 별수있나. 자네가 잘했어. 생산현장이 차라리 해볼만 할거란 말이야.》

《말 말게. 현장은 현장대로 또 골치아픈게 있지. 좌우간 참 여보, 그 뭐 좀 없소?》

《예, 인차… 좀 앉아서 말씀들 하세요.》

경패는 부리나케 행주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나갔다.

얼근해진 휘태는 아예 안경도 벗어붙이고 씨름이라도 할듯 두 팔을 벌려 무릎우에 올려놓고 열변을 토했다. 근시 특유의 그 푹 꺼진 멍청한 눈이 취기까지 띠고보니 선량한것이 도가 지나서 공허한 감을 자아냈다.

《…광복바람에 전당포에 잡혔던 그놈 량심이요 뭐요 하는 표쪽을 아무 구전없이 도로 찾아내기는 했네마는 막상 내것이라고 들고보니 그게 그 왜놈중대장이 그렇게 욕을 퍼붓던 〈정치〉라는 표쪽이데그려. 참 난 정치에 열중해버렸거던. 이 내가 말일세.》

《왜? 그 잘했지. 그때 그 팔로군은 도리여 정치를 몰라서 야단이라구. 인테리가말이야. 그러지 않던가?》

휘태가 연지라도 게바른듯 얼굴이 새빨개지고 말소리가 들썩

해지는 반면에 치호는 술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얼굴이 파랗게 되고 그 말소리는 면도칼처럼 랭랭하게 날이 섰다.

《인테리? 흥, 말도 말게. 인테리가 되려면 똑똑히 되고 못될바엔 아예 로동자, 농민이 돼야지 이건 반가충이가 돼서 대님으로도 못쓰고 허리띠로도 못쓸 물건짝이라네.》

《허, 자네도 시원치 않은 모양이군. 그래 고향소식은 종종 듣나?》

《고향소식을 내가 어떻게 들어? 이런 답답이라구야. 내가 고향소식을 어떻게 듣는가말일세?》

《글쎄 모르는것 같아서 물어보는 소리가 아닌가? 뭘 그리 따지나?》

《안따지게 됐나. 응? 내가 고향을 잊어버리기나 했을것 같아서? 흥, 왜 고향을 잊어버리겠나? 우리 집 령감이 날 공부시킨다고 종이퉁구리사이에 탈아잡고 앉아서… 허허허, 이보게 치호, 광복이 되자 내가 어떻게나 정치에 열중했던지 그 령감생각을 깜빡 잊어버렸네그려. 그러다 령감생각이 났을 땐 그놈의 38선이라는게 척 앞을 막고있거던. 일이란 그렇게 됐지. 고향소식을 듣느냐구? 그게 무슨 소린가? 자네 생각엔 미국놈들이 이 안휘태의 우편배달부노릇을 할것 같은가? 그 신사량반들이말이야! 자네 그 개자식들을 본적이 있나?》

《보긴 내가 어떻게 보겠나? 보나마나 개자식들이겠지.》

치호는 웬일인지 흠칫하여 성급하게 대꾸하며 피뜩 눈을 치뜨고 휘태를 쏘아보았다. 휘태는 여전히 혀꼬부라진 소리로 횡설수설하였다.

《옳은 말씀이야. 난 한번 본적이 있는데… 내가 어릴 때에말야. 동화사란 절에 소위 학자라는 미국신사 한놈이 나타났거던. 그 자식 지금 가만 생각해보니 그 눈사람 있지 않아? 그 눈사람같은걸 똥으로 빚어서말이야 거기다 큼직한 매부리코를 해붙이고 이마는 물론 번대머리지. 그리구는 나같이 이렇게 도수 높은 안경을 끼우고 넥타이를 척 매고 그우에…》

《알겠어. 그우에 신사옷을 입히겠지. 그런데 어째서 하필 똥사람이란말인가?》

《이사람이 정말 미국놈들을 못봤군. 그 냄새 그건 지독하네. 난 아무튼 어린 마음에 호기심이 나서 바투 다가섰다가 두코 싸쥐고 돌아섰으니까. 그렇게 역한 냄새를 피우는게 똥밖에 더 있겠나?》

《에끼 사람, 거짓말 말게. 들으니 그들도 향수쯤은 뿌릴줄 안다더군. 자, 어서 잔이나 비우게. 자네 술이 늘었군.》

치호는 입귀에 알릴듯말듯 가느다란 미소를 띠우고 잔뜩 취해

빠진 친구를 구슬린다. 휘태는 서슴없이 잔을 죽 기울이고나서 탕 소리가 나게 상우에 놓으며 게슴츠레한 눈으로 치호를 한참동안이나 마주 바라봤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아무런 색다른것도 느끼지 못하는듯 여전한 투로 기염을 토했다.

《향수를 친다구? 그야 그놈들이 그사이 발전했겠지. 이젠 야만으로 통하지 않는 세상이니까, 허허허. 똥냄새를 없애야만 코맹맹이들이 접어들게 아닌가? 응 이사람, 내 술이야 늘구말구. 나는 술이 늘구 미국놈은 화장술이 늘구, 허허허. 제격이지 제격이야.》

그들은 그 자리서 고꾸라져 잤다.

이튿날 아침에 얼굴들이 퉁퉁 부어서 일어난 그들은 마시다남은 술로 해장을 하였다.

휘태는 안방 벽시계를 들여다보며 쓰린 속에다 매포하게 끓인 얼근한 배추국을 마구 퍼넣었다.

《어떻게 하겠나? 시원리쪽에 가보겠나?》

그는 간밤에 자기가 지나치게 취했다는것을 상기하자 웬일인지 마음속이 불안하였다. 뿐만아니라 자기 먼저 세면을 하고 단정히 앉아있던 치호에게서 야릇한 압력을 느꼈다.

무엇인가 상서롭지 못한것이 있다. 숙청 지주의 아들인 그가 여기에 나타났다. 그런데 그가 평양 있었다는것은 사실인가? 무척 물어보고싶었으나 어쩐지 이제는 물어보기가 어색하고 지어 위험한 일로까지 느껴졌다. 비록 그가 지주의 아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일제의 눈을 피해 몇달이나 돌아다닌 사람이 아닌가 하고 자신을 타일러보지만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래서 은근히 그의 동정을 살피노라고 한것이 고작 고향동네에 가보겠는가 하는 질문이였다.

《글쎄 어떻게 할지. …》

치호는 국그릇에 깊숙이 수그렸던 고개를 약간 들고 대접턱과 이마사이로 휘태를 눈여겨보며 말귀를 얼버무리더니 되물었다.

《참 그 세정리 연광은 다시 시작했나?》

《세정리 연광? 난 몰라. 거기 무슨 연광이 있었나?》

《연광이 있었지. 일제때 아오끼가 파먹었다네.》

《그래? 난 전혀 모르는 소린걸. 지금 연광은 해서 무엇하겠나? 더 바쁜 광산이 많은데.》

《하긴 그럴테지. 난 뭐 가볼데가 별로 없네. 여기 온 목적도 자네와 오래간만에 만나보자던것이니까. 자네 출근하게. 난 읍내

아는 사람 몇사람 찾아보고 낮차로 떠나겠네.》

《왜 벌써 떠나? 며칠 놀다가 가지. 래일모레면 공일인데 그때 검산놀이나 한번 하고 가지.》

《검산놀이도 좋긴 좋지. 정말 오래간만에 검산구경이나 한번 할가? 좌우간 자넨 빨리 출근하게.》

휘태는 괜히 검산이야기를 꺼냈구나 하고 속으로 혀를 깨물며 허둥지둥 직장으로 나갔다.

읍내를 둘러보겠다던 치호는 주인 없는 침대에 나딩굴어져서 서가에서 이 책,저 책 함부로 꺼내보더니 신간잡지와 신문들을 뒤적거리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다. 낮잠을 자다가 무슨 꿈이라도 꿨는지 점심때 휘태가 돌아오니 갑자기 2시 10분 평양행으로 돌아가겠다고 나섰다. 휘태는 별로 붙잡지도 않고 정거장까지 배웅하러 나갔다.

《아니 저게 어떻게 된 일인가?》

역전에 이르자 두사람은 똑같이 걸음을 멈추었다. 방금 화물렬차가 들어왔는데 문짝을 열어젖힌 유개화차들에는 부상병이 빼곡이 타고 있었다. 정거장 주변과 구내에는 머리에 흰 수건을 쓰고 허리를 질끈 동인 녀맹원들이 함지며 물주전자를 들고 불이 일듯이 드나들었다. 흰 위생복을 떨쳐입은 의사,간호원들이 팽이처럼 바삐 돌아쳤다.

구내 한복판에는 등이 약간 구부정한 군당위원장 조재호가 말없이 떡 뻗치고 서있었다.

돌아가는 말을 들으니 간밤에 벽성지구에 또 적들이 침습하여 38경비대와의 사이에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 부상병들이 후송돼간다는것이였다.

도중식사며 치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군당위원장이 손수 역두에서 지휘하고있는것을 봤을 때 휘태는 쇠매로 뒤통수를 한대 얻어맞은것처럼 머리속이 멍했다. 무엇인가 큰 죄를—누구에게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용서받을수 없이 큰 죄를 지은것만 같은 자책이 바람처럼 휙 밀려왔다.

후송렬차는 인차 떠나고 뒤따라 평양행 혼합렬차가 들어왔다.

휘태는 가까스로 차가 떠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무엇인가 불안한 예감에 볶이우면서 직장으로 나갔다.

종일을 울적한 기분으로 보낸 그가 여느날과 같이 초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니 아니나다를가 뜻밖의 손님들이 기다리고있었다.

사복을 입은 그들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 서있는 경패의 립회

하에 치호가 뒤적거리던 책과 신문, 잡지들을 조사하고있었다. 순간 휘태는 모든것을 깨달았다.

그는 순순히 그들의 뒤를 따라갔다. 정치보위부장은 뜻밖에도 친절하게 그를 맞이하였다. 그 태연하고 침착한 모습을 보자 휘태는 어쩐지 한시름 놓은것처럼 마음이 좀 가라앉았다.

9

리정권장령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부대검열준비에 여념이 없던 전학민련대장은 그가 갑자기 계획을 변동하여 자기네 련대는 보지 않고 그대로 평양에 올라가겠으니 련대장이 곧 사단으로 올라오란다는 전화를 받고 아연해졌다. 하긴 리정권장령이 사단에 내려온것은 부대의 일반적검열을 위한것은 아니고 일부 포병구분대의 훈련정형을 료해하러 내려온차에 겸사겸사 들린데 불과한것이였다. 그러나 정세가 정세인것만큼—학민은 그렇게 생각하는것이였다.—성의 책임적인 일군이 부대들의 전투준비상태를 검열한다는것은 단순히 훈련상 견지에서 본다 해도 필요한것이며 때문에 의례 내려올것으로 알고 준비를 갖추었던것이다. 물론 어떤 검열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의 부대가 철저한 정치적자각과 왕성한 사기 그리고 세련된 군사기술을 소유한 강철의 전투집단으로 실속있게 준비되여있을것을 바라는 학민은 검열에서 《우》의 성적을 쟁취하기 위하여 구분대장들에게 귀띔을 한 일도 없고 특무장들을 불러들이게 한 일도 없었다. 따라서 리정권이 부대에 나타나지 않는다 해서 일상적인 부대생활에 어떤 사소한 혼란이라도 일어날 우려는 조금도 없고 자기 자신이 잠간 사단으로 다녀오면 그만인것이다. 그러나 웬일인지 그의 마음은 이 사실로 해서 매우 무거워졌다. 그것이 무엇때문인지 그 자신도 똑똑히 알수 없었으나 어쨌든 그러한 조치에는 그의 신념과 잘 조화되지 않는 점이 있다고 어렴풋이 느껴지는것이였다.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그는 시계를 들여다보고 부관에게 말을 준비시키라고 지시를 주는 한편 책상우에 늘어놓았던 문건들을 처리하였다.

10분후 전학민련대장은 이미 옻칠을 한듯 기름이 반질반질하는 날씬한 가라말에 연거퍼 채찍질을 가하여 산골짜기를 달리고있었다.

개울을 낀 오솔길을 따라서 골짜기를 빠진 그는 련대사격훈련장과 마주 바라보이는 밋밋한 등성이로 곧장 치달아올라갔다. 이렇게 산으로 곧장 달리면 사단지휘부와 직선거리는 불과 10키로 미만이였다.

산정에 올라서니 6월달훈풍이 어느덧 등줄기의 땀을 말리며 허파속 구석구석까지 스며든다. 파릇하게 좋아진 봄보리밭이 산기슭에 둘렸는데 모내기가 시작된 벌판쪽에서는 정말 반달만한 모자리들이 얼른거렸다. 바람결에 농민들의 풍년가소리가 들려온다. 다시 가둑나무잎새가 울창한 골짜기로 내려가니 그끝에 아담한 동네가 나타났다.

우리를 튕겨나온 돼지 한마리가 뚤뚤거리며 산으로 올리뛰는데 아래도리를 벌거벗은 예닐곱살짜리 소년이 죽을내기로 귀를 움켜쥐고 승강이를 한다.

학민은 미소를 띠우며 급히 채찍을 휘둘러 비교적 가파로운 왼편등성이로 쏜살같이 올리추었다. 북만의 광활한 벌판을 말을 타고 달리던 생각이 났다. 그때로부터 불과 10여년이 지났는데 벌써 이렇게 부락앞을 함부로 꿰고 나가기가 자유롭지 않다. 마음은 아직 20전후의 그 시절 그대로이나 이렇게 군복에 견장까지 달고보니 조심스럽지 않을수 없었다. 문득 바위짬에 재빛토끼 한마리가 얼씬하였다.

《〈류성〉! 추격이다.》

학민은 군마의 목덜미를 한번 다독거린 다음 박차를 구르며 고삐를 잡아챘다. 령리한 《류성》호는 토끼가 달아나는 등성이를 향하여 네굽을 안고 뛰였다. 재빛토끼는 어느새 산말랭이를 넘어서서 다시 왼편릉선으로 방향을 꺾었다. 학민은 얼른 고삐를 죄였다. 《류성》의 발통이 앞질러 릉선쪽을 짚었다. 당황한 토끼는 깡충하더니 하는수없이 벼랑으로 내리굴렀다. 《류성》은 흐흥—하고 거친 코김을 내불더니 깔아뭉갤듯이 토끼에게 접근하였다. 가련한 토끼는 기가 질려 벼랑을 데굴데굴 구른다.

《허허허,저놈 오늘 설사 만나겠다. 에라,그만두고 가자.》

학민은 《류성》의 목덜미를 툭툭 치며 모처럼 무겁던 기분을 날려준 그 토끼에게 미소를 보냈다.

학민이가 사단지휘부앞 수양버드나무에다 말고삐를 붙들어매고있는데 낯익은 리정권장령의 부관이 자동차운전수에게 출발준비를 시키러 나왔다. (늦었나?) 해서 피뜩 창문을 열어놓은 사단장실쪽을 돌아보니 넓다란 회의용탁자를 가운데 두고 비스듬히 옆으로 기대앉은 리정권장령이 주먹으로 누군가를 치는 시늉을

하면서 껄껄 웃고있었다.
중키를 조금 벗어날가말가하는 키에 똥똥한편인 그는 장령들가운데서는 체소한 편이지만 앉은키는 당당하여 그렇게 호통을 칠 때면로장령의 면모가 두드러졌다. 이야기 서슬에 약간 가무잡잡한 얼굴과 까만 코수염이 얼핏 정면으로 마주보였는데 늘 그 코수염을 두개의 감장치솔같다고 생각해오던 학민은 무의식중에 빙그레 웃었다.
바깥을 향해서 그와 마주앉은 사단장 원인걸장령과 문화부사단장주동철이 미소띤 얼굴로 학민을 향하여 가볍게 고개를 끄덕거렸다. 학민이가 《류성》의 목덜미를 한번 툭 치고 곧장 사단장실로 발걸음을 떼려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오덕칠군관이 뛰여왔다.
《련대장동지, 정찰중대장 오덕칠 만나볼만합니까?》
해볕에 타서 군데군데 허물이 벗어지고 그때문에 얽숨얽숨한 몇개의 마마자국이 더 유표하게 두드러지는 덕칠의 전에없이 심각해진 얼굴을 보자 학민은 가슴이 덜컥하였다.
(말썽군한테 걸렸군. …)
학민은 미간에 주름을 새기며 덕칠이 이상으로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여보, 허튼소리 그만두오. 난 지금 리정권동지에게 욕먹으러 불려왔소.》
《련대장동지, 별말씀을 다 하시우다. 리정권동지는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아마 칭찬을 들으실것입니다.》
덕칠은 시치미를 떼고 학민의 앞을 딱 막아선채 지레대를 갖다대도 움직일 차비가 아니였다.
《이 동무가. 적정을 정찰하는것이 아니라 허튼 장난만 하고 다녔구만.》
《이건 정찰결과가 아니우다. 귀구멍이 두개나 있으니까 지나가는 이야기야 부득이 듣게 되지우다.》
《그러나저러나 지금은 시간이 없소. 다음기회에 보기요.》
《2년을 기다렸는데 또 기다리란말입니까? 아닙니다. 약속만 하시우다. 그러면 전 저 문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동무네 정찰은 그렇게 한가하오? 할 일이 없소?》
《왜 할 일이 없겠습니까? 눈알이 팽팽 돌아갈 지경 바쁘지요. 그러나 당면해서 저에게 제일 긴급한 전투과업은 그 음악을 배우는것이오다.》
학민은 말썽군에게 단단히 잡혔다는것을 사무치게 느꼈다. 그는 난처한 얼굴로 사단장실을 올려다보았다. 리정권장령도 학민

이 도착한것을 알았는지 바깥을 내다본다.

《여보 덕칠동무, 저것 보오. 동무도 눈치를 봐가며 졸라야지! 이렇게 바쁜 사람을 붙들어놓는법이 어데 있소.》

학민은 마침내 애원조로 말하였다. 그러나 리정권장령 비슷하게 몸집이 다부지고 한쪽 눈섭이 가끔 실룩거리는 이 정찰중대장의 고집은 사단적으로도 유명한것이여서 강경한 태도를 조금도 늦추지 않았다. 그러고보면 눈치가 멀쩡한 장난군이라 학민을 의식적으로 이런 곤경에 빠뜨려넣었는지도 모른다.

《그러게 지금 당장 꾀꼬리소리를 내라는것은 아니오다. 저 뒤산에서 기다려도 좋구요.》

《그럼 어쨌든 기다려보오.》

《오늘은 슬쩍 달아나시려고 해도 안되우다. 벌써 매복을 다 시켜놨고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보십시오, 저렇게 말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저도 한때 기병노릇을 했소다.》

오덕칠군관은 한쪽 눈섭을 씰룩거리며 여유작작하게 엮었다. 학민은 마사앞에 끌어내놓은 낯익은 공골말을 바라보며 저도몰래 한숨을 내쉬고 걸음을 옮겨놓았다. 덕칠은 의기양양해서 절도있게 한걸음 앞으로 물러서서 길을 내주었다.

그가 그처럼 성화를 바치는 《음악공부》란 별게 아니라 꾀꼬리며 뻐꾸기며 하는 새로부터 닭, 말, 소 등의 가축이며 귀뚜라미, 개구리 등 곤충들에 이르기까지 각종 동물들의 소리를 흉내내는 모의발성법을 가르쳐달라는것이였다. 학민은 이 방면에 있어서는 말하자면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있었다.

짐마차로 지주네 꼬량을 실어나르면서 광야에 울려퍼지는 노새의 구슬픈 울음소리를 내여 같은 마차행렬의 농민들을 놀라게 한것은 벌써 그가 열서너살나는 소년때 이야기였다. 아동단을 거쳐 유격대에 들어가서는 밀림속에서 새들과 친하여 뻐꾸기며 꾀꼬리소리를 어찌나 신통하게 내였던지 전투나 련락에까지 한몫 보게 되였다. 광복이 된후에 인민군대를 건설하고 강화하는 사업에 참가한 학민은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남북만주 넓은 땅을 누벼다니는 간고한 세월과 로정에 자기와 주위동지들의 생활에 하나의 장난감 오또기처럼 웃음과 기쁨과 아름다운 꿈을 따뜻이 풍겨주던 그 다양한 울음소리를 깨끗이 잊어버렸다. 그러다가 작년여름에 사단적인 야영훈련을 나갔을 때 우연하게도 깊이 감추어져있던 학민의 재

능이 사단정찰중대장 오덕칠에 의해 발굴된것이였다.

그날아침 사단은 훈련제강에 예견된 야간행군을 마치고 울창한 수림속에서 휴식하고있었다. 강평을 받기 위하여 사단지휘부로 올라갔던 학민은 다른 련대장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숲속에서 혼자 드러누워있었다. 때마침 아침 해살이 아름드리나무그루의 촘촘한 잎새사이를 뚫고 비쳐들었다. 클락새며 방울새며 메새떼들이 분주히 나무가지사이를 누비며 우짖어댔다. 부지런한 딱따구리는 그 모든 말공부쟁이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꾸준히 자기의 영원한 천직으로 된 그 천공작업을 계속하고있었다. 이때 산중의 독창가수 꾀꼬리가 남성고음같기도 하고 녀성저음같기도 한 이상하게 코에 걸리는 달짝지근한 목소리로 처음에는 발성련습인지 꽥꼬르르 꽥꼬르르 하고 짤막짤막하게 몇마디 뽑더니 무명가수들의 합창소리가 더욱 높아지자 그 소란한 잡음들을 제압하듯 꾀꼴꾀꼴하고 경쾌한 서정가요를 내뽑기 시작하였다.

오래 잠자던 학민의 정취는 잃었던 활을 다시 찾은 제금의 줄처럼 켕기기 시작하였다. 축축한 풀밭에 팔베개를 하고 드러누운 학민은 저도모르는 사이 입술을 오그려붙이고 꾀꼴꾀꼴하고 마주 목청을 돋구었다. 산중의 독창가수는 때아닌 반주에 더욱 흥이 나서 열정적으로 노래를 불렀다. 그 아름다운 목소리에 취했는지 기가 질렸는지 참새도 딱따구리도 숨을 죽여버리고 꾀꼬리의 구성진 노래소리와 학민의 반주소리만이 솟아오르는 해발과 함께 가셔낸듯이 맑은 심산의 아침대기속에 떨리며 흔들리며 울려퍼졌다.

이러한 때 새사냥에 각별한 취미를 가진 정찰중대장 오덕칠이 살금살금 다가온것이였다. 풀숲에 깃들인 이상한 꾀꼴새— 후날 덕칠은 그 점을 정찰병으로서의 자기 약점을 여지없이 폭로한것이라고 심심히 자기비판을 하였지만—를 덮치려다 하마트면 가짜꾀꼴새와 대격투를 벌릴번한 덕칠은 그바람에 진짜 꾀꼴새마저 놓치고말았지만 능숙한 정찰병다운 착안을 하였다. 그것은 학민의 꾀꼴새소리를 배워서 그것을 군사정찰에 리용하자는것인데 후에 유격투쟁시기부터 학민을 잘 아는 사단장 원인걸장령으로부터 그의 재간이 온갖 조류로부터 곤충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못내는 소리가 없다는것을 알자 그 욕망은 누를수 없을만큼 강력해져서 시도 때도 없이 만나기만 하면 졸라대는것이였다.…

사단장실에서는 오늘아침 10시에 조국의 평화적통일에 관한 조국전선호소문을 남조선에 전달하기 위하여 려현역에 도착했을 세 사람의 조국전선 파견원이 무사히 임무를 수행할수 있을것인가

없을것인가 하는데 대해 열렬한 론쟁이 벌어지고있었다. 리정권은 특별히 꼬집어서 그의 의견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격하기 쉬운 천성때문에 매우 흥분되여있었다.

《…그자들이 감히 어떻게 한단말이요? 그자들은 이 반년이상을 태백산맥과 지리산지구에서 유격대토벌작전에 눈코 뜰 사이가 없소. 그런데 이번 선거는 어떻게 되였는가? 내 평양에서 잠간 통신을 읽으니까 미국놈들도 이번 선거에서 리승만이 참패를 당했다는것을 인정했더란말이요. 그렇게 총검을 휘둘러서 몰아쳤는데도 국회에서 리승만이 지지표가 불과 40미만이라거던. 형편이 이쯤됐으니 제깐놈들이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소? 나는 뒤는 어떻든 그자들이 호소문을 받으러 오긴 올것 같단말요. 그래 주동무 생각은 어떻소?》

문화부사단장 주동철은 눈두덩이 약간 솟고 관골이 퍼진 소박한 얼굴로 빙그레 웃었다.

《글쎄요. 그럴수도 있지요.》

《그럴수도 있다니? 동무야 당일군이 아니요? 동무야말로 전문가거던. 그런데 아까부터 중립을 지키고있단말이야. 어디 의견을 좀 말해보시오. 난 평양에서부터 줄곧 이 문제때문에 론쟁인데 참 알수 없단말이요. 모두 꼭 남북대표자협의회가 소집돼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미국놈들이 방해할거라고 고개를 기웃거리거던. 그래서 권혁동지에게 전화를 다 걸어보지 않았겠소? 그랬더니 허참, 당신은 그사람들이 꼭 그것을 접수해가도록 사업을 조직해야 할 사람이지 가만 앉아서 점을 칠 사람이 아니라구 하거던. 이건 무슨 소리요? 이를테면 욕을 먹은셈이거던. 그러나 어째서 궁금하지 않겠소. 우리 조국이 통일되느냐 마느냐 하는판에… 그것도 오늘 역시… 그러니까 벌써 시간이 지났구만.》

열정적인 사람이 흔히 그러하듯 리정권장령도 주동철의 의견을 그처럼 듣고싶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에게는 전혀 발언할 기회를 주지 않고 혼자 말을 계속하다가 문득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이젠 시간이 됐습니다.》

아까부터 벌써 여러차례 시계를 들여다본 원인걸이 단정하게 앉은 육중한 몸에는 끄떡도 없이 짤막하게 말하고는 두툼한 입술을 마치 큼직한 자물쇠라도 걸듯 꾹 다물어버렸다. 그의 눈은 열어젖혀진 창문을 통해 학민이가 정찰중대장에게서 가까스로 빠져나오는 광경을 바라보고있었는데 그러나 그 동자는 어쩐지 아득히 먼곳 어쩌면 세명의 조국전선 파견원이 3,000만인민의 열망이 담긴 그 호소문을 가지고 남조선의 정

치활동가들을 기다리고 서있을 38선 려현역을 주시하고있는것 같기도 했다.
《그렇다면 문화부사단장동무, 리승만이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그들이 우리 호소문마저 받아가지 않는다면 그 리유가 어데 있소?》
《난 받아가지 않을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이 간단히 올 형편도 못되지요. 왜냐하면 총은 미국놈들이 리승만이에게 주었으니까요.》
《흠, 그러니 또 총에서 정권이 나온다는 리론이로구만. 옳지, 저기 또 리론가가 한동무 오는군. 오래간만이요, 련대장동무. 헌데 동무 생각엔 지금쯤 려현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것 같소?》
리정권장령은 학민이 문을 열고 들어서기 바쁘게 손짓으로 불렀다.
보고가 채 끝나기도전에 조급하게 들이대는 리정권의 질문에 학민은 어리둥절하여 방안을 한번 휘둘러보다가 빙그레 미소를 띠운 원인걸과 주동철의 얼굴에 끌려 저도 비죽이 웃으며 리정권이 손짓하는 옆자리에 가앉았다.
《려현역에서말입니까? 글쎄요.》
《글쎄요라니? 그자들이 받아가겠는가 안받아가겠는가말이요?》
학민은 매번 만날 때마다 겪는 뜻밖의 질문이였지만 별로 달가운 생각이 없었다. 더구나 문제가 방금 이 시각에 진행되고있는, 조국의 운명과 직접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고보니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다 저렇다 하고 론단할것이 아니라 조선인민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 아침의 려현역을 주시하고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민이였다. 그러나 상관의 질문인 이상 자기의 생각하는바를 간명하게라도 터놓지 않을수 없었다.
《제 생각에는 그 호소문이 통일을 갈망하는 조선인민의 념원을 반영하고있는만큼 절대다수 남반부인민들의 지지를 받겠지만 한편 원쑤들의 방해책동도 결사적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소. 그렇기때문에 동무 말도 안받아갈거란말이지? 그렇다면 호소문은 무엇때문에 사람에게 들려서 보냈겠소? 신문, 라지오로 벌써 발표했는데…》
《안받아간다는것이 아니라 방해책동때문에 려현역에 접근하지 못할수도 있다는것이지요. 아마 당에서는 그런 경우에 취할 차후방책도 예견했을것입니다. 저는 나무를 찍어봤습니다만 벌목부가 도끼질을 하면서 단번에 아름드리나무가 넘어지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단번에 넘어뜨릴듯이 도끼질을 힘차게 하는것은 나무가 넘어질 때까지 도끼질을 계속할 결심을 했기때문인것입니다.》

《알만하오. 열번 찍어서 안넘어가는 나무가 없단말이지? 난 동무의 그 말재간에는 매번 놀라지 않을수 없소. 참 그럴듯하거던. 열번 찍어서 안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좋소. 알만하오. 동무네 련대형편은 사단장동무한테서 대강 들었소. 뭐 동무가 지휘하는 부대니 틀림이 있겠소? 난 그럼 가봐야겠소.》

방금까지 며칠을 두고라도 이야기를 계속할것 같던 리정권은 세 사람앞에 불쑥 손을 내밀더니 20대의 청년처럼 날파람있는 동작으로 척척 바깥으로 나갔다. 그가 문턱을 나서자마자 대기하고있던 운전수가 부릉하고 발동을 걸었다.

리정권장령이 떠나간후 학민은 사단장을 따라 다시 방안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세사람은 웬일인지 입을 뗄수 없을만큼 자신의 기분도 남의 기분도 무겁다는것을 문득 깨달았다. 그는 돌아갔으나 그가 남긴 질문은 그것이 설사 성급하고 지어 경박한데가 있다 해도 어쨌든 모든 조선인민의 가슴에 끓어번지는 강력한 통일에의 념원의 반영임에는 틀림없었던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오랜 혁명투쟁속에서 각별히 발달된 감수력에 의해 이 간절한 념원이 그리 쉽게 성취될수 없으리라는것을 예감하는것이였다. 아니,예감이라기보다 그들은 락관적인 견해를 도저히 가질수 없는 너무나 현실적인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있는것이였다.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흐른후에야 원인결사단장은 두팔을 깍지끼고 앉은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최근 통보들을 보았소? 38선 분위기는 상스럽지 못하오. 그 늙다리가 떠벌인 〈5,6월 위기설〉이 공연한 허풍이 아닌것도 같소.》

그것은 학민에게 한 질문이였으나 실상 알고보면 이 무거운 방안분위기의 원인을 해명하는 말같기도 했다. 주동철은 사단장의 말을 못들은척 창가로 다가가더니 한참이나 동안이 지나서야 원인결과 꼭같은 어조로 말하였다.

《년초에 있었던 저놈들의 대인사이동이 벌써 심상치 않았던게지요. 총참모장으로부터 일선련대장들까지 어디서 그런 친일주구들만 그러모았는지 감탄할 지경입니다.》

《내 생각에는 리정권동지의 말과 같이 이번 선거의 좋지 못한 결과가 리승만의 소위 〈5,6월 위기설〉과 직접 관련되여있다고 보는것이 옳을것 같소.》

학민은 두 상관의 말을 귀담아들으며 내무성 대변인의 담화가운데 밝혀진 괴뢰군의 군사이동에 관한 자료와 최근 작전통보들을 상기

하였다. 금년 년초 무능한것으로 소문이 자자한 늙다리 신태영을 예비역에 따돌리고 그대신 《두달만 있으면 〈북벌〉을 하여 10일 이내에 평양을 점령하겠다.》던 전 일본군 병기중좌 채병덕을 다시 륙군총참모장으로 끌어오더니 이어 대인사이동이 있었다.

《우리에게 이미 알려진 정확한 자료에 의하면…》하고 놈들의 군사이동에 대하여 내무성 대변인의 담화는 지적하였다.

《남조선 리승만괴뢰정부는 그들이 가지고있는 국방군 8개보병사단중에서 4월, 5월중에 5개보병사단을 38선에 집중시켜놓았다. 실례로 옹진방면에서는 포병을 증강한 2개보병련대, 개성방면에는 제11, 제12, 제13 보병련대들을 포함한 제7보병사단, 춘천방면에는 제7, 제8, 제19 보병련대들을 포함한 제6보병사단, 양양방면에는 제10, 제16, 제21 보병련대들을 포함한 제8보병사단 등이 배치되였다. 그들은 후방에 있는 사단들의 많은 직속부대들과 포병부대들을 조종하여 이 사단들을 증강하고있다. 왜 리승만괴뢰역도들은 이와 같이 많은 수효의 군대를 38선에 집중시키고있는가?》

과연 무엇때문에 이런 도발적인 모험행위를 하는가? 최근 통보들에는 그 후방에 있다는 사단들마저 꼬리를 물고 38선으로 쓸어들고있으며 각급 군사학교들 역시 무장이 증강되였고 한편에서는 예비사단들이 조직되고있다. 이와 함께 38선에서의 도발사건은 더욱 빈번해지고 더욱 규모가 커지고있다.

《제 생각에는 이놈들이 도발행동을 계속하는 몇개 지점을 특히 주목해야 할것 같습니다. 놈들이 저희네 7사와 6사 전면에서 매번 불장난을 하는데 이것은 우연한것으로 보기에는 매우 계통적이고 조직적입니다. 제가 알건대는 다른 방향으로 공격할 의사가 있을 때 주의를 딴데로 끌기 위해서 하는 미국놈들의 상투적인 작전방법인것 같습니다. 이번에 갈린 김석원이가 고급장교들과 담화하면서 북벌은 반드시 사리원과 철원 방면으로 진공해야 된다고 주장했다는 자료에 비추어 볼 때도 놈들이 옹진과 춘천 방면을 자꾸 집적거리는것이 수상합니다.》

《동무 말대로 하면…》

원인결장령은 크게 부릅뜬 눈으로 학민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면서 말하였다.

《만일의 경우엔 우리 사단의 전연이 제일 위험하겠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허지만 지금은 어쨌든 호소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는지 기다려보는것이 좋지요.》

《다 좋소. 우리 사단쪽으로 와도 좋고 호소문에 질겁해서 꽁무니를 빼도 좋고…

참 그게 들어가기만 하면 폭탄은 폭탄인데… 남조선인민들의 가슴에 불을 달아놓을게거던.》

《그러니까 그놈들이 발광을 하고 귀를 막을테지요. 그러나 그것이 폭탄인 이상 어쨌든 떨어지기야 하겠지요. 그럼 전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시오. 난 동무의 의견에 다 찬성이요. 알겠소?》

원인걸은 웃는것 같기도 하고 노한것 같기도 한 이상하게 능청한 눈매로 학민의 커다란 몸집을 아래우로 훑어보더니 비죽이 웃으며 중얼거리듯 말하였다.

《총각이 몸이 나거던. 허허허.》

학민은 보고를 한후 두 상관의 손을 번갈아쥐였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문을 나와서 주위를 살폈다. 마침 덕칠의 모습도, 덕칠이가 위협하던 매복을 선 정찰병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반달음으로 수양버들에 가서 제 말고삐를 풀어쥐자 채찍을 휘두르며 훌쩍 안장에 뛰여올랐다.

《류성》은 황급해하는 주인의 눈치를 챘는지 선자리서부터 모둠발로 뛰기 시작하였다.

그가 오는 길에 토끼를 추격하던 그 아늑한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였다. 바로 토끼가 숨었던 그 바위에서 난데없이 덕칠이가 썩 나타나더니 태연한 표정으로 두팔을 쩍 벌리고는 《류성》의 고삐를 잡았다.

《웬 이야기가 그리 오래우다? 눈빠지게 기다렸수다.》

《이런 엉큼한 사람 봤나. … 허허허.》

학민은 어처구니가 없어 하늘을 향해 껄껄 웃었다. 흰구름이 둥둥 떠간다.

《보십시오. 새소리…》

정말 새소리가 들려왔다. 호르르 호르륵, 크락 크르락, 쬬비비 쬬비.

학민은 말우에 앉아서 꾀꼬르르 하고 아름다운 앨트를 한곡조 뽑았다. …

오후에 훈련장에 나갔다가 돌아오니 정찰참모가 방금 온 통보를 가져왔다. 거기에는 아침부터 그처럼 사람을 흥분시키던 려현역에서의 사건전말에 대하여도 지적되여있었다.

《…3명의 조국전선파견원은 평화적조국통일 추진제의 호소문을

남반부 수신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라지오 및 출판물들을 통해 이미 약정한대로 6월 10일 오전 10시에 약정한 38연선 려현역지점에 도착하여 상기 남반부 제정당,사회단체 대표들과 인사들 그리고 〈유엔조선위원단〉 대표들을 대기하고있었다. 그러나 지정장소에 10일 오후 2시반까지 한명의 대표도 나타나지 않고 다만 38선 이남지대에 10여명의 사복입은 사람들과 20여명의 소위 〈국방군〉들이 나타났을뿐이였다.

오후 2시 45분에 이르자 조국전선파견원들이 대기하고있는 지점과 려현역을 향하여 38선이남지역으로부터 카빙총,엠원총,중기,경기,기관총 등으로 집중사격을 개시하였다. 집중사격은 오후 4시 10분까지 계속되였으며 오후 4시 10분부터 오후 5시 20분까지는 무질서한 사격들이 계속되였다. 조국전선파견원들이 대기하고있는 지점과 려현역을 향하여 38선이남으로부터 발사한 포탄,총탄 수는 근 만여발에 달하였다. 이 사격의 결과 한명의 조국전선파견원의 상의에 탄환 3발이 관통되였으며 려현역은 유리창 20여개나 파손되였고 그 부락가옥들도 어느 집을 물론하고 총탄의 관통을 당하지 않은 집이 없게 되였다.

오후 5시 20분에 이르러 사격은 중지되였다. 사격이 중지된 35분후 즉 5시 55분에 이르러 38선 계선에 약정한 지점을 향하여 38선이남으로부터 푸른기를 든 두사람이 나타났다. 집중사격으로 말미암아 은신하였던 조국전선파견원 3명은 푸른기를 든 두사람을 향하여 영접하여나갔다. 그들중 1명은 서울에 주재하고있는 소위 〈유엔조선위원단〉 서기국 대표였으며 1명은 그의 통역원이였다.

그들은 조국전선파견원들에게서 〈유엔조선위원단〉에게 전하는 평화적조국통일 추진제의 호소문 1통을 받은후 〈사격이 있어서 대단히 미안하게 되였다.〉는 인사의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전학민은 통보를 와락 밀어놓으며 중얼거렸다.

《흥,주인공이 직접 등장한 셈이군. 사격이 있어서 대단히 미안하게 됐다고? 례절이 밝군.… 더러운놈들! 그런데 이건 또 뭐야?》

통보서 한끝에는 맥아더사령부 정보국에 직접 속해있는 《케이.엘.오우》특무 송치호가 금년 4월초에 청단방향에서 해주 룡당포로 월경한 이래 38연선과 평양,함흥 일대에서 정탐행위를 감행하다가 추적을 당하자 1950년 5월 25일 고향인 황해도 검산에서 대학동창생의 집에 일시 피신, 26일 14시 10분 평양행렬차로 황주까지 가서 15시 05분 개성행렬차를 바꾸어타고 신막에서 하차한후 종적을 감추었다는것,기술적인 감정결과에 의하면 사단위수구역내에 잠복한 흔적이 있다는것 등이 지적되여있었다.

《검산이라… 이상한 일이군.》

학민은 얼마전 세철이와 나란히 앉아 력사봉을 바라보던 그날밤의 검산을 상기하였다.

《거기놈이란말이지? 그렇다니까.》

그는 통보문건을 저도몰래 다시 움켜쥐며 마치 세철이를 앞에두고 이야기하듯 혼자 중얼거렸다.

10

휘태네 집에서 장인택이와 조우한 날 심한 모욕을 당하였다고 속으로 무엇인가 욱벼르던 세철은 그때 결심한대로 맹렬히 공부에 달라붙었다. 그러나 점차 열이 식자 그 모욕당했다는 생각이 맹랑하고 옹졸한것임을 깨달았다. 그러면서도 어머니가 하던 말을 생각해보면 장인택이가 보패네 가족과 한자리에서 더구나 산모의 방에서 그처럼 터놓고 담소하고있었다는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도 명백하다고 생각되였다. 이래저래 보패를 만나야겠다고 기회를 엿보았지만 좀체로 만나지지를 않았다.

그런 어느날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우울한 낯빛으로 뜻밖의 소식을 전하는것이였다.

《얘, 그 집에서는 오늘 량주간에 대판싸움이 벌어졌다는구나.》

《그 집이라니, 누구 집말이요?》

세철은 다 먹은 밥상을 물려놓으며 심상하게 물었다.

《누구 집이겠니. 보패네 집이지. 일전에 해주 산다는 어떤 안늙은이가 선을 보러 왔다갔단다. 그게 들으니 그 운수부장인지 하는 사람의 어머니라는구나.》

어머니는 아들의 심정을 생각하여 여태 혼자 속에 감추어두었던 말을 꺼내며 아들의 눈치를 슬슬 살폈다.

세철은 아닌게아니라 뜻밖이였다. 선을 보러 왔다? 그러니 보패는 앉아서 화장을 하고 얌전하게 앉아서 장차의 시어머니에게 선을 뵀단말인가? 화끈 달군 쇠홍두깨같은것이 뒤덜미로 해서 머리꼭대기로 치받쳤다. 그는 아찔해지는 머리를 가까스로 지탱하며 마루로 나갔다. 잠시 숨을 돌린후 조용히 물었다.

《그런데 싸움은 왜 했단말이요?》

어머니는 일상 퉁명스럽던 아들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부드러워진것을 느끼며 웬일인지 가슴이 옥죄여들었다. 아들의 어진 가슴을 공연히 건드려놓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필녀는 슬그머니 외면을 했다. 그럴수록 성님, 동생하던 정의를 잊어버리고 우쭐렁거리는 보패 에미가 괘씸하게도 생각되였다.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다만 그 로친네가 당장 혼사를 아물구자고 서둔단다. 해주로친네는 읍내에 아주 주인을 잡고 앉아서 하회를 기다리고있다는구나. 그래서 령감님이 화가 독같이 나서 당장에 내쫓겠다고 불호령을 했다지 않니? 그래도 그 드센 로친네가 숙어들기커녕 맞불질을 해서 또 일제때처럼 밥상이 달아나고 문짝이 나가넘어지고 온통 야단법석이 났단다.》

《뭘 그렇게 야단할게 있나요? 그 아바이 미쳤군.》

세철은 담배불을 붙이더니 쓸쓸하게 웃으며 중얼거렸다.

《쯧쯧, 내라구 그속이야 알겠니. 그 집이 이 몇해 조용한가 했더니 또 소동이 벌어지나부다. 들으니 그 집 큰 사위가 요즘 보위부에 불려다닌다는구나. 큰딸 신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판에 무슨 당치않은 소리냐구 령감님이 호통을 질렀단다. 그러니까 로친네가 말하기를 그런 뜨내기를 사위로 맞아들여 딸자식 신세 망친게 누구냐구 되려더 기승을 부리더란다. 그 녀편네가 유식한 사위를 얻었다고 어깨바람이 나서 돌아가던게 어제일 같은데 난 통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세철이는 휘태가 보위부에 불려다닌다는것도 금시초문이였다. 하긴 그저께 입학문건때문에 당위원회에 갔다가 먼저 위원장을 만나고 나오는 어깨가 후줄근히 처진 휘태를 만났을 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었다. 얼굴에 거멓게 검버섯이 덮여있는 그를 보고 깜짝 놀라서 《어디 편찮으십니까?》하고 물었더니 말없이 고개를 가로 흔들며 지나쳐가던 휘태의 모습이 떠올랐다.

세철은 방금까지 그처럼 헤여날길 없어보이던 우울한 심정은 삽시에 잊어버리고 그대신 동지의 신상에 대한 근심이 꽉 차오는것을 느꼈다. 그는 노기 띤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보위부라니?》

《시방 동네에 떠도는 소문이 재미없더라. 뭐 그 사람이 간첩이라고도 하고 반동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지 그 사람과 상종을 않는게 좋겠더라.》

《그 사람이 간첩이라니 누가 그따위 수작을 해요? 아니 왜

놈군대를 피해서 몇달씩 굴속에 숨어있던 사람인데.》
세철은 눈뿌리가 후끈할만큼 격분해서 소리쳤다. 어머니는 아들의 험해진 기색을 보자 남에게 모진 소리 한것이 가슴에 찔려 흠칫 입을 다물었다. 그는 오돌오돌하며 발명하였다.
《글쎄 내사 뭘 아니? 들리는 소리가 그렇더라. 그래서 그 로친네가 더 기광이 나서 그런다는 말도 있더구나.》
《그런 소리 곧이 듣지 마시우. 내 래일 알아보겠수다.》
세철은 입이 부르터서 어딘가 허공을 쏘아보았다. 무엇때문인지 온몸이 긴장되고 살이 떨리는것을 느꼈다.
머리를 좀 식히려고 한참 마당을 서성거리는데 비꽃이가 떨어졌다. 하는수없이 방으로 들어온 그는 이제는 습관이 된대로 책상앞에 마주앉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일과표대로 하면 오늘은 피다고라스인지 뭔지 하는 사람의 정의를 증명하게 되여있었다. 그러나 삼각형을 그려놓으면 그 매 정점에 안휘태와 보패 그리고 자기가 서서 서로 쏘아보고있었다.
《동무가 간첩이라니 그게 웬말이요?》
저변 한쪽귀에 자리잡은 자기가 정점을 향해 소리친다. 그러면 휘태는 일상 선량해보이던 그 얼굴이 빨갛게 타도록 노해서 맞받아 소리쳤다.
《내가 간첩이라니? 아니 어떤 때려죽일놈이 그따위 사람잡을 소리를 하는가?》
《동무네 처가에서 그러지 누가 그러겠소?》
《아니, 아니!》
휘태는 펄펄 뛴다. 너무 억이 막혀서 말도 못한다. 그래도 자기는 참을수가 없어 또다시 다그친다.
《뭘 모르는체 하오? 세상이 다 아는데 저 보패한테 물어보오.》
그러자 휘태는 슬그머니 외면을 하며 애원하듯 중얼거렸다.
《그런 소리 마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요. 보패동무, 동무가 좀 말해주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것을 이 세철동무에게 좀 이야기해주오.》
그러자 보패는 얄밉게 입을 뾰족 내밀며 쏘아붙였다.
《내가 알게 뭐예요.》
세철은 도리머리를 흔들었다. 아무리 불쾌하다 해도 이러한 생각을 더듬는것은 보패에 대해 비겁한 앙갚음을 하는것이다. 어찌 보패라고 그럴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 집에서 벌어졌다는 소동은 어떻게 된것인가?

세철은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났다. 세상에 이런법이 있는가? 여태까지 살이라도 베여줄것처럼 다정하게 굴던 한집안 사람들끼리 어떻게 단 하루밤인들 의심하고 살수가 있는가? 그런데 너는 또 뭐냐? 래일 알아보다니? 그럼 안휘태란 사람이 정말 얼마간이라도 간첩이 될수 있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순간 세철은 머리속이 아찔해지는것을 느꼈다.

《…모르긴 해도 그자들의 졸개들이 동무의 코앞에도 있을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하는거요.》

이것은 누구의 말이였던가? 그렇다. 그것은 형의 말이였다. 아니, 형의 전우의 말이였다.

세철은 이를 부드득 갈았다.

《개자식! 그렇다면 당장 때려죽이고말아야지. 하지만 안기사가 어찌 그럴수가 있는가? 그 〈두더지〉 밑에 거적을 깔고 드러누워 밤을 패우면서 나에게 굴착기의 구조를 가르쳐주고 공산주의분배원칙을 가르쳐주던 그 사람이 어떻게 간첩이 될수 있단말인가? 도대체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악한짓을 할 잡이가 되기나 하는가?》

세철은 마루로 나섰다. 비소리가 주룩주룩한다. 락수물이 목덜미를 선뜩하게 적셨으나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채 신을 더듬어 신었다.

《얘, 너 어딜 가려고 그러니? 이 비에…》

잠잠하던 아래방에서 어머니가 고개를 내민다. 그제야 세철은 비가 온다는것과 그리고 자기가 어딘가로 가기 위하여 신을 신고있다는것을 깨달았다.

세철은 불시에 풀이 죽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먼저 쉬시유, 난 아무래도 당부에 가봐야겠수다.》

필녀는 잠시 아들을 바라보더니 알릴듯말듯 한숨을 지었다. 그에게는 아들의 마음속이 제 손금보다 더 환하였다. 아무리 장성했다 해도 그에게 세철이는 언제나 제품에 품고 젖을 먹일 때처럼 어빠어빠 칭얼거리는 소리 한마디면 젖이 먹고픈지 뒤가 척척한지 알아맞히던 그때와 마찬가지 철부지에 불과하였던것이다.

필녀는 부질없는 말인줄 번연히 알면서도 한마디 타일러볼수밖에 없었다.

《이젠 밤도 깊구 이렇게 비까지 오는데 밝는 날 가보려무나. 그러지 않아도 래일은 아침교대가 아니냐?》

《그럴수 없어요. 그 사람이 만일 잘못됐다면 나도 당앞에 책임이 있어요.》

비속에 돌아서는 아들을 보자 필녀는 허둥지둥 일어나 벽장에서 비옷을 꺼내들고 급히 마당으로 뛰여나갔다. 세철은 벌써 삽짝밖을 나서고있었다.

《애야, 그래도 뭘 쓰고 가야지. 아이구, 비발이 점점 굵어지는구나. 이 일을 어떻거니.》

필녀는 오돌오돌하며 퍼붓는 비속으로 사라져가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새바람이 들이치는바람에 어느새 몸에 달라붙은 삼베치마가 철떡철떡 날렸다.

세철은 진창길을 뛰다싶이 걸음을 다우쳤다. 비옷은 비옷대로 날리고 옷은 옷대로 날렸다. 비발이 뒤통수를 후려치는가 하면 얼굴을 들이치기도 하였다. 삽시에 온몸이 후줄근해졌다. 그래도 몸은 화독을 안고있는것처럼 훅훅하였다.

《그 사람이 간첩이라니 될말인가? 그렇게 어지고 곧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흉한짓을 한단말인가? 틀림없이 어떤놈의 조작일것이다.》

이렇게 웨치는 소리가 울려오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랭랭한 목소리가 소리친다.

《그렇다면 너는 당앞에 책임을 질수 있는가?》

《책임을 질테다! 나는 그 사람과 3년이상 같이 일했다. 그 사람이 우리 당을 위해서 충직하게 생활했다는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럼 증거를 대라! 네가 뭘 가지고 그리 큰소리냐?》

세철은 우뚝 광란하는 비바람속에 걸음을 멈추었다.

《모르긴 해도 그자들의 졸개들이 동무의 코앞에도…》

학민의 침착하고 근엄한 목소리가 은은히 울려왔다. 그것은 이 세상이 다만 평화롭지만 않다는것을 그리고 이 시대가 치렬한 계급투쟁의 시대라는것을 깨우치는 말이였다.

《형님! — 세철은 학민이가 스스로 형이 돼주겠다고 한 말을 상기하고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그렇다면 내가 가만있어야 옳은가요? 난 이때까지 그 사람을 제일 친한 사람으로 생각해왔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듣고 가만있을수 있겠어요?》

이때 바로 코앞에서 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꺼먼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것은 그의 발길이 무의식중에 향해있던 당위원회 사무실이였다.

《아니 세철동무 아니요? 이 밤중에 어떻게 오오?》

《아, 당위원장동무 마침…》

비옷속에 서류를 한뭉테기 걷어안고 자물쇠를 채우려던 엄익

준은 세철의 이야기를 듣자 도로 문을 열고 불을 켰다. 그들은 소박하고 정갈한 당부사무실에 마주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흠, 그래 나하고 따져보러 왔소? 허허허. 마침 나도 그 문제때문에 여태까지 보고서를 썼댔소. 래일 당총회가 있게 되오.》

《그럼 정말 그 사람이?…》

세철은 비물이 뚝뚝 듣는 얼굴을 훔칠 생각도 못하고 익준의 태평스런 얼굴을 바라보며 저으기 기가 죽은 목소리로 물었다.

《뭘말이요? 사람들이 아직도 계급투쟁의 원칙을 생판 모른다니까. 걸핏하면 간첩이니 이거야 어디 꼴이 됐소. 가서 잠이나 자오. 래일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토의해봅시다. 로동계급이 그렇게 가볍게 굴어서는 못씁느니. 그 사람이 어쨌든 과오를 범했으니 시정대책을 세워야지. 안그렇소? 참 눈을 똑바로 떠야겠소. 원쑤들은 눈을 까뒤집고 덤비는데 우리 사람들은 어질기만 하다니까. 그래서야 어떻게 혁명을 하겠소. 이번 안동무 문제만 해도 그렇거던. 이번 문제를 계기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는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든든히 인식시켜야겠소.》

익준은 사건의 전말을 요약해서 몇마디 이야기하고는 아까와 똑같은 어조로 되풀이하였다.

《이것 보오. 이렇다니까. 그놈이 얼마나 교활하오? 그런데 이 동무는 쓸개빠진것처럼 호인이거던. 이래서야 무슨 당원이겠소. 참 기가 막힌다니까.》

세철은 그제야 마음을 좀 진정시키며 얼굴을 대충 훔치고 함빡 젖은 머리를 쓸어올렸다.

《늦었는데 이젠 가보오. 난 현장에 가볼 일이 좀 있어서… 그런데 동무, 공부는 잘하오?》

《네, 그럭저럭… 어쩐지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되나? 한다 하면 골이 터지는 한이 있어도 본때를 보여야지. 안그렇소? 일없소. 동무는 될거요. 나는 믿소. 자, 그럼 가보오. 공연한 사람 감기 걸리겠다이. 거 비옷단추를 꼭 채우고 가오. 이리 돌아서오. 자, 이렇게 꼭꼭 채우면 속은 젖지 않을걸. 사람이 원…》

돌아오는 길에도 비는 그치지 않았다. 익준이 비옷단추를 채워준 덕분에 다시 젖지는 않았으나 이미 젖어버린 옷은 몸이 옥죄도록 달라붙었다. 그러나 세철은 그런것 저런것 느끼지 못하고 천천히 걸었다.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푹 가라앉는듯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어깨가 갑절이나 무거워졌다.

비줄기가 점차 가늘어지고 먼데서 닭이 첫홰를 칠무렵 세철은 조심스럽게 삽짝을 열었다. 잠든 어머니를 깨우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어느새 아래방 미닫이가 열리더니 어머니의 초롱초롱한 목소리가 울려왔다.

《이제사 오니? 그래 어떻게 됐느냐?》

《아직 그리구 앉았수? 참 어머니두…》

《간 일은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될게 있어요. 토의해봐야지. 잘못한건 사실이더군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수. 래일 회의가 있다우다.》

《그럼…》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대중할수가 없어 엉거주춤 허리를 일으켰다. 나갈 때보다 한결 침착해진것으로 봐서는 평소 과묵한 성미라 별일 없는가부다 하는 짐작도 갔지만 한편 어금이에 꽉 무엇이 끼인듯한 분명치 않은 말투로 봐서는 어딘가 께름직한것이 느껴지기도 하였다.

《글쎄 이젠 주무시우다. 걱정한다고 풀릴 일도 아닌데… 제가 한 일은 제가 책임져야지요. 나두 자겠수다.》

세철은 어머니가 봐둔 자리에 벌렁 드러누웠다. 그러나 먼동이 다 틀 때까지 모자간에 아무도 잠을 청하지 못했고 또 피차 서로 잠을 청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력력히 느꼈다. 그렇지만 서로 다시 말을 건늬지는 않았다.

이튿날 광산구락부에서 안휘태의 당생활을 검토하는 당총회가 열렸다.

엄익준의 보고는 정치보위부에서의 통보와 휘태자신과의 담화를 통하여 작성된것으로 당원 안휘태의 출신, 사회성분으로부터 과거의 경력, 최근 당생활 및 사업정형을 개괄하고 특히 그 교우관계와 최근에 있었던 송치호와 관련된 사건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지적하였다. 광산당조직에 망라된 모든 당원들은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임을 말없이도 깨달았다. 보고가 끝난후 10분간의 휴식이 선포되였으나 대부분의 사람이 자리를 뜨지 않고 앉은자리에서 담배들을 피웠다. 이런 휴식시간에 의례 있게 마련인 끼리끼리의 쑥덕공론도 없었다. 소곤거리는 소리들은 대부분이 자기가 미처 잘 듣지 못한 보고의 어떤 부분에 대한 질문이 아니면 《허 그참.》 하는따위 개탄이였다.

휘태는 맨 앞줄에 집행부와 마주하여 고개를 푹 떨구고 웅크리고 앉아있었다. 그에게는 이 당총회가 자기의 과오에 대하여 어떤 결론을 내리리라는것이 명백하였다. 척척히 젖어드는 속내의밑에서 여직껏

한번도 그 존재를 느껴본적 없는 안해가 곱게 레스로 덧천을 해씌운 조그마한 가죽주머니가 꽛꽛하게 마쳤다. 어깨로 해서 걸친 명주로 꼬아늘인 끈조차 뚜렷하게 감촉되였다. 십중 팔구 이제는 잠자리에서 배길 일도 없어질것이며 땀배인 몸에서 철떡거릴 일도 없게 될 그 당증주머니가 이렇게도 자기의 살점처럼 아니, 심장 그자체처럼 떼여놓기 힘들고 떼여놓고는 살수 없는것으로 느껴지리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했다. 도꾜에서 중국 화북전선으로 그리고 이 낯선 검산땅까지 수륙 수만리를 굴러와서 겨울나는 곰처럼 산속의 굴에서 피신해있다가 마침내 그에게 푸른 하늘이 열렸을 때, 그가 누구에겐지 저당잡혔다고 생각한 량심은 실상 도로 찾고보니 다름아닌 이 조그마한 가죽주머니속에 들어있는 그 당증이였다. 이제 그는 다시 그 량심을 누구에게다 팔아먹고 그대신 이 주머니속의것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 누구에게 팔아먹었는가. 누구에게 무엇때문에 무엇이 급해서 팔아먹었다는것인가? 송치호가 자기의 량심을 팔아먹을만큼 그렇게 살뜰한 친구라고는 생각할수 없었다. 생각해보면 그것은 그자신에게도 똑똑치 않은 그 아득한 도피의 려정이 머리속에 불러일으킨 향수와 권태와 공포로 인한 하나의 환각에 불과했는지도 모른다. 의리, 도의—이러한 외피를 쓴 그 환각이 그가 알고있는 송치호란 인간에게 하나의 비단보자기를 씌워놓게 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내가 범한 과오라는것은 대체 무엇인가? 그가 부드러운 환각의 껍데기를 썼든 안썼든 어쨌든 5년만에 나타난 그를 문전에서 내몰았어야 옳았는가? 보위부에서도 휘태는 많은 질문과 함께 자기의 무경각한 행동에 대한 많은 말을 들었고 군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일깨워주었다. 그리고 지금 연단에서도 격한 동지들의 토론이 계속되고있다.

《…광복직후에 우리 광산에 로동조합을 조직하러 나왔던 안선생 생각이 납네다.》

저것은 누구인가? 옳지, 공무직장의 로기능공 김순필아바이다. 참 무던하고 착한 늙은이지. 일손이 날쌔지는 않지만 실수없는 사람이였지.

《그때 안선생이 우리에게！》

《그 선생이란 말을 집어치우시오.》

회의장 중간쪽에서 누가 왜가리소리를 지른다. 저건 또 누군가? 흥, 저것은 장인택이로군. 그렇지, 이건 당회의인데 저 아바이가 실수를 하는군.

《옳수다. 선생이 아니고 동무지요. 헌데 안선생이…》

여기 저기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으나 순필아바이는 아랑곳없이

말을 이었다.

《우리에게 한 말이 무엇이였시꺄? 우리더러 혁명해야 한다고… 원쑤들이 날뛰는데 로동계급이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있겠느냐구,경각성을 높여라, 광산을 수호해야 한다고 이러지 않았시꺄? 우린 안선생… 참 안동무에게 감격했시다. 그런데 오늘 안동무가 이런 오유를 범하다니 참 섭섭하외다. 우린 무식해두 경우는 아우다. 그래 그깐놈의 지주자식이 무슨 친구외까? 네,여보 안선생,그래 그놈이 친구가 돼서 숨겨주었단말이외까?》

숨겨주었다니? 내가 숨겨주다니? 그럼 내가 그놈이 쫓겨다니는것을 미리 알았단말인가?

휘태는 불쑥 머리를 들었다. 순간 순필아바이의 두리넙적한 호인형의 얼굴과 부딪쳤다. 잔주름이 잡히기 시작한 눈귀에 무엇인가 축축한것이 괴여있다. 그 얼굴도 노여움과 안타까움에 애오라지 떨리고있었다. 휘태는 순필아바이의 그 가슴아파하는 눈빛에 눌려 그만 고개를 떨구고말았다.

김순필은 하던 이야기의 매듭도 짓지 않고 불쑥 연단을 내려가려 하였다.

집행부에 앉은 엄익준이 어떤 규률을 적용할것인지 의견을 내놓으라고 말하자 순필은 피뜩 그쪽을 돌아보더니 노기 띤 목소리로 퉁명스럽게 말하였다.

《난 모르겠쇠다. 당에서 적당히 하오다.》 그리고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 덜컹하고 앉아버렸다.

여느때 같으면 폭소가 일어날 장면이였으나 웬일인지 장내는 물을 뿌린듯 조용하였다. 그래서 엄익준이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리는 소리가 뒤구석까지 똑똑히 들렸다.

《당이라… 그런데 이건 뭔고? 당총회에서 당에 민다?》

어떤 사람은 격분해서 이야기했고 어떤 사람은 기가 차다는 투로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실수가 자기에게도 가능하다는 투의 일반적인 연설을 했고 이렇게 여러 사람 차례가 바뀌였으나 누구의 입에서도 구체적으로 안휘태를 당에서 내쫓아야 한다거나 혹은 어떤 책벌을 주는것이 좋겠다는식의 안은 나오지 않았다. 장내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마침내 장인택이 일어나서야 사람들은 가벼운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어쨌든 그의 입에서는 좋든 그르든 구체적인 의견이 나올것이 틀림없기때문이다.

인택은 광산적으로도 가장 토론을 잘하는 사람으로 이런 회의같은데서는 한몫을 든든히 막았다. 그가 잘하는것은 자기비판인데 특히 이 자기비판은 사람들이 전혀 그를 비판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그런 대목에 자주 진행되군하였다. 례컨대 자기 부서에서 생산계획을 110프로로 완수했을 때 자기가 이러저러한 일에 태공함으로써 능히 120프로를 할수 있는것을 하지 못하게 되여 혁명에 막대한 해독을 끼쳤다든지 혹은 그와 일년에 한두번정도밖에 접촉할 기회가 없는 당원 김 아무개가 이러저러한 과오를 범한것은 전적으로 자기가 그에게 적절한 방조를 주지 못했기때문으로서 자기같은 사람은 당내에 있을 자리가 없다는식의 토론이였다. 이러한 토론들은 사람들에게 공허한 감을 주기도 했지만 다른 편으로 토론이란 그렇게 하는것인가 하는 의혹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어쨌든 그가 대수롭지 않은 잘못이나 지어 잘못이 없을 때조차 자기비판을 그렇게 뼈아프게 하는것을 보면 대단히 당적수양을 많이 쌓은 사람이라는 인상도 조성시켰다. 그러기에 흔히 인택이 호상비판을 하는 경우에는 맺고 끊는듯이 날카로왔고 어떤 때는 도가 넘게 무자비하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그의 일상적인 허다한 자기비판이 그렇게 날카롭게 남을 비판할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고 사람들은 무의식중에 생각하는것이였다.

《여러분이 다 아는바와 같이》하고 인택은 예기한바와 같이 처음부터 흥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면서 우선 연단을 한번 쾅 울렸다.

《나는 안휘태동무와 매우 가까운 사람입니다. 나는 물론 그가 그렇게 위험한 인간인줄 모르고 교우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제 밝혀진바에 의하면 그는 중농의 출신이며 그의 가족들은 지금도 남조선에서 장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학병으로 일제에게 복무하였습니다. 이러한 우연분자와 친교관계를 맺었다는것을 생각하면 나자신 당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거듭 말합니다만 안휘태와 매우 가까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에게 선포하는바입니다. 너와 나는 원쑤라고… 어째서 너는 적에게 숨을 자리를 내주었는가? 너는 그자에게 무슨 정보를 제공했는가? 나는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자는 우리 당에 둬둘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당장 출당시키고 그 배후관계를 조사하도록 해당기관에 넘겨줄것을 제기합니다.》

인택은 노기충천하여 다시 연단을 한번 꽝 울리더니 눈을 부릅뜨고 휘태를 쏘아보았다.

휘태는 자기가 굴러떨어질 밑창모를 나락을 들여다보듯 고개

를 푹 떨구고 발밑을 내려다보고있었다.

인택이 연단을 내려서자 반사적으로 세철이가 벌떡 일어났다. 왜 일어났는지 그것은 자신도 잘 몰랐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무의식중에 잘못하다가는, 적어도 인택이의 말을 따르다가는 휘태의 잘못에 결코 못지 않은 또 하나의 큰 잘못을 당원모두가 달라붙어서 저지를것만 같은 예감에 압도되였다. 그러나 정작 연단에 나서고보니 할말이 무엇인지 똑똑치도 않았고 실지 어떤 막연한 예감의 충동에 견딜수 없어 불쑥 뛰여나왔기때문에 잊어버린 말을 찾을나위도 없었다. 그는 얼굴이 벌개져서 누가 목을 조이기라도 하듯 목을 몇번 거북살스럽게 내젓다가 마침내 진처럼 이마에 내배는 땀을 소매로 뻑—씻었다. 바로 연단앞에 앉아있는, 모든것을 각오한듯 조용히 옹송그리고있는 휘태가 눈에 띄자 웬일인지 세철의 가슴에는 분이 치받쳤다.

《나는 이럴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모두가 무엇인가 잘못생각하고있다고 봅니다. 나는 안휘태기사가 물론 엄중한 과오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기서 새삼스럽게 따져볼 필요도 없을만큼 명백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은 원쑤가 침입하지 않았습니까? 원쑤가 우리들을 해치려고 들어왔는데 무엇때문에 우리 편을… 사실 그 원쑤가 어떤놈입니까? 그놈의 삼촌은 송희배였습니다. 우리 광산에는 그놈의 딱따구리망치에 얻어맞은 사람이 한두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 망치에 얻어맞아서 닷새나 일을 못나갔다고 합니다. 나는 안휘태기사가 당에서 쫓겨나도 마땅하다고 봅니다. 우리 당은 그저 정직하고 어진 사람들이 모인데가 아닙니다. 우리 당은 혁명을 하자는 당입니다. 얼마전에 나의 형의 전우였던분이 찾아와서 나에게 우리 당이 어떻게 조직되였는가를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수령님께서 눈속에 앉아 밤을 새우시며 조국광복회강령을 작성하시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나는 그때 새삼스럽게 내 당증을 만져보았습니다. 이 조그마한 당증에 얼마나 우리 선렬들의 고귀한 피가 배여있는가 하는것을 뼈아프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당증이 어떤 당증이라는것을 똑똑히 모르고있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안휘태동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당에서 나가도 할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편입니다. 나는 또 그 련대장동지한테서 미국놈이 우리와 전쟁을 하려다가 그만 발광해서 16층 꼭대기에서 떨어져죽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럴수 있는가? 나는 반대합니다.》

세철은 자기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도 모르고 나갈 때와 마찬

가지로 훌쩍 뛰여내려왔다.

《동무, 발언 똑똑히 하오. 그건 무슨 소리요?》

인택이가 벌떡 일어서더니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난 반대란말이우다.》

《무엇이 반댄가말이요? 말을 똑똑히 해야 할것 아니요?》

《뭘말이요? 난 반대라는데 무슨 잔말이 많소.》

세철이가 회의장 중간에서 걸음을 멈추고 인택이와 마주 서자 엄익준이 일어나서 연탁을 가볍게 두드렸다. 휘태 본인의 자기비판을 듣자는 그의 제의에 웅성거리던 회의장은 진정되였다.

휘태는 뜻밖에도 가벼운 걸음걸이로 연단우에 올라갔다. 버릇대로 다리 부러진 안경을 한번 매만지고 장내를 한바퀴 휘둘러보았다. 그러다가 무엇이 똑똑히 보이지 않는지 아니면 마음이 놓이지 않아선지 그 위태위태한 안경을 벗어서 찬찬히 연단 한모퉁이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그다음 다시 장내를 한번 돌아보고나서 새삼스럽게 집행부와 군중을 향해 가볍게 머리를 숙였다.

《동지들, 나는…》

겨우 입을 뗀 그는 첫마디를 떼자마자 목이 말라서 허옇게 된 혀바닥으로 까칠까칠 말라버린 입술을 한번 추기고 한참 섰더니 말하기를 단념하기라도 하듯 공연히 연단우에 놓인 안경을 반대쪽 모서리로 옮겨놓았다. 위치를 변경하는바람에 어떤 조화가 생기기라도 한듯 휘태는 조용한 목소리로 평소보다 더 차근차근하게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나는 사실 중농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구학훈장이고 봉건사상이 농후한 서생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공부시키려고 대구시내에서 종이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장사를 하고있을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봉건사상이 농후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다 일제식민지교육을 받았고 학병에 나가서 일제에게 복무했습니다. 나는 송치호가 간첩이라는것은 몰랐습니다. 나는 그를 인간적으로 미워했지만…》

《걷어치우시오! 그놈과 야합한 주제에 뻔뻔스런 수작 하지 말란말이요!》

인택의 목소리가 또다시 터져나오자 휘태는 그만 고개를 떨구고 한동안 말없이 서있었다.

《말하시오. 다 털어놔보시오.》

누가 재촉해서야 휘태는 기계적으로 다시 고개를 쳐들었다.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나는 너절한 인간입니다. 나는 너절

하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나를 비판해주십시오. 나는 할말이 없습니다. 나는, 나는 여러 동무의 목소리가 그립습니다. 이제 나는 당을 나가면서 이 회의장이 무엇이라는것과 그리고 이제 누가 말한 것처럼 당중이 무엇이라는것을 어렴풋이나마 느꼈습니다. 나는 아직 당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생활이 되였습니다. 당을 떠나면서 비로소 나는 생명보다 귀중한 나의 생활을 잃어버린다는것을 깨달았습니다.》

인택이는 또다시 일어서서 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소리치려 했으나 장내가 이상하게 엄숙한 분위기에 싸여있는것을 보고 슬그머니 앉아버렸다. 그는 다음 발언할 기회를 기다렸으나 휘태는 웬 일인지 말없이 한참이나 서있더니 엄익준이 손짓을 하자 그 빛잃은 눈으로 천천히 장내를 휘둘러보고 내려갔다. 맨 앞줄 걸상가에서 남의 다리에 걸채여 비칠거리다가 비로소 안경을 잊어버리고온것을 깨닫고 도로 올라가려는데 때마침 결론하러 연단우에 나선 엄익준이 안경을 집어주었다. 휘태는 그에 대한 인사삼아 회의장을 향해 꾸뻑하고 고개를 숙인 다음 정중히 안경을 받았다.

익준은 광복직전까지 이 광산에서 굴진공으로 일하다가 재작년부터 당사업을 책임지고있는 사람이였다. 그는 남들이 류창한 어조로 몇시간씩 하는 연설을 들을 때마다 매번 감탄을 하였지만 그 자신은 한시간쯤 말하리라 마음먹었던것도 정작 하고보면 10분도 안걸리는 때가 태반이였다. 안휘태문제를 두고 말하면 이 문제가 군당에서부터 심의돼온것이고 보위부장의 의견도 구체적으로 들은바가 있어서 명백하였다. 그는 보고에서 지적한 이야기를 무의식중에 압축해서 한번 개괄하고 결론 요점을 다음과 같이 맺았다.

《…누가 말한것처럼 우리는 경각성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책임이 있습니다. 송치호가 안휘태동무를 찾아왔으니 안휘태가 걸렸지 장인택이를 찾아왔더면 어떻게 될번했는가? 누구나 버쩍 정신을 차리고 일을 더 잘하잔말이요. 안동무는 옳지 않소. 그러니까 응당 책벌을 받아야겠는데 그렇다고 내쫓겠는가? 나는 여러 동무들이 토론한것을 참작해봐서 이 동무에게 당내에서 한번 자기 결함을 시정할 기회를 줘보자는것이요. 그렇지만 과오는 엄중하거던. 어떻게 간첩을 술대접까지 시키고 냄까지 내주고… 참 기가 막히오. 그래서 등기하는 엄중경고가 좋을것 같소. 내 결론은 이것으로 다요.》

×

국보는 아버지가 자기 과오를 심의하는 당총회에 참가하고있다는것도 모르고 그리고 엄마와 이모가 그때문에 자기의 소매 긴 저고리를 기우며 몇번이나 바늘로 손가락을 찌르고도 아픈것을 모르고 한숨을 내쉰다는것도 그리고 그 모든것이 자기의 장차 운명과 어떤 관련이 있다는것은 더구나 모르고 쌔근쌔근 낮잠만 자고있다. 그 앵두빛 입술에는 배안에서 배워가지고 나온 티없는 미소가 가끔 어린다.

자매는 될수록 서로 말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도 침묵의 중하에 견딜수 없어 몸부림이라도 치듯 목을 내젓고는 동강난 말을 한마디씩 던졌다.

《참 올해에는 비가 잦지? 가물땐데… 풍년이 들 모양이야. 고추모들이 얼마나 잘 자랐는지 모르겠어.》

언니의 말에 보패는 저도몰래 호— 한숨을 내쉬였다. 어쩌다가 집안이 가나 오나 이렇게 어수선하고 뒤숭숭해졌는지 알수 없었다. 세상의 복이란 복은 온통 자기네 문전으로만 쓸어드나싶던 그 즐겁던 나날이 불과 열흘전까지도 계속되였는데…

《언니, 국보 백날이 가만 계산해보니까 꼭 공화국창건 기념일날이예요. 그날 든든히 차려야겠어요.》

《참, 그래? 난 여적 그런 생각 못해봤구나.》

또 침묵이 흘렀다. 첫아들의 백날… 정말 그건 얼마나 기쁜 날일가? 그러나 그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판에 백날이 무엇이 그리 기쁠것인가? 그래도 역시 백날은 기쁜 날이지. 그런데 나는 왜 그 사람을 내쫓지 못했을가? 바로 이웃에 세포위원장이 사는데 귀띔이라도 했더면 이렇게는 안될걸. 그인 모를수도 있지. 그리고 그인 그 사람과 남다른 관계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난 그 집의 소작농이 아닌가. 할아버지가 그 령감에게 맞아죽었다는데… 어릴 때부터 남에게 욕을 먹고 쥐여박혀도 웃지 않으면 극상 우는 재간밖에 없었던 경패는 어디에나 널려있는 자기의 잘못과 불찰을 발견하고 맨발로 가시밭을 걷는 사람처럼 시도 때도 없이 흠칫흠칫 하였다.

《이봐 보패, 넌 평산이모한테 가. 어머니가 꾸중하면 내가 어떻게 꾸며댈게. 이제 애벌김매기도 끝났는데… 어떻게 그 성화를 받겠니. 어머닌 왜 요즘 그러실가?》

가시밭에 널려진 무수한 가시는 발바닥이 아니라 바로 심장을

사정없이 자꾸 찔렀지만 경패는 동생의 처지가 가긍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언니두, 나야 뭐 그 사람한테 시집가면 일이 있나. 그저 실큼해서 그러지. 내 걱정은 말아요. 정 성화를 먹이면 가고말래.》

보패는 언니가 권고하지 않아도 진작 평산이모댁으로 달아날 결심을 하였으나 자기의 하찮은 문제가— 정말 언니의 근심에 비해보면 자기의 걱정이란 얼마나 하찮은것인가— 언니에게 걱정을 끼치는것이 너무나 미안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중얼거리는것이였다.

경패는 눈물이 글썽해서 보패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와락 그러안고 그 매끈하게 땋아늘인 숱많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그럼 안돼. 보패, 평산에 가. 세철동무가 성내지 않겠어? 일없어. 내가 어머니에게 말할테니. 한 열흘만 가있어요. 그럼 그 로친네도 돌아가고 어머니도 성이 가라앉겠지뭐. 보패, 내 말대로 해. 응?》

보패는 어린애처럼 경패의 어깨에 매달리며 흐느껴 울었다.

《언니, 불쌍한 언니.》

《울지 말어, 어린애같이. 누가 보면 숭보지. 다 큰 처녀가… 호호호.》

경패는 웃었다. 그 소리는 어찌나 쓸쓸하던지 보패의 심장에서 깡그리 피가 얼어붙듯이 가슴이 옥죄여들었다. 보패는 몸을 일으키고 야무지게 말하였다.

《난 그놈을 만나면 용서 안하겠어. 그놈이 무엇때문에 언니를 또 이렇게 괴롭힌단말이예요? 그놈이 우리 집과 무슨 원쑤가 졌어요?》

《무슨 원쑤라니? 참 넌 철없는 소리도 하는구나. 그 사람네하고 우리하고는 대대로 원쑤란다. 할아버지가 그 집 령감태기한테 죽었다지 않디? 그런데 이젠 우리가 그놈들을 쫓아내고 그 집에서 살거던. 그러니까 원쑤가 아니냐?》

《그런데 언닌, 언닌 왜 그놈을 그냥 두었어요?》

《난 머저리야. 난 이애한테, 이 죄없는 애기한테 미안해서 죽겠다.》

경패는 다시 바느질감을 잡으며 쌕쌕 잠든 아들을 이윽히 들여다보았다. 눈에 이슬이 맺힌 탓인지 어린 안국보는 어머니의 말을 알아듣기나 한것처럼 방그레 웃었다.

《엄마, 난 이렇게 웃는데 뭘 그래?》

그것은 환각이였다. 그러나 그런 환각이 아니였더면 두 자매는 그만 목놓아 울어버렸을는지도 모른다.

제 2 편

1

황페한 저지가 번번하게 누워있었다. 갈대가 설렁거리고 속새가 사람그리운듯 와스스 와스스 소리를 치며 설레였다. 풀밭이 끝나는곳에 산이 있고 그 산뒤로 또 조금 높은 산이 붙어섰다. 산들사이로 실개천같은 강물이 빠져나와 저지 한복판을 구불구불 누비면서 이쪽으로 다가와서는 역시 산들사이로 사라져갔다. 폭은 없어도 수량은 많은 모양 기슭에 빈틈없이 늘어선 버들이 방금 미역이라도 감고난듯 함씬 젖어서 치렁치렁 드리워있었다.

해가 높이 솟아오르자 풀밭은 번쩍거리기 시작하였다. 풀숲은 잔잔해지고 그대신 하늘과 어딘가 먼곳에서 눈을 뜨기 시작한 대지의 숨결이 들리는듯했다. 그러나 귀를 기울이면 림진강의 한 지류인 이 도랑물같은 강가는 죽은듯이 조용하다.

첫새벽에 잠복해있던 한 농가를 떠나 이슬밭을 벌써 몇시간째 기여나온 치호는 어지간히 맥이 진해서 소리없이 흐르는 강물을 한옆으로 바라보며 비스듬히 풀밭에 누워있었다. 꺼먼색 바탕에 남색점이 박힌 잠자리 한마리가 머리우에서 한들한들하더니 천천히 날아갔다. 무심히 그 잠자리를 따라가던 치호의 시선은 잠자리가 저만치 날아가서 날개를 쉬우는 한 지점에 가 멎었다.

강가의 관목들사이에 비교적 키높은 나무 한그루가 서있었다. 찬찬히 보니 그것은 산나무가 아니라 네모나게 깎아서 박은 표말이였다. 벌써 비바람에 찌글사해진 그 표말에서 《북위 38도선》이라

는 퇴색한 먹글씨를 읽은 치호는 흠칫해서 뛰여일어나 분주히 주위를 살폈다. 다행히 순찰병의 모습은 남쪽에도 북쪽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오늘 새벽 행동을 개시하기 위하여 최근에 발행된 지도를 가지고 며칠째 부근일대의 자연지형과 경비초소에 대해서 면밀히 연구하였다. 그런것이 어떻게 되여 공교롭게도 38선 표말이 서있는 이런데로 빠지게 되였는지 알수 없었다. 하긴 경계선 연선지대에서 보름동안이나 잠복해있자니 몸도 마음도 비루먹은것처럼 까칠해서 나중에는 자포자기가 돼버린 치호였다. 더우기 들어오던 때처럼 비교적 안전한 통로를 거치지 못하고 추격때문에 부득이 방향을 바꾸게 된것이 고생문이 열리는 날이였다. 신막에서 차를 내려 이리로 빠져나온것을 눈치챘는지 이 일주일어간에는 정말 아슬아슬한 고비를 몇번이나 넘겼는지 모른다. 38연선으로 다가올수록 위험은 더 심했으나 치호는 모험이라도 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가 떠나올 때 골드빈은 이 일이 적어도 6월 초나 중순에 있을 어떤 큰 사변에 영향을 줄는지도 모르기때문에 5월말이나 늦어도 6월초내로 돌아와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그러면서 그것이 월로우비장군의 엄명이라는 말까지 첨부했다. 그러니 지금쯤 《스페트의 녀왕》이라는 자기 이름은 벌써 붉은 잉크로 쭉— 째버렸을는지도 모를 일이였다. 그렇게 되는 날이면 남조선에 가나 북조선에 가나 자기 운명은 매한가지로 궁극에는 잡힐것이요, 각각 다른 리유로 해서 자기를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리라는것은 뻔한 일이였다.

치호는 때마침 오늘 18일날이 일요일이라는 점을 주목하였다. 일요일이라 해서 경비대원들이 경계근무를 안설수는 없지만 어쨌든 휴일이라는 관념이 모든 사람들에게 긴장을 늦추는 어떤 작용을 할것이라고 자기를 납득시켰다. 그 전제가 전혀 허황한것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별수가 없는것이였다. 골드빈의 노여움을 사느니 차라리 모가지를 내놓고 최후의 도박을 한번 해보는수밖에 없었다. 그렇다. 서시에 한장을 더 뽑는셈이지. 박주가 일곱 끝 이상을 잡은셈이니 밑져야 본전이 아닌가?

치호는 배밀이로 갈대숲을 헤치고 강가로 다가갔다. 촘촘한 버들가지를 헤치고 내려다보니 첨벙 뛰여들어 헤엄치기 시작하면 강폭은 문제가 될것이 없었다. 걱정거리는 대안에서 무엇이 기다리고있는가 하는것이였다. 그는 잠복해있던 농가에서 열성농민으로 가장한 그 집주인 박춘식을 통해 일주일전 6월 11일부터 38선 남쪽

연선 일대에 비상경계령이 내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것은 전날 려현에서 일제사격에 부딪치자 이튿날 38선을 넘어 남조선 지역으로 호소문을 전달하러 들어간 세명의 조국전선파견원들을 체포할 구실을 만들자는것이라고 박춘식은 추측하였으나 치호는 어쩐지 이 모든 상서롭지 못한 일들이 자기를 골탕먹이기 위하여 마련된것으로만 느껴졌다. 어쨌든 38선남쪽일대에 비상경계망이 늘여졌다는것은 그가 도박판에서 자주 당하는바 서시에 당겨서 따라지를 만드는것이나 같은것이였다. 왜냐하면 최근 《케이. 엘. 오우》에 소속되여있는 간첩동료들가운데는 북조선경비대에 체포된것보다 남조선쪽에서 단속에 걸려 그가 《지2》가 준 어떤 공작임무를 받은 인물이라는것이 발각되였을 때 더 비참한 운명이 차례지는것을 여러차례에 걸쳐 목격하였기때문이다. 남달리 머리가 작고 뇌장의 무게가 보통사람의 절반밖에 못되는 그로서도 그 리유를 꼭 집어 알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자기들의 사업이 대단히 중요한 비밀에 속하는것이기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은근히 자부심조차 품었었다. 그러나 그러한 운명이 목전 자기앞에 다가서고있다고 생각할 때 자부심같은것은 허리우드 녀배우의 벌거벗은 프로마이트와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 욕망에 대한 참을수 없는 초조감만 키질해줄뿐이였다.

바람이 휙 불어왔다. 조용하던 풀숲은 와스스 설레였다. 치호는 더는 주저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졌다. 그는 옷을 입은채로 물속에 들어섰다. 쌍룡강에서 헤염을 배운 그는 옷이 걸채이는것도 무릅쓰고 강에 들어서자바람으로 열심히 개구리헤염을 쳤다. 그러다가 문득 배가 무엇에 걸려 잘 나가지 않는바람에 팔을 짚어보니 뜻밖에도 모래바닥이 손끝에 닿았다.

《제길—》

치호는 입에 들어온 물을 쓰겁게 내밸았다. 일어서보니 물깊이는 무릎에도 치나마나하였다. 치호는 제딴에도 어처구니가 없어 단벌옷을 함뿍 적시며 헤여온 강물을 되돌아보았다. 버들그늘이 드리운 떠나온 기슭의 푸른물은 잔주름을 새기며 살랑살랑 흘러간다. 어쩐지 이잡이에 몽둥이를 들고 나선것 같은 자기의 얼빠진 행동을 비웃는것도 같다.

치호는 이번에는 퉤— 하고 침을 한번 내밸고는 철떡거리는 무릎을 해오라비처럼 번쩍 들었다놓았다 하면서 물을 마저 건너갔다. 그의 눈앞에는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있던 신수가 환해진 경패의 모

습이 떠올랐다. 살랑살랑 여울치며 흐르는 물소리가 마치 《안녕하셨어요?》하고 상냥하게 인사하던 경패의 목소리처럼 들려왔다.

안녕하셨어요? 흥, 꼴이 이 모양이 됐지! 너희들 덕분에 알겠느냐? 너희들 로동자, 농민 덕분에 송마름댁 도련님이 이 꼴이 됐단말이야. 너희들이 우리 집에서 산다지? 그리고 그 좋은 사원사택도 너희들이 쓰고… 말이 되느냐? 찢어죽일년들…

물속에 드리운 버들가지를 잡고 기슭의 갈대숲에 나선 치호는 다시 한번 사위를 조심스럽게 살펴본 다음 물먹은 옷을 대충 쥐여짰다. 그리고는 풀밭에 드러누웠다. 다음 행동을 어떻게 취할것인가 좀 생각해보자는것이였다. 그러나 아무 생각도 꺼낼 겨를이 없었다. 채 엎드리기도전에 발자국소리가, 그것도 황급히 뛰여오는 여러 사람의 발자국소리가 들려왔던것이다.

《틀림없이 이 근방인데…》

고장난 풀무소리같은 쉰 목소리가 숨을 헐썩거리며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자 발구름소리가 멎더니 다른 목소리가 역시 씩씩거리며 받았다.

《개자식 어디로 갔을가?》

절커덕하고 격발기 제끼는 소리가 났다.

《쏘지는 말어. 총소리를 냈다간 경쳐.》

쉰 목소리가 갑자기 무엇을 발견했는지 찢어지게 소리쳤다.

《저기다! 앞으로!》

치호는 옆구리에서 권총을 뽑아들고 부리나케 풀밭속으로 기였다. 여차직하면 쏴버리고라도 뛸 심산이였다. 처음에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를 썼으나 때마침 바람이 불어와서 다시금 풀숲이 설레이기 시작하자 대담하게 마주 바라보이던 산을 향해 반달음을 놓았다.

피뜩 뒤를 돌아보니 철갑모를 쓴 추격자들이 자기가 엎드렸던 곳에서 훨씬 더 하류쪽으로 뛰여갔다. 옷을 짠 자리가 들킬가보아 조마조마하였으나 다행히 눈먼 얼간들만이 쓸어왔는지 무사히 위기를 모면하였다. 그는 용기백배하여 이제는 진흙덩어리처럼 돼버린 몸으로 굼벵이흉내를 내며 산기슭에 접근해갔다.

풀밭이 끝나고 꺼먼 맨 흙바닥이 나타났다. 순간 치호는 놀라서 얼굴을 들었다. 그의 입은 뻥하니 벌어지고 쥐눈같은 조그마한 눈은 연거퍼 몇번을 깜박거렸다. 멀리서 보았을 때는 그저 하나의 산이

라고 생각했던것이 가까이서 보니 어마어마한 군사요새였다. 나사줄처럼 전호선이 산허리를 몇겹이고 감돌았고 처처에 화점이 뻥뻥 뚫렸으며 풋밤송이처럼 포신이 비죽비죽 내밀었다. 그런데 치호가 배를 깔고 엎드린 기름진 흙바닥도 다름아닌 방금 파놓은 전호였다. 치호가 몸을 떨며 그 자리를 떠나려는데 《정지! 누구야!》하는 목소리가 삽시에 그의 몸을 얼어붙였다. 반항할 용기도 하늘로 흩어지고말았다. 치호는 권총을 땅바닥에 떨구며 두손을 번쩍 쳐들었다.

《아니! 이 새끼는 여기 나타났는데 저 자식들은 어디로 쏘다녀!》

《너 이 새끼 잘 걸렸다. 이리 오너라!》

진흙참봉이 된 치호는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발길질을 툭툭하는 한 하사의 뒤를 따라갔다. 산중턱에 자리잡은 헌병초소에 들어가면서 치호는 산아래 골짜기를 내려다보았다. 그제사 치호는 자기가 그렇게도 쉽게 붙들린 까닭을 알수 있었다. 산골짜기에는 10여대의 고급승용차와 수십대의 군용찌프가 들어차있었고 땅크가 사처에 은폐돼있었다. 그리고 38선을 타고 동서로 뻗어나간 전호마다에 완전전투준비를 갖춘 보병들이 득실하게 차있었다.

치호는 중대한 사변이 여기서 벌어지고있다는것을 몸으로 느꼈다. 그런데 바깥에서부터 소란스런 음향이 들려오고 출입이 심한것을 대뜸 느끼게 되는 그 토굴안에 들어서자 또 하나 놀라운 장면이 눈앞에 벌어졌다. 이 지구 일대의 경비를 지휘하고있는 그 반토굴안에는 한국군헌병 《중령》과 함께 윌리암 골드빈자신이 앉아있었던것이다. 듀폰드 느므르의 대표자격으로 조선에 와있는 골드빈은 《한미양행》 중역의 명함을 가지고있었기때문에 어디에 가나 수수한 신사양복을 걸치고다니는데 그의 그런 사복차림이 이 삼엄한 군사요새 한복판에서도 조금도 어색하지 않은것은 기이한 일이였다.

《미스터 골드빈, 저올시다. 저 송치호입니다.》

치호는 그야말로 저승에서 부처님을 만난듯하여 진흙으로 매닥질을 한 자기 몸을 돌아볼새도 없이 골드빈에게 매달렸다. 골드빈은 위태롭게 다가드는 치호를 차겁게 바라보며 한걸음 물러서더니 뜻밖에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였다.

《오, 당신이였습니까? 참 당신 잘 왔습니다. 나는 20여년만에 여기서 월남한 당신을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못해봤습니다. 이런 우연은 신의 의사입니다. 우리 잠간 저리로 가서 이야기를 계속할가요?》

골드빈은 치호와 악수를 하려다가 그의 손을 보고 단념한듯 고개세

로 출입문을 가리켰다. 바로 옆에 또 그런 토굴이 있었다. 골드빈은 그 방에서 당직을 서고있던 두명의 헌병을 내보내고 책상앞에 가 앉았다.
《당신의 암호는?》
《스페드의 퀸입니다.》
치호는 웬일인지 새삼스럽게 속이 켕기는것을 느끼며 대답하였다.
《당신의 생명은?》
《비밀입니다.》
치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렇게 시작되는 담화는 기분나쁜것이다. 이런 담화끝에 하얀 약을 줄수도 있고 불쑥 권총을 내댈수도 있는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친절한 인사를 듣고 문전을 나서기 바쁘게 검은 그림자가 뒤를 밟을수도 있는것이다.
골드빈은 차겁게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은 유피통신 기자인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네?》
치호는 거의 부르짖다싶이 반문하였다. 그제야 치호는 자기 실수를 뼈아프게 깨달았다. 어떤 필요로 해서 통신기자라는 자격으로 이 지역에 나타난 골드빈을 그들사이에 엄격히 제정되여있는 사업절차에 의하면 결코 알수 없는것이였다. 그런데 그는 소홀하게도 많은 사람 면전에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 골드빈은 자기 정체를 본의아니게 드러내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아!》
치호는 진흙투성이 두팔로 자기 머리를 움켜쥐였다.
한참동안 절망상태에 빠진 치호를 물끄러미 바라보고있던 골드빈은 여전한 투로 입을 벌렸다.
《좋습니다. 나는 기억력이 매우 나쁩니다. 오늘 우리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은 곧 잊어버릴수도 있습니다. 당신 이야기나 좀 하십시오. 그곳 물건시세는 어떻습니까? 장사할만 합니까?》
치호는 머리를 움켜쥐였던 팔의 힘을 풀고 눈앞에 내뻗친 두 팔굽사이로 골드빈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이것은 무슨 소린가? 살려줄수도 있다는 소리가 아닌가? 그리고 그가 탐지해온 정보자료를 내놓으라는것이 아닌가? 여기서 치호는 다시한번 아— 하고 절망적인 한숨소리를 내쉬였다. 추격을 피하면서 죽을 고생을 하고 옹근 한달을 돌아다녔지만 실상 북조선에서 탐지해온것이란 그자신이 판단하기에도 보잘것이 없었다. 사실은 당초에 골드빈

에게서 받은 임무자체가 북조선 민심이 어떤가? 일반 인민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있는가? 보통 집회장소에서 흔히 제기되는 화제는 무엇인가? 이동하는 군대들이 있는가? 있다면 그 규모는 얼마나한것인가? 광산들의 조업상태는 어떠한가? 새로 개발되는 연광들이 있는가? 이런따위들이였다.

치호는 골드빈앞에서는 한마디도 거짓말을 꾸며낼수 없고 애매한 말도 과장도 통과되지 않는다는것을 잘 안다. 모든것을 단념한 치호는 보고 들은 사실을 꽤 긴 시간에 걸쳐 세세히 이야기하였다.

자그마한 수첩에 요점을 받아쓰면서 주의깊게 듣고있던 골드빈은 치호가 아쉬운 마음으로 자기의 공적없는 이야기를 끝내자 빙그레 웃음을 띠웠다. 그러더니 무슨 동냥이라도 던져주듯 귀전에 대고 속삭였다.

《알겠소. 스페드의 퀸, 여기에 지금 덜레스각하가 와있소.》

《네, 덜레스? 저—》

《그렇소. 죤 포스터 덜레스각하 자신이 친히 여기 38선에 나타나셨소.》

이때 노크소리가 나더니 키가 크고 얼굴이 허여멀끔한 한 장교가 썩 들어섰다. 그는 어지간히 성미가 급한 모양으로 골드빈을 보더니 그옆에 선 치호는 아랑곳없이 반색을 하며 능숙한 영어로 말하였다.

《여기 계시구만. 어서 가십시다. 지금 덜레스씨께서 곧 발언이 있겠답니다.》

《오, 그렇습니까? 나 곧 가겠습니다.》

고개를 끄덕거리며 침착하게 응대한 골드빈은 치호를 보고 말하였다.

《당신 여기서 잠간 기다리십시오. 아무데도 가면 안됩니다. 나 곧 련락보내겠습니다.》

그제야 그 《국군》장교도 비로소 치호를 발견하기나 한듯 영어보다 훨씬 서투른 조선말로 엄하게 말했다.

《당신은 뭐요? 이북에서 넘어왔다는거이 당신이요?》

골드빈이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버릇처럼 고개짓으로 출입문을 가리켰다.

《미스터 장, 우리 갑시다. 이사람 나의 친굽니다.》

장교는 문을 나가면서도 매서운 눈초리로 치호를 뒤돌아보았다. 그는 다름아닌 《국방부》 정보국장 장도영《대령》이였다.

2

전호선은 경계선턱밑까지 접근해있었다. 흉장에 다져진 흙들이 아직도 거뭇거뭇한 색을 띠고있는것은 이 전호들이 파진지 얼마 되지 않는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였다. 명령일하 병사들이 총을 들고 내달릴수 있도록 발홈까지 파놓은 이러한 전호들이 연연 수백키로에 걸친 경계선으로 뻗어나갔다.

실개천너머 북쪽은 풀밭이 계속되였고 멀리 산들이 보이는데 망원경을 통해보면 들일에 바쁜 농부들의 모습이 얼른거리나 군사시설은 망원경시야에도 잘 들어오지 않는 거리에까지 떨어져있었다.

신성모며 채병덕과 미군사고문단 성원들은 아직도 머리를 맞대고 지도를 들여다보고있으며 무쵸와 림병직은 호기심에 끌려 쌍안경을 뗄줄 모른다.

이미 정황설명을 듣기에 지친 덜레스는 무연한 갈대밭과 소리없이 흐르는 실개천과 그리고 아슴푸레 흘러간 먼 북쪽의 산릉선을 한동안 주시하다가 시선을 떨구었다. 전호 흉장앞에는 길짱구와 범부채가 촘촘히 깔렸는데 오랑캐꽃들이 보라빛꽃망울을 갸웃이 쳐들고 있었다. 덜레스는 세상에 《덜레스가방》 혹은 《전쟁가방》으로 유명한 그 검정가방을 옆구리에 낀채 그러지 않아도 고양이등처럼 구부정한 등을 흉장앞에 구부리고 오랑캐꽃 한송이를 꺾었다. 그 미소하듯 고개를 갸우뚱한 보라빛꽃에서 연약한 향기를 맡으며 덜레스는 문득 여기가 그가 생각하는바 세계를 완연히 두개로 갈라놓은 동서량대진영의 세계적인 경계선일뿐아니라 현시대의 력사가 좋은 의미에서나 나쁜 의미에서나 어떻게든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마련된 첨예한 지점이며 따라서 당년 62살의 자기로서는 경솔히 나타나기를 응당 삼가야 할 그런 지점임을 새삼스럽게 상기하였다.

그는 가슴속에 넘쳐나는 커다란 감개를 누르려고 도수 높은 검정테안경속에서 지그시 눈을 감았다. 아래도리로 전호벽의 서늘한 대지가 감촉되고 그것을 통해 지심 어디선가 끓어번지고있을 뜨거운 열이 느껴졌다.

그는 장구한 세월에 걸친 투쟁끝에 마침내 만들어낸 전호와 요

새들로 련결된 이 38선이라는 자기의 창조물을 오랑캐꽃을 쥔 투실투실 살진 손으로 애무하듯 매만졌다.

랭전— 그것은 만연되기 시작한 《적색전염병》으로부터 《자유세계》를 구출하고 그 고통을 진정시키기에는 이미 무력해진 마약이였다. 미국자본은 전후 벌써 세번째의 위기를 겪고있으며 그 파동으로 동맹국들도 빈사지경에 처했다. 그가 근 반세기에 걸친 로심초사끝에 가까스로 만들어놓은 자유세계의 방어선은 —그는 그것이 자기의 창조물이라고 당당히 자부하고있었다.— 중국 대륙에서 대대적으로 붕락되였고 이 38선도 리승만따위 허수아비가 아무리 게거품을 물어도 목전에 허물어져가고있다.

덜레스는 자신을 어떤 기적도 요행도 바라지 않는 오직 자신의 의지와 능력을 믿는데 습관된 철저한 실무주의자로 간주하고있었다. 그러기때문에 아녀자들이 잘 쓰는 미사려구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그는 외교관에다 교회장로와 변호사까지 겸한 립장으로 말미암아 《평화》며 《정의》며 《인도주의》며 하는 따위 화려한 말들을 부득이 자주 입에 올리지 않으면 안되였지만 천성으로 볼 때 생리적으로 비위를 자극하는 그러한 말을 할 때조차 얼굴에 주름살 하나 잡지 않고 자연스럽게 해제꼈다. 그는 공산주의로부터 세계를 구원할 자기의 《세기적인 과업》을 통감하는 사람이였다. 떠들썩하게 반공연설을 잘하고 그때문에 세계적인 반공투사로 알려진 프린스튼 처칠따위는 그의 견해에 의하면 실속없는 빈 깡통에 불과하였다. 이 세상에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오직 한가지 최고리념이 있으니 신의 온갖 창조물은 모두가 이 최고리념의 구현을 위해 존재하는것이였다. 그러기때문에 그는 베를린전쟁채무처리회의(1933년)에 미국대표로 참가하여 히틀러를 위해 전력하였고 그후 《듀픈》,《유에스 스찔》,《아메리칸 아르미니늄》 등과 《페르아이느크테 슈타르 월케》 등과 국제 카르테르협정을 주선하여 군국주의 도이췰란드재생을 적극적으로 방조하였다. 심지어 그는 2차대전 전야인 1939년 3월에 끓어번지는 세계여론을 맞받아 《일,도,이 3국이 대미전쟁을 획책하고있다고 생각하는것은 히스테리환자뿐이다.》라고 뇌까렸으며 쓰딸린그라드에서 도이췰란드제국군이 참담한 패배를 당하여 대전의 중심이 점차 유럽으로 이동되기 시작했을 때 게뻴스와 똑같은 어조로 유럽의 볼쉐비크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영 량국은 즉시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던것이다. 그 당시 그는 영국전쟁사가 리델하트의 한 저서에서 《영국은 자기의 유구한 경험에 기초하여 전쟁을 적에게는 자비를 베풀고 (그 적은 잠재적인 동맹자이기때문에) 동맹국은 백방으로 약화시킬수 있도록 (이 동맹국은 가장 확실한 미래의 적이기때문에)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문구를 읽고 몇번이나 하선을 그었던것이다. 그런데 력사는 바로 그렇게 전개되였다. 쏘도전쟁 벽두부터 제기되였던 제2전선은 전쟁말까지 질질 끌었다. 그때문에 도이췰란드군국주의는 충분히 재생할만큼 숨을 돌렸고 그가 보기에 볼쉐비크는 다시는 미국의 적수로 등장 못할만큼 약화되였다. 그러나 전후의 정세발전은 전혀 예기치 않았던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가 도이췰란드를 중심으로 한 유럽에 주목하여 북대서양조약이요, 유럽방위조약이요 하는것들을 만들기 위하여 부심하고 돌아가는 사이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의 대파렬구가 생겨났다. 그는 그 옛날 개조 크롬웰로인이 20세기초에 빠나마를 미국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친미반동정변을 꾸며내던 뉴욕 월가 한복판의 유명한 사리반 앤드 크롬웰법률사무소 자기 방에서 몇날몇밤을 궁리하던끝에 마침내 세계지도에서 조선의 38선을 찾아내였던것이다. 그는 분연히 일어나 미국수석대표로 유엔연단에 나타났으며 조선을 영구히 분렬하기 위하여 안전보장리사회에서의 쏘련의 거부권을 무찌르는 유엔전원회의라는 변종을 만들어냈다. 그리하여 이 인조산부로 하여금 격렬한 진통끝에 마침내 남조선 단독선거라는 력사의 기형아를 해산케 하였던것이다.

이제 모든 준비는 되였다. 지난달에 죤슨(조선부장을 가리킴)이 하원세출위원회에서 증언한대로 《미국식장비로 무장되여 미국군사고문단에 의하여 훈련되고있는 10만의 한국군은 언제든지 전쟁을 시작할 태세에 있다.》 강력하게 증강된 미7함대와 5공군은 맥아더사령부의 통일적인 지휘하에 들어갔으며 미국행정부와 군부의 신중론자, 소극분자들도 달리는 미국의 위기를 타개할 방법이 없다는것을 인정하였다. 애치슨과 폴 호프만은 지난 봄에 화폐발행고가 700억대에 올라간 남조선의 무서운 인프레를 저지하지 않으면 원조를 정지하겠다는 경고각서를 리승만에게 보냈는데 이것은 그러지 않아도 전쟁을 못해서 발광지경에 있는 그 늙다리에게는 지나치게 강력한 자극제로 됐을는지 모른다.

랭전— 한때 총애를 받던 마약이여! 이제는 물러가라. 세계는 빈사지경에 이르렀다. 모르간과 록펠러의 심장은 당장 강력한

캄파주사를 놓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우리는 그 단위를 이미 세계대전의 범위에까지, 원자전의 범위에까지 확대할것이다. 그리하여 《적색역병》을 지구우에서 쓸어버릴것이다. 그런데 이 세계적인 대활극의 주역을 자기가 담당했다는것은 얼마나 뜻깊은 일인가? 그리고 이 조선이라는 무대는 또 얼마나 유서깊은곳인가? 일찌기 현명한 미국인들의 형안은 미국의 번영을 위한 발판으로 넓은 지구우에서 이 조선이라는 땅을 어김없이 짚었었다. 이미 지난 세기 중엽에 한 미국대좌는 조선이 장차 미국의 중요한 해군기지로 되여야 한다는 설을 내놓아 주목을 끌었거니와 제네랄 셔먼호로부터 1882년 조약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많은 공을 들였으나 그 당시는 통털어 조선이라는 농토에서의 오늘의 수확을 위한 개간기이며 파종기이며 제초기였던것이다. 1907년 프린스톤대학의 학생이던 그가 국무장관을 지낸 할아버지 죤 워드슨, 당시 국무장관이던 백부 런싱그의 주선으로 열아홉이라는 새파란 나이에 벌써 미국대표단 수원으로 참가하게 된 《헤그 평화회의》에서 그는 첫 조선사람을 만났었다. 오늘 세계적인 대사변의 열쇠를 틀어쥐게 된 대외교가로서의 첫 발자국을 내떼던 그때 그가 만났던 최초의 조선인은 일본인에게 유폐된 자기네 왕이 비밀히 보낸 밀사로서 조선의 독립을 요구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자 회의장에서 배를 가르고 자결하였었다. 약한자의 외교의 비참한 말로를 그에게 깨우쳐준 그 참극의 주인공이 배를 가르며 독립을 요구하던 그 나라에 세계《최강》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배경으로 한손으로는 원자탄을 휘두르며 세치혀바닥으로는 유명한 그리스도교도로서 (그는 미국그리스도교 최고련방평의회장 로교 회의파의 비승직회원이다.) 《평화》와 《정의》와 《인류의 행복》을 설교할수 있는 강력한 외교가인 자기, 죤 포스터 덜레스가 나타났다는것은 참으로 기이한 운명인듯하였다.

자기를 부르는 목소리에 덜레스는 상념에서 깨여났다. 평소 신념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둥둥 뜬 화려한 명상에 잠겨있었다는것을 깨달은 그는 매우 기분이 상하였다.

《오, 당신은?》

덜레스는 손에 쥐여있던 오랑캐꽃을 마구 구겨서 쥐여뿌리며 안경너머로 자기앞에 선 두사람의 군인을 쏘아보았다.

《저와 랑킨은 레이크썩쎄스에 이 38선의 군사동태에 대해 보고할 임무를 띠고 왔습니다.》

《그럼 당신이 피츠소좌요? 알고있소. 그래서?》

《각하께서 보는바와 같이 한국군측의 전호와 병력은 전혀 종장배치가 되여있지 않으며…》

《알겠소. 그래서?》 덜레스의 눈은 점점 빛을 강하게 뿜었다. 손자애들조차 질겁해서 달아나는 여느때도 무시무시한 그의 눈빛이였다. 그런데 그는 지금 마음속의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있는것이다. 그는 심중으로 중얼거렸다.

(멸멸한 작자들, 어디서 이따위 어리석은것들을 골라보냈단말인가? 동경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군. 저 우쭐렁거리기 좋아하는 허풍쟁이가 —그는 맥아더를 면전에서는 미국 최대의 영웅으로 떠받들었으나 속으로는 처칠보다 조금이라도 더 무게있는 깡통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지금쯤 무엇을 저질러놓지나 않았는지 모르겠군!)

덜레스의 불쾌한 표정을 보고 피츠는 떨리는 목소리로 떠듬떠듬 중얼거렸다.

《군사적견지로 볼 때 이것은 방어를 위한 진지가 아니라… 네? 물론 아실것입니다. 그리고 저 그리고 북쪽 공산측의 전연은 경계선으로부터 상당한 거리로 떨어져 깊은 종심을 가진 방어…》

《알겠소. 내가 본바에 의하면— 덜레스가 사무적인 어조로 말을 시작하자 두명의 유엔 야전감시원은 그 권위있는 발언을 기록하기 위하여 즉시 수첩을 꺼내들었다.— 38선 한국군측의 진지는 완전히 평화의 목적에 합당한것이요. 알겠소?》

덜레스는 군턱이 세개나 지도록 입을 꾹 다물고 두사람을 번갈아 응시하였다. 피츠소좌는 전률을 느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각하의 고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나의 견해에 의하면 당신들의 보고문건은 늦어도 일주일이내에 레이크썩쎄스에 도착돼야 하리라고 보는데 어떻소?》

피츠는 6,000마일이상 떨어진 거리와 아직도 남아있는 서울에서의 잡다한 임무들을 상기하면서 아득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덜레스는 그런것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기라도 한것처럼 돌아서버렸다.

마침 번대머리 신성모가 무엇인가 듣고싶다는듯한 표정으로 세겹이 된 덜레스의 군턱을 바라보았다. 동시에 자기의 체통을 간신히 지탱하고있던 돼지로 치면 령락없는 빠꾸샤인 《총참모장》 채병덕이 두손을 싹싹 비비며 다가왔다.

덜레스는 자기를 주시하고있는 남조선 괴뢰정부와 군부 그리고 미국군사고문단과 대사관 보도그루빠성원들의 얼굴들을 돌아

보았다. 그는 그들에게 자비심을 베풀듯 잠시 재빛눈을 슴뻑거리고 나서 조용히 입을 벌렸다.

《제군, 나는 나를 한국으로 파견한 우리의 대통령에게 보고하겠지만 38선의 한국군진지는 매우 훌륭하오. 내가 보건대 적은 말할것도 없고 가장 강한 군대라 하더라도 제군과 맞서지는 못할것이요.》

덜레스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입이 헤사해지는 한국 고위관리들과 군수뇌부인사들의 표정이며 열심히 펜을 놀리고있는 기자들을 훑어보았다. 그러다가 속삭이듯 말을 이었다.

《제군이 제군의 힘을 시위할수 있는 시기는 그리 멀지는 않을것이요.》

덜레스는 자동차가 있는 골짜기로 걸음을 옮겨놓으며 지나가는 말처럼 신성모에게 수군거렸다.

《구체적인 시간과 절차는 서울 가서 이야기합시다. 나는 당신들의 의견에 찬성이요. 아무튼 우리 고문단의 의견을 계속 신중히 연구할 필요가 있소.》

이때 무슨 힘에 끌려선지 덜레스는 자기가 서있던 전호를 뒤돌아보았다. 방금전에 구겨던진 오랑캐꽃이 눈에 띄였다. 해빛에 시들어진 가냘픈 꽃송이는 이제 다시는 살아나지 못할것이였다. 그러나 그것이 열매를 맺었다면?… 그는 10여보를 되돌아가서 그 걸레쪽같이 늘어져있는 꽃송이를 구두발로 마구 짓이겨놓고서야 다시 자동차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여기서 자기 행동이 다분히 감상적으로 흘러버렸다는것을 깨달았다. 오랑캐꽃은 물론 조선인민도 공산주의도 아닌 단순한 하나의 보잘것 없는 식물에 불과하다. 아무리 생각해보아야 흥분할 까닭은 없는것이였다. 덜레스는 자기가 꾸며놓은 대사변앞에서 스스로 흥분됐다는것을 느끼고 입을 꾹 다물었다.

그가 자동차에 막 오르려할 때 한 용감한 미국인 기자가 자동차문짝에 매달려 무엇인가 질문을 하면서 쪽지를 슬쩍 건네여주었다.

서울로 달리는 차안에서 골드빈의 보고를 읽은 덜레스는 회심의 미소를 띠웠다.

(북조선은 전혀 무방비상태라… 더욱 좋다. 혹 철저한 방어태세가 되여있다는데는 어쨌단말인가? 경비대까지 합하여 불과 10여개사단내외인 북조선무력이 이 세계적인 사변에서 과연 얼마만큼이라도 중대한 역할을 할수 있단말인가? 적어도 인간이 무엇인가 할수 있었던 시대는 이미 지나가버렸다.)

덜레스는 래일 제2차 한국국회의 개원식에서 하기로 되여있는 연설원고에서 일부 지나치게 선동적인 말들은 뽑아버려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하였다. 스위치는 이미 틀어놓았다. 이제 사변은 제절로도 앞으로 충분히 나갈것이였다.

3

치호는 골드빈이 친절하게 태워준 자동차로 그날 낮중에 서울로 돌아왔다. 헤여질 때 골드빈은 그에게 지폐 한뭉치를 쥐여주는것을 잊지 않았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했을뿐만아니라 이렇게 너그러운 배려까지 받고보니 그닥 마음이 헤프지 않은 치호도 눈물이 찔끔하고 나왔다.

그는 서울극장 뒤골목에 사글세집 한채를 빌려가지고 화자라는 카페녀급퇴물과 동서생활을 하고있었다. 우선 옷을 갈아입어야 하겠기에 그 사글세집으로 찾아갔더니 판자쪽이 건들건들하는 바깥문은 안으로 걸려있었다. 동서생활 2년간에 치호는 화자가 수족관의 인어처럼 몸의 어떤 부분이든 자꾸 드러내기 좋아하는 로출증이 있을뿐만아니라 자유사상을 농후하게 소유하고있는 녀자라는것을 알았다. 그것은 첫째로, 옷감이 절약되니 좋고 둘째로, 자기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꼬치꼬치 캐묻지 않으니 좋았다. 한가지 근심은 그 자유사상으로 말미암아 자연 집을 비우는 때가 많고 또 경비도 적지 않게 드는것인데 거기서도 화자는 큰 군색을 당하지 않았다. 도둑은 응당 경계를 해야겠기때문에 집을 비울 때는 안으로 문을 모두 잠그고 자신은 출입할 때 키낮은 널판자울타리를 뛰여넘어 다녔다. 그것역시 뜀뛰기와 모험을 좋아하는 그 녀자의 성품의 일단을 말해주는것이였다. 돈이 없으면 치호의 옷가지를 내다 팔았고 팔만한것이 없으면 카페시절에 배운 기술을 잠시 리용하여 놈팽이 한놈을 끼고오면 그만이였다.

치호는 이러한 화자가 영낙없는 천정배필이라고 생각하였다. 가다오다 만난 인생이 이렇게 안성맞춤으로 딱 들어맞기는 정말 쉽지 않다고 화자당자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심중으로는 감탄하기를 마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일이 워낙 긴장됐을 때의 일이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것이 사실이였다. 어쩌다 한가한 틈이 생겨 자기 자리에서 다른놈이

자고갔겠거니 하는데 생각이 미치면 메스꺼워 견딜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화자더러 갑자기 정숙한 부인이 되라고 강박할수도 없는 일이였다. 정화가 동하면 밥에 돌이 섞였다거나 와이샤쯔 깃이 구겨졌다는따위 하찮은 핑게를 대고 《이 화냥년! 서방질하는데만 정신이 팔려서…》하며 미친개 패듯 두들겨 패주었다. 그러면 화자는 또 화자대로 《이놈! 죽여라! 네가 뭣이 잘나서 남을 패니?》하고 접어들었다. 그러나 미국고문밑에서 계통적으로 권투며 유술을 배운 치호의 적수가 될수는 없었다.

치호는 훌쩍 울바자를 뛰여넘어갔다. 컴컴한 방안에 들어서니 화장품냄새와 곰팡내가 범벅이 된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3류 흥행극단의 분장실처럼 때가 괴죄죄하고 색조가 강력한 화자의 옷가지들이 죽 걸려있는데 버들상자며 네귀가 꿰여진 트렁크속을 뒤져봐야 예상한대로 갈아입을만한 옷가지는 보이지 않았다. 한두달 집을 비웠으니 그사이 화자가 교제비로 불어먹은것이 분명하였다. 하는수없이 철이른 홈스판 겨울양복을 꺼내입고 선자리에서 집을 뛰쳐나왔다. 화자가 한밤중에 돌아오겠는지 새벽에 오겠는지 혹은 영 안오겠는지도 모를 일인데 컴컴한 방구석에 앉아있을 재미란 조금도 없었다.

오래간만에 인천에 있는 아버지네 집에 가볼가 하는 생각도 들었으나 우선 38선에서 본 그 놀라운 사변에 대해 알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궁금증을 좀 풀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무엇보다도 오래동안 메말라있었던 불쌍한 목구멍을 추기고 배속도 무엇인가 좀 채워넣어야 할것이였다.

그는 명동거리로 나왔다. 시공관옆 골목을 빠져 단골목노집에서 설렁탕과 너비아니 몇점에 소주 한병을 들이킨후 제법 얼근해져서 나오니 네온이 켜지기 시작하였다. 붉고 푸른 갖가지모양의 그 불광에서 흘러나오듯 《코스모스 탄식》이니 《신라의 달밤》이니 하는따위 낡은 레코드소리가 흘러나오고 기타며 쌕스폰 소리가 황혼의 거리를 채웠다. 인간다운 정서와 인간다운 생활을 향하여 스크랩을 짜고 시위하듯 주련이 서있는 수많은 캬바레며 카페며 다방들은 그 이름이 대체론 《고향》이요 《파랑새》요 《대지》요 하는따위 서정적인것들로부터 《모나리자》,《춘희》,《칼멘》,《마돈나》,《비너스》 같은 예술적인것이 있는가 하면 《텍사스》,《하르빈》,《사라도가》,《마드리드》,《샹하이》 등 지리적인것이 있고 또는 《미미》,《69》,《흐바흐바》,《차차》 하는따위 추상파적인 정체불명의것들도 있다. 이런 순수예술적인

청등,홍등 가운데는 《3.1》,《서북》,《화랑》,《태극》 하는따위 다분히 정치성을 띤 예명도 섞여있었다. 이 소란하고 현란한 온갖 자본주의적미사려구로 충만된 비좁은 명동거리에는 소위 《황혼족》이라고 하는 인간무리들이 물밀듯이 밀려간다. 그들의 주머니속에는 수천만원짜리 부도소절수가 몇장씩 들어있기도 하고 하루밤사이에 그의 이름을 천추에 남겨놓을 대걸작의 시고가 들어있기도 하다.

반백이나 된 머리카락을 염색을 해서 찌크로 범벅하여 길다랗게 빗어붙이고 백회색 포라지양복을 쭉— 뽑아입은 브로카가 주머니에 두손을 지르고 입으로는 양담배를 질겅거리며 점잖게 걸어오는가 하면 검고 붉은 바둑판무늬 속저고리에 닻이나 장미따위를 자자한 팔을 뽐내며 마광기축처럼 어깨를 실룩거리는 《어깨》패도 있다. 로출증에 걸린 신녀성들이 걸어가고 먼지오른 좁은 보도를 주리대치마로 휘감듯이 미국식한국녀성들이 지나간다.

치호는 술보다도 무엇인가 생활자체에 취해있는듯한 그들의 옷차림 또한 붉고 푸른 네온등과 마찬가지로 화려하고 현란하다는것을 부러운 눈매로 바라보았다. 그러면서도 입 한귀로는 쓰거운 미소를 금할수 없었다. 그들에게는 한잔 커피와 브란데 그리고 수색이나 부산 등에 쌓여있는 군수물자의 불하흥정을 위해서는 그 화려한 옷차림이 반드시 필요한것이지만 실상 아현동 막바지나 락산비탈에 있는 그들의 판자집에서는 처자들이 굶주리고있으며 그들자신 만취하지 못한 불쾌한 머리를 간신히 이고 그 퀴퀴한 방안으로 돌아가는 날에는 제깍 화려한 껍데기는 벗어서 신주모시듯 걸어놓고 해여진 무명빤쯔 하나로 돌아가야 한다는것을 잘 알고있었기때문이였다. 오직 현실 그대로인것은 창마다에서 흘러나오는 달짝지근한 쌕스폰소리,전축소리에 섞여 《진짜 백구요—》,《한푼 줍쇼》,《다이야찐 고약이요》,《양담배—》하는 처량한 구걸의 목소리이며 시공관앞을 중심으로 진고개와 명동 일대에 100메터간격으로 빈틈없이 늘어서있는 정복경관과 취한들의 물결가운데 섞여있는 사복형사들,씨.아이.씨 정보원들의 모습이다. 덜레스의 서울도착과 관련하여 남조선일대에는 삼엄한 비상경계망이 펴졌다.

옳지,저기서 단속에 걸렸군. 백로무리에 까마귀가 끼여있듯이 이 화려한 거리에 단 하나 어울리지 않게 끼여있는 책방문전에서 허술한 학생복차림이 검정안경을 낀 형사에게 덜미를 잡혀서 끌려가고있다. 그가 무엇때문에 이처럼 수많은 인총이 물밀듯이 흘러

가는 가운데서 유독 그역시 취한 검정안경의 몽롱한 눈에 거슬렸단 말인가? 그것은 그 학생복이 취하지 않았다는 그리고 옷차림이 너무나 평범하다는 오직 그 한가지 리유에서일것이다.

남조선에는 실로 효능높은 만병통치약이 많다. 미국제 다이야찐고약이 10년묵은 배탈을 고쳤는가 하면 코카콜라통이나 미국통졸임통으로 대도시 서울거리의 집들을 절반가까이나 세웠다. 그런데 맥아더의 포고령 제2호에 잇닿아 미국에서 직수입해온 국가보안법은 또 미국특산품답게 쓸모가 많다. 그것을 휘두르기만 하면 도깨비감투와 같이 돈이 나오고 술이 나오고 계집이 나오고 장관자리, 사장자리, 국회의원자리가 나오고 또 밉다고 생각하면 아무나 잡아가둘수가 있다.

그런데 인생일장춘몽이라니 이 좋은 때에 취하지 않고 맨숭맨숭한 얼굴로 책방출입을 하다니. 자식이 건방지거던. 아무렴, 잡아가두어야지. 저런게 다 빨갱이란말이야.

치호는 문득 떼지어 밀려가는 주정뱅이들가운데서 씨름군처럼 아래배가 나오고 그래서 다분히 동양적인 인상을 주는 한 중년의 미국인과 팔을 끼고 가는 자기의 안해를 발견하였다. 치호는 일순 눈앞이 후끈하였으나 인차 입귀를 이지러뜨리며 쓰거운 미소를 지었다. 뭐니뭐니해도 하루밤 애인으로서 저쯤한 미국인을 골라냈다는것은 녀자의 특출한 수완을 말해주는것으로서 응당 존중하지 않을수 없다고 생각한 치호는 저쪽으로 등을 돌리고 그들이 걸어오던 골목쪽으로 걸어갔다.

두어개 카페와 캬바레를 돌고난 치호는 클클하던 기분이 제법 쇄락해져서 《한국은행》앞에서 전차를 타고 종로3가에서 내렸다.

재동막바지에 자리잡은 《한미양행》중역이며 대한강재사장인 《국회의원》 민성직씨의 대문앞에 섰을 때는 이미 여름밤도 꽤 깊었을 때였다.

솟을대문과 돌담 우의 기와골이며 그우에 돌버섯, 능쟁이 따위 잡초들이 돋아난것으로도 구가임을 짐작케 하는 이 집은 당대 주인인 성직의 할아버지가 고종의 총애를 받고있던 지난 세기에 지은 집으로서 그사이 임오군란에 다소 피해를 입었으나 인차 수리를 하였고 당대에 이르러 군수를 지내고 재산이 점차 경인지구의 기업에 투자되기 시작하면서 후원일각에 2층 양옥을 증축한것외에는 해마다 잔손질정도로 유지해오는 집이였다. 일가가 사처에 분산되여있던 일제때와는 달리 오늘은 일가권속 어중이떠중이가 혹은

검산에서 월남해오고 혹은 려주에서 빨찌산에 질겁하여 쫓겨오고 하는 식으로 이 재등집에 모여들고보니 궁궐같던 집도 여간 비좁지가 않았다. 그 가위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았다.

오늘도 본채 큰 사랑에서는 진솔바지저고리에 호박물부리를 비딱이 입에 문 성직이가 간단한 주안상을 앞에 놓고 비단보료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어떤 진객과 담소하고있었고 양옥에서는 둘째 아들인 환규가 2층에 있는 자기 서재에서 학계,예술계,언론계의 저명한 인사들에 둘러싸여있었다. 또한 사랑채에서는 최근 륙군본부로부터 일선부대 대대장으로 전임돼간 셋째아들 민삼랑이 자기의 군대동료들과 술상을 벌려놓았고 양옥 아래층에서는 피아노소리가 흘러나오는데 그것은 딸 옥규가 자기 대학 동무들을 청해들인것이다. 한편 큰아들 인규는 부엌에서 무엇인지 훔쳐먹다가 들키여 식모와 부엌데기가 아우성을 치고있다.

인규로 말하면 이 집의 대를 이을 장남으로 태여났으나 배속에 있을 때 에미가 보약을 너무 먹어서 병신이 돼버렸다. 그는 겨울이나 여름이나 벌거벗고 살아도 추위나 더위를 타는법이 없었고 말밥을 해들여도 배부르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다. 게다가 열두어살 때부터 식모며 침모방에 뛰여들어 덮치려들었고 암개만 만나면 그러안고 돌아가는 무서운 《정열가》였다. 이 모든 병적증세는 실상 조상전래의것으로 특별히 그에게만 병신취급을 할 까닭이 없었지만 이런 지나친 정력과 식욕과 건강때문에 남달리 큰 그의 머리는 텡텡 비여버렸던것이다. 민씨네 일가를 잘 아는 어떤 사람들가운데는 그역시 조상전래의 가풍이라고 단언하는 사람도 없지 않았다.

한편 이 집 족보에서 이채로운 이름을 가진 민삼랑은 성직이 일본류학당시 놀러다니던 일본기생에게 잉태시킨것으로 내내 일본호적에 사부로 오라고 올려있다가 광복과 함께 남조선으로 전적해온 일본산 혼혈아였다.

대학 2학년이 되는데 4년이나 걸린 고명딸 옥규는 아버지를 졸라 벌써 독창회를 두번이나 가졌는데 본인의 말에는 자기의 노래를 들은 한 외국음악가가 죠세핀 베카가 무색해질 목소리라고까지 경탄했다지만 환규의 말을 들으면 그건 멀쩡한 수작이고 실상은 죠세핀 베카자체가 하나의 류행가수에 지나지 않는데서 옥규의 경우엔 노래가 아니라 발광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성직이 보매 발광이라는것은 좀 과장된 말이지만 발성련습을 한다고 온 집안이 들

썩하게 소란을 피우는것을 보면 전혀 무근거한 말도 아닌듯하였다. 그러나 역시 그것이 예술인이상 성병에 걸린 유곽계집들의 류행가따위와는 응당 구별이 있어야 할것이라고 너그럽게 생각하고있었다.
성직의 제일 큰 골치거리는 이들 세 아들딸의 문제가 아니라 둘째아들 환규의 문제였다. 맏아들이 그 모양이니 응당 대는 환규에게 물려야 하겠는데 그 환규는 그가 보는바에 지나치게 유식하였다. 환규는 외모부터 민씨일가의 그것과는 판이하였다. 모든것이 덮어놓고 크기만한 인규의 백치상과는 물론 비슷치도 않았고 일본에서 일본물을 마시고 자라서 그런지 앙바틈하게 되바라진 삼랑이와도 달랐으며 지방층이 두꺼워 굴곡없이 밋밋한, 그래서 어디 가나 풍채가 점잖다는 말을 듣는 아버지인 그자신도 닮지 않았다. 오히려 닮기로 말하면 외모는 옥규와 비슷한데가 있다고 할것이나 옥규는 그 반면에 어딘가 인규를 닮아서 멍청한데가 있었다.
환규는 어디다 내세워도 훤칠멋쟁이였다. 환규가 공부를 지나치게 잘한다는것을 안 성직은 그를 어릴 때부터 미워하였다. 아니나다를가 대학에 다닐 때는 맑스주의를 떠들다가 류치장신세를 지는가 하면 한때는 무슨 저술을 한다고 들여박혀 앉았더니 최근에는 젊은놈이 대학교수노라고 제 애비도 상종하기 만만찮은 유명짜한 사람들만 끌어들인다.
성직은 그가 계집난봉이나 술난봉이 났다든지 혹은 투전이나 아편에 미쳤다면 마음을 푹 놓을수 있겠지만 아들이 지나치게 무엇을 많이 아는것은 딱 질색이였다. 식자우환이라니 반드시 아들의 그 걸레쪽같은 지식이 일가에 환난을 초래하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들 부자는 사이가 나빴고 성직은 지어 아들이 무섭기도 하였다. 아들이 미웠지만 그에게 이 집에서 제일 좋은 방을 내주지 않을수 없었고 그가 요구하면 자기가 걸어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자동차를 양보하지 않을수 없었다. 하긴 그가 아들의 눈치를 살피는 그러한 립장에 떨어지게 된것은 아들의 그 지식과 사회적지위가 자기의 곤경을 구출해주었고 앞으로도 구출해줄수 있다는 한가닥 기대를 걸고있기때문인지도 몰랐다. 광복직전에 성직은 검산에 있는 일체 동산은 물론 땅만 남겨놓고 부동산의 일부도 처분하여 서울로 옮겨다놓았으며 검촌광산의 아오끼 곤노베에가 가지고있던 인천 대한강재(당시는 아오끼철공장)의 주권을 샀다. 광복이 되여 38선이 가로막히는바람에 그는 검산일대의 수천정보땅을 잃었지만 경인지구에서 막대한 적산리권을 손에 넣었는데 그것은 환규

가 모스크바 외상회의와 카이로, 포츠담 회의내용을 귀띔해주었고 막다른 골목에 처박힌 일본제국의 운명을 예언해주었기때문이였다.

최근에 와서 그의 형편은 매우 곤난하였다. 그의 재산의 기둥을 이루고있는 대한강재는 일제시대 겸이포에서 강재를 받아서 가공하던 공장으로 8.15당시 수만톤의 재고가 있었으나 그것도 그가 한미양행중역자리와 국회의원자리를 벌어들이기 위해 다 잘라먹고 이제는 파철부스레기조차 깡그리 긁어먹었다. 철재부로카들을 불러들여 남조선각지에 널려있는 파철과 심지어 태평양전쟁때 가라앉은 배까지를 뜯어먹고보니 남조선천지에 철이라고 이름붙은것은 개가 핥아먹은것처럼 반반 없어지고말았다. 회사에 소속돼있던 6척의 수송선들까지 《한미양행》에 집어넣게 되여 공장은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공장 지배인으로 박아넣은 치호의 애비 송근배한테서는 어제도 로동자들이 쓸어들어 문을 닫겠으면 임금을 내놓으라, 팔아먹은 공장설비를 찾아내라고 야단을 쳤다는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강재》란 다 파먹은 김치독같은것이였다.

성직은 골이 쑤셨다. 그래 무슨 변통수가 있을가해서 아닌보살하고 가끔 환규에게 들려보지만 이놈은 아들놈이라는것이 잔뜩 거만해져서 아비보기를 꼭 소닭보듯하는것이다. 그런데 금년에 《리박사》가 오랜 숙원이던 북벌을 마침내 단행하리라는 풍문이 돌았다. 그것은 울적하던 그의 가슴에 청풍을 몰아넣는것과 같은 소식이였다. 북벌— 이것은 성직에게 있어서 무진장한 파철을 의미하였고 겸이포에 산더미처럼 쌓인 철을 의미하였다. 버쩍 귀맛이 당긴 그는 두루 수소문한 결과 그것이 현내무부장관 백성욱이가 어떤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퍼뜨린 말이라는것을 알아냈고 따라서 그 예언은 의례 백성욱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신중법상이 한것이라는 추측이 갔다.

내무부장관 백성욱은 도이췰란드류학을 갔다와서 한때 《백박사》로 통해다니더니 그후 표연히 속세를 떠나 금강산에서 불도를 닦았다. 마침내 도통하여 돌아오자 당대의 대덕으로 명성을 떨치게 되였으며 그 미간에 있는 큼직한 기미가 석가여래의 살이라고들 하였다. 그런데 법상은 곧 그의 스승이요 50이 넘도록 엄격히 8계를 지켜 정계에 진출한 이때까지 머리를 빡빡 깎고 총각으로 지내는 그의 애첩이기도 하였다. 법상이라는 그럴듯한 법명까지 가지고있으나 백성욱이보다 10살이나 맏이인 이 신중 강석훈은 얼핏 보기에 아직도 40전후로밖에 보이지 않을 녀자로 불가이지만 머리

는 깎지 않았다. 알고보면 외모가 아름다운 그 녀자는 한편으로는 총대요 접영이요 해당화요 하는 계집들과 나란히 근세에 이름을 날린 은근자이기도 하였다. 역시 금강산에서 도통한 그는 허다한 예언을 많이 하였는데 대체로 들어맞았을뿐아니라 최근에는 애제자 백성욱이 장관자리를 차지하는바람에 버쩍 명성이 더 높아졌다. 들리는 말에는 백을 장관자리에 앉히는데 경제적으로 뒤를 봐준것은 부산에 있는 고무공장주 박 아무개이지만 명색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를 《리박사》가 일약 장관자리로 뽑아올리게 된것은 백이 앞날을 내다볼줄 아는 신안을 가진것때문인데 그러고보면 실상 그의 출세가 법상에게서 덕입은바가 크다고도 하였다. 그러기때문에 내무부장관은 지금도 사람들앞에서 깍듯이 그 녀자를 스승으로 모셨고 밤이면 피차 속절없이 늙어가는 그 녀자의 육체를 위로하여주었다.

최근에 떠도는 전쟁에 대한 예언이 이 내용상의 요승부부에게서 나왔다는것을 알아낸 민성직은 여러날을 벼르던끝에 마침내 오늘 법상 즉 강석훈양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들이는데 성공하였던것이다.

치호가 안사랑으로 들어갔을 때는 주객이 주안상을 마주하고 앉아서 한창 이야기가 무르익어가고있을 때였다. 남녀가 유별하고 또 한쪽은 부처님을 믿는 녀자였지만 이제는 피차 60이 넘은 나이라 덧없는 속세의 시시비비를 깨끗이 초탈하여 서로 허물없이 술잔을 나누며 흉금을 터놓았다.

흰머리가 몇오리 눈에 뜨이고 눈귀에 잔주름이 갔으나 아직도 살이 피둥피둥한 강석훈양의 모습은 과시 은근자시절의 아름다움을 련상케 하였고 그 스러져가는 향기조차 백성욱과 같은 로총각을 능히 홀리게 할만하다고 성직은 생각하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거렸다.

《자,어서 한잔 더 따시우. 그래 금년이 단기로 치면 4283년이란 말이지요. 거꾸로 치면 3824라. 38선이 이사를 한다.— 그러니까 전쟁이란 말씀이지요？ 허,그참 신통하군. 그러니 이 세상 리치가 벌써 단군이 태여났을 때 다 정해졌단말씀입니다그려？》

석훈은 술잔을 쪽 소리가 나게 비우고 편육 한점을 집어서 얌전히 씹으며 무지한 소리를 하는 성직을 측은해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천지만물이 다 부처님 섭리에 따라 륜환륜생하는것이지요. 꽃은 피였다도 지고 사람은 살다가도 죽는데 이것은 다 인과응보라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속세의 인연은 다 무상하지요. 그저 대자대비하신 부처님만이 몇억겁의 앞날을 다 내다보시고 불쌍한 중

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미리 길흉화복의 조짐을 보여주는것이지요.》

《보살님 말씀이 참 그럴듯합니다. 불쌍한 중생이구말구요. 올해에 무슨 변통이 없으면 난 망하겠습니다요. 글쎄 모다구 한톤에 30만원을 넘어가는데 지금 남한천지에 손가락만한 파철 하나 떨어져있질 않습니다그려. 무서운 철흉년이지요. 이 판에 부처님께서 쾅하고 대포를 한방 갈겨서 어느 철교라도 하나 허물어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야말로 대자대비가 아니겠습니까?》

《그저 부처님만 믿으십시오. 믿으면 련화대에 오르기도 하고 8백라한이…》

이때 양옥쪽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달빛에 젖은 코로라도…
잊을수 없구나 우거진 숲속
추억에 잠못드는 이내 몸
꿈속에 그 숲속을 거닌다네
아—달빛에 젖은 코로라도…

《따님이신가요?》

《허허허, 용서하십시오. 부처님이 저런것은 좀 구제해주지 못하는지… 온통 미친년같아서…》

치호는 마침 이러한 때에 열려진 미닫이앞에 나타났다.

《사장마님, 저 그사이 안녕하십니까?》

손님이 있다는것만 알고 들어온 치호는 성직과 마주앉은 사람이 할머닌지 아주머닌지 구별하기 딱할만한 녀자였기때문에 좀 당황하여 어줍게 인사말을 하였다.

《오, 자네 송군이 오래간만에 나타났네그려. 자네 조부님은 아직도 정정하신가?》

《웬걸요. 요즘 저도 몇달간 못가봤습니다만 로망한지가 언제게요.》

《로망이라니? 자네 그 모르는 소릴세. 그 령감이 나이 근 백이지만… 그렇지? 아흔 몇이던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 여든여섯인지 일곱인지 됐으니 금년에 아마 여든일여덟이나 됐겠지요.》

《여든여덟? 그렇게밖에 안됐던가? 아무튼 그 령감이 방안에서 오줌똥을 싸면서도 땅문서는 그러쥐고 놓지 않는다니 그 총기

가 좀한 총긴가?》

강석훈양은 이야기가 아름답지 못한 방향으로 번지자 얼른 손수건을 꺼내여 당년 87～88세의 송경팔이 싸놓은 오줌똥이 바로 눈앞에 있기라도 하듯 입을 가리웠다.

《이거 실례했습니다. 저 사람은 내 공장 지배인하는 사람의 아들이지요. 이사람, 나가보게. 저 사랑채에 삼랑이가 와 있네.》

치호는 그길로 사랑채에 갔으나 거기서 혀꼬부라진 군가소리가 들려오자 우선 환규를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곧장 양옥을 향했다.

음침한 그늘을 던지는 노가주나무들사이에 모란이 만발해있는 후원을 지나니 옥규의 째지는듯한 노래소리가 귀청이 떨리도록 따갑게 들려왔다.

아 코로라도의 달밤
그대와 함께 거닐던 그 밤을
내 어이 잊을소냐—

4

이 밤의 환규의 손님들은 그와 한 대학에서 국사를 강의하는 로학자 윤하응과 그의 딸 설란, 녀류시인이며 유명한 부인운동 《지도자》인 모송죽, 미국공보원에 근무하는 사무엘 스파크씨, 신문기자 황보종 그리고 알수 없는 그림을 잘 그리는것으로 유명한 젊은 화가 박태설 등이였다. 여기에 치호가 끼여들어 주객이 모두 8명이 되였다.

서재에 잇달린 응접실에는 주인의 담박한 성미를 말해주듯 특별한 장식도 없고 오직 모사품인지 진품인지 알수 없는 반 고포의 20호짜리 풍경화 한폭이 걸려있을뿐이였다. 붉은 벽돌집 교회당도 푸른 강물도 온통 누렇게 그려놓은 그 그림앞에서 시인 모송죽이 연설이라도 하듯 목청을 돋구고있었다.

올해 52살에 난 모송죽은 강석훈양과는 달리 철두철미 정조를 지켜온 순수한 처녀로서 모든 기혼남녀는 물론 단순히 눈짓을 교환하는것조차 인간의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로 간주함으로써 지구상

의 대부분의 남녀들을 자기의 주의사상상의 원쑤로 선포한 녀자였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녀성을 불행으로부터 구원하는 유일한 출로는 남자구실을 할수 있는 모든 남성을 소멸하는데 있었다. 그는 아무데서나 만나는 모든 사람과 론쟁을 하였고 그 굽힐수 없는 신념과 그 정력적인 열변으로써 그 모든 론쟁에서 혁혁한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일약 남한 부인운동의 급선봉이 된 사람이였다. 오늘도 그는 쩔쩔매는 로교수 윤하응을 상대로 맹렬한 돌격전을 감행하고있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말씀은 즉 남성이 없는 지구는 매우 쓸쓸할것이란 말씀이지요? 그러나 저는 녀성으로서 확언하는바입니다만 남성과 녀성이 혼생하는 오늘의 지구는 혼란과 죄악의 란무장이지요. 아담과 이브의 적강이래 지구는 한번도 대청소를 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응당 한번은 쓸어버려야 합니다.》

《허허허.》

로교수는 어처구니가 없어 아까부터 피해갈 장소는 없는가 하고 두루 살피는것이였으나 녀류시인은 좀처럼 그를 놓아줄 눈치가 아니였기때문에 마침내 두손을 내저으며 웃었다.

《청소를 하십시오. 녀성들이야 원래 청소를 잘하시니까요.》

옆에서 그들의 승부를 흥미있게 바라보고있던 박태설이 기회를 놓칠세라 한마디 반죽을 쳤다.

《허지만 미쓰모, 그 대청소의 결과 모든 남성들이 다 없어진다면 그로부터 한세기 이내에 지구우에는 인류의 그림자가 없어질것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미쓰모의 견해는? 나는 여기서 새로운 그림의 중요한 주제를 암시받은것 같은데… 이 현대판 〈노아의 대홍수〉 후에 인류는 어데로 갈것인가 하는 문제말입니다.》

부인운동의 《지도자》는 여기서 분연히 노하였다.

《당신들 남성들은 어쩌면 그렇게도 한판에 찍어낸것 같은 속물들뿐인가요? 당신들의 견해대로 하면 자기들이 없으면 인류는 곧 망하리라는 결론이 흘러나오는데 누가 그런 렴치좋은 생각을 가질 권리를 당신들에게 주었나요?》

《아니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 보다 실제적인 문제이지요. 난 단연 그 대청소에 찬성합니다만 그런만큼 그 차후문제를 똑똑히 밝힐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하는것은 오늘에 있어서도 모든 녀성들이 성모마리아와 같이 처녀로서도 능히 아이를 낳을수 있겠는지 하는 문제에 귀착되지요. 이것은 나의 다음번 작품의 주요…》

《저리 썩 물러가세요. 난 그따위 더러운 말은 듣고싶지도 않아요.》

박태설을 여지없이 격퇴시킨 모송죽양은 미처 숨통을 찌르지 못한채 놓쳐버린 늙은 적수 윤하응을 찾았으나 이때 하응은 이미 응접실 한쪽구석에 있는 원탁자쪽으로 걸어가고있었다.

거기서는 스파크씨와 황보종 그리고 늦게 들어온 치호 등이 한패가 되여 시사문제를 론의하고있었다. 하응이가 그 패에 가담한것은 그들의 화제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모송죽의 예봉을 피하기 위한데 불과하였다. 그것은 송죽이자신에게도 뻔하였으나 그러면 그럴수록 놓아줄수 없는 그 녀자의 심정이였다. 송죽은 상복과도 같은 검정도레스를 펄럭거리며 그리로 적수를 추격해갔다.

이때 그 자리에서 론의의 초점으로 되고있은것은 오늘밤 경무대에서 베푼 성대한 만찬회에 참가하고있을 덜레스의 극동행각에 대한것이였다.

《스파크씨, 우리도 물론 14일날 워싱톤을 떠나면서 덜레스씨가 한 성명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려행의 목적을 〈평화〉를 위한것이라고 말했지만 그 〈평화〉가 어떤 형태의것인지는 명백히 하지 않았지요? 미국공보원의 공식적견해는 이 〈평화〉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는지요? 혹시 당신들 생각에는 오늘날의 세계나 적어도 남한의 현상태가 평화가 아니라 전쟁에 더 가까운것으로 보는가요?》

황보종의 질문은 결핵환자 특유의 그 뾰족한 하관과 수척한 몸매와 날카로운 눈빛 등에 어울리게 예리하였다. 그는 권위있는 신문에 몇단씩 걸리는 큰 론문도 쓰는가 하면 불과 발행부수 천여부밖에 안되는 3류신문에 두석장짜리 탐방기사도 쓰는 무소속 방랑기자로 적어도 수백개의 필명으로 정치사회문제로부터 가정란, 광고란까지 말아보는 팔방미인이였다.

《평화에 대한 우리 미국의 공식적인 견해는 극히 명백한것이지요.》 하고 스파크는 어깨를 으쓱하며 마침 다가온 모송죽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말을 이었다. 《가령 남한에서와 같이 게릴라가 산에서뿐아니라 도시에까지 출몰하고 민주주의 대의제정부를 반대하는 적색음모가 그치지 않는 이러한곳에서 평화란 기대할수 없는것이지요.》

《알겠습니다.》 황보종은 분주히 자기의 수첩을 넘기더니 고개를 들고 말하였다. 《여기 주목할만한 말이 있습니다. 옳습니다. 당신의 말은 이달초에 애치슨장관이 한 말과 신통히 같습니다. 내가 론설에 쓰기 위해 발취했는데… 〈우리의 평화의 개념은 소극적

인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즉 적극적이란말이지요. 계속해서 그는 말하였습니다. 〈광범한 지역에서 인민들이 기아와 빈곤과 문명에 대한 거역투쟁을 하는 한 우리가 원하는 종류의 평화를 가질수는 없는것이며 세계는 너무나 적은 장소인것이다.〉 그런데 나는 당신에게 거듭 묻고싶습니다. 애치슨에게는 어찌하여 기아와 빈곤과 문명이 같은 종류의 개념으로 되는가요? 어찌하여 인민들이 기아와 빈곤을 원치 않는것은 곧 문명을 거역하는것으로 되는지 이 점을 좀 명확히 해줄수는 없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구는 너무나 적지요. 여보세요. 미스터 황보, 그 훌륭한 말은 누가 한 말이라구요? 그건 미국의 부인운동 〈지도자〉의 말인가요?》

모송죽의 탈선한 말에 좌중은 갑자기 긴장이 풀려버렸다.

스파크는 여기서 있을수 있는 어떤 오해를 방지할 필요성을 느꼈다.

《국무장관 애치슨의 말은… 이건 나 개인의 견해입니다만.》하고 스파크는 차겁게 주위사람들,특히 송죽을 훑어보고나서 말하였다. 《문명의 불가피한 속성에 대해 시사하고있지요. 문명은 자기 발전의 과정에 불가피하게 일정량의 빈곤과 기아를 낳는것입니다.》

《가만.》 황보종은 분주히 몽드러진 연필로 수첩의 여백에다 무엇인지 써넣으며 말하였다. 《그러니까 문명은 곧 일정한 빈곤과 기아의 토대 우에서만 발전할수 있다는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당신들 미국의 평화의 개념을 명백히 규정할수 있는 몇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황보종은 웬일인지 얼굴이 상기된것이 알려질만큼 흥분하여 그 자그마한 수첩을 몇장 넘기더니 읽었다.

《바로 덜레스가 워싱톤을 떠나던 날 공군장관 렛다장군도 펜실바니야 대학에서 학생들앞에 출연했지요. 그는 거기서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방위전술은 주로 총공격전술을 그 전제로 하는것이다. 여하튼 미국의 막대한 자원은 평화를 획득하려는 미국인민의 숙망을 달성하고야말것이다.〉 알겠습니까? 이 〈평화〉라는 말을 그 전주일날 페이스륙군장관이 륙군대학 졸업반 학생들에게 한 연설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페이스는 지상무기분야에서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과거의 무기는 페용될것이라고 전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지요. 〈극히 최근에는 유도로케트 색적장비 및 원자무기 등의 사용가능성에 의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온바와는 거리가 멀어졌

다. 미국의 목표는 평화에…〉 알겠습니까? 〈평화에 있다〉는것입니다. 〈그러나 군사력만이 그 목적달성의 기반인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덜레스씨가 워싱톤에서 한 〈평화〉라는 말이 곧 이러한 종류의 평화가 아닌가 하는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미스터 스파크!》

《그것은 현 미국의 고위 지도자들이 한 말이지요. 그 말들은 공식적으로 발표된것이기때문에 이미 력사적사실로 되였습니다. 미국의 고위 지도자들의 발언이 현시대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한다는것은 주지하는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추측하는것은 어디까지나 당신의 추측이며 당신의 견해이지 그 사람들의 말은 아니지요. 이것은 극히 명백한것입니다. 혹 그것이 사실과 극히 근사하다해도 그것은 역시 당신의 추측이며 당신의 견해이지요. 나는 당신의 그러한 추측과 견해가 당신이 장차 쓰고저하는, 틀림없이 훌륭할 그 글에서 그다지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여기서 황보종은 갑자기 가련할만큼 어깨가 축 처져버렸다. 그는 덜레스의 도착이래 흥미진진한 시사평론이나 페레톤을 쓸 구상을 하고있었으나 그 대담한 시도가 미국공보원의 동의를 얻을수 없다면 한갖 모래발에 세워진 궁전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황보종은 너무나 잘 알고있었다.

이때 환규는 아마릴리스가 빨갛게 불타는 청자화분이 놓인 창가에 설란이와 나란히 서있었다. 우중충한 달빛이 드리운 정원에는 전나무와 노가주나무 우듬지가 보이는데 그것들과 키재기라도 하듯 거대한 문어다리를 펼친것 같은 메히꼬 룡설란이 테라스에 놓여있었다.

설란은 빨간 아마릴리스의 꽃잎을 매만지며 시름겹게 말하였다.

《전 늘 선생님이 쓸쓸한것 같이 보여요. 그게 무엇때문인지 저도 알수 없지만.》

《그건 내가 사실상 쓸쓸하기때문이지요. 설란씨는 쓸쓸하지 않습니까?》

《아이, 제가 왜 쓸쓸해요? 전 늘 이렇게 즐겁답니다.》

《그럼 무엇이 그렇게 즐거운가요? 세상은 하루하루 살기 힘들어집니다. 더구나 우리 같이 의지는 없고 사색만 남아있는 사람에게는말입니다.》

《제발 그런 말씀 말아주세요. 전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면 가슴이 답답해져요. 차라리 저에게 그 쓸쓸해하시는 까닭을 말씀해주세요.》

《그건 혹 설란씨가 저에게 랭정하게 대하기때문인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사실은 내가 설란씨를 만나기전부터 쓸쓸했다는것을 생각하면 그런 리유만도 아니겠지요. 사실… 보십시오, 모송죽양이 또 아버지를 붙들었습니다. 지구우에는 갈수록 저런 미치광이들이 늘어가고 그대신 성한 사람들은 적어집니다. 부득이 시세를 따라 성한 사람도 미치광이 흉내를 내야지요. 나에게는 이것이 참을수 없이 쓸쓸합니다.》

《참 난 저 녀자를 알수 없어요. 왜 우리 아버지만 보면 저렇게 대드는지요?》

《그야 저 녀자가 모든 사람들에게 대드는 광기가 있는데다 아버지는 또 세상에 흔치 않는 성한 사람이기때문이지요.》

그들은 모송죽에게 붙들리여 환규의 사무책상앞으로 끌려가는 윤하응교수를 바라보며 이마살을 찌프렸다. 이어 책상앞에서는 송죽의 날카로운 목청이 들려왔다.

《선생님은 력사학자인 주제에 모계사회로부터 부계사회로 넘어온것이 인류의 타락의 시초라는것을 어째서 모른단말입니까? 참 유감인걸요. …》

설란은 당황해서 훌쭉한 앞가슴을 내리쓰는 아버지를 보자 웬일인지 갑자기 웃음이 북받쳐 입을 싸쥐였다.

《정말 그러고보면 아버지도 쓸쓸해하세요. 그래서 근세사를 하시다가 점점 옛날로 올라가더니 요즘은 중세사도 내버리고 고대로 자꾸 올라가서 고문헌만 읽으세요. 머지 않아 선사시대에서 헤매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현대라는것에 실망을 하신게지요. 언젠가 나하구 문교부에 같이 간 일이 있습니다. 문화유물들이 자꾸 도난당하고 황페화되는데 그 보호대책을 세우라고 진정하러 갔었지요. 내가 거기 장관과 좀 면식이 있으니 같이 가자고 선생이 하도 조르는바람에 따라갔는데 결과는 물론 신통치 못했지요. 난 처음부터 방관자로 따라갔기때문에 관찰을 했는데 선생의 그날 거동이 재미있었습니다. 중앙청현관앞에 큼직한 먼지털개가 놓여있지요. 그런데 올라갈땐 본체도 않고 지나치던 선생이 면담이 실패로 돌아가자 나올 때 그 먼지털개에 천천히 구두의 흙을 털었습니다. 물론 대리석을 깐 집안에서 먼지가 묻어났을리 만무지요. 그러나 선생은 구두를 깨끗이 닦으면서 〈더러운데야, 에이 더러운것들!〉하고 중얼거립디다. 이게 말하자면 아버님의 심정을 쓸쓸하게 만드는 리유이지요.》

《그렇다고 쓸쓸해만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설란은 안타깝게 환규를 바라보기도 하고 저만치 떨어져있는 아버지를 바라보기도 하면서 입을 벌렸으나 결국 자기 말을 맺을수는 없었다.

《어떻게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통 미쳐버렸는걸요. 이제 설란씨도 미치지 않으면 부득불 자살을 하고싶도록 쓸쓸해질것입니다.》

《제가요? 아니예요. 전 어떻게나 제 생활을 개척할거예요.》

《그래요?》— 환규는 자기 신념에 차있는 설란의 모습을 의심쩍은 눈매로 바라보면서 쓸쓸한 어조로 말하였다.— 《나도 한때 그런 포부가 있었지요. 나도 씩씩하게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어보자는 리상이라는것이 있었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절망만 남았습니다.》

《참 선생님은 학생시절에 공산주의자였다구요?》

《공산주의자? 나같이 나약한 공산주의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학자로서 그 학설을 한때 신봉했었지요. 보십시오, 저것은 나의 폐허입니다.》하고 환규는 열려진 사이문을 통해 넓은 서재에 그들먹이 들어찬 유리창이 번쩍번쩍하는 수십개의 책장을 가리켰다.

《나는 저 책들의 페지 한장한장을 번지면서 진리라는것을 찾으려고 저 책장 사이의 좁은 칸사이를 한때 나의 전호로 간주한 때도 있었지요. 그러나 내가 겨우 공산주의를 리해하기 시작했을 때에 우리 시대에 와서 공산주의는 이미 세계를 구제하기에 무력하다는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요?》

설란은 저도몰래 흥분되여 날카로운 목소리로 부르짖다싶이 물었다.

환규는 그 이름과 같이 정말 그 녀자가 눈속에 핀 란초와 같다고 생각하면서 그 타고난 천성같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두발의 원자폭탄이 떨어지자 시대는 변했지요. 뒤이어 몰로또브 성명이 있고 그리고 금년 년초에는 트루맨이 수소폭탄을 제조할데 대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난 공상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에 떨어진 두개의 원자탄은 그곳 수십만의 주민을 죽였을뿐만아니라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의 리성을 파괴해버렸던것이지요. 만국의 로동자들은 단결할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단결하면 뭘합니까. 원자폭탄에는 눈이 없어서 자본가도 로동자도 한꺼번에 죽여버릴텐데요. 그리하여 이 시대는 인간이 광란하는 시대로 된것입니다.》

《허지만 미쳐버릴 까닭은 무엇인가요? 그럴수록 우리는 정

신을 차리고 그걸 반대해야 하지 않을가요?》
환규는 가볍게 코웃음을 치다가 인차 그것을 잔기침으로 얼버무리며 더욱 심각해진 어조로 말했다.
《인간은 벌써 우주에서 제일차적인 존재가 아니지요. 인간의 힘과 존엄성은 이미 지나간 시대의 추억일뿐입니다. 나에게는 오늘의 이 광란적인 시대상이 꼭 1910년에 있었던 세기말적인 현상과 방불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란씨는 하리혜성을 아시지요? 이 혜성은 저 뉴톤의 친구인 영국 천문학자 하리가 1082년에 출현한 대혜성의 궤도를 계산하여 기록해놓은것인데 20세기초에 어떤 천문학자가 이 혜성의 공전궤도를 계산한데 의하면 1910년에 지구궤도와 맞부딪치게 됐단말이지요. 그래서 대소동이 벌어졌답니다. 지구가 미구에 산산쪼각이 날것이니 과연 이 세상에 존중할만한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후에 다른 천문학자들이 그것은 전적으로 계산상 착오이고 지구에 경이적으로 접근하는것은 사실이나 부딪치지는 않는다고 말했지만 소동은 멎지 않았습니다. 점차 예언한 5월달이 가까와져서 동쪽 지평선에 대가리를 감추고 꼬리쪽만 은하같이 뻗친 그 문제의 혜성이 싸치라이트처럼 빛을 뿌리자 많은 사람들이 그만 미쳐버렸지요. 은행예금은 싹 찾아내서 수많은 금융기관이 파산되고 수백년 묵은 포도주 저장고가 털려서 술통이 네거리에 나딩굴고 남녀가 모두 술에 만취해서 벌거벗고 네거리에 뛰쳐나와 지구의 종말을 노래했다는것입니다. 이 미치광이들속에 미치지 못한 인간이 끼워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나의 비극도 여기에 있지요.》
《선생님, 전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무엇인가 잘 납득되지 않는군요. 미친 사람은 미친 사람이지만 지구가 앞으로도 영원히 자기 궤도를 돌고있다면 그 사람은 응당 쓸쓸해할것이 아니라 미친 사람들을 설복해야 하지 않을가요?》
《그야 그렇지요. 그래서 10년에는 그 소동이 인차 진정되였지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현명해서가 아니라 당초에 위험이 없었기때문이였지요. 그러나 오늘은 원자탄이 애당초 인간을 반대해서 출현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무력한것입니다.》
《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력한 의욕이 있을 때는 미치는수밖에 없지요. 미치지 않으려면 나와 같이 이렇게 스스로의 폐허를 들여다보며 생활을 쓸쓸

하게 웃을수밖에 없겠지요. 들어보십시오. 저 소리—》

아아 달빛젖은 코로라도
끝없는 추억이여
잊을수 없는 그 밤에—

명주필 째는듯한 옥규의 목소리에 엇섞여 탁한 남자들의 목소리가 사랑채에서 들려왔다.

리별만은 슬프더라 리별만은— 슬프더라
더구나 못잊을 사랑…

조금도 슬픈것 같지 않는 그 목소리에 이어 이번에는 무엇을 짓마스는것 같은 장단이 들려왔다.

《선생님, 어서 결혼하세요. 전 시대가 어떻게 변했는지 몰라도 역시 선생님이 결혼을 하시면…》

《그만두십시오. 난 다만 설란씨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설란씨에게 청혼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거절할것은 뻔하니까요. 그래서 전 독신으로 늙겠습니다.》

《정말 전 뭐가 뭔지 통 모르겠어요.》

설란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다물어버렸다.

《모를것도 없지요. 이 남조선에 로총각, 로처녀가 좀 많다구요. 저 모송죽양에 또 저 큰사랑에는 강석훈이라는 올드미쓰가 와있습니다. 정부에도 백성욱씨가 로총각이요, 상공부장관 임영신양이 또 로처녀이고… 이것도 아마 시국풍조인 모양이지요. 허허허.》

《아무래도 전 그렇게 생각할수 없어요. 전… 문득 이런 시구절이 떠오르는군요.》

설란은 안타깝게 중얼거리더니 창틀을 짚고 별빛이 반짝이는 어두운 밤하늘을 향해 조용히 시를 읊었다.

나는 여기에
인간을 창조하노라
나를 닮아서
나처럼

몸부림도 슬픔도 아는
나처럼 너를
받들줄 모르는
그러한 인간을 창조하노라

《괴테의 프로메튜스로군요?》

환규는 침울한 목소리로 말하며 그 녀자를 응시하였다.

《그래요. 정말 저에게는 이런 인간이 그리워요. 선생님, 우리는 왜 이렇게 용감한 사람으로 되지 못할가요?》

환규는 놀람과 환희, 선망과 질투를 동시에 느꼈다. 그는 자기의 뒤엉킨 복잡한 감정을 애써 누르며 그가 여태껏 온실에서 자라난 한포기 백란으로만 알아온 그 녀자의 아름다운 얼굴을 바라보았다. 설란은 정말 너무나 많은것을 모르고있다. 그대신 그는 풍부한 인간감정을 타고났다. 그것이야말로 이 살벌한 시대에 그 녀자의 아름다움을 뻗치고있는 기둥이였다.

환규는 설란의 눈물이 글썽해진 얼굴을 들여다보고있는 사이 새로운 보다 큰 적막감이 걷잡을수 없이 전신에 퍼져옴을 느꼈다.…

윤하응교수가 거마리처럼 달라붙는 모송죽을 가까스로 떼버리고 손수건으로 이마를 훔치며 다가왔다. 그는 저만치 걸어오면서 벌써 화가 난 목소리로 말하였다.

《민선생, 난 결정적으로 래일 떠나겠소.》

《래일이요?》

《래일 가겠습니다. 이건 못견디겠습니다.》

《그래도 설란씨가…》

《그앤 가고싶지 않으면 그만두라지요.》

아버지의 울분에 찬 목소리에 설란은 놀라서 아버지의 소매를 잡고 올려다보았다.

《아버지,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따라가지 않으면 조석은 어떻게 하고 빨래는 누가 당하지요?》

《다 내 손으로 할수 있다. 그렇지만 네가 가고싶거든 같이 가자. 거기 가면 필시 흥미있는 자료가 있을것이다.》

환규는 빙그레 웃으며 흥분한 로교수를 바라보았다.

《가시기야 어렵지 않겠지요. 리사회에서도 반대할 리유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강화도에 간들 〈삼별초란〉의 자료가 남아있

을것 같지 않군요. 또 혹 그런게 있다 해도 그것이 선생님의 그 잃어버린 령토를 찾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 의문스럽군요.》

《그건 나의 령토가 아니라 우리의 령토이지요. 오늘 난 그 철면피한 강한주와 또 대판 싸웠습니다. 그자는 지금도 〈사기〉에 나오는 패수가 압록강이라고 주장하고있소. 그러면서도 왕검성은 또 평양이라거던. 그러니 결국 평양이 압록강가에 있다는 소리가 아니고 무어요. 그런 무식한놈 같으니라구. 그게 다 력사학자라고…》

하응은 성이 나서 숨을 씩씩거리더니 이어 진정이 되여 푹 가라앉은 목소리로 조용히 말하였다.

《현실에서 자꾸 잃어지는 우리 령토를 지나간 력사에서라도 도로 찾아야지요. 연암이 말한것처럼 싸움도 없이 국토를 내줄수야 있소? 비록 아득한 과거라고 하지만 연나라 장수 진개가 쳐들어온 그 료동 2천리를 도로 찾는다는것이 얼마나 뜻깊은 일이겠소.》

《전 학자로서 선생님의 포부에 전적으로 동감이 갑니다. 허지만 지금 강화도쪽으로 간다는것이 시기가 적당한것 같지 않습니다. 들으니 거기에도 해군기지가 있다는데 오늘 저 송치호군이 말하는것을 들어보면 정세가 급격히 변할 우려가 보이는군요. 물론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만 아까 〈뉴욕타임스〉 석간 경제란에 미국의 콩시장이 중국상인들에 의해 매점되였다는 기사가 있는데 저는 이것을 주목하고있습니다. 콩은 중국에서 나는데 그자들이 무슨 기틀을 본것 같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요? 난 모르겠소. 전쟁이 일어난단말이요? 흠, 아까 저 사람들이 하는 덜레스이야기가 그 소리로군. 난 알수 없소. 현실 이야기는 나에게 하지 마오. 부인해방으로부터 전쟁에 이르기까지 온통 역할뿐이요. 그래 전쟁이 나를 어떻게 하리란말이요? 민선생 설에 의하면 내가 강화도에 있으나 서울에 있으나 그 원자탄의 희생이 되기는 매일반이 아닌가요?》

《허허허, 모송죽양이 아주 선생님을 넘어뜨린 모양입니다그려. 그럼 저도 같이 가십시다. 저도 사실 못견딜지경입니다. 같이 래일 떠납시다.》

응접실 저쪽 구석에서는 아직도 시사문제에 대한 론의가 계속되고있었다. 모송죽도 그 패에 가담하고 박태설 한사람만이 반 고포의 누런 그림밑에 떨어져앉아 환규의 사무책상우에 화첩을 펼치고있는데 아마 새로 떠오른 화상으로 구도를 잡고있는 모양이였다. 과연 화첩우에는 큼직한 반원을 그리고 그 반원우를 휩쓸어가는 그

보다 더 큰 말꽁지같은것을 그려놓았다. 그런 다음 예술가는 걸레쪽 같은 넥타이를 옭맺어놓은 검정와이샤쯔 깃사이에 쑥대머리를 쓸어박고 명상에 잠겨버렸다. 《과연 지구의 운명은 어떻게 될것인가?》

5

1950년 6월 19일— 세계적인 모순의 폭발을 준비하던 이 월요일날 극동일대는 화창한 여름날이 평온하게 흘러갔다.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도 평양에서는 평화적통일을 열망하는 조선인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남북국회를 단일한 립법기관으로 통합하는 방법으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데 대한 새로운 제의를 내놓았다.

바로 그 제의를 접수한 서울 《한국국회》에서는 제2차 개원식이 열렸는데 여기서 리승만은 꼭 한가지 말밖에 배우지 못한 앵무새처럼 《북벌》을 고창하였고 《국빈》 덜레스는 저 력사에 길이 남을 유명한 축사를 하였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수많은 인민들이 기아선상을 헤매고 실업자의 홍수가 휩쓸고있으며 빨찌산투쟁이 도시주변에까지 파급되고있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자유진영국가의 하나》이며 특히 앞으로 전개될 세계적인 위대한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수 있는 나라라는것이였다.

그는 《한국》의 철저한 반공적인 립장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였으며 특히 총검의 탄압하에 선거된 《한국》국회가 전 조선반도를 지배하는 《유일한 합법적인 정권》임을 재확인하고 이 《한국》이 《공산주의자와 싸우는 날에는 미국은 필요한 일체의 정신적,물질적 원조를 아끼지 않을것이다.》고 약속하였다.

이러한 때 중화인민공화국 수도 베이징에서는 12명으로 구성된 동부도이췰란드 외교사절단이 약동하는 중국의 공장기업소와 농촌을 참관하고있었다.

한편 이무렵 도꾜에서는 점점 로골화되는 전쟁준비와 일본군국주의 재생에 따라 재일조선인에 대한 야수적인 탄압,시모야마 미다까 마쯔가와 등 민주세력탄압을 위한 날조사건의 련속끝에 마침내 6월 6일 24명의 공산당간부의 공직추방이 단행되였고 뒤따라 대대

적인 《빨갱이》추방이 계속되였다. 이리하여 바로 이날에도 맥아더사령부와 요시다 반동정권의 비렬하고 로골적인 공세에 대처하여 일본공산당전국대표자회의가 계속되고있었다. 일본공산당은 지하로 들어갈것을 전국 당조직에 호소하면서 맥아더와 요시다의 전쟁준비에 대처하여 전국적총파업을 단행할것을 호소하였다. 일본공산당은 성명에서 《요시다수상의 공산당비법화에 관한 성명은 누가 보든지 일본을 외국의 식민지로 만들고 제3차대전에로 접근시키려는것이 명백하다. 우리는 이와 같은 군사적인 강압을 대중의 힘으로 분쇄할것이며 한명의 당원이 체포되면 10명의 새로운 당원으로 대답할것이다.》라고 비장한 결의를 다지였다.
　같은 날 오후 도꾜의 다른 일각에 있는 인민광장— 일본인들이 소위 《오호리바다》(해자가)라고 신성시하는 궁성앞 광장에서는 미극동군의 대열병식이 진행되였다. 원자탄을 나르는 대형폭격기 비36을 만들고있는 미국굴지의 대자본가 루이스 죤슨 국방장관(그는 콘스리디딧드항공기회사 사장이다.)이 합동참모본부의장 오마 브레드리대장,미극동군 총사령관 맥아더원수와 함께 3만명의 보병과 3백대의 비행기가 참가한 이 열병식을 사열하였다.
　울창한 송림과 고색창연한 《황성》성벽을 배경으로 가뜬한 황회색 여름군복에 엠원총을 어깨에 걸치고 록색철갑모를 쓴,전통을 자랑하는 24사,25사,기갑1사,7사 등의 보병제대들이 두부모와 같이 반듯한 대형으로 서있었다. 중세기 기사들모양 흰 철갑모에 흰 장갑을 낀 기수들이 감람나무가지를 수놓은 군기와 성조기를 가지런히 받들고 그 두부모같은 대오앞에 서있었다.
　원수기와 대장기를 단 장갑사열차에 올라서 새로 록색 라크칠을 한 장갑기계화부대와 포부대사이를 누비고 나온 죤슨과 브레드리 그리고 맥아더는 심히 흡족하여 연신 손을 흔들며 장병들의 환성에 화답하였다.
　열병대로 올라가면서 죤슨은 맥아더에게 속삭였다.
　《덜레스가 이 마당에 와서 실수할수야 없지…》
　안주를 마련해놓은자가 술구하러 간자의 소식을 궁금해하는것과 같은 그 심정은 브레드리 역시 못하지 않았다.
　《덜레스가 실수를 하다니요? 맥원수의 딸레란격인데…》
　맥아더는 검정안경알속에서 두사람을 가로보며 빙그레 웃었다.
　《그는 나의 딸레란이 아니라 미국의 후시에지요.》

참새, 제비의 무리가 어찌 대붕의 뜻을 알리요? 맥아더는 이때 심중으로 중얼거렸다.

(실수는 무슨놈의 실수, 그깐놈 딸레란은 제갈데로 가라. 모든 준비가 다된 이상 덜레스가 실수를 했다는데는 어쨌단말인가? 이미 사병들은 영외외출이 금지되였고 장교들도 부대주둔구역밖으로 못나가게 조치를 취하였다. 너희들이 나의 손에 5공군과 7함대를 넘겨주고 계획을 비준한 이상 앞으로의 사태발전은 전적으로 내 결심에 달린거지. …)

보병들이 지나가고 전차부대가 지나가고 105미리류탄포에 무반충반전차포가 지나갔다. 하늘을 진감하며 에프80추격기 편대가 나타났다.

《장군, 내 생각에는 특히 전략공군을 위주로 하는 당신의 이번 계획이 현시기 미국군사전략의 기본으로 볼 때 응당 높이 평가돼야 하리라는점을 나는 강조하고싶습니다.》

맥아더는 죤슨의 그 말이 국방장관으로서보다 대항공기회사의 사장으로서 한 말임을 직감하였다. 그는 바른손으로 손때 묻은 마드로스파이프를 매만지면서 껄껄 웃었다.

《이 전쟁은 게벨스의 말투를 빈다면 〈왕위나 제단을 얻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적어도 지구 륙지의 3분의 1이상을 쓸어내여 거기서 무진장한 딸라를 채굴하기 위한 전쟁이지요. 미국전략공군을 이 목적에 쓰지 않는다면 어디다 쓸가요? 그건 아이들 장난감으로는 지나치게 크지요.》

맥아더의 말투가 너무 희떱고 로골적인데가 없지 않았으나 죤슨은 아닌보살하고 번대머리를 쓸어올리며 후라쉬를 번쩍거리는 기자들이 듣지 않았나 눈치를 살폈다.

브레드리는 이윽고 나타난 문제의 전략공군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다가 근엄한 얼굴로 한마디 하였다.

《게벨스는 정확히 다음과 같이 말하였지요. 즉 〈이 전쟁은(대쏘전쟁) 왕위나 제단을 얻기 위한 전쟁이 아니다. 이 전쟁은 곡물과 빵, 아침, 점심, 저녁의 훌륭한 식사를 위한 전쟁이며 원유, 고무, 철광석을 얻기 위한 전쟁이다.〉 내 생각에는 이 정의는 우리의 목적과 아무런 공통성이 없지요. 우리의 목적은 평화를 위한것이며 자유를 위한것이며 공산침략으로부터 그리스도교도들을 구원하기 위한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우리들은 전략공군을 포함한 경제적, 군사적 잠재력과 함께 인적자원에 대해서도 홀시할수 없습니다.》

맥아더는 오만상을 찌프린 자기의 오랜 론적을 조소를 띠고 바

라보았다.

《나는 당신들이 거리에 붙여놓았다는 그 졸렬한 모병광고에 대한 소식을 들었소. 아름다운 동양미인의 안내를 받으며 금강산려행을 할수 있다는 꾀임수에 걸려든 친구들이 지금 나의 지휘하에 들어오고있소. 그래 내가 거기에 대해 반대를 했단말이요?》

《천만에. 장군, 나는 다만 미국군사지도자들이 1928, 9년의 대공황 당시 급격히 감퇴한 출생률이 특히 남자출생률이 지금 미국상비군을 4백만 수준에 유지하는데 큰 애로로 되고있다는점을 항상 명심해야 된다고 간주할뿐입니다. 포드메드에서 크라크장군도 나에게 그런 의견을 터놓았는데 우리는 우선 국내에서 징집년령을 연기하는한편 동남아의 무진장한 인적자원에 주목을 돌려야 할것입니다. 나는 장군께서 일본해안보안대와 국가경찰대를 보충신설한것이 이 목적달성에 극히 귀중한 기여로 된다고 간주하지만 우리가 남한과 대만이나 필리핀 이외에도 례를 들어 라오스, 웰남 등지에서도 우리 목적달성에 리용될수 있는 동일한 군대를 조직하고 당면해서 어디까지나 전쟁을 국지화하여 태평양전쟁이래의 숙제인 중국대륙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행정부의 현로선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대륙에 대한 문제는 당신들의 주장이 아니라 나의 주장이였소. 중국의 한 고대병서에는 군대와 후방물자를 천리밖에 날라다 전쟁을 하려면 졸렬할지라도 반드시 신속해야 하며 그쪽이 능하나 굼뜬 용병보다 훨씬 낫다고 하였소. 나는 당신들에게 더 구차한 소리할것은 없소. 다만 그 〈만하탄구계획〉(원자탄 제작계획의 암호)의 혜택을 나에게 베풀어주기를 바랄뿐이요.》

그의 마지막말은 때마침 지나간 대폭격기편대의 폭음때문에 삼켜지고말았지만 브레드리는 맥아더가 오래전부터 론의거리로 돼오던 문제를 또다시 꺼냈다는것을 능히 알아차릴수 있었다. 그는 폭음이 좀 가라앉은 틈을 타서 중얼거리듯 말하였다.

《손자는 또한 말하기를 전쟁하기전에 적국을 항복시키는것이 작전을 잘하는자의 장점이라고 하였지요. 그는 지략으로 전쟁하는것이 병법의 상등이요, 외교로서 전쟁하는것이 병법의 중등이요, 병기로 전쟁하는것이 병법의 하등이라고 했는데…》

《상등은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서 이미 시험했소. 중등은 당신들이 이 5년간 해온 그 너절한 전쟁이요. 이제 하등이 나에게 차례진 이상 당신들이 아낄게 무어란말이요?》

《허지만 장군, 당신께서도 우리의 그 〈만하탄구계획〉의 산물이 가지고있는 숙명적인 약점을 아실텐데요. 그것을 휘두르는 날에는 우리는 아마 한개중대도 동원하기가 곤난하게 되리라는것을 설마 당신께서 모르신단말입니까?》

《그러니 어쨌단말이요? 그렇다면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서는 왜 떨구었소? 그것이 설마 일본을 최종적으로 꺼꾸러뜨리기 위한 조치는 아니였을테지요?》

《그야 물론. 장군, 당신께서도 지적하신바와 같이 일본은 이미 다— 된…》

이 론쟁은 수일간을 끌었다. 문제의 요점은 그들이 이미 첫막을 올려놓은 이 대《드라마》에서 원자탄의 심리적효능과 물리적효능을 어떻게 리용하는가에 있었지 결코 그들의 계획에 대한 조선인민의 의사를 각각 달리 평가한데 있지 않았다. 말하자면 이것은 양을 잡겠는데 그것을 불고기로 하기 위해서는 품이 들더라도 한가닥 한가닥 각을 떠야 한다는 주장과 불고기를 할것이 아니라 볶아야 하기때문에 마구 탕을 쳐야 한다는 주장과의 론쟁같은것이였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이런 경우에는 양의 의사는 전혀 문제로 되지 않고 전적으로 그들자신의 식성이 문제로 될뿐이다. 따라서 그들 세사람도 이때 조선인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살생을 하려는 모든 하수인들이 의례 거사직전에 체험하는 심리— 즉 칼을 내대는 경우에조차 양이 온순한 동물로 남아있겠는가 하는 불안감이 그들의 마음속에도 차있었으며 그것을 입밖으로 낼수도 없을만큼 그 불안의 도가 심하였던것이다. 이 당시 밸머리 사나운 백정을 내세워놓은 백악관과 펜타콘 그리고 월가의 주인들 역시 식성이 각이해서 그들은 결국 마지막까지 결론을 얻지 못한채 우선 양을 잡기로 결정해버렸던것이다.

한편 바로 이 화창한 여름날 윤하응교수 부녀와 민환규는 그들이 오래전부터 별러오던 그 학술려행을 떠나 인천에 도착하였다. 인천과 강화도사이로 하루 한번씩 려객선이 왕복하였다. 그러나 그 운행시간은 조수관계로 일정치가 않았다. 그들 세사람이 하인천역에 내려서 알아보니 이미 오늘 배는 이른아침에 떠나고 없었다. 하는수없이 그들은 대한강재사무실로 찾아갔다.

만여평의 넓은 부지를 가지고있는 이 공장은 상인천역에서 하인천역으로 이르는 철도연선, 바로 경동구름다리밑에 자리잡고있었다. 철로와 평행으로 뻗은 인도에 면해서 공작직장과 병라직장의 함석

건물이 있고 그와 직각으로 역시 함석을 이은 사무실과 사택이 있으며 그뒤로 오랜 정미소건물을 리용한 절단직장이 있었다. 대한강재의 기본설비는 이 정미소건물안에 있는 각각 100마력과 75마력, 50마력의 능력을 가진 석대의 절단기인데 그전에는 겸이포에서 오는 철판을 이 절단기로 필요한 규격의 반제품으로 잘라서 《조선기계》며 《대동제강》 등에 공급하는것이 기본 업무였다. 그러나 38선이 막히고 남조선에 철이 동이 나자 파철을 긁어모아 압연재료,연신재료,병라가공재료 등으로 절단하는데로 전업하였는데 그것마저 없어지고보니 백여명종업원이 이제는 손을 털고 나앉게 되여 잡초가 무성한 공장구내에서는 여름철 풀벌레소리만 나른한 졸음을 실어왔다. 공장규모는 남조선의 대부분 흑색금속기업이 그렇듯이 보잘것이 없었다. 그러나 남조선공업에서 이 조그마한 공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간 크지 않았다. 제철,제강 설비가 없는 남조선에서 철재,강재를 외부에서 실어들이지 못하고 또 실어들인다 해도 그것을 필요한 규격의 반제품으로 만드는데는 반드시 이 공장을 경유해야만 하기때문이였다. 그러니 이 공장이 쉰다는것은 곧 《조선기계》요 《대동제강》이요 《전중공업》이요 《조선유지》요 《조선차량》이요 하는 인천의 큰 공장들이 문을 닫게 됐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였다.

윤하응일행이 뽀얗게 먼지가 오른,광복전에 폭풍을 방지하기 위해 얼기설기 붙여놓은 퇴색한 흰테프가 그대로 붙어있는 유리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너댓간폭이나 되는 사무실안에는 빼곡이 사람들이 차있었다. 10여개나 되는 사무책상에 사무원 비슷한 사람은 보이지 않고 걸상마다 모두 헐어빠진 미군작업복이나 일본군복상의 혹은 큼직한 물방울같은 구멍이 뚫린 런닝그를 걸친 로동자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벽에는 문자판이 쭈그러진 추시계가 12시쯤해서 멎어있는데 그것이 밤 열두신지 낮 열두신지 도깨비나 알 노릇이였다. 시계가 걸린 기둥에는 미국녀배우의 사진을 오려붙였는데 그옆에 여러사람의 졸렬한 글씨로 씌여진 전화번호부가 걸렸다. 시계아래쪽에 맥주병만한 두개의 건전지가 로출된 구식전화기가 걸려있었다.

단발머리를 한 사환애가 어디 앉을 자리를 얻지 못해 공연히 전화손잡이를 매만져봤다가는 몰래 슬그머니 한바퀴를 돌려보기도 하였다. 방안에 자욱히 담배연기가 서리고 떠들썩한 말소리때문에 온 방안이 떠나가게 시끄러웠으나 전화종소리는 그렇게 살그머니 돌렸는데도 요란하게 찌르릉하였다. 소녀는 질겁하듯 나팔같은 송화기를 가슴으로

붙안다싶이 하고 얼굴이 새빨개서 저쪽 창가에 그중 큰 책상을 차지하고 앉은 뚱뚱보지배인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전화종소리가 요란하게 생각된것은 그 소녀뿐이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지배인은 붕어형으로 구운 도자기재털이에 담배를 비벼끄며 성병에 걸린 사람 특유한 짓눌린것 같은 쉰목소리로 말하였다.

《글쎄, 답답한 사람들 아닌가말야, 응! 내 주머니에 돈이 있기를 한가 어쨌는가? 똥그매이가 있으면 우선 내 월급부터 타야 할판이야. 설비를 찾아내라는것도 그렇지, 임자들이 그 모타랑 배랑 처분하지 않았다면 여태 간죠를 탈번이나 했을줄 아는가? 또 팔았다는데는 어쨌단 말인가? 그게 사장령감재산인데 사장령감이 처분하고싶으면 처분하는게지 임자들이 무슨 상관인가? 허 참, 적산이, 어째서 적산이란말이야?》

《여보시오, 지배인나리, 그래 우리는 로동이나 해먹으니까 눈도 귀도 없는줄 아시오? 공장이 적산이 아니라면 왜 관재처에 보고를 하고 감찰을 받고 했단말이요? 예? 뻔뻔스런 수작 걷어치우고 요구조건을 접수하겠소 못하겠소? 우린 당신하고 입방아 찧으러 온건 아니요.》

허름한 일본군복상의를 입은 30전후의 수척하게 생긴 로동자가 마주 소리를 쳤다.

《여보게 영철이, 이거 왜 이러나? 자네들이 쟁의를 하겠으면 대표가 와서 점잖게 사리를 따져서 말을 해야지 이렇게 떠들면 어떻게 하나? 얘 숙자야, 그 전화 오지 않았니?》

《예, 아니예요.》

소녀는 다시 소스라쳐 전화통을 끌어안았다. 그러나 지배인은 될수 있는대로 말할 기회를 미루고싶어하는 눈치를 력력히 보이며 급사소녀에게 말하였다.

《그 수화기를 들어봐라, 오늘 수상서 오부장한테서 올 전화가 있는데…》

《흥, 오부장이 아니라 가부장이라도 겁날게 있나. 굶게 된 마당에…》

영철이라는 청년앞에 붙어앉은 중년사나이가 중얼거리듯 말하였다. 그러나 자기 말의 효과를 의심치 않는 지배인은 넌지시 그쪽을 돌아보며 짐짓 어엿한 태도로 말하였다.

《오핼랑 하지 마오. 그래서 그런건 아니고… 헌데 그러지들 말고 오늘은 모두 돌아들가시오. 미구에 연신재료 자른 공임이 결산되겠는데 그러면 사장령감한테 내 말해볼테니 제발 이러지들 마시오. 이렇게 여러사람들이 들썩해서야 어디 사무를 보겠소.

사무를 보아야 간죠고 계산이고 할게 아니요.》
이때 현관출입문으로 련결된 지배인사택쪽에서 사람의 목소린지 귀신의 목소린지 분간하지 못할 야릇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이놈들, 아직도 추수를 못받아내다니? 당장 논발을 떼라! 몽땅! 우선 검산벌의 추수를 실어들여!》
《저놈의 령감이 또 지랄이군. 야, 치주야! 그 두상 아가리를 좀 다물게 못하겠니.》
지배인이 간신히 억누르고있던 분통은 마침내 터지고말았다. 그는 회전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그쪽에다 대고 추상같은 호령을 내렸다. 안에서 령감, 아이, 아낙네의 아우성소리가 터져나왔다. 지배인 송근배는 울화가 뻗쳐올라 《에 이놈의것!》하고 책상을 땅— 내리쳤다. 붕어가 재를 토하며 한길이나 뛰여올랐다.
《이거 우리가 잘못 온게 아니요?》
환규를 따라 사무실에 들어선 윤하응교수는 겁이 나서 눈을 슴뻑거리며 환규를 올려다보았다. 그러지 않아도 흰 환규의 얼굴에는 일순 피기가 하얗게 가셨으나 목소리만은 여전히 침착하게 천천히 말하였다.
《쟁의로군요. 뭐 일없겠지요.》
말을 잘 듣지 않아 좁다랗게밖에 열지 못한 출입문으로 꽤 큰 려행가방을 가까스로 끌어들인 설란은 사무실안의 살벌한 분위기에 눈이 둥그래졌으나 인차 동자를 반짝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는 아버지와 환규의 표정은 돌아볼 사이도 없이 이 판이 무슨 판인지 스스로 판단해볼 작정으로 방금 들어선 출입문을 등진채 손을 뒤로 뻗쳐 힘들게 그 문을 닫았다. 그러면서도 한시도 눈앞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고 바라보았다.
《아이구 민선생, 어서 오십시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아무 련락도 없이…》
지배인은 뚱뚱한 몸집에 비해서는 뜻밖이리만큼 가벼운 동작으로 빼곡한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왔다. 그는 환규를 떠밀듯이 바투 다가서서는 가뜩이나 쉰 목소리로 귀전에 대고 웅얼웅얼 속삭였다.
《기회가 좋지 못합니다. 사장댁 자제라는걸 알면 시비를 걸지 모르겠는데 한미양행쪽으로…》
그러나 환규는 태연하게, 지어 수난자의 얼굴에 떠도는것 같은 그 쓸쓸한 미소까지 가볍게 띠우며 말하였다.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야 아버지와 사회적으로 아무 관

계없는 사람이니까요. 저 사람들이 나한테 할말이 있으면 하라지요. 실은 강화로 가야겠는데 혹 배편이 없을가 해서…》

사무실에 가득 들어앉은 로동자들은 등산복차림을 한 세사람을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그중에는 환규를 아는 사람도 섞여있었다.

《민선생님,이리 좀 오시지요. 여러분,저이는 우리 사장 아들이요.》

영철이라는 청년이 자리에 앉은채로 지배인 결상을 가리켰다. 그 불손한 태도에 환규는 불쾌했지만 그보다 더 당황한것은 송근배였다. 그는 전화통으로 급히 다가가다가 선자리에서 부르짖다싶이 말하였다.

《아니 이사람, 자네는 이 선생이 우리 공장과 아무 관계도 없다는것을 잘 알면서 그러는가?》

《우리는 민선생께서 우리 사정을 좀 들어달라는게요. 당신은 중뿔나게 나설게 없소.》

영철은 매몰스럽게 잘라서 말하더니 환규를 향해 말을 걸었다.

《좀 물어봅시다. 공장문을 닫는다는게 사실이요?》

환규는 얼핏 설란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자기가 경솔하게 서울을 떠난것을 마음속으로 후회하였다. 설란이와의 즐거운 해상려행도 옛성터의 탐방도 한갖 랑만적인 꿈에 불과하였다. 현실은 어디까지나 현실그대로 추악하고 암담한 모습을 펼치고있었다.

《글쎄 그건 나도 잘 모르는 일인데—》하고 환규는 지배인 책상모서리에 엉거주춤 붙어선채 자신없는 태도로 입을 벌렸다.

《남조선경제의 일반적상태를 보면 그럴 가능성이 풍부하다고 생각되는군요.》

《가능성이 풍부하다?》

영철은 따라외우듯이 환규의 말끝을 반복하더니 갑자기 어투가 날카로와졌다. 《여보시오. 우리는 무슨 신파놀러 온 사람들이 아니요. 여기 모인 우리들가운데 아침을 먹고온 사람은 없소. 그중에는 벌써 며칠째 곡기를 못한 사람이 많단말이요. 가능성이 풍부하다가 아니라 똑똑히 말해보오. 당신은 이 공장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래, 당신이 월급을 타먹고 산단말이요? 우리가 피땀으로 벌어들인 돈을 당신은 쓰지 않았단말이요?》

윤하응교수는 딸의 손목을 잡고 밖으로 나가자고 끌어보았으나 설란은 여전히 눈을 반짝거리며 열병든것처럼 눈이 번쩍거리고 얼굴에 부황이 든 누런 털부숭이얼굴들과 희고 훤칠한 이마를 손수건으로 훔치고있는 환규를 번갈아 바라보고있었다. 교수는 벗겨들었

던 등산배낭을 사무실바닥에서 한자가량 높이로 엉거주춤이 쳐든채 싫든 좋든 격렬한 담판과정을 바라볼수밖에 없었다. 그는 아래도리를 후들후들 떨면서도 속으로는 생각하였다. (이 공장은 규모가 적어서 로동운동도 어째 수공업시대 갈군. 모든것이 미숙해.)

환규는 잠시 입을 다물고있다가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의 딱한 사정을 짐작하고있습니다. 여러분의 요구는 구체적으로 들어보지 않았지만 물론 정당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들이 임금을 올리라거나 또는, 들은 이야깁니다만 공장설비를 찾아놓으라거나 하는 의견은 다 옳습니다. 또 당신들이 정부의 어떤 시책을 반대하거나 심지어 그 정부자체를 반대한다 해도 나는 반대가 없습니다.》

《여보시오. 우리는 배가 고픈 사람들이요. 임금을 올려달라는것이 아니라 이미 일해놓은 임금을 내놓으라는것이요. 이건 어디서 저따위 사설쟁이야.》

전화통밑에 앉아있던 젊은 로동자가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옳습니다. 밀린 간죠를 내놓으란말이요. 그리고 공장문을 닫겠으면 모타랑 기중기랑 화물선이랑 다 찾아놓으란말이요. 이게 당신네 민가네 공장이요?》

다른 사람이 소리쳤다. 환규는 이마에 내돋는 진땀을 또다시 훔치며 침착하게 말했다.

《이 공장이 우리 아버지 개인의 공장이 아니라는것은 나도 인정합니다. 나는 물론 당신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며 또 그것을 들어드리도록 가친을 설복해보겠습니다만… 혹 여러분이 나를 이를테면 여러분의 대표같은 사람으로 인정해주겠는지. 난 사실 수중에 돈이 없고 어느분이 말했지만 아버지신세를 그리 지지 않고 사는 월급쟁이에 불과합니다만…》

《걷어치우시오.》 영철이가 뒤집힌 붕어를 와락 한쪽으로 밀어놓으며 소리쳤다.

《당신에게서 궁상스런 소리 듣기 싫소. 당신이 무엇때문에 우리 대표가 된단말이요? 그래 당신이 오늘 조반을 굶기라도 했단말이요? 시시한 소리 거두고 당신 갈길이나 가시오. 여보 지배인어른, 당신이 다시한번 대답을 해보오. 그래 이 공장이 적산이요, 아니요? 그리고 임금을 당장 내놓겠소, 안내놓겠소? 장부를 좀 봅시다. …》

전화를 걸고난 지배인은 《한미양행》에서 마침 오늘 오후 3시쯤해서 김포로 가는 배편이 있다는것을 알려주면서 언짢은 얼굴로 말했다.

《공연한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이거야 사장령감 개인공장이지 어디 적산인가요? 민선생께서 그렇게 말씀해놓아서 이제 내가 중간에서 죽을 곡경을 치르게 됐습니다.》

《여보시오, 지배인어른.》하고 환규는 한가슴 차오르는 격정을 마침내 터쳐놓으며 소리쳤다. 《이 공장이 적산이라는것은 내가 잘 아오. 총독부의 기업등기사업이 완전히 중지된 이후에 그것을 다 알고 진행된 매매계약이였소. 그 계약서는 아무런 법적효과도 못가지는 휴지장이요. 당신들이 재작년에 관재처 감찰관들을 삶아놓은것을 내가 모를줄 아시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요.》

송근배는 눈이 퀭해서 뒤걸음을 치다싶이 몸을 뒤로 젖혔다. 이때 사택쪽에서 송경팔의 째지는듯한 목소리가 또다시 터져나왔다.

《이놈 근배야, 비석재아래 사흘갈이를 돌아보고 오너라. 이놈들이 작년에도 년사를 물지 않았는데 그냥 부치게 할수 없다. 당장 논을 떼라.》

《로동자들을 갖은 방법으로 혹사하고 임금까지 제때에 지불하지 않는다니 말이 되오. 당신이 대흑산도에서 배를 뜯어낼 때 잠수부들을 어떻게 부려먹었다는 소식을 들었소. 인명피해까지 있었다지 않소? 당신이 그 버릇때문에 검산에서 여기까지 쫓겨왔는데 아직도 못고친다면 이제 어디로 쫓겨가겠소? 하긴 그것이 당신들의 타고난 천성이긴 하지만… 아무튼 전화를 걸어줘서 고맙소. 선생님, 갑시다.》

찝찔한 해풍이 더위를 휘몰아다가 만국공원기슭을 후려쳤다. 그러면 앙상한 백토벼랑에서는 누런 먼지가 한길이나 피여올라서는 화풀이를 하듯 남비처럼 자글자글하는 판자집 깡통지붕을 휩쓸고 그 코구멍만한 미닫이를 들이쳐서는 레숀통속에 집어넣은 양은밥그릇을 핥고 그리고도 힘이 남아 입으나마나한 할머니의 적삼자락을 헤치고 들어가서 말라시들어진 젖가슴에 황토빛 땀고랑을 지어놓는다.

중앙관상대와 인천시청뒤 홍예문 산마루에서는 나무숲조차 《어, 시원하다.》 소리를 내면서 제멋에 겨워 휘여지는데 그 사품에 붉고 희고 푸른 치마자락이 펄럭펄럭 날려서 가뜩이나 드러내지 못해 안타까와하는 어떤 항구 녀성들의 넙적다리를 뜨거운 태양아래 로출시킨다. 그러나 멎어버리면 그만, 모든것이 종전같은 따분하고 숨가쁜 대기가 미동도 없이 그득 들어차는것이였다. 아스팔트길이며 어업조합과 금융기관 건물의 타일벽에까지 널린 고기비늘, 윙윙거리는 쉬파리떼, 콤콤한 고기비린내… 어시장앞을 지나 제3잔교앞에 이르니 월미도로

통하는 방파제륙교가 가물가물 피여오르는 아지랑이때문에 마치 꿈틀거리는 흰 뱀처럼 길게 늘어져있었다. 해군경비도끄앞 내항으로 경비정이 물기둥을 피여올리며 커다란 타원을 긋고 지나갔다. 선창일대에는 조기때를 만나 부산, 목포, 군산 등지에 선적이 있는 저예망선이며 운반선들이 모여들어 돛대며 마스트가 밀림처럼 빼곡하였으나 웬일인지 배들은 작렬하는 6월달 해빛아래 한가하게 닻을 늘이고있었다. 중유방울과 기름걸레, 조선소쪽에서 떠내려오는 자귀밥 등속이 떠도는 바다는 타루처럼 걸찍해보이는데 어느 배에선가 드레박 떨구는 소리가 나면 그 파문이 온 부두에 퍼져갔다.

제2잔교 언저리에서는 월미도의 남쪽끝이 비켜서면서 멀리 팔미도가 바라보이고 조마구같은 몇개의 섬이 가물거릴뿐 한바다가 툭 틔여났다.

월미도밖 외항에 거대한 상선이 정박하고있었다. 흘수선을 오렌지색 뼁끼로 칠한 그 8천톤급 상선의 선체주위에는 인선이며 중선이 새까맣게 달라붙어서 하역작업을 하고있었다.

세사람은 말없이 세관부두를 향했다. 환규의 기분상태가 좋지 못하다는것을 알기때문에 윤하응부녀는 부두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묻고싶은것이 많았으나 참을수밖에 없었다. 철도경찰서앞 감옥과 같은 높다란 양회담벽을 끼고 한참 가느라니 역시 양회로 쌓아올린 둔중한 대문기둥이 있는데 그것이 인천세관 출입문이였다. 금줄달린 제복을 입은 세관수위가 접수구안에서 꺼떡꺼떡 졸고있었다. 세사람은 증명서를 내보이고 부두로 들어갔다. 부산과 함께 남조선의 관문인 이 부두에 지금은 그럴만한 활기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박흥식이 일본에서 사왔다는 세멘트를 실은 6천톤급의 일본상선 《대월환》이 외롭게 닻을 늘이고있었다.

환규는 그앞에 무릎이라도 꿇듯 붙어서있는 한 목선에 가서 잠시 지체하더니 아직 배가 떠나려면 두어시간 기다려야겠다는데 어찌하겠느냐고 물었다. 우선 점심요기를 하기로 하고 들어갔던 길을 되짚어나와 얼마 멀지 않은 청관을 찾아갔다.

6

탕수유에 구운 만두로 점심을 한데다 환규와 윤하응은 빼갈 반

근까지 기울인터이라 지극히 만족한 가운데 약간의 생리적피곤까지 느끼며 다시 거리로 나왔다. 아직 시간은 있었다. 그들은 발길 닿는대로 천천히 해안을 걸었다. 수인역쪽을 향해 궤짝을 늘어세운듯이 가득 들어차있는 세관창고를 끼고 한참을 가니 차길이 나졌다.

《이것이 수원으로 가는 협궤지요. 이 길로 10리를 못가서 송도유원지가 있습니다.》

잘먹은 점심식사로 해서 저으기 기분이 좋아진 환규가 한옆으로 철길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그들은 송도유원지로 갈 생각은 없었으나 어느덧 해안선을 끼고 꽤 멀리 거리를 벗어났다. 길다란 축항의 방파제가 보이고 수많은 고기떼처럼 축항기슭에 부딪쳤다 흩어지는 파도가 보이였다. 그앞에 네모반듯한 염전이 펼쳐졌는데 허연 소금더미가 눈부시게 빛을 뿜었다.

해풍이 건듣 불어오면 펄럭하고 날리는 짧은 곤색치마자락을 부여잡으며 설란은 환성을 질렀다.

《어마나,저게 모두 소금인가요? 저렇게 많은걸 누가 다 먹나?》

《허허허,사람이 좀 많다구요.》

《그래두 소금이야 얼마나 짜게요.》

《하긴 조선사람들이 소금을 많이 먹지요.》

《소금을 많이 먹어야 사람이 맵짜지나봐요. 그런데 저건 뭐예요? 저 가시철망으로 둘러친건? 아이 저기서 사람들이 일을 하네.》

《저건…》

환규는 문득 말을 끊고 입을 다물었다.

철도인입선을 따라 바다가에 바투 나앉은 뿌연 재빛건물이 주런이 나타났다. 창고보다는 더 크고 더 견고하지만 또 어딘가 창고비슷한데가 있는 그 건물주위에는 높은 재빛담이 솟아있고 작업장주변에는 철조망이 세겹 네겹 둘러쳐있는데 인입선으로 끌어다놓은 수십대의 화차에 역시 그 건물처럼 뿌연 재빛사람들이 까맣게 달라붙어 일을 하고있었다. 한쪽에선 부리우고 한쪽에서는 싣고하는데 그 작업의 진정한 목적을 먼발치서 알아맞히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고보면 건물저쪽편에서도 한떼의 그러한 사람들이 줄을 지어가는데 그 앞뒤와 중간중간에 총대가 번쩍거렸다.

《저건.》

환규는 무중 중단했던 말을 이었다.

《마포형무소 부두작업장입니다. 종신이나 사형언도를 받은

죄수들을 처형전까지 이런데로 끌고 와서 부려먹는게지요.》
《아이 끔찍해! 저런! 마구 때리구… 아이구, 저것 보세요. 화차에서 마구 내던지는군요. 사람을!》
설란이가 두손을 마주잡고 부르짖었다.
환규와 하응은 말없이 그 참극을 바라보았다. 피골이 상접한 죄수가 유개화차에 가로질린 가름대로 무거운 짐을 메고 가뜩이나 휘청거리는 다리를 가까스로 가누며 올라가다가 실수해서 짐과 함께 곤두박혔다. 어중간히 쌓인 짐짝우에 비스듬히 기대여 담배를 피우고있던 간수가 참을수 없이 엄습해오는 졸음을 날리기 위해선지 그 곤두박힌채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마구 총탁판으로 치며 총구로 찔렀다.
이때 차우에서 누가 뭐라고 말을 건 모양이였다. 격검련습이라도 하듯 총탁을 휘두르던 간수가 씽 하고 그리로 뛰여가더니 다짜고짜로 그 사람을 총대로 떠밀어서 뿔이 삐죽삐죽한 화강석돌멩이가 깔린 철길로반우에 꺼꾸로 처박았다.
《무서운 일이군.》
하응의 말에 환규는 짓눌리는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 사람들은 대부분이 정치범이지요. 저 강제로동의 목적은 경제적인 효과보다 저런 과도한 로동과 원시적인 취급의 결과 처형하기전이나 만기가 차기전에 저들이 다시는 리승만정부와 미국을 반대하지 못하도록 죽어버리게 하자는데 있지요.》
《정말 무서운 일이요.》
《무서운 일이 어디 저것뿐입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무서운것은 저런 개별적인 수난이 아니라 인간 전반이 구출할길 없는 파멸앞에 처해있다는 그것이지요.》
《선생님 전… 사람이 저렇게 참혹한 처지에 빠져있을 때는 좀 그런 말씀 삼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저이들이 불쌍해서 그래요.》
《허허허.》 환규는 영원히 떼버리지 못할것만 같은 그 쓸쓸한 미소를 또다시 띠우며 말하였다. 《나도 저 사람들이 불쌍하지요. 아니 인간전반이 불쌍하지요. 그러나 설란씨나 나나 시대의 경외에 있는 어떤 사람이 우리를 불쌍히 생각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출될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저들 역시 설란씨나 내가 불쌍하게 생각는다고 해서 저 철조망속에서 산 목숨으로는 빠져나오지 못할것입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저이들은 도적질이나 사람을 죽인것이 아니라 정치범이라는데 그렇다면 저이들도 혹 구원될수도 있

지 않을가요? 세상이 뒤바뀔수도 있고… 그리고 혹 알겠어요. 저이들의 동지들이 가만있지 않을지도 모르지요.》

《저 사람들의 동지들이야 많지요. 우선 북조선에 수많이 있지요. 그러나 최근 정세로 보건대 그들의 운명조차 매우 우려되는것입니다.》

《어— 또 추악한 현실이 앞을 가로막는군. 민선생, 이제는 배시간이 되지 않았는가요?》

윤하응은 고개를 설레설레 내젓더니 빽 하고 발길을 돌리며 말하였다.

×

하늘과 잇닿은 수평선과 끝없는 물이랑이 서쪽으로 펼쳐졌다. 팔미도를 지나 인천외항에 닻을 늘인 《라인홀트》라는 오렌지색 흘수선의 거대한 상선렬을 빠져 영종도를 누벼나온지도 퍼그나 시간이 흘렀다.

70마력의 쌍기통열구기관은 지치지도 않고 퉁탕거렸다. 추진기밑에서는 부걱부걱 물거품이 솟아오르는데 그 파문이 부채살같이 펴져서는 아득히 떠나온 항구로 이어져갔다. 마닐라로쁘로 꽁무니에 매달린 매생이가 모선을 앞지를듯이 맹렬한 속도로 뒤따라왔다. 갈매기 한마리가 거의 수면을 베일듯이 낮추 떠서 선열을 스쳐가더니 고물쪽에서 예각을 이루며 하늘높이 솟아올랐다. 그늘이 진 컴컴한 선체아래로 까맣게 잔고기떼가 따라온다.

설란은 한바다에 배를 타고 나오기는 처음이였다. 바다—이렇게 넓은 바다가 자그마한 지구라는 행성가운데 일부분이라는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손을 잠그면 금방 물이 들것 같은 그 옥색물이 태양광선의 작용이라는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생각되였다. 그는 고물에 상반신을 내밀고 추진기가 정력적으로 뿜어올리는 물거품을 바라보다가는 이물로 달려가서 마스트를 한팔로 휘감고 빙그르르 돌기도 하고 그러다가는 그 끝에 날아와 앉는 갈매기에게 손수건을 쥐여뿌릴듯 휘저어보이기도 하였다. 마침내 지친 설란은 갑자기 장난궂은 생각이 나서 선원들이 드나드는 고물끝에 뻥 뚫린 구멍으로 선실을 들여다보았다. 컴컴한 선실에서는 중유냄새에 뒤섞여 곰팡내같은것이 풍겨나왔다.

갑판에 있는것들은 삼각추형 채광유리며 붉고 푸른 현등이며 비상뽐프며 사려놓은 바줄까지 모두가 반듯하고 정갈하였으나 선원들이 거처하는 그속—사실은 가장 정갈해야 할 그곳에서는 썩는 냄

새,땀냄새와 함께 퀴퀴한 비린내같은것이 풍기기도 하였다. 설란은 이마살을 찌프리면서도 왜 그런지 엄숙한 기분이 되여 열어젖힌 신문판만한 출입문을 통해 찬찬히 선실을 들여다보았다. 겨울에 난로를 놓았던 자리인듯 가운데가 눌어붙은 갈노전이 깔렸고 량쪽으로 옷장서랍같은 2중침대가 놓였는데 거기서 방금 당직을 넘겨준 선장과 기관조수가 반라체가 된 몸으로 코를 드렁드렁 골고있었다. 그 반대편인 고물곁에는 취사장인듯 나무로 짠 물통이며 양은솥이 아무렇게나 뒹굴어있었다. 불쏘시개처럼 잘게 패놓은 장작단이 몇단 쌓였는데 아궁이에는 불을 지펴놓았다.

거기서 허리를 꾸부리고 무엇인가 꾸물거리던 사람이 한손에 꺼멓게 그슬린 양은버치를 안고 수직으로 놓인 사닥다리에 한발을 올려놓았다. 키가 큰,해별에 탔으나 이목구비가 번듯한 청년이였다. 이 배의 화장인 그는 말똥말똥 내려다보는 설란을 올려다보더니 심드렁한 얼굴로 거의 처녀를 떠받을듯이 곧장 갑판우에 올라섰다.

설란은 이 배속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사건,사소한 물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마음에 들었다. 청년은 고물곁에 버치를 내려놓더니 그속에 담아가지고 온 칼도마와 시꺼먼 왕소금이 터슬터슬한 쩌들은 고등어 한손을 꺼내놓고 배전에 매놓은 목통드레박으로 바다물을 길어 올렸다.

《어마나! 바다에서도 물을 긷네.》

설란은 그것이 아무리 불가피한 생활상요구라 하더라도 어쨌든 이 넓은 한바다우에서 드레박으로 물을 긷는다는것이 소스라칠만큼 놀라왔다. 그는 냉큼 일어나서 청년이 바다물을 쏟아부은 버치속을 들여다보았다. 미국납작보리가 한되가량 담겼는데 간물을 들쓰자 그중 절반은 물우에 떴다.

《아이 벌써 저녁준비예요?》

해는 아직 수평선우 아득히 높은곳에서 연분홍빛 노을을 피워올리고있었다. 그러나 청년은 들은둥만둥 뜬내가 나는 보리쌀을 벅벅 씻었다.

《쌀은 어디 있어요? 내가 씻어드릴게.》

그래도 청년은 못들은척 제 할일만 계속하였다. 설란은 잠시 그 무례할만큼 뚝뚝한 청년을 한참 바라보다가 내심 바다란 원체 사람을 붙임성없게 만들수도 있다고 스스로 납득시켰다. 들어가나 나가나 인멀미가 날만큼 사람이 득실거리는 서울과는 달리 여기서는 저 푸른 바다와 하늘이 그리고 새와 고기떼가 벗이다. 입에 발린 인사범절이 무엇때문에 필요할것인가?

설란은 여전히 유쾌한 마음으로 저도 목통드레박을 들고 배전에 서서 첨벙 하고 줄을 놓았다. 드레박이 물속에 잠기는 순간 배의 추진력때문에 그의 팔에는 예상외로 큰 부하가 실렸다. 아래다리가 비칠하는 순간 눈앞이 휘— 하고 돌았다. 그런데 누가 어깨를 덥석 잡았다. 그 무뚝뚝한 청년이였다.

설란은 후—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위험이 이미 사라졌다는것을 깨달은 순간 그 녀자는 방그레 웃었다. 자기의 모험이 턱없이 대견하게 생각된것이였다.

《아이 하마트면 빠질번했어요. 내가 빠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구 무서워—》

그는 조금도 무서운것을 느끼지 않으며 청년을 향해 자개같은 흰이를 다 드러내고 다시한번 함박같이 웃었다. 그러나 청년은 여전히 말한마디 없이 무뚝뚝한 눈매로 비난하듯 한번 치떠보더니 어깨를 짚었던 손을 놓고 버치 있는데로 돌아가버렸다.

설란은 하마트면 자기를 바다속에 끌어들일번한 그 귀중한 물한통을 길어올려서는 녹이 쓴것처럼 찌들은 고등어를 씻었다.

《정말 이런 바다에서도 소금에 절인것을 다 잡수세요?》

말을 미처 맺기도전에 설란은 입을 틀어막았다. 그것은 사실 바다에서 물을 길어먹는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아닌가? 그제야 설란은 그 뚝뚝한 청년이 씻고있는 한되 되나마나한 납작보리가 이 배식구들의 주식이며 쌀은 한톨도 없다는것을 사무치게 깨달았다.

《당신들은 가난하게 사누만요?》

설란은 갑자기 모욕이라도 당한듯 억울한 생각이 들어 풀죽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그래도 청년은 말이 없었다.

《아가씨, 그 사람은 버버립니데이. 말해도 몬알아 듣십니더.》

가락지같은 연기가 퐁퐁 솟아오르는 굴뚝옆에서 사려놓은 바줄퉁구리를 깔고 앉아 아버지와 장기를 두고있던 한 늙은 선원이 토배기경상도사투리로 소리쳤다.

벙어리? 정말 그랬었구나. 순간 설란의 가슴은 다시한번 서글퍼졌다. 번듯한 이목구비가 그렇게도 무표정하게 굳어져있는것은 바로 그때문이였다. 그러나 어쩐지 설란에게는 개운치 않는 그 무엇이 남아있었다. 무뚝뚝하고 무표정한 그 얼굴—그러나 설사 그가 아무리 밝은 귀를 가지고 다사한 입을 가졌다 해도 그렇게 말없이, 종작없는 자기의 지껄임을 비난하듯이 그렇게 엄격하게 바라

만 볼수도 있지 않은가? 차라리 그것이 더 자연스러운것이라고 까닭없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설란은 다 씻은 고등어를 칼도마우에 놓고 정성스럽게 토막을 쳐서 한쪽으로 밀어놓고 일어섰다. 이물끝에 환규가 서있었다. 해풍에 길다란 머리카락을 날리며 수십년을 해도 못다한 사색을 이 바다우에서도 계속하고있는듯하였다.

《흠— 면포생각이 있는게로군. 그 말 잘 뭔다…》

《남 걱정 할기사 있십니꺼? 어서 뚜기나 하이소. 선상님 체면에 졌다가야 큰일 아입니꺼?》

장기판을 사이에 두고 자못 심중하게 마주앉은 학자와 배사람의 어느새 허물이 없어진 말을 듣자 설란의 가슴은 다시금 활짝 개여올랐다. 녀학교시절의 깡뚱한 곤색치마자락을 펄럭거리며 선수쪽으로 달려가던 설란은 삑— 하고 타륜이 돌아가는 소리에 걸음을 멈추었다. 선교안에는 마흔나마 되여보이는 텁석부리 수부장이 근엄한 얼굴로 키를 잡고있었다. 설란은 이제껏 고물에서 이물로, 이물에서 고물로 그리고 기관실로, 선실로, 선창으로— 이렇게 노루처럼 뛰여다녔지만 실상 제일 요진통은 지나치고말았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는 선교문을 살그머니 열고 겁먹은 목소리로 물었다.

《저 들어가도 괜찮아요?》

구레나룻이 적동색얼굴을 절반이나 덮은 수부장은 오늘 색다른 손님이 탔다는것을 이미 알고있으면서도 흠칠하여 돌아보았다.

《들어오시우다. 사실 여기는 녀자들이 드나드는데는 아니지만…》

설란은 서울에서라면 모욕감에 얼굴이 파랗게 질렸을 그 말이 웬일인지 아무렇지도 않았을뿐아니라 지어 한동기간 사이에서 주고받는 말처럼 허물없이 느껴졌다. 그는 비좁은 선교의 침대를 겸한 선장자리에 등을 기대고 서서 선교안을 두루 살펴보았다. 노전을 깐 평상같은 그 침대우에 똘똘 말린 퀴퀴한 이불이 한쪽구석에 개켜져있고 바닥에는 해도가 한절반 펼쳐진채로 아무렇게나 던져져있다. 그옆에 삼각자며 콤파스가 뒹굴고있었다. 수부장은 타륜앞에 잠수복 대가리같은 놋색뚜껑을 씌운 라침판이 있었으나 그런것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설렁설렁 키를 다루고있다.

설란은 책에서, 이런 운전실의 질서정연하고 엄엄한 분위기에 대해 여러차례 읽은 기억이 있었으나 여기는 금테줄 찬연한 제복을 입은 1등운전사도 수로감시원도 없고 그저 너덜너덜하는 대마직

작업복을 걸친 텁석부리 수부장이 졸리는 눈을 가까스로 뜨고있는것이다. 하긴 이것은 수천수만톤급의 원양항해선이 아니라 불과 100여톤의 배수량을 가진,10명미만의 승조원밖에 없는 목조화물선이니 그럴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 배 이름은 왜 제3대동환인가요?》

한참 말없이 이것저것 살피고난 설란은 이번에는 제법 자신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부장은 피뜩 돌아보더니 묻는 말에는 대답 않고 제쪽에서 질문을 하였다.

《아가씨도 학자님이신가요?》

《학자요? 호호호,전 아직 어린앤걸요. 제가 무슨 학자겠어요.》

《그래도 오늘 회사에서 말하기는 학자님 세분이 강화도로 가신다던데요?》

《전 그저 아버지 심부름군이예요. 아직 학생인데요 뭐.》

《대학생인가요? 그럼 역시 학자님이지요. 아까 선생님들이 탈때 우리 배에서 한바탕 물론이 일어났답니다. 배에서는 근본 녀자들을 태우게 돼있지를 않지요. 허지만 학자님이야 일이 있습니까?》

《아니 왜 녀자는 안태우나요?》

설란은 갑자기 눈이 휘둥그래져서 근엄한 수부장의 얼굴을 말뚱말뚱 바라보았다.

《허허허,녀자를 태우면 재수가 없다는거지요. 그깟놈 재수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기에…》

《재수가요? 아이 참,호호호.》

설란은 웬일인지 웃음이 북받쳐올라 눈물이 나올만큼 웃었다. 무엇이 그리 우스운지 스스로도 모를 일이였으나 어쨌든 고색창연하고 소박한 그런 전통속에 살고있는 그 꾸밈없는 말이 진저리나도록 들어온 환규의 의식과잉과 역증나는 소위 문명에 대해 침을 뱉은것 같기도 하여 가슴속이 후련하였다. 허리를 까부리며 웃는 설란이가 어처구니 없었던지 한참이나 바라보던 수부장도 저으기 마음이 가벼워진듯 꺼칠한 머리카락을 해풍에 거슬려 날리며 빙그레 웃었다.

《이 배가 왜 제3대동환인지 그야 나도 모르지요. 어떤 미친놈이 이름을 지었는지 우리도 모르고 타고다니니까요. 혹 그게 무슨 학문에 소용된다면 제1대동환이나 제2대동환에 가 물어보시지요. 그 배들도 다 대한강재에서 한미양행으로 넘어갔는데 그것들이 먼저 태여났으니까요.》

설란에게는 그까짓 배이름은 그 수부장이상으로 알 필요가 없었다. 그저 시원한 바다바람을 들이마시며 부풀어오르는 가슴속을 누구에겐가 터놓고싶을뿐이였다.

《참 바다는 좋아요!》

《바다가 좋아요?》

수부장은 앵무새처럼 받아외우더니 물었다.

《무엇이 좋은가요?》

《왜 좋으냐구요? 그야 아이참, 왜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물이 많지요. 또…》

《물이야 많지요. 그렇지만 물이 많아서 좋을건 뭐요? 아가씨, 이 물은 간물이 돼서 먹지도 못한답니다.》

수부장은 내밸듯이 쓰겁게 말하였다.

수평선 한끝에 꺼먼 점들이 나타났다. 그 점들에서 가물가물 담배연기 같은것이 피여올랐다. 수부장은 불안스런 눈매로 한동안씩 그쪽을 살펴보다가는 비뚤어지는 배길을 바로잡군하였다.

《그래두 물이 여간만 많아요. 정말 바다는 자유로울거애요. 이렇게 넓은데서 사는 사람들은 아마 아무 근심걱정도 없겠지요?》

《근심걱정이 없다? 허허허, 아가씨, 아가씨는 정말 학자가 되려면 아직 나이를 더 자셔야겠소.》

《허지만 바다에서야 부랑배가 있겠어요, 주정뱅이가 있겠어요? 또 테로단도 없고 정치싸움도 없고 경찰도 없지 않아요?》

수부장은 한동안 말없이 앞만 쏘아보더니 무릎으로 키를 눌러끼고 익숙한 솜씨로 골통대에 써레기를 다져넣었다.

《아가씨, 세상이란 넓은것이지요.》하고 파란 담배연기를 피워올리며 수부장은 다시금 키를 잡고 말하였다.— 《허지만 인간세상이란 알고보면 요지경속 같아서 그저 그 통속에서 뺑뺑 돌지요. 바다가 넓다한들 세상밖을 벗어날수야 있나요. 있을것은 다 있답니다.》

《그래두 여기야…》

설란은 종시 의문이 풀리지 않아 약간 볼이 부어서 대들듯이 말하였다.

《모두 한집안식구 같을텐데요?》

《내 이야기를 들어보겠소? 우리 고향은 황해도 검산이란데요. 거기서 저 민선생네 땅을 부치고 살았지요. 난 너무 어릴 때가 돼서 잘 모릅니다만 우리 할아버지가 그댁 송가라는 마름한테 매를 맞아 죽었다더군요. 우리 아버지는 그 송가네와 민씨네 등쌀에 살수가 없어 그

사람들을 피해서 처음엔 겸이포에서 등짐을 지다가 검촌광산의 아는 사람 반연으로 이 인천 대한강재에 품팔러 왔다는군요. 광복이 되여 우리는 원한을 풀고 송가네와 민가네 눈치 보지 않고 살게 됐다고 생각했지요. 그래 환고향하자고 벼르던차에 38선이 딱 막혔는데 웬걸 그 찾아간다던 검산에서 송마름이 이 공장 지배인으로 내려왔지요.

그리고 공장은 민씨네것이 되고… 세상이란 이렇수다. 바다에 나온들 그들이 안따라오나요? 내 아우란놈이 기가 펄펄해서 견디다못해 싸움에 나섰지요. 미국놈을 내쫓고 조선을 통일하자는 개 말이야 다 옳은 말이지요. 허지만 걘 벌써 3년째 감옥에 갇혀있지요. 그 애를 어디서 잡아갔는지 아시오? 한바다에 떠있는 바로 이 배우에서 총질을 해가며 잡아갔답니다. 난 저 민선생과 풋낯이나 알기때문에 믿고 말합니다만 민선생이야 어엿한 사람이지요. 허지만 저 민씨네와 송마름네라는건 인백정들이웨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지요. 우리 배식구들이라야 불과 9명인데 이중에 벌써 두끼를 굶는 사람이 6이나 됩네다. 그래두 간죠 내줄 궁리나 한답데까?》

《아니 저게 뭐예요?》

설란은 왼편 바다쪽에 아까부터 보이던 점들이 집채만큼 커진데다 거기서 물기둥을 뻗쳐올리며 달려오는 배를 보고 소스라쳐 소리쳤다. 수부장은 이마살을 찌프리며 입맛을 쩝쩝 다셨다.

《뭐겠소. 보나마나 경비정이지요. 오늘은 어째 야단스럽군.》

그러고보니 아까 점으로만 보이던것이 이제는 해군함선들이라는것이 완연히 알려졌다. 눈찌만하게 보이던 쾌속정은 눈깜짝할 새에 제크기로 커져서 다가오더니 갑자기 속도를 늦추었다. 그래도 제3대동환의 배전에 닿았을 때는 갑판우에 물벼락을 들씌웠다. 2문의 기관포가 당장이라도 불을 뿜을듯이 이쪽 선교를 겨누고있었다.

수부장은 내키지 않는듯 대종을 울렸다. 열구기관이 퉁탕 퉁탕— 하고 맥빠지는 소리를 내면서 속력을 늦추었다. 선실에서 선장이 올라왔다. 쌍안경을 앞가슴에 드리운 장교가 배전을 떠밀면서 소리쳤다.

《어디 배야?》

《인천 배외다.》

《어디로 가?》

《김포로 세멘 싣고 갑네다.》

《무슨 세멘이야?》

《비행장건설용재외다. 군대 집이외다.》

《증명서 있는가?》

장교는 선교에 얼른하는 설란과 때마침 굴뚝 뒤쪽에서 허리를 솟군 환규를 보더니 부쩍 의심이 갔는지 소리쳤다.

《타라프를 내려!》

《개자식, 싸래기밥을 먹었나! 웬 반말질이야.》

선원들이 투덜거리며 사닥다리를 달아내렸다. 카빙총을 걸친 졸병을 앞세우고 장교가 올라왔다.

《출항계와 운행증을 내놓아, 모두 선원수첩들 있어?》

졸병은 아무의 승인도 묻지 않고 짐칸과 선실을 살살이 뒤졌다.

《당신은 뭘하는 사람이요?》

윤하응교수는 마주 장기를 두던 늙은이가 선원수첩을 가지러 가는 바람에 천천히 담배를 꺼내 붙여물고 배우에서 일어난 소란은 아예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듯 장기판을 들여다보고있었는데 장교가 매몰스럽게 소리치자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나야 장기를 두고있지요.》

《직업이 뭔가 말이야?》

발끈한 장교는 대번에 반말질을 하면서 장기판을 걷어찼다.

윤하응교수는 얼굴이 꺼멓게 질리더니 벌떡 일어났다.

《네 이놈! 이 무슨 고약한 버릇이냐, 이놈! 너는 에미애비도 없느냐!》

《아니 이거 왜 이래? 이 령감태기가… 뭘해먹느냐고 묻는데…》

뜻밖에 반격을 당한 젊은 장교는 저으기 기가 꺾였으나 여전히 허세를 부렸다.

《아무것을 해먹으면 어쨌단말이냐? 꼭뒤에 피도 안마른놈이! 네 이놈, 네 상관한테 가자. 이런 때려죽일놈이 어디 있느냐?》

추상같이 다그쳐대는 윤하응의 태도에 장교는 저으기 겁을 집어먹었다. 긴급한 군수물자를 싣고가는 배에 신수가 멀끔하고 차림새로 봐서도 로학자의 관록이 붙은 그 태도가 만만찮은 인물임을 새삼스럽게 느끼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그래 타협조로 언성을 낮추었다.

《아니 그렇게 노할게야 있소. 우린 군무를 집행하고있는데 협조를 해줘얄게 아니요?》

《이놈! 협조가 무슨 협조야? 너희들 알망나니짓을 협조하란말이냐? 천하 배우지 못한놈들 같으니, 이놈! 총을 들고 휘두르니 세상이 온통 너희 천지 같으냐?》

《아니 이 량반이 정말…》

이때 설란이가 놀라서 아버지 소매를 잡고 뒤로 끌었다. 환규도 장교의 팔소매를 잡아다리며 말했다.

《여보, 사과를 하시오. 그게 무슨 행동이요. 당신이 무슨 필요로 해서 신분을 조사하겠으면 온당하게 행동을 해야지 년로하신분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굴수야 있소. 보시오, 이건 내 신분증이요. 그리고 저 선생님은 유명한 윤하응교수요.》

장교는 환규의 으리으리한 신분증과 교수라는 말에 수그러들어 중얼거렸다.

《지금 여기는 특별경비구역이요. 다 알겠지만 최근에 정세가 긴박했단말이요. 그런데 허 참…》

해군쾌속정이 떠나간뒤 윤하응은 울분에 찬 목소리로 환규에게 말하였다.

《사람이 사는것이 용소. 이 무서운판에… 어— 망할놈의 세상. 이건 큰 허위로군. 이 평화스런 바다와 저 하늘이 모두 허위란말요. 상화의 심정이 리해가 가오. 정말 마른벼락이나 떨어졌으면, 한바탕 폭풍이 휘몰아쳤으면 오죽이나 시원하겠소. …》

7

18일부터 진행돼온 정황료해사업을 일단락짓고 6월 20일에는 일본 본토에 있는 각 군사시설 특히 공군시설의 시찰을 한 죤슨일행은 22일 다시 《맥아더사령부》의 대브리핑실(조회보고실)에 모여앉았다. 여기에 마침 서울서 날아온 덜레스도 참가하였다. 대만, 필리핀 및 동남아 일대와 중국해안까지 포함한 일반적성격을 띤 극동군사정세에 대해서는 이미 론의가 끝난 뒤였고 여기서는 극히 구체적인, 적어도 극비의 성격을 띤 문제가 토의될것이였기때문에 참가범위는 극도로 제한되여 맥아더사령부측에서는 최고 막료급인 참모장 에드와드. 아몬드소장, 맥아더의 정보국장 촬스. 월로우비소장, 정치고문격인 고드니 휫드니소장, 상륙작전 전문가인 제임스. 도일제독이 참가하였다. 정황해설자료는 친히 아몬드가 군사정세를 분석하였고 조선인민군의 무력과 배치상태 그리고 북조

선의 군사적잠재력에 대하여는 월로우비가 출연하였다.

20만분지 1 조선전도우로 묵중한 지팽이를 벌써 반시간나마 끌고다닌 월로우비의 귀가 먹어들어가기 시작한 이마전에는 들기름같은 진땀이 내뱄다. 최근 2～3년간 거의 매일이다싶이 친히 정보자료를 검토하고 합동참모본부와 중앙정보국을 비롯한 해당기관들에 보고를 제출한 월로우비는 별로 원고를 찬찬히 들여다보지 않고도 수자를 렬거할수 있었다. 그는 지방을 좋아하는 인간들에게 특유한 그 녀자목소리같은 맑은 목청으로 그러나 힘있게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그들은 물론 우리와 마찬가지로 조선반도에 비공산주의국가가 존재한다는데 대해 불쾌하게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들은 교활하게도 우리의 어떤 강력한 시도에 대해 군사적방비를 조직하는 한편 평화적조국통일이라는 다분히 선동적인 구호를 내걸고 38도선이남의 인민들을 폭동에로 사촉하고있습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오랜 세기에 걸쳐 문명을 등지고 살아왔던 남한사람들은 이에 대해 미국으로서는 우려할만한 반향을 보였습니다. 작금 2년에 걸쳐 미국인고문들의 지휘하에 주목할만한 소탕작전이 여러차례 진행되였는데 이 과정에 약 6천여명의 좌익분자 및 그 동정자들을 처단하였으며 4,200여호의 위험한 농가들을 소각하였습니다. 이것은 비교적 안전한 후방이 우리에게 마련되였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예비적인 검속이 지금도 계속되고있는바 여기에는 일단 전향한자들까지도 포함시키고있습니다. 〈한국군〉의 후방은 이와 같이 훌륭하거니와 그 전방도 좋은 전망을 주고있습니다. 장악된 자료들을 종합하면 북조선인민군의 전투력은 다음과 같은 수자들로 표현할수 있습니다. 그들의 주력은 4개내지 8개의 사단 및 독립려단으로 편성되고있으며 일반보병무기, 66미리포, 약간의 122미리구경곡사포, 34대내지 40대의 T 34형 땅크 그리고 야크 9형전투기를 주로하는 36대내지 70대의 비행부대 등등입니다. 이 무력들은 대부분이 종장배치가 되여있으며 38선일대에 전개된 무력은 2개의 독립려단으로 된 경찰경비대로서…》

월로우비의 정황해설은 상당히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었으나 웬일인지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왜냐 하면 덜레스는 도착하는길로 이미 고문단장 라이언의 지시에 의하여 한국 총참모장이 관하 전체부대에 《제3태세》로 들어갈것과 1선에 전개한 1, 2, 3지점의 부대들에 일제히 공격을 개시할데 대한 명령을 21일부로 발송했다는것을 전했기때문이다. 그리하여 월로우비의 정황

해설이 끝나기도전부터 죤슨, 브레드리, 덜레스 사이에는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들이 사담형식으로 진행되고있었다.

《나는 이 마당에 제일 우려되는것은 리승만이가 지나치게 광기를 발휘하여 우리가 유엔에 문제를 제기할 시간적여유도 주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것입니다. 월로우비소장의 말과 또 당신이 친히 38선에서 목격한 그 북조선의 방비상태는 예상외에 약하다는것을 말해주고있지 않습니까?》

죤슨은 브레드리를 떠보듯 힐끔 건너보며 속삭였다. 이에 대해 브레드리는 당신 속심은 다 안다는듯이 미간을 찌프리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얼마나 다행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동원상태를 그저 하나의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으로 간주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러나 신이 아무리 너그럽다 해도 그렇게 큰 요행을 미국에 떨구어주리라고 기대하기에는 너무나 근거가 희박한듯합니다. 우선 그들도 자기네의 독립이 귀하다는것을 알고있을것이고 게다가 그들에게는 **김일성**장군과 같은 사령관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정의에 대해 마치 소녀와 같은 표상을 가지고있는듯하군요. 나의 손주애들도 그런 투로는 말하지 않습니다.》하고 덜레스는 격분하였으나 억지로 자기를 누르며 씹어삼키듯 말하였다. 《설마 당신들은 한국군이 전조선반도를 차지한다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이른바 세계여론이라는것을 어떻게 할것인가 하고 두려워하는것은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 말할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내정문제라고, 그러기때문에 유엔은 이에 대해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그러나 만일 그들이 38선에서 필요한 속도를 유지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을 북조선측의 침략으로 규정하고 유엔에 문제를 제기할것입니다. 나는 이에 대해 필요한 지시를 이미 다 주고왔습니다. 브레드리장군, 당신이 무엇을 못미더워하는지 나는 알수 없습니다.》

《참 훌륭한 량도론법이군요. 그러나 세계는 그렇게 눈뜬 소경들만 모여사는곳도 아니지요. 우선 북조선에도 입이 있을것이고 중공이 있고 쏘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응당 또 미국의 국내여론도 고려해야 한다는것을 상기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봄에 막까시 의원의 발언이래 빨갱이 추방이 선풍을 일으키고는 있지만 하층인민들의 반전적인 기분은 그런 수술정도로는 진정되지 않을것입니다. 이 마당에 특히 대통령께서 정확한 결심을 채택케 하기 위하여 온갖 있을수 있는 불쾌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것입니다.》
이때 골통대를 한쪽 입귀에 물고 보라빛연기를 슬슬 피워올리며 맥아더는 명상에 잠겨있었다. 그에게는 밤낮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월로우비의 장광설뿐만아니라 심지어 죤슨, 브레드리 그리고 덜레스간에 오고가는 말들조차 듣기에 시들하였다. 그의 눈앞에는 벽에 걸린 20만분지 1 조선전도가 아니라 세계가 있었으며 무수한 전술부호들로 얼룩이 진 지도가 아니라 생동한 어느 봄날의 조선산야가 떠올랐다. 1949년 8월 15일 리승만의 초청에 의하여 이른바 건국식전에 참가했을 때 그는 리승만이 이상으로 분렬된 《귀국의 최대의 불행》을 아파했으며 그 불행을 제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동이 있어야 할것으로 기대한다고 의미심장한 축사를 하였었다. 그때도 그의 눈앞에는 잔디들이 비루먹은 토담 관람석과 현대문명의 압력으로 말미암아 땅바닥에 눌어붙은듯한 서울운동장부근의 빈약한 거리가 보인것이 아니라 장마가 개인 어느 화창한 봄날의 서기령롱한 산과 들이 그리고 까치가 우짖는 버들방천과 돌각담뒤에 서낭당이 서있던 고개가 떠올랐다. 실로 세계에 대한 그의 의욕을 그처럼 강력하게 북돋아주던 그 산과 들과 그리고 상투머리를 토목수건으로 질끈 동인 적동색의 농민들이 지금 그의 눈앞에 서물거리고있는것이였다. 그들이 세계에로 가는 그의 길을 막고있으며 이른바 공산권의 초병으로 맥아더휘하의 정예를 자랑하는 최신무력앞에 마주서있는것이다.
《장군!》
그는 마드로스빠이프를 입귀에 문채 곱지 못한 투로 브레드리를 불렀다.
《만약 당신의 그 철저한 민주주의사상으로 말미암아 〈정의〉라는것을 규정함에 있어서 룩셈부르그나, 모나코, 혹은 저 반토막난 북조선까지도 미국과 동일한 한표를 던질 권리가 있다면 당신에게 묻겠소만 도대체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은 무엇에 쓰자는거요? 당신의 견해에 의한다면 어째서 우리의 강력한 힘이 우리가 원하는 바를 바로 정의로 선포할 권리를 우리에게 주지 않는단말이요?》
장시간 침묵해있던 맥아더의 이 폭발적인 발언은 우선 생리적으로 브레드리를 떨떨하게 만들었다. 그우에 맥아더의 말은 너무나 자신만만하였고 브레드리자신의 신념과 너무나 근사하였기때문에 여기서 현군부의 책임적지위에 있는 미국군사전략가로서 응당 깊이 감추어두었어야 할 속심을 저도모르는사이 터놓아버렸다.

《장군, 제발 노여워마십시오. 덜레스씨도 여기 있습니다만 우리의 노력은 전적으로 당신의 지위, 즉 당신에게 유엔의 이름을 사용할 광범한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유엔에 복종은 하지 않는 그런 리상적인 사령관의 지위를 제공하기 위한데 있는것입니다. 이러한 사령관은 당신께서 지적한바와 같이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에 의해서만 가능한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대미문의 화려한 지위인것만큼 약간의 계교가 필요하다는것을 당신은 리해해주셔야 할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요구하는 원자탄에 관해서도 우리들의 원자력관리위원회는 당신에게 더 완성된 무기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사적노력을 기울이고있는것만큼 우리의 외교적활동에 방해가 될 발언들은 이 경우에 장군자신의 립장을 불리하게 만들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라는바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론쟁은 이것으로 끝났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월로우비도 자기의 정황해설을 끝마치고 흔히 조급하게 성공을 바라는 재능 없는 잡역배우들이 잘하는것과 같은 과장된 제스츄어로써 각본에 예견되여있지 않는 화려한 결론을 짓고있었다.

《…재한 미군사고문단의 제의는 맥원수에 의해서 그대로 비준되였는바 그에 의하면 전연에 전개한 5개의 사단과 3개사단의 작전예비대 그리고 5만의 경찰과 각종 군사교육기관 및 최근에 징발한 20만의 〈호국군〉 등으로 이루어진 한국무력은 완전한 전투태세를 갖추고 주타격을 금천, 사리원 방면으로 가하게 될것입니다. 동시에 하나의 보조타격을 옹진반도로부터 신천, 사리원 방향으로 지향시킴으로써 일거에 평양을 점령하며 다른 하나의 보조타격을 련천, 철원 방향에 지향하여 원산을 점령할것입니다. 동일한 시각에 안주만으로 상륙한 부대는 남쪽으로 전개하여 평양을 북으로부터 압축할것이며 영흥만에 상륙한 또 한개의 상륙집단은 원산을 북으로부터 압박할것입니다. 평양—원산을 련결하는 이 잘룩한 선을 차지하게 되면 북으로 진격하는 그들의 속도에는 가속도가 붙을것인바 여기에 미 5공군의 공중타격이 첨가되면 적어도 이 사변은 3일이내에 끝날것으로 타산할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이 타산이 적중되지 않을 때, 우리의 진정한 의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만 한국군이 38선일대에서 강력한 저항으로 말미암아 전진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에 의정부 문산계선까지 밀려온다 하더라도 그들이 일주일만 지탱하면 미국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것이라는 담보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상기한 한국군의 병력과 또 이 수일간 바로 이 브리핑실에서 미

국 고위군사지도자들이 작성한 극동해안일대의 봉쇄계획 및 공군의 지원을 타산한다면 아마도 이러한 번다한 외교적전쟁은 불필요한것으로 될수 있으며 특히 동양속담에 있는바 산이 들썩한 끝에 쥐새끼 한마리라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는것입니다. 그러기때문에 맥아더원수의 평소주장과 같이 정의는 항상 강한자에게 있는바 우리는 미국군사력이 전례없이 준비된 이러한 때를 당하여 주저없이 전면적인 공세를 취하여야 할것으로 간주하는것입니다.》

재능 없는 잡역배우의 부질없는 노력이 매번 그러하듯 윌로우비의 화려한 결구도 별로 참석자들의 주의를 불러일으키지 못하였다. 맥아더한사람만이 이제는 모든것이 좋게만 보였으며 따라서 그 싫증날만큼 들어온 연설도 그의 귀에는 시세로를 릉가할 대웅변으로 들려왔다.

덜레스는 출입구로 흩어져가는 사람들을 우울한 눈매로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하였다. 시국풍조는 어쨌든 맥아더라는 빈깡통을 영웅으로 만들어놓게 움직이고있다. 한때 혼마중장에서 쫓겨 뉴기니아 한구석에 처박혀있던 패장 맥아더를 유럽중심부로 히틀러군을 추격해가던 공산 로씨야군의 쾌승이 일약 원수로 승진시키더니 오늘은 공산진영으로 반격하지 않으면 압착당하게 된 자유세계의 운명과 궁지에 빠진 모르간과 록펠러의 경제형편이 그를 시대의 구호신으로 떠받들게 만들고있다. 하기는 흙으로 신을 빚어내던 시대도 있었으니 맥아더라고 영웅으로 못만들수야 없지 않는가?

오만상을 찌프리고 복도에 나온 덜레스는 전례에 의하여 대기하고있던 기자들에게 붙들렸다. 그는 기분상태가 좋지 못했다. 그것은 맥아더의 영웅화에 대한 꿍꿍이에 질투가 생긴것때문이 아니라 순수생리적인 고통때문이였다. 지구를 량다리사이에 걸치고 공산주의를 반대하여 동분서주한 그 기나긴 려행과 특히 38선에서의 과도한 《산보》로 해서 밸이 빠져나와 탈장증이라는 병이 생겼던것이다. 덜레스는 비죽이 삐여져나오기 시작한 그 장이라고 하는 끈적끈적한 물건을 력력히 느끼며 지렁이라도 씹어삼킨 사람처럼 한마디 내뱉었다.

《극동에 있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미국은 바야흐로 적극적활동을 취하려고 한다.》

감수력이 예민한 보도일군들은 이 발언가운데서 특히 《적극적활동》이라는 말에 력점을 찍는것을 잊지 않았지만 당자인 덜레스는 그것으로써 몸밖으로 삐여져나오려는 불쾌한 물건을 처치해버리기라도 한듯 선선한 얼굴로 기자들앞을 빠져나왔다. 그는 윌로우비의 장광

설과 또 브레드리가 방정을 떨던것을 통해 아직도 많은 일이 미진한채로 남아있다는것을 느꼈다. 우선 쏘련이 안보리사회에서의 뽀이코트정책을 불의에 중지하고—목전정세의 중대한 추이로 보아 충분히 가능한 일이였다.—회의에 출석하여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것이였다. 그는 즉시 수원을 불러 힛카슨에게 《북조선 제재결의안》외에 쏘련이 안보리사회에 참가했을 때를 예견한 필요한 대책을 사전에 세우도록 전보를 치게 하였다.

밤에 맥아더는 대연회를 배설하였다. 여기에는 미국사람들뿐아니라 이번 대《드라마》에서 적지 않게 중요한 역을 담당한 일본의 고위관리들도 참가하였다. 수상 요시다 시게루를 비롯하여 지난 봄에 미국공사 돗지의 지령에 의하여 《축소 제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가난뱅이들은 잡곡을 먹어라.》, 《중소기업자의 다섯이나 열쯤 죽어도 하는수 없다.》 하는 따위 대담무쌍한 발언을 하여 광범한 반향을 불러일으킨 대장대신 이께다 하야도 등이 마치 자기의 잘못을 심심히 사과하듯 송구스러운 태도로 미국인들옆에 자리를 차지하였다. 하기는 그들이 아무리 용감하고 파렴치하다 한들 어쨌든 유색인종인 주제에 미국인들과 동석한다는것은 그들이 철저히 신봉하고있는 《자유》와 《민주주의》사상에 비추어보면 크나큰 죄악이 아닐수 없었다.

일본연회사상에 가장 화려하고 대규모적인 연회의 하나로 기록될 이 자리에서 덜레스는 맥아더를 희세의 영웅으로 받들어올리는 유명한 연설을 하였으니 그는 항상 시국풍조에 충실한 실무적인 사나이였던것이다.

《…목전 우리가 달성하고저하는 그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미국의 힘은 커다란 역할을 놀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확신에 의하면 미국의 물질적힘을 상징하는것은 원자폭탄이며 미국의 정신적힘을 상징하는것은 바로 저 맥아더장군인것입니다.》

우렁찬 환호와 박수소리가 터져나왔다. 맥아더의 눈앞은 안개가 낀듯 보얗게 흐렸다.

《여보 쟌.》하고 그는 녀편네의 귀전에 대고 속삭였다. 《내가 청년시절에 걸어가던 조선의 그 길을 당신이 보았더라면 오늘의 나의 이 기쁨을 리해할것이요. 하긴 당신은 아마 곧 별장을 지을 궁리를 했을터이지만…》

《왜요? 조선은 지금도 아름답다는데요. 새 고장에다 별장을 짓는것은 정말 기쁜 일이지요.》

《웬결 당신은 나에 대한 저 축복소리를 듣지 않소? 저것은 곧 조선이 페허로 되리라는 예언인것이요. 내가 그 청년시절에 나폴레옹이 되지 못한것은 조선이라는 나라에 있어서는 커다란 불행이지요. 왜냐 하면 오늘에 있어서는 인간으로서는 벌써 막을길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내가 조선에 다시 나타날것이기때문이요.》

《죄없는 그곳 백성들에게 하느님의 너그러운 자비가 있기를》하고 쟌은 가슴에 십자를 그으며 빨갛게 상기된 뾰족한 얼굴을 쳐들었다. 《조선사람들은 아마 죽어서 천당에 갈것이예요. 당신이 전쟁터의 인민들에 대해 그렇게 가슴아파하는것을 나는 처음 보니까요.》

《가슴이 아프오. 참으로 나는 조선의 그 연두빛자연을 무척 사랑했던것이요. 이제 일흔에 난 내 가슴에 떠오르는 조선은 언젠가 당신에게 말한 그 25살 청년장교시절의 꿈을 다시금 불러일으킨단 말이요. 이 모든것이 우리가 그렇듯 갈망하는 그 평화를 위해서 불가피하다면 어찌겠소. 그들을 위하여 기도라도 드릴밖에…》

목전에 닥친 조선인민들의 참변을 생각하며 전에없이 애상적기분에 잠기게 된 맥아더부처는 잔 찧는 소리로 장내가 웅성거리는 바람에 무슨 축배인지도 모르고 잔을 높이 들었다. 그것은 다름아닌 맥아더자신의 건강과 전투적위훈을 축원하는 축배였다.

8

《돗지라인》의 강압적인 실시와 관련하여 이께다 하야도는 중소기업의 다섯이나 열쯤 희생돼도 하는수 없다고 말하였으나 실제상 이해에 몰락한 일본 중소기업주의 수는 다섯이나 열 정도가 아니라 일본의 평화산업 전반이 질식상태에 처하였다. 이와 반대로 일본산업의 미국에의 종속과 군사화정도는 《돗지예산》이나 무역관리뿐만아니라 보다 직접적인 형태를 띠고 급속히 강화되여 특수산업부문에는 경기순환의 야릇한 병적인 호전의 징후가 나타났다. 가장 중요한 군수품인 원유채굴, 수입원유의 정제 등을 독점한 《니혼석유》, 《데이고꾸석유》, 《도와연료》 기타 몇몇 기업체들은 《외자도입》에 의하여 카르텍스, 스탄다트, 기타 미국석유자본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50년 2월 15일의 일본국회에서 공산

당의 가와가미의원은 최근 일본인의 민간수요와는 전혀 관계없는 석유의 수입과 저장이 현저히 증대된 사실을 지적하고 이것은 무엇때문인가? 또 그 수입석유의 소유권은 일본인에게 있는가,미국에 있는가 하고 질문하였으나 요시다정부는 이에 대해 한마디도 답변을 할수 없었다. 중공업,화학공업 부문의 대기업들은 차례차례로 미군 군용품을 생산하며 미군에 의해 관리되는 공장(PD공장)으로 전환되였으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갖가지 군수생산을 시작하거나 또는 그러한 방향에로의 전환을 준비하였다. 《히가시닛봉 중공업》의 시모마루꼬공장,후지자동차(군직할공장),고마쓰제작소의 사가미하라제작소(구 륙군조병창)등은 그전부터 찌프,군용화물차 등의 생산과 각종 자동차,전차,불도젤 등의 보수 및 조립을 하고있었으며 기왕의 륙군 아까바네 병기창은 니혼제강 아까바네 공장으로 개칭되여 제1지구에서는 보총과 소형무기의 부분품수리개조,제2지구에서는 전차의 부분품,제3지구에서는 75미리포와 105미리포 등의 중무기 보수 및 고사포 견인차의 부분품이 제작되였다. 《닛뽕 특수강》,《이스즈》,《닛산》,《도요다》,《이께가이》 등의 대자동차 제작공장들은 전부 혹은 일부가 군수공장으로 전환되였다. 어떤 공장에서는 화물자동차 생산으로부터 상륙용함정 생산으로 전환되였고 니혼제강 무사시노제작소 등은 농기구생산으로부터 상륙용 함정생산으로 전환되고 《이시가와지마조선》의 제2공장에서도 상륙용함정이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일본 최대의 염료공장인 《미이께염료》에서는 종전의 의약품,염료의 생산을 극도로 축소 혹은 중지하고 강력화약 《티엔티》의 재료인 니트로리오르,항공연료인 벤졸 등으로부터 나아가서 무시무시한 독가스생산으로 언제든지 전환할수 있는 가성카리,호스겐 등 염료의 중간제품생산으로 돌았다. 《호즈가야화학 오지공장》은 폭약으로 전환할수 있는 니트로크롤벤졸,니트로벤졸의 생산을 시작하였으며 《라이온유지 히라이공장》,《미쯔이화학나고야공장》,《다이닛뽕세루로이드 사까이공장》,《니혼촉매화학》,《니혼세멘트》 기타의 화학공업대기업체들도 군수산업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얼핏 생각키에는 그럴상싶지 않는 공장조차도 군수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니 가령 《니혼 지업 가메아리공장》에서는 종이용기의 40프로가 화약상자생산으로 돌아갔다. 조그마한 지방의 목공장같은것을 례로 들어본다해도 가령 탄약상자 아니면 포신을 싸는 나무통이나 그

재료를 생산하는 공장들은 심지어 잔업,밤작업까지 붙박이로 들이대는 호경기였으나 그밖의 일반 민수생산은 찌부러질대로 찌부러졌다.

이런 야릇한 경기의 명암속에서 아오끼 곤노베에의 고물상에도 뜻밖에 복이 굴러들어왔다. 거의 반평생을 조선에서 철광으로부터 제강에 이르기까지 철쟁이로 살아온 아오끼는 패전직후 고향인 규슈로 돌아왔을 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는 안도감이 떠오를새도 없이 인생의 허무감을 느끼기 시작했었다. 맏아들은 북지(화북)전선 한 토치카우에서 팔로군에게 포위되여 배를 가르고 자결했다는 소식이 그를 기다리고있었으며 해군사관으로 출정했던 둘째아들 겐지로는 남방전선에서 돌아오자 소위 《크레인패》라고 불리우는 부랑배로 전락하고말았다.

그는 배운것이 철쟁이라 요행 폭격속에서 살아남은 고향집 방두칸을 뜯어내여 철재고물상을 차렸으나 4년이란 세월을 그자신이 가게방에 처박힌 깨여진 난로나 낡차판 혹은 자전거바퀴같이 녹쓴 존재가 되고말았었다. 할일없이 가게를 늙은 녀편네에게 맡기고 홀린놈처럼 해안을 바라다니다가 하루는 바다로 쐐기처럼 내뻗은 모래곶에서 꺼꾸로 처박힌 비29의 잔해를 발견했었다. 꼭 무슨 용도가 있거니 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심심하고 그대로 가만 앉았다가는 혈관들이 절로 강직돼버릴것만 같은 무료감에 못이겨 정과 마치를 가지고 그것을 뜯어내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미군측으로부터 《출혈주문》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대수요에 직면하여 《야하다》를 비롯한 제철소의 굴뚝들에서는 개꼬리처럼 가늘어졌던 연기가 먹장구름모양 뭉게뭉게 피여올랐다. 아가리를 쩍 벌린 평로에는 집어넣어도 집어넣어도 배를 채울 파철이 모자랐다. 아오끼고물상의 깨여진 난로는 새 난로값보다 더 비싼값으로 실려나갔다. 아오끼의 발달된 장사치의 눈은 면도칼처럼 날카롭게 날이 섰다. 그는 비29의 잔해를 뜯어오던 일을 생각하였다. 하루는 할일없이 료정과 극장거리를 건달패에 섞여 돌아가는 둘째아들 겐지로를 불러앉혔다.

《애 겐지로,너도 일본남아로 태여났으니 넋까지 썩지는 않았겠지?》

얼근히 취해서 바지주머니에 손을 찌른채 미군잠바의 쪼르로기를 풀어헤치고 서있던 겐지로는 아버지를 가로보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어찌라는거요? 당신이 날 먹여살렸다고 큰소리요. 그야 당신이 아버지니까 날 먹여살려야 할것 아니요? 일본남아? 헹,찌나칵 처먹으라지요.》

《허 망할자식! 그런게 아니다. 너 이리 좀 오너라.》

아오끼는 깔고앉은 방석을 밍그적거리며 화로옆 비좁은 마루우에 자리를 내주었다. 겐지로는 시쁜듯이 턱을 내밀고 걸터앉았다.

《너 형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니?》

《그래 어쨌단말이요? 내가 형처럼 배를 가르지 않아서 불만이요? 야만은 그만 버려요. 이젠 이에 신물이 나우다.》

《이 개자식! 썩 나가! 네깐놈이 내 아들이야? 이 곤노베에는 이 팔뚝 하나로 자수성가하여 그래도 한다하는 대기업을 차려놓았다. 그래 네깐놈이…》

《흥, 듣기싫소다. 나가라면 겁날줄 아오. 난 그 야마도다마시이가 질색이란말이요.》

겐지로는 담배를 꺼내더니 삐닥이 물고는 어정어정 가게방을 빠져나갔다.

《개자식, 어디 두고 보자. 이제…》

그는 미친놈처럼 거리로 뛰여나갔다. 놈팽이나 실업자는 얼마든지 있었다. 그는 되는대로 일공인부 10여명을 걷어모아 해안으로 나갔다. 비29의 잔해옆에 철선 한척이 가라앉아있었다. 아오끼는 불하요, 허가요 하는 군행보는 하지도 않고 감쪽같이 그놈을 반반다 훑어먹었다. 그것이 발각이 나서 먹은것보다 갑절이나 게워놓게 됐을 때야 자기 수법이 너무나 조포했다는것을 깨달았다. 봄이 지나고 여름에 접어들면서부터 어지간히 둔한 사람들도 이상한 경기순환의 기미를 눈치챘다. 하루는 겐지로가 어뜩새벽에 아직 취기가 가시지 않은 부석부석한 얼굴로 돌아왔다.

《령감, 날 용서하오, 날 무슨 일이든지 시켜주오.》

《흥 이젠 정신 들었느냐?》

《언젠 정신 나간줄 알았소? 나도 속이 살았수다. 형이 배를 가르고 죽었다는걸 나라고 모를줄 알아요? 화김에 술을 들이키긴 해도 영 취하지를 않수다. 그래 〈대동아공영권〉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장이 날수야 있나요?》

흑자색바탕에 흰줄이 간 바둑판무늬의 왜옷을 걸친 아오끼는 그러지 않아도 다 드러난 넙적다리께까지 옷자락을 훌쩍 걷어올리고 무릎을 절퍽 쳤다.

《좋다, 아오끼가문의 혈통은 속일수가 없다. 알았느냐? 복수할 때가 왔단말이다. 누구를 조기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놈의 파철들이 대포가 되는것만 틀림없다. 너 해볼테냐?》

《해보겠수다.》

겐지로는 머리를 푹 떨구고 땅속에서 울려나오는듯한 숨가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윽히 아들을 내려다보던 아오끼는 고개를 돌리며 곰방대로 그끝에 매달린 조그마한 담배주머니에서 써레기를 꽁꽁 담았다. 그리고는 고물라이타를 켜대며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너 저 이시까와병원집 아들 본따지 않겠니?》

《이시까와?》 겐지로는 번쩍 고개를 들더니 찍 하고 침을 내뱉았다. 《더럽수다. 그깐놈처럼 계집에 환장한줄 아시우? 점령군이 계집애들 해먹기야 보통이지요. 나는 늦게 나갔기때문에 남방미인 하나 구경 못했지만 우리 형은 중국계집들을 그러지 않은줄 아시오?》

《됐다. 그집 사건이 커졌더라. 그 집 신조가 미군을 쏘고 도망간 다음 그 집은 온통 망했다. 그런데 들으니 신조는 바다로 뛰여들어서 빠져죽었다더니 알고보니 부산 다니는 밀선을 타고 한국으로 내뺐다는구나. 그게 뭐냐? 그까짓 계집 하나때문에 온 집안이 망했으니… 넌 네 색시를 점령군이 해먹어도 그런 못난 짓은 안하겠지?》

《난 그 사람들이 내 에미나이가 필요하다면 갖다바치기라도 하겠수다. 그저 원쑤값을 방도만 있다면말이우다. 대일본제국의 꿈이 이렇게 허무하게 깨질수야 없지 않소?》

《그래,네가 정말 일본남아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데 어째서 우리가 가만있겠니. 장작단우에서 자고 쓸개를 빨면서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한다. 내 그러지 않아도 네 색시가 좀 소용이 있어서 그런다.》

《네?》

곤노베에의 말에 겐지로는 다시 고개를 번쩍 들고 흉물스럽게 생긴 아버지의 거밋거밋한 주름투성이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것은 사람이라기보다 아직 진화과정에 있는 류인원의 얼굴이였다.

《왜 겁이 나느냐? 실은 저 10리 도래굽이앞에 군함 한척이 가라앉았는데 점령군과 교섭해서 그걸 불하받아야겠다. 그런데 경리계 장교가 일본녀자를 무척 좋아한다는구나.》

아버지는 아들의 쑥대머리를 구멍이 나도록 쏘아보았다. 곰방대에서는 찌륵찌륵 대진이 끓어오르고 독한 담배연기는 그러지 않아도 진물이 내배인 곤노베에의 눈시울을 뻘겋게 지지면서 화로의 그슬음이 더덕더덕한 천반으로 바라올랐다.

겐지로는 목이라도 조인듯이 울대뼈를 꿈틀거렸다. 끽— 하고

신트림이 올라와서 그는 입을 틀어막고 고개를 푹 떨구었다.

《지금 미군들 외출이 금지되였어요. 그리지 않아도 〈빵빵〉이나 〈온리〉나 다 실업자가 돼서 울고 돌아가는판인데 그까짓 유부녀 누가 돌아보겠대요?》

《그건 내가 다 알아서 하지 않으리. 싫으냐? 이시까와 신조처럼 또 권총을 들고 미군에게 접어들지 않겠느냐?》

《좋수다. 나도 야마도다마시이가 있수다.》

겐지로는 이를 으드득 갈더니 눈물을 머금고 말하였다. 이리하여 부자간에 전고미문의 패륜계약이 성립되였다.

9

옹진지구 전투사령관 박인엽중령은 21일부 총참모장 명령을 접수한 이래 일상적인 신경과민상태가 심해져서 밤이고 낮이고 잠시도 한자리에 붙배겨내지를 못했다. 벌써 사흘째 집에도 돌아가지 않았으며 유일한 취미인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는것도 깨끗이 단념해버렸다. 륙군본부 타자수로 있던 지금의 계집은 그의 생각에는 과거 주색에 범연치 않던 영웅재사들이 나라를 기울이는것도 주저하지 않을만한 절색이였으나 국가흥망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때에 특히 리승만도 말한바와 같이 백두산에 《태극기》를 휘날릴 유일한 부대인 《호림부대》 부대장이 계집의 엉뎅이나 두드리고있을수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안성맞춤으로 어제부터 날이 흐리더니 초저녁부터 철떡철떡 비가 내렸다. 모든것은 순조롭게 진행되여간다. 아직도 옹근 하루와 반나절을 남겨둔 거사시간까지 모든 군사행동을 극비에 붙여둬야 할 필요성에 비추어볼 때 이 비는 활짝 패인 《한국》의 국운을 축복해주는 정화수와 같은것이다. 오직 한가지 걱정스러운것은 새로 닦은 중무기들의 기동로가 이 비때문에 파괴되지 않을가 하는것이다. 길은 무조건 좋아야 한다. 벽성군일대를 단번에 휩쓸고 해주를 짓뭉개며 질풍같이 사리원으로 내달리려면 무엇보다도 길이 좋아야 한다. 그런데 이자들은 오늘저녁 총참모부의 전술적조치에 의하여 단행하기로 된 포사격준비에 몰두하여 그런것에 관심이 돌아가지 않을수도 있다.

인엽은 가뜩이나 《색쌔기》라고 불리우는 그 빠른 걸음걸이

에 신경질까지 보태여 바람을 일으키며 밖으로 뛰여나갔다.

《운전수! 류탄포진지로! 얼떤!》

《네—》

당직사병들과 쌍소리를 하고있던 운전수가 떨떨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어슬렁어슬렁 다가왔다.

《빨랑빨랑 못하간!》

《네? 네, 곧 되우다. 그런데 데 머사니 류탄포라는건 그 105미리포진지 말이외까?》

부대장의 성격을 잘 아는 운전수는 잘못하다가는 귀통을 얻어맞을수 있다는것을 눈치채고 슬슬 눙치러들었다.

《반편같은 아새끼가, 군인이라는거이 그만것도 모른단말이가?》

《와 모르갔소? 봄에 증강돼온 포부대지 뭐갔소! 자, 갑세다.》

《호림부대》는 박인엽이 친히 《서북청년회 대동강 동지회》를 골간으로 조직한 부대로서 알쭌히 월남한 평안도 지주, 상인들의 자식들과 경관, 면서기 나부랭이들로 구성된 부대다. 그래서 8도 인물평에 평안도를 《맹호출림》이라 했다는데로부터 부대명칭을 《호림부대》라고 지은것이였다. 여기서는 련대장이하 운전수, 련락병에 이르기까지 박치기를 못하면 사람값에 들지 않았다.

비는 점점 세차게 퍼부었다. 쏜살같이 달리는 찌프차우에서도 길이 어지간히 죽탕이 됐다는것이 느껴졌다. 련대장의 성격을 맞추노라고 운전수는 교예라도 하듯 진창길로 자동차를 마구 내몰았다. 어둠을 쏘아보는 인엽의 눈이 캄캄한 가운데 마치 올빼미눈처럼 험하게 빛났다. 보병대대 막사로 통하는 갈림길을 지나 105미리포진지로 통한 새로 산턱을 깎아낸 길로 100메터나 들어갔을 때 인엽은 용수철에 튕긴것처럼 흠칠하며 소리쳤다.

《얘, 2대대로 맨침 가자. 그자식 새로 온놈이 미덥지 못해!》

《어이구 맙소사.》

겨우 차를 어길가말가 한 산속의 진창길을 뒤돌아보며 운전수는 저도모르게 한숨을 내쉬였다.

《좀 일찌가이 그러실거 아니오?》

《아니 이 애가? 너 이게 어느땐지 상구 모르갔니?》

불과 스물여덟에 난 소년항공병출신의 이 련대장은 밤눈에도 나이 지긋해보이는 운전수를 마치 여라문살짜리 어린애 다루듯 항상 《이애》, 《저애》로 취급한다.

《누가 메라오? 하도 급해하문서 자꾸 빠꾸만 시키니껜 그러지요.》
《닥쳐! 이건 군사상 필요에 의한거야.》
《알갔습네다.》
운전수는 깍— 까르륵 하는 기야소리를 내더니 가까스로 자동차를 갈림길까지 끌어다놓았다.
2대대 막사앞에 이르자 인엽은 배암처럼 소리없이 대대본부로 접근해갔다. 불의에 습격하여 대대장이하 대대간부들의 어떤 약점을 잡아내는것이 상관으로서의 자기 의무라고 생각한것이다. 그런데 불을 환하게 켜놓은 콘셋트안에서는 씩씩한 훈시소리가 들려왔다.
《… 실지를 회복함에 있어서 너희들은 용맹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나는 오끼나와에서 살아온 사람이다. 용감하게 돌격을 하면 아무것도 무서울것이 없다. 너희들중 검도를 할줄 아는자가 없는가? 2중대장은 몇단인가? 흠 그러면 구로도오를 못결쳤겠구만. 나는 3단이다. 검도정신을 배워야 한다. …》
신임대대장이 자기 수하장교들을 데리고 훈시를 하고있다는것을 안 인엽은 여기서 새 대대장 민삼랑이 일군에서는 장교였고 또 사관학교출신인데 자기는 소년항공병출신의 오장에 불과했다는것을 이를 악물고 상기했다. 그는 뚜걱뚜걱 막사안으로 들어갔다.
《기척! 련대장님께 경례!》
민삼랑은 흠잡을데 없이 민활하고 절도있게 구령을 치고 보고하러 나왔다.
《좋다. 수고들 한다.》
인엽은 또다시 속으로 이를 악물고 계집같이 해사한 얼굴에 싸늘한 웃음을 지었다.
《대대장,무슨 훈시를 하던중인가?》
《네,나는 새로 임관된만큼 나의 통솔방침에 대해 몇가지 주의를 하는중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다. 들으니 군은 일본사관학교출신이라는데 사실인가?》
《네,제58기 졸업생입니다.》
《내가 보건대 군은 일제잔재가 많은것 같다.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일제잔재를 용서하지 않는다. 군은 이 점에 대해 각별히 류의하는것이 좋갔다.》
《넷!》

민삼랑은 소문에 들은바 있는 인엽의 그 삶의 웃음같은 싸늘한 미소가 엷고 새빨간 입술우에 떠도는것을 보자 저도모르게 전률을 느끼며 힘차게 말하였다.

삼랑이 저으기 주눅이 들었다는것을 꿰뚫어본 인엽은 비로소 마음이 너그러워짐을 느끼며 뒤짐을 지고 방안을 거닐기 시작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방안을 걸어다닌다면 그것은 응당 뛰여다닌다고 해야 할것이나 박인엽의 경우에는 우리속에 갇힌 승냥이걸음같은 그 신경질적인 걸음걸이가 바로 유연히 방안을 거니는 모습인것이다.

《에— 내가 평양에서 조만식선생을 호위하고있을 때—그는 전 련대가 다 알고있는 이 사실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 새로 한사람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드시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당시 현 1사단장인 나의 형 박선엽도 호위대 책임자로 하낭있었지만 우리 형제는 좌익이라면 전 한국민족을 다 죽여도 소멸할것을 맹세하였다. 민대위, 나도 일군출신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동지들이다. 나의 형과 나는 일제시대부터 빨갱이들과 싸왔다. 우리는 일제잔재를 물론 반대해야 한다. 그렇지만서두… 알갔는가? 빨갱이를 소멸하는 야마도다마시이만은 그대로 간직해야 한다. 전투준비는 다되였는가?》

《네, 당장이라도 명령만！》

인엽은 남에게 말할 틈을 주지 않고 손으로 홱 허공을 베더니 재빨리 말하였다.

《대단히 좋다！ 민대위！ 나도 검도를 할줄 안다. 우리 이댐에 평양가서 검도시합 한번 하자.》

《네, 꼭 부탁합니다.》

《념려말아, 나는 민대위가 마음에 든다. 나하고 하낭 가자.》

《네！》

삼랑은 모자속만 뜯어낸것 같은 둥글넙적한 록색전투모를 제껵 집어쓰고 앞질러 출입문을 나섰다.

찌프는 다시 그 산비탈의 진창길을 달렸다. 비는 억수로 변하였다. 쏴— 쏴— 산골물 흐르는 소리가 발동소리를 짓누를듯이 풍막을 뒤흔들었다. 전조등 불광속에는 심산속의 암흑이 퍼런 광채를 띠고 딱정벌레같은 찌프를 집어삼킬듯이 덮쳐들었다.

골짜기가 나타났다. 개울을 이룬 골짜기주변에는 여러대의 자동차가 전조등을 켜대고 한편에서는 기름방망이로 홰불을 태우는데 그 불빛속에 새까맣게 달라붙어있는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득실거렸

다. 산골물이 범람하여 길을 넘은것이다. 공병들이 수리작업을 하느라고 주변농민들을 동원하여 흙가마니를 갖다쌓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있었다. 반반한 청장년들은 《국군》이 아니면 《호국군》에 끌려가고 나머지 허약한 늙은이, 아낙네들만 동원되였기때문에 작업에는 활기가 없었다. 게다가 이 일대는 청석바닥이기때문에 수많은 가마니를 채울만한 흙도 돌도 귀하였다. 보고있는 사이 물은 점점 더 불어 어느덧 골짜기는 장강처럼 넓어졌다.

《칙쇼！》

인엽은 장대비가 쏟아지는 속을 자동차가 멎기도전에 뛰여내렸다.

《장교 없는가？》

빽—하는 인엽의 목소리에 후줄근히 젖은 공병대대장이 뛰여왔다.

《련대장님！》

《나는 옹진지구 전투사령관이다. 너희들은 무엇을 하는가？》

《보시는바와 같이 영선작업을…》

《개자식！ 이게 무슨 영선작업이가？》

《허지만 사령관님！ 비가 이렇게 오기때문에…》

《듣기 싫다. 너의 막사는 어데 있는가？》

《바로 저 골짜깁니다.》

《그럼 량식창고를 터뜨려라！ 량식포대를 메다 쌓아라！》

《네？！》

공병대대장은 질겁을 하여 비속에서도 유령같이 해말끔한 인엽의 얼굴을 주시하였다.

《무엇을 뻥하고있는가？ 량식창고를 터뜨리란말이다.》

《그런데 모르긴 해도 사병들을 먹일 량식도 넉넉치 못한데…》

《이 반내미같은 자식… 량식은 다섯끼분만 있으면 된다. 그 다음은 현물세를 먹게 될것이다. 책임은 내가 질테니 한시간이내에 길을 만들어라！ 포들이 한시간이내로 통과못하면 너는 군법회의다！》

《네.》

공병대대장은 얼떠름해서 대답했으나 다음순간 그도 이 며칠째 수상한 분위기를 느껴오던 터이라 인엽의 마지막 소리를 한번 되새겨보고는 갑자기 발동이 걸려 황급히 어둠속을 내달렸다.

인엽은 그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작업장을 아래우로 그 우리속에 갇힌 승냥이같은 조급한 걸음걸이로 삑 올라갔다가는 삑 되짚어내려오군하였다.

삼랑은 련대장이 비속에 나서는데 부하로서 차안에 가만 앉아있을 체면이 없었다. 더구나 앉은자리에서 뒤엉킨 삼거웃을 한칼로 자르듯이 복새통을 수습해놓는 그 면도칼 같은 두뇌와 수완에 탄복한 나머지 거의 예술품을 감상하는것 같은 경건한 심정이 되여 인엽의 호리호리한 몸집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그는 이런 부대장밑에서라면 한번 어깨를 벗어붙일만하다고 생각하며 저도 비속에 뛰여내렸다.

그가 보건대 인엽은 어딘가 자기 형 환규와 비슷한데가 있었다. 해말쑥한 얼굴이나 후리후리한 몸매도 그렇거니와 어딘가 신경질적으로 느껴지는 눈모습도 비슷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안하무인격으로 모든 사람을 항상 내려다보는 그 거만한 말투며 자세가 더 방불하였다. 그런데 형의 그 거만하고 고답적인 태도가 언제나 그의 신경을 아프게 건드리던것과는 반대로 인엽의 그 거만하고 방약무인한 행동은 은근하고 위선적인 겸양의 외피에 싸인 형의 그것과는 달리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은것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야생적인데가 부러워 죽을지경으로 마음에 들었다. 형과는 늘 티각태각하고 의가 맞지 않았었다. 자기가 형을 같잖게 생각하는것 이상으로 형은 자기를 거의 사람취급을 하지 않았다. 남에게는 신사적인 겉차림이라도 하지만 자기에게는 아우라고 해서 《무식한놈!》 《야만》하고 마구 모욕적인 말을 삼가치 않았었다. 그러면 삼랑은 속으로 피눈물이 괴여오르는 억울한 심정을 이기지 못하여 대일본제국의 패망을 통탄하였으며 《뭇계집을 울린다》던 그 사관후보생 시절이 그리워졌다.

《학자태를 내지 말어요, 쿠소! 누가 성공하나 두고 보잔말이요!》

륙군대위 견장을 달았을 때도 삼랑은 형과의 관계에서는 늘 이런 대사를 외우게 마련이였으며 형은 항상 자기를 깔보는 립장에 높이 틀고앉아있었다. 그러나 이제 때는 온것 같다. 군인의 전성시절은 전시이다. 전쟁은 지어 한갖 이등병에게도 제왕의 권세를 부여하는 황금시대인것이다.

삼랑은 여적 가보지 못한 응당 그 3분지 1은 자기의 소유가 돼야 할 검산벌의 기름진 논밭을 생각하였다. 나는 장군이 될것이다. 나는 전승장군의 권리로써 그 땅의 가장 좋은 부분에서 3분지 1을 차지할것이다.

량식창고가 터지자 작업은 급속도로 진행되였다. 쌀가마니가 쌓이고 납작보리마대가 쌓이고 밀가루포대가 쌓였다. 작업에 동원

된 남녀로소들은 흙탕물속에 처박히는 낟알가마니를 보자 이것이 적어도 어마어마한, 자칫 잘못하면 사람목숨 한둘쯤 눈깜짝할새에 달아날 그런 무시무시한 사변이라는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그들은 본능적인 공포에 끌려 비속을 비칠거리면서 량식가마니를 메다날랐다. 어느덧 흙탕물우에 쌀가마니가 솟아올랐다.

《뒤거두매를 똑똑히 하라구. 그리구 경비를 세워! 만일 사고가 있었다간 용서없다.》

인엽은 공병대대장에게 마지막으로 으름장을 놓고 날쌔게 자동차로 뛰여올랐다. 찌프는 전조등을 흔들며 쌀가마니우로 달렸다. 흙이 다져지지 않은 가마니짬들은 떠들려서 자동차는 털썩털써덕 하고 턱을 넘어갔다.

전조등불광속에 흙탕이 게발린 흰 바지저고리를 입은 늙은이가 다리가에 엉거주춤 앉은것이 나타났다. 그는 오지랖에다 무엇인가 그러담고있었다.

《천천히…》

인엽은 운전수의 귀전에 속삭이듯 말하며 그 로인을 쏘아보았다. 로인은 자동차가 다가오는것도 모르고 열심히 터진 가마니귀로 새여나오는 쌀을 오지랖에 그러담고있었다.

《정지！》

이미 한다리를 발판우에 드리우고있던 인엽은 로인옆에 뛰여내렸다.

《하르반！ 뭘하는가！》

《아이구, 네 상관나리님, 저 이건 쌀이 다 흘어져놔서…》

《하르반》은 소스라쳐 벌떡 일어나더니 소중히 오지랖을 감싸안고 오돌오돌 떨며 말하였다.

《뭘하는가 말이야？》

《저 집에 노덕이 앓아누웠습넨다. 벌써 여러끼를 굶었습지요. 곡기를 못하니 도무지 추설수가 있어야지요. 의생 말이 속이 허해서…》

《그래서 흰죽이라도 대접할 작정인가？》

《네 그렇습니다, 상관님.》하고 로인은 제 심정을 알아주는 그 말에 너무나 반가와 한걸음 앞으로 나서며 재빨리 말을 이었다. 《이거면 두끼는 죽을 쑬수가 있습니다요, 우리 노덕이…》

로인은 미처 말을 맺지 못하였다. 인엽은 발길로 찬비를 맞아 우들우들 떠는 로인의 아래도리를 힘껏 걷어찼다.

로인은 흙탕에 젖은 그 쌀을 오지랖에 소중히 그러안은채

《아！》하는 외마디소리를 지르며 사품치는 흙탕물속으로 첨벙 빠져들었다. 이때 무슨 사고나 생겼나해서 숨가쁘게 달려온 공병대대장에게 인엽은 살기띤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여기 작업에 동원된 인간들을 래일밤까지 가두어놓고 무슨 작업이든지 시켜라！ 오늘 작업에 대한 소식이 외부에 새여나갔다가는 안된다. 알갔는가？》

《알았습니다. 저 래일밤까집니까？》

《그렇다. 래일밤까지다. 녀편네들 아이젖멕이러도 보낼수 없다.》

《알겠습니다.》

이때 대대장과 마찬가지로 삼랑이조차도 인엽의 거의 신묘한 지경에까지 이른 그 군사적용의주도성과 결단성에 탄복과 함께 몸서리를 쳤다.

흙탕물에 빠진 로인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연신 《사람 살리우, 사람 살리우》하는 비명과 함께 아래로 아래로 떠내려갔다. 한동네에서 끌려나온듯한 농민들이 기슭을 달리며 물속으로 뛰여들며 소리쳤다.

《순이 아버지에— 쌀을 버리고 헤염을 치슈— 헤염을 쳐유—》

《순이 아버지에—》

로인은 그 소리를 듣는지 못듣는지 그대로 발만 허우적거리며 떠내려갔다.

《사람 살리유— 사람 살리유—》

어느덧 부슬부슬 가랑비로 변한 우중충한 밤하늘에 구원을 부르는 순이 아버지의 목소리가 처량하게 울려퍼졌다.

이날밤부터 이튿날아침에 걸쳐 박인엽중령의 지휘하에 포진지에서는 38선이북 벽성군일대를 향하여 105미리 류탄포와 81미리 박격포 700여발을 발사하였다. 륙군본부와 미군사고문단의 작전가들에 의하여 주공방향을 위장하기 위한 전술적조치로 계획된 이 대대적인 포격은 38선이 생긴이래 가장 큰 대포격의 하나였으며 그 규모에 있어서 이미 전쟁상태에 들어갔음을 세상에 공포하는 신호로 되였다. 이 포격으로 말미암아 38선 이북연선 지대에서는 평화롭게 잠자던 수십여호의 농가들이 파괴되였으며 13명의 농민들이 중경상을 입었고 경비대원가운데 1명의 사상자와 6명의 부상자가 났다. 이 포격은 북반부뿐만아니라 옹진반도일대와 경기도의 농촌 그리고 연백, 강화, 대청, 소청, 백령들의 연해도시들에도

은은한 메아리와 함께 살벌한 전쟁냄새를 실어갔다.

10

강화해안을 거니는 윤하응의 머리에는 문득 옛시 한구절이 떠올랐다.

덧없는 세월에 오태사도 간곳 없고
아득히 삼랑성만 하늘가에 아물거리네

리색은 다만 옛사람을 생각하여 이렇게 읊었지만 강화도는 단순히 세월의 이끼만 푸른것이 아니였다.

1232년 7월(고종 9년) 몽고란을 피하여 고종이 이 섬으로 천도한 이래 근 반세기를 들끓었던 삼별초군의 씩씩한 함성도, 우람찼던 산성의 위세도 오늘은 한갖 추억에 불과했다. 사면 바다에 둘러싸인 황폐한 이 섬에서 벌써 700여년전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로 《고금상정례》를 박아냈다는것을 생각하면 금석지감이 새롭지 않을수 없었다.

세계를 휩쓸은 몽고병의 말발굽소리가 지척에까지 미쳤건만 16년간이나 8만 대장경의 판목을 깎아내던 대장도감 장공들의 그 끌수 없는 조국수호의 열정과 문화에의 갈망이 어제런듯 새로운데 강화도는 다만 어수선한 페허로서 나그네의 마음을 쓸쓸하게 하는것이 아니라 기생갈보들을 끌어들여 질탕치는 괴뢰군장교들과 군용달뿌로카들, 신사차림의 미국인들의 주색잡기마당으로 변하여 뜻있는 사람들의 피눈물을 자아내게 하는것이였다.

아아 강화도, 강화도, 중군 어재연의 목소리가 높이 울리던 광성진은 어디냐? 강화수군과 산포수의 후손들아! 말해보자, 강화도는 언제부터 한국의 마이아미가 됐느냐? 초지진의 드높은 물결소리는 미국원정함대 진지로 대담무쌍하게 돌격해가던 조선 해안포병들의 우렁찬 함성이 아니냐?

《서양오랑캐들이 나라를 침략하는데 이들과 싸우지 않으면 곧 화의를 해야 한다. 침략자에 대한 화의는 곧 나라를 파는것이다. 자자손손 영구히 이를 명심하라.》

신미(1871)양요의 불길속에 태여난 조상들의 이 피맺힌 맹세가 한갖 기슭에 흩어지는 파도소리와 송림을 울리는 바람소리로 변했단말인가?

생각하면 조선의 모든 강토와 더불어 빛나는 력사와 높은 자랑을 간직한 이 섬도 저 치욕적인 1876년 2월의 조약(조일수호조규)이래 오욕의 력사가 시작된것이였다.

윤하응일행은 강화려관에서 하루밤을 빈대에게 뜯기다가 성터를 돌아보고 그날로 길상산에 되돌아와서 전등사에 사처를 정하였다. 혹시나 하고 피로한 다리를 끌며 돌아다녀보았으나 리규보묘도 왕릉들도 비명은커녕 소재지조차 찾을길이 없었다. 어느 어업조합 리사의 할애비무덤은 엄엄한 석수석인의 호위하에 화강석묘비가 눈부시게 번쩍거리고있었으나 저 《동국리상국집》이며 《백운소설》을 남긴 대문호의 묘비는 어디서 소고삐에 끌려다니는지 진강산에는 그야말로 목동의 풀피리소리만 처량하였다.

또하나 마음의 페허를 가리게 된 윤하응은 이튿날 야밤 박인엽중령의 지휘하에 진행된 대규모적인 포격소리에 질겁한 환규에게 끌려 부랴부랴 부두로 내려오고말았다.

마침 해질녘에 인천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다시 바다우에 떴다. 부두를 벗어날 때 강화만일대에 상륙정들이 집결된것을 보았다.

멀어져가는 강화를 바라보고있노라니 하응의 머리속에는 또다시 리익의 악부가운데서 철성탄을 읊은 글귀가 생각났다.

높은산 험한 봉에 성을 쌓았으니
양양한 바다가 사위를 둘렀구나
쇠를 녹여 병장기를 벼림이여
군량이 넉넉하니 백성들 사기도 높다
명장 박서가 싸움을 지휘하니
휴양인들 이에서 더할가마는
뻗치고 지킬대신 허물다니 웬말인고
할일없이 성담을 파헤치니
마른벼락에 산귀신도 놀라네
날카롭던 보루들 깡그리 마사짐에
백성들은 말없이 눈물만 흘리더라

12～13세기 전세계를 휩쓸었던 원의 침략을 맞받아 일점 고도

에서 당당히 항전을 계속하여 마침내 나라의 주권을 고수한 저 삼별초군, 후날 수십년을 끈 삼별초란의 동기로 된 그 지간의 산성모습과 그 성을 허무는 광경을 눈앞에 그려보며 하응이는 사가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서 장군 박서며 배중손을 상기하였다. 철목진과 홀필렬은 비록 아시아로부터 멀리 유럽대륙까지 휩쓸어 지구우에 전고미문의 대제국을 세웠으나 외로운 고도에 웅거한 농사군들을 굴복시키지 못했으니 이른바 왕명에 의하여 성을 허물 때 말없이 눈물을 떨구었다는 저 하민들 심정이 그대로 그의 늙은 가슴에 뜨겁게 안겨왔다. 구주싸움에서의 박서의 용전이 생각나고 그것은 또 거란침략당시의 구주대첩에로, 다시 거슬러올라가 당세 영웅이라고 하던 당나라 리세민의 간담을 서늘케 하던 양만춘, 수양제를 아이처럼 희롱하던 을지문덕의 무훈에로 하응의 상념은 마치 봉우리로 올라가는 등산가처럼 거창한 력사의 산맥을 톺아올랐다.

날은 흐렸다. 바다는 그의 가슴속처럼 격랑이 뒤번지고있었다. 대청도에서 싣고온다는 까나리짐으로 짐칸이 산더미처럼 부풀어오른 목선은 초풍 만난것처럼 들까불었으나 하응은 여전히 배전을 때려부실듯 쳐갈기는 흰 파도와 검게 설레이는 물이랑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참으로 큰 봉우리들이 있었지. 때로 골짜기로 숙어내리고 절벽으로 굴러떨어지기도 했지만 이 백성의 위훈의 선은 또다시 드높은 산정으로 톺아올라갔거던. 그러니 이 거대한 위훈의 그라프에 놓인 함수는 무엇인가? 정말 인걸도 물과 같아서 가고는 아니올것인가. …》

개소문이 한번 죽으매 대륙에까지 위명을 떨치던 고구려의 국세는 허물어지고말았다. 하응은 력사를 사랑하는 사람이였다. 그는 현실로부터 격리된 세계에 들어앉아 사면벽을 대물렌즈로 삼고 넓은 세상과 장구한 력사를 종횡으로 관찰하였다. 그에게는 깊은 골짜기나 높은 봉우리나 매한가지 탐구의 열정을 자극하는 력사적사실이였으며 리순신의 위훈이나 훈민정음 창제를 흠모하는 동시에 위화도회군끝에 명장 최영의 시체가 거리에 나뒹굴던 참극에 대해서도 폭군 연산이 진노하매 한글의 주옥이 불에 타고 찢기던 이갈리는 봉변에 대해서도 다같이 호사가의 열정을 발휘하였다. 민족적통일에의 지향으로 일관된 파란중첩한 국사의 갈피갈피를 뒤지며 라당련합군의 성립에 안타까와하던 나머지 스스로의 한숨으로 백제 고구려 폐허에 한가닥 피리소리를 보태보는것이였고 민족적대업에 눈뜬 웅건한 고려왕조의 통일위업에 이르러서는 스스로의 환성으로 왕건의 계림성 무혈입성

을 환영했던것이나 력사가로서의 그에게는 신라의 글짜기나 고려의 봉우리가 매한가지로 귀중한 사료였던것이다.

그러나 엄혹한 현실은 그의 대물렌즈를 산산이 짓마사버렸다. 그는 알몸뚱이로 그 밀창모를 벼랑의 진구렁바닥에 나뒹굴었으니 그의 눈앞에 조국은 두개로 갈라져있었다.

근세사의 전문가인 그는 현대에로 접근하면서 아래로, 아래로 굴러떨어지던 조국력사의 피눈물나던 내림받이 릉선을 잘 알고있었다.

아버지의 유훈을 저버리고 나라를 팔아먹던 남생 형제들의 추악한 골육상쟁은 비단 1,300여년전의 일이 아니였다. 리승만과 김성수 등으로 변신된 남생과 남산, 남건이 그의 눈앞에서 득실거리고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때때로 혼자 중얼거렸다.

《인걸도 물과 같아서 가고 아니올것인가?》

그가 혼솔에 실밥이 허옇게 드러난 꿰여진 양복을 걸치고 도서관의 배불뚝이난로옆에서 총독부관보를 읽고있을 때 울분이 안개처럼 서리던 가슴에 한가닥 불을 지펴준 전설이 있었다. 백두산에 장수 났다는 그 전설의 출처를 밝히기 위하여 그는 력사가로서보다 민족적숙원을 가지고 일제가 마음대로 외곡해놓은 그 관보를 통해 진실을 찾으려고 모대겼던것이다.

그러나 그가 한점 불꽃을 발견하고 그것이 료원에 번져질 래일을 그리고있을 때 또다시 태초의 암흑과 같은 비참한 조국의 현실이 눈앞에 벌어졌다. 이제 그가 보건대 조국의 최근세사를 화려하게 기록할 전망은 묘연하였다.

환규는 그에게 인간자체의 종말을 귀띔해주었거니와 복잡하게 뒤엉킨 세계정세의 파동속에서 조선은 조선민족자신의 숙원을 무시하고 왕청같은데로 걸어가고있었다. 여기서 그 걸음을 멈추어세울만한 힘을 그는 발견할수 없었다. 그는 현실에 대해 실망하였고 그 끝에 눈을 감고 지나간날의 조국의 발자취를 더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추악한 현실은 그 지난날의 발자욱에조차 추악한 모독행위를 하고있었던것이다.

《실지를 회복한다? 빌어먹을놈들, 실지는 바로 너희 발밑에 있는 이 남조선땅이 아니냐. 나라를 팔아먹지 못해 그렇게도 발광이냐?》

하응은 소리내여 중얼거리며 검은 파도에 대해 화풀이를 하듯 침을 뱉았다.

봄외투를 입고 방수포를 씌운 까나리짐에 기대여 서서 설란이

와 환규가 주고받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래일은 일요일인데 하루 더 묵을걸 그랬어요. 이렇게 스산한 날씨에 돌아갈건 뭐애요？》
《날씨는 앞으로 가나오나 스산할것입니다. 시절이,계절이 그런 때지요.》
환규의 말은 언제나 쓸쓸하고 또 언제나 회의적이였다. 그것은 매번 설란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고 형용할수 없는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했다.
《아니 선생님,정말 어떻게 된단말이애요？ 설마 조선사람끼리 싸운단 말은 아니겠지요？》
《설란씨,설란씨가 끔찍하게 생각한 그것은 오늘날의 이 광란적인 소용돌이속에서는 가장 나쁜 추측이 될수 없습니다. 문제는 더 좀 클는지 모르지요. 그들은 38선을 없애려고 하는데 이것은 아마 조선자체를 없애게 될는지도 모르지요.》
《아니 그들이라니 누구애요？ 38선이 없어지면 통일이 될텐데 왜 그렇게 되는가요？》
《38선을 없애려는 욕망은 조선사람보다 미국사람들에게 더 강한듯합니다.》
《그렇다면？… 아이 난 뭐가 뭔지 통 모르겠어요. 그럼 저 북조선사람들이 가만 있을가요？》
《그들이 가만 있지 않으면…》
환규는 잠시 말을 끊고 더욱 기승을 부리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배는 가랑잎처럼 광란하는 파도에 휩쓸리고있었다.
《비가 오겠군요. 아마 그들이 가만 있지 않으면 그땐 세계가 없어지겠지요.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이 현대의 지렌마지요.》
하응은 무심중 환규의 말을 마음속으로 중얼거려보았다.
《현대의 지렌마？ 참 이상한 사람이군,젊은 사람이… 허지만 미국인들이 리승만이 이상으로 38선을 없애려하고,그렇게 38선이 없어지는 날에는 조선자체가 없어진다는것은 미상불 탁견인것 같군. 재간은 있는 사람인데…》
하응은 문득 고향땅 수향산기슭의 다 허물어져가는 공수암이 생각났다. 그 암자에서 동네아이들이 빈대중이라고 놀려주던 거지중이 어린 하응이를 데리고 그 산기슭에서 한 고려장군이 오랑캐의 침략군을 격퇴하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후날 하응은 그 이야기가

원나라 합단을 쳐물리친 한희유(1291년 5월)의 원수산전투에 대한 이야기라는것을 알았다. 그리고 원수산은 연기땅에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수향산으로 옮겨왔을가 하고 생각했었다. 그것은 어쨌든 어린 그에게 력사에 대한 호기심을 처음으로 키질해주던 그 돌중은 일수 잘 말했었다.

《넌 재주있는 아이다. 우리 조선사람들은 다 그렇게 재주가 있고 용맹이 있는데 어째선지 이렇게 못사는구나. 참 이상한 일이 아니냐?》

그러고보면 그것은 조선민족의 커다란 숙제였는지 모른다.

하응은 저도모르게 봄외투의 앞자락을 풀어헤치며 축축한 해풍을 들이마셨다. 하늘을 바라보니 거대한 고기비늘같은 구름이 겹겹이 널렸는데 별빛하나 새여나지 않았다. 어느 멀지 않은 섬에선지 뚜— 뚜— 뚜— 하고 무적이 울렸다. 얼마후 번쩍하는 비줄기가 캄캄한 바다우를 째고 지나갔다.

《등대다!》

누군가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배가 인천항구로 들어선것은 자정이 지나서였다. 라인홀트호앞을 지나는데 권양기 감기는 소리가 요란하고 음료수 나르는 발동선이 붙어서있었다.

환규는 중얼거렸다.

《흘수선을 보아 아직 짐을 다 부리지 않은것 같은데 벌써 떠날모양이군. …》

세관부두에 들어가니 밤중에는 통행을 시킬수 없다고 해서 부득불 배우에서 밤을 새우게 되였다. 선원들은 모두 선실로 들어갔다. 그들도 어디서나 끼여자라고 선장이 권했으나 몇시간 있으면 날이 밝을테니 그냥 기다리겠다고 해서 세사람은 갑판에 남았다.

내륙지방들에서는 분명 비가 쏟아지고있을것 같았으나 해안선일대는 새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길길이 솟아오를뿐 아직 비발은 듣지 않았다. 세사람 다 하고싶은 말이 가슴속에 가득 쌓여있었으나 웬일인지 하늘이 불안스러워 그저 검은 구름과 무시무시한 기류의 운동을 바라보았을뿐 말은 건늬지 않았다.

그렇게 두어시간이나 지났을 때였다. 세관문이 열리더니 쏜살같이 찌프 한대가 들이닿았다. 뒤따라 스리코터 세대가 바다에 뛰여들듯이 무서운 속도로 달려왔다.

자동차들에서 미군 엠피가 우르르 쏟아져나왔다. 그러자 바다

쪽에서 준설선을 끌고다니던 쾌속예선이 통통거리며 부두로 들어왔다. 바다를 바라보고있는사이 언제 나타났는지 검은 제복을 입은 철도경찰과 수상경찰 그리고 《국군》헌병들이 세관부두에 담을 쌓듯 죽 늘어섰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하응이 저으기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으나 환규는 못들은체 어둠속을 쏘아보고있었다. 환규가 전에없이 입을 다물고있자 설란은 괜히 무섬증이 나서 아버지곁에 다가섰다. 갑자기 하늘에서 폭음이 울려왔다.
《이건 또 뭔고?》
눈에 익지 않은 로키드 하드슨 쌍동전투기 3대가 컴컴한 하늘에 괴이한 동체를 드러내며 인천항 상공을 선회하였다.
《터진 모양입니다.》
환규는 하응이 이미 잊어버리고있는 질문에 비로소 대답을 하며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4시반이로군요.》
《터지다니요?》
설란은 겁먹은 목소리로 물었으나 환규는 또 왕청같은 대답을 하였다.
《보십시오. 옵니다. 첫피난민들이…》
승용차와 찌프가 물밀듯이 세관부두로 쓸어들고있었다. 미국녀자들과 남자들,아이들,세빠드며 포인타종 개들이 삽시에 부두가에 쏟아져나와 무엇인가 소리치고 부르짖고 떠들고 짖어댔다. 이윽고 예선에서 부두가로 발판이 놓이고 뒤따라 《상호해운》에서도 운반선 하나를 풀어놓아 장마당뒤골목같이 소란을 피우며 배들을 탄다.
《이건 이를테면 뭐라는거요?》
하응은 엄한 눈매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소란스러운 광경을 쏘아보며 근엄한 목소리로 물었다. 《선생의 예언이 적중된것인가요?》
《유감스럽지만 그런것 같습니다.》
그들은 미국인들을 가득 실은 예선이 갑판우에 매달린 사람들을 막 내던질듯이 쾌속으로 달려가는것을 바라보았다. 배는 수로부표들을 위태롭게 스쳐서는 이미 주닻을 걷어올리고있는 라인홀트호 배전에 갖다댔다. 뒤미처 《상호해운》의 운반선이 두번째패를 싣고 떠났다.

푸름푸름 날이 밝아왔다. 윤하응일행은 까나리배선장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부두에 올라섰다. 세관문옆에서 한 미국인이 안경잡이 세관직원에게 허리를 구부리고 무엇인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다.

《이건 48도 제품인데 난 늘 출장을 다니고 처는 또 병양하기때문에 차고에 그냥 세워두었던 새 차입니다. 200만원이면 거저가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은 현금을 요구하지만 나야 이렇게 갑자기 불려나왔으니 그런 현금이 있겠습니까？》

미국인은 주먹으로 손바닥을 치며 용단을 내렸다.

《그럼 당신 반지 있습니까？ 금반지？》

《금반지？ 허허허,나야 녀자가 아닌데요. 그러지 말고 그 차를 미국에 싣고 가십시오. 그건 미국에서 가져온것인데 도루 가져가는게 좋지요. 난 그걸 산댔자 처치하기가 곤난합니다.》

그들앞에는 신형 박카드 한대가 문짝이 열려진채로 서있었다.

세관정문에는 세관수위는 뒤전으로 밀려나고 그대신 경관,헌병 그리고 미군 엠피가 출입을 단속하고있었다. 아직 자동차들이 먼지구름을 피워올리며 계속 들이닿았다. 윤하응일행은 샅샅이 몸수색을 당한후 가까스로 양회담벽밖으로 나왔다. 철도경찰서앞 삼거리에는 정복경관들이 렬을 짓듯이 삼엄한 경계망을 늘이고있었다. 세관담벽에는 신문지 두장폭이나 되는 넓다란 종이가 붙어있었다. 그들은 거기서 다음과 같은 글을 읽었다.

포 고 문

단기 4283년 6월 25일 새벽 3시 북한… 공산군은 38선… 국방군진지에 대하여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

1. 주민 각자는 치안유지에 협력하며 경거망동을 삼가할사.
2. 대한민국 국방군을 적극 원호할사.
3. 좌익사상을 선전하거나 그를 비호하는자들을 적발할사.
4. 류언비어를 퍼뜨리는자들은 즉각 처단한다.

…

…

단기 4283년 6월 25일.

제1관구 경찰청장

황 옥

《침략이 3시에 시작됐는데 3시에 벌써 피난민을 실어갈 준비를 해놨다는것도 장하거니와 이렇게 포고문을 작성하고 인쇄해서 벌써 여기다 내붙인걸 보면 황옥이도 말하자면 천재로군. 흠—》

윤하응은 코방귀를 내불며 분연히 걸어갔다.

《선생님, 어찌겠습니까?》

윤하응은 말없이 정거장쪽으로 걸어갔다. 설란은 갑자기 눈앞에 벌어진 어마어마한 사건들에 기가 질려 아버지의 송라처럼 휘날리는 백발을 안타깝게 지켜보았다. 몇걸음을 더 가서야 윤하응은 돌아보았다.

《난 시골에 내려가겠소. 내려갈 핑게가 없어서 못가던판에 차라리 잘됐소.》

《시골에 가시다니? 또 수향산에 들어박힐 작정이십니까?》

《그러지 않으면 어찌겠소? 이판에 서울이야 더욱 소란스러울것 아니요?》

《혹시 일없을지도 모르지요. 사건은 아마 북쪽에서…》

환규는 전같으면 함부로 말할수 있었던 그 말을 이제 막상 전쟁이 터진 이 마당에서는 차마 가슴이 아파 마저 맺을수가 없었다.

《좋도록 하십시오. 난 어쨌든 서울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좋든 싫든 식구들이 거기 있으니까요. 설란씨는 물론 아버님과 같이 가실테지요.》

《아이 어찌나? 옷이랑 책은 몽땅 서울에 있는데…》

《듣기 싫다! 아무리 철이 없기로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나라가 위태한 판에 옷이 무슨 대수냐?》

윤하응은 그렇게도 귀여워하던 딸에게 추상같이 욕설을 퍼부었다. 설란은 노한 아버지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순진한 가슴에 노래를 키워주던 즐거운 요람은 이젠 산산이 깨여졌다. 벌써부터 전쟁의 무서운 파괴력은 그의 안온하던 생활에 커다란 파문을 던졌으니 설란의 희고 아름다운 두볼에는 굵은 줄을 그으며 주르르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 3 편

1

캄캄한 어둠속이였다. 그 어둠속에 비가 쏟아져내렸다. 나무숲이 소리치고 흙탕이 정갱이까지 튀여올랐다.

이 장대비와 어둠으로 하여 하늘도 산도 나무도 길도 아무것도 분간할수가 없었다.

골짜기를 처마처럼 가리우고있는 남쪽절벽너머 하늘이라고 짐작되는 어방에서 번끗번끗하고 화광이 솟구치며 짜르릉짜르릉 우뢰치는 소리가 련달아 들려온다. 실상 그것은 우뢰는 아니였다. 어둠과 비줄기와 그리고 화광이며 우뢰치는 소리속에 전파가 전세계를 향하여 날아가고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무성의 보도.

금 6월 25일 이른새벽에 남조선괴뢰정부의 소위 국방군들은 38선전역에 걸쳐 38이북지역으로 불의의 진공을 개시하였다.

불의의 진공을 개시한 적들은 해주방향 서쪽에서와 금천방향에서와 철원방향에서 38이북지역에로 1키로내지 2키로메터까지 침입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무성은 38이북지역으로 침입한 적들을 격퇴하라고 공화국경비대에 명령을 내렸다. 지금 공화국경비대는 양양방향에서 38이북지역으로 침입한 적들을 격퇴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만일 남조선괴뢰정부당국이 38이북지역에 대한 모험

적전쟁행위를 즉시 중지하지 않는다면 적들을 제압하기 위하여 결정적 대책을 취하게 될것이며 동시에 이 모험적전쟁행위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엄중한 결과에 대한 전적책임을 그가 지게 되리라는것을 남조선당국에 주의시킬것을 공화국 내무성에 위임하였다.

1950년 6월 25일

조국해방전쟁에 관한 공식보도는 적아를 불문하고 이것이 처음이였다. 그러나 추후로 전개된 사변이 엄청난 범위로 확대되였기때문에 호우 쏟아지는 새벽하늘을 날아간 이 전파는 크게 취급되지 않았다. 이 시각에 조금이라도 이 전쟁에 관계를 가진 사람치고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란 있을수 없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물론 그들의 대부분 동료들도 이 준엄한 경고를 못들은척하는것이 편리하였던것이다.

비는 그냥 쏟아져내렸다. 분주히 주파수를 조절하고있는 무선수옆에 붙어서서 반응을 기다리고있던 전학민련대장은 문득 자기가 부질없는 기대를 걸고있다는것을 깨달았다.

조직이래 처음인 전투비상소집신호를 접한 련대는 지금 끓어번지고있었다. 완전전투준비를 갖춘 보병중대들은 일단 대오를 헤쳤지만 군화를 신고 배낭을 멘채 병사안에서 대기하고있으며 포병들은 골짜기로 끌어내다놓은 포차옆에서 비를 긋고있었다.

《련대장동무, 전화입니다. 사단장동지입니다.》

전화수의 흥분한 목소리를 듣자 학민은 얼른 자기 자리로 갔다.

《전학민이 전화받습니다.》

《나 원인걸이요. 어떻소, 전투준비는？》

《다 됐습니다. 지금 형편은 어떻습니까？》

《해주교외로 일부 기여들었다오. 다른데는 대체로 1～2키로선에서 뻗치고있소.》

《해주교외로？ 그럼 어째서 말이 없습니까？》

학민은 책상우에 놓았던 지도에 얼른 색연필로 적이 침입한 지점에 퍼런 표식을 하면서 조용하게 물었다.

《무슨 말이 있겠소？ 가만 있소. 우리 언젠가 말했지？ 저놈들이 주타격을 우리 전연부근이나 개성방면으로 지향할것이라고… 비슷하게 맞은것 같소. 지금 그 어방에서 격전이요. 거기서는 일부 사단들이 이미 전투에 투입되여 경비대동무들과 한데 어울렸다오.》

《허지만 이게 간단히 끝날것 같지 않는데요.》

《누가 끝난다오? 지금 당중앙위원회에서는 정치위원회가 소집되였다오.》

《예?… 알겠습니다.》

《단단히 잡도릴 하오.》

《들었습니다.》

수화기를 놓자 학민은 다시 지도를 들여다보았다. 몇시간전까지만 해도 단순하던 그 지도우에는 벌써 붉고 푸른 전술부호들이 얼룩덜룩해졌다.

참모장과 작전참모는 통신참모옆에 서서 38선부근에서 벌어지고있는 전투소식을 받아쥐고있었다.

《직일관!》

《네!》

앞방에서 아까부터 전화통에 매달려있던 어느 중대장이 흙으로 매닥질이 된 장화를 신고 뛰여왔다.

《도로에 경비소대를 내보내고 정찰소대장을 나에게로 보내시오. 그리고 동무,그 장화는 벗고 군화로 바꿔신소.》

《들었습니다.》

《아침식사는 끝났소?》

《모두 행군준비를 하고 대기하도록 다시한번 주의를 주오.》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화부련대장동무는 곧 련대지휘부로 돌아오라고 련락병을 파견하시오. 아마 포병중대에 가있을거요.》

직일관이 달려나간 다음에 학민은 다시 지도를 마주하고 앉았다.

그러나 벌써 그 무수한 등고선과 부호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조국이 위기에 직면한 이때 그의 머리에는 이 조국의 운명을 량어깨에 걸머지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이께서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계실가? 혹은 정치위원회에서 무슨 중요발언을 하고계실지도 모르지.)

왕청에서 그이를 따라 북만으로 들어가던 때의 일이 생각났다. 그는 그때부터 광활한 중국동북의 밀림속을 누벼다니며 조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그이를 생각하군하였었다. 1936년 일제의 대대적인 공세에 직면하여 남호두에서 군정간부회의가 열렸을 때도 그는 밀림속에서 이렇게 그이가 어떤 결심을 채택할것인지 참을수 없는 궁금증에 각가지로 추측을 해보았던것이다. 그리하여 마

침내 조국에로의 진출이라는 새 전략을 접했을 때 금방 소년기를 벗어났던 그는 손벽을 치며 껑충껑충 뛰였던것이다.

이제 벌써 1년나마를 불안스럽게 생각하며 주시해오던 그것은 이미 현실로 되였다. 그의 눈앞에는 지금 한창 정치위원회가 진행되고있다는 창광산아래 당중앙의 청사가 떠올랐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때 지도를 들여다보고계시였다. 정치위원들의 토론은 그냥 계속되였다. 격분한 목소리도 울리고 침착한 목소리도 울린다. 그가운데는 정세발전에 심중한 우려를 보이는 발언도 있다. 모든 목소리들이 한결같이 긴급한 대책을 세울데 대해 말하고있다.

무척도 엄숙하고 그러면서도 무척 분주할 실내분위기가 느껴진다. 그러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언제나와 같이 책상앞에 반석처럼 말없이 앉아계신다. 펼쳐진 지도우에 깊숙이 고개를 수그리신 그이의 표정은 지금 똑똑치 않다. 부관들과 비서들이 전선에서 들어오는 정황보고와 각 사단의 전투준비상태들에 대해 문건과 전보문과 구두로 보고를 드린다. 책상우에는 산더미같이 문건과 수신지가 쌓인다. 적들의 불의의 진공에 대하여 가혹한 방어전이 전개되고있는 지금 비참한 소식이 들어올수밖에 없다.

중요도시 해주일각에 적들이 침입하고 38연선에서 농가와 주민들이 파괴 사살되고 방금 모내기와 애벌김매기가 끝난 논밭들이 짓밟히는 소식, 용감한 경비대원들이 희생되였다는 참혹한 소식들이 잇달린다.

회의실안에는 무거운 분위기가 떠돈다. 비는 그냥 쏟아진다. 정치위원들의 발언도 이제는 끝났다. 하긴 무슨 긴말이 필요하겠는가? 정세는 오래전부터 오늘의 파국적인 상태를 능히 예견할수 있게 하였었다.

아니, 바로 오늘의 이 사태를 벌써 오래전에 내다보시고 손수 만반의 대책을 세워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다.

회의실 장면을 그려보느라니 어느덧 학민의 눈앞에는 광복직후 평양학원을 내오시기 위하여 애를 쓰시던 장군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광복된 그해가을 그이께서는 몸소 남포에 학원터전을 잡아놓으시고는 인차 유격대출신간부들을 학원으로 보내시였다. 그때 학민이도 그이의 부르심을 받고 남포로 떠나면서 간곡히 타일러주시던 장군님의 말씀을 가슴깊이 새겼었다.

《어느땐가 한번은 그놈들이 침략해올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거니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자기의 군대를 조직하여 통일된 민주조국을 무력으로 담보해야 합니다. 우리가 산에서 싸우면서 그렇게 바라던 정규화군대를 하루빨리 창건하기 위하여 투쟁하시오. 미제와 그 주구들이 어느때 침략해올지 모르는 정세속에서 우리가 팔짱을 끼고 앉아있을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인 예견에 의하여 이미 그이께서 바라시던 강력한 정규화군대가 태여나서 우리 조국을 침범하는 어떤 원쑤라도 쳐물리칠 태세를 갖추고 오늘새벽 그이의 명령만 기다리고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모든 사태발전은 벌써 광복된 그해에 그이의 가슴속에 다 그려져있었던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전쟁이다. 아마도 우리 조국력사에 수많이 있었던, 아니 인류력사에 허다하게 있었던 그 모든 전쟁보다 더 엄혹한 싸움이 될는지도 모른다. 38선일대에 접어든 괴뢰군들뒤에는 다름아닌 미제가 있다. 그러기때문에 현재 진행되고있는 침략행동의 규모는 실상 바다우에 솟아난 빙산과 같아서 그것이 아무리 요란하다 하더라도 어쨌든 물속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크고 본격적일것만은 틀림없다. 그러고보면 이 싸움은 실로 엄청난 싸움이 되기가 쉽다.

그이께서 과연 어떤 결심을 채택하실것인가.

게다가 이것이 막상 전쟁이라고 한다면 모든것이 마음먹은대로 척척 되는것도 아니다. 전쟁력사를 놓고볼 때 일반적으로 침략하는쪽은 언제나 더 잘 준비되여있는것이고 침략을 받는쪽은 설사 일정한 준비가 있다 하더라도 첫단계에서는 어쨌든 곡절을 겪게 마련이다. 앉은자리에서 맞받아치기 어려운것이 전쟁이요, 바로 그점을 타산한것이 오늘새벽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덤벼든것과 같은 불의타격전략인것이다.

오늘이 일요일이라고 해서 늦도록 소풍이나 야유회를 나갈 준비를 하다가 흐린 날씨를 원망하며 늦게사 잠든 청년들, 혹은 2개년인민경제계획의 기한전 완수를 위하여 직장과 민주선전실에서 로력적성과를 이룩할데 대해 결의하던 로동자, 농민들이 잠이 덜깬 눈을 비비고 앉아 저 포소리와 총소리를 들으며 무엇을 생각할것인가？ 그들은 과연 어떤 결심을 채택할것인가？ 바다속에 숨어있는 빙산의 크기를 그들이 충분히 알수 있을것인가？

이때 당중앙위원회에서는 정치위원회가 계속되고있었다.

또다시 전보문이 그이께 전달된다.

그이께서는 조용히 수신지를 받아 읽으신다. 공화국정부의 경고에 대해 적들은 더욱 맹렬한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자기들의 속심을 똑똑히 드러내였다는 내용…

그이께서는 무쇠같은 주먹을 틀어쥐신다. 그러시고는 숨소리를 죽이고 기다리는 회의참가자들앞에 고개를 드신다. 촉높은 전등불빛이 넓은 이마우에 반사된다. 시원하던 두눈이 빛을 뿜는다. 《관동 백만대군》이 몸서리를 치던 그이의 그 눈빛… 마침내 웅글은 그이의 목소리가 새여나온다.

《이 이상》

하고 그이께서는 드놀지 않는 자세로 일어서시여 이 아침에 모든 조선인민의 가슴에 불타오르는 그 한마디 말, 온 세상에 보내는 조선사람의 선언을 대변하신다.

《이 이상 더 참을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놈들의 침략을 격퇴할뿐아니라 즉시 반공격으로 넘어가서 우리 조국의 통일독립을 가로막고있는 기본장애를 쳐없애야 하며 남반부인민들을 해방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명한 즉시반공격에 관한 전략사상을 반영하고있는 이 결론의 말씀은 그대로 오랜 세월 억눌려 살아오던 조선인민이 새시대를 향하여 비약하려는 절절한 세기적숙망을 대변하신것이기도 하였다.

…문득 급히 다가오는 발걸음소리에 학민은 고개를 들었다.

《련대장동무, 저 식량은 어떻게 할가요? 아침식사는 끝이 났는데.》

《어떻게 하다니? 후방부련대장동무는 전투비상소집에 대한 규정을 모르시오?》

학민은 예기치 않았던 비상사태에 부닥치여 저으기 당황한듯한 부련대장의 후줄근해진 얼굴을 마주바라보았다.

나이 지긋한 부련대장은 게면쩍은듯 시무룩이 웃으며 중얼거렸다.

《그래도 저 식당은…》

《가마를 뽑고 인차 행군대렬을 편성하시오. 량식관리장에게 곧 량식을 수송할 대책을 세우며 각 특무장에게 야전취사장을 꾸릴 대책들을 세우게 하시오. 이것은 훈련이 아니요.》

통신참모가 뛰여왔다. 뒤따라 참모장과 작전참모도 달려들었다. 학민은 벌써 사태를 짐작하고 무선송수화기를 들며 수첩과 지도를 펼쳐놓았다. 그러나 예견했던 전투명령은 아니였다. 사단참모

장의 쨍쨍한 목소리가 다음과 같이 소리쳤다.

《련대는 참모장의 지휘하에 행군서렬을 편성하여 동××계선으로 급속히 진출시키고 련대장은 10분이내로 즉시 사단지휘부로 나오시오. 지금 사단지휘부는 대도로변 전 하곡리 민주선전실로 이동중이요.》

학민은 송수화기를 놓고 참모장에게 사연을 말한 다음 마침 들어오는 문화부련대장에게로 돌아섰다.

《곧 련대는 떠날것이요. 문화부련대장동무는 후방부의 일을 좀 도와주시오. 이 량반들은 밤낮 특별식사를 만드는데만 정신이 팔려서 잘못하다가는 우리 전사들을 굶길지 모르겠소. 운전수, 가기요.》

윌리스는 억수로 쏟아지는 비속을 뚫고 대도로를 향하여 쏜살같이 달렸다. 산너머에서는 포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자동차가 산모퉁이를 도느라고 속도를 늦추자 골짜기안에서 부릉부릉하고 발동거는 소리에 섞여 참모장의 우렁찬 구령소리가 들려왔다.

2

전학민련대가 포천계선에 진출했을 때 전연은 이미 반공격명령을 접수한 인민군부대들에 의하여 교체되고있었다.

전선으로 이동중인 사단지휘부에서 전투명령을 접수한 학민은 곧 행군중인 자기 련대를 따라잡았으며 인차 구분대장회의를 소집하였다. 사단지휘부에서 접수한 명령에 의하면 사단은 반공격의 주력집단에 속하게 되였으며 우선 적들의 공격시도를 좌절시키고 전쟁의 주도권을 탈취하며 23키로의 전선에서 저항하는 적들을 소멸함으로써 포천을 해방하고 특히 대도로를 장악하여 전차와 중무기들의 진출로를 보장해야만 하였다. 린접은 주타격집단에 망라된 사단들로써 비슷한 넓이의 전선을 담당하여 일거에 의정부, 서울 방향으로 진격하게 된다는것이였다.

도로에는 황급히 명령을 접수한 부대들이 물밀듯이 밀려들고 있었다. 특히 혼잡을 이룬 네거리에 경무원들이 차단소를 설치하고 조절근무를 서고있었으나 혼잡을 막을수는 없었다.

군단포와 사단포를 끈 자동차들이 잇달렸으며 보병대렬이 반달음을 놓고 지나갔다. 전선쪽에서 부상을 당한 경비대원들이 후송돼왔다. 들것에 실려가는 그들가운데서는 신음소리가 들려오는가

하면 지나가는 인민군대를 향해 《동무들, 원쑤를 갚아주게.》하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다.
학민의 윌리스는 어느새 반격의 노도속에 휩쓸리고말았다.
《보병들은 물러서! 물러서라는데. 포차들 앞으로! 동무네는 뭐요?》
차단소열을 일렬종대로 늘어서서 슬쩍 빠지려던 20여명가량되는 대렬이 경무관에게 붙들렸다.
《어디로 가오? 귀구멍이 멨소? 저리 물러들나시오.》
《우린 전선으로 가는길이요.》
선두에 섰던 지휘관이 넉살좋게 말하자 경무관은 발끈해서 소리쳤다.
《누군 후방으로 가는줄 아오. 포병을 먼저 통과시키라는 보위상동지의 명령이요.》
《그래도 우리가 먼저 가야 할걸.》
희슥희슥한 어둠속에 뒤로 손짓을 하여 대원들을 슬슬 빼돌리면서 검질긴 군관이 응수했다.
《그래 동무들이 대체 뭐요?》
경무관이 어이없는지 이렇게 물었다.
《우린 특별정찰이요! 수고하시오.》
마침 대원들이 다 빠져나갔기때문에 지휘관은 경례까지 하고 떠나버렸다.
《특별정찰? 별놈의 정찰이 다 있군.》
어디서 들은듯한 말이였으나 혼잡통에 머리가 뗑해진 경무관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어쨌든 이 엄청나게 변한 세상에 특별한게 좀많으랴하고 더는 시비를 걸지 않았다.
마침 학민의 련대가 나타났다.
경무관이 윌리스옆에 달려와서 《어느 부댑니까?》하고 물었다.
《수리개요.》
학민의 대답에 경무관은 《수리개, 수리개.》
하고 외우며 수첩을 펼쳐보더니 한걸음 뒤로 물러서면서 경례를 붙였다.
《통과하십시오.》
윌리스는 얼마를 못가서 아까 그 《특별정찰》을 따라잡았다. 선두에 서서 반달음질하던 지휘관은 옆을 지나가는 학민의 차를 보더니

《호르르 꾀꼴.》

하고 새소리를 내였다. 진창과 행군대오들로 혼잡을 이룬 대도로우에서 난데없는 꾀꼴새소리를 들은 학민은 저도모르게 고개를 내밀었다. 그러자 옆에 앉았던 부관이 언짢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단정찰입니다. 싱거운 사람들…》

《흠, 저 오덕칠동무가 늦잠을 잔 모양이군.》

…첫 전투는 밤새 퍼붓던 비가 점점 뜸해지면서 날이 훤히 밝아온 이른새벽에 진행되였다. 적들이 포탄으로 파헤쳐놓은 부락을 지나서 들판에 나서자 적탄이 날아왔다.

들 저끝에 도랑물같은 림진강의 상류가 흘러가는데 그 강 건너편 저쪽구릉에 황급히 쫓겨간 2내지 3개 대대 가량의 괴뢰군들이 모여들고있었다. 이쪽에서는 이미 적지 않은 희생을 입었으나 평소의 경각성있는 전투준비상태로 하여 최소한도의 선에서 적의 침공을 저지시킨 용감한 경비대원들이 필사적인 공세를 취하고있었다. 첨병구분대장으로부터 경비대동무들을 통해 장악된 적정을 보고해왔다.

급급히 방어로 이전한 적들의 약점을 간파한 학민은 윌리스를 대도로변에 세워둔채 련대를 강가에 전개시켰다. 숨쉴 틈을 주지 않고 다그쳐야 할것이였다. 선자리에서 정황을 판단한 그는 각 구분대장들을 불러 강가로 현지정찰을 나갔다.

물이 찰랑찰랑 괴인 논들에 제법 좋아진 벼포기들이 아직 부슬부슬 내리는 비속에 장난이라도 치듯이 설렁거리고있었다. 논판 한쪽으로 치우쳐서 새하얗게 회칠을 한 반듯한 농가들이 십여호 모여앉았는데 그우에 우중충 그늘을 드리운 늙은 느티나무숲에서는 비안개속에 불길이 치솟고있었다. 논길 한가운데 달구지가 거꾸로 박혀서 허공에 쳐들린 바퀴가 몸부림치듯 혼자 돌아가고있다.

논두렁이 끝나자 파헤쳐진 반영구화점이며 허물어진 전광형전호와 포진지들이 나타났다. 방금 지나간 격전을 말해주듯 아직 식지 않은 탄피들이 풀밭에 나딩굴고 무엇이 타는지 매캐한 연기와 화약냄새가 떠돌았다.

《여기가 38선이로군. …》

학민은 경계선을 엇비듬히 째고 나간 도랑가의 버들숲에 서서 남쪽을 바라보았다. 지도에는 표고 250으로 기록되였으나 평지에 솟아서 그런지 제법 험하게 보이는 산이 전면 500메터 거리에 솟았

는데 남서로 뻗은 그 릉선과 골짜기들에 방어시설을 다그치고있는 괴뢰군들의 모양이 얼른거렸다.

대도로는 그 산 한중간 잘룩한 골짜기를 째고나갔다. 지금 그 좌우릉선에서 교차화력이 강가로 집중되였고 산너머 화력진지라고 짐작되는곳에서는 강가로부터 골짜기까지의 협소한 지대에 맹렬한 포사격을 퍼붓고있다. 산릉선이 끝나는 남서쪽 후미진곳에 찌그러져가는 초가들이 몰켜앉았는데 그속에 몇채의 함석지붕과 기와집이 끼워 한 절반 산에 가리워져있었다.

그 우측은 다시 야산들이 엇달렸으나 정황이 모호하고 다만 훨씬 먼곳에서 맹렬한 포격소리가 들려올뿐이다. 북동쪽은 좁다란 개활지대끝에 산줄기가 뻗어나갔다. 한때는 기름졌을 그 개활지대에 지금은 잡초만 무성한데 변두리에는 버들숲이 울창하였다. 사변이 있기전부터 학민이 료해한바에 의하면 그 버들숲에 놈들의 강력한 기계화보병들이 집결돼있었다.

《저 농가들쪽이 약한것 같군요.》

좀 덤비는 편인 1대대장 황은식이 당장 자기를 그리로 보내달라는 투로 말하였다.

《도로를 내주지 않으려고 가까이 얼씬거리지 못하게 할 심산인것 같습니다.》

참모장이 쌍안경으로 계속 적진을 감시하며 말하였다.

《좌측 단애 좌우에 두개의 중기화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보기에는 저 개활지대 버들숲이 수상하군요.》

학민은 굵은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버드나무에 한손을 짚고서서 한동안 말없이 서있었다. 날은 훤하게 밝아왔다.

저 먼 남쪽들판과 산들이 점점 선명하게 드러났다. 위험을 눈치챈 까마귀가 누구에겐가 부고를 전하듯 까욱까욱 울며 남쪽으로 날아갔다.

대대장들은 연방 시계를 들여다보며 학민의 얼굴을 지켜본다. 그 시선을 온몸에 느끼며 학민은 묵묵히 대도로를 바라보고 섰다. 비개인뒤의 청신한 바람이 차분하게 가라앉은 거무스레한 대도로를 스치고 지나가면 뿌듯하게 두터워진 나무잎이며 풀대들이 무겁게 설렁거린다. 빼곡이 서있는 동쪽산맥의 틈새기로부터 우중충한 구름을 뚫고 한가닥 해빛이 뻗쳐나왔다. 좁다란 그 빛줄기는 외롭지만 강력하였다. 아직도 물안개가 상처받은 대지를 어루만지듯 낮추 떠도는 풀밭에서는 갑자기 수천개의 이슬방울들이 반짝거렸다. 그러나 다시 싱그러운 바람이

한번 지나자 풀들도 나무잎도 그리고 무한궤도와 차바퀴자국이 어수선한 길도 모두다 숨가쁜 긴장속에 정적을 가장하고 누웠다.

학민은 알릴듯말듯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그의 시선은 점점 멀리로, 단조롭게 서있는 리정표와 아카시아가로수를 따라 삿갓처럼 삐죽한 봉우리와 그 바른 편 기슭에 잇달아 둥그스름한 봉우리가 맞붙은 잘룩한 골짜기로 뻗어갔다.

길은 밋밋한 곡선을 그으며 고개너머로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학민의 시선은 그냥 멀리로 뻗어간다. 눈앞에 보이는 길은 산과 고개에 가리워졌다. 그보다도 더큰 거리라는 장애가 가리우고있다. 그래도 길은 어쨌든 뻗어있다. 서울로! 부산으로! 더 아득한 남해끝까지… 그 멀고 아득한 길이 학민의 머리속에 끝없이 펼쳐지는것이였다.

언젠가 학민은 그 길을 걸었었다. 그때는 아직 길들은 좁고 가로수도 없었다. 산기슭을 끼고 도는 그 길가에 앉아 쬐꼬만 미투리를 벗고 부르튼 발을 쉬면 마주선 산기슭에 《인단》광고며 《산불조심》이라는 새하얀 글자판들이 서있었다. 그 《인단》광고에 그려진 요란한 모자를 쓰고 배가 바가지통 같던 훈장 단 사나이가 네살난 학민에게는 부러웠다. 그만큼 길을 걷기가 힘들었다. 정 힘들어하면 아버지가 이불짐우에 덧놓은 일가의 살림살이가 다 들어가있는 솔표석유궤짝우에 올려놓아주었지만 아버지의 휘청거리는 발걸음에 따라 마구 흔들리는 멜빵을 잡고있는것도 청산에 편안히 서있는 그 사람팔자보다는 못하였다. 길을 따라가면 시내가 나타나고 어느덧 황혼이 스며든다. 강가에 호박통처럼 굴러있는 돌가운데서 그을은 돌을 찾아낸다. 그것은 앞서간 길손들이 밥을 지어먹은 돌가마자리였다.

어머니는 바가지를 들고 강가로 내려가고 아버지는 마른 풀이며 큰 물에 떠내려온 삭정이며 검부레기로 불을 지핀다. 길가에서 따가지고 온 들깨잎이며 산나물들을 넣고 끓이다가 김이 오르면 풀주머니만한 자루에서 기장이나 좁쌀을 한웅큼 집어 소중히, 천천히 떨어뜨린다. 죽이 끓기도 전에 학민은 돌을 베개삼아 코를 곤다. 꿈에는 또다시 길이 나타난다. 걸어도 걸어도 끝없는 길, 발바닥이 델것 같은 뜨거운 여름길, 눈보라 휘몰아치는 차디찬 길…

학민은 그러한 길을 걸어 북간도로 갔었다. 아버지는 걷다가 돈벌이가 생기면 철도공사장에서 한달, 금전판에서 한달, 가을걷이에 보름… 이런 식으로 품을 팔고 밥을 벌었다. 학민은 무시로 아버지를 잡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졸랐다. 집에 가서 편히 잤으면 좋겠다고 어머니를

못살게 굴기도 했다. 그러면 아버지는 이미 머나먼곳에 있는 남쪽고향을 바라보며 《이제 집으로 간다. 네가 길을 잘 걸어야 집으로 가지. 아버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고향에 돌아가자.》하고 얼렸었다.

왕청땅에 이르러 그런대로 말짱을 박고 움막같은 집이나마 짓고 들어앉게 되자 이번에는 학민이보다 아버지가 고향에 돌아갈 이야기를 더 자주 하였었다.

그때마다 학민은 그 머나먼 길을 생각하고 자기의 조그마한 발을 내려다보았었다. 아버지는 올해는, 래년에는 하고 별렀지만 끝내 고향길로 떠나지 못하고말았다. 어머니도 왕청땅에 묻혔다.

이제 학민이 혼자 살아남아 그 아득한 길을 바라보고 섰다.

고향길—그는 자기 고향이 어딘지, 출생지가 어딘지, 본적지가 어딘지 모른다. 문건에는 두 부모가 작고한후에 어린 그를 아동단시절까지 말아길러준 이웃집 늙은이의 고향 함북땅이 적혀있었다. 그러나 머리에는 력력히 돌가마자리가 남아있는 장기슭을 지나 길손들의 머리때가 반들거리는 목침이 여기저기 굴러있는 주막집에 이르던 길, 실그러져가는 어느 무던한 길가집 웃간의 거물거리는 등잔불밑에서 건들건들 졸며 그려보던 래일 걸어야 할 길—어딘가 한끝은 고향에 이어져있을 그 고달픈 길이였다.

이제 그는 그 길앞에 서있다. 부모를 왕청땅에 묻고 홀로 서있다. 그러나 얼마나 가야 할 사람이 많은 길인가? 얼마나 와야 할 사람이 많은 길인가? 그리하여 지금 학민은 수만 강철의 대오와 함께 이 아침 삼남에로 뻗은 대로앞에 서있는것이다.

주타격을 어디다 가할것인가? 가장 약한 저 남서쪽 농가부근에 지향한다는것은 일반전술의 측면에서는 타당할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삼남에로 뻗은 저 길을, 놈들이 저희네 아성으로 만들어놓은 서울로 통한 저 길을 쳐야 할것이다. 치되 다시는 이 세상에서 조선인민의 치욕으로 될 그 갖가지 추잡하고 범죄적인 행위를 더는 못저지르도록 문질러버려야 할것이다. 원쑤들이 전쟁으로 우리의 혁명성과를 위협하였으며 우리의 혁명적의지를 시험한 이상— 좋다! 우리의 결심은 이미 20년전부터 명확했다. 백두산기슭에서부터 시작된 조국에로의 진군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남쪽절반땅에 아직 해방해야 할 인민이 있다는것을 한시도 잊지 않았고 그때문에 신들메를 여직 풀지 못하고있다.

참으로 이 아침에 학민이가 바라보고 선것은 어떤 간고한 시

련을 겪는 한이 있더라도 마침내 걸어가지 않으면 안될 조선인민의 통일에로의 길,미래에로의 길이였는지도 모른다. 비록 바다우에 떠도는 빙산과 같이 눈앞에 나타난 원쑤보다 몇갑절 더 크고 간악한 원쑤가 바다속에 숨어있다 한들— 그것은 아무리 끔찍하더라도 움직일수 없는 사실이였다.— 우리에게 혁명적열정으로 불타는 심장이 있는 한 어떤 빙산인들 녹여내지 못할것인가?

《동무들,나는》 학민은 지도를 짚으며 말했다. 《놈들이 서울로 가는 우리 진로를 불허하려는 저 골짜기에 주타격을 가할것을 결심하였소. 왜냐 하면 우리는 저놈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섬멸함으로써 남진하는 우리 전사들의 앞길을 다시는 가로막지 못하게 해야 할것이기때문이요. 이미 말한바와 같이 우리에게는 시간이 귀중하오. 미국놈들이 달려들기전에 서울부근에 집결된놈들의 집체를 포위섬멸하고 일거에 남조선 전역을 해방해야 하오. 좋은 길을 우리의 전차들과 포병들과 기계화부대들에 제공하고 우리뒤를 따라올 정치공작원들을 위해 마련해야 하오.》

지도를 만지작거리며 긴장되여있던 지휘관들의 얼굴에 새로운 긴장과 함께 웃음이 떠올랐다.

두문의 중기가 짖어대는 단애를 《복사뼈바위》,좌측봉우리를 《둥근봉》,우측봉우리를 《삿갓봉》이라고 이름지었으며 대대간 전선경계를 정하였다. 남서쪽릉선끝에 선 침엽독립수는 《십자가》, 북동쪽 버들숲은 《공동묘지》 등등으로 암호와 약속을 정하였다. 지휘관들은 자기 지도우에 부호와 구분대간 전선경계를 표식하였다.

《련대장동지,저에게 저 〈복사뼈바위〉를…》

앙바틈한 1대대장 황은식이 다시 선참 들고 나섰다.

《동무가?…》

키가 큰 3대대장 위병수가 깔보듯이 반문하더니 다분히 훈시조로 말하였다.

《련대장동지가 저걸 〈복사뼈바위〉로 이름지은건,알겠나? 자네 발목에서 복사뼈를 뽑아버리면 자네가 어떻게 되겠나? 궁둥방아를 찧고 주저앉을테지? 하긴 자넨 앉으나 서나 그 모양으로 같은 난쟁이지만 말이야.》

《저리 비켜! 련대장동지!》

《주타격은》 학민은 엄숙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2대대장의 지휘하에 진행될것이요. 1대대장은 1중대와 2중대를 2대

대장에게 넘기고 나머지 인원을 데리고 나의 예비대로 남으시오. 3대대는 현재 전개한 계선에서 곧장 돌격하여 촌락을 장악한 다음 성과를 고지후면으로 확대하시오. 련대의 일체 포화력은 2대대장을 지원하여 〈복사뼈바위〉를 뽑아던지시오. 폭로된 익측이 없는것만큼 적의 주방지대를 돌파하기까지 불의의 정황이 조성될수 있소. 그러니 지휘통신에 특별히 류의해야겠소. 나의 위치는 〈시(ㅅ)시간〉까지는 여기,주방지대돌파후는 〈둥근봉〉남쪽릉선,시계를 맞추기요. 지금 6시03분이요. 〈시(ㅅ)시간〉은 6시40분,포병준비사격은 20분에,돌격신호는 청색신호탄 세발— 알아들었소?》

지휘관들의 힘찬 대답소리를 들은 학민은 야전수첩에 련대장의 명령내용을 기입하고있는 참모장에게로 돌아섰다.

《내 생각에는 저 버들숲은 진짜 공동묘지요. 저놈들이 새벽에 대도로로 기여나와 우리에게 접어들었을테니 지금은 아마 도로주변 어디에 쫓겨갔을거요. 저 산뒤에서 넘어오는 포탄이 그놈들 작간이 틀림없는것 같소.》

명령을 받아쓰면서도 젊은 련대장의 기도를 의아스럽게 생각하고있던 참모장은 그 말을 듣자 감탄하여 고개를 끄덕거렸다.

로출된 개활지대였기때문에 전사들은 비발치는 적탄속을 뚫고 출발진지들을 차지하였다. 훈련은 받았지만 대부분 실전을 체험해보지 못한 그들은 아직 전쟁의 진미를 몰랐다. 그저 가슴속에 두고두고 별러오던 울분이 폭발하여 퐁—퐁—하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풀대를 잘라눕히는 그 소리가 얼마나 무시무시한것인지 전혀 느끼지 못하는듯 마치 노루사냥에 나선 모리군들처럼 신이 나서 와—와— 내달렸다.

입이 부르튼것은 첫싸움에 대원들을 남에게 빼앗기고 예비대로 잡힌 1대대장 황은식이였다.

《재수가 없을밖에… 더러운 소리로 울더니…》

그는 어딘가로 날아가버린 까마귀를 두고두고 저주하며 겨우 자기 지휘하에 떨어진 한개 중대 전사들을 버들숲에 은폐시켰다.

시사소리가 몇번 울리더니 강가와 동네 앞 언덕주변에 설치된 포진지에서 불을 토하기 시작했다. 꽝! 꽝! 꽈르릉! 꽝!

그러자 휘유—휴—퍽—구르릉—하고 정체모를 소리가 온 하늘에 가득찼다. 《둥근봉》 꼭대기에서 연방 불길이 치솟고 《복사뼈바위》도 포연과 흙먼지에 휩쓸려버렸다.

천지가 흔들흔들하는 포성속에서 전사들이 어린애들처럼 환성을

올렸다. 참고참아오던 분노가 마침내 터지고만것이다. 참으로 그 포성은 그들의 분노의 폭발처럼 적진을 시원스럽게도 두들겨댔다. 내내 두덜두덜하던 황은식의 입가에도 히죽이 웃음이 떠올랐다.

포사격이 아직 끝나기전인데 돌격선이 먼 2대대는 벌써 강을 넘어 적들의 포사격이 잠잠해진 틈을 타서 재빨리 집중사격구역을 극복했다.

학민은 시계를 들여다보며 약진해가는 전사들의 꿈틀거리는 공격서렬을 바라보았다. 6시25분,6시28분,6시32분… 2대대는 산기슭에 다달았다. 무선기가 찌르릉하고 울렸다.

《수리개,수리개,수리갭니까? 7번이 보고합니다. 소나무 전원 돌격선에 도착,전투준비완료,이상입니다.》

학민은 3대대장의 침착한 목소리를 듣자 련락병에게 손을 내밀어 신호총을 받아들고 물었다.

《정황은 어떻소? 전면에 적정은 없소?》

《얼마전까지 방어공사를 하는놈들이 〈십자가〉부근과 촌락부근에 얼씬거리더니 지금은 잠잠합니다. 벌써 〈십자가〉밑에가 누운 모양인지요?》

《실없는 소리 하지 마오. 전화결에서 떠나지 말고 놈들의 좌익을 잘 감시하시오. 곧 〈시〉시간이요.》

그렇게 신중히 짜고 준비한 싸움이였으나 전투는 신호탄이 오르자 눈깜짝할사이에 끝나고말았다.

《만세!》

《만세!》

산을 뒤흔드는 함성과 수류탄 터지는 소리,콩볶듯하는 사격소리가 한동안 교차되더니 2대대는 포병들이 산산이 파헤쳐놓은 《둥근봉》과 《복사뼈바위》를 일거에 돌파하였다. 그런데 《삿갓봉》정점에 은페된 화점이 있어서 우측릉선에서는 혼전이 벌어졌다.

한편 3대대장은 뜻밖에도 《십자가》부근에서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맹렬한 사격전을 벌리고있었다. 3대대 전사들은 돌격을 저지당하여 전호들을 파기 시작하였다.

《촌락에 3문의 중기가 있고 〈십자가〉에서도 경기화력이 세찹니다. 좀 바쁩니다.》

《쓸데없는 소리,우익에는 적정이 없소? 우익에 적정이 없는가말이요? 옆으로 날아오는 총알은 없소?》

《앞의것만 해도 넉넉한데요. 옆은 산기슭에 고삐를 끊고 소 한

마리가 달아납니다.》

《뭐 소가 달아나다니? 어디로 달아나오? 짐은 실었소?》

비발치는 적탄아래 누운 전사들이나 전투정황에 대해서보다 소에 대해서 더욱 흥미를 느끼는 련대장이 의아스럽게 생각된 3대대장 위병수는 약간 풍자적으로 대답하였다.

《짐은 유감스럽게도 없군요. 고삐를 질질 끌며 176고지릉선으로 내뺍니다.》

《좋소. 그럼 동무들, 전연이 바로 놈들의 좌익이라는것이 명백하오. 동무는 지금 즉시 7중대와 8중대를 데리고 그 소뒤를 따라서 좌측 〈삿갓봉〉 후면으로 포초하시오. 알겠소? 9중대는 촌락을 계속 공격할 것! 그리고말이요, 한사람을 떼내서 그 소를 붙잡소. 혼전통에 어떻게 될지 알겠소? 잡아두었다가 주인을 찾아주도록 하오. 알겠소?》

학민은 3대대장의 복창이 끝나기전에 송수화기를 놓고 《1대대장!》하고 불렀다.

《네!》

황은식은 총소리가 자지러지는 독립수와 촌락을 바라보며 당장에라도 달려갈 자세로 학민의 앞에 섰다. 그런데 학민은 다시 송수화기를 들더니 2대대장을 찾아서 소리쳤다.

《〈삿갓봉〉에 대해 돌격을 계속하시오. 2참호는 극복됐소? 좋소! 이제 예비대를 곧 보낼테니 손을 늦추지 마오. 숨쉴 틈을 주지 말고 계속 다그치오. 련포군이 고지후면을 갈겨줄테니 〈삿갓봉〉을 극복하거든 즉시 성과를 종심으로 확대하면서 나에게 보고하시오. 동무들이 포진지를 소멸할 때까지 전체 련대포가 계속적인 부동조애사격으로 동무들의 진격을 보장할것이요. 고지후면대도로를 장악하거든 3대대와 협동하여 패잔병은 버리고 도로를 따라 차후임무계선까지 진출하시오!》

수화기를 놓자 학민은 벌써 총소리가 한결 수그러진 《삿갓봉》을 가리키며 황은식에게 소리쳤다.

《가시오! 련대전투의 승패는 동무들이 얼마나 빨리 달리는가에 달렸소!》

1중대가 맹렬한 속도로 달려나가자 학민은 포병지휘부를 찾아서 《삿갓봉》후면을 계속 갈기라고 명령한 다음 벌써 싸움이 다 끝나기라도 한듯 손수건으로 이마를 훔치며 참모장을 돌아보았다.

《첫싸움이 괜찮게 되는것 같소. 부관동무, 운전수에게 곧 출

발준비를 시키시오. 그리고 내 배낭속에서 그 담배를 한통 꺼내 주시오. 이거 담배를 너무 피운단말야. 하하하.》

통쾌하게 웃는 학민을 바라보며 참모장은 어안이 벙벙한듯 침을 꿀꺽 삼켰다.

학민은 부관이 내미는 담배갑을 찬찬히 찢더니 한대를 뽑아 입귀에 갖다 물며 말했다.

《그 황소가 참 그럴듯한 발견이요. 난 아무리 쌍안경으로 살펴도 그놈을 못발견했는데, 허허허, 이제 위병수동무가 그리로 껑충껑충 달려가고 〈삿갓봉〉까지 떨어지면 저놈의 〈십자가〉는 제절로 허물어질게요. 옳지, 1대대장이 빠르긴 빠르오. 운전수, 〈둥근봉〉으로!》

학민은 불을 켜대려던 담배를 뽑아서 다시 담배갑에 집어넣더니 참모장과 부관을 끌다싶이 윌리스에 올라탔다.

돌격의 함성은 벌써 골짜기후면에서 들려오고있었다. 학민은 파헤쳐진 도로를 따라 쏜살같이 내달리는 차안에서 다시 담배를 꺼내여 가까스로 불을 붙이며 중얼거렸다.

《이놈들, 갈수록 더욱 크고 련속적인 타격을 줄것이다.》

《갈수록…》

무심중 받아외운 참모장은 비로소 첫 전투에서 련대장이 보여준 령활한 지휘와 전술적타산의 본질— 그 기본사상을 깨달았다. 그것이야말로 **김일성**장군님의 즉시적반공격전략의 밑바닥을 꿰뚫고있는 사상이였다.

《련대장동무! 황은식동무를 예비대로 장악한 의도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뭐, 그 동무가 성급하고 또 3중대가 행군을 잘한다는것은 전사단이 다 아는 일이 아니요?》

학민은 담배연기를 내뿜으며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7시 5분전이였다.

《둥근봉》 남쪽릉선에 서자 훤한 개활지대가 나타났다. 대도로우에는 벌써 어디로 잦아들었는지 적들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고 다만 길량쪽 논발에 까투리새끼처럼 살살 기는 개별적인 패잔병들의 모습이 까만 점으로 얼른얼른할뿐이였다. 《공동묘지》 버들숲과 촌락쪽에서 제2대대전사들에 의해 어느새 굴비두름처럼 엮인 포로병대렬이 웅성거리는데 수색전투는 아직 계속되는 모양 웨치는 소리, 아우성소리, 만세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왔다. 간간이 기관단총소리도 자지러지게 들려온다. 대도로우에는 너무나

놀라서 문득 멈추어선듯한 미국제화물자동차 몇대가 주저앉아있고 더좀 멀리에는 무엇인가 활활 불타고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차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큰 기름벌레같기도 하였다.

아군전사들은 어느새 지적된 계선인 아슴푸레 가물거리는 야산기슭과 그앞 촌락에서 다시 공격서렬을 편성하느라고 분주히 뛰고 닫는것이 간신히 쌍안경시야에 들어왔다. 통신이 결속되자 인차 전투보고가 들어왔다.

수색전투도 멎은 모양 괴괴해지는 싸움터에 갑자기 아침해살이 눈부시게 비쳐들어 어수선한 결전의 흔적을 샅샅이 드러내놓았다.

심중한 낯빛으로 전화를 받고있던 학민은 문득 말하였다.

《어째서 다란말이요? 또 한가지 명령은 어떻게 됐소?》

《네?》

전투가 멋있게 된것으로 하여 저으기 흥분한 목소리로 보고를 끝마친 3대대장 위병수는 련대장의 이러한 말에 갑자기 어리둥절한 모양 외마디 반문을 하였다.

《전투는 잘됐소. 그런데 소는 어떻게 됐소?》

학민은 가볍게 혀를 차며 일깨워주었다.

징— 하는 전류 흐르는 소리속에 납덩어리같이 무거운 침묵이 실려왔다.

《왜 말이 없소? 그 명령은 까먹었소?》

학민이 조용히 재촉하자 《아닙니다.》하는 3대대장의 푹 가라앉은 목소리가 가까스로 들려왔다. 커다란 키를 엉거주춤 구부리고 황소눈같은 커다란 눈을 꺼벅거리며 정신없이 서있는 위병수의 모습이 학민의 눈앞에 선히 떠올랐다.

《어떻게 됐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붙잡지 못했답니다. 후에 보고를 하는데 소는 놀라서 뛰여다니다가 결국 적탄에 맞았답니다.》

《흠—》

이번에는 학민이 깊숙이 고개를 떨구었다. 또다시 전류 흐르는 소리가 징— 하고 울려왔다. 한참이나 지나서야 학민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첫째로 잘못은 나에게 있소. 동무가 그 명령이 어떤것인지 리해하도록 똑똑한 명령을 주지 못한 나에게 책임이 있소. 다음은 동무의 책임이요. 동무는 어쨌든 명령을 불성실하게 집행했소. 특히 인민의

리익에 대해 그런 소홀한 태도를 취한것은 남반부인민들을 해방하려는 우리 전쟁목적에 비추어볼 때 대단히 엄중한거요. 나는 동무의 문제를 당회의에서 토의하도록 제기하겠소. 동무가 과오를 철저히 뉘우치고 시정하지 못한다면, 단단히 듣소. 동무는 이 전쟁에 참가할 자격이 없소.》

통화가 끝난후 학민은 무겁게 허리를 일으켰다.

전투는 예상외로 훌륭하게 진행되였으나 가슴은 무거웠다. 물론 3대대장의 직접적인 잘못으로 하여 소가 죽은것은 아니고 그저 미련한 짐승이 놀라서 달아나다가 적탄에 맞은데 불과한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소임자는 손실을 보았다. 남조선인민들의 리익을 옹호하러 가는 군대가 그럴수는 없는것이다.

학민은 갑자기 송수화기를 들어 후방부를 찾았다. 그리고는 촌락쪽에 사람을 내보내여 적탄에 맞은 소를 찾아내도록 할것과 소임자를 찾아서 죽은 소대신에 오늘 잡기로 된 후방부의 소를 바꾸어주고 죽은 소를 후방부에서 리용하도록 하라고 지시를 주었다.

박인엽중령은 이른새벽 어느 전선에서보다 먼저 공격을 시작했다. 그러나 완강한 경비대의 저지선에 걸려 2시간이상 악전고투하다가 겨우 민삼랑의 대대를 서해주교외 한끝에 침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사단본부에서는 신경질적으로 돌격하라고 독촉하였다. 때마침 좌익 2대대에서 측면에 강력한 적집단이 나타났는데 포화력으로 보아 인민군대같다는 황급한 보고를 보내왔다. 인엽의 신경은 날카롭게 곤두섰다. 그는 손수 무선기옆에 앉아 린접부대들과 형 박선엽을 통해 1사단형편을 알아보았다. 전 전선에 걸쳐 공격은 무참히 좌절됐으며 전면적인 반공격에로 나온 인민군대에 의해 이미 련천, 포천 계선과 춘천지구에는 돌파구가 생겼고 개성도 시간문제로 남았다는것을 알았다. 그는 예리한 륙감으로 련대가 포위속에 들었다는것을 깨달았다.

《2대대, 계속 공격하라! 지금 다른 부대들은 발쎄 사리원, 금천으로 육박하고있다. 꾸물거리지 말고 답새기란말이다!》

외롭게 교외 한귀퉁이에 뛰여든 삼랑에게 이렇게 명령을 준 인엽은 그 자리서 나머지 대대들을 청단방면으로 철수시키고말았다.

미처 견고해지지 못한 인민군대포위망의 남쪽고리에 혈로를 내고 가까스로 빠져나온 그는 다시 용의주도하게 배치된 인민군의 몇개 외부전선에서 수많은 손실을 내면서 연백벌로 빠졌다. 어느 산골짜기에서 패잔한 부대를 긁어모아보니 겨우 한개 대대가 되

나마나한 병력이였다. 다시 정황을 료해하기 위하여 무선을 결속하였더니 사방에서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서울방송의 녀방송원이 전과를 보도하고있었다.

《륙군본부 발표입니다. 륙군본부 발표입니다. 오늘아침 7시현재 아 〈국군〉 장병들은 공산군과의 전투에서 혁혁한 승리를 거두었다 합니다. 그 주요전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옹진지구에서는 전차 17대를 격파하고 카빙총 72, 소총 132, 기관총 5, 대포 2문을 빼앗고 공산군 1개 련대를 완전히 전멸시켰으며 삼척지구에 상륙한 공산군련대장은 자기 부대를 인솔하고 아군에 귀순투항하여왔습니다. 그 병력과 인명들의 상세한것은 추후 발표하겠고 공산군을 만재한 군용자동차 38대를 격파하였습니다. 동해안 강릉해상에서는 공산군을 만재한 대형함선 4척을 아해군이 격침시켰습니다.》

《개같은 에미나이! 〈다이홍에이〉 발표이상이군!》

야밤에 행동을 개시한 이래 전차는 보지도 못한 박인엽중령은 자기 련대가 적의 땅크를 17대나 격파했다는 높은 평가에 결이 나서 무전기를 발로 걷어차며 소리쳤다. 이 판이 개판이라는것을 명백히 깨달은 그는 아무 주저없이 부대를 해안쪽으로 철수시켜버렸다.

3

아침녘에 좀 뜸해졌던 비발이 다시 굵어지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억수로 쏟아져내렸다. 검산도 들판도 나무숲도 모두가 비발속에 파묻히고말았다. 어머니는 남새밭이 근심스러워 도롱이를 쓰고 나가 삽으로 물도랑을 째고있다.

《비도 참 야단스레는 퍼붓는구나. 기철이는 오늘 메골 처가집에 다녀올 소리를 하더니 이 비속에 어떻게 가겠니?》

수건으로 이마를 질끈 동이고 서늘한 퇴마루에 벽을 등지고 기대앉아있는 세철의 귀에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통 들어오지 않는다.

《슈또 에또? 에또 까렌다슈.》

《공부도 원 야단스레는 한다. 개 베룩 씹는것 같다더니… 호호, 그렇게 오만상을 찌프리구 무슨 공부가 되니? 쯧쯧.》

최필녀는 도롱이를 털어서 퇴마루기둥에 걸면서 아들을 보고 웃었다.

《이거 이러지 마우다. 그러지 않아도 정신이 헷갈려 죽겠는데… 에또—에또 까렌다슈—에—경칠것 모르겠다.》

세철은 그만 책을 내동댕이치고 옆으로 쓰러져누웠다.

《이건 정 못해먹겠소.》

《피곤하거든 좀 쉬려무나. 그러다 탈 날라. 원 애두, 찬데 누워서 어찔려구 그러니? 방석을 내다줄가?》

《글쎄 좀 건드리지 말아요.》

퉁명스러운 세철의 목소리에 최필녀는 혀를 끌끌 차며 방안으로 들어갔다.

세철은 다시 로어교과서를 집어들었다. 그러나 날씨가 음산해서 그런지 오늘따라 마음속이 뒤숭숭하여 통 뭐가뭔지 알수 없다. 오늘은 일요일이라고 해서 좀 자리를 내려고 별렀으나 마음이 이 모양으로 진정되지 않으니 가뜩이나 입에 서투른 로어가 허망한 공념불이 되군하였다.

보패가 평산 이모네 집으로 갔다는것을 그는 전혀 모르고있었다. 광산당총회이래 휘태는 후줄근히 어깨가 처져다녔는데 거기다 대고 보패일을 물어볼수도 없고 그렇다고 단념한다는것은 한갖 객기에 불과하다는것을 누구보다도 그 자신이 잘 알았다. 어쨌든 한번 만나서 따져보리라고 별러오던중 며칠전에 마침 작년에 입대한 기철이가 휴가를 와서 중시원리 기철이네 집에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길에 보패네 집앞을 지나게 되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이지만 그때는 무슨 귀신이 씌였든지 간이 커져서 높다란 돌담장밑에서 엿을 보았다. 밤이 깊었기때문에 집안은 괴괴하였다. 미심결에 대문을 밀어보았으나 송경팔이 해단 그 육중한 대문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담을 뛰여넘을수도 없고 그렇다고 문을 두들기고 들어갈수도 없었다. 그전 같으면 첫새벽이라도 성기를 찾아서 대문을 마구 두드릴수가 있었지만 어쩐지 요즘은 그 집 문설주가 키만큼이나 높아져서 정작 볼일이 있어도 찾아들 용기가 나지 않았다. 보패가 제발로 나와주기를 기다린다는것은 감나무밑에서 입을 벌리고 누운것 한가지라는것을 스스로 모르는바 아니였지만 어쩔수 없는 힘에 끌려 밤이슬을 맞으며 담밑을 한식경이나 오락가락하였다.

일이 안될 때라 세철이가 초라한 몰골로 홀린놈처럼 서성거리고있을 때 마을돌이 갔던 리씨가 나타났다.

세철은 지금도 그때의 끔찍하던 광경을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쭉 끼치군한다. 큰딸신세에 대한 걱정우에 작은딸마저 혼담이 거

의 무르익으려는 요긴한 대목에 감쪽같이 잃어지는바람에 리씨의 마음속은 푹푹 썩는중이였다. 그런데 담밑을 어슬렁거리는 수상한 그림자가 바로 딸을 꾀여낸 흉물이 아닌가 하고 마음속으로 부쩍 의심을 가지던 세철이고 보니 리씨의 분은 일시에 폭발하고말았다.

《옳지, 네가 또 오긴 왔구나. 세철이 이놈, 너 우리 보패를 어디로 빼돌렸니? 이리 좀 오너라.》

보패 어머니는 길길이 뛰며 세철의 손목을 틀어쥐였다. 뚱뚱한 몸집 지잖게 힘도 억척이였다.

《이거 놓아요. 내가 어쨌다고 이래요?》

세철은 부끄럽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여 불같던 가슴이 삽시에 싸늘해졌다. 그러나 리씨는 자기 호령 한마디에 여지없이 풀이 죽어버린 세철의 어줍은 태도를 보자 틀림없이 네놈의 작간이라고 치부하고 더욱 기가 나서 소리소리쳤다.

《내가 모를줄 알구? 어림없다. 내가 치마를 둘렀어도 그렇게 문문하진 않다. 이놈, 곱게 말할 때 바른대로 대! 네가 글쎄 남의 집 처녀를 빼돌리면 어쩔테냐? 어서 잔말 말고 내놔라. 어디다 감추었냐?》

《자, 이 어머니가 왜 이래요? 나 원 별꼴을 다보네.》

세철은 억지로 리씨의 손가락을 비틀어 팔목을 빼냈다. 가슴속에는 분이 치미는 한편 보패가 어디로 없어졌다는데 대한 새로운 의심이 버쩍 들기도 하였다.

《뭐 별꼴? 이놈 말 한번 잘했다. 그래 별꼴이면 어떻단말이냐? 네 에미한테 가자, 배우긴 잘 배웠다.》

《시시한 소리 하지 말아요. 그 잘난 딸이나 하나 둔것 같수다. 체, 데려가라면 누가 데려갈줄 알우, 난 코끝도 보지 못했소. 나 참 별꼴 다보겠군.》

세철은 어깨를 솟구고 홱 돌아서 왔다.

《아이구, 저놈 보게. 이놈, 네가 이 밤중에 남의 문전은 왜 기웃거렸느냐? 그 속내나 밝혀라. 내가 가만있을줄 아느냐?》

등뒤에서 갖은 욕설을 다 퍼부었으나 못들은척하고 걸어가던 세철은 얼마쯤 거리가 멀어져서야 한마디 하였다.

《가시철망을 치고 궤짝속에 딸인지 뭔지 집어넣어두지 그랬소?》

그날밤 세철은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모욕감에 가슴속이 후둑후둑 뛰는가 하면 보패가 어디로 사라졌을가 하는 새로운 불안이 겹쳐들었다. 교활한 장인택이가 어디로

빼여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첩경 먼저 떠올랐다.

《설마 보패가… 나한테 그렇게까지 말한 보패가 아닌가?》

그런 의심이 보패도 자기도 한꺼번에 더럽히는것이라고 인차 도리머리를 흔들어보지만 그럼 보패가 자기에게 어떤 언약을 하였던가 하고 정작 따져보면 구름을 잡는것과 같이 무엇이 있는것 같았던 환상이 남을뿐이였다.

《그래도 설마…》

력사암우에서 단둘이 만나던 생각이 떠올라 이렇게 중얼거리면 인차 안휘태네 집에서 장인택이와 한방에 앉아있던 그 불쾌하던 장면이 더 선명하게 떠오르군하였다. 입맛이 소태처럼 썼다. 그날부터 공부도 잘되지 않았다.

지금도 마루에 드러누워 교과서를 펼치면 유리며 연필이며 책상이며 하는 따위 대단치도 않는것을 굉장히 까다롭게 무슨 까렌다슈요 아끄노요 하고 써놓은 책장우에 상냥한 보패의 얼굴과 리씨의 얼굴이 나란히 놓이는것이였다.

그리하여 세철은 무심중 중얼거렸다.

《에또 보패, 에또 심술쟁이…》

《아니 저게 웬 사람이냐? 이 비속에…》

어머니 말에 기웃하고 행길쪽을 내다본 세철은 불시에 긴장되여 벌떡 상반신을 일으켰다. 무섭게 퍼붓는 장대비속에 자전거 한대가 쏜살같이 달려온다.

세철의 머리속에는 인차 장인택이가 떠올랐다. 그러나 진창을 휘뿌리며 집앞을 지나가는것을 보니 경무원 완장을 두른 군인이였다.

《무슨 일일가?》

세철의 가슴속에는 웬일인지 정체모를 불안이 자리잡았다.

《글쎄말이다. 옷이 함빡 젖었구나.》

돋보기를 끼고 세철의 작업복을 깁고있던 어머니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듯 멀리 중시원리쪽으로 사라져버린 그 자전거군을 자꾸 내다보았다.

비줄기가 가늘어졌다. 싸리울바자에 기여올라간 호박덩굴에서 시들어진 호박꽃이 가까스로 고개를 쳐들었다. 마당 한구석에 놓인 닭장에서 구구하고 닭들이 해빛 그리운 소리를 지른다.

따르릉 하고 자전거종소리가 나더니 아까 내려가던 경무원이 읍내로 되돌아간다. 올 때와 마찬가지로 맹렬한 속도로 진창을 휘

뿌리며 달려가는 모양이 아무래도 심상치를 않다.
세철은 또다시 마음이 불안하여 부지중 마루밑에서 신을 더듬어 찾았다. 아직 날은 활짝 개이지 않고 실비가 소리없이 내리고있었다.
갑자기 여러 사람의 발자국소리가 들려왔다. 배낭을 한쪽어깨에 걸친 휴가군인 기철이가 달려온다. 그뒤로 손에 떡반죽을 게바른 기철의 어머니며 안해가 우비도 두르지 않은 허드레옷차림으로 무엇인가 소리를 지르며 따라왔다. 세철은 신을 질질 끌며 대문밖으로 달려나갔다. 기철이는 벌써 저만큼 달려가고있었다.
《여보게 기철이, 기철이！》
세철은 길에 나서서 허리를 구부리고 뒤축이 접혀진 로동화를 당겨신으며 소리쳤다. 기철은 한쪽어깨에 배낭끈을 마저 끌어 걸치면서 뒤로 피뜩 돌아보았다.
《세철이, 잘 있게. 난 가네.》
《여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처가집에는 안갈 모양인가？》
기철은 또 한참 달려가더니 삑 돌아서서 말했다.
《세철이, 전쟁이네. 그놈들이 기어코 접어들었다네. 부탁하네.》
《뭐？ 전쟁！》
세철은 우뚝 길우에 멈춰섰다. 벌써 40～50메터나 떨어진 뒤쪽 자기 집 대문앞 언저리에서 황급히 뛰여나온 어머니와 기철이네 가족들이 함께 달리며 주고받는 소리가 들려왔다.
《리승만…》, 《인절미》, 《전쟁》, 《처가집…》, 《군대…》, 《고뿔》
흥분된 떠들썩한 발자욱소리속에 전혀 맥락이 닿지 않는 이런 낱말들이 뚜렷이 울렸다.
신끈을 죄여맨 세철은 벌써 저만큼 앞서 달리는 기철이를 바라보며 주먹을 부르쥐고 달려갔다.
읍내에 이르렀을 때 날씨는 활짝 개였다. 거리는 벌써 술렁거리고있다. 비에 젖은 모자를 쥐여짜며 공무원같은 사람이 달려오고 손가방을 든 사람이 달려갔다. 그밖에 두사람 세사람 패를 지어 무엇인가 큰 목소리로 떠들어대며 어딘가로 달려가는데 이상하게도 그 말뜻은 하나도 알아들을수 없었다. 군민청에서는 무슨 회의를 하다가 뛰여나왔는지 수많은 남녀청년들이 우르르 쓸어나오더니 갑자기 거미가 흩어지듯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갔다.
정거장 가까이 오니 고성기가 왕왕 소리를 지르고있었다. 흥

분한 방송원의 목소리가 울려온다.

《금 6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각 비상회의가 소집되였습니다. 내각 비상회의에서는 금 6월 25일 이른새벽에 38이북지역에 대한 남조선괴뢰정부의 소위 〈국방군〉들의 불의 진공과 관련하여 38선에 조성된 긴장된 사변들에 대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제반 대책들을 취하였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거장은 사람들로 들끓고있었다. 누런 종이에 서투른 붓글씨로 내무성보도를 써붙였는데 붉은 잉크로 줄과 동그라미를 쳐서 주요하다는 부분을 표식하였다. 그러나 거의 모든 글줄에 그 표식이 다 붙어있어서 얼룩덜룩해졌을뿐이다. 역사안에서도 고성기가 왕왕거렸다.

《철도경무부에서 알리는 말입니다. 려행중인 군인들과 경비대원들에게 알려드립니다. 휴가,출장 기타 리유로 6월 25일 이전에 부대를 떠난 군인,경비대원들은 즉시 부대로 돌아가십시오. 즉시 부대로 돌아가십시오.》

세철은 역사벽에 나붙은 보도를 들여다보다가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아득한 시절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나는듯하였다. 어쩐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소란과 도가니 속처럼 끓어번지는 사람들의 흥분된 얼굴이 어느땐가 먼 옛날 자기가 한번 체험했거나 머리속에 선명히 그려본 장면처럼 생각되였다. 하기는 뜻밖의 일이였다. 그만큼 충동이 컸다. 지나치게 충동이 컸는지 몰랐다. 그래서 단순한 그의 머리에 일순 혼란이 생겼는지도 모른다.

전쟁—이것이 어떤것인지 짐작도 할수 없었고 생각해본적도 없는 그였다. 그러나 어쨌든 그 전쟁은 벌써 그의 가슴에서 커다란 열화를 뿜었으니 방금까지 착잡하던 가슴속은 불시에 조용해지고 푹 가라앉아버렸다.

사람들,낯익은 골목들,집들,소비조합식당과 국영상점들 그리고 역전에 세워놓은 솔문이 꿈속에서처럼 아슴푸레 떠올랐다. 낯익은 광산로동자 한사람이 달려오더니 매표구로 뛰여갔다. 구내쪽에서는 칙칙— 기관차의 숨결소리가 가쁘게 들려오고 빽하고 기적이 울렸다.

《…인민군부대들과의 협동작전하에서 공화국경비대는 38이북지역에 침입한 적들을 완전히 격퇴하고 반공격전으로 넘어갔다. 금 6월 25일 현재 공화국 인민군대와 경비대부대들은 많은 지역들에서 38이남지역으로 5키로내지 10키로메터까지 전진하였다. 전투는 계속되고있다.…》

두번째 내무성보도가 들려왔다. 와— 하고 환성이 올랐다.

《인민군대 만세！》

하는 소리가 터져올랐다.

《그놈들 두들겨야 한다니까. 어떻게 참을수 있갔쉬까.》

농립모를 쓰고 흰바지저고리를 입은 한 농민이 세철이에게 소리쳤다. 세철은 말없이 그 농민의 손을 더듬어찾아 으스러지게 틀어쥐였다.

《젊은이, 글쎄 우리 인민군대가 어떤 군대웨까？ 그 죽일놈들이 이젠 한번 겪어보라지요. 내 아들이 인민군대에 나갔대서가 아니라 사실…》

세철은 문득 낯익은 얼굴을 발견하였다.

《용남아, 여기서 어머니하고 가만히 있어. 아버지 차표 사올게.》

《응.》

언젠가 자기보다 더큰 가방을 제가 들고 간다고 성화를 먹이던 용남이가 오늘은 입을 꾹 다문채 어머니의 치마자락을 부여잡고 혼잡을 이룬 정거장구내를 바라보고 섰다. 젊은 어머니는 량손에 트렁크를 하나씩 들고 서서 사람들속에 사라진 남편을 놓칠세라 지켜보고있다. 비에 젖은 귀밑머리가 흩날리며 왼편볼에 달라붙었다.

세철은 자기가 휘태네 집에서 참을수 없는 모욕을 느끼며 돌아오던 날 그 행복한 일가를 얼마나 부러운 눈매로, 또 얼마나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던가를 생각하였다.

《동무가 대학에 가 공부하고 보패와 같이 행복하게 사는것을 좋아하지 않는놈들이 있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하네.》

귀전에서 전학민군관의 말이 뚜렷하게 울려왔다. 고개를 드니 그날 《에야 데야 새벽닭 운다 에헤야 사립문 열어젖혀라》 하고 흥겨운 민요가락이 흘러나오던 군당앞 확성기에서는 전과가 보도되고있었다. 인민군대가 옹진반도에 기여들었던 적을 소멸하고 개성시내와 춘천으로 육박하고있다는 소식이였다.

세철은 입을 꾹 다물고 서있는 용남이를 지켜보다가 힘차게 걸음을 뗐다.

군당 울타리안에 들어서니 확하고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졌다. 쾅쾅 층층계를 올려뛰는 소리가 나고 전화통앞에서 웨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앞을 쏜살같이 빠져나가는가 하면 한 내무원이 맹렬한 속도로 달려오더니 갑자기 멈춰서서 어느 방으로 들어갈지 몰라 망설이고 섰다.

세철이도 갑자기 현관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섰다. 자기는 무슨 일로

이 바삐 돌아가는 군당을 찾아왔는가? 전쟁이 터졌다. 이 불의의 사변을 당하여 지금 이 목조건물안에서 좀 많고 급한 일이 벌어졌을것인가? 자기의 하찮은 문제를… 그런데 대체 그 하찮은 문제란 또 무엇인가?

세철은 군당을 찾아와서 의논할만한 아무 하찮은 볼일조차 없다는것을 깨닫고 아연해졌다. 어떻게 그럴수가 있는가?

내무원은 잠시 어물어물하더니 현관에서 제일 가까운 방문을 두들기고있었다. 그러나 어쨌든 세철은 어느 방에 들어가야 할지를 알수 없었고 누구를 만나야 할지도 대중할수 없었다.

이때 2층에서 급히 내려오는 발걸음소리가 들리더니 등이 구부정한 군당위원장 조재호가 큰 키를 나타냈다. 그는 황급히 현관문을 나서다가 그앞에 엉거주춤 서있는 세철을 발견하고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위원장동지!》

세철은 무엇인가 손에 쥐고있는것을 구겨쥐며 고개를 떨구었다.

《세철동무요? 참 전학민동무가 찾아가지 않았습디까?》

나이 어린 신입당원에 불과했지만 세철이가 이 군에서는 가장 오랜 로동계급의 자제이기때문에 조재호는 그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있었다.

《왔댔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동지, 전 어떻게 하랍니까?》

《그건 뭐요? 책은 왜 그렇게 구기오?》

조재호는 세철이가 마구 구겨놓은 축축한 책을 빼앗듯이 받아쥐더니 말하였다.

《로어책이로군. 동무는 대학에 가게 돼있었지? 그래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세철은 자기가 집에서 여기까지 저도모르게 움켜쥐고 다닌것이 로어책이였다는것을 처음으로 발견하였다. 사실은 자기가 무엇을 쥐고 다닌다는것부터 깨닫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비에 젖은 헐어빠진 책은 그러지 않아도 불성모양이 되였는데 마구 구겨놓기까지 하고보니 쥐여짠 걸레쪽처럼 너덜너덜하였다.

조재호는 그것을 깐깐히 바로 펴면서 세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세철은 고개를 들고 그 넙죽한 얼굴을 마주바라보았다.

《저는 당앞에 맹세했습니다. 이제 새삼스럽게 말씀드릴게 없지요. 저는 이미 훈련을 받았습니다.》

《참, 동무는 보안간부훈련소에 갔댔지? 좋소. 이 책은 잘 보관해두오. 난 동무 결심에 찬성이요. 조국보위후원회에 가보시오.

거기서 지금 등록사업을 이미 시작했소.》
《고맙습니다, 위원장동지!》
거리에 뛰여나오니 어머니가 절뚝거리며 정거장쪽으로 가고있었다. 기철이네 가족들은 어디에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세철은 자기가 기철이를 어디서 놓쳤는지조차 기억할수 없었다.
《어머니! 어머니— 나 여기 있어요.》
어머니는 이미 사람들 물결속에 휩쓸렸으나 어느새 세철의 목소리를 알아들었는지 붐비는 틈새를 비집고 나와서는 반달음을 놓아 아들에게로 다가왔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넌 어디로 갔었느냐?》
《어머니.》
세철은 어머니의 세차게 들먹거리는 어깨를 바라보며 평생 처음으로 그렇게 살뜰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집에 돌아가시우. 전쟁이 터졌어요. 리승만이와 미국놈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접어들었어요. 그러나 념려말라구요. 우리 군대가 벌써 그놈들을 내밀고 38선이남으로 나가고있답니다.》
《그놈들이 무엇때문에 우릴 그렇게 못잡아먹어서 야단이라니?》
《그놈들이야 우리가 잘사는게 비위가 상하지요. 어머니, 어서 집에 가시오. 그리고 이 책을 잘 좀 간수했다 주시우.》
《아니 넌 그럼?》
어머니는 갑자기 말을 끊고 이 세상에 오직 하나인 자기의 기둥이며 희망이며 자기의 생활 전부인 아들을 바라보았다. 기구하고 박복했던 어머니의 한생에 무슨 사변이든 없었으며 어떤 불행인들 안겪었으랴. 생때같은 남편을 잃었고 자식을 잃었고 심지어는 일제의 전쟁판에 한벌 있는 유기밥그릇과 수저마저 빼앗긴 어머니였다. 집을 나간 큰아들을 기다리며 이 정거장에서 밤을 밝힌 일도 있었고 세철이의 월사금을 마련하려고 광차를 밀기도 한 어머니—미국놈 집에서 드난살이를 하다가 다리마저 부러진 어머니였다. 굶고 울고 이를 갈던 일이 어찌 한두번이였으랴만 그러나, 그러나 이제는 아들이 가져오는 기쁜 소식에 습관이 되였고 토지개혁이요, 산업국유화요, 공화국의 탄생이요 일어나는 사변마다가 벅찬 즐거움을 가져다주는데 습관된 어머니였다. 지난 세월에 너무나 많은것을 빼앗긴 그였고 그래서 빼앗기는데 버릇이 붙은 그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오붓하고 아늑한 살림에 습관이 된 어머니

였다. 무엇보다도 세철이로 말하면 그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모든 생활이였던것이다. 전쟁은 이렇게 어머니의 생활에 찾아왔다.

《어머니, 나는》 하고 아들은 자기의 말 한마디가 어머니에게 얼마나 아픈 못질을 하리라는것을 짐작하고 잠시 말을 더듬거렸으나 어차피 맺지 않을수 없다는 생각에 딱 잘라 말했다. 《가야겠습니다. 집에 한번 들리게 될지도 모르지만 기다리진 마시우다.》

필녀는 아들의 손을 더듬어쥐고 이윽히 올려다보았다. 그 눈에는 그가 수십년을 걸어온 가시덤불길이 일시에 가로놓인듯 아득한 그림자가 비꼈다. 세철은 더는 마주바라볼수가 없어 고개를 돌리고말았다.

《세철아.》

뜻밖에도 어머니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마음이 놓이지 않는구나. 네가 닭모가지도 비틀지 못하는게 무얼하겠니? 내가 잘 안다만 미국놈이란 악착한놈들이다. 그놈들이 싸움을 걸었다니 그게 쉬울수는 없다. 단단히 마음을 먹고 가거라. 이제 어디로 가느냐?》

《어머니!》

세철은 와락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안으며 목메여 말했다.

《날 용서해주어요. 속썩여드려서…》

《쓸데없는 소리 말구 갈라면 어서 가거라. 어디로 가는지 내가 집에 가서 옷가지를 챙겨다주마.》

《아직 모르지요. 이제 〈조국보위〉에 가는 길이우다.》

《그럼 됐다. 책은 장농속에 건사해두마.》

《참, 어머니… 저, 이담에 나오겠으면… 저, 그 장농속에 양회포대로 싼 조그마한 꾸레미가 하나 있는데…》

세철은 전날 전학민에게서 받은 형의 유물에 대해 여직껏 계제가 좋지 않아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전하지 못했다는것을 상기했다. 그러나 이 마당에 새삼스럽게 그 이야기를 꺼낼수도 없다고 생각하며 말을 이었다.

《그 꾸레미를 좀 가져다줘요. 옷은 필요없수다. 군대에 가는데 입은 옷도 벗어야지요.》

《장농밑에? 거기 웬게 그런게 있었냐? 아무튼지 내 찾아보구 곧 가져올게.》

세철은 어머니의 얼굴을 다시한번 들여다보고 발길을 돌렸다. 어머니는 마음이 놓이지 않는지 아들의 뒤를 밟다가 종내 조국보위후원회까지 따라오고말았다.

읍거리 한귀퉁이,여직껏 눈에 잘 띄지도 않던 그 단층건물앞에 지금은 새까맣게 젊은이들이 모여들고있었다.

4

서울방송은 《국군의 혁혁한 전과》를 련달아 보도했다. 26일 《군보도과》 특별발표는 옹진지구의 17련대가 해주시를 완전히 점령하였으며 38선 일대의 《국군》무력 일부는 38선이북 20키로지점에 이미 진격중이라고 했다. 그런데 웬일인지 포소리는 서울쪽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있었다. 이날 남조선주재 미국대사 쟌 무쵸는 그 이딸리아계 미국인의 남국정서풍기는 열정적인 목소리로 특별성명을 발표했는데 자기는 《국군》에 대한 깊은 존경과 신뢰를 가지고있으며 그들은 적을 물리쳤다고 확언했다. 이날 26일 이른아침 미공군은 춘천시 일대와 문산지구에 첫 폭격을 가했다. 이것은 벌써 《드라마》에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징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역을 담당한 맥아더며 트루맨이며 덜레스같은놈들은 물론 선발된 명배우답게 자기 역을 충실히 감당하였다. 즉 이미 씌여진 각본대로 6월 24일 오후 9시 26분(워싱톤시간) 국무성은 무쵸로부터 개전의 공식보고를 받고 25일 새벽 3시 애치슨의 특사로 하여금 한밤중에 유엔사무총장 드리그베 리를 두들겨 깨워 이튿날 25일 오후 2시부터 안전보장리사회를 소집케 하였다. 여기서 쏘련이 결석인것을 기화로 이미 유엔담당국무차관보 힛카슨에 의해 준비된 제소를 심의하고 아무런 조사도,심지어 《유엔조선위원단》의 현지보고도 기다림이 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6월 26일 이른아침 재일미공군은 조선전선으로 날아가 폭격을 시작했는데 이는 심지어 미국정부로부터의 정식명령조차 있기전이였다. 이것은 38선에서 벌어진 서막이 《국군》의 참담한 패배로 말미암아 예상외의 혼선을 띠기 시작하자 그것을 바로잡아보려고 맥아더가 짜낸 궁리중의 하나였다.

6월 26일 10시 17분 트루맨은 맥아더에게 미국해군과 공군의 조선출동을 테레타이프로 비로소 지령하였다. 6월 27일 정오 트루맨은 한국에의 무력원조,대만해협에의 제7함대의 파견,필리핀 군사기지의 강화,인도지나에의 군사원조의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날 오후 3시 역시 쏘련이 결석한채 미국의 조선에 대한 무력간섭을 허용하는 결정을 채택하여 거기에다 《경찰행동》이라는 화려한 의상을 입혀 무대우에 내놓았다.

그리고는 그들은 미국유사이래 이처럼 결단성있고 령활하게 단행된 대규모적인 군사행동은 없었다고 자화자찬을 하면서 뻐기였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면밀히 짜고 꾸민 속이였기때문에 오히려 진실성을 잃어버렸다는것을 그들자신도 뒤늦게나마 깨달았지만 전선의 사태는 이미 체면을 돌아볼 형편이 못되였다. 《한국군》은 전면적인 붕괴상태에 직면했으며 후방의 민심은 소란하였다. 이리하여 군보도를 믿지 않는 국민들을 달래려고 무쵸가 마이크앞에 찬조출연까지 하였으나 사태를 수습할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포소리가 자꾸만 접근해오는것이 이 《위대한 드라마》에 치명적인 혼란을 야기시키는것이였다.

련속 눈부신 전과를 보도하던 서울방송은 27일아침 6시 보도에서 뜻밖에도 《서울부근 외곽에 적이 침입하여 부득이 정부와 국회는 림시 수원으로 천도하게 되였다.》고 전하였다. 뒤따라 언제 빼앗겼다는 말도 없던 의정부를 탈환했다고 떠들어대더니 미군이 전투에 참가한다는 정식보도가 발표되였다. 녀류시인 모송죽이 《국군》장병들의 무공을 칭송하면서 모든 처녀들은 《국군》에게 정조를 바치라는 내용의 시를 그 녀자특유의 그 광란적인 정열로써 랑송하였다.

이러한 때 맥아더는 자기 방에서 골통대를 입에 물고 지도앞에 마주서있었다. 전세계의 신문 특파원들이 조선으로 쓸어들기 시작하였으며 통신과 신문은 조선에서 벌어지는 사태에 지면의 태반을 제공하였다. 이런 세계적인 주시하에 진행된 장엄한 서울공방전은 맥아더에게 있어서는 준비된 각본에 전혀 예견하지 못한 탈선이였다. 서울공방전—이것은 벌써 전쟁의 주도권을 자기가 잃어버렸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였다. 그는 자기 명예의 회복을 위해 26일부터 손수 전선을 지휘하였다. 참모장 아몬드와 정보국장 윌로우비 그리고 작전국장 라이트와 함께 지도옆에 서있었다. 부관과 참모들이 연방 전선에서 들어오는 소식을 전하였다.

《내 보건대는—맥아더는 자기 막료들을 돌아보며 입에서 골통대를 뽑았다.—공산군의 주력이 이 의정부지구로 집중된것이 확실하오. 그들은 이 도로를 따라 땅크를 서울로 진출시킬 심산인것 같소.》

막료들은 맥아더가 골통대물부리로 뚝뚝 두들기는 붉고 푸른 화살표가 서로 교차되고 방금 푸른 점선으로 새로 기입해넣은 치차토막같은 전술부호들이 널려있는 지점을 주시하였다.

《서울을 수호해야겠소. 미군이 서울이남에서 공산군과 조우한다는 것은 우선 전개하기에 불리하고 또 그럴 필요가 없는것이요. 그런데 월로우비장군, 한국군에 대한 당신의 담보는 어떻게 되였소? 그들이 너무나 약한가요? 그렇지 않으면 공산군이 너무나 강한가요? 그들은 뜻밖에도 전혀 예상치 않았던 지점에 력량을 집결시켜놓고 강력한 공세를 취했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이것은 북조선의 장삼리사들이 능히 현대전을 능숙하게, 지어 훌륭하게 지휘할수 있다는말인가요?》

《제 생각에는—월로우비는 대머리의 땀을 씻으며 그 녀성적인 매력있는 음성을 한층 약하게 만들어서 황송스럽게 대답하였다.— 두가지 원인이 다 작용하는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의 타산은…》

《장군, 나는 당신의 그 〈우리〉라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소. 어쨌든 무쵸와 라이언에게 지시를 주시오. 제2제대의 사단과 일체 병력, 무기들을 서울북방에 전개시키고 주력군들로 문산계선에서 저항하는 한편 좌익 익측타격집단을 의정부계선으로 급속히 이동시키며 기타 지점에서 지연전을 전개하도록 하시오. 참모장! 당신은 우리 사단들의 출동준비와 수송준비를 철저히 갖추도록 하시오.》

《저, 무쵸가 방금》하고 월로우비는 맥아더의 안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또 전화를 걸어왔는데 리승만이 수도를 옮기겠다고 벌써 여러차례 제기한다는것입니다. 그리고 각하에게 또다시 비행기를 보내달라고 요구를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답을 줄것인지요?》

《벌써 도망치겠다는거요?》 맥아더는 쏘파에 앉으려다가 말고 소리쳤다. 《비겁한 늙다리같으니라구. 그 나이에 죽기가 아까와서… 나는 정부가 서울을 버리고 도망친다면 우리의 작전에 매우 불리할것이라고 생각하오.》맥아더가 쏘파에 앉자 월로우비는 그를 달래듯 앞으로 다가가 나지막하게 귀띔하였다.

《그러나 그는 미국에 충실하지요. 그는 우리의 모든 명령에 복종할것입니다. 허지만 단 한가지 위험한곳에 머물러있으라는 이번 지시만은 지키지 않을것이 뻔합니다. 그의 충성이란 바로 그의 비굴성의 산물이지요.》

맥아더는 사나운 눈매로 월로우비를 쏘아보았다. 이때 아몬드가 월로우비의 곤경을 구원하러나섰다.

《내 생각에는 만일의 경우 한강의 하수장애를 리용하기 위하여 교량들에 대해 주의를 미리 환기시키는것이 차라리 현명하다고 봅니다.

이틀간의 전투는 그들 북조선의 로동자,농민이 비록 어중이떠중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들이 **김일성**장군과 같은 훌륭한 자기의 사령관을 가지고있다는 사실은 결코 무시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맥아더는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가 불쑥 입을 열었다.

《비행기를 달란말이지? 그자는 작년부터 웬 비행기타령을 자꾸만 하오? 리승만이가 부자는 부자인 모양이군. 흥,필요하다면 대통령자가용으로 에프 80형 추격기 한대를 줄수 있다고 말하시오.》

이것은 월로우비와 아몬드의 제의를 이미 승낙했다는 신호이며 동시에 한국 대통령에게 자가용비행기는 적합치 않다는 결론을 준것이기도 하였다.

한편 리승만은 27일 날자로 발표하기로 되여있는 방송연설을 록음해놓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직접 신성모와 채병덕을 불러 전선상태를 호전시킬 대책을 세우라고 짜증을 부리며 소리소리쳤다.

《이놈들아! 너희들이 사흘이면 평양을 점령할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흉악한 도적놈들! 오,주여! 이 불쌍한 양을 보호해 주옵소서. 그래 다리는 누가 폭파하기로 되였느냐? 뭐 최창식대령! 그 사람이 공병감이야? 믿을수 있는 사람이라구? 물론 그 사람이 직접 해야 한다. 아무도 모르게. 알겠느냐? 안되겠다. 그 사람을 나한테 불러다오. 난 너희들을 믿을수 없다.》

히스테리발작을 일으킨 리승만을 가까스로 얼려놓은 신성모와 채병덕은 국방부장관실에서 작전국장 강문봉대령을 불러다놓고 미군사고문단의 의견에 따라 붕괴되는 전선을 수습하기 위한 일대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전선의 일부 부대들에 간고한 이동명령이 내려지고 제2제대로 장악하였던 작전예비대들을 전선에 투입하기로 하였다.

이리하여 서울 북쪽과 의정부—문산계선에는 강력한 방어진이 생겨났다. 2사5련대,25련대,3사22련대,5사6련대,《수도사단》 18련대 등은 제1진지 령역인 화개동,월계리,불암산,잠안리 계선에 전개하였고 제7사관하부대들은 제2진지인 171고지,종암동 143.5고지계선에 두개 제대의 전투서렬을 편성하였다. 서울방어집단의 우익 퇴계원리 방향으로는 《수도사단》 8련대와 륙군사관학교 학생대들이 방어선을 벌려놓았으며 김포반도에는 3사의 한개대대,《보국》 대대의 한개 중대,륙군본부직속예비대대,남산학교 및 공병학교생도대들이 황급히 파견되였다. 또한 옹진연안 반도들에서 패주퇴각한 12련대와 해주에서 가까스로 혈로를 뚫고나온 민삼랑의 17련대

3대대 기타 직속기갑련대와 김포비행기지부대들이 전투서렬을 편성하였다. 7사의 좌측 린접에서는 1사와 5사 15련대,20련대들이 방어전을 전개하였었다. 종심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주변의 요소요소에 륙군본부 직속 구분대들이 배치되였고 전면 1～3키로 전방 쌍문리,창동리 계선에 전투경계진지가 설치되였다.

이 《작전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렇게 소구분대들로써 익측과 중간지대를 엄호하면서 인민군부대들이 성과를 확장하고있는 의정부 서울간 대도로방향에 기본력량을 집중배치하고 강력한 방어로 반돌격과 배합한 견제전투를 진행함으로써 시간을 쟁취한다면 서울방어를 위해 진출하는 련대 및 사단들과 추후로 도착할 미군부대들의 전개를 보장한 다음 잃어버린 지대를 회복하고 또다시 공격에로 이전할수 있을것이였다. 그러나 그들이 황급히 세운 이 작전계획은 불가피하게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지 않을수 없었다. 즉 그들이 공격을 개시했을 때 주력을 투입했던 문산—봉일천리 방향에서 반공격으로 이전하여 계속 서울로 타격하는 인민군 ×사단의 공격에 의하여 익측타격과 후로를 차단당할 가능성이 있고 퇴계원리 방향으로 공격중인 련합부대에 의하여 서울을 우익측으로 위협당하게 될수 있으며 김포반도방향으로 공격하는 련합부대와 춘천을 돌파하고 계속 가평—첨평천방향으로 공격하는 제×사단들이 한강남안에서 합류함으로써 주력집단에 포위의 위험성이 조성될수 있었다. 이러한 약점들은 《한국》의 《작전가》들에게도 물론 감촉되였다. 그러나 이런 약점은 미군 군사고문단의 지휘를 받는 모든 군대들의 작전에서 숙명적으로 발로되는 약점이였다. 그들은 이른바 《총공격을 전제로 하는 방위전술》의 사상에 기초하다보니 방어작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적이 없었고 그들이 2년이래 수립해놓은 륙군본부 방어선인 《A선》은 38연선의 전호망으로 이루어진 전혀 종장배치가 되여있지 않은것들이였다. 그들은 인민군을 서울부근에서 맞이할 생각은 꿈에도 못해 보았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이 연구한 작전적지대는 항상 금천—사리원 대도로주변의 지형이며 평양과 원산 일대의 지리였던것이다. 이제 불가피하게 빈구멍투성이 작전계획을 수립해놓고서 그들은 첫째로 신의 보호 즉 우연에 기대를 걸었으며 둘째로 《흥분》하기 좋아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전투에 림하여 발로시킬수 있는 심중성의 상실에 기대를 걸었으며 셋째로 유격투쟁밖에 경험이 없는 인민군대의 그닥 높지 못한 기동력과 화력에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들의 기대는

물에 빠진자가 붙잡은 한오리 지푸래기에 불과하였다.

×

의정부남방 1키로지점 한 농촌에서는 27일아침에 주타격집단 련합부대들의 협동작전체결을 위한 회의가 진행되였다. 여기서 무거운 임무를 받은 원인걸과 전차련합부대장 윤정술은 한걸음 먼저 회의장을 나왔다. 원인걸사단관하 각 련대들이 전개한 이 자그마한 농촌에는 군인들과 자동차들이 와글와글 끓었다. 비는 들었으나 날은 아직도 흐려있었다. 멀지 않은 의정부시가쪽과 그 주변에서는 아직도 포성이 울리고 콩볶듯하는 총소리가 들려왔다. 사처에서 소탕전이 전개되고있는것이였다.

작전회의에서 그들이 지휘하는 부대들은 긴밀한 협동작전하에 최근임무로서 불암산, 잠안리와 쌍문리, 창동리를 돌파하여 화계동과 봉화산방향으로 진출, 괴뢰군 10, 22, 25, 5련대들을 미아리, 하달골리, 원계리구역에서 포위섬멸하고 171고지, 132고지, 143.5고지 계선을 점령하며 차후 괴뢰 제7사의 잔여부대들을 소탕하면서 서울을 해방하고 일부 부대로 석촌리부근에 진출시켜 퇴로를 차단하는 한편 전진과정에 한강을 강행도하하여 대안의 근거지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원인걸은 자기가 받은 명령을 머리속에 새기며 관하부대들에 줄 임무를 따로따로 정리해보았다. 무엇보다도 맹렬한 추격전투가 예견되는 지금 위대한 수령님의 방송연설을 어떤 방법으로 침투시킬것인가 하는것이 걱정스러웠다. 자동차를 은폐시킨곳까지는 꽤 거리가 있었다. 질쩍거리는 소리로 해서 그들은 이미 꽃이 다 핀 배나무밭옆을 끼고돌았다.

《행군중에 **김일성**장군님의 방송연설을 침투시켜야겠는데…》

윤정술장령이 여태껏 생각하던 문제가 바로 그 문제임을 누구나 알아들을수 있게 중얼거리듯 말하였다.

《지시는 주고왔지만 워낙 전투중이고 보니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소.》

《나도 방금 그 생각이였소. 헌데 나는 아까 회의에서도 말했지만 이 작전이 대단히 빠르게말요… 말하자면 번개불에 콩구어먹듯 해치워야 할것 같단말요.》

《번개불에? 허허허, 원동무는 여전하군.》

윤정술은 그들이 함께 기관총을 메고 조선인민혁명군에서 싸우던 청년시절을 생각하며 빙그레 웃었다.

《그렇게 콩구어먹듯 간단할것 같소?》

《여보 윤동무, 그래 이게… 말하자면 이틀에 서울까지 간다는게 간단할것 같소? 원 천만에! 난 리정권동지처럼은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그 량반은 그게 괴뢰군이라니까 무슨 목총이라도 들고 다니는 허수아비들인줄 알거던. 여보 나는 아침에 들은 장군님의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오. **〈전체 조선인민은 리승만역도의 뒤에 서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일거일동에 대하여 항상 예리하게 살피며 경각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자, 이러고 보면 이게 간단한 전쟁이요?》

나이 한두살 아래지만 몸이 더 뚱뚱한 윤정술은 유격대시기부터 침착하기로 유명한 이 배포유한 장령을 한번 골려줄 생각이 번개같이 떠올랐다. 그는 배나무밭의 아카시아울타리에서 충실한 잎사귀 하나를 꺾어 눈앞에서 뱅글뱅글 돌리며 히죽이 웃었다.

《그러나 번개불에 콩궈먹듯하기는 틀리지 않았소?》

《왜?》 원인걸은 잠시 상대편의 선선한 얼굴을 바라보다가 어딘가 순수하지 못한 배속을 간파하자 소년처럼 얼굴이 벌개지며 손을 홱 내저었다. 《에이, 여보!》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났는지 다시 속삭였다.

《참, 내 한가지 귀띔해줄가? 동무는 전차를 가지고있지만 이걸 모를거요. 내가 번개불에 콩궈먹듯해야 할거라고 말하는건말이요, 그놈들 군대라는게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논 군대이기때문에 단숨에 평양까지 기여들어오자구 자동차가 굉장히 많고 걸어다니는놈이 적다오. 그러니까 판이 기울어진 이 마당에는 또 굉장히 빨리 내뺄게거던. 알겠소? 꾸물거리다간 총 한방 못쏘아보고 그저 내달리기가 쉽다이.》

《그래 그놈들이 내빼기만 할것 같소?》

《허허허, 이제보우. 내가 그놈들 내빼고싶어도 내빼지 못하게 뒤를 질러놓을터이니 그놈들이 발악적으로 접어들거든 그땐 날 원망 마오.》

원인걸은 눈을 찌프리고 웃었다.

《이 마당에》 하고 이미 자기 자동차 발판에 한발을 올려놓은 윤정술은 사뭇 심중한 낯빛으로 말하였다. 《우리 전차병들이 괴뢰군구경이라도 하게 될것 같으면 내 원인걸동무의 덕분이라는걸 생각하겠소. 여하간 우리 동무들이 곧 그리로 갈테니 푸대접은 말아주시오.》

《암, 처음부터 그렇게 말해야지.》

이번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를 맡게 된것으로 하여 흡족해진 두 장령은 오래간만에 롱담을 주고받았다.

자기 자동차로 걸음을 옮기던 원인걸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지 삑 돌아섰다. 윤정술의 자동차는 이미 발동이 걸렸다. 원인걸은 손을 쳐들며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하려고 입을 벌리다가 단념하고 무겁게 자동차로 다가왔다.

《윤동무, 저 박세진이라고 기억하오?》

《박세진?》

막 떠나려던 윤정술은 얼른 손을 들어 운전수를 제지하고 말하였다.

《우심산에서 희생된 동무말이요? 왜 모르겠소? 그 동무 장례지낼 때 나도 참가했는데…》

《그 동무 유가족을 찾았다는군.》

《그렇소? 그럼 왜 이제사 그 소리 하오. 진작 이야기했더면 한번 가볼것 아니요? 그래 누가 있다오?》

《글쎄 나도 가주 들었다니까. 전학민동무가 달포전에 평양 회의 갔다가 우연히 찾았다오. 어머니 한분이 계시고 동생이 있더라오.》

《외롭겠군. 동생은 몇이나 났다오?》

《뭐 몇살인지 모르겠는데 아직 총각이라오. 나도 인차 가본다고 별렀지만 그때야 어디 짬을 낼수 있더라구. 이제 전쟁 끝내고 함께 가보기요. 동생이라는 아이가 좋더라오. 형처럼 순박하고 진실하더라고…》

《참, 박세진동무가 그랬지.》

두 장령은 청년시절의 전우들을 눈앞에 그려보며 잠시 말없이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또 비가 오려는지 풀벌레들이 야단스레 울어제꼈다.

《그 동무들이 지금 이국땅에 누워서 우리를 생각할게요. 여보 원동무, 잘 싸워 보기요. 우리 책임이 무겁소.》

원인걸은 묵묵히 옛전우의 억센 손을 마주 틀어쥐며 중얼거리듯 말했다.

《학민동무가 곧 잔치를 할것 같다고 그러던데, 그 동생애말이요. 일이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 됐는지, 군대에 나오지 않았는지 모르겠소.》

《그렇군. 허지만 어떻게 하겠소. 그 사람 이름이 뭔지 아오?》

《박세철이라고 하더군.》

《박세철이? 어디서 만나게 되거든 좀 알려주오. 나도 그럴테니. 세진동무의 동생이면 조국이 위험에 처했는데 필경 군대에 나올게요.》

《나오지요, 암 나오구말구. 그러지 않아도 그런 소리 하더랍디다. 자, 그럼 가보오.》

원인걸은 축축한 바람이 불어오는 북쪽하늘을 바라보며 천천

히 걸음을 옮겨놓았다.

×

이와 때를 같이하여 불타는 의정부남쪽의 한 골짜기에서는 방금 호원리와 101.1고지계선에서 저항하는 적들을 소멸한 전학민련대가 전투준비를 갖추고있었다.

대대별 혹은 중대별로 군인집회가 진행되고있었다. 이미 격전을 치르고 난 전사들은 커다란 감격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방송연설을 접하였다.

대대장 황은식과 함께 3중대에 나간 전학민은 물안개가 휘감긴 골짜기에 전사들과 함께 섰다. 황은식은 이끼낀 바위우에 서서 지난 이틀동안의 전투에 벌써 쉬여버린 목소리로 방송연설의 내용을 전달하고있었다.

《리승만반동도배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실시된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에 의한 토지개혁의 결과로 토지의 주인으로 된 농민들에게서 토지를 빼앗아 다시 지주들에게 돌려주려 하며 북반부인민들이 쟁취한 모든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려 합니다. 리승만역도는 우리 조국을 미제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며 전체 조선인민을 미제의 노예로 만들려고 합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들!

우리 조국과 인민에게는 커다란 위험이 닥쳐왔습니다.

조선인민은 리승만도당을 반대하는 이 전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그 헌법을 사수하여야 하며 남반부에 수립된 매국적괴뢰정권을 소탕하고 우리 조국 남반부를 리승만역도의 반동통치에서 해방하며 남반부에 진정한 인민정권인 인민위원회들을 부활시키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의 위업을 완성하여야 하겠습니다.

리승만매국역도가 일으킨 내란을 반대하여 우리가 진행하는 전쟁은 조국의 통일독립과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정의의 전쟁입니다.》

전사들은 엄숙한 얼굴로 위대한 수령님의 호소를 가슴뜨겁게 받아들였다. 또다시 제국주의자들에게 예속되지 않으려거든 그 누구를 물론하고 리승만매국역도들을 타도분쇄하는 구국투쟁에 궐기하여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라는 대목에 이

르자 대렬 한쪽에서 《**김일성**장군 만세—》하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뒤따라 어떤 하사관이 불쑥 일어나더니 목갈린 소리로 구호를 웨쳤다.

《원쑤들의 학정하에서 신음하는 남반부동포들을 구원하자! 서울, 대전으로! 부산, 진해로!》

우렁찬 함성에 골짜기를 휘감고돌던 비안개가 놀란듯이 중천으로 흩어져갔다. 이때 우중충한 하늘에서 폭음소리가 들려왔다. 십자가모양으로 생긴 에프80형추격기편대가 련달아 머리우를 지나갔다. 머지 않은 의정부시가를 폭격하는듯 앙— 하는 급강하소리가 골짜기너머에서 들려왔다.

《미국놈들이다!》

누군가가 속삭이듯 부르짖었다.

학민은 눈살을 찌프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전선에서 만나는 첫 미국놈, 그가 빙산의 밑부분이라고 생각했던 원쑤의 정체가 드러난것이다. 서울을 동북쪽으로 타격할데 대한 명령을 이미 접수한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전략적방침을 실현함에 있어서 비상히 간고한 조건이 앞길에 놓여있다는것을 사무치게 통감하였다. 그는 자기와 함께 어차피 저놈들의 발악적인 저항과 공격을 물리치면서 조국의 남해안까지 가닿아야 할 자기의 전사들을 바라보았다. 젊은 그들은 첫 이틀간의 전투에서 벌써 많은 땀과 피를 흘렸지만 승리에 가슴들이 한껏 부풀어올라있었다. 학민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적은 만만치 않네. 신들메를 단단히 조이자구. 우리가 한걸음이라도 빨리 진격한다는것은 장차의 싸움에서 훨씬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것으로 될테니.》

마침 황은식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위대한 수령님의 방송연설의 다음과 같은 대목을 읽고있었다.

《전체 조선인민은 리승만역도의 뒤에 서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일거일동에 대하여 항상 예리하게 살피며 경각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수령님께서 방송연설을 하신지 불과 하루가 지났는데 미제국주의자들은 벌써 《배후》에서부터 전면으로 기여나온셈이다. 전사들은 일치하게 그것을 느끼는듯 모두 약속이나 한것모양 련달아 기총소사소리가 들려오는 의정부쪽을 쏘아보았다.

학민은 다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빨리 두들겨야 할텐데…)

군인집회가 막 끝났을 때 부관이 달려왔다.

《새로운 명령입니다.》

수신지를 내밀며 말하는 부관의 상기된 얼굴을 보자 학민은 저도모르게 긴장되였다. 이미 접수한 명령에 의하면 서해안일대를 해방하면서 김포를 거쳐 영등포에 진출하기로 된 ×사단과 춘천,가평 방면으로 공격을 개시하여 수원부근에 진출함으로써 적의 퇴로를 차단하기로 된 ×사단의 공격을 앞세우기 위하여 주력집단의 공격은 밤 10시에 주타격방향의 전전선에서 일제히 진행하기로 되여있었다.

학민은 수신지를 받아들자 무엇이 자꾸 걸리기라도 하는듯 한쪽어깨를 움씰거리며 조급히 내려읽었다.

민족보위상명의로 주타격방향의 각 부대장,련합부대장들에게 하달된 그 새로운 명령의 내용은 정황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공격시간을 변동하여 6월 27일 9시30분에 일제히 공격하라는것이였다. 여기서 정황의 변동이란 미국놈들이 상상했던것보다 훨씬 더 뻔뻔스러워 이른바 자기들류의 이런저런 합리화의 구실도 만들기전에 먼저 전선에 나타났다는것과 전선동부의 아군부대들이 험준한 태백산맥의 준령들에 막혀 전진속도가 굼뜨며 또 서해안을 따라 진격하는 련합부대가 필요한 공격속도를 유지하지 못하는데서 초래된것이였다. 이런 정황과 관련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령활하게 주타격방향의 부대들로 하여금 북쪽과 동북쪽으로 맹렬히 적을 타격함으로써 일거에 서울을 해방하려는 새로운 결심을 채택한것이였다.

5

장엄한 서울해방작전의 무대로 된것은 한편으로는 조밀하게 발달된 기동로와 한편으로는 광주산맥의 중심으로 분포된 기복이 심한 천험의 요새를 가진 산악구릉지대였다.

의정부—서울간 대도로가 수십만의 대병력을 순식간에 기동시킬수 있다면 그 좌우측에 빼곡이 들어차있는 도봉산,수락산,불암산,동장대,봉화산,북악산 등 해발 600메터 좌우의 고지들은 걸음마다 걸채이는 쐐기라할것이다.

특히 동장대,미아리,봉화산 등 계선은 적의 서울방어 최종계선으로서 채병덕은 여기서 《빨갱이》들과 사생결단을 내야 한다고

사단장들을 울러댔다.

길은 서울로부터 의정부, 부평리, 가평, 개성 등 각 방면으로 발전되여있었다. 이것은 꾯꾯이 내빼는자에게는 앉으면 저절로 굴러내려가는 미끄럼대같은것이지만 한치한치를 피를 흘리여 극복해야 할 인민군전투원의 립장에서 볼 때 길좌우의 높은 산과 논밭(주로 논)때문에 도로밖에서의 기동은 극도로 제한을 받지 않을수 없는 애물들이기도 하였다.

적의 방어중심에는 한강을 낀 서울시가 가로놓여있는데 그 규모는(행정구역이나 자연지형이 아니라 건물, 교량 등으로 이루어진 인공적지형을 념두에 둔다.) 동서 15키로메터, 남북 12키로메터정도로 한강 좌안에는 산업 및 군사, 항공기지들이 있었고 서울분지의 지배적고지로서는 북악산, 인왕산 등이 있었으며 특히 서울시를 감시하기에 유리한 남산이 시내의 동남방향에 놓여있었다. 시내에는 서쪽으로 4개, 남쪽으로 7개의 대도로가 있었으며 그외에 아군이 기동하기도 좋지만 놈들이 도망치기에는 더욱 유리한 발전된 도로망이 있었다.

시내 중심지대에는 3～4층의 다층건물이 들어차있는데 거기에서는 눈이 벌개서 《빨갱이》가 섬멸됐다는 소식을 기다리는자들이 도사리고있었고 그밖에는 대부분이 빈약한 목조단층건물과 움막, 판자집들로서 여기서는 서울시 인구의 기본을 이루고있는 산업로동자들과 소시민들이 살았다. 그리고 평야지대에서는 찌그러져가는 오막살이들이 분포돼있었다.

이와 같은 지형은 전적으로 공격하는 측에 불리할뿐아니라 험준한 산악에 의거한 방어측에서는 증강무기 그리고 후방물자의 민활한 수송을 보장할수 있고 나아가서는 훌륭한 퇴각로까지 마련돼 있어서 여러가지 보충적인 유리성이 있었다.

도봉산, 수락산 계선의 적 방어선을 돌파하여 사단이 최근임무를 수행하기까지는 제2제대로서 행동하다가 불암산으로부터 잠안리, 퇴계원리계선에 진출하기 위한 차후임무계선에서부터 사단의 전면에서 행동하게 된 전학민련대는 또다시 퍼붓기 시작한 비속에 강행군을 시작하였다. 이미 전투에 진입한 제1제대의 련대들이 치렬한 화력전투를 전개하고있을 때 전차들이 대도로를 따라 질풍같이 달려나갔다. 증오에 이를 가는듯한 무한궤도에서는 마구 으깨여진 진창이 산지사방으로 튀여 달아났다. 비는 억수로 쏟아져 포탑과 장갑은 번들거렸고 흙으로 게발린 무한궤도는 한바퀴 굴러나자마자 허

연 강철을 드러냈다. 와르릉 와르릉—굉음은 사라지는가 하면 꼬리를 물고 또 나타났다. 전차종대가 지나가자 자동포가 나타났다. 그뒤를 또 모터찌클병들이 쾌속을 뽐내듯 달려왔다.

길좌우로 늘어서서 가는 보병들은 이 장엄한 철갑의 행진에 그만 마음이 흐뭇해졌다.

《그 굉장한데. 저놈들이 이제 피똥싸게 됐는걸.》

누군가 감탄하여 이렇게 말하였으나 비가 어찌나 퍼부어대는지 사람을 알아볼수는 없었다.

《왜 동무는 그만 못한것 같은가?》

뒤에서 바투 따라가던 키큰 사람이 이렇게 받았다.

《이건 뭐야?》

먼저 말한쪽이 피뜩 돌아보았으나 모터찌클종대에 뒤따라 나타난 사단포 견인차들이 물탕을 휘뿌리는바람에 얼굴을 되돌리며 두덜거리듯 말을 이었다.

《자네는 통 전쟁이란걸 모르는군. 하긴 나도 겪어보기는 처음이네만 어쨌든 이 전쟁판에야 보병이 제일이지 무슨 소리야.》

아직 애티가 나는 목소리였으나 말투는 어찌나 틀을 차리는지 이쪽은 그만 시무룩이 웃고말았다.

《뒤로 전달, 급보로!》

《뒤로 전달, 급보로!》

이런 련락이 저 앞쪽에서부터 파문처럼 퍼져오더니 벌써 내달리기 시작하였다.

《자 이런…》

무슨 말인가 또 할차비로 뒤를 기웃하던 그 상등병은 어느새 앞사람과의 간격이 벌어지자 꿀컥 말을 삼키고는 내달렸다. 행군서렬에서는 앞선 사람이 한걸음을 뛰면 후속종대에서는 백걸음을 뛰여야 한다. 이리하여 추격전이라도 하듯 냅다 달리고있을 때 윌리스 한대가 미끄러지듯이 앞으로 달려오더니 슬그머니 멈추어섰다.

《동무들》

손잡이를 잡고 비옷을 걸친 작달막한 장령이 일어서더니 힘차게 남쪽을 가리켰다.

《인민군전사들, 앞으로! 적들은 서울에 있소. 누가 서울에 먼저 들어가는가? 누가 리승만이를 포로하는가? 조국은 동무들의 용감성을 시험하고있소!》

《와—》 하고 대렬에서 함성이 터져올랐다.

《서울, 대전으로! 부산, 진해로!》

사처에서 고동구호들이 울려나왔다. 그러자 승용차는 또다시 비속을 째고 앞으로 달려갔다.

《저게 누구야? 멋이 있는데…》

아까 말을 삼킨 상등병이 자못 감탄한 어조로 뒤를 돌아보았다. 기관단총부혁을 틀어쥔 그 바른편소매는 걷어붙였는데 팔목에 붕대가 감겨있었다. 그러나 그가 좋은 말동무라고 생각한 키큰 사람은 웬일인지 말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산속으로 들어간다는게 사실인가? 그럼 우린 승용차도 없으니 서울에 먼저 들어가긴 틀렸는걸. 어때 춘식이!》

춘식이라고 불리운 전사는 말없이 걸음만 다우치더니 불쑥 입을 열었다.

《동무이름은 뭐요?》

《아니, 이 사람이 몇달씩 같은 분대에 있으면서 내 이름을 몰라? 벌써 총소리에 질겁해서 다 까먹은게 아니야?》

붕대를 감은 상등병은 기가 막히는지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뜻밖에도 전사들과 함께 비속을 걷고있는 련대장을 발견하자 질겁을 하여 꿋꿋하게 서버렸다.

《어서 걷소. 걸으며 말해봅시다.》

학민은 비물이 뚝뚝 듣는 무거운 소매자락을 쳐들며 걸음을 재촉하였다.

《그래 동무 이름은 뭐요?》

상등병은 좀 떨어진 간격을 메꾸면서 말하였다.

《1대대 3중대 상등병 리막동입니다.》

《리막동? 동무가 막냉이요?》

학민은 비속에 가볍게 웃으며 다시 물었다.

《웬걸요. 동생이 넷이나 되는데요.》

《그럼 우에는 몇이나 되오?》

《형님이 다섯인데 넷은 군대에 나오고 누이가 셋입니다.》

막동은 창피라도 당한듯이 시무룩해진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학민은 진정으로 놀랐다. 그러니 모두 몇남매나 되는가? 학민은 기가 막혀 한참이나 손가락을 꼽으며 계산하다가 드디여 감탄어린 어조로 말했다.

《굉장한 가정이군. 한개 분대가 훨씬 넘는걸… 아니 부모님

들의 년세가 얼마나 되였소?》

우로 맞춰도 잘 맞지 않고 아래로 맞춰도 잘 맞지 않기때문에 학민은 마침내 또 물을수밖에 없었다.

리막동은 련대장의 질문이 어떤 군사적필요에서가 아니라 그저 자기를 놀려주는것에 불과하다고 느꼈기때문에 한동안 입을 다물고있었다. 그러나 전중대가 다 아는것을 굳이 련대장앞에 숨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자 퉁명스럽게 말하였다.

《아직 쉰도 못됐습니다.》

《아니 그럼?》

《뭘 자꾸 그러십니까? 열아홉살부터 시작해서 마흔여섯까지 해마다 낳았지요. 그 사이 둘인지 죽었다는게 아직 적지 않게 많이 남았지요.》

《그렇구만, 하여간 굉장하오.》

학민은 저도몰래 입귀로 솟아오르는 따뜻한 미소를 느끼며 연신 감탄하였다. 막동은 학민의 그 감탄어린 어조가 저으기 불쾌한듯 피뜩 돌아보더니 중얼거렸다.

《굉장할것도 없지요. 난 군대에 들어와서 단 한번 싸움을 했습니다.》

《아니 그건 왜?》

《어떤 어리석은자가 우리 어머니를 수모했지요. 시시하게 목장이야기를 꺼내는게 아니겠습니까? 난 다짜고짜로 수채에 멨다꽂았지요. 우린 그때 식당근무를 했었거던요. 둘이 함께 비판받은 후에 그자가 사과를 합디다만 난 그런자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분노가 아직 사그라지지 않은듯 숨소리가 높아지는 막동을 바라보며 학민은 심중해졌다. 솔직하고 선량하고 정의감에 불타는 깨끗한 막동이의 심장을 눈앞에 보는듯하였다.

《그 사람이 말을 실수했군. 그러나 수채에 멨다꽂아서야 되겠소? 군복이 다 어지러워질텐데…》

《물론 나도 빨래는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가 아들을 많이 낳아서 우리 나라가 손해를 본게 뭐란말입니까? 지금 우린 넷이 모두 이렇게 서울로 가고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정말 우리 집에서만도 또 한개분대를 전선에 내보낼수 있습니다. 아버지도 아직 젊었습니다. 어머니는 수많은 자식들을 길렀지만 길러만 놓고는 모두 조국에 바쳤습니다. 어머니도 무엇인가 전선에 나온 우리 자식들을 위해 잘 일하실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됐소. 막동동무, 그 싱거운 동무를 대신해서 내가 다시한번 사과

하기요. 그래 그런 가정이 어찌 동무네 가정뿐이겠소? 자, 빨리 갑시다. 어머니가 동무네 형제들을 내보내고 얼마나 속을 태우겠소? 속담에 열손가락을 다 깨물어도 다 아프다는데. 그러니 원쑤들을 빨리 족치고 어머니에게로, 그 훌륭한 어머니에게로 돌아가야 할것 아니겠소?》

학민은 이렇게 말하며 방금전 윌리스를 타고가던 리정권을 생각했다. 정말 그 사람은 멋쟁이다. 장령의 틀이 잡힌 단단한 몸집과 격동적인 말—그리고 조포하게 느껴지도록 용감해지는가 하면 대단찮은 실패에도 신경질을 부리는 그 성미… 이러한것들이 어쩐지 생활에서 우러나오는 소박한 모습그대로 진실하고 용감한 이 전사의 모습과 대조되는것이였다. 뿐만아니라 같은 장령이지만 **김일성**장군님의 품속에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자라난 원인걸이나 윤정술장령의 소탈한 품성과 아무래도 통하지 않는것이 느껴졌다.

《련대장동무! 우리 부대가 산으로 들어간다는게 사실입니까?》

학민의 말에 저으기 기분이 좋아진 막동은 이제는 마음이 조급해졌는지 오래전에 한 질문을 다시한번 되풀이하였다. 아마 그의 생각에 남들은 자동차며 전차를 타고 쏜살같이 달리는데 이 비속을 헤치고 산으로 들어가서야 언제 남보다 앞서 서울에 들어가겠는가 하는것이 걱정스러웠던 모양이다.

학민은 아까부터 막동이와의 대화를 주의깊게 듣고있는 대렬앞뒤의 눈길을 느끼고있었다. 길다란 포신을 끈 자동차들이 아직 우릉우릉 발동소리를 내며 지나갔고 머지 않은 남쪽하늘에서는 불길이 치솟고 포소리가 우뢰처럼 꾸르릉꾸르릉 울려왔으나 전사들의 마음은 벌써 서울에 가있는것이였다.

《그렇소. 우리는 놈들의 저 제1진지가 허물어지면 곧 산으로 종심깊이 우회를 해서 서울동북쪽에 나타나야 하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누구보다 멀고 험하오. 그런데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가 서울뒤쪽에 나타나서 길목을 지켜야 하오. 만일 그렇지 못하면 저 전차와 대포들에 질겁한 놈들이 다 새여버릴것이요. 어떻소, 막동동무, 이 비속을, 저 험한 산을 오늘밤중으로 돌파하고 봉화산과 하달골리에 전개한 놈들의 기본진지를 휩쓸면서 40키로메터지점에 있는 서울뒤쪽까지 진격해낼것 같소?》

그것은 막동이 한사람에게만 한 질문이 아니였다. 민족보위성의 새로운 명령을 접수한 이래 총총히 전투준비를 하면서 대대장들에게 정찰자료를 주고 계선을 갈라놓고 후방보장대책을 세우면서 언젠가 한번은 전사들과 터놓고 말해보고싶었던 질문이였다.

비에 함빡 젖은 전사들은 자기들과 함께 진창길을 헤치며 대렬속에 걸어가는 련대장을 올려다보았다. 비록 전차가 달리고 자동차가 달리고 모터찌클이 달리고 대포가 달려가도 어쨌든 이판에 우리 보병이 그것도 제일 먼길을 격렬한 싸움을 거쳐서 우리 보병의 두다리가 누구보다도 빨리 전선을 돌파해야 한다는 이 엄숙한 질문앞에 그들은 잠시 숨을 죽였다. 그것이 가능한가?

멀리서 무한궤도소리가 울려오고 자동차들은 연신 강철의 포신을 달고지나갔다.

우릉우릉 굉음이 그치지 않는 전선도로우에 전사들의 힘찬 대답소리가 모든 소리를 제압하듯 우렁차게 울려퍼졌다.

《련대장동지! 진격할수 있습니다.》

×

비는 여전히 퍼부었다. 산골물이 넘쳐나서 산속의 오솔길을 훑어내렸다. 비속에 도사리고있는 산들은 범접하기가 만만치 않았다. 사태가 무너져내리고 황토물이 폭포처럼 골짜기를 울리며 쏟아져내렸다.

련대는 비속에 강행군을 계속하였다. 제1진지가 허물어지자 적들은 산지사방으로 흩어졌는데 제1제대의 련대들은 우익쪽도로 연선에서 소탕전을 전개하고있었다. 그 총소리가 아득히 산발을 타고 울려왔다. 가까스로 산허리를 빠져나오면 골짜기아래 대여섯채 농가들이 나타나군하는데 사립문밖에서 농민들이 이 호우속의 강행군대렬을 얼없이 바라보군하였다.

연자방아간기둥이나 비발이 듣지 않는 바위밑에 백묵으로 큼직한 화살표를 그리고 그밑에 《수리개》라는 글자가 씌여있다. 2키로전방에서 행군하는 첨병구분대가 남긴 표식이다. 련대후위에는 포마들이 함뿍 비에 젖어서 코김을 불어대며 포들을 끌어올렸다. 바퀴가 진창에 빠지면 포병은 말할것도 없고 앞서간 보병들까지 달라붙어서 진창과 씨름을 하군하였다.

《동무들, 서울이 눈앞에 있다. 원쑤들의 학정하에서 신음하는 남반부동포들을 구원하자!》

선동원들이 입으로 들어오는 비물을 불어대며 고동구호를 웨쳤다. 문화부중대장들은 대렬옆을 따라가다가 비교적 평탄한 골짜기에 들어서면 조용한 목소리로 전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우리 조국과 우리 조국의 헌법을 사수하라고 말씀하셨지. 그런데 동무들은 이 헌법이 어떠한것인지 아오? 여태까지 이 세상에는 법률이라는것이 수많이 생겨났지만 한번도 동무들이나 나같은 사람을 사람이라고 규정한 법은 없었거던. 그러니 지주나 자본가나 순사나부랭이가 우리를 마음대로 뜯어먹고 부려먹어도 어디 가 말 한마디 할데가 없었단말요! 왜냐 하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마소와 같이 돼있었거던. 지금 이 남반부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그런 처지에 있소. 그러기때문에 우리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조국과 우리 조국의 헌법을 사수해야 하는거요.》

또 다른 목소리가 인민군대는 인민들속에서 나왔으며 조국과 인민의 아들딸로써 조직돼있다고 말하였고 다른 대렬에서는 정의의 전쟁과 부정의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있었다. 그들은 임의의 대목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인용하군하였다.

《인류력사는 자기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에 결사적으로 궐기한 인민들은 언제든지 승리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어떤 선동원은 어제 있었던 소요산전투이야기를 하고있었다.

《김흥엽분대장은 우리와 꼭같은 가난뱅이의 아들이고 공부도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불타는 조국애를 가지고있었으며 **김일성**장군님의 전사로서 다시는 망국노가 되지 않기 위하여 자기의 마지막 피한방울까지 바쳐 싸우겠다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흥엽분대장이 자기 대원들을 지휘하여 소요산고지에 뛰여올랐을 때 수많은 적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김흥엽분대장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소리쳤습니다.

〈1소대는 좌로, 2소대는 우로, 3소대는 중앙으로, 중대 일제히 돌격!〉 하고 허위구령을 쳤습니다. 적들은 그 소리를 듣자 여기에 적어도 한개 중대 이상의 병력이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질겁하여 쩔쩔맸습니다.…》

《히야—그것 참 그럴듯한데. 유격대들 하던 전술이군.》

《그 분대장이 진짜 영웅일세. 헌데말이야, 어때? 우리도 꽤 그럴수 있지 않겠나?》

《가만, 그래 뒤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사들은 자기들과 함께 전투를 한 같은 대오에서 그런 놀라운 영웅이 나타났다는데 대해 자못 감탄을 하고 한편 자기들도 능히 그러한 영웅성과 령활성을 발휘할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뒤를 재촉하였다.

《적들이 당황해서 앞뒤로 두리번거리자 김흥엽분대장은 대원들과

함께 맹렬하게 총알을 퍼부었습니다. 한참 사격을 하니까 총알이 떨어졌습니다. 다음은 수류탄을 집어던졌습니다. 수류탄마저 떨어지자 이번에는 총창을 비껴들고 적진에 뛰여들었습니다. 적을 이리 찌르고 저리 치면서 소리쳤습니다. 〈너희들은 포위되였다. 살고싶거든 항복해라!〉 김흥엽분대장의 전투모습이 어찌나 과감하든지 나머지 적들은 그만 넋을 잃고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혼자 적병 50여명을 살상하고 80여명이나 생포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조국애에 불타면 어떠한 적도 무서울것이 없습니다. 김흥엽분대장의 위훈은 광복된 로동자, 농민들이 당의 령도를 받을 때 무엇을 할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협곡과 단애를 뛰여넘고 골짜기와 절단지대를 극복하면서 련대는 이 호우속을 시간당 평균 4키로라는 무서운 속도로 전진하였다. 후날 사람들이 이 전쟁과 전쟁과정에 발휘한 인민군전투원들의 영웅성 그리고 그 빛나는 위훈을 말하면서 다만 수류탄을 던지고 총창을 휘두르며 적진지로 뛰여든 그 장쾌한 모습만 이야기한다면 공정치 못한것으로 될것이며 부정확한 리해로 될것이다. 군대와 행군, 그것은 농민의 농사와 같아서 풍요한 가을은 봄날 밭갈이로부터 오뉴월 염천아래 등가죽을 벗기는 김매기에 이르기까지 옹근 일년을 두고 쉼없이 기울인 고된 로동과 땀의 결정인것이다. 전사가 적의 제1참호로 돌입하기 위하여서는 이렇듯 세상눈에 잘 드러나지 않고 누가 평가도 해주지 않으며 오직 걸어가는 그 자신들만이 진정한 목적을 아는 간고한 행군을 거쳐야만 한다. 아무리 너그러운 신문도 어느 부대가 무거운 장구와 포를 끌고 이 호우속을 시간당 4키로의 속도로 행군한것과 같은 현상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뜨거운 애국주의와 대중적영웅주의에 대해 쓰지 않았으며 그것을 례를 들어 두어명의 적을 살상한 개별적인 전사의 공적보다 낮게 평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은 무엇보다도 웅변이였으니 그들이 지나간 그 길우에 다름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발이 휘날렸고 인민의 주권이 일어섰던것이다.

한낮이 기울어서 련대는 겨우 산골짜기를 빠져나와 저지로 내려섰다. 왼편 논밭 한중간으로 삼등도로가 나타났다. 지도에 의하면 여기서 봉화산까지는 5키로정도의 거리밖에 없었다. 그러나 비가 계속 내렸으므로 육안으로는 앞의 지형을 분간할수 없었다.

도로를 따라 한참 가노라니 피난민들이 아우성을 치며 달려왔다. 아이를 둘쳐업은 아낙네, 이불짐을 멜빵을 해서 진 늙은이, 손수레에 살림살이들을 처싣고 무엇인가 떠들어대며 오던 중년사나이들이 행군대렬을 보자 황급히 논뚝으로 물러섰다. 학민이가 그들앞에 다가가자

《아이구, 이 원쑤를 갚아주시오.》

하고 손주인듯한 어린애를 솜저고리에 감싸서 둘쳐업은 늙은이가 비물이 뚝뚝 듣는 수염을 흔들며 애원을 하였다. 그러자 큼직한 보따리를 머리에 인 얼굴이 까맣게 질린 아낙네가

《인민군대나으리들, 우린 어데로 가야 살아요?》

하고 매여달리다싶이 하였다. 그들의 입술은 쏟아지는 비속에도 까칠까칠 말라들어서 연방 침으로 추기고있었다.

학민은 무엇때문엔지 그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걸음을 다우치느라고 했지만 그들은 종내 자기의 집과 동네를 버리고 이 궂은 날씨에 로상에 뛰여나오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대는 말에 의하면 그들은 봉화산아래동네 사람들로서 몇시간전에 봉화산에 둥지튼 괴뢰군들이 인민군대가 동네에 매복할수 있다 해서 돌아가며 불을 달고 그것도 모자라서 포사격을 퍼부어 아주 반반하게 쓸어버렸다는것이다.

학민은 묵묵히 비맞은 닭무리처럼 후줄근해진 그들의 얼굴들을 살펴보았다. 손주를 둘쳐업은 늙은이의 까맣게 타고 궂은비에 멍든듯이 퍼렇게 질린 얼굴이 학민의 눈앞에 간고한 남조선농민들의 력사를 펼쳐놓는듯하였다. 주글주글하고 피멍이 든것처럼 짓물린 그 얼굴은 그들이 한평생을 그러안고 씨름을 한 메마른 농토가 아닌가? 얼기설기 거미줄처럼 덮인 잔주름은 그들이 매를 맞고 땅을 떼우면서도 씨암닭을 비틀어가지고 찾아가던 지주네 문전에서 찢어지던 심장의 상처이며 랭돌우에 해산한 안해를 눕혀놓고 눈덮인 산속에서 꺾어온 한지게 청솔가지때문에 산지기며 주재소 순사에게 얻어맞은 따귀와 벌금의 기록은 아닌가. 또한 발고랑같은 이마의 굵은 주름—그렇다, 그것은 다름아닌 그들이 평생을 갈아엎은 발고랑과 같다.

학민은 지금 왕청땅에 누워있는 부모들을 생각하였다. 그들의 얼굴 또한 그런 처참한 력사의 사연으로 패이고 찢기고 얼룩졌었다. 학민의 가슴은 한바다를 메우고도 남을것 같은 그들의 끔찍한 불행을 어떻게나 제 한가슴에 안고 지고 그리고 그들이 제 보습을 갖다댈 땅을 찾아주리라는 일념으로 그들먹이 들어찼다.

《여러분, 고생들하십니다. 이제 더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 가까운 동네에 들어가서 하루만 견디십시오. 이제 저놈들을 박살을 내놓을테니 동네로 돌아가서 넘어진 집들을 일으켜세우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늦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학민의 말에 피난민들은 갑자기 설음이 북받치는지 쿨쩍쿨쩍 우는 아낙네가 있는가 하면 혹은 소를 빼앗겼다는 사람, 혹은 방어공사에 끌려가서 죽도록 매를 맞았다는 사람, 놈들의 진지에 아들이 붙잡혀갔다는 사람… 갖가지 억울한 사연을 늘어놓았다.

학민은 그들의 말을 통하여 적들이 만단의 방어준비를 갖추고있다는것과 또 전위구분대들이 이미 없어진 동네부근에서 화력진지를 차지했다는것을 알아낸 다음 보병들을 계속 행군시키고 가까운 골짜기에 후방부를 떨구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량식관리장을 불러 지시를 주었다.

《이 사람들을 도와주시오. 이 비속에 어디로 가겠소. 저 앞동네에다 숙소를 정해드리고 식량이 없는 사람들에게 방조를 주도록 하시오.》

그러자 아이 업은 늙은이가 깜짝 놀라 학민의 소매를 잡았다.

《상관어른, 이게 무슨 당치 않은 분부십네까? 군대어른들이 싸움을 해야지 어느 하가에 우리 백성들의 일을 다 보고있겠습네까? 우린 일이 없습넨다. 그 움막같은 집이야 날아갔다는데는 그리 대수로울것도 없습넨다. 그저 원쑤만 갚아주시우. 그 못된놈들을 내쫓아주시우. 우리야 평생을 이렇게 살아오는걸요.》

《할아버지 그리고 아주머니들,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더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살수 없습니다. 인민군대가 온 이상 여러분과 같은 인민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학민이가 대대를 따라서자 피난민들은 한참동안이나 그 뒤모습을 배웅하였다.

《아이구 군대두 참, 저런 군대는 처음 본다니까…》

하고 한 아낙네가 혀를 찼다.

멀리 비속에 웅크리고 앉은 봉화산이 나타났다. 표고는 불과 138메터였으나 산세는 험하였다. 그아래 불타는 동네가 있었다. 퍼붓는 비발에 불길은 이미 숙어들었으나 검은 연기가 삼단같이 솟아올랐다. 굴뚝에 매여달린 지난해의 시래기단이 비바람에 흔들리고 허물어진 장독대에는 독이며 항아리쪼박이 널렸는데 그 틈새에 애처롭게 흩어진 봉선화꽃잎이 날리고있었다.

행군에 그처럼 애를 먹이던 비도 적전에서 공격전투를 준비하는데는 더없이 훌륭한 위장으로 되였다.

부대를 은밀히 동네주변에 전개시킨 학민은 참모부성원들과 함께 불타는 동네 한복판에 섰다. 그는 원쑤들을 단죄할 론거를 하나하나 기록하듯이 그 자그마한 동네를 샅샅이 돌아보았다. 파벽토사이에

비죽이 내민 수수깡외를 만져보기도 하고 반나마 숯이 된 연목이며 폭풍에 날려가서 쌓인 해묵은 이영이며 쭈그러진 닭장들을 바라보았다. 이 모든것은 불의의 재변을 당한 인민들이 그래도 자기의 생을 기탁해온 생활의 잔해였다. 그 그슬리는 연기와 산산쪼각이 나서 나딩구는 소반이며 헌 고무신짝들에는 아직도 인간의 온기가 풍기고있었다.

《사관학교 생도대들이라지？》

학민은 불쑥 정찰참모를 바라보았다.

《그렇습니다. 선발된 악질들이랍니다.》

《좋소. 통신참모동무, 사단과 통신을 결속하시오.》

그들이 련대장 지휘감시소로 정한 동구밖 언덕밑의 소나무앞에 들어섰을 때 떠들썩한 목소리가 뒤따라왔다. 돌아보니 괴뢰군복장을 한 세사람이 자루같은것을 떠메고오는데 그 자루속에서 아우성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놈아, 이젠 아무리 떠들어도 들리지 않어. 자갈을 어떻게 물렸게 벌써 빠졌어？》

앞선 사람이 이렇게 말하자 자루를 메고오는 장대한 사람이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자물쇠를 해건들 안빠지겠소？》

하고 퉁명스럽게 응수하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비물인지 땀발인지 온통 기름같은것이 번들번들하였다.

학민일행을 보자 한사람이 뛰여왔다.

《련대장동지, 정찰중대장 오덕칠 만나볼수 있습니까？》

《사단정찰이군, 수고했소. 뭘 그리 소동을 피우오？》

《련대장동지께 첫 선물입니다. 한놈 잡아왔는데 어찌나 갈개는지 막 물어뜯습니다.》

덕칠은 장한듯이 작업복같은 괴뢰군전투복의 앞단추를 끌러놓으며 허리에 찬 수건을 쑥 뽑아서 이마며 목덜미의 땀을 훔쳤다.

학민이가 그 망나니같은 복장과 조잡한 거동을 엄한 눈매로 바라보자 오덕칠은 좀 거북해졌는지 멋적게 웃으며 중얼거렸다.

《이래야 괴뢰군 맛이 난답니다. 마구 굴어야 어울리거던요.》

《저리 가오. 난 그따위에게는 볼일이 없소.》

학민의 불쾌한 목소리를 듣자 덕칠은 잠시 떨떨해져서 저앞에 내려놓은 자루와 학민을 번갈아보았다.

《그래도 쓸만할텐데요. 사관학교 생도대 중대장인데 꽤 말을 할거우다.》

여간 섭섭해하는 목소리가 아니였다. 그러면서도 장사군처럼 값을 더 놓아보려고 하는 그 흉물스런 심산은 여전하였다.

학민은 그 소리는 못들은체 하고 물었다.

《그래 동무들은 본게 없소?》

《왜 본게 없겠습니까? 우리도 눈을 뜨고 다니는데요.》

덕칠은 의기양양해서 속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다. 학민이 받아들자 옆에 붙어서며 설명하였다.

《이게 제1참호입니다. 여기 중기화점이 있구요, 감시소는 여기 있습니다.》

《흠, 어느새 제법 원형방어진을 꾸렸군. 내 그럴줄 알았소. 참모장동무, 이걸 보시오. 내 결심은 여전하오. 전련대병력으로 일거에 휩쓸어버리겠소. 원형방어고 뭐고 단숨에, 알겠소? 들리오? 저 포소리, 벌써 전차들이 화계동부근에 진출한 모양이요.》

옆에서 듣고있던 덕칠은 펄쩍 뛰였다.

《이거 또 허탕을 쳤군. 이걸 어쩐다? 련대장동지, 저놈을 좀 맡아주십시오. 우린 앞으로 나가야겠습니다. 이거 어찌나 빨리 따라오는지 어디 당하겠소다?》

저앞 소나무밑에 있는 정찰병들이 자루아가리를 끌러주었는지 포로가 또 웨쳐대기 시작했다.

《이걸 풀어라! 너희들이 날 죽이겠으면 죽여라. 그래도 싸움은 신사적으로 해야 한다.》

《여보시오 중대장나으리, 당신을 여기까지 업고왔는데 그런 말씀하면 섭섭하지 않소? 당신이 장가들 때도 이런 호강 해봤겠소?》

키가 장대한 정찰병이 그밑에 앉아서 담배를 붙여물며 놀려대였다. 그러자 괴뢰군장교를 이렇게 가까이 보기는 처음인 전사들이 옆에 몰려들어 와—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괴뢰군장교는 발끈해서 소리쳤다.

《당신들 상관이 어디 있소? 날 상관과 만나게 해주오!》

《이 자식이!》

한 전사가 앞으로 쑥 나서더니 멱살을 틀어쥐였다.

《너같은 인간쓰레기가 조선말을 하는것이 괘씸하다. 이놈아, 건방진 수작 말고 개처럼 짖어라. 너깐놈에게, 너깐놈에게 조선말이 당하냐?》

《여보게 보병, 그놈 살살 만지게. 아직 팔리지 않은걸세.》

정찰병이 담배쥔 손을 흔들며 말렸으나 막동은 벌써 멱살을 바싹 틀어쥐였다.

《상관은 좀 있다 만나고 나하고 이야기 좀 해보자. 너 이자식, 저 동네는 왜 갈겼느냐? 그게 신사적으로 하는 싸움이냐?》

《아이쿠, 여보시오. 사람을…》

《네놈이 사람을 좀 많이 못살게 굴었을테냐? 이젠 네가 좀 겪어봐라.》

《아이쿠, 난 병이 있어서…》

《여보게 보병, 살살 만지라는데.》

이런 판에 오덕칠이가 달려왔다.

《이건 누구요? 주인도 아직 손대지 않은걸 옆에서 먼저… 허— 여보 동무들, 이놈을 어서 경비소대에 넘겨주오. 련대장동무는 바빠서 면회할 시간이 없다오.》

골짜기와 벼랑을 떠메다싶이하여 끌고온 포들이 제가끔 제원을 구하자 봉화산을 향해 일제히 포문을 뻗쳤다. 퍼붓는 비를 리용하여 보병들은 돌격선으로 은밀히 진출하였다. 그러나 놈들은 이미 방어시설을 갖추어놓고 아군의 진격을 기다리던 참이라 인차 눈치를 채고 폐허로 된 동네와 구릉, 둔덕, 최뚝 그리고 벌써 반반하게 나무를 베놓은 릉선을 향해 마구 불질을 해댔다. 놈들이 완전한 원형방어를 조직하고 고지를 요새화하였기때문에 배후로 기동도 할수 없었고 우선 산에 접근할 방도가 없었다. 이때 보위성 보조지휘소에서 명령이 내려왔다.

《28일 미명에 이미 배속된 기재와 함께 서울—의정부간 대도로좌측에서 진격하여 한남동 뚝섬계선을 점령하고 지적한 임무를 수행할것.》

학민은 시계를 한번 들여다보고나서 지도앞에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시선은 봉화산이 아니라 뚝섬과 한남동 부근을 더듬고있었다.

《참모장동무, 여기서 포병과의 협동을 봐주시오. 난 화선에 나가봐야겠소.》

《련대장동지, 안됩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아니요, 이건 물론 좋은 방법은 아니요. 그러나 래일새벽 서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좀 해봐야겠소.》

《허지만 련대장동지.》

《허허허, 걱정마오. 내 가슴이 그렇게 얄팍하진 않소. 나도 적탄을 맞는게 그리 유쾌하지야 않지, 서울이 눈앞에 있는데! 그러니 념려마오.》

참모장은 지도를 움켜쥐고 솔밭속을 걸어가는 학민을 더는 만류할수 없었다.

학민은 적탄이 퍼붓는 최뚝길로 해서 아까 그 불타버린 동네

를 지났다. 비발과 적탄이 온통 그에게로 집중된듯 마구 쏟아져 내렸다. 그러나 학민은 어깨도 구부리지 않고 돌격선을 향해 걸어갔다. 동네앞과 둔덕과 구릉에서 적탄앞에 머리를 수그린 전련대의 전사들이 비발과 적탄속에 우뚝 서서 걸어가는 자기네의 련대장을 바라보고있었다. 그가 지향하고 가는곳—그곳은 지금 1대대가 매복하고있는 산기슭에 가장 가까운 다락논앞이라는것이 적에게나 아군에게나 명백할만큼 그의 걸음걸이는 의도적이였다. 그런데 적탄은 웬일인지 집요하게 그의 전후좌우에 흩어졌으나 그를 맞히지는 못하였다. 마침내 학민은 다락논앞에 가닿았다. 그우에는 산중턱에 바위가 돌출하여 놈들의 사계에 들어가지 않았다. 동네앞과 둔덕과 구릉 그리고 최뚝가에서 일제히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학민은 바위며 다박솔뒤에 매복한 전사들앞에 우뚝 섰다.

《동무들! 돌격선이 머지 않소. 단숨에 저 꼭대기까지 달려내겠소?》

황은식이 달려왔다. 그는 얼른 적탄이 날아올 방향으로 몸을 돌려대여 학민을 막아서며 말하였다.

《놈들의 화력이 심합니다.》

학민은 그쪽은 돌아보지도 않고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말했다.

《화력이 심하오. 그렇지만 화력이 심하지 않으면 무슨 전쟁이겠소? 전사동무들, 우리는 이 가슴으로 적의 총알로부터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나선 사람들이요. 이제 포사격이 시작되면 놈들의 사격이 좀 숙어들거요. 혹시 발악적으로 저항을 해도 우린 짓부시고 나가야 하오. 알겠소?》

《알았습니다—》

산천이 들썽하게 온 골짜기가 화답하였다.

쾅— 하고 기준포가 첫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일제사격이 시작되였다. 20분간으로 예정된 준비사격이 한창 진행되고있을 때 학민은 《앞으로!》하고 권총쥔 손으로 고지정점을 가리키며 앞으로 달려나갔다. 황은식과 리막동이 학민을 막아서려고 필사적으로 학민의 앞을 달려나갔다.

《만세—》

《만세—》

《서울이 눈앞에 있다. 동무들, 앞으로…》

포사격이 고지후면으로 넘어갔을무렵 봉화산, 그 옛날 홰불이 타오르던 연대우에는 벌써 총알에 찢기운 공화국기가 휘날리고있었다.

6

38선까지 기차를 타고온 예비련대는 그앞은 줄곧 도보행군으로 전선을 따라잡아야만 하였다. 27일부터 미국비행기의 폭격이 본격화되여 밤에만 움직이기 시작한 기차를 타고는 자꾸만 남쪽으로 뻗어가는 전선을 따라잡을 방도가 없었다. 나무가지로 어깨며 모자를 위장한 단정한 군복차림으로 규정된 행군서렬을 엄격히 유지해오던 련대는 38선부근에서부터 벌써 어수선한 싸움터를 지나게 되였다. 포탄으로 파헤쳐놓은 길이며 불타는 숲이며 파괴된 농가들을 보자 대렬은 긴장되였다. 전선도로는 복잡하였다. 군수물자를 그득그득 실은 자동차들이 길이 메이게 남쪽으로 달려나갔고 종심깊이 있던 사단들이 도보로, 자동차로, 혹은 기차로 수송되였다. 사복을 입은 정치공작원들과 내무원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대렬을 지어 남쪽으로 나갔다. 이 후속부대들은 간데족족 남반부인민들의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 갑자기 터져오른 포화속에서 정신을 수습하지 못한 인민들은 눈깜박할 사이에 바람처럼 지나가버린 일선부대전사들에게 못다한 정성을 이 새 군복차림의 전사들에게 보내는것이였다. 동네마다 아주머니들이 찬물을 떠다놓고 갈증을 덜어주었으며 숙영지에 들면 새로 조직된 녀맹단체에서 식사를 돕겠다고 나섰다. 골목마다 공화국기발을 손에 든 사람들이 달려나와

《**김일성**장군님 만세!》

《조선인민군 만세!》

하고 환성을 올렸다.

《자, 이거 너무 이러면 난 립장이 곤난한데…》

기름한 얼굴에 팔다리까지 유난히 길어서 새 군복이 꼭 남의것을 빌려입은것처럼 팔목과 정갱이가 드러나는 문기수가 연방 한쪽손을 흔들면서 얼굴이 벌개가지고 말했다.

《그러게 내가 뭐라던가? 인민들의 환영에 취해있다가는 싸움구경을 하지도 못한다니까.》

세철은 불과 2～3일전에 만난 문기수에게서 인민들의 지나친 환영이 련대로 하여금 결국 전투에 참가할 가능성을 잃게 하리라는데

대해 한마디도 들은적이 없었다. 그러나 문기수의 말이 어찌나 확정적이던지 언젠가 그런 말을 들은것을 자기가 잊어버렸겠거니 하고 생각할밖에 없었다.

《그러게 빨리 걸으라구. 그렇게 입이 다사해서야 언제 걸을 틈이 있겠나?》

문기수는 정말 말이 많았다. 그는 똑같이 걸어오는데도 남보다 몇갑절 많은것을 보았고 들었으며 따라서 많은 말을 할 필요성을 줄곧 느끼고있는듯하였다.

며칠째 퍼붓던 비가 개이더니 태양은 갑자기 열을 뿜기 시작하였다. 진흙으로 으깨여졌던 길은 어느새 황토먼지가 자욱해졌다. 전사들의 등은 축축히 젖어나서 지도처럼 얼룩이 졌다. 얼굴은 벌써 벌겋게 익었는데 그우에 먼지가 올라 눈섭은 세여버린듯 하얗고 눈만 반짝거렸다.

조그마한 장거리가 나타났다. 밤새 계속된 강행군에 몸은 솜처럼 나른해지고 두다리는 철심이라도 해박은듯 뻣뻣해졌으나 거리가 보이자 전사들의 얼굴에는 활기가 되살아났다.

《가슴에 끓는 피를— 하나, 둘, 셋!》

대렬 한가운데서 선창이 울려나오자 전사들은 오를 맞추며 씩씩하게 노래를 시작했다.

가슴에 끓는 피를 조국에 바치니
영예로운 별빛이 머리우에 빛난다

대렬이 거리에 들어서자 만세소리가 터져나왔다. 기발이 나붓기고 손이 흔들리고 눈물이 글썽한 얼굴들이 언뜻언뜻 지나갔다. 갑자기 한 할머니가 대렬앞으로 뛰여왔다. 그 손에는 무엇인가 싸든 보따리가 쥐여져있었다.

《이 더위에 얼마나 수고들하누. 이게나 가져가서…》

할머니가 막 보따리를 우익에 선 동무에게 전하려는데 팔에 《자위대》란 완장을 두른 청년이 달려나왔다.

《할머니, 이렇게 막 달려나오면 군대동무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어서 저리로 들어가십시오.》

《이거 놓아, 놓으라는데, 못난이같이.》

할머니는 움켜잡힌 보따리를 빼으려고 힘을 쓰며 소리쳤다.

《내가 인민군대가 하도 고마워서 우리 집 터밭에서！ 아이쿠, 이런 못된놈 봤나…》

둘이 밀고 닥치는바람에 보자기매듭이 풀어져서 빨갛게 익은 일년감과 닭알이 길우에 떨어졌다. 자위대원과 할머니는 무엇인가 소리를 치며 먼지우에 굴러난 일년감과 닭알을 주어담았다.

《못된놈！ 너같은건 경찰서에서 매를 더 맞아봐야 인민군대 고마운줄 안다. 못난놈같이…》

할머니는 자위대원에게 떠밀리여 길옆으로 나가면서도 큰 소리로 웨쳤다.

전사들은 대렬을 정연히 맞추어나가면서도 그 할머니와 또 뙤약볕아래 서서 더운줄도 모르고 만세를 웨치는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금시 땅속으로 잦아들것만 같던 피로는 간데없이 사라져버렸다.

세철은 이미 사람들 틈바구니에 사라져버린 할머니를 자꾸 돌아보았다. 어딘가 말투며 얼굴모습이 어머니와 비슷한데가 있다고 생각되였다. 혹시 다리를 절지 않는가 해서 부질없는짓인줄 번연히 알면서도 할머니의 다리를 유심히 살펴보기까지 하였다. 어머니가 이 남조선거리에 나와 자기를 배웅해줄 까닭은 없었다. 어머니는 벌써 수백리 떨어진 후방에 있다. 혹 거기서 나와 같이 군대에 나가는 다른 동무들을 배웅하고있는지 모른다. 그것은 다툴수 없이 명백한 사실이였다. 그렇지만 웬일인지 비슷한 나이의 녀인을 볼 때마다 자기 어머니 비슷한데를 발견하고 그리하여 혹시 다리를 절지 않는가 하고 살피게 되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생각하면 그것은 길바닥에 전기줄이 어수선하게 깔려있고 찌프며 군용트럭들이 불타고있는 싸움이 지나간 파괴된 거리나 혹 성한채 남았다 해도 모진 가난에 실그러져가는 농촌에서 새로 만나는 얼굴마다에서 어머니의 그것과 같은 진정과 정성을 느끼기때문인지도 몰랐다.

세철은 25일 당일로 조국보위후원회에서 군사등록을 하고 인차 광산에 뛰여가 이튿날 아침에 집결처로 갔었다. 그후 며칠동안 대렬편성과 기차와 또 대렬편성과 기차, 이렇게 수없이 명단을 만들고 어딘가로 인솔자를 따라가고 또 대렬을 편성하고 그리다가 마침내 전선으로 출동중인 예비련대에 편입된것이였다.

그날 검산역은 사람으로 새까맣게 덮여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방송연설이 울려나오고 전과가 보도되였다. 젊은이들은 저마다 군대에 나가겠다고 군당이며 군민청이며 조국보위후원회

로 쓸어들었다. 군대환송사업으로 거리는 술렁술렁하였다. 어느새 정거장앞 벽보판에는 큼직한 조선지도가 나붙었는데 조그마한 공화국기발로 인민군대가 진격한 계선을 반영하고있었다. 역구내로 대렬을 따라가던 세철은 문득 《형!》하는 목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추었다.

환송군중들 다리사이를 비집고 진기가 새여들어왔다.

《형! 어디 가?》

《오, 진기냐? 나 군대에 나간다!》

왜 그런지 눈앞이 캄캄하였다. 자기의 꿈같이 사라져간 사랑의 유일한 목격자인 진기를 여기서 만난다는것은 어쩌면 분별없이 무의미하게 흘러보낸 지난 나날과 또 이제 전쟁이라는 거창한 사변을 당하고야 그 정체를 똑똑히 깨닫게 된 자기의 안온하고 시시한 생활(세철은 어쩐지 그렇게만 생각되였고 그래서 자꾸만 누구앞엔가 죄스럽게 생각되는것이였다.)에 대해서 마지막 작별을 고할 기회를 주는것 같이도 생각되였다. 그러나 자꾸 떠미는 사람들의 파도를 가까스로 뻗치고 서서 세철은 저로서도 뜻밖인 질문을 하였다.

《누나 어디 갔니?》

《누나 평산에 갔어, 이모집에. 누나는 머저리야.》

진기는 그 복잡한 사람들 틈에서도 세철이가 자기와의 사이가 보통이 아님을 많은 사람들앞에서 증명해준 그 말이 무척도 반가운듯 흥분하였으나 정작 그 누이가 이 요긴한 대목에 없는것이 저으기 화가 나는 모양 이렇게 소리쳤다.

세철은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자꾸만 뒤설레이는 군중의 힘에 밀려 그만 구내로 나오고말았다. 그리고는 어머니도 진기도 볼수가 없었다. 그저 끝없는 환성과 노래와 기발의 파도가 있을뿐이였다.

이미 38선을 넘어 이렇게 해빛 뜨거운 남반부땅을 걸어가며 세철의 머리에는 어딘가 저 앞길에서 벌어지고있을 격렬한 싸움판을 따라잡지 못해 안타깝게 허우적이는 한편 이제는 마지막 리별을 한것으로 치부하고있는 아득히 뒤에 남겨두고 온 생활을 그려보는것이였다. 보패는 왜 평산에 갔을가? 내가 그렇게 만나려고 애를 썼는데 그는 자기 어머니도 몰래 평산에 가서 무슨 일을 했을가? 어쨌든 보패라는 녀자는 시시한 녀자다. 삼각이며 대수며 로어며 하는 성인중학에서 겨우 꼭지만 뗀 그 힘든 과목들을 죽을 힘을 내서 공부할 때도 보패란 녀자는 줄곧 방해를 하였다. 그런데 이제 전선으로 가는 이 바쁜 행군길에서조차 자꾸만 결채이는것이다. 세철은 끝없이 남

쪽으로 뻗어나간 산과 들과 길들을 바라보면서 어디가 마지막 숙영지가 될지 모르는 이 행군의 진정한 목적을 생각해보는것이였다.

보패! 저 부산앞바다까지 가거든 다시 돌아가서 한번 따져보자, 그리고 어머니가 장농속에 깊숙이 간직해두었다는 그 책들도 다시 꺼내서 공부를 해보자. 그것이 아무리 시시하고 무의미하게 보낸 생활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보패로 해서 속을 썩인 밤이 아무리 쓰거운 추억만 남겨놓았다 해도 심지어 보패 어머니에게 당한 그 불의의 봉변까지도 이제는 원쑤들을 물리치기전에는 다시는 돌아올수 없는 행복이며 사랑이며 권리였다.…

《나는 저 〈수리개〉라는것을 잘 아네만 수리개란 저렇게 날아가버리면 다시 붙잡긴 틀렸네.》

문기수의 말에 정신을 차린 세철은 기수가 턱으로 가리키는 리정표에 백묵으로 그려놓은 화살표와 그밑에 씌인 《수리개》라는 글자를 읽었다.

《붙잡지 못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동무는 후방에서 전투할셈인가?》

《그게 무슨 말이야?》

세철이가 응수를 하는바람에 신이 난 문기수는 펄쩍 뛰는 시늉을 하며 흉내라도 내듯이 되받았다.

《자네도 알다싶이 나는 산골사람이거던. 그러니 내가 자네보다야 수리개에 대해서 아는것이 많을것 아닌가? 내가 말하는건 수리개가 날아가버리면… 이크, 저것 보게. 저기 우리 부대 암호도 있네. 우측 골짜기로! 그러니 대휴식인 모양이군. 그리게 내가 무어라던가?》

세철은 문기수가 산골사람이라는것도 또 그가 전면 대도로우측 높은 산들에 둘러싸인 밤나무숲에서 부대가 대휴식을 하게 되리라는 예언도 들은적이 없었으나 어쨌든 싸움길에 나서자마자 이렇게 허물없이 속을 터놓는 전우가 옆에 있다는것이 기뻤다.

과연 부대는 대휴식을 하게 되였다. 다만 주민들에게 페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적기의 래습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밤나무숲 골짜기를 훨씬 벗어나서 깊은 산속에서 중대별로 자리를 잡았다.

세철은 맞춤한 자작나무 그늘에 자리를 잡자 비죽이 솟아난 바위우에 두다리를 올려놓고 그대로 꼬꾸라졌다. 군복을 입었달뿐이지 아직도 전시의 군인이 갖추어야 할 훈련이며 긴장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부족한 그였다. 그 가위에 간밤의 행군은 간고하였다.

점점 사이가 멀어지는 전선부대와의 거리를 메꾸기 위하여 짤막한 식사시간과 소휴식시간을 제외하고는 2백리 가까운 길을 줄곧 다그쳐 걸은것이였다. 지친것은 세철이만이 아니였다. 얼마 안되는 구대원을 내놓고는 대부분의 전사들이 발싸개를 풀 궁리도 못하고 아무렇게나 바위며 다박솔가지우에 다리를 걸치자 쓰러져버렸다.

벌써 코고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세철이도 어느새 눈앞이 거물거물해졌다. 바로 산아래를 돌아가는 후방부의 자동차소리가 아득히 먼곳에서처럼 아슴푸레 부르릉거렸다. 그러다가 문득 아무 소리도 없어졌다. 다만 다리가 천근만근으로 무겁고 그 끝인지 중간쯤이 꼭 화독속에 집어넣은것처럼 확확 단다는 느낌이 검질기게 남아있었다.

《…식사… 자발적으로…》

어쩐지 마음이 불안하여 눈을 떠보니 특무장이 수첩을 들고 서있었다. 그옆에 꾸중듣는 아들을 지켜보는 어머니마냥 부소대장이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서있다. 세철은 무겁게 내리누르는 눈시울의 중압에 견딜수가 없어 다시 눈을 감고말았다. 소르르 잠이 들었다. 그런데 주위가 괴괴하다. 이상하다. 자발적이라고 했는데… 왜 아무도 기척이 없을가? 다리가 몹시 쑤시는군. 자 이런, 설마 다 잠들었을수는 없는데…

세철은 화닥닥 놀라서 눈을 번쩍 떴다. 특무장은 여전히 수첩가위를 연필로 가볍게 두드리며 말없이 서있다. 세철은 비로소 식사당번을 내려 왔다는것을 깨달았다. 주위를 돌아보았다. 모두 코를 골고있다. 혹 자기처럼 건들건들 조는 사람도 있다. 어쨌든 모두가 지친것만 사실이다. 누구나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울것이고 눈시울은 그보다 몇갑절 더 무거울것이다. 눈을 뜨고 보니 이번에는 엉치와 허리가 몹시 아프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한개 중대의 식사를 보장하려면 조련치 않겠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세철은 슬그머니 모자를 바로잡고 일어났다. 정말 허리가 뚝 부러질듯이 아프다.

(자발적이라니 하는수없지.)

세철이가 한걸음 앞으로 나서려는데 옆에서 누가 용수철에 튕기듯이 벌떡 일어났다. 문기수였다. 방금까지 배낭을 다독거려 베개를 만들고있던 그는 세철이 보기가 민망하듯 얼굴이 벌개졌다. 그러면서도 넉살좋게 눈을 찡긋하며 속삭였다.

《자네도 알다싶이 된장국은 내가 잘 끓이지 않나?》

2소대에서 신종호라는 전사가 뒤따라 일어섰다.

그제야 특무장은 마음이 놓이는지 히쭉 웃으며 살그머니 그들을 손짓해 불렀다. 이미 잠든 동무들을 깨우지 않게 그리고 다른 동무들이 웅성거리지 않고 인차 잠들수 있게 하자는것이다.

그들이 특무장을 따라 골짜기의 박우물로 내려갔을 때 쌀을 씻고 있던 중대취사원은—그는 어느 중대에서나 흔히 있는 나이 지긋하고 살이 피둥피둥하여 도무지 군대맛이 안나는 사람이였다.—세사람을 엄격히 훑어보더니 신종호에게 말했다.

《동무는 말이여, 여기서 꼼짝 말고 이 고망이나 씻으라구, 꼼짝 말고 말이여! 알았어?》

세철은 취사원의 심한 남도사투리를 듣고 그가 벌써 해방지역에서 탄원해나온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아직도 그런 말투를 쓰는 전라도까지 가닿으려면 멀었다는것을 깨닫자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한편 취사원이 신종호에게 그처럼 모욕적인 지시를 주는데는 더욱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신종호가 발끈해서 대드는바람에 인차 리유가 해명되였다.

《아바이, 이거 와 이러오? 내가 고망어나 씻으러 온줄 알우?》

《허, 이사람 보랑게. 난 동무가 어떻게 된 사람이라는걸 동무보다 더 잘 안당게. 동무같은 덤베북청에게 밥을 맡겼다간 영낙없이 죽을 쑤든지 고두밥을 만들어놓을게 뻔하지 뭔가말이여!》

특무장이 동네로는 절대로 내려가지 말라고 몇번이고 주의를 주었으나 문기수는 군대에서 《공작》의 불가피성과 유리성을 그 잘 돌아가는 혀로 한바탕 엮어대더니 얼마후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고말았다.

돌가마우에 야전밥통을 주런이 걸어놓고 불을 지핀 취사원은 세철에게 신종호를 믿었다가는 큰 랑패를 본다면서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를 몇가지 일화를 들려주었다.

신종호는 본래 룡암포사람으로 목수일을 배우다가 군대에 나왔다. 한번은 중대장이 신종호를 련대지휘부에 문건을 가지고 련락을 보낼 일이 있어서 불렀는데 중대장의 말을 듣자마자 종호는 《갔다오겠습니다.》하고 뛰여나갔다. 중대장은 종호가 변소에 갔겠거니 하고 기다렸으나 종내 돌아오지 않았다. 하는수없이 문건을 딴 사람에게 보내고 종호를 찾으려는데 련대직일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동무가 아무개 전사를 련대지휘부로 련락을 보냈는가 하는 질문을 받자 저으기 당황한 중대장은 자기가 그를 련락을 보내려고 부르긴 했으나 아직 문건은 주지 않았노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직일관은 그 전사가 련대위병소에 걸려 지금 직일관실에 와있는데 자기는 련락을 왔다고 주장한다는것,그래서 무슨 련락을 왔느냐고 물으니까 하여간 자기는 련대지휘부에 련락을 갔다오라는 지시를 받고 왔노라는 주장만 고집스럽게 되풀이한다는것이였다.

《사람이 그렇다네. 제입으로 집을 몇채 지은것처럼 말하지만 웬걸 똑똑히 지었겠나? 기둥을 세개만 세웠든지 도배를 다하고 외를 엮었든지 했을게 뻔하지. 참 저 사람이 또 고망어를 죽탕을 만들지 않는지 모르겠군.》

취사원은 종호이상으로 덤비며 박우물로 내려갔다. 후에 안 일이지만 취사원은 채윤식이라는 사람인데 고향을 떠난지 벌써 10년가까이 되지만 (그는 징병에 끌려나와 동북 어디에서 비행장을 닦다가 광복을 맞았는데 고향으로 간다고 부리나케 가던중 38선이 막혀버렸다.) 아직 사투리가 고질처럼 박혀있을뿐만아니라 남도창을 잘하고 또 비빔밥을 잘하는것때문에 전사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있는 사람이였다.

얼마후 문기수가 널직한 호박잎사귀에 새까만 고추장을 한덩어리 싸들고 돌아왔다. 그는 연신 주위를 힐끔힐끔 살피며 세사람앞에 조심스럽게 그것을 펼쳐놓았다.

《어떤 아주머니를 만나 소비조합상점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봤지,그랬더니 소비조합상점이 없다는군. 참 별놈의데야. 그러더니 내가 취사당번인것을 어떻게 눈치챘는지 입에 대면 찡하는 고추장을 먹어야 전사들이 싸움을 잘한다고 기어코 나를 끌고 가지 않겠나. 내가 우리 특무장 알면 큰일난다고 질색을 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뒤일은 다 책임지겠다는군. 나야 본시 주변이 없는 사람 아닌가? 허지만 어쨌든 식사는 훌륭하게 보장해야 하거던. 그건 그렇고 세철이 자넨 그 군수라는걸 본일이 있나?》

세철은 문기수의 말을 처음부터 미덥지 못하다고 생각했기때문에 고추장에도 군수에도 전혀 흥미가 없었다.

취사원 채윤식은 호박잎사귀를 몹시 께름직한듯 펼쳐보더니 슬쩍 야전밥통에 집어넣으며 엄하게 말했다.

《동무,이제 혼날줄 알랑게,내가 특무장동무 만나고 오겠네.》

《이 아바이 봐,그럼 내가 도루 갖다주고 올테니 이리 주오.》

《쓸데없는 소리 말고 동무는 가만있으란말이여. 과오는 이미 범한거고,고추장은 내가 취사원인것만큼 내가 처분할거여.》

《허,전라도사람이 깜찍하다더니 틀림없군. 하여간 책벌은 내

가 받을테니 고추장을 먹여만 주오. 헌데 세철이, 자넨 왜 입이 갑자기 얼어붙었나? 자네 군수라는걸 본일이 있는가말이야?》

문기수는 세철이가 불을 지피고있는 돌가마곁에 펄썩 앉으며 자작골통대에 부웅을 담아서는 불덩어리를 뜨겁지도 않은지 손으로 집어다 올려놓았다.

《군수를 왜 못봐. 난 도지사도 봤다네. 군수가 한거리에 사는 지주였으니까. 난 그놈들 꼴을 싫증이 나도록 봤다네.》

《그래?》

문기수는 믿어지지 않는지 골통대를 가로물고 연기사이로 세철이를 찬찬히 바라보더니 감탄하였다.

《역시 대처사람이 다르긴 다르군. 난 일제시대에 고작 높은 놈을 봤다는게 장거리에 있는 주재소장과 소학교 교장이야. 나야 산골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소비조합상점도 없는 이런 초라한 동네에서 〈군수님〉을 볼줄이야…》

《아니 군수가 어디 있슴마?》

고망어마저 윤식에게 빼앗기고 어슬렁어슬렁 올라온 신종호가 갑자기 눈이 둥그래서 물었다.

《이사람, 또 덤비지 말게. 이건 이미 지나간 이야기야. 자네도 군수를 못봤나?》

《체, 내가 와 군수를 못보았간? 님자같은 감자바운줄 알았다간 큰 오산이야.》

《난 강원도 산골사람이라도 저런 덤베북청은 아니지 않어.》
슬그머니 종호를 한대 골려준 기수는 세철에게 고개를 돌렸다.
《헌데 자네가 그 군수를 봤다니 말이지만 자네가 본 군수는 어떻던가? 내가 본 놈은 형편없이 초라하더군. 꾀죄죄한 베잠뱅이에 누데기 이불보따리를 멜빵을 해서 걸머졌는데…》

《에이, 쾅포를 놓지 말어, 그따우 군수가 어디 있간?》

《이거보라구, 자넨 늘 그렇게 덤비기때문에 항상 신수가 꼬인단말야! 난 이제 자네가 전투를 어떻게 할지 벌써부터 걱정이네. 그건 그렇고… 이건 진짜 군수거던. 방금 내가 봤는데말이야, 이놈이 우리 군대가 어찌나 빨리 내밀었든지 미처 도망을 못치고 어물거리다가 이제사 그런 몰골을 하고 피난민들 틈에 끼여서 출도를 했거던.》

그제야 세철이도 기수 이야기가 진담이라는것을 알아채고 그의 큼직한 입모습을 지켜보았다. 기수는 한참 이야기를 하는 사

이 불이 다 죽어가는 골통대를 빠노라고 볼이 홀쭉해져서 언제 말을 이을지 아득하였다.

《그래 그놈이 어케 됐슴마? 어데로 도망한다던가?》

《하 덤비지 말라는데… 불이 다 죽어가는걸 보지 못…》

문기수는 한참이나 담배대를 빨다가 말을 이었다.

《그놈이 꼴은 그렇게 돼도 속은 살았거던. 제 녀편네하고 저 아래마을에 요기를 하려고 들리지 않았겠나. 저야 꼴이 그 모양인데다 이런 산골에 설마 자기 얼굴을 알 사람이 있을라구 하고 구구를 했겠지. 원체 잘 처먹던놈이 굶었으니 환장도 하게 되지 않았겠나 말이야. 그런데 사실 그놈의 얼굴을 알아본 사람은 없었지, 허지만 우리 인민들의 눈이 좀 밝은가? 제깍 원쑤를 알아맞혔단말일세.》

세철은 기수의 그 장황한 말투에 그만 역정이 폭발하고말았다.

《동무, 좀 군대답게 말하게, 간단명료하게말이야!》

그러나 문기수는 꼼짝도 하지 않는다. 그는 담배를 뻑뻑 빨면서 이상하게 흰 자위가 많은 눈으로 세철을 곁눈질해보며 여전한 투로 말하였다.

《자네도 이 북청사람 닮아가는군. 이야기란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해서는 재미가 없다네. 례를 들어서 옛날에 림당수에 빠진 심청이가 이 세상에 환생해서 왕후가 되고 심봉사는 눈을 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야 무슨 재미가 있겠나? 자넨 소설이라는것을 읽어봤나? 세상에는 뻔한 이야기를 일부러 길다랗게 쓰는 소설가라는것이 있다는것을 자네가 알면 아마 기절을 할걸세.》

세철은 괜히 더쳐놓았다가는 이야기가 또 어디로 달아날지 모른다는것을 깨닫고 잔뜩 이마살을 찌프린채 입을 다물고있었다.

이때 저 아래골짜기쪽에서 와— 하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아까부터 무릎이 들먹들먹하던 신종호가 마침내 참을수 없었던지 쏜살같이 달려내려갔다.

《여보게, 군수는 이미 없어. 저런… 허허허, 참 사람두 덤빈다니까… 그건 그렇고, 내가 어디까지 말했더라? 옳지, 그놈 량주가 동네로 뭘 좀 얻어먹을가 해서 기여들었거던. 그런데 소비조합상점도 없으니 어디서 뭘 사먹겠나? 어떤 어수룩한 할아버지를 잡고 새 백원짜리 다섯장을 내놓으면서 점심을 좀 지어달랬다는군. 그런데 그게 손가락을 갖다대면 베일것 같은 새 돈이였다네. 그 할아버지가 생각하기를 이놈 행색이 이렇게 초라한걸 봐서 필경 도적질을 했다고 지목을 했다

네. 피난민들이 집을 떠나면 우선 식량을 지고 갈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할아버지는 돈을 안받겠다고 말했다네. 리승만이 돈이 이제 무슨 값이 있겠느냐고말이야, 그랬더니 그놈이, 령감님 그건 모르는 말씀이라고 이제 또 세월이 어떻게 될지 알겠느냐고 하더라지 않나?》

《아니 그래 대체 어떻게 했는가? 그놈을 잡았단말인가? 놓쳤단말인가?》

세철은 이야기가 긴장돼오자 다시 조급증에 사로잡혀 또한번 짜증을 냈다. 이때 신종호가 군복소매로 이마의 땀을 씻으며 올라왔다. 문기수는 씨물씨물 웃으며 말했다.

《보라구, 덤비면 저렇게 된다니까. 이 사람, 그건 무슨 소동이던가?》

《우리 문화부중대장동무가 동네 인민들과 니야기를 하고있더군. 머사니 토지개혁니야기를 하니까 춤을 막 추데. 그런데 그 군수놈은 어케 됐슴마?》

《허허허, 토지개혁이야 좋을밖에. 그 군수놈도 알고보니 토지개혁바람에 쫓겨난 지주라네.》

《아니 그놈의 성이 무어라던가?》

세철이 부르짖다싶이 물었다.

《성? 그깐놈에게 무슨 성이 있겠나? 하긴 리승만이도 성이 있으니까 그놈도 김가든 리가든 무엇이 있을테지만 난 물어보지 않았네. 그야 그저 그놈이면 됐지 뭘그래?》

세철은 민성직이 이미 광복전에 서울서 무슨 큰 회사를 차려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되살아나서 입을 다물었다.

문기수는 이미 다 타버린 담배재를 털어내고 깐깐히 닦아서 주머니에 집어넣더니 말을 이었다.

《이젠 이야기를 끝내야겠군. 밥이 끓는데… 그래 그 할아버지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놈 점점 수상하다 하고 찬찬히 보니까 그놈의 손이 어린애손처럼 포동포동한데 녀편네라는건 얼굴에 검댕이를 칠했지만 기름이 번드르하더라는게 아닌가? 그래 이걸 받고는 밥을 못해주겠다고 말했더니 그놈이 또 배허벅을 더듬어서 뭉치돈을 하나 꺼내서는 그속에서 다섯장을 더 뽑아주더라거던. 이놈 틀림없다 생각한 할아버지가 자위대로 달려갔지. 그다음 그놈을 잡아다 그 멜빵을 끄르고 이불짐을 펼쳤더니 웬걸 그속에 금시계 금반지에 보석이 나온다, 돈이 나온다 하는데 거기에 그놈의 신분증명서와 권총 또 그놈이 리승만이에게 갖다바치고는 칭찬을 받으려고 갖은 못된

짓을 한 증거품이 들었더라는군. 내가 아까 동네로 내려가니 그놈 군수를 자위대가 군으로 끌어가는데 인민들이 달라붙어서 때리겠다고 저마다 몽둥이를 들고 나서서 큰 소동이 벌어졌더란말이야.》

취사원 채윤식이 고등어를 씻어들고 달려왔다. 한편에서는 고등어를 야전밥통에 찌고 한쪽에서는 분대별로 밥을 갈라폈다. 저쪽 가마에서는 고기국이 구수한 냄새를 풍겼다.

세철은 마른 소나무 삭정이로 불을 지피며 권총과 신분증을 깊숙이 허줄한 짐속에 꿍져메고 벌써 아득히 남쪽으로 멀어져버린 전선을 향해 이를 악물고 걸어가는 군수를 머리속에 그려보았다. 초라한 행색은 방불히 눈앞에 떠올랐다. 그러나 그 얼굴 생김생김은 그려지지가 않았다. 어쩌면 민성직이 같이 뚱뚱할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송치호처럼 좀상스럽게도 그려졌다. 그런가 하면 38선을 넘어갈때 벌써 송장내가 풍기던 송경팔이 같은 인상이 그려지기도 하였다.

사지는 련일 계속된 행군으로 하여 솜처럼 나른했으나 눈살은 아플만큼 꼿꼿해졌다. 그는 굵직한 삭정이를 이를 악물고 부러뜨렸다.

7

적기의 폭격이 본격화되자 대부대이동은 야간행군에 의거하게 되였다. 위장을 생활화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등화관제를 철저히 할데 대한 주의가 거듭 강조되였다. 부득이 낮에 행군할 때는 소구분대별로 행군서렬을 편성하였다.

예비련대는 밤이면 강행군을 들이대고 낮에는 골짜기며 산속에서 휴식하는 한편 전투정치훈련을 진행하였다.

어느날밤에 세철이네 소대는 측방첨병으로 대도로변에서 2키로가량 옆으로 떨어져서 행군하게 되였다. 전선부대들이 번개처럼 휩쓸고간뒤이기때문에 어디에 패잔병이 숨어있을지 모르는 형편이였다. 더구나 야간행군이기때문에 련대는 전투행군서렬을 편성하지 않을수 없었다. 첨병으로 나가는것만큼 행동은 은밀해야만 하였다.

고추장을 공작한것때문에 전사들에게서는 환영을 받았으나 특무장에게 톡톡히 지적을 받은 문기수는 저으기 삼가는 눈치가 완연했으나 그렇다고 끝없이 샘솟아오르는 그 다양한 생각을 혼자 묵삭

여 버릴 결심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캄캄한 야밤에도 소대원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걸을수 있었다.

달빛이 산기슭에 조을듯이 어리였고 하늘엔 별빛이 총총하였다. 산을 빠져나오자 벌판이 열렸는데 논에서 개구리소리가 요란하였다. 그러다가 군화소리가 가까와지면 구령이라도 들은듯이 뚝 멎어버리고 그대신 지나온 논판 어디에서 또다시 개구리며 풀벌레들이 일제히 목소리를 돋구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술가가 있어서 이 여름밤의 대합창을 그렇듯 능숙하게 지휘하고있는것만 같았다. 먼데서 개짖는 소리가 났다. 그러나 안개에 휘감긴 달빛이 흐를뿐 불빛은 보이지 않았다.

밤이 깊어가자 어느새 달은 없어지고 먹장같은 어둠이 내리누르듯이 숨가쁘게 덮쳐들었다. 바람 한점없이 무더운 밤이였다. 그러고 보니 달이 진것이 아니라 비구름이 달을 삼켜버린것이였다. 전사들은 전신이 땀에 떠서 걸음을 다우쳤다. 앞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진 몸에 소매를 걷어올린 팔들을 추진기처럼 앞뒤로 힘차게 휘저었다.

《넨장, 차라리 이럴바엔 비라도 한줄금 올게지, 사람 데치겠군.》

문기수가 불평을 토했으나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다. 가끔 손수건으로 목덜미며 홧홧 다는 볼에서 땀을 훔쳐낼뿐 실속없는 공론에 참가할 겨를이 없었다.

세철은 낮에 잠을 설쳤기때문에 눈이 자꾸 감겨왔다. 조금이라도 걸음발을 늦추면 끄떡하고 턱방아를 찧군하였다. 그래서 기수와 좀 수작을 해보고싶었으나 웬일인지 입이 벌어지지 않았다. 한걸음한걸음 남으로 갈수록 그리고 한국토안에 있는 땅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만큼 가난하고 헐벗은 거리와 마을을 볼수록 이 싸움이 그저 덤벼드니까 내친다는 싸움에 그칠수 없다는 생각이 굳어지는것이였다. 생리적인 피로에 못이겨 눈을 감는 그 짧은 순간에도 《이렇게 가난하고 천대받는 형제들을 두고 어떻게 우리만 잘살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고 그만큼 정신이 들면 남반부 동포들을 해방해야 한다는 일념이 그러지 않아도 무겁게 내리누르는 보총과 장구들우에 뿌듯하도록 무게를 보태주는것이였다.

하늘에서 은은한 폭음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아름다운 자연의 음향도 숨가쁜 어둠도 짓누르는듯한 그 폭음에 숨을 삼키고말았다. 폭음은 삽시에 산을 허물듯이 가까와졌다. 문득 어둠에 잠긴 저앞 어디선가 반짝하고 불빛이 가물거리더니 인차 황급히 사라졌다. 그러자 머리우를 지나치려던 적기들이 기수를 돌려 선회하기 시작하였다. 앵—

하는 금속성이 들려왔다. 뒤미처 캄캄하던 어둠속에 번쩍하고 화광이 솟구쳤다. 뒤따라 급강하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또다시 번쩍 불길이 치솟았다. 그다음 적기들은 연방 내리꼰졌다. 어방대고 마구 소이탄이며 폭탄을 퍼붓던 놈들은 마침내 동네 한귀퉁이에 불이 달리자 미친듯이 기총소사를 들이댔다. 따르륵 따르륵— 삼단같이 피여오르는 불길속에 구원을 부르는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올것만 같았다.

소대는 어둠속을 마구 달려나갔다. 얼마후 적기들은 불타는 동네를 감상하듯이 몇바퀴를 선회하더니 장한듯이 소리를 지르며 남쪽으로 가버렸다.

동네에 뛰여들자 세철은 그 활활 타번지는 불길이 무척 상상한것 이상으로 뜨거운데도 놀랐지만 동네가 너무나 작은데 더욱 놀랐다. 그렇게 화광이 충천하고 온 천지를 날려버릴듯이 10여대의 적기가 폭격을 한 그 동네는 불과 초가집 여라문채가 산비탈에 다닥다닥 모여앉은 이름만의 동네였다.

세철은 격분에 몸을 떨며 불속에 뛰여들었다. 한 젊은 녀인이 아이를 부둥켜안고 달려나왔다. 그 치마자락에는 불길이 달려서 타번지고있었으나 녀인은 펄적 길바닥에 주저앉더니 미친듯이 아이를 흔들어대며 부르짖었다.

《봉돌아, 봉돌아, 아이구, 내 봉돌아—》

불달린 개가 혀를 빼물고 달려가고 뿌지직뿌지직하고 서까래가 허물어져내렸다. 불길은 널름널름 혀를 내두르며 폭싹 썩은 이영을 삼켰다.

세철은 주저앉은 녀인에게로 달려갔다. 어디서 손에 쥐였는지 깨여진 항아리로 논물을 길어다 끼얹으며 소리쳤다.

《아주머니, 일어서십시오. 불이 당겼습니다, 불이…》

그러나 녀인은 아무소리도 들리지 않는지

《봉돌아, 봉돌아！ 아이구머니—》

하고 실성한 사람모양 통곡을 터뜨렸다.

기총탄을 맞은 아이는 이미 숨이 져있었다. 피덩어리같은 그 갓난애의 가슴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려 어머니의 무명치마자락을 붉게 물들이고있었다.

사람들이 뛰여다니며 아우성치고 음메— 하고 송아지가 처량하게 울며 논판으로 뛰여나갔다.

불은 탈대로 탄 연후에야 기가 숙었다. 세철은 길바닥에 주저앉은 그 모자곁에서 그들의 슬픔을 지키기라도 하듯 총을 틀어쥐고 우

뚝 서있었다. 더는 할말이 없었다. 무슨 말을 하여 이미 숨이 진 봉돌이를 살려낼것이며 어머니의 절통한 가슴을 달랠수 있을것인가?
뒤늦게사 비방울이 후둑후둑 떨어졌다. 벌겋게 널린 숯불바다에 구름처럼 김이 피여오르고 재개비가 흩날렸다. 매캐한 구들내가 코를 찔렀다. 삽시에 길바닥우에 걸쭉한 재물이 소용돌이치며 흘러내린다. 그래도 어머니는 산발을 하고 앉아 아들을 부르고있다.
세철은 사위를 돌아보았다. 무너진 돌담들만 앙상하게 남은 동네(명사에는 시칭이 없으니 어쨌든 그 페허도 동네라고 부를수밖에 없지 않는가) 사람들이 이리뛰고 저리닫고 한다. 세철은 파벽토더미에서 헌양철장 하나와 서까래 몇대 그리고 이영을 한아름 안아다가 요행 외롭게 남아있는 굴뚝밑에 움막 비슷한것을 만들었다.
돌아가보니 웬 할머니가 마주 넉두리를 하며 울고있다. 세철은 말없이 그 젊은 녀인에게서 아이를 빼앗아 안았다. 어머니의 체온인지, 아이의 체온인지 따뜻한것을 느끼는 순간 세철의 온몸에서 우드득 뼈소리가 났다.
《이놈들! 이놈들!》
비는 억수로 쏟아졌다. 세철은 그 녀인과 할머니를 억지로 등을 떠밀어 아이를 눕혀놓은 움막밑으로 들여보냈다. 움막이라 하지만 타다남은 서까래를 까치집처럼 엇갈아놓고 썩은 새끼로 이영이며 양철장을 붙들어맸으니 비는 노방으로 샜다. 그러나 이 퍼붓는 비속에 한지에 앉아있기보다는 한결 나은것도 사실이다.
《봉돌아! 에미도 함께 죽자. 어떻게 너만…》
세철은 다시 통곡을 터뜨리는 녀인을 바라보며 멍하니 비속에 섰다. 아무리 총자루를 억세게 틀어쥐여도 눈앞에는 어둠과 비가 온누리에 가득할뿐 원쑤는 없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주머니,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였다. 부산까지 가자, 부산에 가서도 잡히지 않으면 너희들의 그 뉴욕이라는데라도 가자, 어떻게 하든지 네놈들과 좀 만나야겠다, 네놈들이 이 십여호 되나마나한 산골동네를 다만 조선사람이 산다는 리유로 이렇게 참혹하게 폭격하고 저 죄없는 아이를 쏘아죽였으니 네놈들도 우리가 찾아가리라는것을 각오했을테지, 그래 만나자, 이놈들, 기어코 만나자!
세철이가 이렇게 비속에 서서 통곡소리 그치지 않는 움막을 바라보고있는데 문득 소대장이 달려왔다.

《뭘하오? 집합이요!》
《소대장동무!》
세철은 그만 억이 막혀 말을 잇지 못하고 팔을 들어 움막을 가리켰다.
소대장은 움막속을 피뜩 들여다보더니 결연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세철동무, 가기요. 뒤일은 인민위원회에 부탁하였소. 우리 할일은 저앞에 있소. 자, 총을 메오!》
세철은 제식동작을 잊어버리기나 한듯 천천히 무겁게 총을 메였다. 원쑤들이 이 땅에 강요한 재난의 무게를 가늠하듯 총을 받들어서는 묵중하게 어깨우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움막을 들여다보고 조용히 말했다.
《아주머니, 봉돌이 원쑤를 내가 갚아드리겠습니다. 래일 날이 밝거던 마른땅을 골라서 잘 묻어주시우.》
이튿날 련대는 ○○○거리가 내려다뵈는 산우에서 일간휴식을 하였다. 경원선철도가 지나간 이 거리는 6.25당시까지 괴뢰군의 대병참기지였다. 그래서 정거장과 대피선 일대에는 군수물자가 가득가득실린 화차들이 빼곡하였고 골짜기마다 연유며 포탄, 탄약, 피복등 창고들이 자리잡고있었다. 며칠사이에 후방부대가 이 막대한 로획품을 처리하겠다고 분주히 돌아갔지만 워낙 량이 공화국북반부를 일거에 휩쓸기 위해서 마련해놓은것들이기때문에 그렇게 쉬 없어질수가 없었다. 이미 실어놓았거나 정거장부근에 끌어내다놓은것들은 거지반 처리되였으나 아직 골짜기들에는 적지 않게 포탄이 쌓여있었다. 특히 한골짜기에는 105미리포탄이 알몸뚱이로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다. 그것은 당장 갖다 어디다 쓸데도 마땅찮았기때문에 자연 처리가 늦어진것이였다. 화약으로만 환산해도 수만톤에 달하는 그 엄청난 포탄들이 공화국북반부주민들을 겨누어 발사하기로 되였었다는것을 생각하고 보는 사람마다 끔찍해하였다.
세철은 가둑나무숲속에서 맞춤한 잔디밭을 골라 누웠다. 처음에는 목덜미로 장딴지로 마구 기여오르는 개미성화에 털고 두들기고 하느라고 옆에서 드릉드릉 코고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싱갱이를 하다가 가까스로 잠을 청하게 되자 그늘이 옮겨가는바람에 또 깨여났다. 그늘을 따라서 한바퀴 구르자 자기와 비슷한 나이지만 어딘가 어른티가 나는 분대장의 옆구리에 부딪쳤다. 분대장은 얼굴에 축축하게 축인 손수건을 올려놓고 자는데 그래서 그런지 개미도 해볕도 달라붙지 못했다. 세철은 무슨 큰 경험이라도 배운듯하여

얼른 손수건을 꺼내서 얼굴우에 올려놓았다.
워낙 몸이 피곤해서 그런지 혹은 그 손수건을 올려놓는 방법에 효험이 있었던지 세철은 인차 깊은잠이 들어버렸다. 얼마나 잤는지 무엇이 짓누르는것 같은 압박감에 번쩍 눈을 떠보니 자기가 누운 잔디밭에는 새로운 그늘이 질게 깔렸는데 갈증이 나서 금방 목에 불이라도 달릴것 같았다. 주위를 살펴보아야 동무들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없었다.
우선 목을 추기려고 골짜기로 내려갔더니 큼직한 너럭바위우에 염장한 돼지고기를 꺼내놓고 취사원 채윤식이 칼을 갈고있었다. 숫돌을 보자 세철은 갑자기 갈증을 잊어버렸다.
《아바이, 그 숫돌 좀 빌려주겠어요?》
《숫돌?》
윤식은 소나무를 짚고 선 세철을 올려다보더니 일을 계속하면서 말했다.
《이것이 이래뵈두 비싼 숫돌이여. 그래도 세철동무청이니까 빌려주어야지. 무슨 칼을 갈겠나?》
《내 이제 칼을 가져와요.》
세철이가 양회포장지에 싸인 나이프를 들고 내려오니 윤식은 벌써 돼지고기를 썩썩 썰고있었다. 세철이가 꾸레미를 풀고 번쩍번쩍하는 상아자루달린 나이프를 꺼내자 윤식은 깜짝 놀랐다.
《아니 이사람 그것은 식당에서 쓰는 칼 아니여? 그건 어디서 났나?》
세철은 말없이 칼날을 만져보고 더없이 훌륭하게 날이 선 칼을 그대로 숫돌에 대고 문질렀다. 윤식은 슬그머니 욕심이 났는지 고기는 한옆으로 밀어놓고 다가앉았다.
《여보게, 그건 그렇게 날을 세우는 칼이 아니랑께. 그건 말이여 과일이나 베먹고 또 양료리를 먹는데 쓰는 칼이여. 그렇게 날을 세웠다가 입술이라도 베놓으면 어떻게 히여?》
세철은 여전히 대꾸를 안했다. 그는 연방 맑은 개울물을 손바닥으로 끼얹으며 껄쭉하고 퍼리스름한 숫돌물이 물결무늬를 그리는 숫돌우에서 간밤에 본 끔찍한 광경을 그려보는것이였다.
《봉돌아, 내 봉돌아—》
이러한 젊은 녀인의 애절한 부르짖음이 한평생 그의 가슴에서 빠지지 않을 옹이로 깊숙이 들어박혔음을 스스로 느꼈다.
썩—썩— 퍼렇게 번들거리는 날을 해별에 비쳐보며 이마에 깊

숙이 주름을 새기는 세철을 보자 윤식은 쯧쯧하고 혀를 갈기며 일거리를 도로 잡았다.

《여보게, 그런 칼은 동무들이 가지고 다닐것이 아니라 식당에다 내놔야 하는거여. 그건 식당에서 쓰는 칼이거던.》

얼마후 문기수가 내려오더니 정갱이를 걷어올리고 첨벙 물속에 들어서서 머리를 푹 잠그고 요란스럽게 세면을 했다. 한참 물을 끼얹다가 세철이가 갈고있는 칼을 보자 놀라서 물기가 뚝뚝 흐르는 얼굴을 그대로 숫돌앞에 내밀었다.

《아니 자넨 무슨 칼을 그렇게 가나? 어디 보세.》

기수는 세철이 손에서 다짜고짜로 칼자루를 빽아들고 엄지손가락으로 날을 만져보았다.

《됐군, 꽤 먹겠는데…》

그는 제법 수염이 꺼칠해진 턱에 칼을 갖다대더니 자지러지게 환성을 질렀다.

《이거보게, 면도칼 이상이군. 여보게 세철이, 자네 옳지 못해. 이런 칼이 있으면 제때에 보고를 해야지.》

《이리내!》

세철은 뚝뚝하게 말하며 손을 내밀었으나 기수는 여전히 턱을 썩썩 문지르며 반죽좋게 말을 이었다.

《이젠 면도칼 걱정 안해도 되게 생겼군. 이건 아예 내가 보관하도록 하자구. 자네야 아직도 장가를 못든 사람이 언제 수염이 나겠나? 수염이 나는건 어른이 된 표적이네. 자네가 장가를 들려면…》

《이리내!》

세철은 씹어삼키듯이 다시한번 말하며 손을 움씰거리는 턱밑까지 내밀었다. 그제야 기수는 손을 멈추고 뻔히 세철을 바라보더니 좀 멋이 적어졌는지 슬그머니 칼을 넘겨주며 중얼거렸다.

《이사람 왜 그러나? 면도 좀 하려는데… 그 인심이 고약하군.》

세철은 기수가 뭐라고 그냥 두덜거렸으나 못들은척하고 칼을 다 갈자 훌쩍 등성이로 올라오고말았다.

가둑나무그늘에 팔베개를 하고 누우니 구름 한점없는 퍼런 하늘이 눈앞에 펼쳐졌다.

세철은 목을 추기러 갔다가 잊어버리고 왔다는것을 깨달았으나 다시 내려갈 용기는 나지 않았다. 그는 날이 퍼렇게 선 나이프를 양회포장지에 깐깐히 도로 싸서 배낭에 집어넣었다. 그리고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형!》

갑자기 가슴속이 뭉클하였다. 형이 장백의 어느 밀림속에서 이렇게 칼을 갈며 머리속에 그려보았을 그 푸른 하늘이 무한대의 넓이로 펼쳐져 있는것이였다. 그러나 원쑤의 가슴팍에 찔러야 할 그 칼은 날이 선채 아직 배낭속에 들어있었기때문에 바로 그때문에 원쑤들은 아직도 살아나 저 푸른 하늘을 어지럽히고 참혹한 재난을 우리 인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는것이다. 맥아더는 조선을 저희들의 호수라고 했다지?—그놈이 비행기와 원자탄을 가지고 세계를 집어삼키겠다고 했다지?—그래서 그놈은 마침내 접어들었다. 그리고 그 비행기로 뽐을 내고있다. 그러나 두고보자. 내가 칼을 가는건 오해를 하지 말라. 그걸로 비행기를 떨구자는것이 아니라 바로 네놈의 숨통을 찌르기 위해서이다.…

간밤에 본 그 산기슭동네의 참변이 또 눈앞에 서물거리고 그러면 검산에 대한 생각이 절로 떠올랐다. 어머니는 지금 무엇을 하고있을가? 혹 다치지나 않았을가? 그런데 보패는 왜 평산에 갔단말인가?

《항공, 항공!》

하는 웨침소리에 세철은 상념에서 깨여났다. 그러자 여직껏 넋없이 바라보고있던 그 무한대의 푸른 하늘 일각에 까만 점들이 나타난것을 비로소 발견하였다. 삽시에 적기편대들은 상공에 들이닥치더니 선회하기 시작하였다.

세철은 은근히 마음이 조였다. 부대가 발견된것이나 아닌가 하여 저도모르게 주위를 살펴보았으나 그럴만한 기미는 보이지 않고 다만 눈부신 여름해볕아래 ○○○거리와 새하얀 신작로가 불안스레 누워있었다. 그런데 30여대나 되는 구라망 편대는 그 발가벗은듯 해볕아래 누워있는 ○○○거리를 폭격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공격이 정거장주변에 집중되였다. 다음 적기들은 ○○○거리로 급강하하여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로케트포로 마구 갈겼다. 그렇게 미친듯이 돌아치는 동안까지도 적기들의 진정한 의도를 판단할수 없었다.

그러나 보잘것 없는 거리가 다 불길에 휩싸여도 그대로 상공을 맴돌며 떠나지 않는것을 보았을 때 비로소 그놈들이 그저 심심풀이로 온것이 아님을 짐작하였다. 거리가 불타자 이번에는 주변골짜기들을 참빗질하듯 훑어내렸다. 다섯대씩 편대를 짓고 치차바퀴 엇물리듯 이골짜기저골짜기로 마구 포탄을 퍼붓는데 그러고보면 저놈들이 혹련대가 이 부근에서 휴식하는 낌새를 채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미구에 적들의 목적은 확연히 드러났다. 서로 무슨 련락이 닿았는지 마침내 적기들은 한골짜기로 몰려들어 물레바퀴처럼 꼬리를 물고 내리꼰졌다. 그것은 저희들이 105미리포탄을 가려놓은 골짜기였다. 황급히 도망하느라고 미처 거두지 못한 그 포탄더미를 인민군손에 넘기지 않으려는것이 그 폭격의 진정한 목적이였다.

세철은 그제야 가슴이 섬찍하였다. 그도 새벽에 그앞을 지나면서 대충 나무가지로 위장해놓은 그 어마어마한 포탄더미를 보았던것이다. 만일 거기에 불이 달리면… 세철이가 미처 생각을 수습할새도 없었다. 광산에서 잔뼈가 굵으면서 크고작은 폭발을 무수히 보아온 그로서도 난생 처음 당하는, 아니 상상도 못해본 그런 대폭발이 진행되였다. 한놈이 내리꼰졌다가 너무나 바투 땅우에 접근했던 그놈이 미처 기수를 돌릴사이도 없이 골짜기 전체가 불덩어리로 되여 하늘중천으로 어마어마하게 뻗쳐올랐다. 황급히 고도를 취하던 적기마저 훅 날려올라가는듯하더니 뒤이어 시꺼먼 암흑이 푸른 하늘도 작열하는 태양도 그리고 까만 잠자리같던 그 구라망도 한꺼번에 집어삼켜버렸다. 그리고는 지구덩어리가 산산쪼각이 나는듯한 음향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적당치 않은 굉장한것이 온 누리를 들썩 들었다놓았는데 엉거주춤 일어나려던 세철은 첫순간의 폭발때문엔지 아니면 그 굉장한 폭음때문인지 바위짬에 태질을 당하듯 나가넘어졌다. 그런다음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귀가 메고만것이였다. 뒤이어 지진이 일어났다. 귀는 들리지 않았으나 대지의 몸부림이 그대로 다 느껴지도록 산이 흔들흔들하더니 산너머 저쪽골짜기에서 두어채의 농가가 풀썩 허물어져내리고 어딘가 논판에서 소 한마리가 털썩 주저앉아버렸다. 뒤따라 시꺼먼 흙사태, 돌사태가 비오듯 쏟아졌다. 파편이 휘휘 공중을 째고 날아다니고 아름드리나무들이 와지끈와지끈 나가넘어졌다. 천지는 캄캄해졌다. 지진같은 현상은 그냥 그치지 않았다. 적어도 10리사방에는 아직도 그 무시무시한 정체모를 시꺼먼 사태가 쏟아져내렸다.

골짜기에는 불이 달렸다. 무엇때문인지 불길은 시꺼멓게 보였다.

한참이나 지나서 겨우 정신을 수습한 세철은 고개를 흔들어보았다. 귀는 멍멍하게 메여버렸으나 고개는 정상적으로 돌아갔다. 우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몸은 아직 흙먼지속에 파묻혀서 자유롭지 않았으나 그 흙먼지속에서도 성한채로 있는 자기 육체를 느낄수 있었다. 폭발이 멎고 점차 하늘을 덮었던 검은 연기가 가늘어지자 처참한 광경이 눈앞에 드러났다. 저쪽 골짜기에서 아까 꿇어앉았던

황소가 어느새 검정얼룩이로 변해서 쏜살같이 거리쪽으로 내달았다.
《하하— 저놈의 황소가 미쳤군！》
세철은 기가 막히는 한편 황소보다 훨씬 더 위험에 가까왔지만 이렇게 사태속에 묻혀서도 멀쩡해있는 자신이 한층 반가와 중얼거렸다.
○○○거리는 완전한 페허로 되였다. 이곳 저곳에 올망졸망 앉아있던 농가들은 완전 파괴되였거나 넘어지고 먼데것들은 이영을 훌 벗겨버렸다. 파괴된우에 무시무시한 흙사태를 뒤집어쓴 거리는 천지개벽 당시의 광경을 련상시켰다. 길도 불타던 화차도 건물도 아무것도 없고 오직 페허가 있을뿐이였다.
문득 세철은 무엇인가 옆에서 바시락거리는것을 느꼈다. 아름드리 참나무가 중턱이 부러져서 바위짬에 끼웠는데 그 바위짬이 후물후물하였다. 바위도 바위짬도 흙모래로 덮였다. 그런데 그 마구 덮씌워놓은 흙덩어리가 살아있는듯이 호물호물하더니 빵— 하고 조그마한 구멍이 뚫렸다. 그 속에서 새까만 수염이 나오고 이어 새까만 눈깔과 주둥이가 쏙 나와서는 흙모래를 밀어젖혔다. 이윽고 노란줄이 세로 건너간 화려한 옷을 입은 다람쥐아주머니가 상반신을 바깥으로 내밀었다.
흙더미속에 고개만 내민 세철은 숨을 죽이고 또하나 놀랄만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다람쥐는 반들반들하는 그 광채도는 눈으로 방금 일어났던 그 끔찍한 소리가 도대체 어떻게 된 소린가 알아보려고 한참동안이나 아직도 불타는 골짜기며 반반해진 거리를 내려다보았으나 아무래도 리해할수 없었던지, 혹은 그것이 전혀 주목할만한 가치가 없는 시시한것이라고 간주했던지 뚱딴지같은 재해를 입은 자기 집과 통로를 수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역시 마음은 놓이지 않는모양 이따금 불타는 골짜기를 경각성있게 내려다보군하였다.
세철은 침을 꿀꺽 삼키고 나서 몸을 뒤쳤다. 흙사태속에 파묻힌 다리를 뽑아내자 다람쥐는 흠칠하여 바위짬으로 들어가더니
《이건 또 뭐야？》
하는 눈빛으로 세철을 말뚱말뚱 지켜본다.
세철은 미안한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든 그러고만 있을수는 없었다. 겨우 다리를 뽑아낸 그는 허리를 일으키려다가 문득 하늘에 시선이 갔다. 그리고는 환성을 지를만큼 놀랐다. 퍼런 무한대의 그 하늘이 여전히 가로비껴있는것이였다. 어디서 그런 대폭발이 있었던지, 하늘의 그러한 표정을 가지고는 도시 믿을수가 없을만큼 태연하고 너그럽고 부드러운 하늘이였다. 그렇게도 굉장하던 미국놈의 그 발광도 저 하늘

을 흐리게 할수는 없었으며 그 해빛을 가리우지는 못했다. 뿐만아니라 나의 몸에서 터럭 하나도 건드리지 못했다. 비록 황소가 미쳐났지만 저 다람쥐는 또 얼마나 완강한 생활력을 가지고있는가?

세철은 동의를 구하듯이 다람쥐를 돌아보았다. 그러자 다람쥐는 마치 《여보세요, 그런 시시한 생각을 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일감이 이렇게 밀렸는데!》 하는것처럼 부지런히 흙을 파헤쳤다.

세철은 갑자기 흙탕우에 도로 드러누워 마음껏 기지개를 켰다. 어느 화창한 봄날 이렇게 바위우에 드러누워 바라보던 검산의 푸른하늘이 떠올랐다. 지금 보패는 옆에 없다. 그대신 그때처럼 삶의 의욕을 그렇듯 강력하게 불러일으키는것은 어디서나 있었다. 그것은 보패의 환영일수도 있고 쉼없이 발과 주둥이로 흙을 허비적거리는 저 부지런한 다람쥐일수도 있고 또는 그 대폭발속에서도 여전히 힘차게 고동치는 자기의 붉은 심장일수도 있다. 어쨌든 억세게, 씩씩하게 어떤 간고한 환경속에서도 기어코 살아서 그놈을—하긴 대체 《그놈》이 누구인지 구체적인 형상이 떠오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어쨌든 그놈이 맥아더든지, 리승만이든지, 송치호든지, 민성직이든지 하여간 그놈을 기어코 만나야 하며 또 만나게 되리라는 확신이 용솟음치듯 가슴에 넘쳐났다.

세철은 다시한번 그 푸른하늘과 다람쥐를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는 껄껄 하고 마음껏 웃었다.

다만 귀가 메여 제 웃음소리를 들을수 없는것이 유감이였다. 그는 귀구멍을 새끼손가락으로 파헤치며 어디서 구령소리가 들려오지 않나 하고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페허처럼 흙사태에 묻힌 골짜기에서 전사들이 먼지를 툭툭 털고 일어서는것이 보였다. 그리고 페허가 된 거리에 사람들이 하얗게 쓸어나와 분주히 돌아가고있었다. 세철의 입가에는 히죽이 웃음이 어리였다.

《참으로 사람이란 억센것이로구나!》

문득 이러한 생각이 떠올랐던것이다.

8

보패는 위대한 수령님의 방송연설을 듣고서야 전쟁이 일어났다는것을 알았다.

이튿날 검산에 돌아오면서 며칠사이에 엄청나게 변해버린 세상을 그저 놀랍게 바라보았다. 평화는 꿈같이 사라졌다. 기차는 초만원을 이루었으며 정거장마다 전선으로 탄원해가는 청년들과 환송군중들로 끓어번졌다. 확성기는 시간따라 변하는 전선형편과 평양소식을 전하였으며 사람들은 저마다 흥분하여 무엇인가 웨치고 떠들고 론쟁을 하였다.

불과 일주일만에 돌아오는 길이건만 검산에도 그전날의 아늑하고 살뜰하고 그리웁던 정경은 볼수 없었다. 그처럼 헤여날길 없는 고통의 중하를 벗어나려고 평산까지 도망을 쳤건만 실상 밤마다 잠을 못이루게 하던 그 고통이란 무엇이였던가? 행복이며 사랑이며 때로는 애잡짤한 눈물까지 흘리게 하던 그 모든 살뜰한 생활은 이제 어떻게 될것인가? 그가 사랑의 갈림길에서 속을 태우고 번민하던 그 시각에 그의 모든 생활을 한가슴에 안아주던 조국은 이렇게도 준엄한 위험에 처해있었던것이다.

보패는 송구스러움과 부끄러움에 찢어질듯 저려나는 가슴을 안고 우선 언니네 집에 들렸다. 여기서는 또 뜻밖의 광경이 그를 맞이하였다. 안마당에 들어서자 문을 열어젖힌 현관에 주런이 벗어놓은 신들이 눈에 띄였는데 그 여러컬레의 고무신과 로동화를 통해서 자기네 일가가 몽땅 언니네 집에 모여들었다는것을 깨달았다. 진기가 흰 무명천으로 기운 배낭 두개를 한어깨에 하나씩 걸치고 뛰여나왔다.

《누나! 누나, 왜 이제 와? 엄마, 누나왔어.》

그러나 방안에서는 아무 응답도 없고 여전히 중얼중얼하는 말소리가 울려올뿐이였다.

보패는 입술을 앙다물고 이 랭담한 공기가 자기의 경망한 행동에 대해 내려지는 첫매질이라는것을 느꼈다.

사실 이 집안에서는 시집을 안가겠다고 도망쳐다니는 처녀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시비할 경황이 없었다.

《여보, 이제 사설 그만하고 일어서우. 그만것도 모르고 싸움에 나갈가…》

낮익은 웅글은 목소리가 들려오더니 헌 중절모를 눌러쓰고 바지에 행전을 가뜬하게 친 아버지가 현관에 나타났다.

병모로인은 거북하게 서있는 딸을 보자 측은한 목소리로 말했다.

《보패야, 너도 들어가보아라, 오빠와 형부가 오늘 군대에 나간다.》

《아버지—》

현관모서리에 기대섰던 보패는 이 엄숙한 장면에 남처럼 떳떳

하지 못한 자기 처지가 서러워 저도모르게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는 보패를 이윽히 내려다보더니 슬그머니 외면하며 중얼거렸다.

《그래 됐다. 이젠 철없이들 굴 때가 아니다. 넌 수령님 말씀을 들었느냐?》

보패는 쿨쩍거리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할일이 산더미같다. 어서 들어가보아라.》

새악시차림인 봉임이가 맨먼저 나오고 뒤따라 경패가 국보를 안고 나왔다.

《언니!》

보패는 봉임의 손을 잡고 한손으로는 국보의 볼을 쓸며 고개를 떨구었다. 이제 위험에 처한 조국앞에 사랑하는 남편을 내보내는, 비록 동기간이지만 천박한 자기와는 비교도 안될만큼 높은 곳에 어엿하게 서있는듯한 그들에게 자기의 잘못을 용서해달라는 간절한 념원을 담고 보패는 이렇게 불렀다.

봉임이는 시집온지 석달밖에 안된 숫색시였다. 같이 자란 동무들중에서도 그중 친한 사이였고 그래서 올케로 되여서도 《언니》라고 부르기가 거북하던 사이였지만 조국앞에 닥쳐온 위험이 착잡하던 가슴속의 자질구레한 근심걱정을 하루아침에 날려준것처럼 《언니》라는 그 거북하던 말이 수십년버릇이 된것처럼 자연스럽게 새여나왔다. 보패는 물론 그런 변화를 전혀 느끼지 못했고 봉임이 역시 그런것은 감촉하지 못하는듯 그저 방그레 웃었다.

《언니, 내가 국보봐줄게 같이 나가봐요. 어디로 간대요?》

허드레옷을 그대로 걸친 경패를 보고 보패는 아이를 받아안으며 말했다.

《정거장으로 곧장 나간대. 일없어, 난 정거장에 안나갈래. 너나 오빠랑 배웅해드리렴.》

방안에서는 아직도 리씨가 아들과 사위를 잡고 무엇인가 미진한 이야기를 하고있었다.

《여보, 시간이 다 돼가는데 당신은 뭘하오? 원 주책도 없다니까, 세상일은 제혼자 다아는것처럼… 여보, 그 궁상스런 넉두리 그만 좀 집어치우지 못하겠소?》

《아이구맙소사. 그래 내가 아들과 사위를 한꺼번에 내보내는데도 할말을 못한단말이요. 내가 뭣이 떳떳하지 못해 할말을 못한단말이요.》

리씨는 방안에 앉은채 바깔에다 대고 소리쳤다.

《젊은이들이 말이나 좀 하게 내버려둘게지, 주책두 원…》

휘태는 술이라도 한잔 한듯이 얼굴이 상기되여 안경다리를 더욱 자주 매만지며 나왔다.

《보패, 언니를 잘 돌봐줘, 난 개운한 마음으로 떠나는게 기뻐, 알았어? 난 내 잘못을 똑똑히 느끼고 떠나는게 기쁘단말야. 난 아마 누구보다도 잘 싸울거야.》

보패는 그것이 자기에게 한말이지만 실상 휘태가 마지막리별을 앞두고 언니에게 하는 말이며 또 그만큼 진실하다는것을 느꼈다. 물론 보패로서는 그러한 말이 새여나오게 된 휘태의 심중을 낱낱이 다 리해할수는 없었다. 사실 이 마당에 복잡한 심정을 가질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그것은 누구보다도 형부 그 사람일것이다. 그러기때문에 특히 《깨끗한 마음으로》 떠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또 《자기잘못》을 깨닫게 된것이 기쁘다고 말하는것인지도 모른다.

사실 휘태는 싸움터로 떠나면서 이런 리별에서는 적합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로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을 한것이다. 불그레하게 상기된 얼굴은 이 며칠째 거의 뜬눈으로 밝히면서 그가 도달한 정신적앙양을 말해주고있었다. 어제 광산에서는 년간계획을 초과완수하기 위한 광산종업원회의가 있기로 되여있었다. 그러나 회의장에 모인 사람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방송연설을 듣게 되였으며 앉은자리에서 전선으로 보내줄것을 탄원해나섰다. 휘태는 회의장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지난번 당총회이래 숙제로 남아있던 과오의 정체를 깨달았다. 당은 공정하고 또 너그러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때문에 그처럼 엄격하게 당의 비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몰라서 안타까와했었다. 책벌자체가 두려웠다기보다 자기 신념, 자기 생애와 결부시킨 당, 그 당의 진정한 의도를 선뜻 리해할수 없는것이 커다란 고통을 주었었다. 그러나 이제 모든것이 명백해졌다. 놈들은 이런 파렴치한 배신행위를 준비하고있었던것이다. 그처럼 절절한 평화적조국통일추진제의에 대해 전쟁으로 대답한것과 마찬가지로 송치호 그놈은 자기의 나약한 소부르죠아인테리의 이른바 인간성과 우정을 이 천추에 용서못할 전쟁도발목적에 리용했던것이다. 휘태는 그 놀라운 소식이 들려오던 비오는 일요일을 내내 군당앞 확성기결에서 보냈다. 비가 오건말건 사람들은 황급히 뛰여다녔다. 모두가 할일이 너무나 많아 갑자기 어쩔수 없다는 그런 흥분된 얼

굴이였고 바삐 돌아치면서도 목적지향성이 뚜렷한 행동이였다. 그러나 휘태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똑똑히 몰랐다.

집에 돌아오니 안해가 오돌오돌하며 무엇인가 묻고싶은 표정이였으나 종내 입은 벌리지 못하고 바깥으로 들락날락하였다. 밤에 휘태는 직장으로 나와 발파현장에서 새벽까지 일했다. 그러나 아직도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지 똑똑치 않았다. 그러나 이제 모두가 전선으로 탄원해나서는것을 보니 알듯알듯하면서도 딱히 잡히지 않던 수수께끼의 해답이 그렇게도 선명히 떠올랐다. 《가야 한다. 남보다 먼저 내가 나가야 한다. 내가 일을 저질렀으니…》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그는 회의장에 그냥 앉아있었다. 선뜻 사람앞에 나설수가 없었다. 남들처럼 떳떳하게 《나는 전선에 나가겠소》하고 나설 처지가 못된다고 생각되였다. 그러다가 거의 사람이 다 흩어진 다음에야 겨우 엄익준을 사사로이 붙잡았다. 휘태의 말을 참을성있게 다 듣고난 엄익준은

《아니 모두 가면 어떻게 하오? 난 안가고싶은줄아오? 생산도 보장해야지. 쇠돌을 더 캐야 할게 아니요?》하고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휘태의 그 말없는 가운데 간절한 념원이 담긴 선량한 눈을 한참 바라보더니 갑자기 마음을 돌렸는지 주먹으로 허공을 내리쳤다.

《좋소, 그렇게 해봅시다. 하긴 철이 아무리 급해도 싸움보다야 덜 급하지. 그래, 자신이 있소?》

《자신이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내보내주십시오.》

휘태는 눈물이 그렁하게 고이는것을 스스로 느끼면서 익준의 투박한 손을 틀어쥐였다.

《허, 전사가 마음이 약하군. 안동무는 우선 그 인테리뭐라고 하는 시시껍적한것을 뽑아던져야겠소. 그게 탈이거던. 좋소. 그렇게 해봅시다. 내 지배인동무와 좀 의논해보겠소.》

젊은이들과 함께 손을 쳐들고 일어섰다가 코방을 맞고 주저앉은 김순필아바이가 다시 엄익준을 찾아와서 사사롭게 만나줄것을 청하는 바람에 두 사람의 담화는 오래 계속될수 없었다. 그러나 사실 가장 요긴한 말들은 이미 다 해버리나 다름이 없었다. 그다음은 직장간부들과 만나고 군으로 오르내리고 또 인계사업이요 뭐요해서 안해와 마주앉을 여유가 없었다. 떠나게 된 이 대목에 와서는 처가집식솔들이 쓸어드는바람에 엄벙덤벙 시간을 다 보내고말았다. 그러고 보니 경패에게 남기는 말은 이 《개운하게》 그리고 《잘못을 깨달았다》는 말이 전부인셈이다.

그는 보패에게서 아들을 받아안았다. 별로 삐죽해보이던 정수리도

이젠 들어가고 치째졌던 눈이 어느새 둥그스름해졌다. 어머니를 닮았는지 아버지를 닮았는지 아직도 똑똑하진 않았으나 어느쪽을 닮아도 순할밖에 없는 아이는 어찌나 누워있었던지 살이 포동포동한 반면에 뒤골이 주걱처럼 넙적하였다. 국보는 하늘높이 쳐들리여 그 가까스로 이기는 목을 돌려 눈부시게 내리쬐는 해를 바라보고 소란스러운 거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어봐, 어바바—》하고 오직 그만이 아는 소리로 이 사태가 결코 우려할것이 못된다는듯 벙긋벙긋 웃었다.

성기가 나오고 뒤따라 리씨가 헤덤비며 나왔다. 그러자 모두 정거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어수룩해보이는 외모에 성미까지 어져서 아무데 내다놔도 경패의 오빠라는것이 명백히 드러나는 성기는 정거장에 거의 다 왔을 때야 보패옆에 다가와서 말하였다.

《김매기가 늦어질가 걱정이다. 너무 들썩하게 나다니지 말고 착실해서 농사를 해라. 아버지도 집일 돌볼짬이 없을 모양이더라.》

《알겠어요. 오빠, 아무걱정말고 가세요. 내가 오빠에게 걱정을 끼치게 행동을 해서 미안해요.》

《뭐 그래서 그런것은 아니다. 이모네도 잘 있더냐?》

《잘 있어요. 하지만 이젠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요. 태호오빠랑 들락날락하는걸 보고 왔는데 군대에서 만나게 될지도 모르지요.》

《저… 말이다. 저 사람이…》

갑자기 성기의 얼굴이 벌개졌다. 올케의 이상하게 굵어진 허리와 거북살스러워하는 모양을 옆으로 곁눈질해보며 저도 얼굴이 빨개졌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오빠도 참 별걱정을 다 하시지.》

《그래 모두 너를 믿는다. 그리구 비석재 아래논에…》

낫등잔처럼 집안에 있는지 없는지 잘 알리지도 않게 수걱수걱 일만 하던 오빠였다. 그런 그가 대를 이을 장남으로 큰살림을 꾸려오던 주인답게 차근차근 남아있을 가족인 저에게 분부를 하고있다는것을 보패는 력력히 느꼈다. 성기는 자기집 농사형편을 구석구석 이야기하고 필요한 당부를 하였다.

《그리구말이다…》

마감에 성기는 이윽히 보패를 바라보더니 어딘가 딴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세철이 어머니를 자주 좀 가봐라. 그 집하구 우리야 남다른 처지가 아니냐? 어머니 몰래라도 좀 돌봐드려야 할거다. 몸이 불편한 늙은이가 혼자서 좀 힘들겠니?》

《네?》

보패는 흠칠하며 걸음을 멈추었다. 어째서 혼자란말인가?그럼 그이는 벌써? 보패는 창황중에 잠시 잊어버리고있었던 자기의 크나큰 생활을 발견하였다. 평산으로 도망할것이 아니라 두다리를 든든히 뻗치고 서서 지켜야 했었다고 이렇게 혼잡을 이루었던 평산역에서,기차길에서 그리고 방금 언니네 집에서와 길을 걸어오면서 거듭 자기의 경거망동을 반성하고 욕할 때 그 머리속에 무의식중에 소중하게 간직되였던 그 생활은 다름아닌 세철이와 결부된 어린날이였고 그보다 더 굳게 련결된 미래였던것이다. 력사봉바위우에서 그처럼 황홀하게 그려보던 생활은 이제 그 절반이 이미 포화속에 가있다. 그리고 보면 언젠가 언니 경패가 당회의에 참가한 남편을 두고 그처럼 자기의 나약한 마음을 가슴 아프게 뉘우치던 그러한 가시가 자기 심장을 찌르고있다고 보패는 생각하였다.

《그럼 그 동문…》

《그래,벌써 갔다.》

성기는 미처 말을 맺지도 못하였다. 집합구령이 들려왔다. 그는 가족들을 한바퀴 돌아보고 봉임이앞에 서서 무엇인가 말하듯 말하듯하다가 삑 돌아서서 대렬로 달려갔다.

서울이 해방됐다는 소식이 세찬 열풍처럼 동네를 휩쌌다. 그리고도 민주선전실앞에 새로 해세운 큼직한 조선지도판에는 날마다 새로 해방된 지역에 조그마한 공화국기가 꽂혀나갔으며 주문진앞바다며 평택상공에서의 전과가 나붙었다. 그러는 한편 적기의 폭격이 심해져서 벌써 평양,함흥,원산,청진과 황해제철,청진제철 등 큰 공장들이 야수적인 폭격을 겪었다. 심지어 아무 군사시설도 없는 산골의 논밭에도 폭탄이며 기총탄을 퍼부었다는 몸서리치는 만행이 전해졌다. 그래서 들에서도 나무가지를 들써야 했고 회의를 하면서도 어깨며 머리에 위장을 해야만 나다니게 되였다. 게다가 일손이 줄었다. 전선으로도 나갔지만 후방에서도 할일이 많았다. 그래서 두벌김매기는 거의 녀자들 손으로 하게 되였다.

성기가 군대에 나갔다지만 그래도 손포가 넉넉한 편인 보패네 집에서는 남보다 논이 많았으나 일자리는 많이 내였다. 리씨도 들에 나갔고 봉임이도 입쓰리를 하느라고 볼에 큼직하게 검버섯이 돋은 몸으로 들일을 놓지 않았다. 진기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잘 집

일을 거들군하였다. 누이나 형수가 서투른 솜씨로 달구지를 다루는것을 보면 제법 코방귀를 불면서

《녀자들이란 하는수 없어. 저리 가요.》

하고 제법 사내티를 냈다.

어느날 리씨와 보패는 들에서 돌아오다가 쌍룡강가에서 함께 다리를 씻었다. 대충 감탕이 말라붙은 정갱이를 씻고 먼저 강가에 나앉은 리씨는 며칠째 보패가 마음을 조이며 기다리던 말을 마침내 터쳐놓았다.

《애 보패야, 이리 좀 앉아라.》

어머니의 류달리 은근한 목소리에 벌써 무슨 말이 나오리라는것을 짐작한 보패는 될수록 천천히 발을 씻고 세수까지 말끔히 한 다음 풀밭에 나란히 앉았다. 어머니의 물음에 대답할 말을 생각해내려는 심산이였다. 그러나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고 다만 벌써 며칠째 머리에서 떠나지 않던 생각이 또 검질기게 파고들었을뿐이였다.

《누나는 어디 갔니? 누나는 머저리야.》

이것은 오빠와 형부를 배웅하고 돌아오던길에 진기가 들려준 말이다. 세철의 질문과 진기가 했다는 대답이 한묶음이 돼서 떠오른것은 그처럼 그 질문이 아팠고 또 변명할길 없이 진기의 대답이 옳았다는것을 사무치게 느꼈기때문인지도 몰랐다.

《보패야, 그래 네 생각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저쪽에서는 자꾸 재촉인데…》

리씨는 보패가 없어진이래 내내 끓어번지던 속이였으나 이제 전쟁바람에 어지간히 뒤전으로 밀려난 감정이기도 했고 더 덧쳐놓으면 이 마당에 또 무슨 일이 불거질지 모른다는 심산에서 억지로 부드럽게 말을 붙였다.

그러나 보패는 물에 젖은 귀밑머리를 쓸어올릴뿐 말이 없었다. 그는 대답을 서두를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호들갑스럽게 놀란티를 지을 필요도 없었고 응석을 부릴 필요도 없었으며 또 능청을 떨 필요도 없었다.

아니다. 사실은 그럴 계제가 아닌지도 몰랐다. 보패자신도 한때 많이 써봤고 세상 처녀들이 흔히 쓰는 그러한 수법들로써는 이 준엄한 시절에 정당하게 처신할수 없다는것을 그 녀자는 벌써 전쟁 수일간의 체험을 통해 깨달았던것이다.

《네가 어린 마음에 선뜻 대답이 안나올수도 있겠지만 이젠 그런 때가 못된다. 내가 너 잘되라고 이렇게 속을 썩이지 누구때문에

속을 썩이겠니? 나한테는 그저 너희들밖에 없다. 난 그저 네가 철없이 굴어서 좋은 자리를 떼울가봐 그때문에 애가 타서 못견디겠다. 좀 시원스럽게 말을 해봐라. 대체 네 꿍꿍이가 뭐냐?》

보패는 이 문제를 두고 어머니와 말없는 싱갱이를 할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어머니의 말이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였고 또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해서 속을 썩이는것이 사실인이상 더는 이 문제를 끌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어머니,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해주었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보패는 마치 남의 이야기나 하듯이 조용히 말했다. 그 목소리가 하도 침착하고 부드러워서 리씨도 뜻밖인 모양 말끄러미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내가 다 잘못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다시는 그런말 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런 말을 할 때가 못돼요. 오빠가 싸움에 나가고 또 모두들 피를 흘리며 싸우고있지 않아요? 원쑤들이 폭격을 날마다 들이대고 하는데 그런 궁리를 할수는 없어요.》

《아니, 이 애가? 그렇다고…》

리씨는 보패의 말이 너무나 정당했고 또 자신이 어렴풋이나마 느끼고있는 생각이기때문에 입버릇처럼 거세게 터져나온 말을 미처 맺지 못했다. 그러다가 한숨처럼 발을 달았다.

《나도 글쎄 서둘고싶지는 않다만 저쪽에서 부쩍 서두는구나. 혹 그러다가 좋은 자리 놓칠것만 같애서…》

《아니예요. 어머니, 전쟁이 끝나고 싸움터로 나간분들이 돌아오거든 그때 다시 말해주세요. 그전에는… 어머니, 내가 어린것이 말하기는 거북하지만 난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그때 가서 보자요.》

비록 딸이지만 리씨로서는 그 말을 꺾을수도 막을수도 없었다. 그만큼 보패는 침착하고 어엿하게 말하였다. 리씨가 어안이 벙벙해서 바라보고있는 사이 보패는 벌떡 일어나서 동뚝길로 올라갔다. 석양해빛을 받으며 걸어가는 그 모습이 어찌나 표일하던지 리씨는 그저 혀를 차며

《원 저런년이… 에미앞에서…》

하고 중얼거릴뿐이였다.

어느날 보패는 벼르고 벼르던끝에 틈을 내여 하시원리로 갔다. 그전에 대장간자리였던 세철이네 집은 지금도 큰길가에 있었다. 뽕나무가지는 울바자를 가리우고 지붕에는 박넝쿨이 무성하여 훌륭한

자연위장이 되였다. 그래도 늙은이 혼자손으로 어떻게 올렸는지 청솔가지를 꺾어서 빈 자리마다 퍼렇게 씌워놓았다.

보패는 무심중 주위를 살펴보고나서 빠끔히 사립문틈으로 집안을 들여다보았다. 안마당은 인적없이 괴괴한데 씨암닭이 뚫려진 울바자밑으로 병아리를 끌고 드나들며 모이를 쫓고있었다.

《어머니.》

불러봐야 아무 반응이 없었다. 보패는 막막한 생각이 들었다. 오빠의 부탁도 부탁이지만 시도때도없이 끌리는 문전이였다. 그전에는 저희집처럼 드나들고 또 친자식처럼 사랑해주던 어머니였으나 검산에서 세철이와 만난날부터는 어쩐지 그앞을 지나치면서도 얼굴조차 바로 들기가 거북해진 문전이기도 하였다.

보패는 집안에 사람이 없다는것을 알자 긴장이 풀리는 한편 마음이 가벼워지기도 하여 저도모르는사이 뽕나무밑 평상에 걸터앉았다. 마침 큰길에 인적도 없었지만 땀이 발발 솟아서 주체할수가 없었다. 질게 드리운 뽕나무 그늘에 앉으니 절로 숨이 나가면서 가슴이 후련했다. 손수건을 꺼내서 목덜미와 이마를 훔치고있는데 저만치서 유표하게 눈에 익은 걸음걸이가 가까와왔다. 세철이 어머니였다. 절뚝절뚝하는 자그마한 몸집에 삽자루를 들고 한손에 공화국기발을 들었다. 까맣게 탄 얼굴이 언제 보나 다정하였지만 벌써 먼발치서도 자기 집문전에 앉아있는 처녀를 알아보고 다급히 걸음을 다우치는 그 모습을 볼 때 보패는 저도모르는사이 일어서서 달려나갔다.

《어머니！》

그는 나들이갔던 친어머니를 맞듯이 삽자루를 받으며 말했다.

《이 더위에 어딜 갔다 오세요？》

필녀는 선선히 삽자루를 넘겨주면서 반가와하는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보패가 참 오래간만에 우리 집엘 왔구나. 어서 들어가자. 목마름이라도 해야겠다. 에구, 날도 참 갑자기 무더워지는구나, 애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겠니？》

사립을 열어젖히며 보패는 다시 물었다.

《읍내에 가셨댔어요？》

《오냐, 나야 사시 이렇게 바라댕기지 않니？ 아이직장에 나가도 볼래, 정거장에도 나가볼래… 참 오늘은 끔찍이는 많이 가더라. 어디서 그런 끌끌한 젊은이들이 쏠어나오는지, 이런 거사는 처음 본

다. 싸움이 크겐 붙었더라.》

어머니는 흥분하여 줄곧 말을 이어대면서 조그마한 기발을 소중히 퇴마루기둥에 꽂고나서 척척히 등에 달라붙은 베적삼을 벗었다.

보패는 어머니가 자기 걱정과는 딴판으로, 아니 젊은 자기보다 훨씬 더 알심있게 아들의 직장일을 도우며 전선으로 출동하는 사람들을 날마다 배웅하러 나간다는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그러면서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한편 왜 그런지 가슴속이 후덥도록 자랑스러웠고 또 든든한 마음의 기둥을 발견한듯하였다.

《물을 끼얹어드릴가요?》

《그래, 참 너의 집에서는 어떻게 지내니? 내가 성기 나가는것을 봤다. 경패 새서방도 나가더구나. 그 애들이 이 더위에 어떻게 싸움을 하겠니?》

《이리 엎드리세요. 저희 집이야 다 잘있지요 뭐.》

어머니의 마음이 말은 비치지 않지만 줄곧 아들이 가있는 저 남쪽 어느 하늘아래를 아들과 함께 달리고있다는것을 력력히 느끼면 느낄수록 그들에 대한 어머니 념려에는 한마디도 대답을 할수 없었고 또 무어라고 말할 건덕지도 없었다. 댓길이나 되는 우물에서 찬물을 길어올려 앙상한 등에 끼얹으면서 어푸어푸 갑시는 어머니 소리를 들으며 보패는 아득히 먼 옛날부터 자기가 이 집에서 이렇게 인간적인 온기속에 함께 살아온것 같은 환상에 사로잡히기도 하였다.

어머니는 퇴마루에 앉자 또 이야기를 꺼냈다.

《싸움을 하는데 쇠돌이 더 많이 있어야 한단다. 그래 광산에서는 불이 달렸지. 젊은이들은 자꾸 빠져나가는데 돌은 더 많이 캐야하니 그게 좀 바쁜 일이냐. 그래두 그 사람들은 그게 싸움이란다. 뭘 좀 거들었으면싶어도 이 나이에 병신이고보니 어디 마음대로 되니, 요즘은 그저 마음이 급해서 언제 세월이 가는지 모르고 지난다. 그래 시방 수원은 어떻게 된다더냐? 이젠 거지반 거기까지 나갔느냐?》

수원이 어떻게 되였는지 모르기도 했지만 보패는 어머니의 그 끌수 없는 마음속의 뜨거움과 용솟음치는 힘에 그저 황홀해서 바라볼뿐이였다. 그 해볕에 탄 가무잡잡한 얼굴에서는 지어 젊음조차 느껴졌다.

《어머니, 어머닌 어찌면 그렇게… 아이구 호호호》

보패가 입을 감싸며 웃자 최필녀는 눈이 둥그래서 자기 몸을 아래우로 훑어보더니

《왜? 내가 어쨌니?》

하고 의아스럽게 물었다.

《아니예요. 정말 젊은이들보다 더 용감하세요.》

《흐흐흐, 네가 날 놀리느라고 그런줄 안다.》

최필녀는 몸집에 어울리지 않게 석쉼한 목소리로 웃더니 문득 보패의 손을 어루만졌다.

《네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기쁜지 모르겠다.》

어머니의 갑자기 가라앉은 목소리를 듣자 보패는 불시에 코등이 찡해졌다.

이렇게 한번 찾아온것이 이 살뜰한 어머니에게 그렇게도 큰 기쁨을 주었다면 자기의 그 변명할길 없는 소행이 그 어진 가슴에 얼마나 아픔을 주었을가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떠올랐다. 보패는 손을 어머니에게 내맡긴채 고개를 푹 떨구었다. 어머니는 다시 앞가슴에 와 드리운 보패의 머리태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앤 종시 그냥 갔다. 말은 없더라만 그 애 생각이야 뻔하지. 하여간 네가 우리 집에 온걸 알면 그 애도 기뻐할게다.》

《그 애》가 누구인지 그리고 《뻔》하면서도 하지 않은 그 말이 무엇인지 또 무엇때문에 어머니가 자기를 그렇게 반가와하며 《그 애》역시 반가와하리라는것을 보패는 긴 설명없이도 능히 알아맞힐수 있었다. 그것은 그에게는 기쁨이 아니라 차라리 생살에 내려지는 매질이였고 뼈아픈 뉘우침이였다.

《제가 철이 없었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세상이 변할줄은 정말 몰랐어요.》

《오냐, 다 안다. 누구는 알았겠니? 그 애는 그렇게 문문한 아이는 아니니라. 웬걸 싸움이 오래가겠니? 이제 모두 정성스럽게 기다리면 나갈 때같이 씩씩하게 돌아들올것이다. 암, 돌아오구말구.》

보패는 점점 고개를 깊이 떨구었다. 어머니 말은 아직도 막연하게 대하고있는 이 전쟁에 대해 더욱 똑똑히 주시해야 한다는것을 사무치도록 느끼게 했다. 자기에 비춰볼 때 어머니는 벌써 싸움을 바라보는 립장이 아니였다. 그는 온몸으로 싸움의 한복판에 뛰여들어있었다. 지주, 자본가들이 다시 땅과 집을 빼앗고 노예의 사슬을 씌우려 한다고 스스로 생각은 하면서도 그 싸움은 어디까지나 남쪽 멀리 떨어진 전선에서 벌어지고있다고만 생각해오던 보패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싸움판을 앙상한 가슴 한복판에 안고있는것이다. 그리하여 그 가슴속에서 아들이 날창을 비껴들고 적진으로 뛰여들기도 하고 원쑤들

의 비행기가 아츠러운 소리를 지르며 내리꽂히기도 하고 또 천지를 뒤흔드는 포격소리가 들려오고 번쩍번쩍 불길이 치솟기도 하는것이였다. 보패는 어머니의 그 가슴의 불을 느끼며 조용히 말하였다.

《어머니, 정성스럽게…기다리겠어요.》

비록 그가 세철이라는 이름을 입밖에 내지는 않았으나 필녀는 그 말을 너무나 잘 리해하였다. 그래서 어머니는 점도록 보패의 탐스러운 머리태를 쓸고있었다.

9

장인택은 전쟁이 일어나자 딴사람처럼 변하였다. 우선 그 멋쟁이 신사복을 작업복으로 바꿔입었고 현장에서 련일 밤을 밝혔다. 많은 운전수들이 전선으로 나가고 자동차도 동원되였으나 조건이 불리해지면 불리해질수록 강한 요구성을 가지고 사업을 면밀히 짬으로써 전시생산을 보장하였다. 자동차들의 위장대책을 세우고 대피소를 파고 광구마다 비상도로망을 새로 만들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2개년인민경제계획은 부득불 중단되고 그대신 분기별계획으로 넘어갔는데 생산의 전시체제화와 관련하여 철광석에 대한 수요는 전에없이 증대되였다. 검촌광산에도 날로 악화되는 생산조건과 반비례로 수요는 높아졌다.

인택은 이 난관을 혼자몸으로 뚫어보기라도 할것처럼 군인민위원회로, 역으로, 부두로 그리고 채광막장으로 분주히 뛰여다녔다. 이런 외부적인 긴장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신상태는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 그는 항상 남을 섭섭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해오는 사람이였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자신을 누구보다도 선량한 사람으로 치부하고있었다. 거기다 비상한 두뇌와 수완이 자기에게는 있다고 간주하였다. 그는 그 슬기로운 두뇌와 수완을 온통 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데 바쳐왔다고 확신하고있었다.

아버지는 젊어서 주정뱅이로 벌써 40전에 중풍에 걸려 지금은 운신을 못하고 어머니가 선심쓰는 소주잔에 일생을 기울이고있는 사람이였다. 그래서 그는 아들 인택에게 특별한 희망을 걸지 않았지만 밀주장사로부터 시작해서 녀자손 하나로 꽤 실속있는 잡화상점을 꾸려놓는데까지 이른 어머니는 의욕이 강한 사람이였다. 그는 아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성공할것을 바랐고 매질을 해가면서까지 출세할것을 요구하였다. 공업학교를 졸업한 인택은 어머니의 그런 희망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열심히 통신강의록을 읽으면서 고등문관시험에 응시할 준비를 갖추었다. 그러다가 태평양전쟁이 터지자 이번에는 륙군사관학교에 갈것을 희망하였는데 도병사부에서 군인으로 되기에는 치명적인 육체적결함이 발견되여 그만 미끄러지고말았다. 후에 징병에 걸려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그때도 발바닥이 남처럼 굴곡이 없고 그 자신의 인간성처럼 평평하다는것때문에 제2예비역으로 돌리웠다. 2차대전말기에 일제는 인택의 평발에 대해서도 저으기 너그러워져서 군대로 뽑아가긴 했으나 룡산에서 만주로 수송도중에 전쟁이 끝나고말았다.

광복이 되였을 때 인택은 자기의 이런 과거가 인민들에게 불쾌한 인상을 자아내리라는것을 생각하였다. 그래서 경력에서 그러한 부분들은 깨끗이 지워버리고 자기도 남도 그런 과거를 말끔히 잊어버리게 하기 위하여 고향에서 검산으로 옮아앉았다. 그후 5년간 남들이 모두 혁명적열정에 불타오를 때 그도 일본군대 웃도리를 걸치고 열변을 토했으며 남들이 옷맵시를 내기 시작하자 그도 어머니의 방조로 신사복을 한벌 지어입었다.

그는 동료들이 술을 먹고싶어하는 눈치가 보이면 술을 사먹였고 주머니속이 옹색해보이면 돈을 꿔주었다.

회의에서 자기비판을 요구하는 눈치같으면 서슴없이 자기비판을 하였고 남을 비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면 누구보다도 날카롭게 비판을 하였다. 그러나 그 비판이 당자를 너무 섭섭하게 만들었다고 생각되면 즉시 뒤를 풀어주었다. 안휘태의 당생활을 취급하던 그 당회의 끝에도 그는 잊어버리지 않고 휘태를 따로 불러 자기의 그러한 립장—그는 그것을 《딱한 립장》이라고 표현하군 하였다.—을 리해해달라고 애원하다싶이 간청을 하였던것이다.

이제 전쟁이 일어남에 젊은이들은 모두 떨쳐나서 전선으로 나갔다. 인택은 이런 시기엔 응당 전선으로 나가는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리라는것을 간파하였다. 그러나 이 순간에 그는 두차례나 일본군대에서 퇴자를 맞은 자기의 육체적결함을 상기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엄익준을 만나 자기의 고민을 눈물이 글썽해서 하소연하였다.

《위원장동무, 나를 좀 방조해주십시오. 난 솔직한 말입니다만 이런 판에 후방에 남아있기가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위원장동무야 내 성미를 잘 아시지만 내가 어디 뒤전에 남아있을 사람입니까?》

엄익준은 밤을 밝혀서 퉁퉁 부어오른 피발선 눈으로 인택을 바라보며 그 《성미》를 당자이상으로 안타까와하는듯 일순 구슬픈 표정이 되였다.

《나도 일제말기에 징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놈들이 내 발이 편평족이라고, 말하자면 평발이란것이지요. 그래서 군대에 뽑을수 없다는군요. 나야 속으로 얼씨구나 했지요. 그때는 솔직한 말이지 이 병신발이 얼마나 고맙던지 입이라도 맞추고싶었습니다. 그런데 글쎄 이번에 전쟁이 터지고보니 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동무야 내 성미를 잘 알지만 참 이거야말로 사람의 일은 아침저녁이 같지 않다는 격이 아닙니까? 난 며칠밤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동무들을 좋지 않은 일인줄 알지만 좀 속여넘기자고 작정했지요. 어떻게 합니까? 조국이 위험에 처했는데 그래 발바닥이 넙적하다고 해서 내가 몇백리쯤 못걷겠습니까? 부산까지 줄곧 걷는다 해도 한 천리 걸을 작정을 하면 되지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역시 당은 속일수가 없더란말입니다. 그래 이렇게 찾아왔지요. 좀 방조를 주십시오. 내가 혹 군대에서 쫓겨오기라도 한다면 체면도 안됐고해서 사전에 위원장동무 힘을 좀 빌려볼가해서요. …》

엄익준은 인택의 장황한 이야기를 참을성있게 다 들어주었다. 인택의 감동에 어린 진지한 얼굴을 마주 바라보며 당장 무슨 대책을 취해주지 못하는것이 안타까운듯 이따금 창밖을 내다보군하던 그는 인택의 이야기가 끝나자 주머니에서 착착 접어놓은 종이를 꺼내더니 쪽 찢어서 담배를 말았다. 두툼하게 만 담배에 침으로 풀칠을 하면서 익준은 퉁명하게 말하였다.

《천리만 걷고 되겠는지 어떻게 알겠소? 그래 그 발이 천리는 걸을수 있답디까?》

인택은 약간 당황하여 마주 얼굴을 들었으나 여기서 어떻게 대답을 하는것이 이 로동자출신의 당위원장 마음을 즐겁게 하겠는지 몰라서 우물쭈물하였다.

《글쎄요. 아직 의사에게 물어보지는 못했지요. 그러나 억지를 쓰면 한 천리야…》

《억지를 쓰다니요? 군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닐수도 없을것이고 또 뭐 전투를 하는데 남의 등에 업혀다니겠소? 그러지 말고 아예 그만두지요? 쇠돌을 캐는것도 필요한 일인데요.》

《그거야 난들 모릅니까? 그렇지만 내 성미가 이런 때는 가

만 있지를 못하는 성미가 돼서…》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미대로 할수야 없지요.》

익준의 너그러운 어조를 대하자 인택은 자기 《성미》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것이 모든면에서 전투적인것을 요구하는 전쟁환경에 잘 어울리기도 하고 또 평소 그것을 좋아하던 당위원장의 마음을 즐겁게 하리라고 생각했기때문이였다. 또한 자기가 그 점에서 약간 지나치는 점이 있더라도 고집이 센것으로 유명한 이 당위원장을 굴복시키지는 못하리라고 타산하였다.

《아니 위원장동무,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모든것을 전선의 승리를 위하여!〉 구호는 이렇습니다. 그러니 나를 전선에 내보내주십시오. 나도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조국앞에 한일이 무엇입니까? 심지어 엄중한 과오를 범한 사람까지도 전선에 나갔는데 그래 내 발바닥이 그들의 정치적과오보다 더 심한 과오란 말입니까?》

말해놓고 나서야 인택은 자기 말이 너무 지나쳤다는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자기 말이 지나치게 심각하였고 따라서 엄익준으로 하여금 항상 사람들이 불쾌한 마음으로만 대하게 되는 그 《원칙》앞에 부득불 정면으로 나서지 않을수 없게 만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때문이였다.

아니나다를가 당위원장의 얼굴에는 확실히 불쾌한 표정이 떠올랐다.

인택은 목덜미가 서늘해지는것을 느끼며 《글쎄!》하는 익준의 무거운 말을 들었다. 그러나 그는 역시 고집이 있는 사람이였고 또 다소 불쾌해졌다고 해서 가볍게 마음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였다.

《과오로 말하면 발바닥이 과오를 범할수야 없지요. 나는 항상 발바닥보다는 골통이 과오를 범한다고 보는데… 그래 부장동무생각에는 꼭 전선으로 나가야 하겠습니까?》

인택은 여기서 익준이가 자기로 하여금 자기의 지나친 말이 불쾌하게 만들어놓은 그의 심정을 도로 유쾌하게 만들수 있도록 기회를 준것을 여간 기쁘게 생각지 않았다. 그는 여기서 제때에 자기 고집을 꺾는것이 당위원장의 무거운 기분을 들어줄것이라고 제꺽 판단을 내렸다.

《그야 물론 그렇지요. 헌데 나야 당원이 아닙니까? 모든것을 당에서 하라는대로 할밖에 없지요. 당이 내가 군대에 나가는것보다 후방에 남아있는것이 좋겠다고 말하면 그만이지요. 내 성미로 보아 섭섭한것은 사실이지만 당의 리익앞에 그쯤한 자기 희생은 할만큼 그쯤은 나도 당적교양을 받았습니다.》

《허허허.》

익준은 예기한대로 기분이 전환되여 지어 통쾌하달만큼 허구픈 목소리로 웃었다. 인택은 왜 그런지 그 목소리가 너무나 크고 호탕한게 마음에 께름직하였지만 어쨌든 그의 기분이 전환된것은 사실이라고 스스로 위안하였다. 익준은 웃음을 거두더니 불쑥 말하였다.

《가서 일을 보시오. 전쟁이 이만저만한 전쟁이 아니요. 말공부가 아니라 목숨을 내걸고 생각할 때요. 내 보건대는 장동무가 군대에 나가지 않아도 아마 한 천리는 그 넙적한 발바닥으로 걸어야 할것 같소. 어서 나가 일을 보시오.》

이 담화는 그후 웬일인지 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모든 일에 뒤가 물러서 심하게 다투었다가도 다음날이면 씻은듯이 잊어버리군하는 인택이였지만 어쩐지 익준의 말가운데는 어딘가 옹이가 박혀있는듯한 인상이 갈수록 강해졌다. 하긴 자기의 지나치게 과장한 말이 혹 익준의 마음을 종국적으로 불쾌하게 만들지나 않았을가 하는 위구심때문인지도 몰랐다. 그래서 억지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익준이 말하던대로 후방에서나마 한 천리 뛰여보리라 마음먹고 부지런히 일을 하였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려는 선량한 충동은 한시도 숙어들지를 않아서 보도가 나붙은 게시판앞이나 작업현장에서의 휴식시간이나, 사무실이나, 출퇴근길 어디서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전선형편에 대한 이야기끝이면 자기의 그 주체할수 없는 《성미》와 평발에 대해 강조하면서 그때문에 울적한 자기 심경을 토파하군하였다.

실상 심정을 울적하게 만드는 일이 없지도 않았다. 보패와의 혼사문제때문에 와있던 어머니는 전쟁이 일어나던 사흘전에 아무래도 아버지가 가게를 몽땅 소주잔에 잠가버릴것만 같다고 돌아가더니 며칠전 편지를 보내왔다. 거기에는 6월 25일 당일날 괴뢰군들이 들어와서 서해주교외에 있는 그의 가게를 도륙을 내고 집마저 파괴해버렸다는것과 그러니 차라리 남은 가산을 처리해서 검산으로 옮아앉았으면 한다는것이 적혀있었다. 전쟁의 피해를 입은 부모를 돌아보지 않을수는 없었다. 그러나 어머니가 이 마당에 밀주장사라도 또 벌려놓는다면 일은 상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어머니의 활동적인 성격으로 보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 여기서 인택이에게는 하나의 묘안이 떠올랐다. 그것은 보패와의 혼사를 가급적 속히 아퀴지어서 아예 부모들을 보패의 감시하에 둠으로써 그런 소상인근성을 다시 발로시키지 못하게 하자는것이였다. 생각해놓고보니 짜장 묘안이 틀림없다고 생각되였다. 보패의 그 깔끔한 성미에 걸

리면 어머니도 휘여들지 않을수 없으리라는 자신이 생겼다. 그런데 한가지 께름직한것은 그 전날 리씨를 만났을 때 받은 인상이였다. 리씨는 이 문제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지어 인택이 자신보다도 더 적극적이던 사람이였다. 그렇기때문에 어머니가 읍내에서 기다리는 사이 불쑥 보패가 없어진 사건에 대해 혹 오해를 할가봐 집에서 평산으로 심부름을 보냈다고 (그것은 우연한 일치였다.) 루루히 발명을 하였던것이다. 보패가 없어진 사건으로 말하면 리씨가 그런 태도였기때문에 전쟁직전 어머니가 해주로 돌아갈 소리를 할 무렵에사 인택이도 알게 되였는데 약간 이상한것을 감촉은 하였으나 설마 자기와의 혼담을 피해서 도망을 갔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해보았다. 그러던것이 전쟁이 일어난 직후인 그때 리씨는 한숨을 쉬며 시집을 안가겠다고 도망까지 치는 애를 이 전쟁판에 어떻게 휘여잡겠느냐고 실토를 하였던것이다. 인택이도 저으기 놀랐지만 인택의 놀란 표정을 보고서야 리씨도 자기가 부지불식간에 여태 숨겨오던것을 발설했다는것을 깨닫고 저으기 당황해하였다.

《여보게, 내 생각에는 그렇게 서두를 까닭이 없을것 같네.》

한참이나 면구스레 서있던 리씨는 몹시 거북한듯한 어조로 말했다.

《임자도 나이 젊지, 그러니 한해쯤 미룬다고 해서 큰 랑패가 있겠나? 허긴 어머니가 좀 급해하는 눈치데만 그게야 어떻게 하겠나. 좀 기다리시라고 타일러야지. 전쟁이 터졌는데 사실 혼사를 치른다는게 시절에 합당한 일도 아니고… 나도 빨리 끝장을 보았으면 한시름 놓긴 하겠네만 억지로 휘려다가 공연히 부러뜨릴가봐 걱정이네. 내가 좀 더 그앨 구슬려보기는 하겠네만 아무튼 좀 마음을 누잣히는게 좋을듯해서 하는 말이네.》

인택은 아닌게아니라 몹시 놀랍기도 하고 또 섭섭하기도 했지만 리씨의 마음을 더 괴롭힐수는 없다고 생각되여

《뭐 쇠털같이 많은 날에 하필 지금 해야 맛이겠습니까? 그저 어머니처분에 맡깁니다.》

하고 선선히 물러섰던것이다. 그러나 정작 어머니가 이사를 오겠다는 편지를 받고 사후 처리문제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니 이 일이 퍽 난감하다고 생각되였다. 이 며칠사이 인택은 엄익준과 한 담화와 보패문제로 해서 평소의 그답지 않게 골을 썩였다. 그러노라니 자연 몸은 줄곧 현장이며 회의장이며 사무실로 땀을 흘리며 헤염쳐다녔지만 해가 질무렵에는 결국 또 이 두문제가 덩그렇게 눈앞에 솟아나는것이였다.

인택은 그중에 어느 하나는 즉 자기가 능동적으로 작용할수 있

는 혼사문제만은 빨리 결속을 지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날은 일찌기 퇴근을 하였다. 하숙집에서 대충 저녁을 하고 오래간만에 자전거를 끌고 검산을 향해 달렸다.

×

날로 확대되고 멀어지는 전선은 무진장한 화약과 철과 군화를 그리고 식량을 요구하였다. 농민들은 로력의 부족을 보충하고 적기의 폭격을 피하노라고 밤에 씨를 뿌리고 김을 매였다. 그러고도 또 많은 로력동원에 응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날 보패는 달구지를 끌고 상시원리에 있는 정미소에서 날마다 찧어대는 쌀을 검산역으로 나르고있었다. 벌써 광복이듬해부터 쌓아둔 거의 산더미만한 현물세낟가리가 상시원리 검산서쪽기슭에 세개나 가려져있었다.

달구지를 가지고 나오라는 리인민위원회의 련락을 받았을 때 마침 아버지는 군에 회의를 나가고 없었다. 진기와 리씨가 저마다 나간다고 우겼으나 실상 이 집에서 달구지며 황소를 드다룰만한 일손은 보패밖에 없었다. 제일 몸집이 가냘파보이는것도 사실이고 또 맵시를 볼 나이가 돼서는 부모들이 될수록 험한 일에서 빼돌리려하였지만 보패의 사내손같은 커다란 손은 결코 선천적인것이 아니였다. 그는 어머니와 동생이 싱갱이질하는 사이 어느새 헌 치마로 갈아입고 지난겨울에 산 새목도리로 허리를 질끈 동이고 나섰다. 어머니와 진기가 가까스로 줆거놓은 달구지채를 깐깐히 훑어본 다음 말없이 소고삐를 잡고 《이랴!》 하고 큰길로 몰고 나갔다.

《아니, 네가…계집애가 어딜 간다고 이 모양이냐?》

어머니가 펄쩍 뛰였지만 보패는 들은척도 안했다. 진기는 끝내 행길까지 따라나왔다.

《이봐 누나, 누난 뭐야? 이건 녀자들이 하는 일이 아니란말야.》

그는 자기가 허술히 봐서는 안될 사내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법 팔을 걷어올리고 달구지채에 붙어서서 따지고 들었다. 보패는 동네를 벗어날 때까지 말없이 내버려두었다. 그러다가 하나, 둘 동원된 달구지들이 큰길에 나타나자 소리쳤다.

《너 들어가지 못하겠니? 왜 까불어? 조그만 자식이 벌써부터 그렇게 건방져서 무엇에 쓰겠니? 어서 들어가서 숙제나 해!》

《내가 숙제 안한줄 알어? 체, 누난 멋도 모르고, 가만히 있기나 해! 전쟁에서는 남자가 제일이야 뭘 알기나 해!》

《요자식, 그래도 까불테야! 너 래일 늦잠자고 지각했다가는 다신 학교 못갈줄 알어.》

《학교 못가면 누가 겁난대. 난 그러지 않아도 인민군대에 나갈테야.》

《뭐야? 아니 너 이제 말 다시 한번 해봐라. 너 어디서 그따위 수작 배웠니?》

《배우긴 누구한테 배워? 내가 생각해낸거지. 난 후방에서 시시하게 녀자들과 아웅다웅하기가 싫어.》

또 욕설이 튀여나오려 했으나 보패는 억지로 참았다. 잘못하다간 정말 엉뚱한게 어디로 달아날지 모른다는 생각이 번개같이 떠올랐다. 이제 겨우 열둘에 난 아이니까 누구든지 잡기만 하면 되돌려보내겠지만 그래도 어린게 어디로, 어떻게 덧나갈지 십상 모를일이였다.

《얘 진기야, 너 왜 그렇게 속을 썩이니? 오빠가 군대에 나가면서 뭐라고 하데?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얼마나 타이르데? 넌 어려서 잘 모르지만 미국놈들이 왜 우리한테 싸움을 걸었는지 아니? 넌 빈농민의 자식이야. 광복전에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너도 알지 않니? 가난뱅이 자식인 너같은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게 그놈들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미쳐날뛰는거란다.》

《시시한 말 말어. 내가 그것도 모를줄알구, 힝》

《그런데 왜 학교는 그만두겠다고 야단이야, 응? 얘, 오빠랑…》

보패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던 말을 잠시 더듬거리다 불쑥 튀여나오려는 세철이란 이름을 가까스로 우물우물 삼키며 더 억이 막히는 목소리로 이었다.

《인민군대들이 피를 흘리며 너희들의 학교와 마을을 지키고 있는데 넌, 넌… 어서 돌아가지 못하겠니?》

보패가 소고삐를 둘러메자 진기는 슬그머니 뒤로 떨어지며 두덜거렸다.

《빼기지 말어, 난 머저리가 아니야.》

정미소앞은 동원돼온 농민들로 와글와글 끓었다. 군에서 사람이 나와 있었다.

보패는 앞서 대놓은 달구지들옆의 좁은 틈을 비집고 앞으로 소를 몰았다.

《자, 이건 벌써 새치기다. 아니 이건 처녀가 그 무슨 행동이요?》

낮에 해꽂았던 위장나무가 시들시들해져서 어깨에 척 늘어져있는 중늙은이가 성이 난것도 아니고 웃는것도 아닌 목소리로 소리쳤다. 소란스레 돌아가는 모타소리며 도정기의 소음때문에 웬만한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았다. 보패는 시치미를 떼고 다짜고짜로 쌀가마니를 끌어냈다.

《허, 제법 혼자 멜 작정이군.》

그 늙은이는 하는수 없는지 어슬렁어슬렁 다가와서는 마주 들어주었다.

달빛에 젖은 달구지를 끌고 신작로에 나서니 앞뒤에서 투레질하는 소리, 방울소리, 고삐를 휘두르며 《이랴! 이랴!》하고 소를 모는 소리가 들려왔다.

보패가 두행보를 하고 검산으로 돌아오는데 허탕을 치고 돌아가던 인택이가 마주왔다. 리씨에게서 달구지를 끌고 동원나갔다는 소리를 듣고 유심히 마주치는 달구지마다 살피며 오던 인택은 벌써 먼발치서 보패를 알아보고 자전거에서 내렸다.

《보패동무, 이거 수고가 이만저만이 아니군요. 어떻게 보패동무가 이런 일에 다…》

《안녕하셨어요?》

보패는 인택의 수다스런 말을 중도에서 꺾을수가 없어 참을성있게 기다리다가 짤막하게 인사를 하였다. 그리고는 고삐로 소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이랴…》

하고 소를 몰았다.

《전 바빠서 가 봐야겠어요.》

《아니 그런데 저 보패동무.》

인택은 얼른 자전거를 돌려세워가지고 급히 따라서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저 말씀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어딘가 좀 앉아서 이야기하자는것인줄 뻔히 짐작이 갔으나 보패는 모른체하고 걷다가 가볍게 물었다.

《무슨 말씀인데요? 간단히 하실수 있는 말이면 하세요. 전 이렇게 걸으면서도 들을수 있어요.》

인택은 보패가 자기를 위해 결코 시간을 따로 내주지 않을것이고 또 달구지를 어디로 끌고들어갈만한 오솔길도 없다는것을 사무치게 깨달았다. 그러나 기회는 더없이 좋았다. 앞뒤 멀지 않은곳에 달구

지가 잇달렸다고는 하나 어쨌든 달빛이 젖빛으로 흘러넘치는 이런 깊은밤에 보패와 단둘이 만날 기회란 억지로 꾸며서는 도저히 만들수 없다는것을 생각할 때 더 주저할것이 없다고 인택은 생각하였다.

《저 혹시 어머님께서 무슨 말씀 듣지 않았는지요?》

보패는 말없이 걷기만 하였다. 들었는지 말았는지 기계적으로 이따금 고삐를 쳐들어 소잔등을 가볍게 때릴뿐 숫제 응대할 생각조차 하는것 같지 않았다. 그러면 그럴수록 인택의 마음은 불타올랐다. 달빛을 받아 유난히 해사하게 솟아오르는 보패의 옆얼굴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인택은 다시 말을 꺼냈다.

《물론 내가 이렇게 말하는것은 보패동무에게 실례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생의 행복을 좌우하는 문제니만치 피차 신중하게 대해야 하리라고 보는데요. 나도 물론 보패동무가 희망한다면 기다릴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국이 이렇게 된것만큼… 저 그렇지요. 정세가 말입니다. 지금같은 정세하에서는 가능한 행복을 위해서 모든것을 결단성있게…》

《저 이것보세요. 그것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예요?》

보패는 더는 참을수 없었다. 누구를 위해선지 여태까지 그는 수집은 처녀로 있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인택이가 말하는것처럼 정세가 정세인만큼 행복을 위해서는 모든것을 결단성있게 해야만 하였다.

《혹시 그게 저… 그때 댁의 어머님께서 오셨던 그 일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 문제지요. 그러지 않아도 그 문제때문에 방금 댁에 갔다오는길입니다. 어머님과도 충분히 말씀을 하였지요.》

《알겠어요.》 보패는 달구지를 멈추었다. 그리고 인택이와 엇비슷이 마주 서서 또박또박 잘라 말하였다.

《제발 부탁이예요. 이젠 그 문제때문에 우리 어머니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어머니가 동지에게 무슨 말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전 이미 결심이 돼있어요.》

《예? 그렇습니까? 그럼…》

인택은 그말을 처음에는 긍정적인것으로 접수하고 미소를 띄웠으나 어쩐지 매몰차게 울리는 보패의 어조로 보아 혹 반대의 뜻이 아닌가 해서 가슴이 섬찍하였다.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전 이미…》

보패는 잠시 고개를 돌렸다. 달빛에 무르녹은 검산 봉우리가 은은하게 솟아있었다. 쌍룡강 물소리가 그리운 시절의 노래인양 주절

주절 울려왔다.

보패는 다시 고개를 돌리고 목메이는 목소리로 그러나 똑똑하게 울리는 힘찬 목소리로 말하였다.

《전 이미 약속이 있어요.》

인택은 흠칠하며 고개를 쳐들었다.

《아니 그건! 그건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 마십시오. 난 잘 압니다. 그럴수야 없지요. 아니 가지 마십시오. 말이 난김에 끝까지 밝혀야지요. 그렇다면 상대가 누구입니까? 난 믿을수 없습니다.》

인택은 벌써 달구지를 끌고 움직이기 시작한 보패를 급히 따라서며 마구 떠오르는대로 말을 섬겼다. 그가 이렇게 덤비기는 평생 처음이다싶이하였다. 그러나 그 자신은 전혀 그런것을 느끼지 못했다. 그는 세철이라는 존재에 대해 막연한 불안을 느끼고있었으나 보패가 이렇게까지 도전적으로 나올줄은 전혀 생각지 못하였다. 그렇기때문에 머리속이 확하고 달아오르는동시에 한편에서는 걷잡을수 없는 반발심까지 솟구치는것이였다.

그러나 보패는 벌써 침착성을 회복하고 평소의 그 사람을 깔보는듯한 가벼운 말투로 대답하였다.

《제가 부모에게도 숨겨온 비밀을 동지에게 어떻게 밝히겠어요. 밤이 깊었는데 어서 돌아가세요. 전 아직도 두행보나 더 해야 돼요.》

보패가 사라진 다음 인택은 갑자기 머리속이 빠개지는듯 아파났다. 마치 화학주에 취한 때처럼 멩한가 하면 학질후 골앓는 때처럼 징징 울리기도 하였다. 속도 메스껍고 아래도리가 후들거렸다. 그는 자전거를 아무렇게나 길가에 쓰러뜨리고 저도 풀밭에 앉았다. 이것은 너무하지 않는가? 난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려고 밤이고 낮이고 가리지 않고 남들은 생각지도 못하는것까지 다 궁리해냈는데 어찌하여 그들은 나에게 매번 이런 쓰디쓴 보상을 하는가?

사실 인택은 자기가 선량한 마음씨뿐만아니라 비상한 재능도 타고났다고 생각하였다. 그의 생각에 의하면 그 재능은 오직 남을 즐겁게 하려는 자기의 선량한 마음씨때문에 밑에 깔리고 남의 리용물로 돼버려서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은근한 불평도 없지 않았으나 어느땐가 사회로부터 상당한 보수를 받게 될것이라고 확신하고있었다. 그것은 어쨌든 그에게 이처럼 자기 신념에 타격을 준, 아니 모욕을 준 그런 일은 여적 없었다.

(계집애가 제길, 저만 저라니까 우쭐해서… 어디 두고보자.)

속으로 이렇게까지 별러보았으나 그래도 가슴에는 눈물이 하나가득 차올라 마침내 목으로 코구멍으로 넘쳐날지경이였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한식경이나 앉아있었다. 그러다가 내려간 달구지군들이 다시 올라오는 소리를 듣고서야 황급히 자전거를 일으켜 타고 도망이라도 치듯이 읍내로 달렸다.

10

서울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맥아더는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긴장되였다. 면밀히 짜고 꾸민 장엄한 《드라마》가 전혀 예상도 못했던 방향으로 본격적인 탈선을 시작한것이였다. 거의 반항을 못하거나 극히 미미한 항의정도로 끝나리라고 타산했던 조선인민과의 대결은 천만뜻밖에도 그가 아직도 훨씬 후에야 나타내기로 마음먹었던 자기의 군사적천재를 벌써부터 나타낼것을 강요하고있었으며 지어 그가 가지고있는 온갖 힘을 깡그리 다 바쳐도 이 비뚤어진 사태를 바로잡을수 있겠는지 하는 위구심조차 자아냈다. 아직은 준비가 철저했던것만큼 여론이 자기 맥아더의 명예를 훼손시킬 정도로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으나 인민군대의 쾌승에 대해 경탄을 표시하고있는것만은 사실이였다. 이것은 가까운 장래에 무서운 반동력으로써 자기에 대한 환멸을 표시할수도 있었고 또는 이 대《드라마》를 한마당 허망한 꿈으로 만들어버릴수도 있는것이였다.

정오때 진행된 정황설명에서 그 비참한 소식을 들은 맥아더는 종일 안절부절 못하였다. 골통대로 뻑뻑 담배연기를 내뿜는 그의 모습은 흡사 그가 일본 상인들에게서 선물로 받아 사령관실에 걸어둔 원색판의 인왕상과 비슷하였다. 그래서 부관,막료들도 함부로 접근하기를 삼갔으며 부득불 사령관실로 들어오지 않을수 없게 된 사람은 바레춤이라도 추듯 주단우를 발끝으로 걸었다. 누가 말없이 문건을 갖다놓거나 조심스레 앞에 와서 돌아보기를 기다려도 그는 모른척하고 한동안씩 세워두군 하였다. 그러다가 불쑥 털부숭이 손을 내밀기도 하고 《뭐요?》 하고 마치 사람이 옆에 와있는것을 처음 깨닫기나 한것처럼 놀란 거동을 하기도 하였다.

사실 맥아더는 무서운 고독속에 있었다. 진저리날 정도로 사

람들이 밀려들고 쌈이라도 걸듯이 격한 어조로 말들을 걸어왔고 시끄럽게 의견을 줄것을 요구하였지만 그의 심정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다. 50년간을 키워온 꿈과 웅대한 구상을 안고 최근 몇달동안에 그가 체험했던 흥분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황홀한것이였던지 그리고 그 꿈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검질긴것이였던지 아무도 리해하지 못했다. 그는 그 꿈으로 하여 거의 이 며칠사이에 놀랄만큼 젊어지기도 하였었다. 그러나 그 꿈이 날날이 바스라질 위험이 눈앞에 다가온 이때 그는 젊어진것보다 갑절이나 늙어버린듯하였다.

근 50년전에 들었던 아버지의 말이 어제 일인듯 생생하게 귀전에 들려왔다.

《첫째로, 이것은 황량한 미개지가 아니라 수천년의 자기 력사와 문화를 가지고있는 아시아에서 가장 문명한 나라이다. 둘째로, 여기는 서뿔리 건드렸다가는 호랑이처럼 접어드는 용감한 민족이 사는 땅이다. …》

그리고보면 난쟁이 일본인들은 30여년간이나 틀고앉아서도 종내 그 호랑이의 발톱을 뽑아던지지 못했던것이 확실하다. 그러니 이번 거사는 서뿔리 잠자는 호랑이를 건드린것이란말인가? 하지만 대미국이 인구 일천여만의 나라를 반대해서 이처럼 군사, 외교, 경제적으로 빈틈없이 준비한적이 있었던가?

2시에 합동참모본부와 테레콘통신을 하기로 되여있었다. 통신실에서 막료들과 함께 앉은 맥아더는 화면을 대하자마자 개똥이라도 씹은듯 오만상을 찌프린 브레드리의 얼굴을 선하게 머리속에 그릴수 있었다. 벌써 서울의 비참한 소식을 들었으며 그때문에 자기에게 환멸을 느끼고있으리라는것은 명백하였다. 울컥하고 분기가 치밀었다. 그래 책임이 나한테만 있단말인가? 이것이 백악관과 펜타곤의 그 신중하고 우유부단한 처사의 후과라는것을 증명하는데 과연 많은 사실과 시간이 필요하단말인가?

그러나 브레드리는 맥아더의 심정과는 관계없이 극히 실무적으로 보고를 요구하였으며 마감에 역시 실무적으로 말하였다.

《…30일부로 대통령은 비상선언을 행사할것입니다. 이것은 아시는바와 같이 이 세기에 들어와서 두번째로 되는 조치입니다. 이것이 야전군사령관들에게 어떤 군사적, 도덕적 및 행정적 책임을 부과하게 되리라는것은 장군자신이 잘 알것입니다. 선언에 의해서 19살로부터 25살까지의 미국청년 975만명에게 군사등록을 실시할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합동참모본부는 전륙군장병 반수에 대하여 동원령을 발표할것을 결정하

였는데 래일 포드메드에서 륙군사령부 명의로 정식명령이 공포될것입니다. 극동지상군을 조선에 투입할데 대한 명령은 비상선언이 있기 직전에 직접 대통령자신이 장군에게 하달할것입니다. 따라서 이 명령을 접수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맥아더는 묵묵히 이야기를 들었다. 이미 계획된 일이였기때문에 새삼스럽게 놀랄것은 없었다. 그러나 전선에서의 락관할수없는 사태발전이 이 어마어마한 조치들에 뒤따르는 심상치 않은 책임을 자기가 지게 되리라는 불안한 예감을 억누를수가 없었다.

브레드리는 수송선단의 준비상태와 그 호위대책, 상륙지점, 항공습격의 규모와 범위에 대해서 깐깐하게 질문을 하였다.

참모들이 땀을 흘리며 보고하는사이 맥아더는 다른것을 생각하였다. 그들은 원자폭탄의 지나친 성능을 우려하였다. 그러나 사태발전은 원자탄의 위력으로도 수습할수 없는 파국에까지 발전할수 있다. 조선이라는 협소한 지역에서 뭉개고있는사이 세계는 다무장하고 원자보복을 준비해놓을수도 있다. 그러니 잘 되는 경우에 월로우비가 말하는것처럼 산이 들썩한끝에 쥐새끼 한마리라… 이런 경우에는 복잡한 과정은 생략해 버리고 직접 종말에로, 대단원에로 줄달음쳐가는것이 위선을 가장하는것보다 훨씬 현명할것이다. 그리하여 맥아더는 여태 한번도 그들의 힘에 기대한바없는 국무성의 동향을 물었다.

《장군, 그들이 나에게 약속한 그 리상적인 사령관자리는 언제 보장해줄모양인가요?》

브레드리는 스크린을 통해 맥아더의 저으기 당황한 얼굴을 탄상하는듯 한동안 말이 없더니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였다.

《지금 덜레스가 맹활동입니다. 그 사람은 장군의 공인된 딸레란이지요. 허허허, 수일내 아마 결정이 있을것입니다.》

맥아더는 브레드리의 웃음섞인 말을 듣자 자기의 경솔한 발언을 혀를 깨물고싶도록 뉘우쳤다.

(흥, 나를 골려보려고… 어림없다. 로병 맥아더가 벌써 우는소리하게까지는 사태가 나쁘지 않어.)

이튿날 맥아더는 삼엄한 추격기들의 호위하에 전용비행기 《바타안》을 타고 《한국》의 림시수도 수원읍으로 날아갔다.

비행기에서도 그는 줄곧 야릇한 정신상태에 있었다. 그는 보나마나 비참할 전선형편을 호전시킬 대책을 생각하거나 또는 붕괴상태에 처한 《국군》의 지휘체계에 대해서 생각한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생각,

즉 무엇때문에 쓰고나왔는지 자신도 모르면서 옷장에 죽 걸린 모자가운데서 아무 생각없이 훌 벗겨쓰고나온 모자에 대해 생각하였다. 이미 퇴색하기 시작한 그 연회색 둥글모자는 그가 필리핀의 코레히돌에서 멜보론으로 도망칠 때 쓰고 갔던 가장 낡은 군모였다. 허구 많은 모자가운데서 유독 볼품없이 퇴색한 모자를 쓰고나온것은 무엇때문인가? 오랜 야전군사령관으로서의 자기 관록을 시위하려는 잠재의식이 작용했는지도 모를일이였다. 그러나 50여년에 걸친 군인생활에 비록 크지는 않다해도 자기의 영광과 관련된 모자도 있을수 있다. 그런데 하필이면 도망치던 모자를 쓰고나오다니… 그는 이런 생각을 자기가 하지 않을수 없도록 그것을 일깨워준 부관 시드 후프에게 속으로 화를 냈다.

(빌어먹을놈 쓸모있는 소리는 한마디도 할줄 모른다니까.)

그러나 어쨌든 비행기가 선회를 하면서 보잘것없는 시골 읍거리에 올챙이처럼 인간들이 오글거리는 패전한 《수도》풍경을 육안으로 내려다보게 되자 맥아더는 군인다운 긴장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다.

그가 타랍을 내려서기바쁘게 《한국》의 장관들과 고문단성원들이 늘어선 앞으로 리승만이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왔다. 그 뒤로 무쵸며 먼저 전방사령관으로 내보낸 죤 처치가 황송해하는 눈치를 감추지 못해하며 잔걸음을 쳐왔다.

맥아더는 검정가죽잠바주머니에 일부러 한손을 찌르며 리승만의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잡았다.

《장군, 참으로 반갑소이다. 당신은 한국의 수호자입네다. 신이여, 용감한 우리의 맥아더원수에게 영광을 주옵소서.》

맥아더는 상대가 어쨌든 《대통령》이며 따라서 일정한 외교적의례행사를 하지 않을수 없다는것을 상기하였으나 급박한 전선형편을 생각할 때 이런 늙다리와 인사수작을 제대로 갖추느라고 시간을 랑비할 권리가 자기에게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과 인사를 하는사이 자동차를 준비시키라고 지시를 주었다.

5분후 리승만이 비행장 대기실에서 기다리고있는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맥아더는 아무것도 모르는체 대사관 자동차 캬드라크 21호를 타고 한강으로 달렸다.

서울—수원간 대도로는 혼란의 극치를 이루고있었다. 포소리는 아직도 먼 북쪽에서 들려오는데 여기서는 누구와 싸움을 하는지 총소리가 사처에서 들려오고 벼포기가 두어자나 되게 자란 논판으로 찌프며 스리쿼타들이 구겨박히고있었다. 대오도 짓지 않은 군대들이 길이 메게 쓸어

오고 저고리와 모자를 벗어던진 경관들이 한손에 권총을 뽑아들고 달려왔다. 입에 게거품을 물고 무엇인가 악다구니를 치면서 달려오는 괴뢰군 장교도 있고 쏜살같이 지나가는 트럭에 매달리려다가 논판으로 돌멩이처럼 휘뿌려지는 사병도 있었다. 그우에 길은 피난민들로 빼곡하였다.

《오마니—오마니— 어디메로 가오다? 눈깔 멀었소다?》

《이 백당간나새끼! 날래 못 걷간?》

실로 아비규환의 생지옥이였다. 번져진 달구지, 논바닥을 마구 달리는 진흙으로 매닥질이 되여 군댄지 사민인지 분간할수 없는 청년들, 길가에 쏘아눕힌 소, 말! 그 소들은 뒤다리를 떼낸것도 있고 더러는 피난민들이 뜨거운 해볕아래 배허벅에 달라붙어 주머니칼로 요기감을 베내고있었다. 구데기가 그들과 함께 살을 파먹고 있다. 피난민들과 패주하는 군대들, 어딘가로 총알처럼 달아나는 자동차들, 이 모든것들은 이미 이 세상에 어떤 질서가 있어야 하고 도덕이 있어야 하고 체면이 있어야 한다는것 따위는 깨끗이 잊어버린 광란의 무리들이였다. 그러기에 엄엄하게 중기를 뻗친 여러대의 모터찌클과 찌프, 스리쿼타에 호위되여 경적소리도 요란하게 달리는 이 일행—끓는 도가니속처럼 부글부글하는 도로를 북쪽을 향해 달리는 수많은 자동차들가운데서도 유표하게 두드러지는 새까만 고급승용차의 주인이 다름아닌 그들의 《구세주》인 맥아더라는것도 알아보려 하지 않았고 혹 알아본 사람들도 길을 내줄 궁리를 하지 않았다. 부득불 자동차는 굼뜨게 전진할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자주 멈춰서지 않을수 없었다. 도로가 철길과 접근되는 군포, 안양 근방에 이르러서는 혼란이 갑절이나 더하였다. 정거장마다 군인, 피난민들로 까맣게 덮였는데 객차건 화차건 또 움직이건 서있건 가릴것없이 온통 사람으로 축대를 쌓아놓은것처럼 얽히고 뭉친, 그래도 먼데서는 가로누운 장방형 같은것이 혹 짓눌린듯 땅에 늘어붙기도 하고 혹 사람의 아우성소리에 놀라 흠칠거리듯이 가까스로 움직여가기도 하였다. 와글와글 들끓는 소리가운데서 사람의 소리 비슷한것은 찾아볼래야 찾아볼수가 없고 오직 빽빽하는 기관차의 비명, 따쿵따쿵 자지러지는 총소리, 싸이렌소리 같은 무서운 회파람소리를 지르며 내달리는 자동차들, 이런것만이 귀를 멍멍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들 광란하는 군중들의 귀는 다 메여버린듯 일체 소리에 무감각하였고 당장 죽이겠다는 위협에도 끔쩍 않고 그저 손발을 허우적이며 필사적으로 무엇인가 잡고 매달리려고만 하였다. 보건대 그들의 마비돼버린 청각을 자극하는 오직

하나의 소리가 있었으니 그것은 아득히 수십리밖에서 쿵쿵 울려오는 은은한 포소리였다. 그것은 방금 코앞에서 귀청을 쨀듯이 작렬하는 총소리며 경적, 각종 자동차의 부르릉거리는 소리, 헌병의 위협소리 등에 가리워 극히 어렴풋하게 들려왔으나 그 어느 소리보다도 그들의 온갖 감각기관을 가장 예리하게 자극하였고 그리하여 광란하는 가슴에 우뢰처럼 크게, 송곳처럼 날카롭게 들려왔다.

그 소리는 방탄장치가 되여있는 고급승용차의 쿠숀에 기대인 맥아더의 귀에도 동일한 작용을 놀았다.

《던켈크 이상하군…》

이렇게 중얼거리는 그는 자기가 장차 가서 서고저하는 그 지점, 즉 한강남안에서 그 소리가 어떻게 자기 생명을 위협하리라는것은 물론 우려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로일전쟁이래 실로 싸움터에서 청춘을 보냈고 포연탄우속에서 진갑을 맞이한 세계에서 가장 오랜 장군가운데 한사람이라고 간주하고있었다. 그러나 세계의 주시하에 진행되는 자기의 남한강전선시찰이 아무런 결과도 가져오지 않을수 있다는 우려는 몸서리나는 공포를 안겨주는것이였다. 그럴수록 그의 가슴은 초조감에 불탔다. 시흥부근에서 자동차는 패잔병들의 홍수때문에 완전히 전진을 저지당하였다.

《개자식들！》

마침내 그의 입에서는 상소리가 튀여나왔다. 그는 자동차문짝을 신경질적으로 밀어제끼고 길바닥에 뛰여내렸다.

패잔한 괴뢰군사병들과 자동차들은 붐비고 뒤엉킨 대도로우에 검정안경을 끼고 검정잠바를 입고 마드로스파이프를 틀어쥐고 선이 륙척장신의 미국장군을 마치 어디서 굴러온 남사당패냐 하는 눈치로 힐끔힐끔 돌아보며 더욱 무질서하게 남쪽으로 쓸어내려갔다.

뒤따라 오던 자동차들이 연줄연줄 멎어서더니 《한국장군》들과 고문단성원들이 다가왔다.

맥아더는 푸들푸들 뛰는 미간을 가까스로 진정하며 그들을 쏘아보았다. 그속에서 언젠가 한국에 왔을 때 몇차례 만나본것 같은 낯익은 늙은 2성장군(소장) 한사람을 발견하였다.

《당신은 누구요？》

그는 파이프를 들어 그 지둔하게 생긴 사나이를 면바로 가리켰다.

《네！》

뒤전에 섰다가 갑자기 지명을 당한 그 사람은 가뜩이나 침착

해있을수 없는 이러한 때 뜻밖에도 맥아더의 주목을 받고보니 여지없이 당황망조하여 한참이나 더듬거리다가 간신히 서투른 영어로 자기 이름과 직명을 대였다.

《륙군소장 김홍일입니다. 륙군사관학교 교장입니다.》

그제야 맥아더는 그가 48년도 서울에 왔을 때 장개석이밀에서 중장까지 지냈다고 우쭐해하던 속물이라는것을 상기하였다. 맥아더는 그를 뚫어지게 쏘아보았다. 쓸모가 있겠는가? 어쨌든 속물이고 반편인것만 틀림없다.

그러나 이 마당에 똑똑한놈치고 누가 도망을 가지 않고 남아있을것인가?

맥아더는 차라리 이런 판에는 반편이 훨씬 쓸모가 있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여기는 뭐라는데요?》

한 장교가 제꺽 나서더니 경기도 시흥군이라고 대답하였다.

《좋소. 당신은 지금 이 시각부터 시흥지구전투사령관이요. 저 용감한 군인들에게 적이 북쪽에 있다는것을 가르쳐서 즉시 한강으로 내보내시오.》

맥아더는 파이프를 들어 힘차게 북쪽을 가리켰다.

《알았습니다.》

김홍일은 그만 울상이 되여 꺼져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영등포를 지나니 포소리가 한결 요란한데 네거리 한복판에 105미리포진지를 쌓고있었다. 한강남안에서도 길한복판에 155미리며 105미리포들을 끌어내다놓고 서울시가를 향해 사격을 하고있었다.

뭉청 무너져앉은 한강철교와 인도교를 바라보던 맥아더는 비로소 좀 마음이 놓였다. 그리고 워낙 대대적으로 준비한 군대라 그렇게 깡그리 모두 붕괴되여오는것 같더니 그래도 강가에 진지를 파고 뻗치고있는 패들도 적지 않았다. 인민군편에서는 웬일인지 거의 사격이 없었다. 그들의 가슴을 그렇게도 불안에 설레이게 하던것은 실상 알고보니 그들자신의 포소리였다.

맥아더는 마음이 진정되는 한편 의아스럽기도 하여 수원들에게 물었다.

《공산군은 서울에 도착하여 대관절 뭣을 하고있소?》

《한국군사고문단》 라이트대령이 앞으로 나섰다.

《적은 서울을 점령하고는 치안과 행정 등 정치에 관심을 집

중하면서 병력을 집결하고있으며 2～3일간 있어야 행동을 개시할것으로 보입니다.》

《2～3일간？ 그런데 그들이 저 다리를 어떤 방법으로 2～3일안에 복구하겠다고 하오？》

《그건,그들이 잘 알것입니다.》

《좋소. 그들로 하여금 정치를 하게 내버려두시오. 그러면 념려할것 없소.》

맥아더는 이때 정치에 관심을 가져 대통령이 돼보겠다고 군복을 벗어버리고 지금은 갑자기 학자연하여 대학 총장으로 들어앉아버린 아이젠하워생각이 났다. 한때 자기 막료로 데리고있은적도 있는 그가 전후 첫 인기투표에서 자기는 겨우 8위를 차지했는데 놀랍게도 제1위를 차지함으로써 가장 비참한 패배감을 안겨주던 일을 상기하였다. 그 쓰라린 패배감때문에 48년 선거때 공화당 대통령립후보로 출마하라는 권고를 뿌리치고 오늘까지 이를 갈며 잃어버린 첫 영웅자리를 회복하려고 노력해오는 그는 오늘이야말로 정치에 매혹된 두 원쑤와 적수를 한꺼번에 꺼꾸러뜨릴 기회가 왔다는것을 은근한 만족감을 가지고 감촉하였다.

여기서 맥아더의 명예를 위하여 응당 그의 순진성과 천진란만성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방금 맥아더앞을 한 장교가 얼마간의 병사들을 이끌고 달려갔는데 그 장교더러 지금 병사들을 이 진지에서 저 진지로 옮기고있는것은 당신자신이 아니라 누군가가 당신의 옷깃에 달아준 그 조그마한 알루미니움쪼각 계급장이라고 일깨워준다면 그는 펄쩍 뛸것이 틀림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맥아더 역시 수많은 병사,장교들이 자기에게 경례를 붙이고 유명한 장군들이 쩔쩔매는것은 전적으로 자기의 《위대성》때문이라고 생각하고있었다. 이와 같은 무서운 착각을 일으킨 사람이 어찌 맥아더 한사람뿐이겠는가？ 5,100만평방키로메터에 달하는 지구껍데기우에는 아직도 지구가 우주라는 허공에 둥둥 떠있을뿐아니라 그것이 구을면서 돌고있다는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와 마찬가지로 전쟁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쓸려 락엽처럼 휘몰리는 존재에 불과하면서도 자기가 전쟁을 좌지우지할것처럼 생각하는 《천진한》 사람들도 있는것이다. 맥아더가 다섯개의 왕별을 달고 요란한 걸상에 앉아있는것이나 유곽에서 징모되여 전선행트럭을 타고있는 위안부들이나 또는 남부주들의 화학연구실들에서 제작되여 조선행 꼬리표를 단 포장궤짝속에 들어가있는 세균으로 오염된 진드기나 다같이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의 의사에 의한것임을 위안부나 진드기와 마찬가지로 맥아더 역시 모르고있었다. 더구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제국주의 전쟁의 주재자가 자기의 가죽잠바주머니속에서도 짤랑거리는 딸라라는것을 맥아더는 전혀 못느끼고있었다. 또한 전쟁의 운명을 결정하는것이 그자신의 소총명이나 원자폭탄이 아니라 주로는 그가 그렇듯 같잖게 보아온 《어중이떠중이》 인민대중이며 그들의 온갖 정신적, 도덕적, 기술적 및 육체적 노력에 귀착된다는것을 꿈에도 못생각하고있었다. 이것은 맥아더가 무식해서인가? 천만에, 맥아더는 다만 《순진》할지언정 결코 무식하지는 않다.

지구가 구을고 돈다는것을 말은 하면서도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느끼고 아침저녁 해가 뜨고 달이 지며 또한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것이 바로 그 자전과 공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다행히 우주의 세계는 무궁하고 무한하여서 소인들의 인식여부에는 조금도 제약을 받지 않고 제철이 오면 꽃을 피우고 눈을 날리며 아이들을 위해서는 명절을, 애인들을 위해서는 록음과 미풍과 밤을 마련해주는것이다. 그러나 전쟁과 같이 많은 인간들의 생명이 오락가락하고 한민족, 한나라의 운명이 좌우되는 대동란의 시기에 그 한복판에 서서 그것을 못느낀다는것은 각별히 구슬픈 일이다. 불속에 뛰여드는 나비를 두고 가련함을 느끼는것이 인정의 상례이다. 그러나 어이하랴, 불을 향하여 나래를 푸득거리는 순간의 나비가 체험하는 환희와 열정을 누가 막을것인가?

만인을 위해서는 론쟁할 여지없이 구슬픈 이 사실도 맥아더자신에게는 더할나위없는 행복인것이다.

그는 흡족한 표정으로 자기 힘에 의해 일대 전환을 일으킬 전선을 바라보고있었다. 삐딱이 꼬나문 골통대에서 방금 발사한 포구처럼 담배연기가 푸실푸실 피여올랐다.

이때 한 장교가 라이트에게 무엇을 속삭였다. 그러자 라이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해쓱하게 질렸다.

《각하, 위험합니다. 어서 돌아가십시다. 김포비행장에서 영등포방향으로 진격중인 공산군의 한 부대에 의해 〈국군〉의 저지선이 돌파당하였습니다.》

《일없소. 아무러문 그들이 내 자동차를 따라잡겠소. 그들의 주력은 저기에 있소.》

맥아더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대안의 서울시가를 턱으로 가리키며 천천히 파이프를 입가로 가져갔다. 그러나 라이트는 물러서지

않고 한걸음 앞으로 나섰다.

《뿐만아니라 후방쪽도 재미없습니다. 인천에 폭동이 일어났답니다.》

《뭐 폭동? 개자식들,내가 후방을 깨끗이 하라고 그렇게 일렀는데… 어서 갑시다. 그 늙다리를 좀 만나야겠소.》

맥아더는 황망히 자동차로 달려갔다.

돌아 갈 때도 도로의 혼잡은 여전하였다. 시흥을 지나서부터는 김홍일의 필사적인 노력에 의하여 군대들의 혼란이 한결 적어진것이 사실이였으나 피난민들은 여전히 사태가 난듯이 밀려가고있었다.

맥아더는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 한차에 탄 라이트대령에게 물었다.

《대관절 공산군들은 사람들을 다 놓쳐버리고 누구를 상대로 정치를 한단말이요?》

《저건 제2차피난민들이지요. 서울시민들은 대체로 서울에 남아있습니다.》

《제2차피난민들이라니?》

맥아더는 라이트의 얼굴과 아우성치며 흘러가는 피난민들의 홍수를 바라보았다. 라이트는 침착하게 말하였다.

《저들은 이미 1945년당시에 한번 38선을 저모양으로 넘어온자들입니다.》

《흠! 그렇군,그럼 저들을 무장시켜야겠소. 남녀로소 가릴것없이 모조리 총을 내줘서 앞장에 내세우도록 하시오.》

《저희들도 이미 그런 의견을 한국인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니요. 그들을 믿지 말고 직접 하시오. 직접,알겠소?》

수원에 돌아온 맥아더는 리승만과 신성모,백성욱을 불러놓고 인천사태를 밝히라고 하였다. 백성욱이 두손을 합장하고 나서서 일부 당황망조한 경찰관들이 명령을 집행하지 않고 미처 빨갱이들을 처단하지 못한채 수원으로 도망쳐왔기때문에 그런 사태가 발생하였다는것과 그때문에 그들중 일부는 이미 총살을 하고 일부는 되돌려보냈는데 추후로 들려온 정보에 의하면 옹진에서 철수한 17련대가 인천으로 들어갔기때문에 폭동은 인차 진압될것이라고 말하였다.

맥아더는 비로소 마음을 놓고 위협조로 말하였다.

《앞으로 미군의 작전구역에서 이러한 종류의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나는 당신들이 고의적으로 우리 미군의 작전에 방해를 놀았다고 간주할것이요. 그러나 만일 당신들이 일을 능숙하게 처리하여 사전에

그러한 가능성을 없애버린다면 전선형편은 과히 념려할것이 없소. 나는 일본에 있는 미륙군전체를 조선전선에 투입할것을 결심하였소. 우선 24사의 일부는 공로로 평택에 수송될것이며 나머지는 바다로 올것이요. 전선사령관으로 24사단장 띤을 이미 임명하였소. 그러니 당신들은 우리 군대가 전개하기까지 결사적인 지연전을 해야겠소.》

맥아더는 뒤이어 자기의 고급 막료들을 대동하고 지도우에서 미군의 전개지점과 작전방향에 대하여 세심한 지시를 주고 떠나갔다.

11

당시 남조선의 당조직은 박헌영,리승엽도당의 파괴행위와 전쟁준비의 일환으로 추진된 대대적인 탄압,숙청선풍으로 말미암아 전반적으로 붕괴되여있었다. 이리하여 맥아더가 그렇게도 겁나하던 후방에서의 폭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폭동은 말할것도 없고 나무다리 하나 끊어놓는데도 우연적인 재해를 기다릴수는 없는것이니 허구많은 우연이 작용하는 전쟁과 같은 격동적인 사변속에서도 조직적이고 향도적인 력량이 없이는 심지어 회파람소리하나도 울릴수 없는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애국적인 민주주의세력을 소멸하기 위하여 빨찌산토벌과 함께 지어 《보도련맹》에 가맹한 전향자들까지 재구속하는 대대적인 검거선풍을 불러일으킨 맥아더의 조치는 제나름으로 《현명》하였다고 할것이다. 산업지대에는 《대한로총》이 활개를 치고 가두와 농촌에는 《대한청년단》과 《호국군》이 일제말기처럼 목총을 메고 살판쳤으며 《씨.아이.씨》를 비롯한 각종 특무기관의 밀정망이 군,시,리,동,통까지 내리뻗었다. 아무데고 애국적이거나 진보적인 세력이 발붙일데라고 없었다.

다만 그들이 공산주의를 말살하기 위하여 구축한 그들의 발판이며 거점인 감옥과 경찰감방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모여드는곳에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그러한 생활분위기가 싹텄다.

언젠가 민환규가 그렇게도 절망적으로 바라보던 그 가시철망과 높다란 회색 양회담벽으로 둘러싸인 침울한 건물안에서 김명기는 며칠째 북쪽에서 은은히 울려오기 시작한 포소리와 더욱 가까운곳에서 콩볶듯이 들리기 시작한 보총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그는 서대문에서 이감된이래 너덜너덜해진 수의를 입고 벌써 3년째 동일한 자세로 앉

아서 단조롭고 따분한 일과를 반복하고있었다. 그러나 최근 며칠동안에는 격동적인 외부세계의 파동이 높은 담벽과 철문을 뚫고 이 감방깊이에까지 퍼져왔다. 모자끈을 턱에 내려건 간수들은 총을 벗겨들고 눈에 피발이 서서 뛰여다니였고 밤에는 당직수가 배로 늘었으며 불안하고 살기띤 시선을 매 감방에서 떼지 않았다. 작업이 중단된지는 벌써 일주일이나 되였다. 중범이나 경범(하긴 여기서 경범이란 없었지만)이나 똑같이 엄격한 감시하에 갇히였다. 간수들은 외부의 소식이 들어오지 못하게 온갖 단속을 다했으나 하늘을 날아오는 포소리를 막을수는 없었다. 나중에는 그들자신이 그 포소리에 넋을 잃고 겁에 질린 시선을 포소리가 들려오는 허공으로 보내군하였다.

외관상 아무런 변화가 있는것 같지 않은 수인들의 생활에도 포소리와 함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통방이 쉴새없이 뚝딱거리고 복도를 향해 앉은채 낮은 소리로 쑤군쑤군 모임을 가졌다. 특히 명기가 있는 3동 8호실에는 이 부두작업장의 총지휘자인 최호섭이가 있었기때문에 특히 긴장되여있었다. 46년 인민항쟁당시 대구에서 체포되여 남조선각지의 형무소로 끌려다니다가 작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사형언도를 받은 그는 부두작업장에 이감된지가 벌써 1년가까이 되였지만 웬일인지 여적 처형하지 않았다. 그대신 컴컴하고 습기도는 독방에 감금하기도 하고 고된 로동에 내모는가 하면 얼마 안되는 잡범들속에 집어넣어 폭행을 가하게 하는 등 방법으로 갖은 모욕과 고통을 주었다. 그러나 일견 뼈만 남은것 같은 이 수척한 사나이는 어디에 그런 힘이 있었는지 가대기를 메도 남보다 많이 멨고 석재작업에서도 남보다 더 많은 일을 하였다. 잡범들속에 끼워놓으면 며칠이 못가서 그들이 간수들의 술을 얻어먹을뿐만아니라 필요한 정보자료를 얻어오도록 만들어버렸다. 결국 간수와 계장들은 이런 생감등대기같은 인간을 어찌하여 빨리 처형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대통령의 《너그러운 처사》만 원망하고있었다.

48년 2월 전 남조선적인 구국투쟁당시 인천에서 부두로동자와 선박로동자들사이에서 파업을 조직한 명기는 그후 야수적인 탄압에 의하여 투쟁이 진압되자 곧 제3대동환 갑판에서 체포되여 서울지방법원에서 무기언도를 받고 인차 이리로 이감되였다.

그는 처음 한동안 《무기》라는것이 자기를,해별은 스며들지 않으면서도 여름이면 못견디게 열을 뿜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그대로 휩쓸어드는 스레트지붕밑에서 자기의 한평생을 매장하자는것이라고

생각하고 서글픔을 느끼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형이 아니면 무기를 받은 사람들일뿐아니라 그들이 한결같이 당장이라도 철창을 짓부시고 나가 싸움을 할것처럼 긴장되여 정세를 주시하고 학습을 하고 동지들을 교양하는것을 보았을 때 많은것을 깨닫게 되였다. 남조선의 암담한 생활이 그를 자연발생적으로 투쟁에 내몰았다면 여기서는 그를 조직적으로 훈련시키고있었다.

포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그날부터 감방생활은 완연 하나의 숨쉬는 유기체처럼 활발한 생명활동을 진행하였다. 매개 감방이 세포라면 여기 3동 8호실은 전체 유기체의 세포활동을 장악한 뇌수와 같았다. 각방에서 정보와 문의사항들이 집중되고 지시가 하달되였다. 전쟁이 일어났다는것은 작업이 중단되자마자 전체 감방에 전달되였다.

—경각성을 가지고 적들의 준동을 주시할것.

—대오를 결속하고 어느때든지 폭력투쟁에 나서도록 준비되여 있을것!

이런 지시가 통방으로 나가는 한편

—의정부해방.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방송연설로 전체 인민에게 항쟁에 궐기할것을 호소.

—김포반도에서 전투중.

—서울해방.

—우리 민족의 영명한 령도자 **김일성**장군님 만세!

이런 통방이 들어오기도 하였다. 그러자 감옥안 분위기는 소란스러워졌다.

계호계 간수들은 중무장을 갖추었고 차들을 끌어내여 출발준비를 시켜놓았다. 경비는 더욱 삼엄해졌다.

호섭은 꺼칠한 수염을 매만지며 서당접장처럼 상반신을 흔들흔들하면서 말하였다.

《때가 닥쳐온것 같소. 저놈들이 그냥은 가지 않을거요.》

《뻔하지요. 전투준비를 해야겠소.》

철문앞에 장대한 체구를 뻗치고앉은 서울기관구 로동자 한춘산이 웅얼거리듯 받았다.

이때 똑똑— 하고 벽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똑똑 또 똑똑— 똑똑 또 똑똑— 무전수이상으로 능숙하게 다급히 두드려대는 소리를 모두 숨을 죽이고 들었다.

《대전으로 이감이라— 가만 우리 좀 토의합시다.》

호섭이 이렇게 말하고는 7명의 동지들을 돌아보았다.

《판가리싸움을 준비해야겠소. 이제 저놈들이 발악할것이요. 모든것은 예견한대로 되였소.》

《그런데 호섭동무！》

유난히 얼굴이 해쓱하게 질린 한 동무가 벽에 기대였던 몸을 힘겹게 일으켜앉으며 다소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저놈들이 이제 막판이니 총을 쏠게란말이요. 마구 총질을 할게란말이요.》

《그렇지요. 총질을 할거요.》

호섭은 침착하게 말하며 떠보듯이 그 얼굴이 하얗게 질린 동무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그러니 우리가 맨주먹으로 어떻게 대항하겠소？ 놈들은 우리가 단식투쟁을 한대도 끔쩍 않을거란말이요. 어림없지. 굶어죽으라할 판인데… 그러니 우리에게 무슨 수단이 있소？ 맨주먹밖에 없지 않소？》

《혁명이란 어차피》

호섭은 여전히 침착한 투로 말하였다.

《처음에는 맨주먹으로 시작되는것이지요. 우리의 무기는 단결입니다. 락범동무, 어째서 그런 말을 하시오？ 동무는 설마 이 감방안에다 무기공장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요？》

《나를 어떻게 보고 하는 소리요？ 나도 적을 무서워하진 않는단말이요. 그렇지만 수많은 동지들을 맨주먹으로 무장한 원쑤앞에 내세운다는것은 이건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소.》

락범이는 미간을 찌프리며 더욱 신경질적으로 대들다싶이하였다.

《여보, 동무.》

서울기관구 로동자 한춘산이가 피뜩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그래, 동무생각에는 가만 앉아서 놈들의 총알을 받아먹어야 한단말이요？ 싱거운소리 작작하오. 아마 놈들이 대전으로 다 끌고가지는 못할것이요. 나머지는 여기서 학살할거요. 끌려간 동지들은 더욱 심한 고통을 주자는게 뻔하오. 나는 결사대를 조직할것을 제기하오. 우선 놈들이 우리를 분렬시키지 못하게 아무도 호출에 응하지 말아야 하오. 그리고 놈들이 문을 따면 그것을 리용해서 몸으로 놈들을 받아넘겨야 하오. 그다음이야 뻔하지요. 총을 빼앗고 우리가 무장합시다.》

락범은 감방안의 모든 시선이 자기를 쏘아보자 더는 말을 못하였다.

통방이 날아갔다.

명기는 다가오는 결전의 시각을 예감하였다. 동지들의 등뒤로 돌아가 변기통을 마사뜨렸다. 무엇인가 손에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밤이 왔다. 컴컴한 전등불빛아래 간수들이 더욱 기팡이 나서 돌아치더니 마침내 다섯놈이 감방문앞에 나타났다. 절커덕절커덕 격발기를 제끼는 소리가 나더니 한놈이 열쇠를 들고 자물쇠로 다가왔다. 잘깍 하고 문이 열렸다. 그손에는 두컬레의 수갑이 쥐여져있었다.

《526번！ 839번！ 어서 나와！》

예견한대로 호섭이와 한춘산이가 불리웠다. 간수는 잔뜩 겁을 집어먹고 문을 겨우 주먹하나 드나들만큼 따고는 다시 소리쳤다.

《526번, 어서 나와！》

한춘산이가 벌떡 일어났다. 뒤따라 명기가 한손에 감추어두었던 변기통에서 마사낸 몽둥이를 들고 바싹 붙어섰다. 순간 저쪽에서 따쿵따쿵 하고 총소리가 울려왔다. 다른 감방에서 벌써 살륙이 시작된것이였다. 주저할것이 없었다. 8명의 수감자들이 한꺼번에 와—하고 문으로 쓸어나갔다.

질겁한 간수놈은 얼른 철문을 쾅하고 내밀었다. 그러나 미처 쇠를 잠글사이가 없었다. 8명이 한덩어리가 되여 냅다밀어대니 육중한 철문이 삐개질듯이 휘청거렸다. 한놈이 응원으로 달려오면서 소리쳤다.

《쏘아라, 쏘아！》

총을 겨누고있던 두놈이 한꺼번에 방아쇠를 잡아당겼다. 그러자 사처에서 총소리가 요란하게 울려왔다.

《동무들！ 굴하지 말자！ 내밀어라！》

분명 어딘가 총알을 맞은 호섭이가 가래 끓는 소리를 지르며 웨쳤다. 명기는 몽둥이로 철문을 움켜잡은놈의 손을 사정없이 내리쳤다.

《아！》하고 한놈이 주춤하는 서슬에 문이 삐걱하였다. 그러자 또 다른놈이 어깨를 들이댔다. 이때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울려왔다.

높이 들어라 붉은 기발을
그 밑에서 굳게 맹세해
비겁한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기를 지키리라

놈들은 마구 총질을 하였다. 그러나 총소리에 더욱 놀란것은 그

놈들자신이였다. 당황망조하여 마구 쏘다보니 코앞에 대고 쏘는데도 왕청같은 벽을 뚫어놓군하였다. 마침내 3동 8호실의 문이 터졌을 때 다른 감방에서도 와—하고 동지들이 밀려나왔다.

적들은 이미 발동을 걸어놓은 자동차를 타고 도망치고말았다.

감방마다 2～3명의 희생자가 났고 부상당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최호섭은 감방복도에서 숨을 지웠다. 그는 명기의 가슴에 안겨 눈을 감지 않으려고 안깐힘을 쓰면서 또박또박 말하였다.

《나는 잘 싸우지 못했소. 나를 용서해주오. **김일성**장군님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

그들은 미처 열지 못한 감방문들을 짓마스고는 수의를 펄럭거리며 동지들의 시체를 메고 인천시가로 쓸어들어갔다.

이무렵 인천시내에 있는 각 경찰서, 즉 인구 10여만의 인천시민들을 탄압하기 위하여 만들어놓은 인천경찰서, 동인천경찰서, 수상경찰서, 철도경찰서, 기마경찰대와 제1관구경찰청 그리고 《씨. 아이. 씨》경찰특공대 기타의 감방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되고있었다. 그리하여 인천시가는 일시적으로 무력의 진공상태가 조성되였다.

이튿날 이른새벽에 명기네 집에 호섭의 시체를 안치해놓고 허줄한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한춘산과 김명기가 시가로 나왔을 때 만국공원 기슭의 인천시청 정문에는 림시인민위원회의 간판이 붙어있었다.

《허, 빠르긴 빠르군！ 이게 도대체 누가 조직한것인가？ 인천사람들이 날래단말야.》

한춘산은 야유조의 감탄소리를 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보도련맹패들일거요. 뻔하지요. 그렇지 않고서야 밤새 이런 궁리하고 있을 겨를이 누구에게 있겠소？》

명기는 쓰겁게 내밸듯이 말하며 걸음을 다그쳤다.

《일이 잘되는것 같지 않군, 어렵쇼, 보초까지 세웠다—》

한춘산은 큰 발견이나 한것처럼 사람들이 까맣게 모여드는 정문앞에 서있는 한 청년을 보고 이렇게 소리를 쳤다.

그 청년은 낡은 99식보총을 들고서서 들어오는 사람을 일일이 단속하고있었다. 청년은 춘산과 명기의 빤빤한 머리칼과 꺼칠한 턱 그리고 오래 해빛을 못본 창백한 얼굴을 보자 대뜸 온순해지면서

《들어가십시오.》

하고 공손하게 말하였다. 당시 그러한 그들의 얼굴은 어디에 가나 가장 믿음성있는 신분증명서로 되였다. 그러나 춘산은 당초에

들어가는것이 목적이 아닌것처럼 그 청년의 총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거 쾌 쏠수 있소？》
청년은 의아쩍은 눈매로 춘산의 장대한 체구를 아래우로 훑어보더니 싱거운사람 다 보겠다는듯이 말하였다.
《쏘긴 누굴 쏘아요？ 격발기도 없는데…》
《그런걸 뭣하러 들고있소？ 장난감이요？》
《여보, 일 볼게 있으면 들어가서 일이나 보고 할일 없으면 돌아가시오.》
《흥.》
춘산은 코방귀를 불더니 명기에게 말했다.
《일이 잘되는것 같지 않소. 저건 순사칼보다 더한 물건이군.》
이때 이 건물안에는 각 경찰서 감방에서 뛰여나온 사람들과 이미 신문지상을 통하여 전향성명서를 내고 《보도련맹》에 가입한 사람들, 또는 혼자 지하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모여들어있었는데 실권을 잡은것은 맨 먼저 손을 쓴 《보도련맹》패들이였다. 그들은 시내에서 큰 개업의로 유명한 의사 진태남을 중심으로 인민군환영준비와 각종 직관물 그리고 《인민위원회》의 간부배치에 신경을 쓰고있었다. 벌써 위원장이며 부장이며 하는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그들은 부두작업장에서 나온 사람들을 경의를 가지고 대하였으나 대부분이 이 지방출신이 아니기때문에 응당 여기일은 여기 사람이 해야 한다는 태도로 나왔다. 인민들에게 해방의 진미를 우선 맛보게 해야 한다고 해서 시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곳에 있는 량곡창고를 터뜨려 쌀가마니를 군중들앞에 풀어헤쳤다.
한춘산과 김명기는 거의 정오때나 되여서야 겨우 사람들틈을 비집고 진태남의 방으로 들어갈수 있었다.
《동무가 여기 책임자요？》
40대의 풍신좋게 생긴 의사는 평생처음으로 해보는 행정사업이라 불과 몇시간 사이에 벌써 지친듯 아니꼬운 눈매로 두사람을 바라보았다.
《이를테면 그런 셈이지요. 헌데 동무들은 말버릇을 그렇게밖에 못배웠소？ 그래 동무들은 뭐요？ 동무들은 형무소에서 나왔소？》
《난 한춘산이란 사람이요.》
《오, 동무가 한춘산동무입니까？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범의 굴에서 빠져나오다니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진태남은 갑자기 부드러운 음성으로 인사를 하며 새삼스럽게 두사람의 손을 굳게 잡고 흔들었다.

《동무, 나는 동무가 한일에 대해서 시비질을 하려고 온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건대 동무들은 무엇을 좀 잘못 생각하고있는것 같군요.》

춘산은 책상우에 놓여있는 태남의 담배갑에서 권연 한대를 꺼내여 감방안에서 버릇이 된대로 손바닥안에 감추어쥐고 불을 붙이며 은근하게 본론의 허두를 뗐다.

《글쎄, 그럴줄 압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해봤어야지요. 물론 이제 인민군대가 들어오면 곧 해당한 지시가 있을줄 압니다만 그러나 한시라도 주권을 비워놓을수야 없지요. 모든 혁명에서 주권은 선차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 의견이 있으면 기탄없이 말씀해주십시오.》

《동무들이 바로 그점을 잘못 생각하고있는것 같소. 그래 동무생각에는 우리가 주권없는 인민인것 같소? 동무는 최고인민회의 선거에 참가하지 않았소?》

춘산은 저도모르는사이 흥분되여 담배로 마구 재털이를 두들기며 말했다.

《동무, 이거 왜 이러시오, 나보고 따지진 마시오, 난 동무들의 의견은 물론 들을 용의가 있지만 그런 투로 말하는것은 참을수 없습니다. 이건 회의장이 아니요, 그래 내가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안했단말이요?》

《그렇다면 주권이 무슨 주권이요?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요? 조선인민이 피로써 쟁취한 주권을 사수하자는 전쟁이 아니겠소? 난 간밤에 **김일성**장군님께서 하신 방송연설의 골자를 뒤늦게 전해들었소만 거기엔 명백하게 우리 전쟁의 목적이 밝혀져있소.》

《아니 그럼 나는 그걸 모른단말이요? 우리의 주권이야 있지요. 허지만 여기는 아직도 그놈들이 다 쫓겨가지 않은 인천이란말이요.》

《그래 옳소. 그건 옳게 생각한것이요. 허지만 당신들은 이렇게 집만 차지하고있으면 될줄 아시오? 아니요. 저 펄럭거리는것을 만들기전에 우선 무장을 해야 한단말이요.》

《무장이라니?》

《차, 이 동무가 혁명을 잘 하겠군, 여기에 패잔병 한둘이라도 뛰여들어보오. 어떻게 되겠는가?》

이때 방안에는 일이 있어 들어온 사람, 지나가다가 떠들썩한 소리를 듣고 들어온 사람으로 빼곡하였다.

진태남은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훔치며 짜증을 내였다.

《동무는 뭘 그리 큰소리요? 그래 우리가 인민군대 환영준비

를 하는게 나쁘단말이요? 패잔병이야 인민군대가 어련히 처치하지 않으리란말이요?》

명기는 이야기를 춘산이에게만 밀어 말길수는 없었다. 우선 진태남의 이야기를 듣고있자니 속이 괴여올라 참을수가 없었다.

《아니 당신들은 뭐요? 그래 인민군대가 들어오기전에 우리가 그놈들을 때려눕히면 잘못될게 뭐요? 어제 형무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동무들 수십명이 희생됐단말이요. 그래 당신들은 그런 동지들의 원쑤를 갚을 생각도 없소? 여보 한동무, 이 사람들하고 긴소리 할것이 없소. 우리끼리 갑시다.》

《허, 이 사람들이 당장 무슨 일을 낼것 같군. 그래 가면 어떻게 하겠소? 무장을 어디서 얻겠소?》

진태남도 너무 강경하게 나오니 좀 떨떨해졌는지 한풀 숙어들었다. 한춘산은 아니꼽게 그를 흘겨보며 내뱉었다.

《전쟁이요, 전쟁! 총이야 어디에 간들 없겠소. 더구나 적이 아직 앞쪽에 있는데…》

명기도 마지막으로 다짐을 두었다.

《당신들은 애당초 이따위 간판을 쓰는데 바빠할것이 아니라 총을 뺏을 궁리를 했어야 한단말이요. 그런데 뭐요. 잔뜩 사람만 모아놓고… 군중들의 기세를 당신들 자리차지하는데 리용하겠소?》

《뭐요?》— 진태남은 발끈해서 대들었다. 《아니 우리가 우선 주권을 세우자고든게 무슨 오유란말이요? 허, 이런…》

그들이 끝없는 론쟁속에 파묻혀있는 사이 정세는 론쟁할 여지없이 변하고있었다.

×

제3대동환은 김포에 세멘트를 부리우고 돌아오는길에 연안에 들려서 소금을 실던중 전쟁을 맞이하였다. 짐도 못싣고 어물거리다가 이튿날 괴뢰군에 징발되였다. 수부장 김형기는 여기서 박인엽중령이 지휘하는 《호림부대》의 패잔병을 싣게 되여 그들의 악랄한 만행을 목격하였다. 박인엽은 어떻게 구슬렸는지 수많은 피난민들을 해안까지 몰고왔는데 배를 타게 되자 엘.에쓰.티 한척과 징발한 두척의 목선에 다리가 찢어지고 머리가 터진 부상병투성이 자기부대를 다 싣자 곧 출항시킬것을 명령하였다.

총검의 위협에 못이겨 해안까지 끌려나온 피난민들은 배전에 매여달리며 아우성을 쳤다. 이때 인엽은 기관총수에게 일제사격을 명령하였다. 아이를 업은 아낙네, 짐을 진 늙은이, 조그만 보따리를 어깨로 해서 가로동인 소년, 까맣게 배전에 달라붙었던 사람들이 쑥대처럼 넘어졌다.

김형기는 너무나 소름이 끼쳐 그 명령을 내린 장교를 돌아보았다. 이때 박인엽은 바다물을 붉게 물들이며 울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은 이미 돌아보지도 않고 해도를 열심히 들여다보고있었다. 김형기는 어려서 고향 검산을 떠나 수십년동안 안가본데가 없고 못본것이 없었다. 밀선을 타고 《돼지장사》도 했으며 《얌생이》도 몰았다. 광산에서 후산, 선산을 다 거쳤고 부두로동도 해먹었으며 농사도 지었다. 그사이 인간이 천대받고 죽어가는 모양을 한두번만 보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끔찍한 참극은 처음보았다. 그는 술에 취한듯 비칠거리는 걸음으로 박인엽에게로 다가갔다.

《나리님, 아이구 나리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배에는 아직 자리가 넉넉한데요?…》

《뭐야?》

인엽은 들여다보고있던 해도를 한쪽으로 와락 밀어놓고 형기를 돌아보더니 어처구니가 없는지 허허 웃었다.

《너는 이 배 사람인가?》

《그렇소이다. 나리님, 아직 이 배에도 한 30명은 더 태울수 있는데요, 저렇게 끔찍하게…》

《허허허, 대단히 용감하군, 너같이 용감한 사람이 〈국군〉에 필요하다. 어이 경리계, 거기 죽어가는놈 우티를 벗겨서 이 사람에게 입혀라, 알겠는가? 너는 오늘부터 〈국군〉이등병이다. 앞으로 좋은 구경 많이 시켜주마.》

형기는 벌어졌던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그는 롱담도 심하게는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런 참혹한 살륙을 해놓고도 태연히 롱담을 하고있는것으로 보아 자기 말이 전혀 통하지 않으리라는것을 그제야 깨닫고 돌아서려 하였다. 그러나 인엽의 말은 롱담이 아니였다. 경리계 하사는 집칸 바닥에서 신음소리를 내며 아우성치는 한 병사에게서 피투성이 군복을 벗겨내여 그앞에 집어던졌던것이다. 이리하여 형기는 《국군》 2등병으로 《호림부대》의 전적가운데서 가장 《찬란한 페지》를 장식한 《인천작전》에 참가하게 되였다. 제3대동환은 배뿐아니라 대부분의 선원들이 신병으로 징모

되였는데 여기에는 심지어 벙어리 화장까지 끼여들었다.

부대는 강화도에 내렸다가 다시 쫓기여 1950년 6월 29일 낮, 바로 인천시청 건물안에서 진태남과 형기의 동생 명기들의 사이에 무장을 하는것이 선차적인가 혹은 간판을 내거는것이 선차적인가 하는것을 토의하고있던 바로 그 시각에 인천에 상륙하였다.

인엽은 상륙하자마자 밀선을 타고 어디로 도망치려고 해안에 밀려나왔던 장사군들과 변장한 순경들로부터 인천시내에 조성된 정세를 들었다. 그럴무렵에 맥아더의 엄명을 받고 급히 폭동진압을 위하여 출동한 기마경찰대가 도착하였다.

인엽은 지도를 펼쳐놓고 《적》들이 웅거한 진지들을 상세히 연구하였으며 참모들과 경찰기동대장을 불러놓고 면밀히 작전을 짰다. 제1대는 하인천역 선린동 일대에서 청관앞 고개를 넘어 시청서쪽에 진출할것이며 제2대는 서울—인천간 대도로를 따라 나가다가 경찰청앞에서 직각으로 꺾어져 시청정면으로 진출할것이며 제3대는 국립관상대옆으로 빠져서 시청후면으로, 나머지 일대는 철도를 따라 구름다리까지 가서 예각으로 경동쪽으로 꺾어져 홍예문으로 해서 시청동쪽에 진출할것이였다. 그러되 제일 거리가 먼 제4대부터 출발할것이며 해당한 지점에 도착한 차제로 무전련락을 취하도록 하였다. 기마경찰대는 이 포위소탕작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하기 위하여 주안부근에서 외부전선을 형성하여 서울로 통하는 대도로를 차단하도록 하였다.

새로 탄약이 공급되고 각제대에 중기와 박격포를 한개소대씩 배속시켰다. 출발에 앞서 인엽은 경리계로 하여금 배에 싣고온 양주 한궤짝씩을 각 제대에 분배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사기충천한 괴뢰군들은 힘차게 목적지를 향해 떠났다.

형기는 3대에 속하였기때문에 4대가 출발하자 뒤따라 국립관상대가 있는 산등성이를 향해 대오를 따라갔다.

20분이 못되여 수상경찰서에 설치한 박인엽의 지휘부에 무전이 들어왔다. 각 제대는 해당한 지점에 전개하여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었다. 감시정찰결과에 의하면 《적》들은 새까맣게 모여들어 《만세》를 웨치고 노래를 부르고 그밖에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오나 야전규정에 합당한 전투준비상태는 보이지 않으며 오직 정문에 서있는 보초가 보총 한자루를 들고있을뿐이라고 하였다.

인엽은 시계를 들여다보고나서 명령을 내렸다.

《일제히 공격을 개시할것!》

…《적》들은 허망하게 허물어져버렸다. 작전은 눈깜짝할사이에 끝났다. 사처에서 전과를 보고해오는데 수백명을 살상하고 2천여명을 앉은자리에서 포로하였다는것이 알려졌다. 인엽은 지체없이 수색전투를 진행할것을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이 인천을 버리고 쫓겨가던 7월 4일까지 4일간 인천시내에서는 피비린내나는 《수색전투》가 계속되였다. 집집마다 참빗으로 훑듯이 뒤져서는 우선 머리를 빤빤하게 깎은 사람들, 얼굴이 창백한 사람들, 말투가 곱지 못한 사람들, 젊은 사람으로 빈들빈들 노는자들, 공산군이 들어온 다음에 그판에 붙어서 무엇인가 할수 있을것 같은 사람들— 통털어 비위에 거슬리는 모든 남자와 녀자, 늙은이와 어린이들을 잡아가두었다. 경찰서와 감옥의 감방이 턱없이 모자라서 조탕과 룡궁각에 마구 쓸어넣었다. 한편에서는 잡혀온 사람들을 아무 취조도 없이 굴비두름처럼 묶어서는 바다가에 내다가 총살하였다.

×

명기와 한춘산은 진태남과의 론쟁이 결렬되자 격분하여 마당으로 뛰쳐나왔다. 그때 량곡창고에서 사람들이 와 밀려오더니 《국군놈들이다, 국군놈들이다!》하고 소리쳤다. 저마다 떠들고 웅성거리던 군중들은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듯 조용해졌다.

《국군놈들이 청관쪽으로 넘어온다.》

이런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러자 다시 와—하고 떠들썩하게 관동쪽으로 밀려들갔다. 바로 그쪽에서 뚜루룩—뚜루룩— 기관총소사소리가 들려오더니 입에 피거품을 문 사람들이 사색이 되여 되돌아왔다.

《포위되였다. 홍예문쪽으로도 넘어온다.》

《개자식!》 한춘산은 진태남이 있는 방을 돌아보며 주먹을 틀어쥐였다.

《하긴 우리가 잘못했어. 동무들, 결사적으로 뚫고나가야 하오. 명기동무, 앞서게! 산쪽으로 가자구.》

이때 얼굴이 까맣게 된 의사 진태남이 허둥지둥 뛰여오더니 사방을 돌아보고나서 《아이쿠!》하고 두팔을 척 내려뜨려 무릎을 툭 쳤다.

《여러분, 꼼짝말고 가만 있소. 가만 있으면 희생을 덜 내오. 그 사람들이 움직이면 마구 쏠거란 말이요.》

《이놈의 자식!》

명기는 10여명 따라오는 동무들을 데리고 시청건물뒤로 돌아

가다가 진태남의 넉두리를 듣고 발을 멈추었다. 《숱한 동지들을 잡아먹고도 또 그 수작이야! 변절자같으니!》

뒤따라 오던 춘산이

《이 개야.》

하고 그 면상을 가루가 되도록 내리쳤다. 그리고는 다시 달렸다.

《여러분, 움직이지 마시오!》

코피를 쏟으면서도 중얼거리는 진태남의 소리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사방에서 일제사격소리가 터져오르고 우박처럼 총알이 날아들어왔다.

명기네 일행은 산기슭을 둘러막은 담밑에 이르렀다. 구불구불한 그 블로크담우에는 두줄로 철조망이 둘러있었다.

《동무들, 주저앉는자는 배신자라는것을 알아야 하오. 이젠 각각 흩어집시다. 붙들리면 마지막이요.》

춘산이 이렇게 소리치며 철조망을 뛰여넘었다. 뒤따라 다른 동무들도 뛰여넘었다. 명기는 더 아래쪽으로 내리뛰다가 훌쩍 담을 건너뛰였다. 적들은 벌써 산기슭에 까맣게 널려서 내려왔다. 철조망을 넘으려던 사람들이 절반나마 희생되였다. 놈들은 시청에 먼저 돌입하기 위하여 한두사람 흩어져 달아나는데 주의를 돌릴 겨를이 없었다.

와—와— 따쿵 따르륵 따쿵— 얼근히 취한데다 피를 보자 더욱 살기가 뻗친 놈들은 미친것처럼 담을 씽씽 뛰여넘어 시청앞마당으로 육박해 들어갔다.

명기와 춘산은 가까스로 솔포기사이에 몸을 숨겨가며 홍예문벼랑으로 빠졌다. 텅텅 빈 륙군관사들이 서있는 비탈로 해서 철길로 내려서니 총소리는 꽤 멀어졌다.

그들은 철길로반을 따라 엉금엉금 기여가다가 《조일장유공장》 담벽을 끼고 달렸다. 한참 올라가니 벌겋게 녹이 쓴 길다란 함석지붕이 나타났다. 그것은 《대한강재공장》의 창고였다. 그 창고옆에 명기네 판자집이 붙어있었다.

그들이 황급히 지게문을 잡아채니 《아이쿠.》하고 안에서 비명소리가 났다. 안으로 걸어놓은 문고리가 빠져서 절컥하고 방바닥에 떨어졌다. 총소리에 놀라 이불 뭉테기를 하나씩 안고앉아있던 김병욱로인내외는 들어오는 사람이 아들임을 알자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다.

《아이구, 이 애들아, 이게 어떻게 되는 세상이냐?》

명기는 토방에 선채 어둑시근한 방안을 살피며 다급하게 말했다.

《아버지, 일이 급해졌습니다. 저놈들이 또 들어왔습니다. 우

리 동무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저 터밭 한쪽모서리에 묻었다. 너희들 올 때까지 기다릴가 했더니 날씨가 무더워서 상할것 같더구나. 그 가위에 또 들려오는 소리가 흉흉하더라니…》

명기와 춘산은 터밭머리 눈에 알리지 않게 두드러진 봉분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초연에 끄슬린 으스레한 황혼이 퍼져왔다. 새하얗게 소복을 한 나비 한쌍이 고인을 추도하듯 남새밭에서 봉분으로, 봉분에서 남새밭으로 안타깝게 날아다녔다. 춘산은 목메이는 소리로 말했다.

《호섭동무, 우리를 용서하오, 정말 우리야말로 조국앞에 큰 과오를 범했소, 이제 우리는 떠나겠소. 동무를 여기에 눕혀놓고 가는것이 미안하오만 이제 쉬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오. 원쑤를 맹세코 갚고야말겠소.》

잠시후 그들은 밀려드는 어둠을 타고 송림으로 해서 가재울로 빠져 치렬한 교전소리가 들려오는 부평—김포가도쪽으로 걸음을 다우쳤다.

×

한편 넓다란 공장 마당 저쪽 사무실에 붙여 지은 지배인사택에서는 송경팔로인의 욕설소리가 야음을 타고 단말마의 비명처럼 처량하게 들려왔다.

앙상하게 뼈만 남은 경팔은 벌써부터 시취를 풍기고있었는데 만일 그가 입을 다물고 가만히 누워있다면 누구도 산사람으로 보지 않을만큼 적어도 80프로이상이 이미 죽어있었다. 아직도 살아있는 그 20프로로 말하면 육체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상실한 토지에 대한 미련과 치부욕이였다. 사실 그는 벌써 10여년전에 죽은 사람이였다. 경팔이자신 그것을 잘 알고있었다. 그렇기때문에 만일 매해 3,000여석의 추수를 꼬박꼬박 실어들이던 그 알뜰한 땅을 버들상자같은데 개켜넣거나 멜빵을 해서 지고 저승길에 오를수만 있다면 그는 서슴지않고 죽음길을 떠났을것이다. 그러나 그런 방법이 아직 없는이상 그는 죽을수 없었다. 더구나 그 닭알노란자위 같은 땅들을 머슴군들한테 떼우고 38선이남으로 도망해온 이후로는 죽었다가도 도로 깨여날것만 같은 그의 심정이였다. 그렇기때문에 시취가 풍기는 다 죽은 육체속에 아직도 살아서 남아있는것은 송경팔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아무리 세월이 가고 세상이 바뀌여도 언제든지 자기의 땅으로 남아있어

야 할 검산벌에 있는 그 200여정보의 땅에 대한 강력한 소유욕이였다. 이 소유욕은 전쟁이 일어나자 놀라운 활동력을 나타내였다.

포소리가 점점 가까운데서 울려오고 서울이 해방됐다는 소식, 뒤이어 인천에 있던 경찰과 군대가 도망해버렸다는 소문을 듣자 아들 근배는 그 기름이 도는 뚱뚱한 몸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기가 죽어 갈팡질팡하였고 심지어 둘째 손자 치주조차도 《청년단》간부란놈이 쩔쩔 매기만했지 뭣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똑똑한 의견 한마디 내놓지 못했다. 그런데 일가가 모두 로망했다고 돌려놓았던 반송장이 벌떡 일어나앉았던것이다. 그는 정세의 움직임에 대하여 놀랄만한 명석한 판단을 내렸다.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이 피난을 간다고 서둘러대자 경팔은 고래고래 소리쳤다.

《이 우둔한것들아, 너희들이 도망을 치면 어디로 친단말이냐? 무식한놈들 같으니라구. 이제 시운이 터졌단말이다. 꿈쩍말고 가만 배겨들 있거라. 치주야, 넌 저 부엌바닥에 구뎅이를 파고 내 이 수장궤를 갖다묻어라. 알았느냐? 이것이 우리 집안의 목숨이 걸려있는 싸움이다. 이통에 땅을 못찾으면 마지막이야, 마지막. 도망은 쳐서 뭘해? 너희놈들이 땅 한뙈기 없이 도망을 치면 무엇을 먹고 살테냐?》

옹근 하루밤을 이 반송장의 지휘밑에 송씨일가의 남녀로소들은 문단속을 하고 짐을 꾸리고 물건들을 감추고 하면서 숨을 죽이고 창구멍으로 바깥세상을 공포에 질려 바라보았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반송장의 놀라운 예언이 증명되였다. 달아난줄 알았던 《국군》은 둔갑술이라도 하는지 천만뜻밖에도 인천에 다시 나타났다. 송경팔은 기고만장하여 소리쳤다.

《이놈 치주야, 그 수장궤를 파내여라. 그리고 얼른 짐을 꾸려! 검산으로 가자! 우리 땅을 찾으러 가자.》

그러나 근배와 치주가 보매 아무리 송장의 몸에 신령이 덮쳤어도 아직은 검산으로 떠나게까지는 형편이 못된것 같았다. 그래도 어쨌든 이야기를 듣는척 부산이라도 피울밖에 없었다.

《애, 치주야, 너 할아버지한테 좀 들어가 있거라. 저 늙은이가 저렇게 설치다가 어디 나가 넘어지든지 하면 일난다. 좀 들어가 잡고있어라.》

《난 싫어요.》

《싫긴 왜 싫단말이냐, 이판에 초상이라도 치르게 되면 야단이다. 어서 들어가봐라.》

《싫다는데 그래요, 난 냄새나서 못가겠어요.》

치주는 형을 닮아서 조막만한 머리를 잠자리처럼 데굴데굴 굴리며 잠바깃을 으쓱하고 추켜올렸다.

《아니 이놈아, 냄새라니? 제 할애비한테서 약간 냄새가 나기로니 그게 무슨 말이냐, 어서 가봐라.》

《냄새가 일없으면 아버지가 가보구려, 아버지가 그 령감 아들 아니우?》

《이런 개새끼가!》

근배는 얼굴이 주홍빛이 되여 주먹을 을러멨다.

《흥, 아버지, 말씀 좀 삼가하십시오. 나보구 개새끼라구? 그럼 아버지는 수개란 말이요?》

《뭐, 뭣뭣이, 어찌구 어째! 이 개…이 때려죽일놈!》

쾅쾅 하고 사무실문을 짓마스는 소리가 났다. 부자는 일시에 숨을 죽이고 침을 꿀꺽 삼켰다.

《문열엇! 개자식들, 문열어라!》

쾅, 쾅 연방 사무실 출입문을 마구 차는 소리가 나더니 쨍하고 유리 마사지는 소리가 났다.

《또 개자식이군, 누구야?》

치주는 두덜거리면서도 겁에 질려 우들우들 떨고 섰다.

《그 어떤 놈이야? 얘 치주야, 그 어떤놈인지 내다봐라!》

귀가 먹은 경팔로인이 소란스런 바깥동정을 눈치채고 소리질렀다.

《개새끼들, 문열어라! 문열엇!》

《그 누구요!》

근배는 하는수없이 신을 끌며 사이문을 열고 나가 사무실 전등을 켰다. 문고리를 벗기자 철갑모를 쓴 괴뢰군 사병 두명이 돌격해들어오더니 느닷없이 카빙총을 가슴에 갖다댔다.

《빨갱이가 어디 있느냐? 빨갱이 내놔!》

《네! 아이구 〈국군〉 나리님들이시군. 난 또 누구시라고… 어서, 좀 들어오시지요.》

근배는 반갑기도 하고 무섭증도 나서 그 총을 쓸어안다싶이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총신을 잡힌 《국군》은 가슴을 찌르며 소리쳤다.

《이거 놔! 빨갱이 있지? 어디 있느냐?》

이때 안쪽에서 경팔이 미닫이를 열고 새까맣게 된 송장같은 얼굴을 쑥 내밀었다.

《그 누구냐? 우리 군대냐?》

두놈의 괴뢰군 사병은 사이문으로 뛰여들려다가 어둑시근한 불빛아래 귀신처럼 목을 쑥 내민 경팔의 해골바가지를 보자 그만 몸서리가 나서 뒤로 주춤 물러섰다.

《저건 뭐야?》

《네… 소인의 아버지올시다. 념려마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빨갱이가 아닙니다.》

《빨갱이? 흥, 빨갱이는 아니군!》

무지한 두 사병도 송경팔이 《빨갱이》가 아니라는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지 서로 바라보며 어떻게 할것인가 하고 말없는 가운데 의논을 하였다.

이때 경팔이가 역시 해골이 다 된 새까만 팔을 더듬더듬 내밀더니 쨍쨍하게 소리쳤다.

《얘 근배야, 그 사람들을 저 병욱이란놈 집으로 데리고가거라. 오늘 내가 보아하니 그놈의 집에 수상한놈들이 출입하더라. 그놈들이 빨갱이가 틀림없다.》

근배는 아버지의 날카로운 눈과 기민한 판단에 경탄을 금할수 없었다. 어쩌면 이런 란장판에 그런 생각이 다 떠오를수 있는가? 송장이 다 된 아버지에게 끓어넘치는 존경의 념을 품으면서 《국군》들을 김병욱의 판자집으로 안내하였다.

《이 집입니다. 원래 이 집주인이 불칙한 놈인데다 그 아들놈들이 몽땅 빨갱이지요. 둘째 아들놈은 감옥에 삼년째 갇혀있었는데 간밤에 뛰여나왔습니다…》

괴뢰군 사병들은 이미 피를 보고 미친것들이였다. 손바닥만한 판자집 구석구석을 총구로 마구 찌르고 헤치고 닭새끼처럼 널어놓더니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자 마침내 김병욱로인을 마당에 끌어냈다. 잡초가 한자씩이나 자란 마당에는 절단직장에서 나온 날이 선 쇠토막들이 널려있었다. 한놈이 그 쇠토막 하나를 움켜쥐고 해진 삼베적삼을 걸친 앙상한 등줄기를 내리쳤다.

《빨갱이를 어디 감추었느냐? 대라! 네 아들놈들 다 어디 갔느냐?》

병욱령감은 신음소리를 내며 풀밭에 나딩굴었다.

《아이구, 이게 무슨 짓이요. 늙은이를 이러는데가 어디있소?》

안늙은이가 쇠토막을 쥔 손에 매달리며 악을 썼다. 하늘에는 쪼각달이 내려다보고 먼데서 총소리가 밤공기를 째고 들려오는데

소란을 피우던 풀벌레들이 갑자기 숨을 죽여버렸다.
《이거 놓아, 할망구 같으니!》
괴뢰군놈은 발길로 안늙은이를 걷어차고 다시 쇠토막을 쳐들었다.
《어서 대라! 안대면 쳐죽이고말테다.》
병욱령감은 한번 쓰러지더니 땅에 얼굴을 쓸어박은채 일어설 궁리를 하지 않았다. 등줄기에서는 축축하게 피가 흘러내렸다. 그는 땅에 귀를 대고 마치 먼데서 울려오는 포소리를 듣는듯하였다.
《아이구, 사람 살리우. 글쎄 아침에 나간 애를 늙은이들이 어떻게 안다구 이러시우.》
안늙은이는 가까스로 일어나더니 무릎걸음으로 이번에는 군화발을 쓸어안았다.
《으흠 흠!》하고 근배는 큰기침을 깇으면서 점잖게 타일렀다. 《여보, 검산댁, 이 어른들이 나라 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렇게 하면 쓰나? 어서 일어서, 일어서서 바른대로 아뢰면 될것 아닌가?》
《에끼! 이 더러운놈!》
땅에 쓰러져있던 병욱로인이 갑자기 용을 쓰며 일어나더니 어느 짬에 쥐였는지 파철토막을 집어던졌다. 요행 빗맞아서 위기를 모면한 근배는
《아니, 이 늙은게!》
하고 발길로 늙은이를 사정없이 걷어찼다.
이때 사무실문이 또 와당탕하고 열렸다. 급한 발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이게, 아이구 형기야! 이게 무슨 봉변이냐!》
괴뢰군복장에 총을 쥐고 나타난 형기를 보자 누구보다도 놀란것은 근배이다.
《아니 자네가 언제!》
형기는 매달리려는 근배를 밀어젖히고 땅바닥에 쓰러진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
병욱로인은 죽은듯이 풀밭에 쓰러져있었다.
《누가 우리 아버지를 쳤는가? 어떤 놈이냐?》
형기는 격발기를 절컥 하고 제끼며 두사병을 정면으로 노려보았다.
《아니 이거 왜 이러나? 이게 자네 아버진줄이야 누가 알았나?》
한놈이 황급히 뒤걸음질하며 손을 내흔들었다. 그러자 쇠토막을 쥐고있던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이 사람, 좀 가만 있게, 나쁜놈은 이 자식이야. 이 자식이 자네 아버지를 빨갱이라고 고자질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네도 같은 명령을 받고 나왔겠지? 그러니…》

《개자식! 이 백정같은놈들!》

형기는 다짜고짜로 달려들어 한놈의 따귀를 후려치고 한놈은 발길로 걷어찼다. 도망치려는 근배를 총탁판으로 내리쳐서 풀밭에 쓸어눕혔다. 그리고는 다시 병욱로인에게로 다가왔다.

《아버지, 정신 차리시오. 어디 몹시 상했소?》

《이놈, 저리 썩 물러가라!》

이제까지 땅에 머리를 쓸어박고있던 로인이 불시에 추상같이 호령을 하였다.

《네 이놈! 네놈도 〈국방군〉이냐? 저리 썩 물러가지 못해! 난 너같은 백정놈은 자식으로 치부하지 않는다. 저리 썩 물러가라!》

형기는 아버지의 어깨에서 슬그머니 손을 떼면서 고개를 떨구었다. 두명의 사병도, 근배도 엉금엉금 기다싶이 도망을 쳤다. 풀밭에서는 또다시 풀벌레소리가 구슬프게 들려왔다.

형기는 슬그머니 무릎을 펴고 일어나더니 말했다.

《아버지, 나도 생각이 있수다. 내 걱정은 마십시오.》

그리고 오돌오돌 떨고있는 어머니손에 무엇인가 쥐여주었다. 그것은 열흘전에 탄 로임과 항해수당이였다.

《어머니, 아버지를 잘 돌봐주시우, 명기는 안나왔지요?》

《아이구 얘야, 명기가 어제밤에 나왔다가 초저녁에 제 동무하고 어디로 몸을 피했다. 그런데 넌 어데로 가니? 이판에 어데로 가자고 이러느냐?》

《념려말아요. 처가에 가 보구…그러군 모르겠수다…》

형기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마치 술취한 사람처럼 비칠거리며 넓은 공장구내를 가로질러갔다.

12

6월 28일 이래 서울의 면모는 놀라운 속도로 변해갔다.

명동과 진고개의 청등, 홍등이 삽시에 자취를 감춘 반면에 새로운

불길—혁명의 불길이 타올랐다. 인민군입성에 뒤따라 당,정권기관, 사회단체들이 복구되여 해방된 거리거리에는 기발과 프랑카드와 꽃전차가 물결쳐 흘렀다. 어디가나 노래소리,만세소리로 귀가 멍멍할 지경이였고 벌써 학생들이 의용군에 탄원하여 학교운동장들에서는 날마다 의용군환송집회가 열리군하였다. 확성기를 단 선전차가 전과를 보도하는가 하면 서울해방에 즈음하여 전국 동포들과 인민군대와 서울시민들에게 보내는 **김일성**장군님의 축하연설을 전하기도 하였다.

환규는 전쟁이 일어나던 그날로 서울에 돌아왔다. 첫날은 온 집안이 흥분하여 각방에 라지오가 있는데도 유독 양옥 2층으로 모여들어 환규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다. 그러나 이튿날부터 정세가 시원치 않음을 깨닫자 우선 아버지가 은행으로 달려갔다. 은행문앞에는 예금을 찾겠다고 달려온 금리생활자들과 고리대금업자들,뚱뚱보과부들,브로카들, 기업주들로 사람사태가 났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대통령의 특별지시라고 하면서 매예금자마다 3만원씩밖에 출금을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모주먹은 돼지처럼 두덜거리며 들어오더니 다시 채권을 정리해야겠다고 똑같은 목적으로 그를 찾아온 10여명의 채권자들을 달고 자기의 채무자들을 찾아다니다가 이틀이나 다리품만 팔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환규는 그런 아버지가 가소롭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였다. 그는 황보종을 통해 서울근교에서 전투가 진행되고있다는 소식을 듣자 안사랑으로 조용히 아버지를 찾아가서 형세가 시원치 않으니 피하는게 좋겠다고 귀뜸을 해주었다. 그러나 성직은 눈을 딱 부릅뜨고 쏘아볼뿐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네 생각에는 우리가 진단말이지? 흥,어림도 없는 소리. 미국이 가만 있을상싶으냐?》

《아버지,물론 미국이 가만있지야 않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당장은 서울이 위태롭습니다. 신문사의 친구한테서 들었는데 벌써 고려대학근방에서 전투가 붙었다는군요.》

그것이 27일 밤의 일이였다. 성직은 실은 아들의 말이 못미더워서가 아니라 서울에 벌려놓은 막대한 재부를 버리고 갈수가 없어 그런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한데 불과하였다.

밤 12시에 들려온 한강철교와 인도교를 폭파하는 굉음은 성직의 머리에 검질기게 갈마들던 물욕을 깡그리 흩날려버렸다. 그는 다리가 끊어졌다는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자동차에 짐들을 잔뜩 처싣고 젊은 첩과 함께 달아나면서 말하였다.

《애, 넌 공산주의자니까 물론 남아있겠지? 난 옥규란년이 근심스럽다. 그년이 이게 어느때라고 산놀이를 간단말이냐. 걔가 오거든 좀 돌봐다구.》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나도 모르겠다. 정감록에는 3산이 피난처라고 했다는데 그게 부산이란 말도 있고 마산이란 말도 있으니… 하여간 그리로 가보겠다. 한양백리절에 무인연이라 했다는구나.》

환규는 쓰겁게 미소를 지으며 쌀쌀하게 물었다.

《형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인규말이지? 모르겠다. 보다싶이 어디 자리가 있니!》

《자리는 아버지 탈 자리도 없을것입니다. 데리고 가십시오. 자동차로는 못갑니다.》

《글쎄 그걸 이판에 어디로 끌고 다니겠니. 차라리 여기다 남겨두자꾸나. 그럼 잘 있거라.》

성직이가 떠나고 얼마가 못되여 찾아보니 형 인규도 집안에 보이지 않았다.

환규는 어쩐지 어깨에 실려있던 모든 귀찮은 짐을 다 벗어던진것처럼 홀가분한 기분으로 텅빈 넓으나 넓은 집안에 혼자 남았다.

그는 한강에서 자동차를 괴뢰군에게 징발당하고 돌아온 운전수로부터 수일간 강우로 물이 불은 한강에서 일어난 참극에 대해 대충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도 자동차를 빼앗겼게망정이지 하마트면 그속으로 덤브링을 할번했지요. 아마 서울시내 자동차의 절반은 기여들어갔을겁니다. 어떤 미국놈 한놈이 쏜살같이 달려오더니 뭉청 끊어져나간 다리를 보고 그만 하품을 합디다. 그자식 기가 막힌 모양이지요. 내리뛰고 올리뛰고 한참 야단을 하더니 포소리가 쾅쾅 하니까 그만 옷을 벗어던지고 첨벙 물속으로 뛰여들더군요. 다리가에 〈잠간 참으라!〉는 표말이 아직 붙어있는데 그자식 기어코 뛰여들더니 가만 보니까 그만 한가운데서 물을 처먹고 떠내려가더군요. 그런데 모두 하는 소리가 리승만이를 잡으면 죽이겠다지요. 다리를 끊었다구말입니다. 나는 국회의원이다, 나는 사장이다, 나는 경감이다 하고 야단법석인데 글쎄 리승만이가 그런 높은 량반들도 몰라보았군요. 하긴 우리 집주인이 용감하긴 합디다. 수원댁 팔을 끌고 마포쪽으로 부리나케 올라갔는데 나중에 들으니 그쪽에 나루배가 있었다는군요. 아마 건너갔을겝니다. 어떤 령감이라구요.

기름가마속에 집어넣어도 살아날겝니다. 념려할것 없어요.》

얼마간 야유적으로 하는 운전수의 말을 통해 단말마에 처한 낡은것의 몸부림을 느끼기도 하였고 자기를 키워낸 보금자리가 모욕당하는것 같은 가슴아픔도 느꼈다.

이튿날 그는 운전수에게서 수기를 하나 얻어들고 거리로 나갔다.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나왔다. 언제 보나 누렇게 떠서 방금 쓰러질것만 같던 그 얼굴들에 갑자기 붉은 혈조가 치밀어 아무리 화려한 간판들과 네온으로 장식해도 생기없이 음침하던 서울거리는 불시에 활기가 넘쳐났다.

《**김일성**장군님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영웅적조선인민군 만세!》

이런 웨침소리가 인민군대의 입성과 함께 활짝 개여오른 서울의 하늘우로 끝없이 울려퍼졌다.

환규는 기계적으로 만세를 부르며 활짝 단 아스팔트길을 행진해가는 전승의 군대를 살펴보았다. 아무런 악의도 선망도 없이 그저 버릇이 돼버린 차거운 눈으로 깐깐히 총이며 구두며 모자며 체격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그는 맑스주의 고전들을 거의 다 읽었으나 거기에는 자기의 군대를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장비한다는 이야기는 없었다. 그의 눈앞에는 수일간의 전투에 함빡 땀이 내밴 모자를 쓰고 보위색 대마직군복을 입은 보통 조선사람들이 걸어가고있었다. 그는 의정부가 떨어지고 뒤미처 인민군대가 서울근교에 육박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최신장비를 갖춘, 사실 미국군대나 다름없는 《국군》을 그처럼 놀라운 속도로 무찔러버린 군대를 다소 환상적으로 생각했었다. 동궁으로 돌격해 들어가는 로씨야의 텁석부리 해병들을 그려보기도 하였고 빠리콤뮨의 로동자들을 그려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번도 흔히 관골이 넙적하게 솟아나고 눈두덩이 두드러진 수수한 조선청년들이 그려지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는 별로 길어보이는 보총과 《따바리총》, 《따바리총》하던 기관단총을 어깨에 걸친 너무나 평범하고 심지어 수염도 안난 애숭이들이 태반인 군대가 걸어가고있었다. 그 씩씩한 걸음걸이, 보무당당한 행진 그리고 지축을 울리는 전차, 하늘로 포신을 뻗친 포들! 만일 그것들을 조종하는 군대가 키가 크고 구레나룻이 시꺼멓고 코가 높은 그런 인

간들이였다면 환규는 아무런 의문도 느끼지 않았을것이다. 그러나 그가 보매 인민군대란 너무나 어렸고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였다.

이튿날 뜻밖에도 옥규가 돌아왔다. 그는 전쟁이 일어나던 전날 동무들과 소요산 구경을 간다고 떠났다는것이 이제사 돌아오는것이였다.

《아이구 텅 비였네. 오빠! 우리 오누이만 이 넓은 집에서 사우? 아이 좋아!》

옥규는 얼굴이 발갛게 상기되여 온 집안을 깡충깡충 뛰여다녔다. 그리더니 테라스에 놓인 등의자에 척 앉아서 환규를 바라보았다.

《오빤 인민군대 봤수?》

《봤다.》

환규는 웬일인지 여적 한번도 자기의 혈육이라고 의식해본적 없는 이 철없는 말괄량이가 갑자기 불쌍하게 생각되였다.

(천치로군. 무엇이 제몸에 닥쳤는지도 모른단말야. 불쌍한것…)

옥규는 환규의 그런 눈치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저 재잘거렸다.

《그래도 나처럼 가까이선 못봤을거야. 난 전쟁하는것도 봤다우. 흥, 작은 오빤 저희들이 제일 세다구 우쭐대더니 아유 그런 멍청이들이 어디 있겠수? 인민군대 땅크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국군〉들이 대포로 꽝 하고 쏘면 말이예요, 한번 흠칠 하고는 그냥 냅다 달려오지 뭐요? 〈국군〉이라는건 한심해요. 땅크가 접어드니까 논으로 산으로 총이고 뭐고 마구 집어던지고 도망치지 않겠수. 그런게 왜 싸움을 걸었을가?》

《그런데 넌 여태껏 어디 있었느냐?》

《어떤 빈집에서 감자 캐먹고 살았다우. 날감자를 캐먹으니까 목이 알싸해요. 오빤 날감자 잡숴봤수?》

《먹어봤다. 그래 그다음엔 어떻게 됐니?》

《그다음은 걸어오는데 다리가 아파서 걸을수가 있어야지요. 그래 길가에서 인민군대를 잡았지요.》

환규는 긴장되여 누이동생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너희가? 똑똑히 말해라. 잡았다니 어떻게 했단말이냐?》

《호호호, 오빠는 인민군대가 얼마나 얌전한지 모르세요? 우리가 척 가서 〈동무들 수고하세요.〉 하니까 새파랗게 젊은 장곤데 그만 얼굴이 빨개지겠지요. 그러면서도 말은 제법 점잖게 하더군요. 〈동무들은 누구요?〉 내가 부르죠아 딸이라면 그 사람들이 행패를 할것 같아서 〈우린 학생이예요. 놀러 갔다가 전쟁을 만났는데 서울까지 좀 태워다 주세요.〉 했더니 증명서를 보자는거지요. 깐깐하게 우리

학생증을 보더니 〈이건 반동분자가 발행한게로군.〉하지 않겠어요. 아이구 참 우스워. 김활란선생이 반동분자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한참 설명을 하니까 그 사람이 그만 웃지를 않겠어요. 그리면서 글쎄 하는 말이 무어라는지 아세요. 〈아가씨들, 우리는 억압받는 근로자들에게서 환영받을줄은 알았지만 김활란선생의 제자들까지 우리를 이렇게 환영해줄줄은 몰랐소.〉 아이 참 기가 막혀.》

기가 막히기는 환규가 더하였다. 어찌면 이 집안에는 이런 백치들만 태여나는지 알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슨 련쇄작용인지 어제밤 한강에서 벌어졌다는 참극이 떠올랐다. 이 무지와 도취와 거만으로 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무덤을 파고있다는 생각이 갈수록 깊어졌다.

《그래 대체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되긴요. 내가 웃고 아양을 떨고 매달려도 막무가내지요. 어찌면 그런 목석들인지 모르겠어요. 〈아가씨, 내가 시간이 있다면 동무들과 담화를 좀…〉 글쎄 담화를 하겠대요. 그렇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냥 두니까 어서 서울로 돌아가라고, 그러면 내가 누군지 김활란선생이 반동분잔지 아닌지 자연 알게 될게라고. 이제 남조선이 다 해방될텐데 당신들이 어디로 가겠느냐고, 이러지 않아요. 오빠, 그런데 김활란선생은 정말 반동분잔가요?》

《흠, 그야 나도 모르지. 그러나 그 사람들이 김활란이를 반동분자라고 한다면 천만번 정당한 일이지.》

《그래요?》

옥규는 눈이 올롱해서 비로소 자기 실책을 깨달은듯 조그만 주먹으로 제 무릎을 철썩 쳤다.

《그까짓 신분증 찢어버릴걸. 그런걸 글쎄 여기까지 걸어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아이참! 난 한잠 자야겠어요.》

옥규는 오뚜기처럼 발딱 일어나더니 층층대를 쿵쿵 울리며 달려내려갔다. 그러다가 불시에 도로 뛰여올라오더니 문틈으로 고개만 들이밀고 해죽거리며 한마디 하였다.

《오빠, 인민군대가 말이예요. 모두 얼마나 깜찍하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게 어떻게 싸움을 할가?》

《뭐? 허허허.》

환규는 어처구니가 없어 웃음을 터뜨렸다. 다시 쿵쿵 하고 계단밟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튿날부터 한강부근에서 맹렬한 포격소리가 들려왔다. 《얍

전하고》 《깜찍한》 인민군대가 얼마나 위력한 군대인가를 보여주려는듯이 그 포소리는 단꺼번에 천지를 집어삼킬것처럼 대지를 흔들어놓았다. 기둥뿌리가 흔들리고 유리창이 드르릉 울렸다. 이미 꽃잎이 진 청자화분이 창가에서 위태롭게 달각거렸다. 포사격은 거의 종일을 끌었다. 한밤중에 뜻밖에 황보종이 찾아왔다.

《민선생, 인민군대가 한강을 건넜소. 남한강계선의 방어선은 사분오렬되고 영등포가 포위되여 〈국군〉은 거의 전멸됐다오.》

숨이 턱에 닿아서 급하게 주어섬기던 황보종은 갑자기 쿨럭쿨럭하고 기침을 터뜨렸다. 얼굴이 새파랗게 되도록 기침을 하다가 가래를 돋구어서 꿀꺽 삼키는 황보종의 수척한 얼굴을 바라보며 환규는 기계적으로 물었다.

《다리를 끊었다는데 어떻게?》

《어떻게가 다 뭡니까?》하고 황보종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조급히 말하였다. 《전고미문의 강력한 군대입니다. 아마 미국의 장담이…참 아십니까? 그저께 맥아더가 저 한강까지 왔다갔습니다. 급해맞았지요. 그리고도 그는 〈네바 마인!(념려없다!)〉하고 언명했다는군요. 맥아더가 코가 납작하게 됐지요.》

환규는 인민군대가 어떻게 강을 건넜는지 거듭 질문을 하려다가 맥아더말이 나오자 새로운 의문이 생겨서 그쪽으로 흥미가 쏠리고말았다.

《아니 그가 무슨 목적으로 나타났단말이요? 그래 오늘 영등포를 내주기 위해 나타났단말이요?》

《참, 민선생은 깜깜이군요. 어제 미륙군에 출동명령이 내렸습니다. 내주는게 다 뭡니까? 필사적인 저항을 했지요. 한강을 넘겨놓으면 그 다음은 어디서 배겨내겠습니까? 지금 서방통신들에는 〈던켈크〉란말이 류행어처럼 범람하고있습니다.》

《그럼 그자가 〈네바 마인〉했다는건 무슨 뜻이요? 빌어먹을것들, 그렇게 큰소리를 치더니 애숭이군대한테 그렇게 참패를 당한단말이요?》

환규는 무엇때문인지 흥분하여 불쾌하게 소리쳤다. 황보종은 환규의 그런 역정이 당연하다는듯이 고개를 끄떡거리며 책상우에서 식어빠진 차를 따라가지고 랭수라도 들이키듯 꿀꺽꿀꺽 마시더니 다시 말을 늘어놓았다.

《그러게 어떤 일본기자는 한강남안에서의 맥아더의 호언장담을 〈화용도의 조조〉라고 야유했더군요. 그런데 우린 현대전에서 기계기술의 위력에 대한 맹신적인 견해를 재검토해봐야 할것입니다. 인민군

대는 적어도 가장 곤난한 조건하에서 가장 짧은 시간내에 가장 효과적으로 한강의 하수장애를 극복했지요. 땅크까지 다 건네놓았습니다. 들으니 서울 철도로동자들이 철교를 복구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군요. 그리고 그들의 장령이 직접 진두에서 이 작전을 지휘했답니다.》

《흠— 그런데 미륙군은 언제쯤 전선에 도착할 예정인가요？》

《오늘쯤 아마 부산에 상륙할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평택으로 공중수송되였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상보는 아직 모르겠군요. 참, 기가 막힙니다. 여보시오 민선생, 그러니 이게 뭡니까？ 이를테면 이건 우리가 이긴것이지요？ 우리 조선사람이 말입니다.》

황보종은 갑자기 어조를 낮추어 속삭이듯 말하였다. 그럼으로써 그는 자기가 그렇게도 흥분한 까닭도 그리고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온 까닭도 바로 거기에 있다는것을 은근히 암시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확신이 아니였고 어딘가 소심성이 섞여있다는것이 력력히 드러났다.

《그렇지요. 우리의 승리지요.》하고 환규는 왜 그런지 얼굴이 뜨끈뜨끈해지는것을 느끼며 자신없이 수긍하였다. —《〈국군〉이라는게 단 한번도 조선사람의 군대노릇을 해본적이 없으니 그야 명백히 우리의 승리지요. 허나 역시 미군과의 전투는 앞으로 전개되지 않겠습니까?》

황보종은 의심쩍은 눈매로 이윽히 환규를 바라보더니 다시 기침을 깇기 시작하였다.

총소리는 어느덧 잠잠해지고 드르릉 드르릉 울리던 유리창도 기둥도 어느새 진정되여있었다. 거리쪽에서는 밤이 깊었는데도 노래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다시 차를 한잔 마시고난 황보종은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더니 중얼거렸다.

《참 해방이란 이렇군요. 한쪽에서는 아직도 포소리가 울리는데 한쪽에서는 춤과 노래가 그치지 않습니다. 서울이 생긴이래 이런 장엄한 생활력을 보여준 일은 일찌기 없었지요. 민선생, 서울시민들의 얼굴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참으로 밝고 명랑합니다. 그리고 신념에 차있지요. 그러고보면 인민군대가 가지고 온것은 단순히 군사적승리만이 아니라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자체라는것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미스터 황보종, 당신은 꽤 흥분한 모양이군. 미사려구가 그칠새없이 쏟아져나오는걸 보니…》

《내가요？》하고 황보종은 갑자기 얼떨떨해져서 환규를 마주 바라보더니 새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흥분한것은 움직일수 없

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민선생, 나는 반문하고싶습니다. 내가 어째서 흥분하지 않겠습니까? 민선생은 미사려구라고 하지만 굳이 말하면 그 훌륭한 말들이 오늘에 와서야 비로소 적절한 표현대상을 만났다는데 불과한것이지요. 그러나 민선생,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나의 흥분은 단순히 해방된 인민으로서의 기쁨때문만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도 갈망하던 위대한 변혁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쓸수 있는 소재가 눈앞에서 전개되고있기때문이지요. 예, 알겠습니까? 나는 이 전쟁을 두고 큼직한 책을 하나 써볼가 합니다.》

환규는 기침을 쿨럭쿨럭 깇으면서 그리고 가렬한 포화속에 휩싸인 조국을 두고서도 무엇인가 자기의 야심을 만족시키려드는 무서운 리기심을 보는듯하였다. 그는 말하였다.

《그래 당신은 어떻게 처신할 모양이요? 서울에 배겨앉았겠소?》

《천만에요. 아마 인민군대는 파죽지세로 남하할것입니다. 수원계선에서 일대회전이 예견되는데 이번에는 미군이 직접 인민군대의 그 무적의 힘을 시험하는 대상으로 될것입니다. 나에게 기자의 량심이 있는 이상 응당 그 회전의 목격자로 돼야지요.》

《흥.》

환규는 저도모르게 코웃음을 쳤다. 실례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뒤늦게나마 들었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다.

(또 미친 사람들이 늘어가는군.)

이렇게 생각이 들자 더는 응수하고싶은 생각이 없었다. 미국이 단순히 인민군대의 강력한 힘을 시험하는 어떤 모르모트같은것이라면 과연 오늘의 지구가 이렇게 몸부림치며 앓을 필요가 어디 있단말인가? 그의 견해에 의하면 현재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우려할만한것은 미국이 그렇게도 참담하고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였다는것 그리고 미국을 그런 참담한 꼴로 만들어놓은것이 바로 조선인민이라는데 있었다. 승리를 기뻐할 대신에 오히려 걱정해야 되는 여기에 인류력사가 시작된이래 수없이 반복되여온 약한자의 숙명이 있다고 환규는 생각하였다. 이제 보복이 올것이다. 무서운 보복이 서울한복판에 가해질것이다. 첫째로는 대대적인 공습과 함포 사격과 대구경포에 강력한 기계화보병이 쓸어올것이고 그래도 응당한 징계를 느끼지 않는다면 원자탄이 날아들것이다. 그런데 책을 쓰겠다고… 무덤속에 들어가서 책을 쓸테냐?

황보종은 환규의 랭소를 느끼자 기분이 나빠졌는지 잠시 입을 다물고 방안을 거닐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몸을 돌리더니

어딘가 비꼬는듯한 어조로 물었다.

《그래, 민선생은 어떻게 하실 작정인가요? 이 부르죠아저택에, 국회의원 민성직씨의 저택에 남아있을 작정인가요?》

환규는 얼굴을 번쩍들었다. 그것은 그의 급소를 찌른 말이였다. 이 며칠동안 그는 계속 포소리와 만세소리와 노래소리를 들으며 줄곧 생각하였다. 무엇을 두고 생각하는지 의식하지 못하면서도 쏘파에 드러누워서 혹은 테라스에 나가앉아서 혹은 조그마한 공화국기발을 들고 거리에 나서서 혹은 이미 꽃이 시들어진 언젠가 설란이가 매만지던 아마릴리스의 청자화분가에서… 그는 줄곧 생각하였다. 그러나 포소리에 대해서도, 노래소리에 대해서도, 또는 그가 들고있는 수기에 대해서도 별로 깊은 사색을 해본것은 아니였다. 아마릴리스의 화분도 이제는 꽃이 시들어진이상 온실로 내려가야겠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어쩐지 설란이의 숨결이 배여있는것만 같아 며칠 더 두고보자는 정도였지 별로 깊은 생각을 따로 한것은 없었다. 그런데 이제 황보종이 우습게 내던진 한마디 질문에 의해 모든것이 해명되였다. 《어떻게 할 작정인가?》 모든것은 이 한마디 말에 귀착되였다. 황보종의 말과 같이 그는 자신이 단 한번도 그것을 시인한적 없는 부르죠아의 자식이며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는 아버지와는 독립된 하나의 떳떳한 사회인이며 그 누구보다도 지어 총을 들고 그것의 소멸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더 부르죠아에 대해 환멸과 증오를 느끼며 그 죄악과 추악상을 알고있는 사람이다. 이점에 있어서 환규는 자기가 전혀 방황하지 않으며 지어 떳떳하다는 자부심까지 있었다. 혹은 자기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는 어떤 혈통관계로 해서—실상 그가 민성직의 아들로 태여났다는것은 그 자신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것이였다. —어느 정도의 오해와 고통을 받을수도 있다는것까지 예견하였지만 그것때문에 조금도 근심되지는 않았다. 어쨌든 그는 장차 수립될 사회주의제도라는것을 우둔하고, 미련하고, 추악한 자기 가족들에 대한 멸시와 증오의 감정만으로도 흔연히 접수할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니 문제는 전혀 딴데 있었다. 그가 보건대 이 시대는 수천년래 공인되여온 진리며, 정의며 하는 개념이 어떤 객관적진실에 근거해서 규정되는것이 아니라 전혀 힘에 의해서, 어떤 강력한자의 입으로 선포되고 그대로 시행되는 착종된 시대였다. 그가 또는 지구

우의 대부분사람들이 리승만이는 미치광이라고 인정하고 그것이 움직일수 없는 사실이라 해도 어떤 강력한 소수가 가령 원자탄을 가진 미국과 같은 나라가 리승만이는 미치광이가 아니라 오히려 희세의 애국자이며 선량한 인도주의자이며 평화투사라고 선포하면 그만이였다. 이리하여 서울이 해방되고 남조선전역이 해방되는것이 조선인민자신에게는 말할것도 없고 세계평화를 위해 큰 공헌을 한것으로 되며 세계 수십억 인민들의 행복에 크낙한 기여를 했다고 전세계가 간주한다 해도 미국이 《노—》하고 고개를 가로흔들기만 하면 그 모든 사람의 의사는 아무런 의의도 없어지고 마는것이였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고개를 가로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입에 게거품을 물고 살기등등해서 자기의 전체 무장력과 경제력에 동원령을 내린것이다. 죽음이 목전에 림박하였다. 서울에서 만세를 부르고 앉았다는것은 소박한 사람들과 함께 책장에서 얻어낸 미사려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제물로 바친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니 과연 정의란, 진리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놓고라도 기어코 고집할만한 가치가 있는것인가? 그리스도교도는 그런데 써먹기 위해 《래세에서의 천당》이라는것을 만들어놓았지만 유감스럽게도 환규에게는 죽어서 문을 두들기고 들어갈 천당도 지옥도 없었다.

그는 야유적으로 바라보는 황보종의 시선을 눈이 부신듯 찌프리고 바라보며 게면쩍게 웃었다.

《글쎄 나도 막연하군요. 당신이 나를 그 방대한 저작의 공동필자로 삼아주지는 않겠는지. 이것은 물론 이 자리에서 떠오른 생각이오만 사실 나라고 서울바닥에 남아있을 재미야 어디 있소?》

《민선생이?》 황보종은 펄쩍 뛸만큼 기뻐하였다. 《이건 참 놀랍군요. 사실 나는 이런 요행이 생길줄은 몰랐습니다. 민선생과 같은분이 이 책에 필자로 등장해준다면 성공은 떼논당상이지요. 아니 그런데 그게 진정으로 하는 말씀인가요? 직접 전선쪽으로 가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아마 그쪽은 위험할것이고 또 우리야 제삼자니까 어느 측의 방조도 받지 못할것입니다. 고생이 막심할텐데요.》

《결핵환자인 당신이 가는데 내가 못가겠소? 아마 가장 위험한곳은 전선이 아니고 인민군대에 의해 이미 해방된 지역일것입니다.》

《그래요?》

황보는 그 말뜻을 똑똑히 알수 없었다기보다 환규의 속심을 믿을수가 없어서 의아쩍은 눈매를 한동안 뗼줄 몰랐다.

13

이튿날 환규는 등산모에 등산배낭을 둘러멘 황보종을 따라 길을 떠났다. 황보는 신문사에서 소형트렌지스터 한대를 훔쳐내여 장한듯이 환규에게 보였으나 환규자신은 아무런 행장도 준비하지 않고 소풍이나 나가는것처럼 입은대로 낀대로 길을 떠났다. 넓은 집과 가구들을 버리고가는것은 전혀 아깝지가 않았지만 그저 만여권 장서를 불살라 버릴가봐 운전수에게 그 책만은 좀 돌봐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옥규는 식전새벽에 집을 나가더니 그가 떠난 초저녁이 되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금방 격렬한 도하작전이 진행되였고 지금도 밤을 타서 인민군대가 끊임없이 흘러가는 한강다리를 (인도교는 초입의 교각 두개사이가 뭉청 내려앉았는데 땅바닥에 거의 닿을락말락하게 림시목교를 가설해놓았다.) 건너서자 황보종이 뜻밖에도 옥규의 소식을 전해주었다.

《참, 내 오다가 옥규씨를 만났습니다.》

《아니 어디서 만났단말이요? 그게 아직 살아있기나 합디까?》

환규는 로량진 네거리의 울퉁불퉁한 포탄자욱에 자꾸 걸채이면서도 놀라서 돌아보았다.

황보종은 쿨럭쿨럭 기침을 깇던 때와는 달리 어둠속에 험한 길을 걷는데도 딴사람처럼 힘이 왕성하였다.

《살아있다뿐입니까. 그 송 뭐라고 하는지 그 〈씨. 아이. 씨〉 다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 보기엔 8부라고 생각되는데. 그런게 어떻게 스파이노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자하고 같이 가더군요. 아주 변장을 그럴듯하게들 했습디다. 송은 학생복에 완장을 둘렀는데 뭐라고 썼는지는 못봤습니다만, …그리고 옥규씨도 뭐 영낙없는 소시민가정의 학생이더군요.》

환규는 잠시 말이 없다가 신음하듯 중얼거렸다.

《송치호가 여기 남았다… 그러니 그년이 간첩이 된것이로군, 에잇!》

파멸의 밑창은 끝없이 깊었다. 환규는 무지가 빚어내는 무서운 결과에 소름이 끼쳤다. 옥규는 그 주제에 대예술가가 된다고 입버릇처럼 떠벌이던것이 제가 얼마나 추잡한 인간으로 전락되였는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있을것이다. 반편처럼 그저 지금도 해해거리고있을테지. 하긴… 환규는 문득 가슴이 떠끔하였다. 하긴 옥규가 더 현명한것이 아닌가! 황보는 싸움을 구경하러 간다고 한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하여 굉장한 책을 쓰겠다고 벌써부터 흥분되여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하러 가는가? 나는 그저 제편도 원쑤도 아닌 사람들로부터 살해당하지 않기 위해 위험구역을 도피해가는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 아무와도 동맹을 맺지 않은 외로운 인간이지…

삼남에로 뻗은 길은 넓었다. 낮에는 미국비행기의 공습이 심해서 그런지 인민군대는 밤중에 행군하였다. 나무가지들로 위장한 보병대렬이 길량쪽에 늘어서서 흘러가는데 그사이로 자동차들과 포들이 길이 메게 잇달렸다. 가끔 가다 조절근무병이 날카롭게 호각을 불며 혼란을 수습하고있었다. 큰길에서 떨어져서 논두렁이나 밭두렁길로는 피난민들이 걸어간다.

《에구 많이도 가네. 저걸 어찌다우?》

《시—듣갔소, 쓸데없는 소리 말라는데…》

분명 악의가 느껴지는 이런 말이 들려온다. 누구에게나 목적은 뚜렷하였다. 낮에 봤을 때보다 밤에 더욱 그 위용이 느껴지는 저 인민군대들은 원쑤를 치러 지금은 아득히 남쪽에서 들려오는 포소리를 한시바삐 따라잡으려고 서둘고있다. 그 말투로 보아 대부분 월남자들인 피난민들은 저들의 원쑤인 인민군대의 보호를 받으며 저렇게 걸어서 전선너머에 있는 자기편에게로 가닿자는것이다. 그리고 황보종은 결핵균이 요동을 치는 가슴을 부여안고 싸움터를 보려고 허위단심 걸음을 다우치고있다. 오직 흐리멍텅한것은 환규자신의 립장이요, 목적이였다.

무엇때문인지 별로 상하지도 않은 찌프가 논머리에 처박혀있기도 하고 길다란 105미리포신이 길옆에 가로누워있기도 하였다. 그때마다 환규는 빠짐없이 논두렁이고 길바닥이고 가리지 않고 나가넘어졌다. 한번은 뭉클하는것에 발을 걸채여 코를 박았는데 참을수 없이 역한 시취가 풍겨왔다. 찬찬히 보니 네다리를 하늘로 쳐든 말이였다. 어디를 짚었는지 손바닥에는 근질근질하고 구데기가 묻어났다. 환규는 끔찍해서 손을 털며 펄펄 뛰였다. 그 시취는 밤새도록 따라왔다. 그렇게 나딩굴어있는것은 말뿐이 아니였다. 앞으로 더 나가니 버리고 달아난 《국군》의 시체도 여기저기 널려있었다. 하늘에는 별이 반짝거렸다. 밤이 깊어감에 따라 서늘한 바람도 불어왔다. 그러나 그 바람은 금시 싸움이 지나간 저 남쪽 전장에서 매캐

한 초연과 무엇인지 썩는 냄새를 날라다주었을뿐이였다.

황보종은 환규의 생각같은것은 아랑곳없이 줄곧 무엇인가 떠벌였다. 그는 지나가는 윌리스를 두고, 쏜살같이 달리는 모터찌클을 두고 그리고 씩씩한 인민군대의 군가를 두고 끝없는 경탄을 표시했으며 중학시절에 한 무전려행의 경험을 피력했고 언덕아래서 풍겨오는 역한 시취를 말자 향내로부터 곰팡내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냄새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상공을 지나가는 경폭격기의 폭음을 듣고서는 현대 미국장군들과 군사평론가들의 공군에 대한 견해를 비판적으로 렬거하였다. 밤이 깊어가자 그의 이야기는 결국 이번 려행의 목적으로 된 수원부근에서의 대회전에 대해 쏠렸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7월 10일경에 수원평야에서 이미 부산에 상륙한 미군과 인민군과의 사이에 일대격전이 있을것인데 이것은 이번 전쟁의 운명을 결정하는 대회전으로 될것이라고 하였다.

《내 보건대는 미군측에 승산은 매우 희박한듯하단말입니다. 보십시오. 저 군대들의 보폭을 그리고 저 노래소리를, 나는 똑똑히 보았습니다만 저들은 겨우 20전후의 청년들이란말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씩씩하게 노래를 부르며 저렇게도 힘차게 걷는 군대를 당해낼수 있나요. 저 사람들은 자기들의 전쟁이 정의의 목적을 추구하고있다는 확신을 가지고있거던요. 이것은 사실이니까요.》

《그게 사실이라는것이 무엇으로 증명된단말이요?》

환규는 벌써부터 발바닥이 부르터오는것을 느끼며 내키지 않는 어조로 물었다.

《무엇으로라니요? 설마 민선생께서 그걸 모르신단말입니까? 전쟁이야 미국이 걸었지요. 미국인들은 지금 인민군대가 행진하고있는것처럼 저희들이 북조선땅을 행진할 생각이였지요. 그러니 저 사람들이 들고일어난것 아닙니까? 사실이야 뻔하지요.》

황보종은 뜻밖이라는듯이 힘겹게 따라오는 환규를 뒤돌아보았다.

《내가 말하는건 그런게 아니지요. 항상 정의를 규정하는데 사실여부가 문제로 되지 않는것이 현대의 상식이니까요. 당신은 27일 안보결정을 읽었습니까? 거기엔 북조선이 〈침략자〉로 규정되여 있지요.》

《그게야 비법이라는게 누구에게나 명백한것 아닙니까? 예, 민선생, 선생은 그 결정을 믿는가요?》

《나야 믿지 않지요. 허지만 미국이 이기고보면 그게 그대로 통용될거란말이지요. 그러니 정읜가 부정읜가의 판가리는 당신의 예언이 적중하다면 아마 수원평야에서 결정되겠지요.》

《유감스럽군요.》 황보종은 너무나 유감스러워 걸음도 걸리지 않는다는듯이 우뚝 멈추어서면서 말하였다. 《선생의 말에서는 어쩐지 니체의 입김이 풍깁니다. 나는 선생 말씀에 조급히 그 어떤 나치즘의 딱지를 붙이려는것도 아니고 또는 인간의 오성과 인식능력을 무시하는 말로도 치부하지 않으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보다 기자인 나에게 한말인이상 져너리즘에 대한 모독으로 인정하렵니다. 1933년 5월 군축회의의 안정보장문제위원회에서 17개국이 채택한 〈침략〉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 17개국가운데는 27일 결정을 채택한 안보리사회의 리사국들인 미, 영, 프, 쏘, 노르웨이 등도 포함되여있지요. 그 정의에 의하면 어떤 나라가 먼저 다른 나라에 전쟁을 선포했을 때,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나라의 군대가 다른 나라 령토에 침입했을 때, 어떤 나라의 륙해공군이 타국령토, 함선, 항공기를 공격했을 때 및 타국 해상의 봉쇄를 하였을 때, 그 어떤 나라는 침략국으로 된다—이렇게 되여있지요. 이것은 그 첫머리에 박혀있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같은 나라에서 계급이나 당파, 혹은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남북의 지방이 대항하여 내란이 일어났을 때는 전혀 얼토당토 않는 개념이지요. 그래 미국인들은 저들의 남북전쟁을 남부에 대한 북부의 혹은 북부에 대한 남부의 침략전쟁이라고 하는가요?》

《여보시오, 황보선생.》하고 환규는 역정이 나서 전례없이 상대를 공대해 부르며 말했다. 《오늘의 사실은 내란이 아니라 조선에 대한 미국의 침략이지요. 허지만 어쨌든 안보리사회는 북조선을 〈침략자〉로 규정했고 미국이나 그 추종자들이 있는데서는 이 결정이 정당한것으로 등용되고있단말입니다. 그러니 나는 거듭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쪽이 정의인가? 그것은 이기는쪽이라구요. 속담에 이기면 충신이요 지면 역적이라 했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그런…》

황보종은 무엇인가 반박하려 하였으나 미국전차가 떠받아서 그 무한궤도와 함께 쓰러져누운 가로수에 걸채여 손을 허공에 내저으며 허우적거리는바람에 말을 삼키고말았다. 이때부터 황보종은 입을 다물고 걸었다. 그는 안해보던 도보행군에 지쳤는지 자주 기침을 깇기 시작하더니 종내는 골덴지 잠바깃을 일으켜세워 목을 옹송그리고 걸었다.

환규도 지쳐서 더 말할 기력이 없었다. 그들은 자정이 가까와지자 길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농가에 들어갔다. 주인은 어데로 갔는지 추녀아래로부터 부엌바닥에 이르기까지 피난민들이 쓰

러져 자고있었다. 이 집 주인은 혹 다른 어떤곳에서 이처럼 남의집 추녀끝에서 옹송그리고 새우잠을 자는지 알수 없는 일이다. 방안을 차지할 생각은 처음부터 엄두도 내지 않았지만 어쨌든 밤이슬을 가려줄곳이라도 찾아야겠다고 재우리옆에 서있는 헛간 비슷한데로 찾아들었다. 바닥에 두툼하게 짚단이 깔렸는데 그것이 꽁꽁 다져진것으로 보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고나간 자리가 분명하였다.

환규는 속으로 한시름 놓인듯한 생각이 들어 막 자리를 보고 앉으려는데 황보종이 흠칠하며 소리쳤다.

《이크 이게 뭐야!》

환규는 덩달아서 라이타를 켜댔다. 그러자 환한 불빛 아래 짚북데기를 뒤집어쓰고 누운 두사람의 남녀를 보았다. 도척의 발 같은 크고 시커먼 사내의 맨발과 한쪽 굽이 떨어져나간 녀자의 자그마한 가죽구두가 서로 뒤엉킨것을 보고 얼른 라이타를 죽여버렸다.

《시체?》 무엇때문인지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어둠속을 찾아드느라고 어지간히 소란을 피웠는데 코고는 소리 하나 없었던때문인지 모르지만 이 생각은 황보종에게도 떠올랐던모양으로 환규를 뒤따라 튀여나온 그는 속삭이듯 말하였다.

《죽은 사람 아닙니까?》

《글쎄올시다…》

그들은 하는수없이 허물어진 담장밑에 나란히 웅크리고 앉았다. 신을 벗고 홧홧 달아오른 발을 돌멩이우에 올려놓으니 그만해도 살것같았다.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깨여보니 짧은 여름밤이 어느새 지새고있었다. 비몽사몽간에 밤새도록 들려오던 큰길의 소란은 씻은듯이 그치고 적적할만큼 고요해진 탄탄대로가 누워있었다.

환규는 참을수없이 목이 말랐다. 돌아보니 황보종은 담밑에 쓰러져서 정말 죽은 사람처럼 기신없이 잠이 들었는데 이따금 목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그릉그릉하였다. 환규는 불그레하게 물드는 동쪽하늘을 잠시 서글프게 바라보다가 간밤에 벗어던졌던 뿌옇게 먼지오른 백구두를 끌고 우물을 찾아떠났다.

집을 한바퀴 다 돌아도 우물은 보이지 않았다. 여기저기서 피난민들이 부수수 털고일어나 남비며 깡통등속을 들고 헤매고있었다. 저만치 떨어진곳에 농가 한채가 보였다. 환규는 그리로 찾아갔다. 들길 량옆은 감자밭인데 이미 도륙을 당할대로 당한 우에 마구 짓밟히기까지 한 그 감자밭에 넥타이를 매고 안경을 낀 피둥피둥한 중년사나이와 양장을

한 젊은 녀편네가 나무꼬챙이로 새알만한 감자를 우벼내고있었다.
환규는 문득 옥규가 하던 말이 떠올랐다. 옥규도 저런 몰골로 남의 감자밭을 파먹었을것이다. 저역시 앞으로 저렇게 되리라는 것을 생각할 때 눈앞이 캄캄해졌다.
농가들옆에 뽀뿌라나무들이 둘러싸인 우물이 있었다. 들여다보니 몇길 잘되게 깊어서 맨손으로는 어쩔수 없었다. 사위를 두리번거리다가 가까운 농가로 갔다. 울바자너머로 바라보니 아이를 둘러업은 한 아낙네가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 부엌문밖에 드레박이 걸려있었다. 잠시 기다리니 얼굴이 까맣게 탄 40가까이 났을 그 아낙네가 다시 마당으로 나왔는데 그는 울바자밖에 엉거주춤 서있는 환규는 본체도 않고 나무단을 안고 도로 들어갔다. 어쩐지 찬바람을 풍기는것 같은 그 거동에 위압이 되여 얼른 말을 붙이지 못한 환규는 또 한참 하회를 기다리다가 사립을 밀쳐보았다. 안으로 고리를 채우고 라선형으로 감긴 철사로 빗장을 질러놓았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불러봐야 대답이 없다.
《아주머니, 그 드레박 좀 빌립시다.》
그러자 부엌에서 총알같은 소리가 날아왔다.
《없어요!》
처음 한동안은 어안이 벙벙하여 말이 나가지 않았다. 그러나 잠시 지나자 이번에는 참을수 없이 분노가 치받쳤다. 그는 자기의 모든 고생이 그 녀자의 탓이기나 한것처럼 증오에 불타서 소리쳤다.
《여보, 드레박 좀 빌리자는데 뭘 그리 사납게 구는가말요. 드레박 좀 못빌리겠소!》
부엌문이 쾅 하고 열렸다. 한손에 부지깽이를 든 아낙네가 눈에 살기가 돋아서 마당으로 달려나왔다.
《아니 왜 이리 큰소리요! 없다면 그만이지 무엇때문에 큰소린가말요? 당신이 우리 집에 드레박을 사다주기를 했소, 어쨌소? 나 참 별꼴 다 보겠네.》
《아니, 아니 뭐요? 허 이런…》 환규는 너무나 기가 막혀 뻔히 그 녀자의 독스런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런 인심이 어디 있소 글쎄.》
《인심이 어쨌다는거요? 그래 남의 논발 다 짓밟아놓고 새알같은 감자알 다 캐먹고 짚단에 이불까지 벗겨가지고 달아났으면 무던하지 인심이 뭐 말라비틀어진게 인심이요. 당신들에게 여태 갖다

바친것만 해도 분한데 뭘 또 바치라는거요!》
환규는 그 녀자가 그처럼 사납게 대하는 까닭을 비로소 짐작하였다. 그것을 안 이상 괜히 무식한 촌아낙네와 말다툼을 끌것이 아니라 우선 목을 추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억지로 입가에 웃음을 띠우며 부드럽게 말하였다.
《아주머니, 그건 오해입니다. 보다싶이 나는 간밤에 서울을 떠나온 사람입니다. 전쟁이니까 군대들이 지나면서 좀 거칠게 굴수도 있지요. 더구나 싸움에 이긴 군대란 아무도 걷잡을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야 같은 백성인데 서로 도와줘야지요. 난 목이 말라죽겠는데. …》
《어서 딴 집에나 가봐요. 우리 집에는 당신네 같은 사람들 빌려줄 드레박은 없어요. 흥, 군대라고? 여보시오, 인민군대들은 도리여 우리가 비워둔 집에 와서 뜨락까지 쓸어놓고 갔습디다. 저게 인민군대요?》
아낙네는 속시원히 분풀이라도 하고싶었던지 아직도 감자밭에 웅크리고있는 두 남녀와 또 까맣게 모여드는 피난민들을 가리켰다.
《우린 아예 저 감자밭을 나리님들과 부자량반들을 위해서 내놓았다오. 그러니 그댁도 가서 감자나 뚜져자시구려.》
환규는 더는 할말이 없었다. 그렇다고 바직바직 타오르는 목을 그냥 침으로만 추길수도 없었다.
다시 주위를 두리번거려보았다. 감자밭에는 메뚜기떼처럼 사람들이 달라붙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해골을 그린 철갑모며 깡통, 남비 등속에 감자를 담아들고 우물로 모여들고있었다. 그리로 가면 혹 변통수가 있을가 해서 다시 우물쪽으로 걸어갔다.
이상하게 크고 흐리멍텅해진것 같은 태양이 동쪽 산줄기에 솟아올랐다. 포연이 서리여서 그런지 해빛은 거무스레하게 끄슬려 보였다. 갑자기 엄청나게 큰 까마귀같은 시꺼먼 그림자들이 그 태양 뒤쪽에서 불쑥 튀여나오더니 삽시에 머리우까지 날아왔다. 함석장 두드리는것 같은 소리에 이어 쇠톱갈리는듯한 쨍 하는 소리가 났다.
《비행기다!》
《비행기다! 미국비행기다!》
이런 소리가 났다. 그들은 다급히 대도로와 주위를 살폈다. 폭격당할만한 군사적목표가 없을가 해서였다. 그러나 대도로는 이미 아무 음향도 운동도 모르는 망각의 세계에 누운듯 쓸쓸할만큼 조용하였고 들판이며 농가주위에도 피난민이 웅성거릴뿐 군대는 커녕 보위색 옷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아까 인심사납게 굴던 아

낙네의 악다구니와 마찬가지로 《부자량반》이며 《나리님》들인 그들 피난민으로 말하면 바로 그 비행기를 찾아가는 사람들이였다.

에프80형추격기 조종사들은 비상한 비행술을 발휘하여 피난민들이 담아들고가는 깡통속과 인심 사나운 농촌아낙네가 겁에 질려 얼굴을 쓸어박은 부엌안의 나무단속을 들여다보듯 땅을 스쳐지나가더니 까만 덩어리 몇개를 선물처럼 떨어뜨렸다. 쾅! 쾅! 짜르릉! 불길이 치솟았다. 피난민들이 아직도 우글거리는 길가의 초가집이 허물어지자 사람들은 와— 하고 논으로 밭으로 천방지축 내리뛰였다.

환규는 무슨 예비지식이 있었다기보다 그만 다리에 맥이 풀려 풀썩 길바닥에 주저앉고말았다. 다섯대의 추격기는 번갈아 급강하를 하더니 나중에는 도망치는 사람들을 쥐잡이를 하듯 하나하나 따라다니며 기총소사를 퍼부었다. 아비규환의 생지옥이란 이런것이구나 하고 환규는 마치 요지경속을 들여다보듯 생각하였다. 바로 등뒤에서 아까 환규가 드레박 빌리러 들어갔던 농가며 그 이웃집들 모두가 깡그리 불타고있었다. 불길은 우지끈 쉬— 하고 바람부는 소리를 지르며 무섭게 타번졌다. 몹시도 뜨거웠다. 그러다가 문득 환규는 큰길가 초가집에서 뛰여나오는 두 남녀를 바라보고 입을 딱 벌렸다. 그것은 시인 모송죽과 자기 형 인규였다. 그들이 간밤에 자기가 들어갔던 그 헛간에서 뛰여나왔다는것을 환규는 아득한 옛일처럼 상기하였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귀도 틀어막았다. 아츠러운 비행기의 급강하소리가 듣기 끔찍해서가 아니였다. 아무것도 보고싶지 않았고 아무것도 듣고싶지 않았다. 그의 머리속에는 간밤에 황보종이 자기 말에서 니체의 냄새가 풍긴다고 하던 말이 떠올랐다. 정말 니체적인 악심이 꿈틀꿈틀하고 괴여올랐다.

너희들은 버러지로부터 인간에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너희들가운데 많은것들은 아직도 버러지에 불과하다. 일찌기 너희들은 원숭이였다. 그리고 지금껏 인간은 어느 원숭이보다도 더 심한 원숭이다.

보라. 나는 너희들에게 초인을 가르친다!

환규는 눈을 번쩍뜨고 눈앞에 벌어지는 참극을 지어 쾌감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

이튿날은 아침부터 비가 퍼부었다. 환규와 황보종은 벌써 물집이 콩마당처럼 부풀어오른 발바닥을 질질 끌며 가까스로 수원

근방에 가닿았으나 미군과 인민군과의 공전절후의 대회전은 있지도 않은채 수원은 해방되고말았다. 수원성터가 가까울수록 참혹한 《국군》의 패잔상을 말해주듯 군용트럭과 찌프들이 나딩굴어있고 아직도 썩지 않은 시체가 퍼붓는 비속에, 진창에 처박혀있었다.

그들은 떡심이 풀려 어느 골짜기로 들어가다가 참외막을 발견하고 그리로 비를 그으려 들어섰다.

가을이 늦은 누렇게 익은 보리밭이 비속에 후줄근히 젖어있었다. 안개가 휘감기고 흠씬 젖은 하늘이 무겁게 드리워있었다.

환규는 벌써 오래전부터 이런 숨가쁘도록 습기차고 곰팡내 풍기는 흐린 날씨속에 살아온듯하였다.

라지오안테나를 세워놓고 보도를 들었다. 평양방송은 2일과 3일에 동해안방면의 인민군대가 강원도 원주읍을 비롯하여 수백개의 부락을 해방하였다는것과 적기 60여대가 평양시 평천리 주택지구를 무차별 폭격하였으며 미군 순양함이 주문진을 포격하여 4천여명의 주민을 살상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4일부 최고사령부 발표에는 수원과 함께 인천, 리천이 해방되였다는 보도가 있더니 이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정령이 발표되였다. 첫 정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하는것이였다.

《여보시오 민선생, 정말 전쟁이 본격화돼가는 모양입니다. 물론 당초부터 인민군이야 그분께서 지휘하셨죠마는 이렇게 정식으로 최고사령관으로 취임하신걸 보면 이젠 그야말로 전인민적인 전쟁이 분명하지요. 몸소 그이께서 전선지휘를 하실모양이군요?》

환규는 웬일인지 엄숙한 예감이 엄습해오는것을 느꼈다. 북조선에는 강력한 군사, 정치 간부 집단이 있다. 광복되자마자 짧은 시일내에 수많은 민주주의적개혁들을 단행하면서 동시에 산업을 부흥시키고 강력한 경제토대와 또 오늘에 와서 그 위력이 실증된 인민무력을 건설한것은 그들, 북조선의 지도력량의 능력을 말해주는것이다. 그런데 오늘은 **김일성**장군께서 최고사령관으로 취임하셨다는것을 보면 북조선인민이 어떤 결심으로 이 전쟁을 대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였다. 부러질지언정 굽히지는 않겠다는 그 결의야말로 환규의 립장에서 볼 때 가장 우려할만한것이였다. 그것은 그의 눈앞에 환영처럼 어른거리는 황페화된 지구를 다시금 련상케 하였다.

《옳지, 이건 또 무슨 소리야!》

황보종이 펄쩍 뛰다싶이 소리쳤다. 정령랑독이 계속되고있었다.

공화국남반부 지역에 토지개혁을 실시함에 관하여

제1조 미제국주의자와 리승만괴뢰정부의 악독한 통치로부터 해방된 공화국남반부 농민들에게 자유와 행복을 주며 락후한 농촌경리를 급속히 발전시킬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7조에 의거하여 공화국 남반부에 토지개혁을 실시한다.

토지개혁은 무상몰수,무상분배의 원칙에 의거한다.

제2조 미제국주의자와 리승만괴뢰정부 및 그의 기관(회사를 포함한다.)들이 소유하고있는 토지는 전부 몰수한다.

조선인 지주의 소유토지와 면적의 다과를 불문하고 계속적으로 소작주는자 (기관을 포함한다.)의 소작주는 토지는 일체 이를 몰수한다.

소작제도는 영원히 페지한다. 소작주지 않고 자작하는 농민의 토지(자작지)는 5정보 또는 20정보까지 몰수하지 않는다.

리승만괴뢰정부 및 그의 기관들과 지주들에서 년부로써 매입하여 자경하는 토지도 또한 몰수하지 않는다.

제3조 몰수한 토지는 자기 로력으로 경작하는 고용농민과 토지없는 농민 및 토지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한다.

토지는 자기의 로력으로 경작하는자만이 가질수 있다. 분여한 토지는 분여받은 농민의 영구한 소유로 된다.

…

전11조로 된 정령은 바야흐로 붕괴에 직면한 뿌리깊은 반봉건식민지체제와 그것을 필사적으로 지탱해보려고 발악하는 미제와 그 괴뢰들에게 폭탄과 같은 구절구절들로 이루어졌다.

—토지에 관계되는 일체 부채는 이를 페지한다.

—토지에 대한 종래의 지세 기타 일체 세금과 부담금은 이를 페지한다.

—현물세를 납부한 나머지의 농작물은 농민들의 자유처분에 맡긴다.

—공출제도는 일체 페지한다.

—토지개혁을 실시하기 위하여 매개 동(리)에 농촌위원회를 조직한다.

…

《세기적이요. 여보시오 민선생,세기적인 결정이란말이요. 이

참외밭과 저 보리밭이 정말 이제야말로 해방되였소그려!》
황보종은 감개무량한듯 퍼붓는 비속에 드러누운 황량한 들을 바라보았다. 비줄기는 세차게 대지를 두들겼다. 철쇄와 공출딱지와 초연에 어지러워진 모든 악몽을 씻어내리듯이 비는 그렇게도 시원스럽게 퍼부었다.
《아마 그들은 이 결정으로써 남조선주민의 90프로이상을 자기들편에 끌어들일수 있을거요. 리승만의 처지가 더욱 가련해졌소.》
환규는 주파수를 돌리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쏘련과 뽈스까 정부에서 《유엔안보결정》을 비법적이라고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일본방송은 각 서방통신 특파원들의 전보를 전달하였는데 그중 에이피의 한 보도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미군 전투부대는 북조선군과 대결하기 위하여 퍼붓는 비속을 전장으로 전진하였다. … 이 량군이 전투를 시작한다면 결정적인 전투로 될것이다. …지상전투의 전국면은 퇴각으로부터 공격으로 전환할것이다. 그것은 현단계에서는 사활적인 판가리로 될 지점이다.》
이러한 보도를 듣자 그들은 당황하여 행장을 꾸리고 일어섰다. 계속 쏟아지는 폭우를 무릅쓰고 그들은 다시 대회전의 장소가 될 남쪽 어느 지점을 바라보고 필사적으로 걸었다. 그러나 그들은 또다시 전선을 따라잡지도 못한채 이튿날 오산에서 인민군대와 조우한 미군 선두부대가 형용하기도 딱할만한 참담한 패배를 당했다는것을 전선과 멀리 떨어진 어느 길가에서 들었다.
유성평야로! 세계의 모든 시선이 금강과 소백산맥의 천연적 요새에 가리워진 미군의 모든 병력과 전차와 중무기와 화력기재가 집결되고있으며 파죽지세로 진격하는 인민군의 중심적인 공격살표가 찌르고있는 유성평야로 집중되였다.
황보종이 수원에서 보기로 기대하였던 그 결정적인 회전은 인민군대의 진격속도가 너무나 큰 감격으로 말미암아 편견으로까지 기울어진 황보의 기대도 미치지 못할만큼 빨라서 수원으로부터 수백리 더 남쪽으로 내려간 거기서 실현되게 되였다.
미군은 이 결전을 위하여 금강이북지역에 초토화폭격을 감행하였다. 하늘은 계속 흐리여있는데 폭격기와 전투기가 대소형폭탄, 나팜탄, 소이탄, 휘발유 등을 마구 떨구었다.
그바람에 환규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혼란중에 그만 황보종을 놓쳐버리고말았다. 그가위에 자동차를 타고 다니거나 아스팔트길

을 거니는데 알맞게 지은 백구두는 여지없이 판이 나버렸고 발은 물집투성이가 되였다. 몸은 솜처럼 나른해지고 배가 고파서 견딜수가 없었다.
환규는 문득 거기서 큰길을 벗어나 얼마 못가서 윤하응의 집이 있다는것을 상기하였다. 유성평야에서 전쟁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것인가에 대해서 그는 기본적으로 서방기자들이 오산 전투를 앞두고 내린 예측과 비슷한 예견을 가지고있었다. 그들은 사실 지나치게 조급하여 하나의 선견대에 대해서 너무 큰 의의를 부여했었다. 서울이 떨어지고 두번째 서울 수원이 떨어진것은 생각하면 그 직접적인 책임이 《국군》에게 있었다. 그러나 세번째 서울 대전은 그 지형으로나 쌍방의 무력대비로 보나 작전준비로 보나 어느모로 보나 미군에게 유리하다. 그우에 미군에게는 세계 어느 국가도 감당할수 없는 그런 대공군과 함대의 지원이 있으며 무진장한 예비를 가진 경제력이 있고 또 만약의 경우에는 원자탄까지 준비되여있다. 그러니 더는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될것 같았다. 그는 한 농민을 잡고 수향산으로 가는 길을 상세히 캐물은 다음 큰길을 벗어났다.

14

죤 포스터 덜레스의 구상은 최종적으로 실현되였다. 맥아더를 브레드리가 말한 가장 《리상적》인 사령관의 자리 즉 조선에 대한 무장간섭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며 《유엔군》을 조직하여 그것을 맥아더의 지휘하에 두면서도 맥아더는 《유엔》의 지휘를 받지 않는 그런 자리에 앉혔다.
7월 7일 유엔안보리사회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쏘련의 결석하에 《유엔》사령부를 설치하는 결의문을 채택함으로써 사실상 미제국주의에 의해 백주에 강간당하였다. 유엔 기발에 새겨진 오리브가지에 떠받들린 지구는 피묻은 미국병사의 손에 받들려 조선전선에 나타남으로써 말할수없는 곡경을 치르게 되였다.
《유엔》이라는 처녀는 자기의 유린당한 처녀성을 자랑이나 하듯이 세상에 추악한 결의문을 공포하였다.
《군대, 기타의 원조를 제공하는 모든 가맹국》은 《그러한 군대 기타의 원조를 미국의 지휘하에 있는 련합사령부에 제공》하라고 결의문

은 권고하였다. 나아가서 결의문은 《이러한 군대의 사령관을 임명할》것을 미국에 요청(?)하며 이러한 군대에 유엔기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군대에 대해 《유엔》이 어느 정도라도 감독권을 보유하고있음을 나타내고있는 조항은 《미국에 대해, 련합사령부에서 취하여진 행동의 결과에 대해 안보리사회에서 적당히 보고를 제출하도록》 요청할것을 막연하게 서술한 마지막 조항뿐이였다.

강간당한것을 자랑으로 여길뿐만아니라 어떤 굴욕적인 처지에서도 강간자에게 매여달려 살겠다는 이러한 처녀에게 아무리 공정하고 엄격한 법관이라도 방조를 줄 방법은 없다.

같은 날 인민군대의 진격, 특히 전차의 진격을 저지시키고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선발된 미국에서 첫째가는 전차전 전문가 웰톤 워커중장이 8군사령관으로 임명될것이 내정되여 놈들의 림시수도 대전에 도착하였다.

한편 이미 대전에 도착하여 전선을 지휘하고있던 전선사령관 띤은 괴뢰군 륙해공군 총사령관 정일권(그는 7월 1일부로 륙군 총참모장겸 계엄사령관까지 한꺼번에 겸임하여 문자그대로 《한국》의 운명을 두어깨에 걸머지고있었다.)으로 하여금 선행한 전투들에서 대타격을 받은 괴뢰군사단들을 강제징모한 신병들로써 보충정비하고 그를 두개의 군단으로 개편하는 한편 황급히 배비변경을 실시하여 완강한 방어를 조직케 하였다. 그들은 이미 오산북쪽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은 미 21련대를 천안지역에 멈추어세우면서 사단주력을 전의, 조치원, 대전방향에 기동시키였다. 동시에 전선서부지역에서 쫓겨온 괴뢰군의 패잔부대들을 전선동부로 이동시키면서 재편성한 괴뢰군 1, 2 군단들을 진천, 음성, 충주, 단양 등 지역에 배치하였다. 7월 7일 정일권은 띤의 지시에 따라 괴뢰군 1, 2 군단에게 미군부대와 함께 차지한 계선을 유지하면서 반타격으로 이전하여 7월 8일 6시까지 평택, 안성, 장호원리, 제천 등 일선에 진출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때 워커와 띤 그리고 정일권과 군단장으로 취임한 김홍일 등이 타산한것은 이렇게 반타격을 가함으로써 차령산맥지역을 회복하며 시간을 쟁취하여 미국후속사단들의 전투진입을 보장하고 자기의 대렬을 수습정비한다음 결정적공격에로 이전하자는것이였다.

당시 조선인민의 영명하신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급속히 변화발전하는 복잡한 정치, 군사 정세하에서 장대하여지는 전선련합부대들의 전투지휘와 지도를 더욱 강화하며 민활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선사령부를 조직하는 동시에 보조지휘소를 군집단으로 개편하는 조치를 취하시였다. 또한 적의 기도를 간파하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적에게 새 방어선을 차지할 시간적 여유를 줌이 없이 높은 공격속도로 적을 맹렬히 타격하여 금강과 소백산맥을 시급히 돌파하고 대전지역과 소백산맥지역에서 적의 기본집단을 포위섬멸함으로써 전주, 울산, 문경지역들과 울진 및 그 남쪽지역들을 해방할데 대한 제3차작전의 방침을 수립하시였다.

바로 이러한 때, 즉 저 추악한 《유엔안보결정》이 발표된 이튿날 이름없는 조선의 수수한 로동자와 농민, 늙은이와 아낙네, 심지어 나어린 소년들까지 자기가 수천년을 내려오는 애국의 피줄을 이어받은 조선사람임을 자각케 하였으며 그리하여 매사람이 영웅으로 일어서게 한 또한 조선의 모든 봉우리와 골짜기 이름없는 시내물과 한그루 나무, 한포기 풀, 한알의 돌멩이에 이르기까지 항쟁의 성새로, 전호로, 폭탄으로 변하게 한 력사적인 우뢰—**김일성**장군님의 방송연설이 삼천리 방방곡곡 전선과 후방에, 온 세계에 울려퍼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유엔결정》의 너절하고 추악한 진면모를 폭로하고 그것을 조작해낸 미국의 기도와 전선후방에서 감행하고있는 미제국주의 침략군의 야수적만행을 력사적으로 분석렬거하신 다음 조선인민과 청소한 인민군대의 귀중한 첫 성과를 개괄하시고 조선인민의 필승불패의 요인들을 지적하시면서 엄숙하고 정중하신 목소리로 호소하시였다.

《친애하는 동포형제자매들!

조선인민의 악독한 원쑤인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을 무력으로 예속시키기 위하여 우리 강토에 피묻은 발톱을 내밀었습니다. 전체 인민은 일치단결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의 무력간섭에 결정적인 타격으로 대답하여야 하겠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인민의 단결된 힘이 얼마나 위대하고 무진장하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백절불굴의 투지와 지향이 얼마나 강한가를 반드시 알게 될것입니다.

우리 인민은 결코 다시는 식민지노예로 될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조국강토에서 감행하고있는 죄악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것이며 그들이 우리의 평화적 도시와 농촌을 야만적으로 폭격하고 우리의 부모형제자매들과 천진란만한 어린

이들을 학살하는것을 용서하지 않을것입니다. 우리뿐만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조국의 강토를 인민들의 피로 물들게 한 야수적미제침략자들을 천추만대를 두고 영원히 저주할것입니다.

조국의 영예와 민족의 운명을 귀중히 여기는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를 물론하고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의 성전에 한사람처럼 떨쳐나서야 합니다.

자기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외국무력침범자들을 반대하는 싸움에서 용맹을 떨친 애국투사들의 이름은 조국의 청사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우리 조국의 전체 애국자들!

친애하는 형제자매들!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는 일은 조선인민자신의 일입니다. 전체 인민은 미제무력침범자들과의 가렬한 전투에서 용감성과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여 적들을 격멸소탕하면서 계속 남으로 진공하고있는 우리의 인민군대를 원호하는 사업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

영용한 인민군 병사, 하사관, 군관들!

전체 조선인민은 커다란 사랑과 긍지감을 가지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투쟁에서 발휘하고있는 당신들의 위훈을 살피고있습니다.

악독한 침략자들을 더욱 무자비하게, 결정적으로 격멸합시다. 우리 강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깨끗이 없애버립시다.

…

인민군대의 보병들! 땅크병들! 포병들! 비행사들! 해병들!

당신들은 이미 리승만괴뢰군대를 격멸하는 전투에서 영용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였습니다. 우리 강토에 침입한 미제국주의침략군대를 더욱 용감하게, 철저하게 격멸합시다. 자기의 무기를 능숙하게 리용하여 적들에게 명중탄을 퍼부읍시다.

당신들은 자기 조국과 자기 인민 앞에서 신성한 임무를 실행한다는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외국침략자들로부터 우리 조국을 용감하게 사수한 을지문덕, 강감찬, 리순신장군들과 같은 우리 선조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본받아 조국해방을 위한 이 신성한 싸움에서 모두다 영웅적위훈을 떨칩시다.

대대손손 내려오면서 우리 선조들의 백골이 묻혀있고 우리의 귀여운 후대들이 자라고있는 조국강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을 완전

히 몰아내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갑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예로운 기발이 부산, 목포, 제주도 한나산에까지 높이 휘날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정의의 해방투쟁을 승리로써 완수합시다.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의 자유독립 만세!》

마디마디 미제에 대한 격분과 열화같은 조국애, 드높은 민족적 자부심과 신념으로 충만된 이 연설은 대전해방작전에 참가한 장병들의 전투적기치로 되였을뿐아니라 장구한 시일을 끈 조국해방전쟁 전과정에 조선인민의 전고미문의 애국주의와 대중적영웅주의를 발양시키는 강령으로 되였다.

×

대전해방전투를 앞두고 원인결사단은 첫보충병을 받았다. 사단은 전선동부에서 진격하던 련합부대와 함께 안성을 해방하고 그길로 서울—대전간 대도로좌측에서 대전을 동북으로 압축하라는 권혁동지의 명령을 접수하였다. 사단은 행군을 계속하면서 대렬을 정비하고 활발한 정치사업과 후방물자공급사업을 진행하면서 미처 따라서기 바빠하는 포병들을 제자리에 들여세웠다.

주타격방향의 다른 사단은 전차들과 함께 한걸음 앞서 곧장 대도로를 따라 천안, 전의 방향으로 진격하고있었다.

세철은 행군중에 있는 중대를 따라잡기 위하여 같이 수원에서 배치장을 받은 문기수, 신종호와 함께 부지런히 걸음을 다우쳤다. 신종호가 한중대에 배치받은것은 우연한 일이지만 문기수는 예비련대에서 벌써 정들어버린 세철을 놓치지 않으려고 여간 고생을 하지 않았다.

전사가 한번 부대를 옮길 때는 수많은 대렬참모를 만나야 하고 줄을 서야 하고 명단을 꾸며야 하고 번호를 불러야 한다. 대개 대렬참모란 사람들은 사람들을 뭉청뭉청 떼서 몇개 부대로 나누어놓는것이 아니라, 가령 세개로 나누겠으면 1, 2, 3번호를 부르게 해서 1은 1끼리 3은 3끼리 갈라놓는가 하면 명단을 만들어서 미리 표를 해놓았다가 단숨에 죽— 불러대기도 한다. 그렇기때문에 친하다고 옆에 붙어있다간 어느새 갈라지는지도 모르게 각각 딴 부대로 갈라져가게 되는것이다.

문기수는 그런 속을 환히 알고있기때문에 대렬참모를 척 만나면

그 사람이 장차 어떤 방법으로 배치를 하겠는지 점쳐보기도 하고 대렬서기에게 등을 대보기도 하고 저 웃쪽에서 번호를 부르기 시작하면 제꺽 자리를 바꿔서기도 하는 등 갖은 롱간을 다 부리였다. 자기의 그런 계교가 성공되면 그때마다 코를 찡긋하며 우쭐해하였다.

《그것 보라구, 내가 뭐라던가? 세개로 나눌거라고 하지 않던가? 자네처럼 멍청해있다가는 틀림없이 리별할번했지.》

《참 잘했어. 난 통 눈치를 못챘지. 그런데 동무는 산골사람치고는 수단이 여간 아닌걸.》

세철은 어느덧 기수의 그 장난같지 않은 검질긴 집착에 반해버렸다. 처음 사단으로 올 때에는 떨떨해있다가 그만 다른 사단으로들 갈라졌는데 행군을 하다가 보니 언제 왔는지 옆에서 따라오고있었다. 나중에 들으니 그쪽으로 가고싶어하는 사람과 교섭을 해서 맞바꾸었다는것이였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명단과 대조하게 되자 왕청같은 이름을 부르는데 《네》하고 대답해놓고 후에 자기 이름이 틀렸으니 고쳐달라고 넌지시 서기에게 부탁하였다.

《내가 무슨 수단이 있다고 그래! 자네 봉이 김선달이 아나? 수단은 그 사람이 있었다네. 내가 그 사람 협잡하던 이야기를 하나 합세.》

문기수가 큰 기침을 깇자 한걸음 앞서가던 신종호가 걸음발을 늦추며 나란히 섰다.

《그만두라구. 대낮에 옛말하면 흉년든대. 빨리 걷기나 하자구. 그런데 전선이라는게 왜 이 모양이야!》

세철은 별로 조용한 주위를 돌아보며 말했다. 아닌게아니라 조용했다. 대도로를 벗어나서 안성으로 통한 이 이등도로에 접어들자 싸움터 같은 맛은 전혀 풍기지 않았다. 하긴 그럴수밖에 없는것이 주타격집단의 대부분 부대들은 대도로를 따라 남진하였고 이리로 들어오게 된것은 원인걸사단뿐인데 그 사단과 련대 주력은 아직 뒤에 있었다. 이 길을 먼저 지나간것은 패잔한 괴뢰군들과 사단의 전위로 앞서나간 그들이 찾아가는 황은식대대뿐이였다.

이른새벽에 길을 떠나 한 20리 잘 걸은 그들은 어느 주막거리에서 다리쉼을 하였다. 길쪽으로 퇴마루가 놓인 집토방에 걸터앉아 발싸개를 다시 하고 담배들을 피웠다. 길 맞은편 공지에 양철지붕을 해 씌운 커다란 우물이 있었다.

《저것 보게, 〈수리개〉가 이리로 갔군.》

문기수가 그 우물기둥에 백묵으로 그린 화살표와 《수리개》라는

글자를 보고 환성을 질렀다.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는 표식이였다. 그 사이 벌써 수백리를 걸어왔지만 딴길을 잡아서 그런지 새로 덧쓰고 덧쓴 수많은 기호와 련락표식들에 지워져선지 통 못찾아본 표식이였다.

《참 그렇구만. 이젠 따라잡게 됐어.》

세철은 언젠가 문기수가 하던 말이 생각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어느새 멀리도 날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 조국의 넓은 품이 느껴지는듯도 하였다.

종호가 물이 당겼던지 말없이 우물로 다가가더니 그 기둥옆에 붙어 서서 고개를 기웃거렸다. 두사람도 무엇엔가 끌려서 우물로 갔다. 큼직한 양회 토관으로 둘러막은 우물전은 아낙네들의 소매자락에 다슬려서 반질반질 윤이 나는데 그 웃부분이 절반가량 허물어져있었다. 그것을 짚고 속을 들여다보니 컴컴한 어둠을 뚫고 간신히 진자주빛 남실남실한 물이 아득한 땅속깊이에 괴여있었다. 그런데 천정에 매달린 딸따리바퀴는 억지로 못을 뽑아던져 한귀에 데롱거리고 쇠사슬은 끊어져서 검부레기처럼 걸려있었다. 다시 우물속을 들여다보니 물이 가득찬 나무통 한개가 가까스로 떠있었다.

토관벽에 다음과 같은 글이 씌여있었다.

《괴뢰군이 파괴한 우물! 이 우물을 고치는 사람에게 영광이 있으라! 전사 리정수.》

세사람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입이 뻥해졌다.

《제래 맨츰 봤음 맨츰 고쳐야 인사가 바르지 않아. 나 참…》

신종호가 립장이 몹시 딱하다는듯이 이렇게 말하며 주위를 살폈다. 《잡은것도 없는데말이야.》

《그러게 말이지.》

문기수가 오래간만에 신종호의 의견에 동의를 표시하면서 다시한번 우물속을 들여다보았다. 《통 하나는 어디에 갔는지 보이지도 않는군.》

《리정순지 이 동무가 무척 목이 말랐던모양이군.》

세철의 말에 종호가 덩달아 대꾸했다.

《목이야 나도 마르지. 그래 왔더니 이런걸 써붙여놓았군 참…》

《그 사람이 바빠서 뒤사람에게 부탁했을것 아니야. 그러니 우리 뒤로도 사람이 많이 올게고 여기 인민들도 먹어야 하겠는데 야단은 야단이군. 무엇이 있어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긴? 이봐 세철동무, 영광을 탐내다가는 안되네. 바쁘기로 말하면 우리가 더 바쁘지. 이 리정수동무는 그래도 자기 부대

에 자리를 차지하고 다니겠지만 우리야 어디 그런가? 그러니 우리도 이 영광을 깨끗이 양보하자구. 나도 목이 마르지만 참을수 밖에…》

세철은 기수의 기름한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없이 외면하고 거리쪽으로 걸어갔다. 거리는 휑뎅그렁했다. 남자들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고 다만 골목골목에 아이들이 몰려다녔다. 초간이 떨어진 산기슭에서 물동이를 인 아낙네가 논두렁길로 걸어오고있었다. 세철은 오던 길을 되돌아서서 한참 내려갔다. 길가에 마사진 지엠씨 한대가 나딩굴어있는것을 보았던것이다.

그가 무엇을 받았는지 손풍금처럼 쭈그러든 운전대 문짝을 간신히 떼들고 좌석밑을 더듬고있는데 아이들이 모여들었다. 흰 바지저고리에 막 깎은 머리가 더부룩하게 귀를 덮은놈, 새하얀 조끼단추가 유난히 커뵈는 너덜너덜한 무명샤쯔를 걸친놈, 어른에게도 클 미군잠바를 들쓴놈, 형형색색의 누데기를 걸친 진기또래의 소년들이 수상한 인민군대의 거동에 호기심을 금치 못해 먼발치서 원을 치고 지켜보고있다.

《얘들아, 이리 좀 와서 날 좀 도와줘.》

세철은 그들과 말을 붙여보고싶었으나 쭈그러진 차체때문에 손에 잡힌 공구주머니가 좀체로 잘 빠지지 않아 낑낑거리다가 이렇게 말했다.

미국잠바를 걸친놈이 퍼런 코를 훌쩍 들이키며 말했다.

《아저씨 거기서 뭘해요? 아저씬 인민군대예요?》

《그렇다. 여기서 뭘 좀 꺼내려고 그런다. 너희들 이 거리 아이들이냐?》

《그래요. 그런데 그건 뭣해요?》

《이거? 참 너희들 집에 우물이 있니?》

《우리 동네 우물은 괴뢰군놈들이 다 마사버렸어요. 그래서 산밑에서 길어다 먹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우물을 고치려고 그런다.》

《아저씨가요? 그럼 아저씨는 우리 동네에 사나요?》

《아니, 난 곧 간다.》

《그럼 왜 고치나요?》

《너희들 먹으라고… 동네엔 우물이 좋은것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지나가는 사람도 마실것 아니야.》

아이들은 그래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채 고개를 기웃거리면서 앞으로 쏠리는 차체와 문짝을 떠밀어주었다.

《고치면 또 마사버릴텐데요.》

《누가 마사? 이젠 마슬 사람 없다. 또 누가 마스거든 너희들이 접어들어서 해치워라. 너희들 우물인데 마스는걸 왜 가만 둬둔단말이냐? 일없다. 이젠 괴뢰군놈들도 다 쫓겨갔으니 아무도 마스지 못한다.》

세철이가 꼬마들과 함께 공구주머니를 들고오니 신종호가 어디서 구했는지 길다란 전선줄을 우물속에 드리우고 침을 꿀꺽꿀꺽 삼키며 드레박을 낚고있었다. 문기수는 우물가의 파랗게 좋아진 남새밭에 엉거주춤 허리를 구부리고 앉아 김을 매고 북을 주면서 그냥 두덜거리고있다.

《넨장, 걸음은 여드레 팔십리지. 가다가 이렇게 남의 다리를 긁지, 언제 따라잡는단말인가? 자네 그게나 낚아내면 뭘 할텐가?》

《가만, 가만, 올라온다, 올라온다. 넨장, 시오마니처럼 웬 잔소리가 그리 많슴마? 그래 그까짓 김이나 매면 님자 먹을알이 있을상싶나?》

《이게야 그래두 김만 매여놓으면 누가 먹든 우리 조선사람이 먹을게거든. 허지만 그건 뭔가? 중뿔나게…》

세철은 우물전을 디디고 올라서서 딸따리가 달린 천장 가름대를 잡았다. 그리고는 몸을 날려 그 꼭대기에 걸터앉았다. 그가 미군 지엠씨에서 찾아낸 공구를 가지고 딸따리를 고치는사이 종호는 가까스로 물에 빠진 드레박을 낚아올렸다. 쇠사슬은 거의 제 기장이 다 있었으나 드레박통 하나는 아무데도 보이지 않았다.

세철이가 천장에서 소리쳤다.

《이봐 꼬마들, 어디 가서 물통을 찾아보아! 어디 굴러있을거야.》

얼마후 우물은 완전히 고쳐졌다. 첫통을 길어올려서 맛을 본 문기수는

《그 우리 동네것만은 못해도 괜찮군.》

하고 중얼거리더니 다른 사람들이 목을 추길 사이도 없이 물을 남새밭 고랑에 쏟아부었다.

《자, 연송 길어올리게. 며칠만 비가 안와도 이렇게 보송보송하다니까. 여름남새란 장마가 들사해야 잘 자란다네. 자, 연송 길어올리라는데…》

떠나면서 기수는 숯꼬투리를 주어다가 그 우물전에 다음과 같이 써붙였다.

《이 우물은 조선인민군 전사 문기수외 2명이 고쳤다. 이 우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남새밭에 한통씩 물을 줄것!》

무슨 큰 구경이나 만난듯이 졸졸 따라다니던 꼬마들은 그들이 떠날 차비를 하자 갑자기 울상이 되여 소리쳤다.

《아저씨들, 정말 가나요?》

《그래, 간다. 너희들 잘 있어라.》
세철은 아이들의 머리를 쓸어주며 말했다.
《아저씨들 가면 미군이랑 괴뢰군놈들이랑 또 오지 않아요?》
《우리가 그놈들을 치러간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제 곧 학교에 가게 된다.》
《아저씨들 잘 가세요. 이제 이 우물은 우리들이 잘 지킬래요.》
그들은 걸음을 다우쳤다. 우물에서 지체한 봉창을 대려고 땀을 뻘뻘 흘리며 달음박질을 치다싶이 하였다. 점심때가 가까와서 련대 대렬참모가 대주던 부락에 들렸더니 대대는 없고 후방부 일군들만 남았는데 전하는 말이 대대는 거기서 안성길을 버리고 진천쪽으로 꺾어져 남으로 내려갔다는것이였다. 후에 안 일이지만 안성은 이미 전선동부의 련합부대에 의해 해방되였던것이다.
그들은 이번에는 지름길을 물어서 다시 반달음을 치다싶이 바삐 걸었다.
누렇게 익은 보리밭을 지나 나지막한 야산기슭을 끼고도는데 그 아래골짜기에서 맑은 시내물이 흘러내렸다. 물이끼가 오른 징검다리를 건너 해볕에 반짝거리는 모래밭에 올라서는데 강가로 바투 다가선 저쪽 산비탈길로 얼른하고 사람그림자가 나타났다.
《적이다.》
신종호가 화닥닥 놀라 모래바닥에 엎드리며 소리쳤다. 세철과 문기수도 적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제꺽 보총을 벗겨들고 격발기를 제꼈다.
《손들엇!》
그런데 저쪽은 더 민첩하였다. 일행 다섯명중 두명은 멍청히 섰는데 셋은 어느새 산비탈에 도로 고개를 쑥 감추더니 카빙총과 권총 아가리만 내밀고 숨을 죽였다. 처음으로 적과 조우한 세사람은 가뜩이나 따가운 해볕에 달아오른 머리가 한번에 칵 하고 열이 올라 자기들이 결정적으로 불리한 립장에 놓여있다는것도 돌아볼 마음의 여유를 못가졌다. 신종호는 그래도 구대원이라 모래바닥에 엎드려서 포복전진으로 기였지만 세철과 문기수는 엎드리는것도 잊어버리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달려나갔다.
《이놈들아, 손들엇! 달아나긴…》
적들은 달아난것이 아니라 앞에 멍청히 서있는 두사람까지 산비탈로 끌어들이더니 돌격해오는 세사람을 주의깊게 살폈다. 거리가 거의 10메터 가까이나 되였을 때 그들중 장교복장을 한 사

람이 앞으로 썩 나서며 중얼거렸다.

《인민군대로군. 용감하긴 한데 엉터리야.》

《뭐 이자식이, 손들엇! 안들면 쏜다!》

문기수가 다우치니까 뒤사람들도 카빙총을 어깨에 걸치며 껄껄 웃었다.

《여보 동무들, 우리는 한편이야!》

《개수작 말고 손들엇!》

실전에 있어서 덤비는건 신종호가 아니라 문기수였다. 그는 발을 구르며 연방 소리쳤다.

《허허, 이 동무 봐. 한편이라는데두 그래. 우린 인민군대야.》

그 소리에 세철은 귀가 번쩍하였다. 어쩐지 일이 묘하게 옭힌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고보니 멍청히 서있던 두사람가운데 한사람은 포승으로 얽혔는데 장교복을 입었고 다른 한사람은 묶이지는 않았으나 모자도 상의도 벗어버려서 사민인지 군인인지 분간할수가 없었다. 괴뢰군이 괴뢰군을 잡아가지고 가는데 그들이 자기입으로 인민군대라고 하니 일은 난감하게 되였다.

문기수는 눈이 둥그래서 어쩔것인가 토의라도 걸듯 세철을 돌아보았다. 세철이도 딱할밖에 없었다. 신종호는 여전히 모래바닥에 엎드려서 총구를 그들의 가슴에 겨누고있었다.

문기수는 상대가 유리한 조건에서 먼저 총을 놓고나섰는데 그냥 겨누고 뻗대는것이 어쩐지 경우에 몰리는듯도 하고 그렇다고 엄연히 적의 복장을 하고있는데 입으로 하는 말을 믿을수도 없고 그야말로 립장이 딱하다고 생각하였다.

세철이가 한걸음 다가서며 물었다.

《인민군대라면 군인증을 보자!》

《이 동무들이 점점 망하게 노는군. 군인증을 가지고 다니겠으면 인민군대옷을 입고 다니지. 여보, 우린 정찰병이란말요. 그런데 동무들은 뭐요? 동무들은 왜 개별적으로 돌아다니는가말요?》

《흥— 정찰병? 거짓말 말어!》

이렇게 말하면서도 세철은 군대내에 엄연히 정찰병이라는 병종이 있다는것을 비로소 상기하였고 또 정찰병이라면 충분히 그런 꼴로 나타날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갔다. 더구나 뒤에 선 두사람은 사병견장을 달았는데 머리를 기른것으로 보아 은근히 믿음이 가기도 했다. 그러나 문기수는 군인증이 없다는 말과 개별적으로 돌

아다닌다는 책망의 말에 발끈하였다.

《개수작 말어. 동무들, 이것들 모두 무장해제시키자구.》

《뭐 무장해제? 이 아주바이 보게. 동무들 혼나봐야 알겠어?》

그러자 뒤전에 있던 사람이 나서며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중대장동무, 시간이 없습니다. 까버립시다.》

그 소리를 듣자 문기수는 펄펄 뛰였다.

《개자식! 손들어! 안들면 쏜다!》

《가만.》 장교복이 한손으로 기수를 얼리면서 저희편을 돌아보고 말했다.

《적아도 구분할줄 모르는 이런 벽창호를 깠다가는 큰 소동이 나겠다이. 이봐 동무들, 어데로 가는 길인가? 우리 같이 가서 해명하자구.》

《갈테면 가자!》

《그런데 어디로 가는가말이요? 이앞에는 부대가 없소.》

《부대가 없긴 왜 없어. 우리 대대가 이리 갔다는데.》

《흥, 적과 말은 잘한다. 그래 동무들은 1대대로 가는거요?…》

부지중 비밀에 속하는 대대 행방을 발설했다는것을 깨닫자 문기수는 다시 눈이 올롱해서 세철을 돌아보았다. 이때 신종호가 슬그머니 일어나더니 타협을 하자는 신호로 슬쩍 세철의 옆구리를 건드렸다. 그러나 문기수로 말하면 상대가 적이든 아니든 이대로 물러앉았다가는 체면을 여지없이 손상당하게 되였다. 그는 혹시 상대가 인민군대라 하더라도 자기네 대대를 찾는데 리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1대대고 어찌구 너희들한테 말할것 없어. 어서 앞서 걸어!》

《동무 뭐요?》

아까 장교곁에서 귀떰하던 사람이 격분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상관에게 무슨 말버르쟁이요?》

《상관이 뭐 말라비틀어진게 상관이야? 우리 인민군대 상관은 그따위 똥바가지 같은걸 쓰고다니지 않어!》

《허허, 여보 우린 뒤쪽으로 가야겠는데 어떻게 하겠소? 동무들이 우리와 같이 후방쪽으로 가자구.》

《이거 왜 이래? 앞으로 걷지 못해?》

《막 건주정이군.》

장교복이 난처해있는데 저쪽 산등성이에 사람그림자가 나타났다.

《중대장동무, 저기 3중대 문화부중대장동무가 옵니다.》

《어디? 옳지, 여보 류동무! 류동무!》
3중대 문화부중대장이라는 말에 세철이 일행은 모두 속이 떠끔하였다. 그들은 바로 3중대로 배치된것이였다.
온통 절구통처럼 몸도 아래배도 군복가랭이에 싸인 두다리도 모두가 둥글둥글한 군관이 천천히 내려왔다.
《뭐요? 왜 여태 여기서 우물거리고있소?》
생긴 모양과 같이 둥글둥글한 목소리가 천천히 울려나왔다.
《꾸물거리는게 다 뭐요? 이 동무들이 동무네 대원이 옳소?》
《어디?》
문화부중대장은 천천히 다가오더니 마치 현미경속을 들여다보듯 찬찬히 세사람을 들여다보았다. 세철은 황급해나서 뒤꿈치를 붙이며 바로 섰다.
《군관동지, 저희들은 새로 배치되여왔습니다.》
《그래?》
군관은 그래도 특별히 표정을 바꾸지 않고 천천히 세사람을 다 돌아보고나서야 말하였다.
《이리로 좀 오오.》
《우리는 가겠소. 그 동무들 좀 혼내주오. 영 망태기란말요.》
장교복이 징검다리쪽으로 걸어가며 소리쳤다.
《가긴 어딜 간단말입니까? 지금 련대에서 전화가 와서 내가 동무들을 데리러 나온길인데. 련대장동무가 이리로 오겠으니 그 벙어릴랑 중대장이랑 우리 중대에 대기시켜놓으라는겁니다.》
《그래, 그럼 일이 제대로 됐군. 그야말로 안성맞춤이랑이. 동무들, 그럼 갑시다.》
문화부중대장은 산비탈그늘에 앉아 세사람의 문건을 사람을 볼 때와 마찬가지로 깐깐히 다 살펴보고나서 말하였다.
《문서만 띄우고 사람은 안보낸다고 야단을 했더니 오긴 왔군. 동무들, 훈련은 제대로 받았소?》
《대충 받았습니다.》
세철은 자신이 없이 대답했다.
《대충이라니? 그래서는 안되겠는데… 이제 그런 친구를 잘 만났는데 련습을 좀 해볼걸 그랬소. 하여간 갑시다.》
이날 낮에 세철과 문기수는 1소대에, 신종호는 3소대에 배치되였다.
군관학교를 갓 졸업한듯한 젊은 소대장과 담화를 하고있는데 련

락을 받고 분대장이 나타났다. 하사견장을 단 기가 팔팔해보이는 그 분대장은 자기가 리막동이라고 소개하면서 저 역시 분대장이 서울해방전투에서 전사한 이후 대리공작을 하고있는 신대원이니 서로 방조하면서 잘 싸워보자고 어깨를 툭 쳤다.

×

《그래 대체 벙어린 뭐요? 벙어리에게서 무엇을 알아내겠다고 그렇게 야단이요?》

학민은 정찰병들이 들어있는 농가앞에 차를 세우자마자 마중나온 덕칠에게 물었다.

《알아보다니요? 그저 처리가 곤난해서 그러지요.》

덕칠은 학민이 급해하는 눈치를 채자 좀 미안했던지 제사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이마살을 찌프렸다.

《그건 또 무슨 소리요? 포로로 잡았겠지?》

《포로가 아니라 굴러들어왔지요. 인민군대에 입대시켜달랍니다.》

《벙어리가?》

《그런데 벙어리가 아니니 야단이란말이지요.》

《뭐요, 동무 말은? 좀 똑똑히 말하오.》

학민은 짜증을 내며 언성을 높였다. 그래도 덕칠은 태평으로 말하였다.

《글쎄 일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련대장동지께 좀 처리해달라고 부탁한거지요. 우선 좀 선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벙어리선은 봐서 어찌자구? 요점을 말하시오. 난 바쁘오.》

《저희들도 바쁘지요. 사단에서 새로운 명령을 받았습니다. 정찰자료를 련대장동지에게 드리구 곧장 나가랍니다.》

학민은 덕칠이를 데리고 다그치다가는 피차 일이 꼬일뿐이라는 쓰라린 경험들을 상기하였다.

(사람이 전쟁판에 내다놔도 여전히 유들유들하거던.)

이렇게 생각하며 학민은 얼렸다.

《그럼 선을 볼것없이 동무이야기나 좀 듣기요. 저기 그늘이 좋구만. 저기 좀 앉아서 이야기해보오.》

아름드리 느릅나무 한그루가 농가 뒤울안에 서있었다. 그 가지들은 어찌나 넓게 펴졌던지 세간짜리 본채와 두간짜리 사랑채

가 몽땅 그 가지아래 들어갔다. 그러나 지금은 해가 기울어서 그늘은 뒤울안까지 뻗어내린 산기슭으로 길게 늘어나있었다.

덕칠은 학민이가 먼저 자리를 잡고 앉은 잔디밭에 나란히 앉으며 우선 《허 참!》하는 탄성을 지름으로써 앞으로 벌어질 이야기가 얼마나 기막힌것인가 하는것을 예고해놓고 본줄거리로 들어갔다.

《아까 전화로 보고한것처럼 그놈들은 지금 수향산과 서상산 일대에 방어시설을 꾸리고있습니다. 우린 그놈들이 평택에서 도망칠 때부터 같이 따라갔었지요. 서상산에 도착하자 대렬을 다시 정비하는데 하마트면 들킬번했소다. 그래서 우선 골짜기로 내려와 하루동안 매복해 있었지요. 방어공사를 다그치는것을 보고 이놈들이 여기서 발악할 참이라는것을 알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차려놨소다. 헌데 이튿날 저녁때쯤해서 버쩍 마른 중놈이 절에서 가사를 펄떡거리며 도망해오는것을 잡았지요. 그놈들 련대지휘부가 저희 절에 들었는데 자기를 괴뢰군에 입대시키잰다고 운단말이우다. 난 중놈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놈이 머리를 빡빡 깎았으니 군대옷을 입히기야 쉽지요. 그런데 비루 먹어서 우리 보총을 메워놓으면 10리도 못가서 주저앉겠더란말이우다. 그걸 입대시키려드는걸루 봐서 그놈들 급해맞긴 한 모양이지요.》

《쓸데없는 말말고 하던 이야기나 마저 하오.》

학민은 담배를 빨면서 멀리 야산들너머 아슴푸레 륜곽만 가물가물 하는 수향산과 서상산을 바라보다가 별로 바빠하는 기색도 없이 독촉하였다. 덕칠은 설사 학민이가 진심으로 독촉을 한다 해도 자기가 목격한 그 모든 신기한 이야기를 생략하는것은 절대로 양보할수 없다는 태도로 열을 올리며 말을 이었다.

《쓸데없는 소리라니요? 이거야말로 중요한 이야기지오다. 물론 그 중놈을 인민군대에 입대시킬수야 없지요. 그자가 아무리 괴뢰군에게서 도망해왔다 해도 그는 관념론자이니까요. 허지만 우리는 그 중놈 입을 통해서 그놈들내막을 상당히 많이 알았습니다. 우리가 인민군대라고 하니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하고 십자를 긋더란말이우다.》

《거짓말 마오. 십자야 예수쟁이들이 긋지 중놈이 십자를 긋는 법이 어디 있소?》

《그런가요? 그럼 시정합시다. 그렇지만 남조선에서는 중놈도 십자를 그어야 하는지 누가 알겠소다? 여기서야 미국예수쟁이판이 아닙니까? 헌데 어쨌든 그놈은 자기네 절을 몽땅 뒤집어엎고 불사린지 불가사린지를 파헤치고 게다가 자기를 살생을 시키

려 하니 제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합데다. 그래 궁둥이를 차서 내쫓았지요. 궁둥이를 슬슬 만지며 좋아서 헤벌쭉해가지고는 〈관세음보살 대자대비 수리수리 마수리…〉 하고 감사하다고 절을 거퍼 세번이나 하며 방가촌이라는데로 도망칩데다.》

《허허허.》

학민은 우습기도 하고 어처구니도 없어서 웃으며 말했다.

《궁둥이를 차준것이 그렇게도 고마울거야 있소?》

《그러게 말입니다. 좌우간 중놈이야기는 이따 또 하기로 하구요. 우린 그사이 그놈들 방어략도를 훔쳐냈소다. 헌데 그놈들 기도를 알수 없단 말이오다. 하는수없이 밤에 전호작업하는 부근에 매복해있었지요. 그놈들 하두 급해맞아서 밤새 작업을 들이댑데다. 새벽녘까지 이슬에 푹 젖으며 기다리고있으니까 장교 한놈이 바라나온단말이오다. 제깍 자루를 씌웠지요. 그다음이사 볼일 있습데까? 〈잘 있게. 래일쯤 다시 봅세.〉 하고 달아오는데 자 야단났소다. 총소리가 마구 들린단말이오다. 들켰을턱은 없는데 이상하지 않소다? 감쪽같이 해치웠는데…》

《이상하긴 뭣이 이상하단말이요? 그놈들이라구 눈감고 있겠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적어도 오덕칠이가 그런 실수를 할수야 없지오다. 잠시 있으니 원인이 해명됐습니다. 탈주병이거던요. 두사람이 화점작업을 하다가 몰래 내뺐는데 인차 발각이 됐단말이우다. 우리가 숨어있는 산기슭으로 웃동을 벗어붙인 졸병들이 달아나고 얼마 있더니 한개소대가량이나 와— 하고 추격해오지요. 자 이건 새우싸움에 고래등 터지게 됐단말이우다. 별수없이 갈겼지요. 한동무는 그 자루속에 든 장교를 메고 앞서달리고 둘이 남아서 따바리로 두어탄창 갈겨주었더니 좀 잠잠해집데다. 그래서 산비탈로 달려갔더니 이런 세상에… 글쎄 그 탈주병들이 아직도 그 모퉁이서 어물어물하지 않겠습니까? 가만 가서 보니 한사람이 맞았단말이우다. 그래 한사람이 업고 가겠다거니 놓고 너만 가라거니 야단이지요. 그판에 또 추격이 따라옵니다. 우리는 맞불질을 하면서 그들보고 어서 뛰라고 소리쳤지요. 그사람들은 처음에는 우리를 괴뢰군인줄 알고 대들려고 합데다. 그러다가 우리가 총질을 하니까 그제사 마음을 놓고 좀 총소리가 가라앉자 그 부상당한쪽이 사정을 하는것입니다. 자기는 인천에 있는 배놈인데 며칠전에 벼락같이 군대에 끌려나왔다우다. 그래도 자기 혼자 같으면 견디여보다가 더 좋은 기회를 타서 거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벙어리—글쎄 한사람은 벙

어리라는거우다. 같은 배를 타던 배놈인데 함께 끌려나왔다우다. 그런데 그놈들이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벙어리를 어찌나 심하게 구는지 하도 불쌍해서 오늘 저녁에 도망을 쳤는데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 자기는 잡혀서 매를 맞을밖에 없으나 이사람은 아직 몸이 성하니 좀 안전한데 데려다달라고 부탁한단말이우다. 그래서 데리구 왔지우다.》

《아니 그럼 ―학민은 갑자기 긴장되여 소리쳤다.― 그 부상당한 사람은 어떻게 했소? 설마 버리고오지는 않았겠지?》

덕칠은 갑자기 기가 죽어서 고개를 떨구어버렸다. 그렇게 신이 나서 주어섬기던 이야기도 맥이 다 풀려버려서 뚝 잘라먹고 이을 궁리를 하지 않았다. 옆으로 목덜미를 쏘아보는 학민의 엄격한 시선을 거북하게 느끼며 덕칠은 가까스로 한마디

《일이 그렇게 됐습니다.》

하고 나지막하게 중얼거렸다.

《그렇게라니 어떻게 됐단말이요?》

《이것은 내가 남조선인민들을 해방하러 나와서 처음으로 범한 과오입니다. 처벌을 받겠습니다.》하고 덕칠은 서먹서먹해진 목소리로 좀 뚝뚝하게 말을 이었다. 《그러나 우리도 달리는 할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적들은 추격해오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40이나 된 사람이 몸이 장대해서 업고서는 얼마 가지도 못하겠는데 그 황소같은 사람이 죽어도 안업히겠다고 발버둥칩니다. 게다가 벙어리까지 그사람을 버리고는 못가겠다고 덤빕니다. 우린 정찰자료를 안전하게 가지고 돌아와야 할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하는수없이 벙어리만 가까스로 데리고 왔지요. 겨우 위험지대를 벗어나서 어느 산속에서 장교놈을 자루에서 꺼내놓고 심문했더니 이놈이 저는 경리장교가 돼서 작전에 대한것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딱 잡아뗀단말이우다. 그놈을 길을 들여놓고싶지만 우리사 미국놈이나 리승만이가 아니니 포로가 된 놈을 함부로 잡도릴 할수도 없지요. 그래서 한참 말싱갱이를 하는데 그 벙어리가 장교를 보자 서로 놀란단말이우다. 그리고 장교가 딱 잡아떼니까 옆에서 쏘아보고있더니 글쎄 그 벙어리가 말을 시작하지 않겠소다. 허참…》

덕칠은 이 대목에 이르자 다시 신이 나서 연신 감탄사를 섞어가며 손시늉, 몸시늉을 하기 시작했다.

학민은 이야기가 너무 꾸며놓은것 같아서 방금 위험한 처지에 버리고 온 한 탈주병때문에 불쾌했던 마음을 가시고 덕칠의 입귀를 지켜보았다.

《그래 어떻게 됐소?》

《가만 계시우다. 그 담배 한대 주십시오. 이거 목이 말라서 어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학민은 담배를 꺼내주며 말했다.

《허튼소리 말고 어서 이야기하오. 그래 무슨 소리를 합디까! 그 사람이 그럼 여태까지 가짜 벙어리노릇을 했단말이요?》

《나도 무슨판인지 통 모르지요. 좌우간 들어보십시오. 벙어리가 심봉사 눈뜨듯 입을 벌렸는데 거기서 무슨 말이 튀여나왔는고하니 〈와다구시와(나는)〉 한단말입니다. 이런 질색이 어디 있습니까?》

《뭐요? 그 벙어리가 일본사람이란말이요?》

학민은 하도 어이가 없어 멀뚱멀뚱 덕칠을 바라보았다. 덕칠은 장한듯이 히물히물 웃으며 담배를 뻑뻑 빨았다.

이때 농가의 결채 한칸에서는 문제의 벙어리—이시가와 신조가 꿰여진 노전우에 팔베개를 하고 드러누워 천반도 없이 흙매질을 해버린 천정의 갈비뼈처럼 드러난 서까래들을 올려다보며 뒤산 어디선가 들려오는 청아한 매미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그 지긋지긋하던 도피의 려정도 이제는 끝이 났다. 모든 시름을 벗어던지고 마침내 가닿아야 할 종착점에 이르렀다는 안도감이 드는것이였으나 웬일인지 잠은 오지 않았다. 전쟁이 일어나던 그날부터 벌써 보름가까이 쪽잠도 이루어보지 못한데다 하루에 백여리씩이나 패주하는 군대를 따라 줄달음을 쳐야 했고 멈추어서기만 하면 땅을 파고 무엇인가 쌓아올리고 기합을 당하고 그리다가 또 땀으로 범벅해서 가까스로 만들어놓은 그 축성물들을 변변히 리용도 못해보고 달아나야 했다. 몸도 마음도 솜처럼 나른했고 어디선가 폭 꼬꾸라져서 세상 모르게 잠을 자봤으면 하는것이 가장 절박하고 가장 큰 리상이요 희망처럼 생각되던 이 며칠간의 그의 정신상태였다. 그러나 막상 그 희망이 이루어져서 죽음의 고비를 분명 넘어선 지금에 와서는 무엇때문인지 그처럼 간절하던 소망이 천리만리 달아나버리는것이였다. 생각하면 고향 하까다부근의 해안을 몽유병자처럼 헤매다니던 1949년의 가을이 다시 돌아온듯하였다.

당시 쏘련에 원자탄이 있다는 트루맨성명이며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 등 세계를 격동시킨 사건들과 함께 일본에서도 제3차 요시다내각이 들어서고 로이야르 미륙군장관이 일본을 아시아에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기지로 육성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전쟁냄새를 풍기는 일련의 사건이 있었으며 전일본을 들끓게 만든 유명

한 《마쓰가와》, 《시모야마》 등의 날조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이시가와 신조는 그 모든것을 모르고 그 한사람만의 행복속에 취해살았다. 천황과 전쟁상인들을 제외한 모든 일본인민이 세계를 전화속에 휩쓸어넣은 전쟁도발의 협력자로 규정되여 어둡고 구질구질하고 배고픈 패전국인민의 참경에 처해있을 때도 그는 전후에 더욱 경기가 좋아진 이시가와병원의 외아들로 별로 배고픔도 부자유도 느끼지 않고 학교에 다녔었다. 48년에 학교를 졸업하고 그전부터 사랑해오던 처녀와 결혼을 하자 꿈같이 달콤한 신혼생활은 일체 소란스런 세상소요를 완전히 막아주는 견고한 방음장치였다. 그러나 하루아침 친정나들이를 간 안해가 길가에서 미군찌프에 유괴되여 바다가의 어느 송림에서 륜간 당한후 시체가 되여 돌아오자 그의 모든 꿈같은 행복은 실상 바싹 마른 사막우에 펼쳐진 신기루에 불과했다는것이 드러났다.

신조는 아버지가 벽장깊이 감추어둔 호신용 브로우닝권총을 훔쳐내여 안해가 미군에게 끌려갔다는 그 도래굽이의 솔밭속을 헤매다녔다. 그리다가 하루는 자기 안해가 당한것과 너무나 방불한 사건이 그의 눈앞에서 재연되였다. 한 녀학생이 다섯명의 미군에게 끌려왔다. 신조는 전후를 돌볼새도 없이 방아쇠를 당겨버렸다.

그날밤 해안일대에는 비상선이 쳐지고 미군엠피에 일본경찰들이 욱실거렸다. 아무래도 집에서 배겨나지 못할것을 깨달은 그는 어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고백하였다. 어머니는 그에게 약간의 현금과 금은보석 등의 패물 몇가지를 내주고 울면서 어딘가로 몸을 숨기라고 하였다. 바로 그때 엠피들이 현관으로 뛰여드는 소리가 들렸다. 신조는 뒤문으로 빠져 어둠속을 마구 달렸다. 인차 호각을 불며 엠피와 경찰들의 떼가 추격해왔다. 해안까지 쫓겨간 그는 하는수없이 바다로 뛰여들었다. 다행히 그는 헤염을 잘 쳤다. 한바다에 나왔을 때 조그마한 무인고도에 뜻밖에도 몰래 숨어있는 목선 한척을 발견한 신조는 정말 하늘의 도움이라고 생각하고 그 배로 기여올라갔다. 그것은 조선 남해안과 일본 구주연안으로 래왕하는 밀선이였다. 어머니가 쥐여준 값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는 패물들을 다 내놓고 구원을 청했다. 조선사람들은 그를 마산부근의 어느 해안에 부려놓았다. 그날부터 일년가까이 신조는 벙어리로 행세했다. 거지행세도 했고 남의 집 머슴살이도 했다. 일본말을 비치기만 하면 맞아죽으리라는 밀선 선원들의 충고가 어찌나 강하게 울려왔던지 그 끔찍한 고역의 나날에도 잠꼬대한번 하지 않았다. 그렇게 흘러흘러 다니던중에 어떻게

돼선지 제3대 동환이라는 배의 선원이 돼버렸던것이다.

1년, 불과 1년사이였다. 그 1년사이에 참으로 얼마나 기막힌 사실들이 많았던가. 1년사이에 스물일곱살에 난 신조의 머리칼은 희슥희슥해지고 미간에는 깊숙하게 내천자가 그려졌다. 생에 대한 애착이 이처럼 강력한가 하고 때로 의문스럽게도 생각해보았다. 그러나 깊이 따지고보면 말도 안통하고 풍습도 다르며 체취도 어색한 이민족들속에서 갖은 고역과 천대와 유린을 당하면서도 기어코 살아야 하겠다는 그렇듯 강력한 의욕이 생겨난 까닭은 단순히 생에 대한 애착만은 아니였다.

신조는 어렴풋해가는 기억들을 더듬으며 문득 발뒤축을 새삼스럽게 매만졌다. 전라도 어느 지주집에서 미투리라는것을 신고 들일을 하거나 산에 나무하러 다닐 때 구두와 게다에 익숙해진 그 뒤꿈치가 몇번이고 껍질이 벗겨져서 피가 터지던 일이 상기되여서였다. 이제 비로소 그는 자기가 살아야 할 필요성이 어디 있다는것을 똑똑히 깨달은듯하였다. 자신이 체험한 모든 사실들을 그대로 안고 무덤속에 들어갈수는 없다는 강력한 인간의지가 발동된것이였다. 모르면 몰라도 자기의 기구한 1년간의 체험을 그대로 일본인민에게 전달하면 대부분의 일본인민들이 자기들의 고통과 불행의 진정한 원인을 깨달을것이라는 신념이 생겨났다. 현대에 있어서 인민이 불행에 시달리고 제수명을 못채우고 요절하며 무지와 빈곤과 무권리의 생지옥속에서 헤매게 되는 그 원인은 결코 패전이나 승전에 있지 않으며 개인의 재질이나 타고난 운명에 있지 않았다. 그는 패전국인 일본을 떠나 이른바 광복이 됐다는 남조선에 왔으나 여기서도 인민은 일본보다 더한 무지와 빈곤과 무권리 속에 살았다. 여기서도 미국인은 주인이였고 려염집 처녀와 부녀들을 솔발으로 끌고가서 륜간하였다. 여기서도 지주가 있고 부자가 있으며 관리가 있고 경찰이 있고 요시다와 같은 미국의 주구가 정객으로 행세하였다. 그는 인민을 적대시하고 인민을 도탄에 빠뜨려 넣음으로써만 연명하고 비대해지는 사회제도의 흑막— 자본주의의 뒤골목을 헤매다녔으며 그것이 미국의 식민지라는, 고통이 절정에 이른곳이면 어디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을 이루고있는 공통성을 발견하였다. 대학과정을 영탄에 찬 패전분위기와 급속도로 밀려드는 쟈즈문화의 홍수속에서 허랑방탕해버린 그는 그 현상들의 본질을 지쳐빠진 육체의 한부분에 붙은 영양실조가 생긴 자기 뇌수로써는 포착할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직접 참가하여 목격한 인천대학살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이 시대를 지배하고있는 무서운

범죄의 힘과 교묘하게 위장된 그 무대뒤를 들여다볼수 있었다.

그는 같은 소대의 사병들과 함께 한사람의 장교를 따라 인천의 거리와 골목들을 살살이 뒤지고 집마다 방마다 들추어서는 머리를 빡빡 깎은 사람,젊은 청년,불손한 아낙네,엄한 늙은이,당시 살륙에 눈이 뒤집힌자들의 대중없는 심리상태여하에 따라 닥치는대로 잡아다가는 월미도일각에 있는 조탕과 룡궁각에 마구 쓸어넣었다. 7월 1일날부터는 큼직한 중선에다 한배씩 한바다로 실어내가서 총으로 마구 쏘아 바다에 집어넣었다.

2일날에는 탄알을 랑비한다는 련대장의 명령이 내려와서 그 다음날부터는 생짜로 두세사람씩 묶어서는 그냥 바다속에 처넣었다. 밀물때면 먼저 처넣은 시체들이 마치 원한을 삼키고 불어난듯 퉁퉁 부어올라서 부두가로 되돌아왔다. 삿대로 밀어넣고 총질을 해도 그 끔찍한 원귀들은 그냥 그 무시무시한 형상으로 살인귀들을 노려보았다. 그러다가 썰물때면 마치 보복을 다짐하듯 항구를 향해 뒤뚱거리며 한바다로 한바다로 흘러갔다.

시체들이 부두로 밀려들기 시작하자 장교들과 하사관들도 기분이 나빠서 밤에는 바깥출입하기를 두려워했으며 밤낮으로 술이 만취해서 죄없는 사람들을 마구 때리고 치고 하면서 광란의 극치를 연출하였다. 그러나 학살은 그치지 않았다.

그 학살의 목적을 두고 사병들사이에는 구구한 소리가 돌아갔지만 가장 유력하고 진실하고 또 근거있는 말로서는 그들을 다 못죽이면 그들이 장차 저들을 죽일것이기때문이라는것이였다. 그렇다!—신조는 생각하였다. —어느쪽 한쪽을 죽여야만 살아가게 되여있다. 《국군》과 리승만,요시다와 일본경찰은 인민들을 죽여야만 살아갈수 있고 미국은 아시아와 세계에서 조선과 일본인민들을 죽여야만 치부할수 있고 살아갈수가 있는것이다.

신조는 비로소 자기가 그 죽음의 모험을 거듭하면서 현해탄을 건너온것을 후회하였다. 건너올것이 아니라 그들과 맞서 싸워야 했을것이다. 나를 죽이고 나의 히데꼬를 죽여야만 쾌락과 부유한 생활을 누릴수 있는 그놈들을 반대해서 싸워야 했을것이였다.

《호림부대》는 그렇게 악착하게 마구 쳐죽이고 물에 빠뜨리고 쏴죽였어도 1,000여명 가까운 사람들을 감금해놓은채 7월 3일밤에 진격해오는 인민군대에 쫓겨 황급히 도망치고말았다. 그런데 인천에서 살해당한 사람수를 신문들은 2천명이라고 하였으나 신

조가 목격한것만 해도 5천명은 될상싶었다.

신조는 지금에 이르러 자기의 심정을 제때에 보승(수부장) 김형기에게 터놓지 못한것이 한스러웠다. 그 사람은 사실 자기를 위해 그 모험을 단행하였고 마침내는 부상당하여 그놈들에게 붙들려갔다. 십중팔구 살아나기는 어려울것이다. 그 악착한놈들이 탈주병을, 더구나 끝내 한사람은 놓쳐버린 그놈들이 용서할 까닭이 없다. 그러면 그럴수록 배에서부터 남달리 자기에게 따뜻이 대해주던 그 사람이 그리워지고 또 죄송스럽게도 생각되였다. 끝내 그는 자기가 벙어린줄 알고 죽었을테지! 내가 왜 이렇게도 살고싶어하는가를 그에게 터놓았더라면 그는 눈을 감으면서라도 나라는 인간을 리해하였을것인데… 하긴 터놓을만한 기회가 없기도 하였다. 배에서는 물론 같이 괴뢰군에 강제징모되여 끌려다니던 그 어처구니없는 희비극의 련속가운데서도 언제 한번 일본말을 입밖에 냈다가는 호기심으로라도 사람 하나쯤 눈섭도 찡그리지 않고 죽여버릴 살벌한 분위기가 가셔본적이 없었다.

《참 무서운 일이군, 전쟁이란… 그러나 전쟁이란 솔직한 적아간의 대결에 불과한것이지. 한쪽은 먹어야 치부하겠고 한쪽은 먹혀서는 죽을것이기때문에 부단히 일상적으로 진행하고있는 그 싸움의 한 절정에 불과한것이지. 그러고보면 이 싸움의 참화속에서 래일을 보고있는 조선사람보다는 눈앞에 번쩍거리는 잔돈푼에 현혹되여 호랑이아가리에 바싹 마른 제 목을 들이밀고 자유를 줍시사, 민주주의를 줍시사 그리고 독립을 줍시사 하고 빌붙고있는 일본사람들이 훨씬 한심한 일인지도 모르지! 어쨌든 싸워보자. 내가 이 싸움에서 조선사람들을 도울수가 있다면 이것은 곧 나의 조국과 나의 형제들에게도 도움을 줄것이니까! 어쨌든 나는 살아야겠다. 살아서 싸워야겠다. 무엇보다도 내가 체험하고 본것을 내 고향사람들, 일본인민들에게 알려야겠다.

이것이 내가 사람으로 태여난 떳떳한 도리요, 조국앞에 진 의무이기도 한것이다. …》

이시가와 신조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가운데 어떤 말마디들은 1년나마 계속된 벙어리생활에 어느덧 유절음을 갓 발음하기 시작하던 원시인의 그것처럼 굳어버린 혀를 타고 입밖으로 새여나오기까지 하였다.

《동무, 중대부에서 부르오.》

나어린 련락병이 와서 이렇게 말하며 손시늉으로 같이 가자는 뜻을 표시했다. 여전히 벙어리취급을 당하고있는것이다. 하긴 또

일본사람이니 서로 벙어리시늉을 안할수도 없었다. 신조는 이런 것을 생각하고 빙그레 웃으며 련락병의 뒤를 따라갔다.

중대부에는 전학민이 오덕칠과 부중대장 류경환을 데리고 앉아있었다. 류경환은 일제시대 공사판에서 10여년간 굴어난 사람으로 일본말을 잘 안다고 해서 통역으로 불러앉혔으나 학민이나 덕칠이도 웬만한 말은 다 통하기때문에 별로 통역할 궁리도 않고 함께 들으면서 감탄만 하고있었다. 중대장은 행군준비때문에 나가고 없었다.

신조는 자기의 기구한 1년간의 방랑로정을 잘 돌아가지 않는 혀를 억지로 구슬리며 대충 이야기하고 인천대학살사건이며 수향산정형에 대해서도 꽤 상세하게 언급한 다음 말하였다.

《여러분, 저는 물론 공산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라는것을 대강 짐작하고있습니다. 저는 미국놈과 우리 나라의 요시다와 또 여러분이 싸우고있는 리승만도당들은 다 한패라는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는 제 원쑤를 갚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싸워야 한다는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를 인민군대에 받아주십시오. 저는 아직 조선말을 잘은 모르지만 쉬운 말은 알아들을수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저의 이 간절한 소청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만 당신들 공산주의자들은 국경이 없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에 대해 말하고있는것 같습니다.》

류경환이 심중한 어조로 그 길다란 말을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통역하였다.

터놓은 뒤벽 퇴창가에 앉아 상반신을 흔들며 명상에 잠겨있던 학민이 불쑥 입을 열었다.

《그래 그놈들이 수향산에 둥지를 틀었단말이지? 좋소. 원쑤를 갚기요. 경환동무, 우린 여기서 우리 전사들에게 대전해방전투의 련습을 한번 시켜야겠소. 포위섬멸전의 련습을 한번 해보잔말이요.》

류경환은 빙그레 웃으며 학민을 바라보았다.

《찬성입니다. 련대장동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을 일층 무자비하게 결정적으로 격멸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놈들이 38선에서 여기까지 살아서 도망해왔다는것은 사실 우리가 사업을 더 좀 잘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련대장동지, 이 동무는 어떻게 할가요?》

《가만, 덕칠동무— 아니 이 동무가 졸고있구만… 여보, 덕칠동무!》

계속되는 정찰공작으로 잠을 못잔 덕칠은 벽에 기대여 분명 건들건들 졸고있었으나 학민이 부르는 소리를 듣자 시치미를 뻑 따고 태연하게 말하였다.

《다 듣습니다. 자부는줄 아시우다? 난 이 사람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죽겠수다.》

《허허, 사공 배 돌려대듯하는군. 좋소. 그래 동무 생각에는 이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그걸 다 알면 련대장동지에게 그렇게 성화를 멕였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 사람 말대로 우리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을 적용해도 무방할것 같은데… 그놈들이 국제적으로 련합해서 접어드는데 우리라고 못하겠습니까? 허지만 또 이 사람이 이런 일본사람이고보니… 참 난 알수 없어요.》

학민은 뒤통수를 긁적거리는 덕칠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며 그의 말을 심중히 들었다.

류경환은 여기서 벌어지고있는 모든 이야기는 자기와 상관이 없다는 듯한 태도로 심지어 자기가 통역노릇을 하게 돼있다는것도 다 잊어버린듯이 전투가방에서 수첩을 꺼내여 무엇인가 적고있었다. 그는 하루면 적어도 15시간이상을 그런 식으로 앉아있었다. 아무리 바쁘고 또 위급한 순간에도 자기의 크고작은 지어 손톱을 깎거나 전투때 떨어진 단추를 갈아다는것 같은 일도 잊어버리지 않았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듯 잘먹고 잘자는것이 사람을 살찌게 만든다면 그는 령락없이 가장 요란한 뚱뚱보가 됐을만큼 잘 살수 있는 두루춘풍격의 사람이였으나 워낙 꼼꼼해서 줄곧 그렇게 무엇인가 쓰고 만지고 이야기하면서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다나니 몸이 그만해있는 사람이였다.

한편 신조는 긴장된 얼굴로 세사람의 표정을 살피며 절반정도밖에 알아들을수 없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그들의 말에서 자기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생각할 때 도피의 1년간 한시도 몸에서 떠나본적 없는 아슬아슬한 긴장이 되살아났다.

《류경환동무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오? 이 사람의 그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말이요?》

《그야 그 동무가 옳게 생각했지요.》 하고 경환은 연필 쥔 손을 멈추지도 않고 대수롭지 않게 응대하였다. 《그러나 우리 인민군대에 입대시킨다는것은 문제가 서지 않지요. 우리 군대는 조선의 로동자, 농민의 군대이지 어떤 국제군은 아니니까요. 나는 이 사람이 진정으

로 우리를 도울 생각이 있다면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옳소, 내 생각은 이렇소.》 학민은 말은 경환에게 하면서도 얼굴은 이시가와를 향해 계속하였다. 《이사람이 우리 조선인민의 전쟁에서 자기의 리해관계를 발견한것은 어느 정도 현실을 똑똑하게 본것이요. 지금 우리 나라에 기여들고있는 미국놈들은 일본인들의 배를 타고 일본인선원들에 의해 수송되고있소. 그들이 쓰고있는 무기와 탄약도 적지않은 부분이 일본에서 일본인들이 만들어낸것이요. 이것은 사실상 일본인들이 자기의 무덤을 자기 손으로 파고있고 자기의 매장인을 자기 밥으로 배불리우고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조국해방전쟁은 다만 우리 조선사람의 자유와 행복을 지키기 위한것이 아니지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우리는 전세계 선량한 인민들의 지지를 받고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시아와 세계를 제패하려는 미국놈들을 결연히 손에 총을 들고 일어나 맞받아싸우기때문이지요. 우리가 조선에서 피를 흘리는것은 곧 일본과 다른 아시아나라들 또는 전세계의 피압박인민들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공헌을 하는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조선인민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장차 자신들이 미제의 노예가 될수도 있단말입니다. 이러한 때 이 사람이 그것을 어느 정도나마 깨달았다는것은 이 사람자신을 위해서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를 우리 군대에 받을수 있는가? 이것은 고려해볼 문제요. 우리 군대는 여기저기서 모여든 사람들의 무리가 아니라 준비된 조선혁명가들의 집단이요. 이 사람에게 후방에서 우리 인민위원회들의 도움을 받게끔 조치를 취해주시오. 내가 보건대 그가 서투른 조선말을 배우는것보다는 일본에 있는 자기 동포들이 하루속히 눈을 뜨고 원쑤가 누구인가를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는것이 더 급할것 같소. 후방으로 들여보내시오.》
학민은 말을 마치자 일어났다. 덕칠이도 따라 일어났다. 이시가와는 당황하여 학민을 따라나서려 하였으나 학민은 정중하게 그에게 손을 내밀고 류경환을 가리키며 그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고개짓을 하였다.
《이리 오시오.》
류경환은 골치아픈 일거리를 맡았다는 내색은 조금도 없이 사무적으로 이시가와를 자기 앞으로 불렀다.

15

구질구질하던 비는 개이고 뜨거운 태양이 연한 옥색하늘에 솟아올랐다. 륜곽이 희미한 엷은 구름이 수평선에서 하늘로 넓게 퍼져가는데 그 중심부는 놀랍게도 희게 부풀어올랐다. 진한 초록색바다가 까딱도 않고 조을듯이 누워있었다. 송도유원지와 월미도는 무성하는 여름을 맞이하여 푸른 송림과 물결에 씻기는 바위와 해볕에 뜨겁게 달아오른 백사장을 안고 찾아오는 사람 없는 계절을 원망하듯 외로움에 시달리고있었다. 이렇듯 해방된 인천거리는 외견상 아름답고 평화로왔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이 꾸며논 장엄한 허위에 불과하였다. 생선비린내가 풍기던 부두에 오늘은 시취가 풍겼으며 밀물에 흘러온 피살자들의 시체가 수천구씩이나 주인을 기다리고 누워있었다. 그러나 흠뻑 부풀은 그 시체들에서 누가 누군지를 분간하기는 쉽지 않았다. 실성한 유가족들이 까맣게 모여들어서 울며불며 남편과 아버지와 아들을 찾아다녔다.

세관부두근방에서는 검은 연기가 거대한 원주형기둥처럼 하늘높이 뻗쳐오르고있었다. 미국인들이 《한국》에 제공한 원조가운데서도 가장 뚜렷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언필칭 공치사를 잘하던 발전선이 어제 폭격에 파괴되고 그앞에 있던 유조땅크와 휘발유저장소가 폭파되였다. 불길은 종일을 타고도 가라앉지 않았다. 조을듯이 누워있는 초록색바다 한복판에서는 까만 점들이 나타나서 한동안씩 거리를 향해 별찌 같은것을 무수히 날려보내군하는데 그 별찌들은 만국공원기슭의 자작나무숲들을 쓸어눕히고 삼국련탄공장의 지붕을 날려보내고 송현의 오막살이들에 불을 질렀다. 그 까만 점들이 미국 제7함대 구축함과 순양함들이라는것을 시민들은 잘 몰랐으나 어쨌든 그것이 미국인들이 여태까지 자기들에게 제공해온 《원조》의 한 항목이라는것은 다 알고있었다. 새하얀 십자가처럼 생긴 난생 처음 보는 비행기들이 무섭게 빠른 속도로 날아와서는 뼈마디를 가는듯한 소리를 지르며 기총소사를 하고 소형폭탄을 퍼붓군하였다. 소문에 그리도 요란하던 비29편대가 하늘을 가득 메우며 북쪽으로 날아가는것이 보였다. 그렇게 날아가서 5분도 못되여 서울쪽에서는 천둥소리가 한동안씩 계속되는데 들리는

말에 서울은 벌써 쑥대밭이 됐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전쟁에 경험이 없고 더구나 분사식비행기며 함포사격을 겪어보지 못한 시민들은 첫 며칠간은 그저 놀란 눈으로 그 기분나쁜 음향과 불길들을 바라볼뿐 어떻게 처신할 방도를 몰랐다. 그러다가 하루는 적기들이 만국공원꼭대기에 있는 국립관상대를 폭격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놀랍게도 하늘높이 아스랗게 솟아있는 철탑꼭대기에서 한 인민군전사가 기관총을 휘둘러대는것을 보았다. 그 전사는 높은 공중에 홀로 그렇게 서서 내려꽂히는 적기를 마주향해 대낮에도 환하게 보이도록 불줄기를 뿜어올렸다. 적기들은 그것을 감촉하자 감히 저공을 못하였다. 그 철탑우의 전사는 매일같이 그렇게 중기를 들고 적기와 마주싸웠다. 다소라도 군대 내막을 아는 사람은 매일 같은 전사가 그렇게 한자리에 있지 않으리라는것쯤 쉬 짐작할수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멀리 불을 뿜는 철탑을 바라보며 옛이야기속의 장수처럼 그렇게 서있는 전사가 언제나 한사람처럼 보였으며 그리고 그가 지키고있는것이 다만 그 국립관상대뿐이 아니라 그의 시야에 틀림없이 들어올 인천시가전부라고 확신하였다.

인천을 지키고있는것이 그 철탑우의 전사 한사람일수는 없었다. 월미도와 수인역부근 그리고 조선기계일대의 부두가에서는 인민군포병들이 함포사격을 들이대는 적의 함대들과 맞서 싸우고있었다. 이리하여 파도소리와 배고동 그리고 갈매기소리에 지고 새던 이 거리는 밤낮으로 이어대는 포사격소리, 기총소사소리, 폭격소리로 뒤흔들렸다.

인천시민들은 남녀로소 가리지 않고 의용군에 탄원해나섰다. 심사는 깐깐하여 젊고 건강한 사람들을 내놓고는 대부분이 자기의 직장과 일터로 되돌아올수밖에 없었으나 그래도 사람들은 물리지 않고 복구된 인민위원회며 군사등록기관이며 심지어 직접 주둔부대를 찾아가기도 하였다.

서울기관구 로동자 한춘산과 김명기는 6월 29일밤에 부평일대에서 교전중인 인민군대를 만나 전투구역에서 이틀간 잠복해있다가 서울로 올라가서 곧바로 의용군에 입대하였다. 이렇게 의용군으로 편성된 련대들은 단기간의 군사훈련을 받고 일부는 전선으로 나가고 일부는 계속 훈련을 받으면서 경인지구방어려단에 속하게 되였다.

여기에는 북반부에서 새로 편성된 부대들도 들어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을 형성하여 물결처럼 쓸어들고 밀려나가는 전쟁판에서는 아차하는 사이 옆사람을 놓치고 일가가 산지사방으로 흩어지게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전쟁에서처럼 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쉽

지 않다. 이렇게 도가니속처럼 끓어번지는 때에 그렇듯 빈번한 상봉이 있다는것은 일견 기이한 일인듯하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러한 상봉들은 어떤 불가피한 합법칙성을 반영하고있는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두메와 벌판, 도시와 마을에서 쓸어나와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여간다. 더구나 조선전쟁과 같이 상대적으로 작전지역은 좁고 동원된 병력은 엄청나게 많을 때 그리고 그들의 운동속도가 동일하지 않을 때 중요한 전략적, 작전적 지점에서 무수한 상봉이 이루어지는것은 당연한 일인것이다. 뿐만아니라 후날 서로의 과거사를 이야기하면서 피차 얼마든지 만날수 있는 기회와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도 못만나고만 일이 더 많은데 놀라기까지 하게 되는것이다.

명기와 한춘산이 속한 부대는 인천에서 대렬편성을 다시하여 이왕부터 주둔해있는 부대들에 섞여 들어갔다. 여기서 명기는 한중대전사가운데서 사촌동생 성기를 만났다. 그들은 4촌간이였지만 어릴 때 헤여졌기때문에 서로 얼굴을 몰랐다. 그러던것이 하루는 관상대경비근무를 나갔다가 자기 고향땅의 농사일을 걱정하고있는 수더분하게 생긴 청년이 자기 동생이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아니 그럼 동무 아버지가 김병모 아니야?》

방금 보초를 인계하고 들어와서 가물징조가 보이는 날씨를 두고 몇마디 이야기를 나누던 성기는 깜짝 놀라 상반신을 일으키며 피기없이 하얀 명기를 멀뚱멀뚱 쳐다보았다.

《우리 아버지는 김병몬데 동문 그럼?…》

《네가 성기로구나? 얘, 내가 네 사촌형이다. 내가 명기다.》

명기는 와락 성기를 끌어안으며 소리쳤다.

《예?》

성기는 그래도 믿어지지 않는다는듯 한참이나 명기를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그 허옇게 여윈 얼굴에서 자기네 일가의 순박해보이는 커다란 눈과 꿋꿋한 골격형의 몸매를 발견한 성기는 마주 명기를 그러안으며 《형!》하고 목메여 소리쳤다. 얼마후 그들은 전우들이 떠들썩하게 에워싼 가운데 다시 서로의 얼굴을 물릴줄도 모르고 바라보았다.

《형님!》

《응?》

《참 얼마만이요?》

《글쎄 꿈같구나. …》

그들은 너무나 벅찬 감동에 그만 정신들이 멸멸해서 이런 막

연한 외마디소리를 마주외울뿐 말은 한마디도 건늬지 못했다.
엽에서 동무들이 적절한 훈수를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종일을 앉아있어도 그 모양으로 《형》 혹은 《성기야!》하고 서로 부르고 대답할뿐 다른 말은 꺼낼 엄두를 못냈을것이다. 다행히 사람들이 모이면 어디에나 모든 사물에 대한 주석자가 나타나는 법이다. 한춘산은 그들의 상봉에 대해 심각한 의의를 부여하였고 그들이 마땅히 무슨 말을 해야 할것인가에 대해서 제때에 조언을 주었다.
《허, 사람들이 그저 얼빠진것 같군. 그래서는 못쓰네. 동무들, 안그런가? 우리가 이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겠나? 그런데 이 동무들처럼 이렇게 멍해 마주바라보기만 하다가는 아무 재미가 없을거란말이야. 사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긴다는건 남북에 헤여져있는 형제들이 서로 만난다는것을 의미하거던. 그러니 동무들은 흠씬 기뻐해야 한단말이야. 알겠나, 흠씬 기뻐들하게.》
그런데 그도 역시 바로 어떻게 해야 《흠씬 기뻐》하는것인지는 알수 없었다. 그렇기때문에 명기가
《여보 한동무, 글쎄 이런 기막힐데가 어디 있소? 내가 동생을 만났단말요. 그런데 뭐 이 이상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기에 동무는 기뻐해라 기뻐해라 야단이요?》하자 그는 육중한 몸을 흔들며 껄껄 웃어버렸다.
《그렇게 멍청히 바라보고만 있으니까말이지. 허허허. 자, 그 춤이라도 추든지…허긴 춤이야 어떻게 추겠나. 넨장…》
춘산은 왕소라같은 주먹으로 눈귀를 훔치며 이번에는 성이 나서 소리쳤다.
《정 그럼 이야기라도 하란말야. 이야기라도 할게지. 넨장 서로 마주바라볼건 뭔고…》
바람결에 넓다란 자작나무잎사귀가 설레이고 맴맴—하고 매미가 울었다. 눈부신 바다와 하늘이 귀를 기울이듯 숨을 죽이고있었다.
《허허허, 첫상봉이군. 미국놈들을 몰아냅세. 이제 얼마나 많은 우리 사람들이 부모처자 형제를 만나겠는가? 그 술이 없어서 유감인걸.》
《좌우간 한상 차리긴 차려야 할것 같네. 그런데 여보게들, 우린 자릴 좀 피해주어야 하지 않겠나? 둘이 너무 수집어서 말도 못하네.》
《넨장 수집긴, 다 자란 사람들이 계집앤가…》

이런 소리가 두사람을 더욱 어줍게 만들었지만 어쨌든 그들은 서로 큰집과 작은집 형편을 대충 이야기했고 언젠가 중대장에게 말미를 얻어 만석동 집으로 찾아가보자는것과 그리고 명기는 아직 모르는 사촌매부 안휘태를 찾아가보자는 이야기를 하였다.

휘태는 인천방어려단산하 공병대대에서 공작하고있었다.

휘태는 전사견장을 달았지만 기사자격을 가지고있는것때문에 중대에서 특별히 귀중한 존재로 인정되였다. 지휘관들은 그에게 수시로 기술적인 문제들을 문의하였고 그자신이 공병축성물을 만들거나 어떤 기술적타산을 요할 때는 자진해서 계산을 하고 조언을 주었다. 자연기술문건을 작성하거나 상급지휘부에 기술문제와 관련된 련락을 가는 따위 일들이 많이 차례졌다.

오늘도 그는 해안연선의 방어시설에 소용되는 자재문제때문에 문건을 가지고 대대부에 가게 되였다. 대대부는 만국공원기슭에 있는 그전날의 륙군관사 몇채에 들어있었다.

거리에 나서니 게시판이며 담벽에 찢어진 미국영화광고의 쪼각이 너덜너덜한데 그옆에 전진하는 전차와 보병들의 위용을 그리고 《모든것을 전선의 승리를 위하여!》라고 쓰인 선전화가 붙어있었다. 또 군기를 펄럭이며 돌격하는 전사를 그리고 《대전 대구로! 부산 진해로!》하는 구호가 쓰인 선전화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기총탄에 맞은 어린애를 안고 머리를 산발한 어머니가 《이 원쑤를 갚아달라!》고 절규하는 선전화도 있었다.

휘태는 길다란 보총을 어깨에 걸치고 안경다리를 매만지며 그 선전화들을 들여다보았다. 어디에나 지도가 붙어있었다. 전선은 벌써 평택을 지나 천안일대에까지 나갔다. 자위대며 민청,녀맹 등의 완장을 낀 시민들이 그런 게시판이나 담벽앞에 서서 침방울을 튕기며 이야기들을 나누고있었다. 휘태는 벌써 수많이 보아온 그 직관물들에 끌려서가 아니라 해방된 인민들의 열정에 끌려 한참이나 그들을 바라보고섰다가 문득 시간을 너무 지체했다는것을 생각하고 걸음을 다우쳤다. 대대기술부가 든 집은 포석 같은 자그마한 블로크로 된 담벽에 에워싸였는데 그 담벽을 따라 굵은 향나무와 소나무가 심어져있고 뒤뜰안에는 아름드리 오동나무 몇그루가 서있었다. 휘태가 뒤뜰안으로 들어가니 기술부대대장실이며 서기들이 있는 방은 미닫이를 환히 열어젖혔는데 인적은 없고 오동나무뒤에서 난데없이 젊은 녀자의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옷구름을 당기며—는 초록물이 —된—다네 되—엔다네…》

가만히 보니 곤색치마에 진한 보위색저고리를 입고 허리를 혁띠로 단단히 졸라맨 처녀가 두다리를 쭉 뻗치고 오동나무밑둥에 기대앉아 장화뒤축으로 박자를 치며 악보를 들여다보고있었다. 얼굴은 나무그루에 가리운 우에 저쪽으로 돌아앉아서 잘 알수 없으나 둥그렇게 살이 오른 어깨며 물에 추겨서 빗어내렸으나 지졌던 자리가 완연한 그 쌍갈래머리며가 꽤 나이찬 처녀임을 인차 짐작할수 있게 하였다. 목소리는 휘태의 귀가 번쩍 뜨일만큼 고왔다. 그리고 가사도 변변히 잘 모르는것을 보아 분명 처음으로 악보를 쥔듯한데 별로 힘들이지 않고 단꺼번에 몇소절씩 불러제끼는것이 분명 신출내기가 아니라는 짐작이 갔다. 하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만큼 서뿔리 말을 걸수도 없어서 다시 빈방을 기웃거리는데 처녀가 인기척을 채고 고개를 돌렸다. 얼굴은 목소리보다 더 아름다왔다. 밀가루단지에서 빠져나온것처럼 새뽀얀 살결에 륜곽이 분명한 자그마한 얼굴과 길게 반달형으로 그려진 긴 눈섭이며 쌍까풀진 눈이며가 한눈에 배우같이 화려한 인상을 주는 녀자였다.

《아바이 누구예요?》

처녀의 야무지면서도 어딘가 응석비슷한것이 느껴지는 목소리를 듣자 휘태는 부지중 주위를 두리번거려보았다. 그러나 휑한 뒤뜰안에는 아무도 《아바이》 비슷한 사람은 없었다. 휘태는 문득 자기 나이를 상기하였다. 이제 스물아홉인데 벌써 《아바이》라… 하긴 중대에서도 꼬마들이 더러 아바이 아바이 하고 불렀지만 워낙 그가 붙임성이 없다보니 《아바이》구실을 잘못해서 오래 지속되지를 못했다. 그런데 낯선 처녀전사에게서 첫마디부터 《아바이》하고 불리우고 보니 왜 그런지 쓰거운 미소가 지어졌다.

《나 말입니까? 나 련락온 사람인데 기술부대대장동무 안계십니까?》

《안계셔요. 나한테 말씀하세요. 난 서기예요. 우리 〈아바이〉는 이웃집에 갔어요.》

《이웃집에?》 휘태는 블로크담너머를 힐끔 돌아보며 말했다. 《참모부에 갔습니까? 그럼… 그런데 이건 기술문젠데 동무가 꽤 알겠소?》

《기술문제예요? 그냥 두고가면 안돼요?》

《결론을 받고 가야 할텐데요.》

휘태는 이렇게 말하면서 그 녀자의 향수냄새가 강하게 풍기는 몸매며 훤한 얼굴이며 그리고 싹싹한 서울말씨에 신경을 썼다. 어디서 꼭 만난것 같은 얼굴이다. 그리고 목소리도 귀에 익은데 도무지 기

억에 떠오르지 않았다. 어디서 만났을가? 분명 낯이 익은데…

《아이,왜 그렇게 찬찬히 보세요. 난 사흘전에 려단에서 배치되여왔어요. 날 못믿겠으면 좀 기다리세요. 인차 오실거예요. 그런데 아바이…》

《네? 뭐 말입니까? 난 뭐 동무를 못믿어서가 아니라…》

휘태는 괜히 허둥거리며 변명과 반문하는 말을 뒤범벅을 만들면서도 역시 그 녀자의 얼굴에서 시선을 뗄수가 없었다.

《저,이게 무슨 말이예요? 옷구름이란거 말이예요. 꽃구름이 아닌가요? 어제 오락회에서 어떤 동무가 부르는데 재미가 있어서 대충 받아적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곡도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처녀는 수첩에서 찢어낸 자그마한 종이앞뒤에 연필로 마구 써넣은 게발그리듯한 서투른 글씨와 글씨에 비해서는 너무나 능숙하게 그려놓은 악보를 내보였다.

휘태는 잘은 몰랐으나 한번 듣고 적은것치고는 놀랄만큼 정확하였다. 오락회에서 불렀다는 전사가 잘못 불렀는지 혹은 그 처녀가 잘못 적었는지 몇개 부호들이 왕청같은데 붙어있어서 그때문에 노래가 맥이 빠지게 되여있으나 기본적으로 그대로 불러서 큰 랑패가 없을듯 하였다. 휘태는 그 몇군데를 고쳐주고 말했다.

《옷구름이 아니라 옷고름이지요. 옷고름을 담그면 초록물이 든다네—지요. 바다물이 그렇게 푸르단말입니다.》

《오라,그러니 이게 고기잡이하는 노래로군요. 아이 그런걸 난 또… 호호호…》

처녀는 배를 그러쥐고 웃었다. 스무살은 훨씬 넘었겠는데 그 말이며 거동에는 어딘가 천진한것이 도가 지나 아주 맺힌데 없는 공허한 인상을 주었다. 그런가 하면 그 커다란 눈확언저리가 멍든것처럼 퍼런것이며 긴장이 풀어진 입귀며가 어디라없이 정사에 지친 유흥가의 계집을 련상시키는데가 있었다. 이런 녀자를 내가 어디서 만났을가?

휘태는 시간 가는줄도 모르고 그 녀자를 힐끔힐끔 훔쳐보며 분주히 머리속의 기억을 들추었다. 그러나 그의 머리에 떠오르는 녀자란 오직 밥함지를 해이고 검산굴속에 찾아오던 무명치마저고리의 처녀 경패와 군대로 나올 때 국보를 안고 문전에서 그렁한 눈으로 하염없이 자기를 바라보던 허드레옷에 행주치마를 걸친 안해 경패의 모습이 얼른거릴뿐 다른 얼굴은 없었다. 문득 《이 원쑤를 갚아달라!》는 오다가 본 선전화가 떠올랐다. 어쩌면 그 그림속의

얼굴이 경패와 비슷한데가 있다고 생각되였다. 일순 끔찍한 광경이 휘태의 머리속을 스쳐 지나갔다. 적기들은 매일같이 후방깊이로 날아갔다. 평화적주민지대를 야수적으로 폭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놈들을 빨리 쳐죽여야 할텐데! 그런데 그놈들은 더욱 파렴치하게 로골적인 무력간섭의 길에 들어섰으니 장차 이 싸움이 어떻게 될것인가? 정말 무사히 살아남아주었으면… 그러면 한시바삐 고향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며 동생들을 해방하고 돌아갈텐데… 그런데 대체 저 녀자는 어디서 만났던가?

《룩대바다— 여울물을…》

처녀는 휘태의 집요하게 파고드는 시선을 력력히 느끼면서도 태연하게 어쩌면 그때문에 더욱 신이 난듯한 태도로 고개를 흔들며 노래를 계속하였다.

30분이나 기다렸을 때 기술부대대장이 회의를 마치고 돌아왔다. 젊고 미남형으로 생긴 그는 처녀를 보자 잠시 걸음을 멈추고 서서 책망도 아니요, 칭찬도 아닌 목소리로

《리옥자동무는 그저 노래로군.》

하고 껄껄 웃었다.

《아이 기술부대대장동무, 이제 오세요? 저 아바이가 아까부터 기다리고있는데요.》

옥자라고 불리운 그 처녀는 가볍게 일어서더니 새끼손가락이 벌어지게 손을 갖다붙이고 맵시있게 경례를 하였다.

리옥자라… 처음듣는 이름인걸… 휘태는 이런 생각을 하며 부대대장앞에 정보로 걸어나갔다.

《기술부대대장동지, 3중대 전사 안휘태 만날수 있습니까?》

《동무 또 왔구만. 이번에는 또 무엇을 달라는거요? 동무들은 무슨 궁전을 지을 차비가 아니요?》

기술부대대장은 휘태가 내미는 기술문건을 조급히 받아쥐며 말했다. 그는 문건을 꼼꼼히 따져보더니 폭약만은 선선히 해결해주었다. 그러나 작업의 규모는 상당한 정도로 줄이라는 결론을 주었다. 휘태는 인차 돌아섰다.

《아바이, 또 오세요.》

잠시 잊어버리고있었던 처녀가 인사를 하였다. 그바람에 돌아오는 길에는 또 그 녀자를 어디서 만났을가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걸었다.

중대에 돌아오니 뜻밖에 성기가 낯선 전사 한사람을 데리고 면

회를 와있었다. 그런데 그 낯선 사람도 어디선가 만난듯한 얼굴이였다. 자 이거 내 정신이 잘못된게 아닌가 하고 고개를 기웃하는데 성기가 히죽이 웃으며 다가오더니

《매부, 여기서 사촌형을 만났소. 그 민가네에게 쫓겨서 인천으로 갔다던 큰아버지네 말이요.》하고 말하였다.

《아니 그럼… 이거 참 반갑군. 난 안휘태입니다.》

《인사하시우. 이 사람이 경패 새서방이요.》

휘태는 명기와 손을 잡으며 문득 민환규를 상기하였다. 동경에서 한번 만났을뿐인 얼굴이지만 전부터 소문을 들었던 관계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었다.

(흠, 그 처녀가 어디서 만났던가 했더니 민환규와 착각을 했군. 그런데 남남끼리 더구나 남자와 녀자가 그렇게 목소리까지 비슷하다니… 참 귀신이 곡할 노릇이군…)

이렇게 생각하며 휘태는 명기에게 말했다.

《사촌간인데 참 비슷하군요. 우리 집사람과 이 처남과는 모두 한판에 찍어냈다구들 하지만 사촌끼리도 많이 닮는군요. 피줄이란 속일수 없는 모양이지요.》

《허허허, 그야 어디 가겠습니까? 망둥이새끼가 잉어를 닮겠습니까? 그런데 모두 이렇게 만나구보니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안도 그렇지만 나라를 두고 말해도 이젠 미국놈이 접어들었다는게 개떡같군요.》

새로 만난 처남매부끼리 이야기하라고 내버려두고 성기는 저만치 떨어져서 나무그늘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서늘한 해풍이 불어왔다. 아득한 수평선우에 빨갛게 노을이 불타고있었다. 물이 쓸려서 앙상한 벌판이 드러난 가까운 해안에는 어느덧 락조가 고이기 시작했다.

《형, 미국놈들이 그렇게 문문하진 않을거요.》

성기는 담배연기를 내뿜으며 불쑥 이렇게 말했다.

앉을사이도 없이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있던 두사람은 이미 지나가버린 이야기를 두고 하는 성기의 그 퉁명스러운 말에 한동안 떨떨해서 멍청해 있다가 갑자기 열적은 생각이 들어 껄껄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웃지를 마시오. 수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소? 정신을 차려야 할게요.》

성기는 여전히 돌아보지도 않고 수평선에 걸려있는 볕이 엷아진 태양을 바라보며 중얼거리듯 말했다.

제 4 편

1

황은식대대는 후속대대들이 도착한지 얼마가 못돼서 인차 행군을 시작하였다. 밤을 타서 30리를 돌파한후 인차 출발진지를 차지하고 새벽5시에 돌격으로 이전하라는 련대장의 명령이였다. 정찰자료에 의하면 《호림부대》는 서상산의 반영구화된 진지에 주력이 전개해있었고 골짜기 하나로 련결된 그 전면 수향산에 전투경계진지가 있는데 한개 대대나 되는 무력을 거기에 배치해놓고 현대적인 공병차단물체계를 축성해놓았다는것이다.

선행한 전투와는 달리 적들은 이미 만반의 전투준비를 갖추고 아군의 공격을 대기하고있는 셈이였다. 그러니 응당 면밀한 전투조직이 있어야 할것이였다. 그러나 학민은 전에없이 조급하게 서둘렀다. 주력이 미처 행군준비를 갖추기도전부터 1대대를 내몰았으며 포병들은 예정했던 휴식시간이 끝나기도전에 곧장 수향산전투를 지원하라고 대대와 함께 내보냈다.

그러면서 황은식이더러는 련대주력이 도착되지 않더라도 대대가 단독으로 수향산을 돌파하고 그다음은 방어로 이전하여 적의 반돌격을 격퇴하면서 포병들을 이동시키고 포병이 수향산에 진지를 차지하거든 그 즉시로 다시 서상산의 적 본거지를 공격하라는것이였다.

수향산전투와 관련된 련대장의 말과 거동을 종합해보면 련대주력은 1대대가 전투를 진행하는동안 푹 쉬게 해서 대전전투에 준비시키자는 의도같기도 했다.

그러나 황은식은 불평은커녕 희색이 만면해서 떠났다. 평소부터 류달리 자기에게 엄하게 대하던 련대장이 막상 어려운 전투를 앞에 두자 별수없이 자기의 용감성에 의거하지 않을수 없었다고 셈평좋게 해석하였다. 《그러면 그렇겠지.》하고 어깨가 으쓱해진 황은식은 젊은 지휘관들에게 흔히 있는 또 그것 없이는 전투를 지휘할수도 없는 불타는 영웅주의에 사로잡혀 화끈 달아올랐다. 이판에 한번 실력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의 다부진 몸집은 팽팽 소리가 나도록 긴장이 되였다. 키다리 3대대장 위병수가 샘을 낼 일을 생각하니 깨고소하기도 하였다. 만일 여러 대대장들이 함께 명령을 받았더라면 필경 그 싱거운 친구가 또 어떻게든지 말썽을 부리고 방해를 놀았으리라고 짐작되자 이번처럼 련대장의 결단성이 고맙게 생각된적은 없었다.

제기된 명령에 대한 대대장의 이런 흥분과 앙양된 사기는 그대로 행군중에 있는 전사들에게 전달되였다.

전쟁에서 지휘관들의 기분상태처럼 전사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것은 없다. 지휘관이 겁을 집어먹으면 그가 비록 아무 눈에도 띄지 않게 으슥한 감시소에 외따로 앉아있다 하더라도 전사들은 인차 그것을 감촉하고 심지어 총소리 하나 울리지 않아도 크나큰 불안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지휘관이 자신만만하게 앉아있으면 비록 보급이 끊어지고 식량이 떨어지고 통신이 두절되여도 비발치는 적탄속에 앉아 태연히 롱을 주고받으며 여러 호주머니의 담배가루를 털어서 두툼하게 마라초를 말아가지고는 엇구수한 냄새에 취할수도 있는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황은식의 신이 난 걸음걸이와 으쓱거리는 어깨와 떠들썩한 목소리는 전사들에게 뒤따라오는 포병들의 지원만 못지않게 큰 힘을 안겨주었다.

행군중에 이야기는 금지되여있었기때문에 전사들은 묵묵히 걸었다. 그러나 으스레한 저녁안개속에 얼른거리는 땀배인 얼굴들에는 다같이 적을 한시바삐 만나보고싶어하는 의욕이 력력히 떠돌았다.

길다랗게 늘어진 여름날의 황혼이 어느덧 꽁무니를 사렸다.

시간상으로는 이미 밤이였다. 그러나 앞뒤가 툭 트인 산모퉁이에 나서면 아직 신문이라도 읽어낼만치 해빛이 남아있었다. 대대는 산속으로 난 오솔길을 따라 골짜기로,골짜기로 들어갔다. 척척히 땀이 내배이는 어깨며 등을 씰룩거리며 몇번 이마전을 훔치고나니 벌써 오불꼬불 천엽속처럼 뒤꼬인 산속에서 동서남북을 분간할수 없게 되였다.

방금 빠져나온 산을 재벌 도는것 같기도 하고 일껏 남쪽으로 다

우쳐가다가 어느새 북쪽으로 돌아선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전사들은 그런것에는 전혀 아랑곳없다. 그들의 앞에는 지휘관이 있고 그 지휘관의 수중에는 지도와 라침판이 있으며 또 그앞에는 정찰과 통신이 있다. 그들이 가는 한발자욱, 한발자욱을 심지어 평양에서도 서울에서도 날날이 지켜보고있는것이다.

사실 대렬에 선 전사들로서는 자기의 발길이 남을 향해있는지 북을 향해있는지 분간할수 없다. 극히 경험이 있는 전사들은 혹 별이며 나무며 기타 지형지물을 통해 방위를 분간할수 있다해도 특별한 경우외에는 그런 시끄러운것때문에 골치를 앓지 않는다. 전사들이 아는것은 자기의 발길이 가닿는곳에 적이 있고 그 적을 쳐물리쳐야 한다는 그것이다. 그러기 위해 발싸개를 잘해야 하며 방아쇠만 당기면 언제든지 총알이 나가게끔 무기를 깨끗이, 눈동자와 같이 다루어야 한다는것, 그렇게 하면 결국 원쑤들을 남해에 처넣게 되리라는 확신이 있다. 따라서 전사들의 생각은 한끌은 전 전선적인 넓이에 가있고 다른 한끝은 자기의 신변에 와 머물러있는셈이다.

이때 세철은 그가운데 한끝 즉 전 전선적인 넓이에서 이 전쟁을 생각하며 걸었다. 그는 문기수와 함께 분대에 배치되자 곧 위대한 수령님의 방송연설이 실린 이미 나들나들해진 《조선인민군》신문을 받았다. 둘이 함께 읽노라고 밀고닥치는사이 어느덧 출발준비구령이 내려 한번 읽어보았을뿐이였지만 그 구절구절들은 바로 자기자신의 처지와 생각을 두고 말씀하신것처럼 몸가까이 느껴졌었다.

(50만의 지원병이 나왔다… 그러니 그 50만속에 나도 섞여있겠군.)

마침내 별빛이 산우에 반짝하더니 초생달이 놋색 얼굴을 내밀었다. 어디선가 골짜기 으슥한곳에서 소쩍새가 울었다.

《넨장, 여보게 세철이, 내 이럴줄 알았다니까. 나야 전쟁이 처음이지. 헌데 이제는 전쟁이 뭔지 똑똑히 알겠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바람에 줄곧 볼이 부어있던 문기수가 더는 참을수 없었던지 입귀를 씰룩거리며 심술스럽게 속삭였다.

《전쟁이야 나도 처음이지.》

세철은 기수의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미지근하게 대답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여전히 방송연설에 대해 생각하였다.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는 일은 조선인민자신의 일입니다.》

세철은 신문을 처음 받았을 때도 이 대목에 와서 깊은 생각에 사로잡혔었다.

(조선인민자신의 일이라…)

지금도 저물어오는 골짜기를 빠져나가면서 이 《자신의 일》이란 말을 몇번이고 곱씹어보지 않을수 없었다.

세철은 물론 조선인민의 자유와 독립을 어떤 다른 사람이 해주겠거니하고 생각한적은 없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숫제 그런 문제 즉 조선인민의 자유와 독립을 남이 해줄것인가, 자체의 힘으로 할것인가 하는 문제를 그렇듯 심각한 문제로 제기해본적조차 없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그의 일상적인 생각이 많은 경우에 직장과 고향마을의 범위를 멀리 벗어나지 못한데도 원인이 있었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그것이 너무나 정당하여 새삼스럽게 옴니암니 따져볼 필요도 없을만큼 확고한 잠재의식으로 되여있었기때문이였다. 지금도 세철은 생각하는것이였다.

(독립을 남이 시켜주는 법이야 없지 않는가? 그런것도 독립인가?)

그러나 방송연설을 읽고 이 전쟁의 원인과 그 규모, 그 의의를 깊이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미제침략자들의 대대적인 무력간섭앞에서 자체의 힘으로 자유와 독립을 쟁취한다는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렴풋이나마 느껴지는것이였다.

그것은 적어도 여직껏은 지구상의 어떤 민족도 감히 맞서지 못할 무서운 존재로 인정되여온 아메리카라는 적을 반대하여 여직껏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약소민족으로, 심지어 악의에 찬 자들이 한때 독립할 능력의 유무조차 시비해온 조선민족이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것을 의미하였다.

세철은 긴장에 부르르 몸을 떨었다.

《전쟁이야 나도 처음이지.》

이렇게 대답하면서 세철은 마음속으로 자기자신을 향하여 말하는것이였다.

(그러나 어쨌든 이겨야 하네. **김일성**장군님의 말씀처럼 이겨야만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쟁취할수 있네.)

문기수는 제딴에 무슨 묘한 말이 생각나서 버릇대로 비꼬인 허두를 뗀것이였는데 세철이가 뚱딴지같은 대답을 했기때문에 그 묘한 말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되였다. 그래서 저으기 불쾌한 목소리로 따졌다.

《자네 뭘 그리 깊이 생각하나? 벌써 겁이 나나?》

《겁이라니?》

《미국놈이 겁이 나는가말야?》

《내가? 그런데 그건 왜 묻나?》

세철은 어처구니가 없어 옆에서 훨훨 걸어가는 기수를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남은 장군이야 하는데 왕청같이 받으니까 그렇지.》

《허허허 사람두, 동무가 뭐라고 말했게 그리 수다를 떠는가?》

《내 말말인가? 그거야 별게 아니지. 내가 비로소 전쟁이 뭐라는걸 알게 됐단 그말이야.》

《그래 전쟁이 어떻단말인가?》

기수는 이미 때가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았으나 어쨌든 시작한 말이니 끝을 내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할 때면 의례하는 그 헛기침을 한번 깇고 심중한 어조로 말했다.

《나는 이왕에 사람들한테서 전쟁이란 굉장히 시끄러운것으로 들었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지. 아무래도 총소리도 나고 대포소리도 나고 고함도 지를게 아닌가? 그런데 알고보니 그건 훈련할 때나 그렇고 남에게 말할 때만 그런것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단말이야. 보게 저 초생달을… 어디 전쟁같은가? 그리고 소쩍새소리도 들리지. 넨장 이게 무슨 전쟁인가? 우리더러는 고함은커녕 소곤거리지도 못하게 하지. 그러니 전쟁이란 뭔가? 이건 발바닥으로 비지를 만드는것이네. 난 벌써 물집을 열아홉개나 터쳤다네. 이게 말하자면 전쟁이거던. 전선에 나오면 좀 다를줄 알았더니 웬걸 그저 걷기내기로구만.》

세철은 기수의 말이 제 생각과 어찌도 비슷한지 그만 빙그레 웃었는데 이때 그들이 소곤거리는 말을 누가 엿듣기라도 한듯 《뒤로 전달, 떠들지 말것!》 《뒤로 전달, 떠들지 말것!》하는 신호가 전달되였다.

먼데서 개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농촌부락을 멀리 에돌아 다시 산으로 접어들었다. 대렬은 가끔 멈추어섰다가는 이번에는 산등성이로 마구 내달리기도 하였다.

《그런데 대관절 그놈들은 어디로 가버렸는가? 그놈들이 벌써 부산에서 배를 타고있지 않는가? 그럼 랑패걸.》

문기수는 덜렁거리는 보병삽을 한손으로 눌러잡고 산등으로 올리뛰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게 누구요? 부산에서 배를 탄다구? 얼빠진 소리 하지두 마오. 적들은 코앞에 있소!》

막동이 옆을 지나가다가 한마디 했다.

《코앞에요?》

문기수는 이렇게 말하며 그 코앞쯤 되는데를 살펴보았으나 이제는

밤이 깊어서 코앞이고 눈앞이고 캄캄한 어둠이 빼곡할뿐이였다.

《넨장, 코앞엔 벼룩이새끼도 없는걸.》

그런데 그놈들은 이때 정말 배를 탄것이 아니라 코앞에 있었다.

마침내 대대는 우연히 멈추어서듯 한 산꽉대기에 멈추어섰다. 그러자 캄캄한 어둠속에서 그들의 거동을 지켜보고있었던것처럼 기관총소리가 뚜루룩하고 울려왔다.

《이크, 총소리가 나긴 난다.》

문기수는 기뻐서 그러는지 놀라서 그러는지 알수 없는 소리를 질렀다.

《발바닥으로 비지를 만드는것》이 곧 전쟁이라는 그의 정의는 누가 듣더라도 황당하다는것이 명백하였지만 사실 전쟁이란 그런것이 아니였다. 기관총소리와 소총소리가 한참 들려오다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마주 선 산릉선에서 번쩍 하고 불길이 솟더니 미처 엎드릴새도 없이 소나무숲에 우지끈 하고 태질을 하는 소리가 났다. 포사격이였다. 긴가민가 하는 심정으로 전호를 파고있던 전사들은 비로소 그 기관총과 포소리가 울려오는곳이 수향산이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포사격은 밤새 계속되였다. 미리 조준을 해두었던 모양으로 포탄은 대대가 전개한 릉선 후면에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떨어졌다.

푸름푸름 동이 터올무렵 황은식은 3중대를 가파로운 수향산 북쪽기슭에 전개시켰다.

세철은 돌격선에 엎드려 아찔하게 솟아있는 릉선을 바라보았다. 서서히 걷혀가는 어둠의 뒤로 안개가 휘감겨도는데 빼곡한 소나무숲의 컴컴한 륜곽이 시야를 가로막았다. 마지막 별빛이 어스레해지자 마침내 나무그루 하나하나가 다 드러났다. 세철은 문득 밤이슬에 촉촉해진 군복을 부시럭거리며 상반신을 일으켰다. 잎이 누렇게 황이 들어가는 소나무들의 등걸마다에 무슨 좀이라도 쓴것처럼 하얗게 칠을 해놓았다. 이상한 소나무도 있다는 생각에 머리를 든 세철은 바로 눈앞에서 껍질을 하얗게 벗겨서 빨간 송기가 선혈처럼 내배고 눈물같은 송진이 흘러내린 늙은 소나무 한그루를 보았다.

세철은 더욱 크게 눈을 부릅뜨고 이 엄청난 수림의 재난을 주시하였다.

나무마다 헐벗어있었다. 이미 지난해에 벗긴 껍질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전에 또다시 아래우를 벗겨내여 벌써 우듬지부터 죽어가는 나무가 허다하였다.

이렇듯 백화가 다투어 피여나 무성하는 철에 이렇게도 송두리채 벗기운 산의 모습이야말로 남조선인민들의 배고픔에 대한 생생한 고발이기도 하였다.

세철은 무심중 고개를 돌려 골짜기너머 벌판쪽을 바라보았다. 암회색으로 혹은 흑색으로 변해버린 오두막들이 허기에 비칠거리며 서로 의지하듯 이리저리 실그러진 동네들이 점점이 흩어져있다. 그 동네사람들이 이 아군 산들을 다 벗겨버릴수는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어쩐지 세철의 머리에는 그 초가집들의 쉬파리가 득실거리는 부엌이며 아래배가 빵빵한 아이들 심지어 거적으로 둘러막은 변소까지가 생생하게 그려지는것이였다. 그 서글픈 풍경들은 세철이에게도 낯익은것이였다.

세철이도 송기를 먹고 며칠이고 뒤를 못봐서 애를 먹던 기억이 있다. 부황이 든 어머니가 벼랑을 기여다니며 산나물을 캐오던 일, 아카시아순을 너무 잘라먹고 설사를 만났던 일, 갖가지 기억이 한꺼번에 되살아났다.

《죽일놈들! 너희들이 인민들을 이렇게 굶겨놓고서 그래도 싸움을 하겠다고… 개같은것들!》

적들의 포사격소리는 새벽녘이 되자 일층 기승을 부렸다. 그런데 갑자기 더 요란한 폭음이 울려왔다. 아군 포진지에서 준비사격을 시작한것이였다.

그처럼 뽐을 내며 제마음대로 소리를 치던 적의 대포소리는 일순 숨을 들이긋는듯하였다.

쉭—쉭— 꽝 꽝 꽈르릉 쉭 꽝…

한편 그 요란한 비행음과 폭파음밑에서는 시작도 종말도 없이 구르릉—구르릉—구르릉—구르릉— 하는 메아리가 엄청나게 큰 악단의 대고소리처럼 울리는가 하면 무엇인가 부러지고 터지고 마사지는 소리가 울려왔다. 뚝—딱—휴—툭—툭—탁

그러나 그것은 흔들흔들 요동을 치는 땅에 배를 깔고 엎디여 귀를 기울일 때나 느껴지는 소리였고 현실적으로 고막을 때리는 소리는 꽝 꽝—꽈르릉—쉭—꽝 하는 폭음이였다.

세철은 아군의 포사격소리를 들으며 그리고 그 포탄이 날아가 터지는곳에서 적의 화점들과 철조망들이 마사지고 튕기고 하늘로 날아오르는것을 보면서도 포소리만 못지않게 높뛰는 자기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었다.

그는 적을 앞에 두고 그렇게 아군의 포소리를 가까이서 들어

보기는 처음이였다. 그의 가슴이 그렇게도 높뛰는것은 다만 자기가 지금 돌격전에 엎드려있다는 생각이나 앞으로 몇분후이면 적이 총구를 겨누고있는 참호로 달려가야 한다는 생각때문만은 아니였다. 아군의 포사격소리는 물론 이제 결정적인 돌격의 시각이 가까와졌다는 신호이기도 했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긴장된 순간을 예감했기때문에 심장이 뛰는것도 아니였다. 사실 세철은 첫전투였지만 그런 푼수치고는 이상하리만큼 가슴이 평온하였다. 어머니가 바래주던 검산역에서부터 여기까지 줄곧 적을 따라잡으려고 초조해있었기때문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자기가 이 전선에서는 최전선에 서있다는 자각이 오히려 가슴을 흐뭇하게 해주기까지 하였다.

아니다, 세철이가 느끼는 흥분— 그것은 돌격선에 엎드려서 포병들의 준비사격을 들을 때면 어떤 전사든지 꼭같이 체험하게 되는 그 앙양되는 전투적사기와 용솟음치고 일어나는 영웅주의였다. 그것은 비단 그가 첫전투에 참가한 신입대원이기때문에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비록 그가 전장에서 환갑을 맞이하는 한이 있더라도 매번 포사격때마다 느끼게 될 흥분에 불과한것이였다. 다만 세철이는 그것을 처음 경험했기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했고 지어 가슴이 이렇게 마구 뛰는것으로 보아 자기는 혹 겁쟁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해보았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가 바로 그런 생각을 하고있을 때 누가 옆에 기여오더니 귀전에 대고 소리쳤다.

《어떻소? 심장이 쿵쿵 뛰지?》

돌아보니 분대장 리막동이였다.

세철은 얼굴이 화끈했으나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수는 없었다.

《네, 좀 떱니다.》

《아마 굉장히 떨거요. 일없소. 이제 와—하고 내달리면 심장도 제자리에 들어앉을거요. 동무는 그 목을 조심해야겠습데. 내 낮에 보니 처녀모가지처럼 하얀게 위태위태하더만. 허허허.》

막동은 어깨를 툭 치면서 이를 드러내고 히쭉 웃었다. 송곳이 어방에서 노란 금이가 반짝하였다. 세철은 게면쩍어져서 그 계집애 모가지같다는 목을 쓱쓱 문질렀다.

《아니, 저 동무는 왜 저모양인가…》

막동이 목소리에 옆을 돌아보니 4～5메터 떨어져 누워있던 문기수가 갑자기 몸을 뒤채며 혁띠밑으로 군복앞자락을 뽑아내여 털고 두들기고 야단을 치며 돌아간다.

《에이 재수없게… 에끼! 더러운것, 나와!》

그래도 시원치 않는지 마침내 곤색전포를 끄르고 팔을 목덜미로 집어넣더니 흠칫하며 《에끼!》하고 소리를 쳤다. 불에 덴것처럼 홱 쥐여뿌리는 그 손끝에서 무엇인가 날아나는듯한 인상이 들었으나 정작 무엇을 가지고 그 야단을 치는지는 알수 없었다. 막동이가 배밀이로 다가가니 아닌보살하고 다시 엎드리는데 입이 잔뜩 부어올랐다.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막동이가 무엇이라고 묻자 기수는 저으기 불쾌한듯 이렇게 쏘아붙였다.

《소대 돌격준비— 앞으로—》

구령소리가 쨍하는 순간 어느새 와— 하고 좌우에서 전우들이 내달아갔다.

세철은 흠칫해서 저도모르는사이 땅을 차고 일어났다.

《만세—에—에—》

《만세—에—에—》

바위가 휙휙 뒤로 물러섰다. 소나무가 지나간다. 밑등걸은 역시 하얗게 벗겨졌다. 자작나무덤불, 바위, 두두룩한 묘, 그다음은 깊지 않은 웅뎅이, 무엇인가 미끈하면서 발밑이 미끄러졌다. 무엇을 밟았는지 미처 돌아볼새가 없다.

《만세—》

세철은 그냥 소리를 지르며 앞으로 내달렸다. 휙휙 바람이 귀뿌리를 지나간다. 어디선가 총소리가 울려오고 포사격의 메아리가 아직도 귀전에서 모기소리처럼 앵앵하지만 다리는 앞으로만 달려간다. 목에서 단내가 풍긴다. 숨이 차다. 그러나 멈추어설수는 없다.

《동무들, 앞으로!》

총창이 번쩍거리는쪽 어디에선가 공화국기가 펄럭거리는것이 언뜻한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앞으로!》

또다시 누군가가 웨친다. 적의 제1참호까지 직선거리로 불과 100여메터밖에 안돼보였는데 별로 먼것 같다.

갑자기 돌격서렬의 간격이 좁아지더니 물굽이처럼 전사들이 한곬으로 모여든다. 철조망이다. 두갈래로 틀어놓은 사복철조망이 거대한 한쌍의 구렝이처럼 산허리를 휘감고 돌아갔는데 포사격에 의해서 허리가 뭉청 갈라진곳으로 전사들이 쏠리고있는것이였다.

뚜루룩, 뚜루룩, 따쿵, 따쿵, 따르륵—

세철이는 위험하다고 느끼는 순간에야 비로소 적의 사격소리

를 들었다. 그러고보니 전우들이 여기저기서 가슴을 안고 쓰러진다. 갑자기 전진이 멈추어졌다. 일부는 벌써 철조망을 뛰여넘어 적의 참호에다 수류탄을 던지며 《만세》를 웨치고있는데 어느쪽에선지 적의 중기사격이 철조망의 통로에 집중되였다. 적진 한복판에 뛰여든 얼마 안되는 전사들이 육박전을 벌리고있는것이 보인다.

따르륵 따르륵 따르륵 쿵쿵쿵쿵 따르륵—

어느 방향에서 날아오는지도 모르는 기관총화력은 계속 통로를 맹렬히 사격하고있다. 갑자기 서렬이 흩어진다. 당황하여 좌우를 살피니 저쪽에서 철조망을 뛰여넘는것이 보였다. 그렇다는것을 느끼는 순간 발이 먼저 그리로 달려갔다. 둥글둥글 구렝이처럼 틀어놓은 사복철조망우에 시꺼먼 통나무같은것이 걸려있다. 앞선 동무를 따라 그 시꺼먼것에 한발을 올려놓는 순간 세철은 흠칫하였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이였다.

《분대장동무, 분대장동무.》

막동은 두손사이에 얼굴을 파묻은채 소리쳤다.

《세철이, 빨리 뛰게! 빨리!》

《분대장동무! 일어나십시오. 내가…》

세철은 그옆에 척 엎드렸다.

《분대장동무, 어서!》

《동무! 어서 못가겠소? 넨장, 어서 일어나라구.》

그사이 전사들이 또 넘어간다.

《만세—》

《만세—》

《세철이, 저걸 보게. 저 바위뒤에 화점이 있네. 저걸 까게, 어서!》

《그래두 분대장동무가…》

《신대원이 왜 이모양이야. 어서 명령을 집행하란말요!》

세철은 벌떡 일어났다. 뭉클거리는 분대장의 등을 밟고 올라섰다. 그리고는 이를 악물고 내달렸다. 시꺼먼 바위뒤에 적의 화점이 있었다.

비죽비죽 갈지자형으로 파진 참호가 그앞에 늘어섰는데 그속에서 철갑모가 얼른거린다. 세철은 바람처럼 그리로 달려갔다.

《만세—》

세철이옆에서 우르르 전우들이 밀려왔다. 꽝—꽝— 누가 집어던졌는지 수류탄이 터진다. 철갑모들이 사격을 멈추고 벌떡벌떡 일어났다.

《와—》

《악—》
《아이쿠》
《이자식！》
《아—아—아이쿠》
《끅—》
비명, 웨침, 욕설, 번쩍거리는 날창, 용솟음치는 피, 쓰러지는 적, 세철은 무엇때문인지 문득 광산구락부에서 본 고장난 영사기가 돌리던 영화를 련상하면서 계속 앞으로 달렸다. 거기서도 바위뒤 화점까지는 10여메터나 되였다. 철조망 통로에서는 아직도 혼란이 계속되고 적의 중기는 쉬지 않고 불을 뿜었다.
마침내 화점 턱밑에 가닿았다. 세철은 이런 토목화점의 구조를 잘 몰랐다. 그러나 두리번거릴 경황도 없이 곧장 그 불뿜는 화구로 달려갔다. 바위턱에 올라서니 화끈 단 총신이 머리우에 있었다.
《마—ㄴ—세—에—》
뚜르르 따르르—따쿵 와—와—와—꽝！ 꽝！
세철은 사방에서 자지러지는 형형색색의 음향에 다쫓기듯 총을 내던지고 뛰여올랐다. 손끝에 총신이 잡히는 순간 우지직하고 손바닥이 늘어붙었다.
《놓아！ 개자식！ 어떤 자식이야！》
이런 소리가 들려오고 이어 안에서 죽어라고 총신을 잡아당겼다.
《개자식, 나다！》
세철은 질세라 마구 욕설을 퍼부으며 힘껏 총신을 나꿔챘다. 발길이 바위에 닿을락말락하는 순간 세철은 보지도 못한 교통호로 한놈이 쑥 솟아나더니 옆구리를 뒤졌다. 바로 코앞이였다. 수류탄을 뽑아드는것을 보자 세철은 흠칫하며 철봉하듯 하반신을 휘둘렀다. 사격을 멈춘 중기총신을 안에서 쥐고 뻗대던놈이 갑자기 무겁게 실리는 세철의 체중을 감당하지 못하여 놓아버리자 덩궁 아래로 처졌는데 그바람에 세철은 바위바닥에 나떨어지면서 군화코로 수류탄 쥔놈의 면상을 걷어찼다. 순간 폭발소리가 들렸다. 그놈은 수류탄을 안고 나가넘어져서 갈가리 헤쳐졌는데 세철은 웬일인지 목덜미가 뜨끔한것을 느꼈다. 그는 바위우에서 풀밭으로 굴러떨어지면서 비로소 자기가 중기총신을 놓아버렸다는것을 깨달았다. 화닥닥 뛰여일어난 그는 그제야 옆구리에 찬 주머니에 그대로 남아있는 수류탄을 뽑아들며 혀를 갈겼다. 그러나 다시 수류탄을 집어넣을

필요는 없었다. 중기사격이 멎자 전우들이 사태가 난것처럼 밀려드는바람에 적들은 황급히 제1참호를 버리고 제2참호로 내빼고있었다.

세철은 교통호를 따라 텅 빈 소철레루가 비죽비죽한 화점속으로 들어가보고나서 다시한번 《젠장.》하고 혀를 갈겼다. (몹시 덤빈단말이야.) 이렇게 생각한 그는 부리나케 밖으로 뛰여나와 아까 내던진 보총을 찾아들었다.

제2참호쪽에서 벌써 만세소리와 수류탄터지는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기어코 수류탄을 던지리라 단단히 마음먹고 달렸으나 참호속에서는 육박전이 벌어지고있었다. 날창이 번쩍거리고 피비린내가 풍겼다. 저쪽 모퉁이에서 안고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그러자 한 전사가 날창을 비껴들고 마주 달려온다. 둘이 그러안고 돌아가던 사람가운데 한 전사가

《여보게 종호! 이건 나야! 동무, 덤비지 말게!》

가만 보니 문기수였다. 그는 어떻게 하다가 그런놈과 만났는지 얼핏 보기에도 황소만한놈과 마주그러안았는데 한쪽이 타고앉아서 무엇인가 손에 쥐려하면 상대가 몸을 뒤채서 되깔리고 그러다간 다시 한바퀴 뒤채군하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마주 달려오는것은 신종호였다.

《가만 기수! 아예 밑에서 뒤척거리지 말고 가만 있게! 내가 이놈을!》

신종호는 덤비기는커녕 마치 작살질이라도 하는것처럼 날창으로 그 황소같은놈을 겨누었다. 세철은 이것이 가까이서 보는 적으로서는 첫번째놈이라는것을 깨달았다. 불뚝—하고 두팔에 힘이 솟아올랐다.

신종호를 보자 적은 날쌔게 기수를 안고 밑으로 몸을 피했다. 이때 종호뒤에 적이 나타났다. 그는 얼른 몸을 피하더니 재빨리 총탁판을 쳐들었다. 세철은 저도모르는사이 총을 쥐여뿌리고 기수밑에 깔린놈을 움켜쥐고 잡아일으켰다.

《그자식 꽤 검질긴데…》

가까스로 일어난 기수는 이렇게 투덜거리며 침을 뱉았다. 그러자 그 장교놈이(그것은 대위견장을 단 장교였다.) 주먹을 휘두르더니 벌떡 일어났다.

《이자식! 나하고 해보자. 로동계급의!…》

세철은 이미 찢어진 그놈의 전투복앞자락을 틀어쥐는 순간 몸으로 세차게 들이받았다. 뒤는 전호벽이였다. 장교는 상반신을 흉장에 기대고 하늘로 고개를 쳐들었다. 이때 적들이 와르르 쓸어왔기때문에

기수는 다시 육박전을 시작했으나 세철은 돌아보지도 않고 그놈의 넙적다리를 두다리사이에 끼고 올라탔다. 중기총신에 화상을 입은 주먹을 틀어쥐고 거세게 코김을 내뿜는 그놈의 살이 피둥피둥한 넙적한 얼굴을 힘껏 내리쳤다. 개구리를 회초리로 쳤을 때와 비슷한 반응이 일어났다. 코피가 터져서 주먹이 미끈미끈하였다. 세철은 연방 주먹을 휘둘렀다. 퍽—퍽— 하고 썩은 바가지 두들기는것 같은 소리가 났다.…

《동무, 거기서 뭘하오?》

세철이 정신없이 한참 주먹질을 하고있는데 뒤에서 이런 소리가 났다. 돌아보니 문화부중대장 류경환이였다.

《부중대장동지, 적을…》

《어디? 아이구, 죽었구만. 아니 이게 대대장이 아니요? 아까운걸 괜히 그렇게 쳐죽이누만. 하는수없다니까.》

《예?》

류경환의 혀를 차는 소리에 세철은 눈이 둥그래서 적을 내려다보았다. 이미 숨이 끊어진지 오랜듯 입에서 피거품이 부지직거리고 목에서 가래가 끓어올랐다.

《동무, 어서 저기로 가서 전호를 파오. 전투는 끝났는데 혼자 꾸물거리고있군. 참 전투소보원이 동무에게 가겠는데 그 중기 뽑아내던 이야기를 잘 해주오. 총을 내던져서는 안된다니까. 버릇이 됐군. 쯧쯧 이게 뭐요? 그 동무한테 총을 내던졌다는 소리는 하지도 마오. 알겠소? 슬쩍 빼버리란말요. 참 이렇다니까…》

세철은 어안이 벙벙해서 송장을 쥐여뿌리고 류경환이 내미는 총을 잡았다. 그는 발명할 여지없는 자기 실수에 그만 주눅이 들어 목을 떨구고 남쪽릉선으로 달려갔다.

《여보 동무! 거기 좀 서오. 허— 이런 부상을 당했군. 막동이가 위태하다, 위태하다 하더니 기어코 그 목을… 이리 좀 내미오!》

류경환은 수류탄파편이 스치고 지나면서 마구 헤쳐놓은 세철이의 목덜미를 틀어쥐고 개인붕대를 꺼냈다.

《원 미련하기두 하지. 이렇게 피를 질질 흘리며 공연한놈하고 씨름이라니까. 쯧쯧, 다행히 박히지는 않았군. 이건 어디서 이렇게 됐소?》

《저… 아마 저앞에서 그렇게 된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웬걸, 그걸 알면 제법이게. 흥, 붕대를 하얗게 감아놓으니 미남자가 됐군.》

산정에서 만세소리가 터져올랐다. 벌써 수백리 포연탄우를 헤

치고 나온 공화국기발이 그 산정에 펄럭거리고있었다. 세철은 가슴에 하나가득 차오르는 감격을 안고 그 기발을 향하여 내달렸다.

《만세—》

《만세—》

만세소리에 놀란듯 골짜기를 감돌던 어둠이 어느새 활짝 개이더니 시꺼멓게 웅크린 서상산이 마주 바라보였다.

꽝！ 꽝！ 짜르릉！ 서상산 포진지쪽에서 일제사격소리가 들려왔다. 뒤따라 새까맣게 구라망편대가 날아왔다.

×

황급히 전호를 팠다. 골짜기를 하나 건너 마주 서있는 서상산의 적진지에서는 약이 올랐다는것이 완연히 느껴질만큼 세차게 기관총으로 사격을 하였고 포사격도 멈추지 않았다. 미국 비행기들이 날아와서는 휘발유통과 폭탄을 떨구고 달아났다.

이때까지만해도 미국항공대들과 괴뢰군 사이에는 지휘체계가 확립되여있지 않아서 지상부대가운데는 항공표식(색칠을 한 백포를 열십자형으로 펼쳐놓고 그것으로 자기편임을 알아보고 폭격을 하지 맙시사 하는것이다.)을 해다는 습관이 덜 붙은데다 비행사들은 대체로 변덕이 심해서 거치장스럽게 달고다니는 소이탄이나 폭탄을 아무데나 적당히 내던져버리는자가 적지 않았다. 이무렵 어떤자는 한강이북을 폭격하라는 명령을 받고 비행하다가 금강을 넘어서자마자 그 북쪽에 전개해있는 부대를 발견하고 맹렬한 습격을 감행하여 단꺼번에 천여명을 소멸하는 혁혁한 전과를 올렸는데 후에 그 폭격당한 부대가 공산군이 아니라 《국군》이였다는것이 판명되여 재판소동까지 벌어졌다.

아무튼 직선거리로 100메터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전연을 폭격하다보니 혹 제편 진지에 본의아니게 휘발유통이나 폭탄을 떨굴수도 있다는것쯤 십분 너그럽게 대할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박인엽은 화가 나서 전화를 들고 그따위로 하겠으면 당장 폭격을 중지시켜달라고 호통쳤다.

한편 황은식은 적들의 맹렬한 폭격과 포격 속에서 불타고 넘어지는 솔밭속을 뛰여다니며 참호굴설작업을 다그치고 포병들의 이동을 독촉했으나 벌건 대낮에 적의 감시하에서 이 모든 일을 하자니 자연 뜻대로 잘되지 않았다. 미처 개인전호들이 파지기도전에 적의

반돌격이 시작되였다. 아군 포병은 수향산후면으로 이동중이였다.

방금전 포사격에 사방으로 흩어져서 은페하였던 전사들은 감시병의 웨침소리를 듣고서야 전호로 뛰여갔다.

산기슭을 까맣게 덮으며 적들이 올라왔다. 그들은 분명 괴뢰군들이였으나 미국식으로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엉거주춤 허리를 구부리고 연방 사격을 하면서 량반걸음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워낙 산세가 가파로와서 달릴래야 달릴수도 없었다. 권총을 뽑아든 장교가 한손을 휘두르며 무엇이라고 왝왝 소리를 친다. 그들의 산병선은 역시 미국식으로 훈련받은것들답게 그 험한 산을 오르는데도 앞서거나 뒤지는 법이 없이 일렬횡대로 질서정연하게 늘어서서 마치 열병식이라도 하는것처럼 오를 맞추는데 신경을 썼다. 한걸음이라도 앞섰다가는 그만큼 죽음에 남보다 더 가까와지는것을 의미하였고 뒤떨어졌다가는 야전군법회의가 그를 기다리고있을것이기때문이였다. 그러나 산릉선에서 인민군대의 중기와 경기소리가 울리기 시작하자 그 질서정연하던 산병선은 뿔뿔이 흩어지고말았다. 앞으로 달리는놈이 있는가 하면 독전대가 총을 겨누고있는 뒤로 죽음을 무릅쓰고 내뛰는놈도 있고 옆으로 피해가는놈도 있다. 그러다가 장교가 쓰러지자 또다시 질서가 회복되여 와—하고 거꾸로 달려내려갔다.

적들은 종일 물리지도 않고 그런 반돌격을 여섯차례나 감행하였다. 그사이 전호들이 교통호들로 련결되고 포들도 기본적으로 이동되였으나 전사들은 말할수 없이 지쳐버리고말았다.

황은식은 련대에 전투정황을 무선으로 보고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청하고싶은 생각도 없지 않았으나 꾹 참고말았다. 이제 밤이 되면 한번 넙다밀어 기어코 대대단독의 힘으로 서상산을 점령하고야말겠다는 욕심이 일어났던것이다. 련대장도 모르는체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3중대는 수향산공격전에서 주공을 담당했기때문에 오전중 내내 고지 후면 2진지에 있다가 해가 기울어져서야 1중대와 교체되여 1진지로 나왔다. 그런것이 나오자마자 반돌격을 겪게 되였다. 게다가 방금까지 무섭게 퍼붓던 적 포탄에 참호는 사태라도 무너진듯 허물어져있었다. 벌써 적의 산병선이 골짜기를 지나 기슭에 붙었는데 전사들은 부리나케 참호를 수리하였다.

세철은 아직 뼁끼칠이 벗겨지지 않은 새 보병삽으로 자갈이 섞인 점토질의 흙토를 푹푹 떠서 넘겼다. 전투중 이동할 때 무릎에 걸채일가봐 비죽이 내민 나무뿌리를 깐깐히 찍어내고 흉장을 두

툼히 쌓아올렸다. 적은 벌써 산중턱에 기여올랐다.

《여보게 세철이, 저놈들 보게. 그냥 올라오네.》

문기수가 보병삽을 든채 어이없는듯 릉선을 내려다보고 중얼거렸다. 그앞에서 퍽 하더니 바위가 풀썩하고 먼지를 피웠다.

《이크!》

기수는 황급히 허리를 구부리더니 잠시후 코끝만 내밀고 또다시 적들을 내려다보았다.

따쿵—휴—따쿵—휴—탕—탕—휴—따쿵 피유—

세철은 그놈들을 보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보면 어쩐지 기분이 나쁠것 같았다. 다행히 일거리는 많았다. 보병삽을 부지런히 놀리고있노라면 지휘관이 무슨 명령을 내릴것이다. 그래서 참호 앞뒤에 와서 팍팍 하고 먼지를 피우며 들어박히는 적탄도, 귀가 멍멍해지도록 자지러지는 총소리도 아무것도 못느끼는척하고 일손만 다그쳤다. 그러나 아무리 안보려해도 눈은 어느새 산아래로 쏠리군하였다. 적들은 어느덧 100메터가까이나 접근하였다. 중대장감시소옆에서 중기가 불을 뿜기 시작하였다. 성냥을 켜대듯 불이 번쩍번쩍하는 카빙과 엠완총구가 보인다. 팔뚝에 달린 《ㅅ》형의 계급장이 얼른거린다. 수염이 꺼칠한 졸병이 바지춤을 움켜쥐고 옆으로 픽 쓰러진다. 총소리는 더욱 요란스럽게 자지러졌다.

픽—휴—탕—따쿵—휴—휴—

흉장앞에 서있는 다박솔이 풀썩하더니 형체도 없이 날아가버렸다. 어디서 솔잎이 우수수 떨어져서 어깨를 덮고 흙먼지가 눈으로 날아든다. 연기가 피여오르고 매캐한 화약내가 코를 찌른다.

세철은 공격때와는 전혀 다른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었다. 확실히 기분이 나쁘다. 그는 보병삽을 흉장앞에 척 내대고 점점 더 가까이 접근해오는 적들을 내려다보았다.

《동무들! 명중탄을 퍼부어라! 한놈도 살려보내지 말아라! 조국과 인민이 우리의 일거일동을 지켜보고있다!》

누군가 웨치는 구호소리가 들렸다. 그제야 사위를 돌아보니 전우들이 정신없이 사격을 하고있었다. 세철은 흠칫하여 보병삽을 내던지고 보총을 들어쥐였다. 언제 사격구령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떨떨해있었던것을 생각하니 그 총중에도 얼굴이 화끈 달았다. 그러고보니 적들의 산병선에 시체가 너저분하게 널려있다. 대체 사격명령이 언제 내렸을가 생각하면서 적을 겨누었다. 그런데 온통 이리 뛰고 저리 뛰는바람에

어디다 대고 겨눌수가 없다.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쏘는지 온 천지에 총소리만 하나가득 차있었다. 콱,콱,피유—뚜루룩 뚜루룩—

대체 어디로 총탄이 날아가고 어디서 총탄이 날아오는지 알수가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쓰러지고 땅바닥은 곰보가 되였으며 나무가지가 부러지고 풀대가 쓰러진다.

《에라! 경칠것!》

세철은 어방짐작으로 한방 갈겼다. 그러나 맞았는지 어쨌는지 알수 없다. 또 갈겼다. 그런데 보병삽이 쨍하더니 튀여올랐다. 흠칫하여 쳐들어보니 보병삽 한귀가 쭈그러들었다.

《젠장,이건 왜 올려놓고…》

세철은 화가 나서 보병삽을 전호바닥에 집어던졌다가 문득 새벽에 문화부중대장이 하던 말이 생각나서 허리에 집어찼다. 세번째 방아쇠를 당기려는데 잘깍하고 격침이 약통실을 두들기는 소리가 났다. 격발기를 제끼고보니 빈 알쌈이 끼워있다. 아침에 총소제를 하면서 다찬 알쌈을 끼웠는데 언제 세발이나 쏘았는지 전혀 기억이 없었다. 그러나 누가 훔쳐갔을리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얼른 탄띠에서 다른 알쌈을 꺼냈다. 마구 쏘아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에는 한놈한놈 물색해보았다. 정면으로 경기를 든 놈이 올라오고있었다.

《옳지!》

세철은 그놈의 골통을 겨누고 한방 갈겼다. 그러나 여전히 올라온다. 또 갈겼다. 그래도 올라온다. 세철은 초조해났다. 벌써 거리는 50메터나 되였다.

《동무들! 침착하게,중심하부를—명중탄…》 누구의 목소린지 토막토막으로 갈라진 구호소리가 들려왔다.

《참 중심하부지.》

세철은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경기의 총탁판언저리에서 개다리처럼 꺼불꺼불하는 다리를 겨누었다.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어—어—어—ㄱ》

하는 소리를 지르며 그놈이 경기를 놓고 만세라도 부를듯 두팔을 쳐들더니 갑자기 밑둥 잘리운 나무처럼 꿋꿋이 선채 낭떠러지쪽으로 쾅하고 나가넘어졌다.

《중심하부라—참 그럴듯하군.》

세철은 비로소 가슴이 안정되는것을 느꼈다. 그는 다시 적을 겨누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전투는 싱겁게 끝이 나고말

았다. 적들은 일제히 돌아서더니 뺑뺑이 내빼기 시작했다. 조준을 하려던 세철은 깜짝 놀라 흉장우에 뛰여오르며 소리쳤다.

《이자식! 돌아섯! 이런 비겁한 자식!》

마구 소리쳤으나 적들은 돌아서기는커녕 들은척도 않고 내빼버렸다.

포사격이 시작되였다. 하는수없이 고지 후면으로 넘어와 바위밑에 웅크리고앉아서 담배들을 피웠다.

문기수는 두툼하게 담배를 말아물더니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였다.

《싱거운 자식들이라니까. 그렇게 쫓겨갈게면 뭣하러 오는가말야? 내가 뭐라던가? 그놈들은 비겁한놈들이야. 그건 그렇고 세철이, 자넨 어떻게 생각하나? 내 보기엔 역시 방어가 공격보다 못하군.》

세철은 잘 싸워보겠다고 그렇게 굳게 다졌건만 막상 전투에 나서니 괜히 허둥거리며 실수만 저지르는 자신에 환멸이 가서 쓰겁게 입을 다물고있었다. 아침에 전호작업을 하고있는데 정말 문화부중대장이 말하던 전투소보원이 와서 이것저것 캐묻더니 큼직하게 전투소보가 나붙었는데 동무들 보기가 면구스러워 혼자 슬슬 피해다니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기수말대로 방어전투에 나서고보니 더 한심한것이 많았다. 그는 담배연기를 후―하고 내뿜으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난 처음부터 공격이 좋다고 생각했어. 동무는 방어만 하면 발바닥이 안부르트고 좋을텐데 뭘 그러나?》

《내 그러지 않아도 자네가 그런 말 할줄을 알았어. 허지만 이건 걷는것보다 더 못하단말이야. 그 자식들이 웬 대포를 그리 야단스레 쏘아대는지 모르겠군.》

문기수는 사실 하루종일 계속된 전투에서 벌써 자기의 견해를 적지 않게 재검토할 기회를 가졌고 그중 일부는 주저없이 변경해버렸다. 신종호에 대한 견해만 해도 그가 실전에서는 확실히 그렇게 놀림감이 될만큼 덤비지는 않는다는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자기가 그것을 인정하였다는것을 공개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왜냐 하면 종호는 그의 면전에서 또다시 덤비기 시작한것이였다. 어디서 달려오는지 숨을 헐떡거리며 달려온 종호는 기수를 보자 다짜고짜 소리쳤다.

《여보게, 자네 내 그거 어케 했슴마?》

《내 그거라니?》

기수는 놀라서 올려다보았다.

《모른척하갔어? 그거 몰라, 그거?》

종호는 성이 나서 다그쳐댔으나 《그거》가 뭔지 갑자기 말이

생각나지 않는지 내놓고 말하기가 거북해선지 그냥 《그거, 그거.》 하고 더듬었다.

《여보게, 덤비지 말라구. 세상에 〈그게〉 좀 많은가? 그러니 차근차근히 설명을 하라구.》

기수가 짐짓 점잖게 얼리며 군복가랭이를 잡아끌자 종호는

《이거 못놓갔어!》

하고 뿌리치면서도 못이긴척하고 주저앉았다. 그러나 미처 다음 말을 할 사이도 없이 벌떡 일어나더니 도로 달려가며 말했다.

《옳지 농팔이가 빌려갔군!》

《허허허, 사람두 저렇게 덤벼가지고 그래두 전투를 하겠다구!》

잠시후 신종호가 어디서 얻었는지 알락달락한 도자기물부리에 길다란 권연을 끼워물고 씨물씨물 웃으면서 나타났다.

《난 잊어버렸는가 했습메. 허허》

전사들은 눈물이 나올만큼 웃었다. 세철이도 저으기 마음이 풀려 기수를 좀 골려줄 생각이 났다.

《문동무, 아침에 왜 그 야단했어?》

《아침에? 아침에 내가 뭘 야단을 했게 그러나?》

《새벽에 돌격선에서 마구 딩굴며 볶아치더군. 뭘 모른척하나?》

《난 모르겠는데! 아 참, 그거말이군. 에이, 재수없게 그 소리는 하지도 말게. 더러워!》

기수는 갑자기 오만상을 찌프리며 침을 퉤— 하고 내뱉았다.

《뭐이 어드래서 그래? 어디서 적이 나타났댔습마?》

종호가 눈이 둥그래져서 세철이와 기수를 번갈아보았다. 그러나 기수는 어찌나 기분이 나빴는지 대답도 하지 않았다.

《허허 문동무 혼이 나긴 났군…》

세철이가 다시 한마디 하자 기수는 성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닌게아니라 혼이 났어. 그게 재수없게, 참 어처구니가 없지. 남은 돌격구령을 기다리구있는데 더럽게 송충이가 하필 내 모가지로 기여올랐다네. 젠장 재수가 없다니까. 난 그따위는 질색이네.》

와— 하고 웃음소리가 터져올랐다. 송충이가 우스워서가 아니라 기수의 말투가 어찌나 심각했던지 삼일안 신부라도 웃지 않고는 못배길 상이였다. 그런데 전우들의 무랍없는 웃음소리는 기수를 더욱 노엽게 만들었다.

《넨장 웃게, 실컷 웃으란말야. 그래두 송충이가 더러운 물건

이라는건 사실이 아닌가? 내가 더러운 물건을 보고 기분이 나빴는데 어쨌단말인가? 난 원래 그런걸 좋아하지 않네.》

《누가 송충이를 좋아할라구.》

세철이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그런데 왜 웃는가말야? 이봐 동무들, 세상에는 많은 벌레가 있고 또 많은 풀과 나무와 꽃이 있지만 그게 제마끔 제 성미가 다 있다네. 사람으로 쳐도 나같이 점잖은 사람도 있지만 저렇게 초라니 같이 덤비는 사람도 있고 또 이사람 같이 음흉한 사람도 있거던. 그런데 미국놈은 어떤가? 송충이란 사람으로 치면 영낙없이 미국놈이지. 그건 그렇고 세상 리치란 꼭 한가지네. 내가 산에서 벌을 몇통 쳐봤는데 꽃도 그렇더군. 동무들은 꽃이라면 다 곱다고 생각하지? 천만에, 꽃가운데는 아주 흉측한놈도 있고 간사한놈도 있다네. 그것들이 살아가고 새끼치기 위해서는 벌과 나비를 불러야 할게 아닌가? 헌데 장미란것은 벌을 끌만한 꿀이 없으니까 간사하게 향기를 피우고 모양을 곱게 해서 벌을 끌어붙인단말이야. 모란같은것은 향기도 없으니 색만 내지. 그런가 하면 토끼풀같은것은 모양이 그렇게 처량해도 꿀과 분이 많아서 벌이 끊임없이 찾아든다네. 하여간 꽃마다 자기 장기가 있거던. 아카시아꽃 향기를 맡아보지. 그 냄새가 얼마나 취하게 만드는가? 그러니 벌과 나비가 한잔 얼근해서 찾아가거던. 씨를 번지는데도 제마끔 식이 있다네. 고운 꽃은 가만 있어도 사람들이 옮겨주려니 해서 몸치장만 하지만 추한놈은 못된 궁리까지 해낸단말이야. 엉겅퀴를 보게. 그놈은 송충이처럼 가시를 잔뜩 벼려들고있다가 누구든지 지나가면 찌른단말이네. 세상이란 이렇네. 사람도 다 제나름으로 살아가지. 마음이 어지고 실속이 있는 사람은 송화처럼 수수하게 차리고 열매 맺는데만 힘을 쓰다가 철이 오면 제 날개로 훨훨 날아가지만 지주, 자본가나 미국놈들처럼 그저 밤낮 남을 죽이고 깔고 탈 궁리만 하는놈도 있지. 난 꽃으로 치면 엉겅퀴따위, 사람으로 치면 미국놈따위가 딱 질색이네.》

《히야—이 동무가 보니 꽤 유식하다. 박사로군.》

신종호가 자못 감탄해서 문기수의 기름한 말상을 멀뚱멀뚱 바라보자 또 한번 웃음소리가 터져올랐다. 기수는 게면쩍은듯 중얼거렸다.

《말말게. 내가 뭣이 유식하겠나. 겨우 국해나 되는데…》

이날부터 문기수를 《국해박사》로 부르게 되였다.

2

1대대가 수향산에서 전투서렬을 벌리고있을즈음 주력은 《푹 쉬고》있은것이 아니라 직접 학민의 지휘하에 비교적 열은 종심에서 서상산 후면으로 우회하고있었다.

정찰자료를 통하여 적들의 정신상태가 극도로 당황망조하고 그 부대지휘에서 초조감이 력력히 드러나는것을 느낀 학민은 시간이야말로 이번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열쇠라는것을 간파하였다. 그렇기때문에 황은식에게는 안된 일인줄 알면서도 자기의 기도를 일일이 설명하고 납득시킬 짬이 없어 그대로 내보내고 인차 주력을 이끌고 뒤따랐던것이다.

짧은 종심에서 은밀히 그리고 급속히—적어도 1대대가 수향산을 점령하여 서상산을 공격하기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적이 눈치를 채지 못하게 재빨리 우회기동을 보장해야 했기때문에 행군서렬은 숨가쁠만큼 달렸다.

수향산을 점령한후 적의 집요한 반돌격을 겪고있다는 황은식의 보고를 받았을 때는 학민은 이미 감시소위치로 정한 서상산후면 무명고지 북쪽릉선에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막 포진지굴설을 끝마치고 재원을 구하기에 여념이 없는 땀배인 포병들의 얼굴이 번들거리고있었다. 산너머 골짜기쪽에서는 포탄이 튀는대로 몸부림치듯 흔들리는 대지의 가쁜 숨결이 전해져왔고 치렬한 화력전의 메아리가 귀청을 따갑도록 두들겼다. 그것은 적들이 아직도 저들의 후면에 강력한 인민군병력이 나타나서 퇴로를 차단하고있다는것을 가맣게 모르고있다는 표시였고 동시에 그 집요한 반돌격때문에 수향산의 1대대가 적지않게 애를 먹고있음을 말해주는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때 학민의 머리속에는 당면한 서상산전투에 대한 생각은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놈들의 무모한 기도가 혹 성공된다 하더라도 이미 퇴로를 차단한 이상 우리 종심으로 한걸음을 더 들어가면 한걸음, 두걸음을 더 들어가면 두걸음 그만큼 더 깊은 포위망에 빠질뿐이라고 가볍게 치부하고있었다. 그대신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의 방송연설을 접한이래 줄곧 심지어 캄캄한 야밤의 강행군속에서도

내내 검질기게 갈마들던 한가지 생각에 사로잡혀있었다.

황은식의 보고가 있기전에 그는 전의로 육박하고있는 사단으로부터 무전을 받았었다. 전의에서는 지금 미21련대가 북쪽으로 진출하다가 황급히 발걸음을 멈추어세우고 방어로 이전했다는것이였다. 따라서 여기 적들을 쓸어버리고는 인차 그리로 달려가야 할것이였다. 그런데 전투준비상태는 어떠한가? 물론 이렇다하게 눈에 뜨이는 부족점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제의 동태와 날로 긴장되는 군사정치정세에 비추어볼 때 어딘가 미진하고 허전한 감을 느끼게 되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그는 어제 신조의 이야기를 통하여 인천학살사건의 몸서리나는 장면을 눈앞에 그려보면서 자기의 이런 마음의 빈 구석이 어디서 온것인가를 똑똑히 깨달았다.

시간이 갈수록 해방된 지역은 넓어지고 또 세계가 경탄할만큼 빠른 진격속도를 유지해온것은 사실이다. 그러니 승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고 전투원들의 사기는 시간따라 더 높아만간다. 이 승리로 말하면 적의 정체가 우리 조국 력사상 일찌기 없었던 가장 위험하고 가장 악독한 침략세력이였던만큼 다툴 여지없이 위대하고 찬란한것이다. 또한 이 승리가 강철의 령장 **김일성**동지의 천재적군사사상과 령군술에 의해 이루어졌고 조선인민과 인민군대의 사회력사적으로 형성된 힘의 강대성에 의한것이라고 볼 때 응당한 결과이면서도 감격을 금할수 없는 일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며칠간 적들의 준동을 살펴보면 그러한 승리에 정비례해서 원쑤들의 파렴치성과 악랄성이 늘어간다는것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인천대학살로 말하면 그런 파렴치성과 악랄성의 한 적은 현상적발로에 불과하며 그와 같은 치떨리는 만행은 학민자신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미 수도 없이 목격한것들이였다. 정세의 발전은 일본제국주의자들이나 괴뢰군들이 감행한 정도의 죄악은 멀리 미치지 못할만한 대대적인 살륙이 준비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트루맨의 《비상선언》에 의하여 미국은 총동원상태에 들어갔다. 미국의 대부분 청장년에 소집령이 내렸고 전체 미륙군의 반수이상에 이미 동원령이 선포되였다. 게다가 어중이떠중이 추종국가들의 군대까지 조선인민을 살륙하는데 내몰고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에게 크나큰 재난을 준비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그런데 우리 인민은 어떠한가? 용감하고 슬기롭고 그우에 불타는 애국주의와 정의감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확대되는 전쟁의 규모에 비해 볼 때, 무엇보다도 적들의 야수성에 비추어볼 때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선량하지 않는가? 력사적으로 미국놈들이 우리 인민에게 끼친 죄악을 뼈속깊이까지 새기고있다고 말할수 있는가? 그놈들때문에 나라를 빼앗기고 국토가 량단되고 헐벗고 굶주리고 목숨을 빼앗긴 그 기막힌 사연들을 기억하고있는가, 어린 소년의 이마에 청강수로 인간저주의 도장을 찍던 그 한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미국의 모든 군벌들과 자본가들과 선교사들을 릉지처참을 해도 부족하다는 뼈아픈 결의를 다지고있는가? 또한 그들이 장차 조선인민에게 강요하려고 그처럼 발광하고있는 그 노예의 운명이 어떤것인지 정확하게 리해하고있는가? 하기는 미국놈의 간악한 흉포를 인간의 상식, 더구나 조선인민의 선량한 심정을 가지고 제대로 측량하기는 어려운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선량한 심정만 가지고는 이 준엄한 시련에 견디기 어려울것이다. 응당 골수에 사무친 원한을 날창처럼 벼려들어야 할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학민은 자기와 자기 전사들의 전투로정을 되돌아보게 되는것이였고 이 문제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방송연설에서 그처럼 절절하게 울리던 깨우침의 말씀들을 상기하지 않을수 없었다.

류경환이 말한것처럼 38선을 넘어 우리 인민의 평화로운 보금자리를 불사르던 놈들을 여기까지 따라나와 다시 싸움을 벌리게 된다는것자체가 매 지휘관과 전투원들로 하여금 더 마음을 모질게 가다듬어야 한다는것을 말해주고있지 않는가?

문득 학민의 눈앞에 세철의 모습이 떠올랐다. 웬일인지 학민은 원쑤들을 생각할 때마다 세철의 소박한 모습이 떠올랐고 장차 겪게 될 준엄한 시련의 고비들을 예상할 때마다 세철의 학교가는 문제, 보패와의 결혼문제들이 떠오르군하였다. 자기의 앞뒤에서 걸음을 다우치는 전사들이나 포탄을 나르는 포병들이 어쩐지 세철이처럼 생각되였고 방금 포진지에서 다가올 전투도 잊어버린듯 풀피리를 만들고있는 어떤 나어린 전사역시 세철이처럼 생각되는것이였다. 그 모든 얼굴들이 주는 표상은 하나—우리 인민은 이렇게도 어질고 착하다는 한가지생각이였다.

그대신 우리 전투원들은 이러한 인민들을 지키기 위하여 누구보다도 적에게 무자비해야 할것이였다.

참모장이 달려와서 학민의 생각을 중단시켰다.

《련대장동무! 놈들이 다시 포사격을 시작하는걸 보니 또 공격을 들이댈 모양입니다. 련대장동무의 의도가 완전히 실현될것 같습니다.》

《그렇군.》 학민은 비로소 적이 재차 포사격을 시작했다는것을 느꼈으나 인차 먼산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하였다. 《헌데 참모장동

무, 저녁 여덟시쯤해서 구분대장들 회의를 소집하도록 해주시오. 아무래도 장군님 방송연설을 다시 공부해야겠소. 우리는 우리 전사들에게 미국놈이 어떤놈들이라는것을 아직 잘 가르치지 못했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 전투는…》

참모장은 끄떡도 없이 서있는 학민의 시선을 따라 먼 산발우 불그레 물든 구름이 봉긋하게 떠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면밀하게 짜고 꾸민 전투의 결속을 앞두고 너무나 태연히 서있는 련대장의 거동이 놀랍다기보다 오히려 기가 막혔다.

학민은 그런 참모장의 눈치는 전혀 못느끼는것처럼 천천히 걸음을 옮겨놓으며 말했다.

《전투가 끝나거던 인차 사단과 무선을 결속하도록 하시오. 아마 출발은 밤이 깊어야 할것 같소. 전투에 대해서는 행군을 하면서 조용히 이야기해봅시다. 전의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으니까… 그사이 정치사업을 잘 조직해야겠소. 전투중에 얻는 토막시간을 리용해서 능숙하게 정치사업을 할줄 아는 일솜씨를 우리 지휘관들이 배워야겠소. 참 유격대에서는 그것이 생활화되였는데… 우리는 너무 헐하게 이기는데 습관이 생기는것 같다니까. 참모장동무, 알겠소? 아직 우리 지휘관들가운데는 우리의 가장 주되는 무기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단말이요. 장군님께서 늘 가르치시지만 손바닥안에 들어가는 권총 하나로 적을 소멸하려고 생각한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소. 정치사업과 같은 훌륭한 무기가 있는데말이요.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대포라고 말할수 있지 않소.》

참모장은 전투직전의 흥분때문에 가쁜숨을 내쉬고 어깨를 들먹거리다가 어느새 깊숙이 고개를 떨구고 묵묵히 학민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어느덧 3대대가 차지한 서상산남쪽골짜기에 내려섰다. 시계를 들여다보며 공격시간을 안타깝게 조이고있던 대대장 위병수가 달려왔다.

×

박인엽대령(그는 《인천작전》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린 공로로 수원에서 승급이 되였다.)은 자기의 용감성과 능숙한 작전지휘능력으로써 동이 터진듯 무섭게 밀려드는 인민군대의 진격을 멈추어세우려고 서상산일대에 만반의 준비를 다해놓고 기다렸었다. 그러던것이 팔을 걷어붙일 사이도 없이 수향산을 빼앗기게 되

자 극도로 흥분하였다. 공정하게 말해서 정예를 자랑하는 미34련대가 오산에서 지리멸렬이 된 이 마당에 세계의 면전에 경이적인 힘으로 나타난 인민군대와 같은 강력한 군대를 그가 설혹 막아내지 못했다고 해서 누가 지어 리승만이같이 도섭스러운 인간조차도 시비를 걸 건덕지는 없을것이였다. 그러나 각별히 자존심이 강한 그는 노발대발하였다. 그는 련대지휘부가 돼버린 서상사 대웅전을 우리속에 갇힌 승냥이처럼 이 구석에서 저 구석으로 마구 걸어다녔다. 그러지 않아도 삐꺽삐꺽 노는 마루가 요란하게 신음소리를 내고 대좌우에 놓인 석가여래의 부드러운 얼굴도 찡그러져서 당장이라도 덜컹거리며 달아날 차비를 하는것 같았다. 하긴 그 부처님은 하도 오랜 세월에 금박이 희뜩희뜩 벗겨져서 마치 늙어버린듯한데 대좌마저 금이 가서 마루가 신음소리를 내면 덩달아 삐꺽삐꺽 울어댔다. 오직 인엽의 마음속을 알아주는것은 퇴색한 관세음보살의 벽화였다. 그 녀자는 반돌격이 좌절됐다는 비통한 소식이 들어올 때마다 련대장의 끓어번지는 마음을 달래이기라도 하는듯 채의를 날리며 한손을 쳐들고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인엽에게는 부처님의 그 따뜻한 웃음조차 비위에 거슬렸다. 여섯번째 돌격이 좌절됐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다짜고짜 권총을 뽑아들고 부드럽게 웃음짓는 관세음보살을 아무런 예고도 없이 쏘아버렸다. 그리고는 소리쳤다.

《포사격을 계속하라! 민소령! 너의 대대를 이리 끌고 오나라! 이번엔 내가 직접 가갔다!》

《련대장님, 이젠 날이 저물어오는데 래일…》

3대대장 민삼랑소령은 당황하여 의견을 말하려고 한걸음 앞으로 나갔으나 인엽의 살기띤 눈이 마주 쏘아보자 주춤하고 입을 다물었다. 당장 터질듯이 약이 오른 련대장을 서뿔리 건드렸다간 무슨 화를 입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번개같이 떠올랐던것이다. 그는 해주에서 배신을 당한후 인엽에게 보복할 기회를 늘 엿보고있었지만 존경심은 갈수록 더 늘어갔다. 수원에서 가까스로 끌고온 한개분대가량되는 인원을 데리고 인엽을 찾아갔을 때 그만 못지않게 참담한 꼴이 된 련대장은 겉으로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했지만 삼랑의 심중을 충분히 리해할수 있었던 모양으로 인차 그에게 승급청원을 내주었으며 이번 전투에서도 다른 대대들이 거의 전멸될 때까지 그의 대대만은 제2제대로 서상산 깊은 골안에 떨구어두었던것이다. 그리하

여 하마트면 까마귀밥이 될번했던 앙심도 어느정도 사그러들려는참인데 이렇게 벼락같은 명령이 내린것이였다. 관세음보살을 쏜 인엽의 권총끝에서는 가느다란 연기가 실오리처럼 떨리고있었다.

《못끌고 오갔나?》

《네, 끌고 오갔습니다. 끌고 오갔습니다.》

삼랑은 황급히 부동자세로 섰다가 달려나갔다.

제3대대가 골짜기에서 산병전을 벌리고 수향산을 향해 돌격해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련대부관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달려왔다.

《넌대장님! 넌대장님!》

《꾸물거리는 새끼는 쏘아죽인다!》 인엽은 권총을 뽑아들고 산병선을 향하여 소리치면서 돌아보았다. 《너는 뭐이가?》

《넌대장님, 큰일났습니다. 적이?》

《뭐야? 적이 어쨌단말이가?》

《적이 옵니다, 적이!》

《적이 어디에 온단말이가? 이새끼가 어드래서 이 모양이가?》

이때 련대부관의 떨리는 손끝이 가리키는 그쪽에서 일제사격소리가 들려오더니 뒤이어 만—세—에 만—세—에 하는 함성이 울려왔다.

《포진디가… 두력이… 완전 포위됐습네다—아이구—》

련대부관은 파랗게 질려 울음이라도 터뜨리듯 소리쳤다. 박인엽은 권총자루를 으스러지게 틀어쥐고 이를 부드득 갈았다.

《속았구나. 칙쇼—》

깨물린 어금이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부러진 이발을 걸죽한 피와 함께 내뱉은 그는 침묵에 잠긴 수향산정점을 향해 권총을 갈기며 미친듯이 웨쳤다.

《돌격 앞으로!》

련대장의 진두지휘에 고무되고 서상산에서 들리는 총소리와 함성에 질겁한 괴뢰군 이등병과 일등병, 상등병과 하사, 기관총수와 하급장교들은 죽을 힘을 써서 수향산을 넵다밀었다. 그러나 종일을 방어전투에 지쳐빠진 수향산의 인민군대들은 자기들의 주력이 이미 적의 배후에 나타났다는것을 알자 사기충천해서 반돌격으로 나왔다.

치렬한 접전끝에 완전히 부대를 녹여버린 박인엽은 가까스로 몸을 빼서 군단본부가 있는 청주를 향해 줄행랑을 놓았다. 혼전속에서도 내내 박인엽의 거동만 지켜보고있던 삼랑은 그가 내빼기 시작하자 주저없이 포위속에 든 부대를 버리고 그를 따라갔다.

×

박인엽이가 마구 파괴해놓은 이끼오른 석탑이며 대웅전의 벽화며 승당 찌그러져가는 산문들을 돌아본 전학민련대장은 일단 지휘부를 서상사로 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였으나 절이 더 손상을 입을가봐 서상산 남쪽기슭으로 옮기게 한 다음 부관과 련락병을 데리고 한창 수색전투가 진행되고있는 릉선을 따라 골짜기로 내려갔다. 가장 가렬한 전투가 있었던 수향산을 돌아보고 그곳 전사들을 만나보자는것이였다. 다른 한편 이번 전투를 조직할 때부터 마음에 걸려있던 두 탈주병에 대한 생각으로 해서 그의 눈은 자주 으슥한곳으로 쏠리군하였다.

수향산골짜기 한끝에서 수색전투가 벌어지고있었다. 학민이 억망으로 파헤쳐지고 시체들로 뒤덮인 수향산남쪽기슭에 올라서자 때마침 불어오는 저녁바람에 피비린내가 풍겨왔다. 자기의 전술적타산이 정확하게 들어맞았고 한개련대를 앉은자리에서 섬멸하는 빛나는 전과를 거두었지만 그 냄새를 맡자 언제나와 같이 울컥하고 구역질이 치밀었다. 그 시체들로 하여 불타고 파헤쳐진 산모습은 더욱 처참하였다.

《미친놈들！ 이렇게 죽으러 덤벼들다니！》

학민은 내밸듯 중얼거리며 시체 하나하나를 차근차근히 살펴보았다. 그가 제1참호로 가까이 가자 황은식이 분주히 달려왔다. 자기 대대가 전투명령을 훌륭하게 수행했을뿐만아니라 련대장의 신묘한 전술에 더욱 탄복해버린 그는 더없이 흥분되였다.

《련대장동지,1대대장 황은식은 당신의 명령대로…》

《좋소. 수고했소. 잘 싸웠소. 그래 희생은 얼마나 났소？》

학민은 고무공처럼 팽팽한 황은식의 몸매를 미덥게 바라보며 물었다.

《희생은 거의 없는데 부상자가 좀 났습니다. 처음 돌격때…》

대충 보고를 듣고난 학민은 중얼거리듯 말하였다.

《그 동무가 역시 잘 싸웠군. 그래 몹시 상했소？》

《누구말입니까？ 리막동동무말이지요？ 생명에는 관계없는 모양입니다만 아무튼 철조망에 누워서 한개소대나 건네보냈으니까요. 군의소에 보냈으니 일은 없을것입니다.》

학민은 언짢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그러기에 지휘관이 빈틈없이 협동을 조직해야 하는거요. 포병과 공병을 주었는데 그걸 리용할 생각은 못했거던. 대체로 전

투는 잘 됐소만 조금만 주의했더면 그런 불필요한 희생은 안냈을것 아니요. 그런데 그 전사동무말이요. 그 기관총에 매달렸다는 동무, 그 동무는 어떻게 된 동무요? 그 동무는 일없소?》

황은식은 학민이 결함을 지적하자 잠시 입이 뻥해 서있다가 조급히 대답했다.

《그 동무는 일없습니다. 그길로 뛰여가서 대대장놈을 주먹으로 쳐죽였는데요. …》

《흠, 주먹으로… 그건 어째서?》

《모르지요. 총으로 쏘는것보다는 주먹으로 치는 편이 손에 익은 모양이지요.》

《박세철이라… 분명 박세철이라 했지? 신대원인게로군.》

학민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세진의 동생이 어느새 입대해서 자기 련대에 온것이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한편 전쟁직전까지 대학에 가겠다고 공부를 하며 또 처녀와 련애를 하고 돌아가던 그 청년이 벌써 자기 련대의 전렬에 서있을수는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세상엔 같은 이름도 많으니까…)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린 학민은 다시 골짜기와 릉선들을 훑어보았다.

《대대장동무, 여기서 어디 갇혀있거나 매를 맞아 쓰러진 사람 못봤소?》

《네?》

《우리 총알에가 아니라 그놈들자신이 쏘아죽인 늙은 신대원이 보이지 않던가말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

황은식은 아까부터 학민이 무엇인가 찾고있는 눈치를 채고 떨떨해서 말끝을 흐렸다.

《잘 찾아보오. 참 3중대 문화부중대장동무가 잘 알거요. 인천서 온 배사람인데 몸이 크고 한 40된 사람이라오.》

《이름이 뭔지요? 혹 포로가운데…》

《이름은 나도 모르오. 그사람은 포로가 아니요. 탈주하려다 잡혔는데 이미 부상을 당했다오.》

《네?》

황은식은 련대장이 어디서 그런것을 다 알고 찾는가싶어 더욱 눈이 둥그래졌다.

《그럼 벌써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럴수도 있을거요. 잘 찾아보오. 찾아서 곧 군의소에 보내시오. 류경환동무네 중대에 명령을 주시오. 만일… 만일 죽었다면… 하는수 없지요. 그 사람을 잘 묻어주시오. 해방될 때까지 기다릴수가 없어 찾아오던 사람인데 우리 손이 미처 미치지 못한게요.》

학민은 부질없는 짓인줄 번연히 알면서도 미련을 버릴수가 없어 다시 나무밑이며 바위를 찾아보았다.

서상사에 돌아온 학민은 사단과의 무선이 결속되자 보고를 하고 새로운 명령을 접수하였다. 밤중에 전의방향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식사와 휴식을 보장하는 한편 일체 행군준비를 갖추라는 명령을 준 다음 10리가량 떨어져있는 군의소로 윌리스를 몰았다. 차령산맥 련봉우에 포연에 그슬린 저녁노을이 검붉게 타고있었다.

3

철종년간에 홍문관교리를 지낸 윤수빈이 수향산아래 방가촌에 자리를 잡은이래 벽지에서 호랑이행세를 하던 방씨일가의 뭇삵들은 기가 죽어 지냈다. 지방관들이 입관인사차로 현신하러 오고 전국의 이름있는 선비들이 모여들어 고래등같이 우람차던 집도 늘 비좁게 지냈다. 그러다가 국운의 쇠퇴와 함께 윤수빈의 사랑도 한적해지고 덧없는 세월의 푸른이끼가 기와를 덮었는데 돌담은 허물어지고 담쟁이가 겨우 바람을 지탱하고있었다. 갑진년이래 아들 윤함집이 기울어지는 국세를 바로잡으려는 큰 포부를 품고 경향각지를 나돌던끝에 의병에 가담하고 뒤따라 며느리가 죽는다, 둘째아들이 죽는다 하면서 더욱 가세가 적막해졌다. 눌러살던 방가들이 머리를 들기 시작하였다. 헌병분견소에 윤함집을 고발하여 늙은 애비 윤수빈을 문초하게끔 술대접을 해가며 꼬드겼으나 헌병분견소장이 아무리 위협을 하여도 수빈은 바깥출입을 하지 않았다. 화가 난 일본헌병은 부하들을 데리고 하루는 윤수빈의 집을 찾아갔다. 이때 늙은 선비는 사랑에서 여생의 락으로 삼고있던 사군자치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다가 마당으로 들어서는 절컥거리는 군도소리를 듣고 장죽을 휘두르며 호령을 하였다.

《네 이놈, 네 어떤놈이기에 남의 집에 함부로 뛰여드느냐! 애

들아! 어서 저 오랑캐를 묶어라.》

그때까지만해도 십여명이 잘되던 노복들이 와르르 쓸어나와 방망이를 들고 접어드는바람에 세사람의 헌병은 할일없이 결박을 당하고 말았다. 윤수빈의 강개한 뜻과 활달한 식견을 사랑하던 린근 사람들은 이 엄청난 사건의 추이에 대해 매우 근심하였으나 촌늙은이에게 결박을 당하였던 헌병들은 이 일을 크게 문제세웠다가는 오히려 저희들의 망신일뿐아니라 장차 승진에도 관계된다는것을 고려해서인지 다시는 문전에 얼씬거리지도 않았다. 방씨일가는 일제강점기간 크게 치부하여 중일전쟁말기에 땅만 남겨놓고 서울로 이사를 갔지만 그 만석을 한다는 금력으로도 종내 윤씨네 기울어져가는 추녀를 눌러보지 못하고말았다. 그렇기때문에 수향산일대에서는 윤하응이 윤수빈의 손자이며 의병을 하다가 일본군대에 부상당하여 돌아와서 그길로 죽은 윤함집의 아들이라는 그 한가지 리유만 가지고도 큰 인망을 얻고있었다.

6월 25일날 수인역에서 려주행 기차를 탄 윤하응부녀는 이튿날 근 한해를 비워두었던 고향집으로 돌아왔다. 비워두었다고는 하나 조상전래의 문집원고들과 하응의 수집품, 장서의 대부분이 있고 또 선영이 수향산에 있었기때문에 착실한 행랑살이를 두어 5,000평가량되는 땅과 후원에 잇달린 200주가량 되는 복숭아밭을 부치게 하였다.

윤하응부녀가 황망히 집에 돌아오니 드난을 사는 허봉만의 가족들이 반갑게 맞이하였으나 그들은 아직도 전쟁이 일어났다는것을 모르고있었다.

하응은 그날밤 조부가 거처하던 사랑을 손질해서 들어앉고 전부터 짬이 있을 때마다 매만져오던 아버지의 유고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조부 윤수빈의 저작들은 생존시에 손수 편찬한대로 그 아호를 따서 문집6권을 간행하였지만 아버지의 저작들은 당시에는 직접 일본의 정책을 타매한것이 태반이였기때문에 어쩌지 못하다가 광복후에야 이리저리 모으기 시작한것이 여적 시휘가 풀리지 않아 해별을 보지 못하고있었다. 하응이 새삼스럽게 그것들을 들추기 시작한것도 전화가 터진 이 마당에 그것을 간행할 생각이 나서가 아니라 전부터 미타미타하게 생각하면서도 제발 별일 없었으면 하고 빌어오던 전쟁이 마침내 터져버린데 대한 울분을 잠시라도 잊어보자는것이였다. 그러나 전쟁이란 불길은 손바닥으로 가리울수 있는 반디불같은것이 아니였다. 아무리 깨알같이 박아쓴 표문이며 시고들을 들여다보고 있어도 불길은 뻗쳐들었다. 하는수없이 이번에는 복숭아밭으로 옮

아가서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 봉투도 해씌우고 벌레도 잡고 간작으로 심은 일년감이며 참외밭도 돌아보았다. 그러나 전쟁의 불길은 거기까지 찾아왔다. 비행기의 폭음이 울려오고 동네에서 청장년들이 끌려갔으며 전에 좌익으로 지목되던 사람들이 잡혀가서는 혹 총살당하였다고도 하고 혹 대전감옥으로 넘어갔다고도 하였다.

마침내 딸 설란이가 손질해놓은 헐어빠진 일본제 라지오앞에 나가앉았다. 《유엔결정》이며 《서울해방》에 대한 소식이 들어왔다.

하응은 인천 세관부두에서 목격한 갖가지 사실들을 상기하였다. 그는 인류력사에 여태 있어보지 못한 그런 대규모적인 엄청난 거짓말이 광범히 선전되고있는것을 들었으며 그리고 그가 아는한 조국력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그런 대규모적인 엄청난 군사행동이 벌어지고있다는것을 느꼈다. 라지오에서는 코맹맹이같은 계집년의 목소리가 사라지더니 힘있고 정열적인 목소리가 련이어 새로운 남조선지역의 해방에 대한 소식을 전했으며 겸하여 이 전쟁에 조선인민 누구나가 미제침략자를 반대하여 한사람같이 궐기하라고 호소하고있었다.

하응의 가슴은 설레이기 시작하였다. 모든것이 눈앞에서 벌어지고있는 장엄한 싸움에 눈을 돌리지 않을수 없게끔 만들었다. 그러면서 아무준비없이 목전사변에 협소한 안목으로 대하지 않을수 없었던 그는 우선 격분을 느꼈다. 그는 범죄의 측면에서만 이 전쟁을 관찰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무분별하게 전쟁을 도발한 리승만도당에게 격분을 느꼈으며 (그는 신문, 라지오가 아무리 북조선에서 침략을 시작했다고 선전해도 인천에서 목격한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그것을 믿지 않았다.) 미국의 부당한 간섭과 특히 그 무차별 폭격에 대해 치를 떨며 증오하였다. 동시에 미국의 계통적인 전쟁준비과정을 모르는 그는 북조선측의 단호한 조치가 일을 크게 만들지나 않을가 하는 위구심도 내심 품게 되였다. 어쨌든 그는 인민들이 겪는 참변과 폭격에 유린당하는 산야를 두고 가슴아파하였으며 그 책임을 묻는 심정으로 아침, 저녁 라지오곁에서 떠나지 않았다. 한편 설란이에게 학습장 몇권으로 탄탄하게 책을 매게 하여 거기에다 매일매일 주요일지를 적어넣었다.

1950. 6. 25(일요일) 미명

상선 라인홀트호(배수량 만톤정도, 선적과 항행목적 기타를 확인할것— 선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씨, 에이 물자를 싣고 수일전에 입항하였으나 하륙작업을 중단했다고 한다.)편에 미국인 가족들을 철거시킴.

오전 4시경 인천세관부두 담벽에 이미 석판인쇄로 된 제1관구 경찰청장 명의의 포고문이 붙었는데 여기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밝혀짐—

포고내용에는 새벽3시에 북조선측이 공격을 개시했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포고문을 한시간동안에 어떻게 작성인쇄하여 거리에 써붙일수 있는가? 멀쩡한 거짓말이다.…

1950. 6. 26(월요일)

의정부해방,미국비행기가 북으로 날아갔다. 허봉만의 둘째아들 허정호가 잡혀갔다. 《대한청년단》이 잡아갔다.

1950. 6. 27(화요일)

한강 인도교 및 철교폭파. 수원을 림시수도(누구의 수도인가?)로 선포. 가련한 꼴이다.

1950. 6. 28(수요일)

서울해방. 인민군의 진격속도는 력사상 류례없는 속도이다.

방가촌에서만도 30명의 청장년이 《국군》에 징발되였다. 민심은 흉흉하다.

1950. 6. 30(금요일)

오늘 미국비행기와 조선비행기의 공중전을 보았다. 미국비행기는 에프80형 분사식비행기 9기이고 인민군비행기는 추진식비행기 6기였다. 나는 몹시 긴장되고 불안하였다. 인민군비행기는 저공을 하였다. 그들은 2기씩 꼭 들어붙어서 맹렬한 공격을 들이댔다. 미국비행기들은 공중에서도 오만하게 굴었다. 그러나 그들의 사격소리는 따르륵 따르륵하고 메마르게 울리는데 북조선비행기는 쿵쿵하고 육중한 소리를 내며 사격을 하였다. 꼭 포소리같았다. 인민군비행기의 령활한 기동성앞에서 마침내 미국비행기 한대가 떨어지자 그들은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도망을 치는데는 그들의 빠른 속도가 비할바 없이 유리하였다. 추진식 북조선비행기는 따라가기는 하였으나 따라잡을 가능성은 보이지 않았다.

1950. 7. 5(수요일)

오산에서 미군과 인민군과의 첫전투가 있었는데 미군의 참패

로 돌아갔다고… 세계력사에서 주목할만한 날이다. 세계가 눈이 뒤집힐만큼 놀랐다.

이런무렵 볼꼴없이 된 민환규가 다 떨어진 구두를 질질 끌며 뽀얗게 먼지를 뒤집어쓰고 찾아왔다.

낡은 《내쇼날》 라지오 한대가 있을뿐 급변하는 세상과 절연되여있는 윤하응부녀는 헤여진지 불과 며칠밖에 안된 그를 몹시도 반갑게 맞이하였다. 하응의 헌옷으로 갈아입히고 비와 먼지와 진흙탕으로 매닥질이 된 그의 옷은 빨래함지에 담가버렸다. 환규는 깨끗이 면도를 하고나니 귀공자풍이 되살아났다. 그리고나서 복숭아밭 저쪽끝에 있는 원두막을 겸한 정자그늘에 누워 해를 보내면서 전쟁의 경위와 과정에 대해 회의적인 쓸쓸한 미소를 지어가며 이야기를 하였고 미구에 유성평야에서 벌어질 일대격전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예언을 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이러저러한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결국 인민군은 대전에서 패배할것이며 정세가 역전하면 《국군》이 서울과 수원을 버리고 오던 때와 같은 쾌속으로 철수를 해야 할것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미국인들이 38선을 그냥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농후하게 보인다는것이였다. 환규에게서 이야기를 듣는 한편 새로 맨 자기 일지에 자료를 보충해넣고있던 하응은 그 말을 듣자 노기띤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렇다면 시작은 왜 했단말이요? 공산주의자들이 그런 타산도 못했단말이요?》

《타산을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약소민족의 숙명이지요. 미국이야 처음에 다소 정세가 불리하다고 해도 뒤가 4중5중으로 준비되여있지만 우리 조선에야 무엇이 있겠습니까? 결국 인민의 재난만 남고 더 엄중한 노예화의 운명이 차례질뿐이지요.》

하응의 기분은 갈수록 우울해졌다. 한쪽에서는 민족적의분이 불타올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적환멸이 랭각작용을 하였다.

설란은 가사를 돌보고 동자질을 하고 환규가 벗어던진 빨래를 해대고 하느라고 그들의 이야기에 참여할 짬이 없었지만 아버지의 더욱 깊어지는 주름살이 환규의 영향때문임을 인차 알아차렸다. 그런데 사흘전에 오합지졸로 된 괴뢰군 패잔부대가 사태가 밀리듯이 쓸어오더니 서상산과 수향산일대에 진을 쳤다. 동네에 내려온 장교와 사병들이 객주집의 술항아리를 통채로 들고갔으며 농민들을 끌고가서 방어공사를 시켰다. 하응의 집에도 장교 한놈이 나타나서 허봉만네 새끼가진 암소

를 끌고 가버렸다. 이튿날 서상산의 주지가 사색이 되여 도망쳐왔다. 괴뢰군이 서상산과 수향산에서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고있다는 말을 들은 하응과 환규는 교전구역에 남아있는것이 어떨가 하고 서로 근심들을 하며 피난을 갈것인가, 말것인가 망설이고있는데 어느새 마음들을 질정할 겨를도 없이 벌써 인민군대들이 들이닥쳤다. 선두부대들이 10여리 떨어진 수향산기슭에 진을 치고 또 다른 부대들이 어디론가 지나가더니 후방부대들이 방개리(방가촌)에 들었다. 동네에서 제일 큰 집인 윤하응네 집엔 군의소가 들었다. 하응은 사랑채만 남겨놓고 본채 전부를 내주었다. 그리고는 환규와 함께 복숭아밭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지난밤부터 맹렬한 포사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다. 어떤 포탄은 마을 코앞에까지 날아왔다. 부상병들이 밀려들었다. 산골에 들어박혀 전쟁을 피해보겠다던 하응이앞에 전쟁은 선지피가 랑자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곧장 그의 추녀밑으로 찾아든것이였다.

이날 하응은 일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

민환규의 말에 의하면 비록 패주했다고는 하나 《국군》은 상당히 강력한 부대로서 이 부근에서 수일간 전투가 진행될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단 하루가 못되여 수향산에서는 간단히 승패가 나고 서상산만 남았다. 30여명의 인민군부상병이 나의 집에 모여들었다. 나의 집은 그들의 군의소로 되였다. 나는 두 군대들의 도덕상태를 관찰하였다. 《국군》은 우리 집 행랑살이의 새끼밴 암소를 끌고갔다. 인민군 군의는 그 집 손자에게 회충구제를 해줌으로써 몇달째 배를 앓으며 노랗게 오이꽃이 피였던 아이를 삽시에 고쳐놓았다.

내가 보매 인민군대는 지어 부상병들까지 젊고 활기가 있으며 소박하고 신념에 차있었다.

이날 전투에서 나의 어린시절의 꿈이 깃들은 공수암은 완전히 허물어졌으며 아버지의 선영도 필경 변을 당하였을것이다. 그러나 가볼 방도가 없다. 전쟁은 산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도 지난 시대의 추억에도 참을수 없는 재앙을 끼치고있다.

아버지가 한 시우에게 보낸 편지가운데서 마침 연개소문의 사람됨을 론하고 아울러 리색의 《정관음》을 인용한 대목을 찾아내였다.

　독안에 든 쥐로만 생각했거늘
　흰화살에 검은 눈알이 빠져버렸구나

아버지는 당태종을 희롱한 그 짤막한 시를 가장 장엄한 글이라고 절찬하였다. 미상불 그것이 우리 나라 력사에서 가장 장엄한 시절을 읊은 명구임에는 틀림이 없고 나역시 애송하던 구절이였다. 그러나 오늘은 읊으니 웬일인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당신의 무덤이 재변을 당하는것을 눈앞에 보고있기때문인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나라가 전화에 그슬리고있는데 어찌 그런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혀있단말인가! 아니다. 진실로 근심스러운것은 달리 있다. 민환규씨의 말과 같이 오늘의 미국이 연개소문당시의 리세민정도가 아니란다면, 그래서 마침내 내 마음을 기탁하고있던 나머지 조국의 북쪽땅마저 빼앗긴다면 저 장엄한 력사와 그렇듯이 훌륭한 조상의 글구가 어찌 무색해지지 않을것이며 또한 후손들을 서글프게 만들지 않을것인가!

…

한편 설란은 인천에서부터 입고온 곤색 학생치마우에 새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을 떠나지 않았다. 전쟁 그자체보다도 집안에 모여든 수십명의 손님들을 각근히 대접해야겠다는 생각이 그 녀자로 하여금 알뜰한 주부로 만들어버렸다. 그는 군대취사원들을 도운다기보다 오히려 지휘를 해가며 찬거리를 만들었고 미음을 쑤었고 물을 끓였다. 허봉만로인은 그의 훌륭한 조수로 되였다. 날씨가 무더웠기때문에 그늘이 깊은 뒤뜰안에 멍석을 내다 펴게 하였고 중상자방에는 헛간에 깊숙이 처박혀있던 발을 꺼내여 치라고 일렀다. 그리하여 건물과 우물과 잡은것 그리고 취사와 관련된 일체 문제는 군의나 간호병이나 부상자 모두가 설란의 말을 들으러 왔다. 그중에는 그 아름답고 싹싹한 처녀와 그저 말을 한번 건네보자고 해서 일부러 볼일을 만들어가지고 찾아오는 싱거운 친구도 없지 않았다.

이러한 변화는 설란이자신에게도 뜻밖이였다.

자기가 수많은 낯선 사람들속에서 더구나 전진에 그슬린 군인들속에서 전혀 아무런 부자유도 속박도 느끼지 않고 이렇게 자유롭게 처신할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해보았다. 처음 《국군》이 쓸어내려왔을 때 아버지는 움쭉 방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단속하였고 그자신 오뉴월에 문을 꽁꽁 닫아걸고 들어앉아 전신이 땀범벅이 될지언정 바깥구경을 하고싶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군대란 란잡한것이요, 더구나 전투에서 지고 도망치는 군대란 개고기라는 기존관념이 강하게 작용하였던것이다. 《국군》을 뒤따라 인민군대가 내려왔다. 설란은 인민군대에 대해 괴상한 표상을 가지고있었

다. 그들은 대체로 흉측하게 생겼을것이고 다른편으로는 얼음처럼 싸늘한 마음을 가졌을것이다. 인정이나 례의도덕같은것은 물론 인정하지 않을것이다. 이런 해괴한 표상이 전혀 론리성을 못띠고있다는것은 두말할것도 없지만 설란의 경우 그와 같은 가상적인 형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저자신도 몰랐다. 어쨌든 설란은 인민군대를 끔찍하게 생각하고있었던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그가 정작 인민군대를 만났을 때 그는 펄쩍 뛸만큼 놀라버렸던것이다. 우선 그들은 무엇보다도 저와 똑같은 조선사람들이였으며 더구나 야박한 세상풍파에 조금도 어지러워지지 않은 깨끗하고 소박한 사람들이였다. 설란은 그날밤 살그머니 마당을 거닐다가 허물어진 담장너머로 동네 우물가에서 울려오는 노래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미국쟈즈와 같이 듣고도 알수 없는 야릇한것이 아니라 조선이라고 하는 남한에서는 자취가 사라져가는 조선의 향토색 짙은 민요였다. 달빛을 통해 가만히 살펴보니 우물가에는 20여명가량 되는 인민군대가 둘러앉아 오락회를 열고있는데 그 둘레에 동네아이들과 아낙네들이 담을 쌓고서서 손벽을 치고 어깨를 흔들며 웃고 떠들어댔다. 문득 설란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낯선 이국땅에서 외롭게 지내다가 한고향 사람을 만난듯한 느낌이였고 한밤중에 후미진 산길을 걷다가 불쑥 나타난 사람이 알고보니 화적이 아니라 집안사람인 때와 같은 반가움이였다. 평소 인민군대에 대해 끔찍하게 생각해왔던만큼 그들이 분명한 자기 혈족이고 더구나 엄엄한 군복에 가리웠어도 후더운 인간의 온기가 풍겨오는 소박한 사람들이라는데서 반가움은 걷잡을수 없는 기쁨으로 변했다. 평소 그들에 대해 품고있었던,어떻게 되여 생겨났는지도 모르는 그 왕청같은 표상때문에 스스로 얼굴을 붉히기도 하였다. 이튿날 군의소가 자기 집에 들었을 때 설란은 주저없이 마당으로 달려나갔고 아무리 봐야 군인같지 않게 싹싹한(군인이란 사나운것이라는 인식이 그가 살아온 사회에서는 하나의 상식으로 되여있었다.) 그들에게 속죄라도 하는 심정으로 정성스럽게 대하였던것이다. 이리하여 그의 일손에는 성수가 났고 가려운데를 긁듯이 빈틈없이 부상병들을 돌보았다.

하응은 응석받이로만 생각해왔던 딸이 몰라보게 변해버린데 놀라기도 하였지만 한편 언짢게도 생각하였다. 그러나 별로 꾸짖을 생각은 없었다. 이판에 누구의 행동이 가장 현명한것인지 그것을 누가 알랴.…그리하여 아버지는 자기의 손님과 함께 복숭아밭속의 정자밑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 원두막같은 정자앞에는 다섯그루의 늙은 감나무가

서있어서 아무리 뙤약볕이 내려쬐여도 컴컴한 그늘이 드리워있었다. 모시노타이샤쯔에 허줄한 양복바지를 걸친 로교수는 그 그늘에 펴놓은 거적에 올방자를 틀고앉아 아버지의 유고들을 들추며 가끔 참외를 벗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저 그러한 외형을 가장하고있을뿐 그의 손은 같은 책장을 몇번이고 되풀이해 번졌고 참외를 벗겨놓고는 잊어버린듯 포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군의소가 들었으니 여기까지 전투가 파급되지는 않을것이라고 일단 마음을 놓기는 하였으나 그렇다고 불과 10리 안쪽에서 붙은 전투에 대해 무관심할수는 없었던것이다.

환규는 노상 자기 모멸이 어린 쓸쓸한 미소를 입가에 지으며 콩볶듯 들려오는 총소리를 외면하듯 먼산을 바라보고있었으나 결국 총소리에 대해 먼저 입을 벌리는것은 그자신이였다.

《선생님은 늘 인물에 대해서 몹시 생각하시지만 보십시오. 저렇게 총소리가 마구 울리는데 저판에 설령 창해력사와 같은 용장이 있다한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장대한 사람도 소총알 한알이면 그만인데요.》

《그야 그렇지요. 허나 오늘에 와서는 그 문제가 그 군대 모든 성원들의 품성에 달려있을지도 모르지요. 백성들이야 아무래도 점잖고 의젓한 군대를 지지하게 되겠지요. 인민들의 지지가 전투에서 설마 아무 쓸모가 없지야 않겠지요?》

하응은 별로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이렇게 대답하였다. 사실 그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크게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그러나 옛사람들의 저서며 전쟁력사 혹은 병서들을 더듬으며 그속에 강조된 어떤 개인의 역할에 대해 특별히 비판적으로 대해보지 못한 그는 비상히 무기가 발달한 현대전의 조건하에서도 어쨌든 인간을 중심으로 력사를 기사해야 한다는 한가지 립장때문에 그렇게 쉽게 대답을 해버린것이였다.

환규는 그 말에 뚜렷한 반대의 뜻을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찬성하는것도 아닌 애매한 투로 말하였다.

《물론 인민들의 지지야 중요하지요. 그러나 워낙 무기가 발달했거던요. …》

해가 서산우에 기울어질무렵 갑자기 총소리가 뚝 멎었다. 종일 볶아대던 전투소리가 일시에 멎고보니 차라리 마음이 불안해졌다. 사위에 공허한 정적이 깃들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하응은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걸었다.

《글쎄요…》
환규는 그렇게 쉬 전투가 끝날수는 없다고 생각해온만큼 눈이 둥그래서 마주 바라보았다. 이때 집쪽에서 부상병들이 부르는 만세소리가 들려왔다.
《아마 인민군대쪽이 이긴 모양입니다. 또…》
《또?》
하응은 무심히 환규가 말한 그 《또》라는 말을 되받아외우며 눈을 슴뻑거렸다.
《그렇다면 마침내 대전에서 결판이 날 모양인가요?》
《글쎄요, 아마 그렇게 되겠지요.》
환규는 어쩐지 얼굴이 벌개져서 내키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때 설란은 전신을 흰 붕대로 감은 중상자를 위해 미음을 쑤었는데 마침 간호병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 미음그릇을 손수 쟁반에 받쳐들고 대청으로 갔다. 그러자 만세소리가 터져올랐다. 부엌에서 바삐 돌아치느라고 미처 총소리가 멎은것도 모르고있던 그는 보숭보숭 땀방울이 내돋친 발갛게 상기된 얼굴을 이리저리 돌리며 무슨 일이 벌어졌나 살폈다.
《처녀동무, 이리 오시오. 전투가 끝났어요.》
대청 맨 안쪽 뒤창결에 누운 바로 그 중상자가 상반신을 일으키고 손을 흔들었다. 설란은 새삼스럽게 집안을 다시한번 둘러보았다. 대청과 안방, 건넌방, 뒤뜰안 할것없이 크고작은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사랑채 곁방에서는 방금까지 수술이 진행되고있었다. 흰 위생복과 피자욱이 얼룩덜룩한 야전침대, 들것들이 추녀밑이며 마당이며 백양나무그늘에 널려있었다. 그런데 그 모든 어수선한 소리와 색조가 갑자기 환희일색으로 변했다.
《어림있나, 〈호림부대〉가 다 뭐야?》
《쳇, 난 마지막판에 이 모양이 됐거던…》
《그런데 2대대와 3대대가 언제 그렇게 우회를 했을가?》
이런 속삭임들이 들려왔다.
설란이 어리둥절해서 잠시 망설이자 땀배인 흰 군용내의속으로 두툼하게 감은 새하얀 붕대가 드러나뵈는 그 중상자가 다시 말을 걸었다.
《이리 오십시오. 이제 동무도 완전해방되였습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다.)

설란은 미음을 엎지르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놓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것인가? 과연 그 《우리》라는 말가운데는 저자신도 포함되여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누구의 속박에서 해방된것인가? 하긴 어머니가 돌아가신이래 가냘픈 소녀의 손으로 이미 기울어졌다고는 하나 몇대를 내려오는 가산에 신경을 써야 했던 그로서는 철부지대학생으로만 보이는 외양과는 달리 남다른 심려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어떤 사회적인 속박이나 압력을 느끼고 살아오지는 않았다. 다만 이 마당에 문득 느껴지는 감정은 자기 살점이 아니면서도 자기 몸에 붙어있던 어떤 혹과 같은 존재에 대한 의식이였다. 설란은 그 혹에 습관이 되였다. 자기도모르는사이 누군가가 떼내여주고보니 비로소 거치장스러웠던 과거가 생각나고 거뿐해진 현재의 쾌감이 느껴지는 그런 혹— 그것이 아직 꼭 짚어 말할수는 없으나 오늘의 조선사회에서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무의미한 생활이라는것을 그 녀자는 여적 모르고 살아왔다. 그가 인민군부상병들에게 극진히 대하고 또 그들로부터 사랑을 받는것은 그가 그들을 《우리》편으로 생각했기때문이 아니라 그저 그 녀자가 타고난 천성으로부터 한이웃간처럼 선의로 대해주는 사람에게 상냥하게 대한데 불과한것이였다.

이제 이름도 성도 모르는 한 수수한 청년으로부터 《우리》라고 불리우고보니 기쁨에 앞서 어쩐지 눈시울이 뜨끔해졌다. 그것은 상대가 전신을 붕대로 휘감은 중상자라는 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느끼지 못하면서도 실상 심한 정신적고독속에 살아왔기때문이기도 하였다.

《정말 여러분이 수고를 하셨어요. 이렇게 더운데…》

설란은 무어라고 할말이 생각나지 않아 쟁반을 조심스럽게 머리맡에 놓으며 이렇게 말했다.

《수고가 무슨 수고겠습니까? 수고야 동무가 더 했지요. 그놈들때문에 남반부 겨레들이 얼마나 고생했다는것을 우리는 잘 알고있습니다. 한형제로서 남반부인민들을 해방하는거야 당연한 일이지요.》

부상병은 어엿하게 말하였다. 설란은 다시 어리둥절하였다. 해별에 탄 둥글둥글한 얼굴 어딘가 며칠전에 괴뢰군에게 끌려간 허봉만로인의 둘째아들비슷한데가 있는 그 청년이 저로서도 막연한 《남반부인민들》의 상태며 그것을 해방한 형제적의리에 대해 그렇듯 명백하게 알고있고 말하고있다는것이 잘 믿어지지 않으리만큼 뜻밖이였다.

그가 열심히 강의를 필기한 교수들은 프랑스대혁명이며 로마제국의 집정관이며 《십자군원정》에 대해서는 시시콜콜히 말했지만 단 한번도 《남반부인민들의 고생》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아버지만해도 신라, 고구려의 통일위업과 고조선, 고구려의 전성기에 대해서 흥분하며 이야기했고 량단된 조국을 가슴아파했지만 누가 누구를 해방할데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남반부의 이러저러한 현실에 대해서는 그저 욕설을 많이 퍼부었을뿐이였다. 그 욕설의 토막토막을 통해서 스스로 굶어보지 못한 설란도 배고픔에 대한 많은 설화를 들었고 감옥에 들어가보지 않았어도 남조선에서 가장 발전된것의 하나가 감옥이며 그렇게 많이 감옥을 세웠지만 그래도 감옥이 모자란다는 말을 들었다. 설란이가 모르고있는것은 남조선사회의 해괴망측한 현상이 아니라 사람마다 욕설을 퍼붓는 그 사회가 자기 생활과 어떤 련관이 있는가 하는 그것이였다. 또한 광복후 5년간에 엮어진 피묻은 남조선력사의 외피를 모르는것이 아니라 그 력사가 자기스스로의 생활을 어떻게 멸망에로 이끌어갔는가 하는것을 모르고있었다. 이점에 있어서 아버지 윤하응의 복고주의는 매우 유해로운 작용을 놀았다. 그는 딸을 극력 추악한 사회의 영향으로부터 떼내서 자기의 옛것을 그리워하는 공상의 온실속에서 키웠던것이다. 그 녀자에게 어느 정도의 생활력이 남아있은것은 사회생활에서는 어린 딸보다 더 철부지인 아버지의 뒤시중을 들어야 할 처지때문에 어쨌든 생활이라고 하는것에 대해 최소한도의 측면에서나마 마주 부닥치지 않을수 없었기때문이였다. 이리하여 한쪽에서는 공상속에 사는 철부지처녀가 있고 다른쪽에는 저자구럭을 들고 장사군보다 협잡군과 도적놈이 더 많이 득실거리는 남대문시장에 가서 시세보다 다만 얼마라도 눅게 물건흥정을 할줄 아는 깔끔한 처녀가 생겨난것이였다.
부르릉하고 승용차가 달려왔다. 자동차는 곧바로 윤하응네 대문으로 꺾어들었다.
《련대장동무다!》
이런 속삭임소리가 들리더니 뻘건 완장을 두른 직일관이 경례를 붙이고 대문으로 달려나갔다. 차에서 키가 성큼하고 위풍이 당당한 군관이 내렸다.
《부대장동지, 군의소는 현재 치료사업중입니다. 근무중…》
직일관이 보고를 하자 부대장이라는 사람이 가볍게 경례를 받으며 마당으로 들어섰다. 부상병들이 다시 소곤거리기 시작했다.

《련대장동무가 우릴 찾아왔어. 바쁘실텐데…》
《저것보게, 련대장동무 군모에 땀이 내뱄어.》
《안됐군. 걱정을 끼쳐서…》
이때 방금까지 흥분해서 상반신을 일으켜세우고 말을 하던 중상자가 모포를 뒤집어쓰고 드러누우며 옆동무에게 말했다.
《이거 야단났네. 큰소리만 쳐놓고… 좀 모른체하게.》
그런데 련대장은 군의소 책임자의 안내를 받아 사랑채로 들어가더니 부상자 한사람 한사람을 들여다보며 뜰아래방을 거쳐 점점 대청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설란은 그때까지도 대청우에 서서 정신없이 부대장이라는 사람을 바라보다가 그가 대청으로 향해오자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토방으로 내려섰다. 련대장은 행랑채를 나와 안마당을 건너오고있었다. 이미 모른척하고 몸을 피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가까왔다. 설란은 왜 그런지 거북함을 느끼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젊은 련대장은 —설란은 비로소 성큼한 키에 위풍이 당당해보이던 그가 그렇게도 젊고 그렇게도 단정하게 생겼다는것을 알고 내심 놀랐다.— 이 집주인의 딸이라는 군의소 책임자의 설명을 들으며 여전히 활달한 걸음으로 다가왔다.
《많이 놀랐겠습니다.》
은근하면서도 어딘가 힘이 느껴지는 련대장의 말을 듣자 설란은 문득 고개를 들었다. 사실 얼마나 놀랐던가? 저는 단 한번도 자기가 이 보름동안을 놀라서 지낸다는것을 못느끼고있었건만 이제 처음으로 만난, 그것도 얼마간 별세계의 사람으로 치부했고 어마어마한 외형으로만 그려오던 그런 사람의 입에서 새여나온 첫마디를 통하여 비로소 그것을 깨닫고 어리둥절하지 않을수 없었다.
《우리 동무들을 이렇게 돌봐주기까지 해서 고맙습니다. 여러가지로 신세를 끼치고있을것입니다.》
《별말씀을 다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피를 흘리고 싸우셨는데 오히려 정성이 미치지 못해서 얼마나 죄송한지 모르겠어요.》
설란은 말하면서 속으로 자기가 얼마나 그럴듯하고 의젓하게 또 처음 만난 젊은 남자앞에서—그가 아무리 커다란 별을 세개씩이나 달고 또 여기 모인 수많은 군관 전사들이 큰 존경과 신뢰를 나타내고있다 해도 어쨌든 설란이 보기에 그는 한눈에도 호감이 가는 젊은 청년이였다.— 그렇게도 자유롭게 말하고있다는것을 느끼고 놀랐다. 그리고 인민군대가 지나가고 전투소리를 듣고 군의소에 부상병이 들어오고 하면

서 이 이틀간에 행동은 하면서도 스스로 느끼지는 못하던 자기의 마음속을 어떻게 선자리에서 그렇게도 적절하게 표현할수 있었는지 놀랍기만 하였다. 련대장은 그 녀자의 땀방울이 보송보송하면서도 분명 발랄한 지성이 느껴지는 얼굴이며 몸매를 유심히 바라보면서 말하였다.

《아마 동무의— 용서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말버릇이 됐습니다. 허허허, 그 정성이 우리 동무들을 크게 고무해줄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련대장이 가볍게 눈인사를 하고 대청으로 올라섰을 때까지도 설란은 그자리에 서있었다. 잘 울리는 서글서글한 목소리, 군인다운 호탕한 웃음, 그러면서도 어딘가 따뜻한 인간적인 온기가 느껴지는 그 말마디들을 껴안듯 설란은 빈 쟁반을 가슴에 안고 새삼스럽게 마음속으로 중얼거려보았다.

《우리가 이겼다.》

이순간 그는 이야기로 듣고 책에서 읽은 그리고 그가 보아온 일본이며 미국이며 괴뢰군이며 하는 그가 아는 모든 군대들과 전혀 다른 군대, 진심으로 《우리》라고 부르고싶은 한동기간같은 인간자체를 느끼는것이였다.

대청에는 6명의 부상병들이 누워있었다. 련대장은 한사람 한사람 손을 잡고 상처를 들여다보고 하면서 경과를 물었다. 부상병들은 약속이나 한듯 아무렇지 않다고 대답하였지만 련대장은 그 희고 넓은 이마살을 찌프리며 말하였다.

《안되겠소. 상처가 간단하지 않군. 군의장동무, 잘 돌봐주시오.》

설란은 기둥에 기대서서 말없이 그 거동을 지켜보았다. (인민군대는 저렇게 높은 상관도 경어를 쓰네! 정말…)

마침내 련대장은 모포를 뒤집어쓰고 자는듯이 드러누운 마지막 중상자옆에 섰다.

《리막동동뭅니다.》

군의장의 말을 듣자 련대장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앉더니 모포를 제꼈다. 그러나 막동은 모포자락을 잡아끌며 목만 내놓고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련대장동지, 일없습니다. 조금 스쳤을뿐입니다.》

《흠, 자는척하였군. 스치긴 어딜 스쳤단말요? 어디 상처를 봅시다. 내가 다 듣고왔소.》

련대장은 기가 차는지 모포자락을 놓지 않고 엄하게 말했다.

《스쳤다는데 그래요, 파편이말입니다.》

《파편이? 흥 파편이 다 뭐요? 동무가 철조망에 드러누운것때문에 싸움엔 이겼지만 대대장동무는 아마 비판을 받아야 할거요. 어서 상처를 보이시오.》

《참 파편이나 그거나 다 같지요. 뭘 그럽니까…》

설란은 그들이 주고받는 말싱갱이를 듣고 입가에 저도모르게 미소를 지었으나 한편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하였다. 그는 30명나마되는 부상병들가운데서 그 막동이라는 사람이 전신에 붕대를 감은 중상자였기때문에 각별히 깊은 관심을 가졌던것만은 사실이였다. 그러나 그것이 전투에서 입은 상처라는것외에는 별로 깊은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 그저 탄알도 무수하게 많이 맞은 모양인데 용케 살아있다고 생각했고 특히 그가 자기 부상을 그저 잘못하다 넘어져서 무릎이나 좀 벗긴 정도로밖에 취급하지 않는데 대해 놀랍게 생각한것뿐이였다. 그런데 철조망에 드러누웠다니 그게 무슨 소린가? 전혀 군사문제며 전투에 대해서 아는것이 없는 그 녀자였으나 아찔한 생각이 드는 한편 련대장앞에서도 자기 상처를 감추며 태연히 웃고있는 그 수수한 병사의 웅숭깊은 마음이 손에 잡힐듯해서 눈시울이 후더워졌다.

상처를 살펴보고난 련대장이 모포깃을 꽁꽁 여며주고나서 허리를 일으켰다.

《군의장동무, 부탁합니다. 이 동무의 등을 타고 우리 부대가 적진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적을 소멸한 이상 이 동무의 상처를 한시바삐, 알겠습니까? 하루가 아닙니다. 한시바삐 고쳐줘야 합니다.》

나이 지숙한 군의장은 부동자세로 서서 대답했다.

《알고있습니다. 문화부대대장동무가 직접 들것을 들고 달려왔댔습니다.》

련대장은 그리고도 나머지 부상병들을 빠짐없이 다 돌아보았다.

그가 건넌방과 안방을 다 돌고나올 때까지도 설란은 못박힌듯 그 자리에 서있었다. 그러다가 부대장이 토방에 나타나자 웬일인지 가슴이 후득거려 부엌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그런데 부대장이 그를 불러세웠다.

《내 아버님을 좀 만났으면 하는데 어디 계시는지요?》

《네?》

설란은 긴장되여 눈을 크게 뜨고 마주 바라보았다. 왜 그런지 마음이 불안하였다. 아버지가 혹 이분에게 무슨 불쾌한 존재로 된것이나 아닌가? 아버지의 저작을 읽었다면 그것은 물론 이분들의 견해와는 잘 맞지 않을것이다. 그러니 혹 그 책에 대한 말을 하자는것은 아닐가?

설란의 당황해하는 눈치를 채자 부대장은 부드럽게 말하였다.
《뭐 놀라실것 없습니다. 우리가 페를 많이 끼쳤기때문에 인사를 드리자는것입니다. 난 모르고 왔는데 아버님이 윤하응선생님이시라구요?》
설란은 비로소 마음이 놓이였다. 그는 가볍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래요. 우리 아버지를 아세요?》
《잘은 모릅니다. 그저 유명한분이란 정도로 알지요. 유감스럽지만 우리는 력사에 대해서 선생과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있으니까요. 그래 지금 댁에 계신가요?》
《네, 저 과수원에 계세요. 이리 오세요.》
설란은 쟁반을 행주치마밑에 감추어쥐고 종종걸음을 쳐서 과수원으로 달려갔다.
앉으랑소나무처럼 앙바틈한 10여년생 복숭아나무가 바둑판처럼 정방형을 이루고 널직널직 들어섰는데 괴뢰군들이 수일전 새끼밴 암소를 끌어갈 때 몇가마니 훑어가버려서 먹음직하게 익은 열매는 하나도 없고 비린내나는 풋살구같은 복숭아들이 달려있었다. 당콩과 락화생넝쿨이 뻗어나간 그밑을 한참 걸어가니 질게 깔린 나무록음사이에 널판으로 무은 높직한 루다락같은것이 나타났다. 제법 유리창을 내고 널쪽으로 사닥다리를 해붙였는데 윤하응교수는 여름방학때면 내내 여기서 저작집필을 하였다.
지금 그 다락의 열어젖힌 유리창을 통하여 드르렁드르렁 코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다락아래 감나무그늘에는 퇴색한 두개의 등의자가 놓여있는데 아무도 앉은 사람은 없고 환규가 다락기둥에 기대서서 여전히 먼산을 바라보고있으며 윤하응교수는 누렇게 뜬 참지에 깨알같이 박아쓴 아버지의 필적을 더듬고있었다.
《아버지, 저 인민군대 부대장이 오세요.》
숨을 헐떡거리며 달려온 설란이가 이렇게 말했다. 높다란 가슴이 가쁘게 오르내렸다.
《인민군대 부대장?》 앵무새처럼 받아외운 하응은 돋보기를 이마우로 밀어놓으며 말했다. 《나한테 무슨 볼일이 있다더냐?》
그러나 미처 대답할 사이도 없이 복숭아나무그늘사이로 보위색군복이 나타났다.
설란은 다락우에서 드르렁드르렁하는 코고는 소리가 민망하여 주먹으로 기둥을 콩콩 울렸다.

《왜 그러십니까? 가만 둬두지요. 곤히 잠든것 같은데…》
환규는 태연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며 새삼스럽게 등의자에 가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그러면서 가로 길게 찢어진 서늘한 눈 한귀로는 다가오는 발걸음의 임자를 유심히 관찰하고있었다. 그러다가 정작 감나무밑에 나타난 사람이 동궁습격당시의 해병이나 빠리콤뮨의 로동자들처럼 골통대를 입에 문 텁석부리가 아니라 군모기슭에 땀이 좀 내뱄을뿐 단정한 옷차림을 한 말쑥한 젊은이라는것을 보자 저으기 놀라서 저도모르게 허리를 일으키고 두팔을 등의자받치개에 올려놓았다.
학민은 거적우에 올방자를 틀고앉아 돋보기를 이마우에 올려놓은채 글줄을 들여다보는것처럼 돌아앉아있는 늙은이앞으로 다가갔다. 적지 않은 지방공작경험을 가지고있는 그는 이 서먹서먹한 다락아래 분위기에 한가닥 적의가 드리우고있음을 제깍 눈치챘다.
《윤하응선생이십니까?》
《그렇소이다.》
하응은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비로소 누가 왔다는것을 깨닫기나 한듯이 황급히 돌아앉으며 보기가 거북할 정도로 서투른 연극을 놀았다. 학민은 빙그레 웃으며 가벼운 어조로 말했다.
《소문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폐부터 끼쳐드려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하응은 돋보기를 황급히 내려썼다가 다시 이마우에 밀어놓으며 자기앞에 반석처럼 뻗치고선 젊은이가 과연 부대장이 옳은가 아닌가를 검열해보듯 깐깐히 바라보며 심드렁한 어조로 말했다.
《폐랄게 있소이까? 싸움을 하는데 백성이 이쯤한 폐를 보기야 하는수없는 일이지요.》
《허허허, 뭐 하는수없는 일일것도 없지요. 우린 밤중으로 떠납니다.》
《…》
설란은 아까 환규가 서있던 기둥에 기대서서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어쩐지 아버지의 퉁명스런 응대가 오늘밤으로 그들을 떠나게 만든것도 같아 민망스럽기가 그지없었다.
《저 동지…》
환규는 처음부터 내내 못보는체하면서도 신경을 날카롭게 견주고있던 인민군 부대장이 자기보다 오히려 한두살아래로 짐작되는 젊은이임을 알자 웬일인지 말을 걸어보고싶은 충동을 걷잡을수 없었다. 하기는 그러한 충동을 진작부터 느껴오던 그였다. 그러나 로상에서 만난 전사

들과는 더불어 론할바가 못된다고 생각해온 그는 이제 비록 젊으나 자기가 여태 만난 인민군대치고는 가장 직급이 높은 사람을 눈앞에 두고 보니 오래전부터 혼자 주고받던 론쟁을 기어코 한번 해보고싶어졌다.

환규의 약간 초조해하는 목소리에 학민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군인답지 않게 서글서글한 눈을 보자 환규는 일부러 뒤로 몸을 젖혔다. 그리고는 우정 경박한 투로 말하였다.

《그럼 드디여 대전쪽으로 가시는가요?》

그것은 이런 주민지대에서 군인들이 흔히 당할수 있는 질문이였다. 그러나 학민은 아까부터 자기를 야릇한 눈길로 쏘아보던 해말쑥한 사나이가 결코 단순한 호기심을 가지고 하는 질문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는 천천히 코고는 소리가 여전히 들려오는 다락우를 올려다보며 중얼거리듯 누구에게라 없이 말했다.

《서상사의 중이 여기 와서 잠이 깊이 들었군요.》

그저 스쳐지나가면서 우연히 던진듯한 이 말 한마디는 비상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아니 그것은 어떻게 알았소이까?》

윤하응교수는 사뭇 놀란 목소리를 지르며 다시 돋보기를 이마우로 밀어올렸다.

《허허허, 우리야 군인이 아닙니까? 새로 들어서는곳에 누구가 있으리라는것쯤 미리 알지요. 우리는 서상사의 주지가 이 방개리로 도망쳤다는것을 미리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을 받아줄만한 집이 이 집뿐이고 또 이 집에 댁 식구외에 다른 사람이 따로 있을수 없다는것이야 누구나 쉽게 짐작할수 있지요.》

학민은 무슨 필요를 느껴선지 자기의 추리과정을 소상히 설명하였다. 그것은 환규의 가슴을 웬일인지 불안하게 만들었다. 학민은 그런 눈치라도 챈듯이 환규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물었다.

《그런데 실례입니다만 당신은 누구신지요?》

앞뒤의 련계로 보아 이 말은 비단 환규에게만이 아니라 윤하응교수나 설란에게도 평범하게 들리지 않았다. 더구나 설란은 방금전 자기에게 《동무》라고 하면서 그것이 버릇이 됐다고 하던 말을 문득 상기하였다. 어쩐지 비상한 투시력을 가진 그 눈으로 환규의 처지며 회의적인 일상생활을 다 꿰뚫어보고있는듯한 가볍지 않은 어조를 느끼며 설란은 몹시도 긴장되였다. 그래서 될수록 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뜨려보려고 한걸음 앞으로 나섰는데 이때 로

교수는 거의 비슷한 심리가 작용을 하여 먼저 입을 열었다.

《이분은 나와 한학교에서 경제사를 강의하는 교수선생이올시다. 집이 서울에 있는데 전쟁을 만나 피난을 오셨지요.》

《그렇습니까?》

학민은 질문을 던졌을 때와는 달리 뜻밖에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거리며 환규옆에 놓인 빈 등의자로 걸어갔다. 그제야 설란도 당황하여 의자를 끌어다 세사람이 솥발모양으로 마주앉게 의자를 바로잡아놓았다.

《고맙습니다.》 학민은 가볍게 눈인사를 하고 앉더니 환규를 돌아보았다. 《그래 당신은 우리가 대전으로 가느냐고 물었지요? 우린 비단 대전으로 갈뿐아니라 부산으로, 진해로 갑니다. 말하자면 남조선전지역을 종국적으로 해방하는것이 우리의 목적이지요.》

학민의 말은 점잖고 은근하였으나 웬일인지 환규는 첫마디부터 적지않게 주눅이 들어버렸다. 그는 삼랑이와 비슷한 나이또래의 군인이기때문에 삼랑이정도로 가볍게 다룰수 있으리라고 넘겨짚고 서뿔리 선불질을 했던것이나 뭐라고 짚어 말할수는 없지만 어쨌든 심한 모욕을 당한후에 여지없이 억눌려버린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그러자 그의 몸에서는 그가 철들어서 오늘까지 백치들속에서만 살아온 관계로 턱없이 크게 자라버린 그러면서도 남달리 많이 받아들인 교양의 힘으로 위장해두었던 자존심이 용수철처럼 바깥으로 튕겨올랐다. 그는 싸늘한 웃음을 입가에 띄우며 가볍게 말했다.

《욕망만으로 된다면 아무데나 갈수 있지요. 리승만이도 동지와 마찬가지로 사흘이면 이북땅을 다 점령할수 있다고 말했답니다.》

《재미있는 말입니다.》하고 학민은 담배를 꺼내여 두사람에게 권하며 말했다. 《그런데 나는 당신이 우리의 희망을 묻는가 생각했지요. 허허허, 어쨌든 좋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부산과 진해가 아니라 과연 대전을 돌파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이 의심스러운 모양이군요?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때문에 대전을 돌파할수 없다고 생각하는가요?》

《동지야 지금까지는 전승의 군대니까 진격하는데 대해 습관이 되였고 그래서 타력적인 흥분상태에 있을수 있을것입니다.》

환규는 상대가 자기를 《당신》이라고 부르는데 대해 어쩐지 마음이 께름직했으나 그렇다고 저도 마주 《당신》이라고 부를 용기는 나지 않아서 그대로 말을 이을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동지들의 적수들도 이젠 그리 만만한것 같지 않습니다.》

《타력적인 흥분상태라… 그건 무슨 말인가요? 당신은 혹 우리 군대의 왕성한 사기를 그렇게 말하는것이 아닙니까?》

환규는 여기서 다시한번 모욕감을 느꼈으나 재빨리 너그러운 웃음으로 그것을 가리워버렸다.

《글쎄요. 꼭 같다고는 할수 없어도 비슷하겠지요.》

그러면서 그는 이마를 찌프리고있는 윤하응부녀를 돌아보며 새로 온 손님의 그 교양정도가 어떤가 하는 표정을 지었다.

《허허허.》 학민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의 말은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좋습니다. 그래 당신은 우리가 사기에 넘쳐서 내미는데만 정신이 팔려있기때문에 현실을 정확하게 볼줄 모른단말이지요?》

《이를테면 그렇지요. 내가 알건대는 지금 금강과 소백산맥일대에는 적지않은 군사적력량이 집결되여있습니다.》

《자꾸 물어서 안됐습니다만 그 군사적력량을 어느정도로 보십니까?》

《그거야 우리가 알바 없지요. 그러나 적어도 일본에 있던 4개사단과 한개 함대와 한개 공군집단과 또 10여개의 〈국군〉 사단이 집결할수 있다고 보는데요.》

《정말 산속에 있다보니 실정에 그리 밝지 못합니다. 내가 약간 보충해드리지요. 지금 미국은 우리 조선을 반대해서 대단한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트루맨의 〈비상선언〉에 의해서 소집년령이 채 되지 않은 아이들과 늙은이들까지 끌어내여 975만명이나 긁어모았고 미국 전체 륙군의 반수에 이미 동원령이 내렸습니다. 유럽쪽에 있던 제6함대의 일부가 벌써 태평양쪽으로 이동되였고 항공모함을 선진으로 하는 해군기동부대가 벌써 하와이를 떠났습니다. 모르긴해도 그놈들이 잘 휘두르는 원자탄도 지금쯤 일본에 날라다놓았는지 모르지요. 그밖에 영국, 뛰르끼예, 카나다, 필리핀 … 이러루한 나라들이 군대를 보내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디 이만하면 우리가 대전을 돌파하지 못하리라는 확신을 가질만한가요?》

환규는 눈을 부릅뜬채 말을 찾지 못하였다. 학민이 내놓은 수자가 너무나 엄청난것이였기때문에 자존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론쟁따위에 마음이 사로잡혀있을 여유가 없었다. 윤하응과 설란도 입이 절로 벌어질만큼 놀랐다. 학민은 태연히 말을 이었다.

《좀 놀라신 모양이군요. 그러나 놀랄것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현실을 똑똑히 보고 옳게 행동해야 할 때가 온것입니다. 적

당히 살때가 아니고 또 그렇게 살수도 없는 때이지요.》

《그렇다면 거듭 묻고싶습니다만》하고 환규는 초조감을 감추지 못한채 조급하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그런 적들을 무엇으로 이길수 있다는것인지요?》

학민은 담배연기를 구수하게 내뿜으며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아직 7시반이였다.

《보니까 당신은 우리 힘을 아주 얕잡아보는것 같은데…》

학민은 성급하게 부인하려는 환규의 거동을 침착하게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당신의 생각은 물론 틀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증명하려면 군사비밀도 있고 또 나는 시간이 좀 바쁩니다. 그저 몇가지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만을 말해드릴수 있습니다. 당신도 들었겠지만 미국놈들은 을러메기를 잘합니다. 미국놈들의 그 오만무례하고 강도적인 위협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효과를 거둘수도 있는것입니다. 사실 그놈들은 바로 그것을 타산하고있지요. 우리가 모두 당신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큰소리를 탕 치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리라고 타산한단말입니다.》

환규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다. 그 해쓱해진 얼굴을 보자 윤하응도 거북함을 느끼고 헛기침을 깇었다. 그러나 학민은 여전히 담배연기를 뿜어올리며 말을 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요. 당신은 내 말을 좀 기분나쁘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내가 말하는것은 뭐 당신을 일부러 모욕하자고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것은 우선 우리는 미국놈들에게 이 땅을 빼앗기고는 그놈들밑에서 살수도 없고 어디 딴 나라로 이사도 갈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이 점이 당신과 우리 생각을 서로 다르게 만들지요. 다음은 우리는 이미 갓쓰고 나귀타고 다니던 시절의 조선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시대가 변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디로 이사를 갈 새 땅도 없는 자기 처지를 명백히 깨달았을뿐만아니라 우리가 들고일어난다면 어떤 원쑤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는것을 깨달았지요. 미국놈들은 〈왼뺨을 치거던 오른뺨을 돌려대라〉고 설교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께서 늘 말씀하시는것처럼 〈네놈이 한번 치면 우리는 두번 갈기겠다.〉고 말합니다. 말할뿐아니라 그렇게 행동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생각과 당신의 생각을 구별하는 또 하나의 립장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규는 이야기를 여기서 오래 끌었다가는 갈수록 자기에게 불리하다는것을 통감하였다. 그는 그런 개념적인 이야기는 문제시하지 않는다는 태도로 입가에 랭소를 띠우며 말했다.

《동지도 꽤 미사려구를 좋아하시는군요. 나는 목전에 총포탄이 날아다니고 폭발이 진행되고 사람이 넘어지는 이 마당에 극히 현실적인것을 동지에게 묻고있습니다. 그래 동지는 미국이 그만한 력량을 동원한 조건하에서 어떻게 대전을 돌파하며 미국을 이겨낼수 있겠는지 하는 점을 좀 찍어서 선명히 설명해줄수 없겠습니까?》

《그걸 해보자는것입니다. 며칠전에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께서는 방송연설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미국침략자들의 군대는 남의 나라의 강토에서 싸우지만 우리의 인민군대는 전체 인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으면서 자기의 조국강토에서 싸우고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립장을 쉽게 리해할수 있습니다. 아까 내가 미국이 이미 900여만을 소집했다는 말을 했습니다만 미국의 현실적인 여러가지 조건을 타산한다면 그들은 극상해야 조선에 300만이상을 끌고올수 없을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동지는 그 300만을 물리칠 힘이 당신들에게 있다는것인가요?》

환규는 비로소 정직하게 자기 심중의 말을 했다. 이것은 제기된 문제가 감정의 희롱을 더는 계속할수 없을만큼 준엄한 현실에 대한 문제였고 직접 그의 생활과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였기때문이였다.

두사람의 론쟁적인 대화에 전혀 무관심한듯한 태도로 낡은 원고들을 매만지고있던 하응도 그리고 뒤늦게사 손님을 대접할 생각이 들어 쟁반을 행주치마로 훔치고 참외망태에서 잘 익은놈을 골라 벗기고있던 설란도 부지중 손을 멈추고 학민의 시종 침착한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이 300만을 조선에 끌어오려면 아무리 발달됐다는 그자들의 수송수단으로도 몇해 잘 걸릴것이고 지금 형편으로 보면 그들이 최후발악하는 경우에도 줄잡아 3년은 걸린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그밖에 그들의 어중이떠중이 추종국가들과 괴뢰군의 력량까지 합하더라도 그들이 직접 전투에 내몰수 있는 군사력량은 극히 제한된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적어도 7배이상의 력량을 동원할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세사람은 약속이나 한듯 고개를 쳐들고 담배연기가 감도는 학민의 입가를 바라보았다.

학민은 어스름이 밀려들면서 더욱 선명하게 두드러지는 흰 얼굴에 미소를 띠우고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놈들은 36시간전쟁을 떠벌이고있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지요. 우리의 인구는 3,000만입니다. 그중의 극소수가 당신과 같은 립장에 있다고 우리는 봅니다. 그밖에 약 8～900만은 전투력이 없는 로약자와 어린이 기타 전투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치고 우리는 적어도 이 싸움에 2,000만이상을 직접 우리의 전쟁목적에 동원할수 있습니다. 그들중 일부가 년령이 좀 벗어지거나 미성년이라 하더라도 미국고용병들보다는 훨씬 용감하게 싸울수 있다고 우리는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 땅을 떠날수도 없고 또 다시는 제국주의략탈자들의 노예로 살수도 없기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수자로 세지 않습니다. 그들의 안중에는 900만이라는 인간이 900만발의 보총탄알이나 900만정의 총자루로밖에 계산되지 않겠지만 우리는 **김일성**장군님께서 늘 말씀하시는것처럼 우리 인민을 력사의 창조자로,이 세상의 주인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설혹 우리가 그들의 총자루 수자보다 적은 수자의 인민을 가지고있다 해도 우리는 바로 인간을,자기가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것을 열렬히 원하고있으며 그것을 위하여 싸울것을 결심한 그런 인간을 가지고있기때문에 강력한것입니다. 우리 조선인민혁명군이 100만의 〈관동군〉을 상대해서 볼품없는 보병무기와 대비도 안되는 수자를 가지고도 당당히 싸워서 이길수 있었던것은 **김일성**장군님의 바로 이러한 사상에 고무되였기때문입니다. 이 사상은 진리입니다. 알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것은 인간이며 이 세상의 주인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조선의 주인은 조선사람입니다. 조선에서 가장 강력한것은 900만자루의 보총이나 그밖에 비행기,폭탄따위가 아니라 조선사람—자기가 이 땅의 주인임을 자각한 조선인민입니다. 나머지 문제,우리가 어떻게 대전을 돌파할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며칠후 전과보도가 더 웅변적으로 대답할것입니다. 우리는 놈들이 그런 파렴치한 군사조치로 위협하기때문에 더욱 빨리 숨쉴 틈을 주지 않고 타격해야 한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2,000만— 세사람은 그 2,000만을 찾아보기라도 하듯 새삼스럽게 주위를 돌아보았다. 언제보나 같은 누렇게 익은 보리밭이 있고 노을에 물든 차령산맥의 봉우리들이 우줄우줄 뻗어있다. 다락우에서는 아직도 잠에 취한 중의 코고는 소리가 들려왔고 살구만한

열매가 달린 복숭아밭이 조을듯이 누워있었다. 달라진것은 담쟁이가 바라올라간 묵은 기와지붕밑에서 간간이 들려오는 신음소리와 덜컹거리며 부락을 지나가는 후방부의 마차소리 그리고 아득히 서상산쪽에서 들려오는 군가소리와 골짜기에서 아직도 피여오르는 초연뿐이였다. 그러나 세사람은 똑같이 2,0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자가 분명 이 조선땅우에 있으며 불피코 그것이 싸움에 나서지 않을수 없게 된 현실을 똑똑히 느꼈다. 이때 환규의 머리속에는 수원북쪽에서 들은 토지개혁에 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정령이 떠올랐다. 그는 이를 악물고 그들이 2,000만을 능히 전쟁에 내세울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였다.

《그렇지만 동지,이 시대는 사람의 수자만 가지고 전쟁을 하는 시대가 아니지요. 동지도 아까 시대가 변했다는 점을 피뜩 비친것 같습니다만 나는 다른 의미에서 시대가 변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신은 원자탄이나 다른 무기의 발전을 두고 말합니까? 그런데 그게 어쨌단말입니까? 당신 생각에는 미국이 공업과 기술이 발달하였기때문에 매 보병에게도 보총을 메우지 않고 대포를 메울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무기가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한다는것은 직접 무기를 가지고 전투를 하는 우리들이니 더잘 알지요. 그러나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싸움이야 어차피 사람이 하는것이지요. 원자탄을 두고 말해도 그렇습니다. 당신은 경제학자라니 전쟁이 어떤 장군이나 대통령의 변덕때문에 생기는것이 아니라는건 아마 아실테지요. 당신은 전쟁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몰라도 우리는 전쟁을 폭력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장으로,말하자면 이번에 놈들이 도발한 이 조선전쟁을 두고 말한다면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더 많이 돈을 벌고 저희네 경제적 정치적 지반을 강화하기 위해 조선인민을 노예화하고 나아가서 중국과 쏘련을 침략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려는것이지요. 그래서 세계를 제패해보려는것입니다. 이런 정책은 뭐 새삼스러운것이 아닙니다. 미국대륙에 자본가가 나타난이래 시종일관 실시해온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을 놓고 본다면 그놈들이 위협은 굉장히 하겠지만 감히 원자탄을 떨구지는 못할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자들은 몇백만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전쟁이다 하고 소동을 일으키는것은 돈벌이가 되지만 원자탄을 떨구어서는 손해가 될테니까요. 례를 들어 강도를 두고봅시다. 우리는 그놈들을 강도와 같다고 보는데 강도가 권총으로 위협은 해도 막상 쏘지는 못합니다. 강도가 발사만 하는 날이면

혹 한사람은 죽일수 있어도 돈은 얻어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잡힌다는것을 강도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난 듣고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그러나 그 장사치들의 살인장군들과 장관들가운데서 혹 미친놈이 감히 원자탄을 쓴다면 우리는 약간의 희생을 입을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그놈들의 원자탄이 허재비라는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줄것입니다. 우리는 원자공격의 목표로 될만한 밀집된 대도시와 집결된 대집단군이나 함대를 그들의 눈앞에 드러내놓지는 않을것이니까요. 히로시마에서와 같은 정도의 효과는 도저히 거둘수 없을것입니다. 그러나 그놈들은 그날로 멸망하고말것입니다. 이것은 권총강도의 말로와 같은것이지요.》

《동지는 혹시 몰로또브성명을 념두에 두고있는가요?》

《너무 넘겨짚지 마시오. 나는 어떤 외국사람이 뭐라고 말했던 그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는것은 인민의 힘이지요. 놈들이 감히 세계대전을 도발한다면 인민은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것은 인민이라는것을 싸움을 통해 다시 한번 보여줄것입니다. 그래 그들이 저들의 돈벌이를 위하여 원자탄을 휘두르는데 인민들이 가만 있단 말입니까? 천만에! 그놈들이 우리 인민민주주의제도를 뒤집어엎자고 침략을 시작했던 보름전과 마찬가지로 전세계의 공산주의자들과 선량한 인민들은 주저없이 일어나서 보복타격을 가할것입니다. 보니까 당신은 원자탄을 몹시 두려워하는 모양인데 마음 푹 놓으시오. 우리는 놈들이 더는 원자공갈을 못하도록 만들어놓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놈들이 원자탄을 가지고도 우리가 승리한다면 당신은 원자탄이 허재비라는것을 알게 될것입니다. 그것은 겁많은 아이들이 밤에 변소에서 자주 만나는 귀신과 같습니다. 한번 겁만 집어먹으면 그이상 무시무시한것이 없어 보이지만 한번 눈만 똑바로 뜨면 허재비라는것이 드러나지요. 그놈들도 그것을 잘 알기때문에 일본제국주의가 다 망해버린 때에 가서야 그것을 집어던졌던것입니다. 송장에게 칼질을 하는데는 막대기라도 넉넉하단말입니다.》

《동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그러기에 두고보라는것 아닙니까? 머지않아 당신들은 말이 아니라 현실을 보게 될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란것은 누구입니까?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지지자들이 원자공포를 선전하는것은 알만한 일입니다만…》

《참 아까부터 동지는 나를 마치 어떤 적대적인 인물처럼 치부하는 것 같은데 나는 특별히 미국지지자가 아니라는것을 뒤늦었지만 확언해둡니다. 원자탄에 대하여 나와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은 허다하지요.》

《허허허, 우리는 미치광이들이 많은것은 알고있지만 성한 사람들보다 미치광이가 더 많다고는 생각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미국지지자가 아니라면 누구인가요? 혹 우리 편인가요?》

《글쎄요. 나야 굳이 말한다면 제3자라고 할수 있겠지요.》

《제3자라… 허허허.》

학민은 어깨를 흔들며 웃어대더니 윤하응부녀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렇지요. 제3자만이 그런 투로 말할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당신은 가령 인디아나 스위스사람인가요? 그들은 중립이라는데…》

《뭐요?》

환규는 발끈해서 어성을 높였다. 그는 입술을 푸들푸들 떨며 악을 쓰다싶이 소리쳤다.

《그것은 너무 심한 말이요! 모욕이요.》

《허허허.》

학민은 유쾌한듯 웃더니 담배꽁초를 군화바닥으로 비벼끄고나서 다시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전쟁판에 모욕쯤이야 참아야지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모욕을 돌아볼 겨를이 있습니까? 우리는 조선인구 3,000만 가운데서 한줌도 못되는 적이 있고 나머지 2,900만 이상은 우리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인디아사람같은것은 계산해보지를 못했지요. 아마 이 전쟁에서 당신과 같은 립장을 가진 사람은 오직 당신 한사람뿐일것입니다. 당신 한사람을 위해서 제3의 편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느쪽이고 가붙으십시오. 그러지 않아도 자연 가붙게 될것입니다만… 당신은 당신자신을 잘 모르고있습니다. 내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황해도 검산이라는곳에 옛날 두 장사가 살았답니다.》

이때 환규와 윤하응교수는 소스라쳐 놀랐다. 환규는 말할것도 없지만 윤하응부녀도 비록 검산에 가보지는 못했으나 거기에 얽힌 설화는 모두들 잘 알고있었던것이다.

《왜들 놀라십니까? 혹 검부와 창을의 이야기를 아시는지요? 그것 참 신기한 일입니다.》

학민은 그들이 어떻게 되여 그 설화를 알게 되였는가 따져보기라도 하듯 잠시 세사람의 얼굴을 번갈아보았다.

《하여간 좋습니다. 그 이야기속의 검부와 창을을 보더라도 그들은 서로 팔을 자르고 눈을 찍을만큼 다투었지만 일단 나라에 위험이 닥쳐오자 그 자리에서 일심동체가 되였습니다. 그런판에 그렇게 한마음이 될수 없다면 그들은 본래부터 원쑤지간이지요. 어떤 제3자란 있을수 없는것입니다. 적어도 조국을 두고서는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미 그것은 론쟁이 아니라 싸움이였다. 학민이 말하는것처럼 그것이 이미 침략자를 맞받아 싸움에 일어선 조국의 운명을 두고 하는 말이였기때문에 달리는 될수 없었다. 그렇기때문에 환규는 학민이에게서뿐만아니라 윤하응교수부녀에게서도 싸늘한 적의를 느끼며 끝없는 외로움속에 파묻힌 자신을 발견하는것이였다.

이러한 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꾸며놓은듯한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집쪽에서 급한 발걸음소리가 들려오더니 이윽고 뚱뚱한 군관 한사람이 달려왔다. 발걸음소리는 매우 급했으나 막상 복숭아나무사이에 나타난것을 보니 뜻밖이리만큼 태연자약한 얼굴이였다. 사람이 그런 태연한 표정을 하고 달릴수 있다는것이 거의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그는 그런 태연한 태도로 달려와서는 말소리역시 느릿할만큼 침착하게 보고를 하는것이였다.

《련대장동지, 3중대 문화부중대장 류경환 만나볼만합니까?》

《무슨 일이요?》

학민은 긴장하여 경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누구말이요? 그 인천 배사람말이요?》

《그렇습니다. 놈들의 화력진지에서 포탄상자로 지질러놓은것을 가까스로 뽑아냈습니다.》

《지금 어디 있소?》

《이리로 옵니다. 그냥 헛소리를 치는데 살것 같지 않습니다.》

《헛소리라니?》

《뭐 사람이겠거니 하고보니 사람이지 어떻게 혹독하게 매질을 했는지 거의 사람의 형국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숨이 좀 돌기만 하면 이놈 삼랑아, 이놈 삼랑아 하고 이를 부득부득 갑니다.》

학민은 이때 환규와 윤하응부녀의 얼굴에 나타난 커다란 놀라움을 감촉하지 못하였다. 왜냐 하면 다시 다급한 발걸음소리가 들려오고 뒤미처 네사람이 들고오는 야전들것이 나타났기때문이다. 학민은 맞받아 달려나가며 소리쳤다.

《이리로 올 필요는 없소. 얼른 군의소로 가시오, 군의소!》
전사들은 줄지어 흐르는 이마의 땀을 훔치며 잠시 멸멸해서 멈추어섰다. 그런데 이를 부드득 갈며 웨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놈 삼랑아! 죽여라. 내가 죽어도 너희들 민가놈들은 망하고야만다. 좋다, 실컷 때려라! 내 저승에 가도 네놈을 잊지 않을터이다.》
다소 거리가 있었지만 다락밑의 사람들은 들것에 누운 푸주간에 매단 고기덩이같은 끔찍한 형상을 능히 볼수 있었다.
환규는 얼른 고개를 돌리고 저쪽 기둥께로 걸어갔다. 그러나 와들와들 떨리는 그의 아래턱을 윤하응부녀는 똑똑히 보았다.
학민이 급한 걸음으로 되돌아오더니 말하였다.
《난 가봐야겠습니다. 짐작하겠지만 방금 보신 그 탈주병이… 그사람은 며칠전에 괴뢰군에 끌려나왔던 사람입니다. 탈주하려다 들켜서 저 모양이 됐습니다만 보십시오. 방금까지 한편이라고 하던 그의 상관이 생사람을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싸움의 성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총을 들고 나서지 않으면 저런 꼴이 된다는것을 알기때문에 우린 비록 원자탄앞에서라도 용감히 일어설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원자탄이고 뭐고 비록 그놈들이 매개 병사들에게 대포를 메워놓는대도 우리는 갈가리 놈들을 찢어놓을텝니다. 우리는 이미 갓쓰고 나귀타고 다니던 시절의 인민이 아닙니다. 시대는 변하였습니다. 미국놈들이 원자탄을 가지고도 우리를 감히 굴복시키지 못하는 여기에 우리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의 최종적인 대답은 머지 않아 우리의 전과보도가 대신해줄것입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천만마디 말을 하는것보다 한번의 실천을 보여주는것이 더 좋지요. 우리가 피를 흘리며 싸운 결과로 혹 눈뜨게 될 사람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학민이 점잖게 경례를 붙이고 돌아서자 하응은 당황하여 일어섰다. 그는 설란에게 뒤질세라 급히 학민을 따라서며 말하였다.
《젊은 동지, 이 늙은것에 대해 노엽게 생각마시오. 난 본시 이렇게 푸접없는 사람이요.》
《노하다니요? 선생님, 우린 선생님의 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있습니다.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따님도…》
설란은 저도모르게 머리를 숙였다. 해는 이미 졌건만 왜 그런지 눈이 부셔서 마주 바라볼수가 없었다. 그래 꺼져들어가는듯한 목소리로 가까스로 인사를 하였다.

《편안히 가세요. 저는 매일 라지오에서… 기다리겠어요… 저 그 힘찬 대답을 말이예요.》

월리스소리가 사라진뒤에도 두사람은 이윽토록 그렇게 서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가 남긴 인상이 얼마나 강력한것인지 아직은 의식하지 못하였다. 다만 그들은 제나름으로 자기앞에 닥친 그리고 분명 자기도 그속에 사는 이 시대라는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을수 없었다.

다락밑에서는 환규가 그 쓸쓸한 미소를 입가에 띠우고 더욱 진하게 피빛으로 타오르는 저녁노을을 바라보고있었다. 그러다가 문득 언젠가 수원 북방대도로변에서 폭격을 당했을 때와 같은 정신착란이 일어나서 미친듯이 껄껄하고 혼자 웃었다. 그 광기어린 턱없이 큰 웃음소리를 듣고 윤하응부녀는 소스라쳐 뒤를 돌아보았으나 왜 그런지 그리로 선뜻 발걸음을 떼기가 께름직하였다.

4

충남 대덕군이 아직도 회덕군이라고 불리우던 당시 오늘의 대전이 자리잡고있는 유성평야일각에는 한발이라는 자그마한 농촌부락이 있었다. 그러다가 일제의 조선침략이 시작되고 경부선,호남선이 놓이면서 금강과 철도를 낀 농산물의 집산지로,행정중심지로 뽑히여 대전이라고 개명을 한것이 도시로서의 발전의 첫걸음을 뗀것이였다. 세상에 알려진 문벌도 별로 없었지만 워낙 손꼽을 정도밖에 안되였던 토배기들은 어느덧 밀물처럼 남부녀대하고 찾아든 리향민들에게 떠밀려나고 대전시는 뜨내기 막벌이군들의 도시로 번창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갑작출세를 한 대부분의 도시가 그러하듯 전쟁시초까지만 해도 아직 촌티를 활짝 벗지 못하였고 볼만한 건물 하나 없었다. 전통적인 고궁같은것은 말할것도 없지만 시골 토반의 기와집 하나 변변한것이 없었으며 일본인들이 집결해 살던 도심지대에조차 2층,단층의 암회색 목조건물들에 유난히 큰 간판들만 주런이 붙어있을 뿐이였다. 대전천을 넘어 보문산쪽으로 접근하면 거리의 몰골은 한층 초라해져서 조선사람들이 살던 구시가일대에는 해묵은 판자집들이 그야말로 게딱지처럼 널려있는것이 《한국》의 세번째 《수도》

대전의 풍모였다. 이 도시의 영광이라면 영광이요 치욕이라면 치욕인 그 《수도》가 칠일천하로 끝장이 나고 수일간 머물러있던 워커장군이 황급히 자기 사령부를 대구로 끌고가버리자 《국회》와 《정부》도 짐을 꾸리고 떠나가버렸다. 그러나 아직도 대전역으로부터 차령산맥 락맥쪽으로 난 대도로주변 그 옛날 《봉래옥》이요 《화월관》이요 무슨 상회 혹은 무슨 합자회사 등의 간판이 붙어있던 헐어빠진 그 2층목조건물들에는 아직도 얄팍한 널쪽에 되는대로 대패질을 하여 써붙인 무슨 정당의 중앙위원회며 무슨 중앙본부며 무슨 사령부며 하는 따위 간판들이 붙어있었다. 그 간판들가운데 비교적 정성을 들여 쓴것들은 백묵칠을 한 자리가 아직 남아있고 그러지 못한것은 겨우 국문해득이나 한 사람의 필적으로 마구 써갈긴 글씨가 우툴두툴한 대패질무늬우에 그대로 먹을 번지고있었다.

나이 근 오십이 되여오는동안 이 도시에 혼란과 소요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팔자에도 없는 《수도》벼슬을 한 이 며칠간처럼 그렇게 시끄럽고 그렇게 뒤범벅이 돼본적은 일찌기 없었다. 무수한 장관과 국회의원과 장성과 사령관들이 모여들었고 수많은 피난민들과 그밖의 관리들이 밀려든우에 미 24사의 장병들까지 쓸어왔다. 우선 첫 봉변을 겪은것은 원주민들의 집이였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는다는 말도 있지만 한간의 판자집을 두고 처음에는 상공부의 어떤 과장이 로동자네 식구를 내몰더니 다음엔 내무부의 한 경감이 동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륙군본부의 무슨 참모가 두 가족을 내몰더니 마감엔 미국인소위가 급히 마련한 갈보를 데리고 들어왔다. 코구멍만한 단간방에 다섯세대,여섯세대가 들기는 보통이였다.

다음은 수도였다. 고작 인구 수만을 대상으로 설계한 상하수도설비에 적어도 100만이상의 사람이 밀려들고보니 네거리에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공동수도앞에는 항아리와 물초롱이 연연 몇리씩 뻗었는데 사람들은 한초롱의 음료수를 위해 밤을 밝혔다. 도시는 온통 인분내와 지린내로 질식할 지경이였다. 그우에 점차 포성이 다가왔다. 대전역사에는 련일 시도 때도 없이 특별렬차며 군용렬차가 들이닿고 떠나가고 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이 타고 갈 기차는 없었다. 호위병도 없는 장관들이 한손으로 날아나는 파나마모자를 움켜쥐고 다른 한손으로는 국가문건이 아니라 귀중품이 든 가방을 끼고 달리는 렬차의 승강대발판에 매여달리는 형편이고보니 일반시민들의 려행형편이 어떠했으리라는것은 가히 짐작할수 있을것이

다. 그래도 사람들은 어딘가 차를 타고 가보겠다고 보퉁이를 끌어안고 정거장안과 마당, 비가 올 때면 심지어 근방에만 가도 구역질이 나는 변소지붕아래에까지 빼곡빼곡이 들어차있었다.

도시의 이와 같은 면모는 네번째 《수도》로 된 대구도 대동소이한 양상을 띠고있었다. 두 《수도》의 전망은 암담하였다. 눈을 멀쩡하게 뜬 사람들이 환한 대낮에 갈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고보니 온갖 가짜들이 번창하기 시작하여 가짜군인, 가짜경관, 가짜감찰관, 가짜장관들이 득실거렸고 가짜양담배에 가짜돈, 가짜다이야찐고약 등이 나도는데 그중에도 가장 볼만한 가짜는 가짜장님이였다. 피난민들을 마구 징발하여 군대에 끌고가기때문에 가짜공무원이나 가짜감찰관행세를 하는것쯤은 쉽게 리해될수 있는 일이지만 눈을 똑바로 뜨고도 협잡을 당하기가 쉽고 네거리를 질주하는 군용트럭에 치이기가 쉬운 이러한 때 두눈이 멀쩡한 사람이 가짜장님행세를 한다는것은 납득이 잘 안될수도 있다. 그러나 실상 알고보면 가짜장님들 역시 《한국》의 숙명적산물이라고 볼수 있다. 그들은 혼잡을 이룬 네거리에 올방자를 틀고앉아 점패를 풀고 륙갑을 짚으며 사주팔자를 보았다. 갓망건차림으로 3황5제이래의 유구한 명상속에 잠긴듯한 그 청맹과니 눈으로 그들은 로상에서 아이들을 잃은 어머니나 징발에 걸릴가봐 벌벌 떠는 중년사나이 혹은 어디로 가면 살것인가 하여 찾아온 할머니들에게 근엄한 표정으로 주문을 외우면서 절경절경 산통을 흔들다가 산가지를 뽑아들고 말하군하였다.

《북천에 백설이 날리는데 봄바람은 어디서 부는고. 첩첩한 산속에 아물거리는것은 매화꽃향기더라— 상괘는 상괘데… 허허, 그러니 목성 가진 사람을 따라가십시오. 목성 가진 귀인을 만나면 대길하리라고 나왔습넨다.》

옆에서는 낡아빠진 《정감록》이며 《주역》따위를 펼쳐놓은 골동품들이 《〈정감록〉에 일렀으되 3산은 어드메뇨? 1왈은 마산이요 2왈은 부산이요 3왈은 대구라… 피난을 가자면 이 세곳이 그중 좋은데 그중에도 마산은 신마산, 구마산, 북마산하여 두루 3산이니 피난지로는 상지상입넨다.》

하는가 하면 다른 목소리가

《〈정감록〉에 팔금산이 피난지라 하였는데 그건 곧 부산을 자풀이한 말이지요. 그러니 지체없이 부산으로 가십시오.》

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혹 엠피가 나타나거나 기마경찰이 달

려오면 미처 봐주지도 않은 복채까지 움켜쥐고 냅다달리는데 그때는 눈을 화경처럼 부릅뜨고 소경 볼사이 없이 사라져버린다.

전선형편은 좋지 않았다. 7월 7일 띤과 정일권이 비준한 반공격명령서는 하나의 재담으로 되였으며 한걸음이라도 북쪽으로 나가기는커녕 7월 8일에는 천안을,7월 10일에는 전의를 내놓았다. 전선동부에서는 같은 사흘동안에 충주,음성,단양 등 지역에서 간고한 방어전을 벌리게 되였다.

동해안에서는 10일에 울진이 해방되였다.

이때까지 월리암 띤소장은 전선형편을 매우 락관적으로 생각하고있었다. 제3대 군정장관으로 이미 조선에서 일한 경험이 있을뿐아니라 특히 작전지대의 군사지리를 잘 아는 그는 차라리 워커가 대구로 옮아가서 전선지휘권이 전적으로 자기에게 부여된것을 기뻐하기까지 하였다. 거리는 혼잡속에 있었으나 그는 오랜 숙망이던 리화대학출신의 첩을 얻어 매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있었다. 그는 모든 미국장군들이 그러하듯 녀색에 범연치 않았지만 아깝게도 전신이 류인원처럼 털에 덮여있고 얼굴까지 은백색솜털이 밀생하다보니 녀성들은 그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 게다가 끓인 물에 덴것처럼 발깃한 엷은 안면피부에는 쥐여뿌린것 같이 자드락자드락한 주근깨가 덮였는데 그때문에 그리 흉하지 않은 두개골을 가지고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어쩐지 흉한 인상까지 자아냈다. 이런 사정들은 모든 미국장군들과 외교관들에게서 《아름다운》 점을 제꺽 찾아낼줄 아는 비상한 관찰력을 가진 《한국》의 활동가들을 저으기 당황하게 만들기까지 하였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천신만고끝에 결국 안면의 한 변방 즉 그 은백색 솜털이 가장 조밀하게 깊숙이 자란 귀가 남달리 잘 생겼다는 결론을 얻게 되였던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귀가 잘생긴 군정장관》 띤이 덮어놓고 잘생긴 《사령관》으로 되여 어디를 가나 어떤 녀인에게서나 환영을 받았고 구세주로 떠받들렸다.

이런 현훈증이 날만큼 행복했던 며칠이 지나가자 갑자기 암담한 군사정세가 그의 눈앞에 가로놓였다. 전선이 백리안팎에까지 바투 다가오자 황급해난 그는 역시 황급해서 달려온 정일권에게 멱살을 틀어쥐듯 달려들며 으르렁거렸다. 그러나 실상 전선형편은 그런것이 아니였다. 띤을 그처럼 격분시킨 참담한 패배는 대체로 동경127도30분선을 따라 안성동쪽 오산리를 통과한 괴뢰군 1군단과 미군과의 전선경계선 이서지역 즉 미군이 담당한 전선에서 더욱 심

하였던것이다. 그러나 띤은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이런 불쾌한 사태가 전적으로 《한국》적인것임을 의심치 않았다.

자그마한 몸집에 안경알을 번들거리며 아무데서나 애교있는 웃음을 띠울줄 아는 정일권은 본시가 약고 반드라운 사람이였다. 그는 실상 띤에게 말마디나 하려고 달려온 참이였지만 꾹 참고 되려 상냥하게 웃음을 지었다. 이 마당에 거칠기로 유명한 띤과 책임한계를 가르는따위 망동을 하느니 차라리 통곡을 하면서라도 겨자를 먹을밖에 없으며 또한 가슴속으로는 통곡을 하더라도 얼굴로는 웃는것이 《한국》 장성의 본분이라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그런데 련달아 조치원과 청주가 떨어졌다는 비참한 소식이 들어왔다. 미친듯이 날뛰던 띤은 얼굴이 갑자기 백지장처럼 해쓱해지더니 이윽고 진정되였다. 그는 황급히 지도를 들여다보며 정일권과 자기 막료들을 불렀다. 기울어진 전세를 자기 단독의 힘으로 만회해보려던 다소 들뗬던 희망은 깨끗이 버리고 워커의 권고에 복종하기로 하였다. 무서운 파국이 자존심이고 공명심이고 깨끗이 날려버렸다. 우선 파죽지세로 남하하는 인민군을 저지시켜야 할것이였다. 그리하여 금강과 소백산맥의 자연장애를 리용하여 《철벽의 방어》(띤이 처음 얼마동안 락관할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계기가 여기 있었다.)를 조직하여 유리한 계선에서 일단 전선을 고착시켜야 할것이였다. 그런 다음 띤으로서는 그닥 달가운 일이 아니지만 25사와 기갑1사를 전개시키고 《호남전투사령부》에서 새로 편성중인 괴뢰군 3군단을 전선에 투입하여 재차 공격으로 이전해야 하리라고 타산하였다. 무엇보다도 대전을—그것은 자기자신의 영예와 장차의 출세이기도 하였다—고수해야 할것이였다.

그리하여 금강좌안에서 수일후 워싱톤에서까지 아니 전세계에서 《불퇴의 선》 또는 《최종방어선》이라고 이름을 들날린 한산으로부터 금강을 따라 산촌까지 연연 47키로메터에 이르는 넓이의 방어선이 조직되였다. 34련대는 공주방향에서 12키로의 전선과 5～7키로의 종심을 가진 방어진을 구축하였으며 105미리 곡사포 한개 대대가 증강되였다.

가장 위험이 많은 태평리에는 아직도 생생한채로 있는 19련대가 배치되였는데 2～3개의 참호로 구성된 두개의 진지를 구축하였다. 주력은 대도로를 따라 종장배치가 되였고 부근 3개리에 각각 10여대씩의 전차가 배치되여 부동화점을 이루었다. 105미리포 한개대대는 발산리에, 다른 한개대대는 장대리에, 155미리 곡사포 2개중대는 안산리에 배치되고 기타 사단의 주요증강기재는 여기에 집중되였다.

전의와 조치원에서 참담한 꼴이 되여 쫓겨온 21련대는 별수없이 대전동북방 신탄진일대에 배치되였다. 선행한 전투에서 하도 혼이 난 그들은 대도로한복판에 류탄포와 파즈카포진지를 구축하였다. 이밖에 과태리,당대리일대와 가수원리,188.8고지,193고지일대 그리고 민성산일대에 강력한 사단 포병진지를 만들었고 대전중심부로부터 남서방향 507.5고지와 영동으로 가는 대도로주변 오리골일대에 155미리 포진지를 구축하였다. 띤은 대전방어를 강화할 목적으로 전선동부의 괴뢰군부대들을 급속히 배비변경하여 승산없는 공세를 취하도록 거듭 강요하였다.

물론 띤의 작전적타산이나 방어계획이 특별히 허망한것도 아니였고 그렇다고 특별히 현명한것도 아니였다. 그것은 가령 맥아더자신을 갖다놓으나 혹은 띤이 그 사랑에 함씬 빠져버린 리화대학출신의 그 애첩을 작전지도앞에 갖다놓으나 매일반으로 내리게 될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론이였다. 즉 전세의 움직임자체가 그들이 싫건 좋건 그러한 자세를 취하지 않을수 없게 만들었다. 그 방어선의 장점을 말하면 두말할것도 없이 띤이나 정일권 혹은 대구와 동경에서 심사원려를 하고있는 맥아더나 워커가 골을 짜서 만들어낸 어떤 전술적현명성에서 오는것이 아니라 소백산맥,차령산맥 그리고 금강 등 험준한 자연지형을 리용한것이였는데 여기서 그들의 《현명성》은 그 산악장애와 하수장애의 군사적가치를 발견한데 있을것이다. 약점으로 말하면 이 역시 그들의 인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바로잡을수 없는 여지없이 추락된 사기와 비상한 패주속도 등에 의한 대강대강 꾸려놓은 축성물들 그리고 벌건 대낮에 벌거벗고 나서듯 세상에 다 폭로되여있는 좌우익측 등등이다.

띤은 《결단성이 강한》 놈이였다. 일단 결심을 채택하자 더는 주저하지 않고 지도에 수표를 하였다. 그리고는 제꺽 대구로 전화를 걸었다. 워커가 나오자 그는 이기죽거리듯 말하였다.

《사령관각하,좋은 날씨입니다.》

《그렇소? 여기는 계속 흐렸는데. 그래 전선형편은 어떻소?》

워커는 목소리에서도 그 어마어마한 체중이 느껴지는 웅얼웅얼 울리는 목소리로 분명치 않게 말하였다.

《전선형편은 각하가 우려하던 추세를 보이고있습니다. 다만 예기치 못했던것은 그런 추세가 지나치게 빨리 나타난 그것이지요. 그들은 벌써 금강우안에 육박했습니다.》

《그렇소? 나도 알고있소.》

《그런데 나는 각하께 한가지 부탁이 있는데…》

여기서 떤은 그닥지 않게 교활한 웃음을 입가에 띠우며 말을 끊었다. 아니나다를가 워커중장은 대들듯이 물었다.

《무슨 부탁이요? 폭격은 그만하면 넉넉할텐데…》

《그렇습니다. 비행기는 넉넉합니다. 다만 걱정인것은 그들이 련일 날아가는데도 공산군의 화력은 약화되지 않고 원기가 왕성한 그것입니다. 그들이 포탄과 식량을 행군하면서 생산하지는 못할테니 주정뱅이비행사들에게 자꾸 훈장을 달아주는 도꾜와 워싱톤의 처사를 나는 리해할수 없습니다.》

《그렇소? 나도 알고있소. 불평은 그만하고 부탁이란 뭐요?》

《각하, 우리가 가장 애를 먹었고 앞으로도 가장 애를 먹게 될것은 그들의 전차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할것인지 이에 대해 조언을 주시기 바랍니다.》

떤은 다시금 입가에 랭소를 띠웠다. 아니나다를가 수화기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권위있는 전차전 전문가의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떤은 그 숨통을 찌르듯 한마디 말하였다.

《각하의 권고대로 2.36인치 파즈카와 우리 〈셔만〉을 중심으로 반전차전을 해보았지만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렇소? 나도 알고있소. 우선… 글쎄 그건 그렇게 됐소. 그들의 전차란 그런것이요. 그 전차의 장갑은 연구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돌격해들어오리라는것은 타산하지 못했소. 말하자면 그들은 정지상태에 있지 않으니까… 우선 105미리 류탄포를 반전차포로 리용하오.》

《네? 105미리 류탄포를! 그것은 곡사포인데…》

《그렇소, 만일 나이프로 비프스테크를 벨수 없다면 도끼로라도 찍어야 할게 아니요.》

《허지만 접시는?》

《접시야 식당것이니 걱정할게 있소? 불편할뿐이지. 초토화폭격도 하는데 105미리를 반전차포로 못쓰겠소. 일간 3.5인치 파즈카포도 도착할것이요. 파싱그전차와 팟톤 중전차도 곧 올것이요. 나는 이미 맥아더원수에게 실정을 반영하였소.》

떤은 갑자기 침울한 표정이 되여 잠시 우물거렸다. 장차 그가 보고에 상세히 언급하려고 마음먹고있던 워커의 반전차대책의 약점을 워커자신이 미리 간파하고 반영해버렸다면 도대체 그 입가에 떠오른 랭소란 전혀 무의미한것이였다. 그는 타고난 그 침울한 표정으로 돌아가서 역정섞인 목소리로 말하였다.

《일간 3.5인치 파즈카가 온다니 말입니다만 대체 25사와 1사는 언제쯤 도착할 모양인가요? 그들은 어디서 전승열병식준비라도 하고있는가요?》

《짜증을 내지 마오. 나도 아오. 25사는 부산에 첫부대가 상륙한지 일주일 가까이나 되지만 그 장비들때문에 굼뜬거요. 당신에게도 사람은 얼마든지 있지 않소? 여기 〈한국〉의 장관들도 그 점은 장담하고있소. 그러니 거기서도 닥치는대로 군복을 입혀 내보내시오. 불응하거나 반항하면 닥치는대로 쏘아죽이시오. 탄알은 넉넉하오. 그것들을 살려놓으면 장차 우리의 병사들이 그들의 손에 의해 죽게 될것이요. 께이장군이 일주일내에 당신에게로 도착할것이요. 그의 사단은 아다싶이 기동력이 높으니까…》

《허지만 각하, 나는 아직 기갑1사가 상륙했다는 소식을 못들었는데요?》

《그러기 곧 도착하리라고 하지 않소? 아마 20일경에 포항에 상륙하게…》

《네? 20일경에… 그럼 대체 전선에 도착하는것은 언제쯤 되는가요?》

《아마 22일내지 23일이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띤은 저도모르게 십자를 그으며 《신이여!》하고 중얼거렸다. 워커가 말을 중단하고 물었다.

《뭐요? 뭐라고 했소?》

《아닙니다. 나는 각하에게 미리 언명합니다만 그때에는 이미 이 대전이 점령된후일것입니다. 각하, 제발 나를 동정해주십시오.》

《그렇소? 나도 알고있소. 나는 거듭 께이장군에게 무전을 치고있소. 그런데 그들은 일부는 규슈에 있고 일부는 배우에 있으니 빨리 달리라고도 할수 없는 실정이 아니요? 하여간 나는 당신에게 당신의 사단이 114차의 전투에서 단 한번도 패배한적이 없으며 력대사단장가운데 유명한 장군들이 허다히 배출됐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상기시키고싶소. 그러니…》

《흥, 명예만으로…》

《뭐요?》

《아닙니다. 혼자소리입니다.》

《하여튼 나는 대전이 하나의 〈한국〉지방소도시가 아니라 이를테면 포스톤이나 와테르로 또는 쓰딸린그라드나 엘알라마인

같은 력사적인 지점으로 될수 있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하리라고 생각하오. 신문들은 굉장히 떠들어대고있소.》

《여기서도 시끄럽게 굽니다. 헌데 나는 각하에게 이 대전이 던켈크와 같은 지점으로 될수도 있다는것과 나자신으로 말하면 몽고메리가 아니라는것을 상기시키고싶습니다.》

《당신이 버너드 몽고메리자작이 아니라는것은 나도 잘 알지만 무엇때문에 그런 불길한 소리를 하오?》

여기서 워커의 목소리는 으르릉거리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그가 대단히 노했다는것을 의미하였다.

《나는 당신이 나에게서 무엇인가 더 요구하기 위하여 우는소리를 하는것을 여태 참아왔지만 실상 현재 금강일대의 방어선은 결코 약하지 않으며 병력이나 화력에 있어서 당신은 공산군보다 월등 우세하오. 다른것은 말하지 말고라도 당신은 우선 미국대공군의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있으며 함대의 부단한 활동속에서 작전을 진행하고있소. 당신이 이 모든 훌륭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와 같은 우울증에서 헤여나지 못한다면 당신은 응당 료양을 가거나 치료를 받아야 할것이요. 미국에는 아는바와 같이 한개전선을 지휘할만한 장군이 적지 않소.》

이야기는 매우 불쾌하게 끝났다. 띤이 오만상을 찌프리고 수화기를 놓았을 때 이미 군복으로 갈아입은 정보관 윌리암 골드빈소령이 들어왔다. 동경에서의 윌로우비와 같이 여기서도 매번 딱한 보고와 문의사항을 가지고 사령관실에 나타나지 않을수 없게 된 그는 마주 울상을 해가지고 또하나 슬픈 소식을 전하였다.

《공산군의 수송능력은 마비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어제밤에 서울을 통과한 자동차 수입니다. 북조선정부는 또 10일 현재 74만의 청년이 전선출동을 탄원했다고 발표했군요. 그런데 각하.》

여기서 골드빈은 히죽이 한번 웃고나서 말을 이었다.

《그들은 유엔의 질문에 대해 전쟁포로에 관한 제네바협정을 준수할것이라고 공식통고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우리 병사들의 사기를 대단히 고무하리라고 믿는데요.》

띤은 깊숙이 떨구고있던 머리를 번쩍 쳐들었다.

《그것이 정말이요? 설마 그들이 그랬을라구. 거짓말이 아니요?》

골드빈은 웬일인지 흥분한 전선사령관을 의아쩍은 눈매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알기엔 그들은 약속을 지킵니다. 그들의 학설에는 아직 거짓말

을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거의 미개척지나 다름없지요.》

《허허허, 알겠소. 종군목사와 정훈장교들에게 이 자료를 주시오. 아닌게아니라 그들은 리해할수 없는 사람들이요. 자신이 참가하지도 않은 조약을 준수하겠다고 스스로를 구속할 필요가 어디 있소? 허허허, 참 리해할수 없소.》

골드빈과 엇바뀌여 군보도책임자 사뮤엘 스파크가 나타났다. 장대한 체구를 가진 스파크는 한손을 군복깃사이로 명치언저리에 찌르고 춤이라도 추듯 우아한 걸음걸이로 다가왔다.

《사령관각하, 기자들이 기다리고있습니다. 만나시겠는지요?》

《나는 지금 시간이 없소. 전선을 돌아봐야겠소. 그러니 당신이 이 〈금강계선〉은 불철퇴선이며 미군은 여기서 반격의 시초를 열어놓을것이라고 말하시오. 개전이래 우리 군대의 전투준비상태가 이처럼 강화정비된적은 없었고 또한 이처럼 유리하고 견고한 방어선은 없었으며 마지막으로 이처럼 훌륭하게 구상된 작전은 전쟁사에 흔치 않다고… 가만 아무래도 내가 직접 나가야겠소. 같이 갑시다.》

무엇때문인지 저으기 기분이 호전된 그는 서둘러 일어나서 군모를 잡아 벗겨쓰고 헤덤비며 기자대기실로 달려나갔다.

5

전선에서의 발악과 함께 후방에 대한 적기의 폭격은 더욱 강화되였다. 군수공업과 관련된 공장, 기업소들이 폭격의 대상으로 된것은 말할것도 없고 평화적주민지대까지도 례외없이 맹폭의 목표로 되였다. 13일에는 원산에 있는 휴양소를 맹폭하여 170명의 모범로동자와 수십명의 직원을 살상하였다. 이런가운데서도 거리의 게시판에는 날마다 공화국기로 표시된 해방지역이 남쪽으로 늘어가서 마침내 금강계선까지 접근하였다. 10일부터는 세계직련의 제의로 《조선인민과의 단결세계주간》행사가 후방각지에서 다채롭게 진행되는 한편 인민들은 앙양된 전투적열성을 가지고 증산운동과 전선원호사업에 떨쳐나섰다. 7월 11일 조국보위후원회 중앙본부에서는 제2차 비행기, 전차, 함선기금으로 1억 7,000만원과 량곡 746톤을 정부에 헌납하였다는것을 발표하였는데 그가운데는 김병모로인이 아들과 사위를 전선에 내보낸

이튿날 군으로 실어내간 30가마니의 벼와 4가마니의 콩도 들어있었다. 그 4가마니의 콩으로 말하면 진기가 비둘기를 먹이겠다고 하던것인데 진기는 지금 비둘기장을 검산기슭에 파놓은 방공호앞에다 대피시켜놓았다. 비둘기는 벌써 4쌍이 되였다. 어느날 미국비행기들은 검산 산골에 날아와서 선회하더니 광산을 폭격하기 시작하였다. 선광장의 일부 설비와 건물이 파괴되고 도로가 끊어졌다. 그리고 정거장부근과 군민청 언저리의 거리가 피해를 입었다.

길좌우와 집집마다 방공호를 팠고 등화관제를 철저히 할데 대한 주의가 모든 모임에서 강조되였다. 그러면서도 전시생산은 일층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벌써 산기슭에 반토굴들을 짓고 옮겨앉은 사람이 많았다.

경패는 사택뒤에 있는 언덕아래에 방공호를 팠다. 커다란 밤나무 세그루가 서있는곳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러고보니 안전하기는 하였으나 나무뿌리가 많아 녀자의 혼자 힘으로 파기가 여간 힘에 부치지 않았다. 친정식구들이 중시원리로 내려와서 같이 살자고 여러번 권했으나 그는 웃으며 도리머리를 흔들었다. 남편이 떠나간 집,남편의 땀이 밴 책상과 책장과 터발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귀중한 추억이 있는 집을 비우고 갈수가 없었다. 그래서 낮에는 가두녀맹에서 분공받은 전선에 보낼 위문품주머니며 군복들을 기웠고 밤에는 광산복구공사에 나갔다가 한밤중에 돌아와서 방공호를 팠다. 가끔 친정식구들이 회의에 왔다가 들려서는 몇삽씩 도와주기는 했지만 주장은 언덕아래골짜기에 사는 계영세라는 늙은이가 일자리를 많이 내주었다.

어느날 경패가 허리나 겨우 감추게 얼추 파놓은 방공호쪽으로 통로를 내노라고 뒤뜰안의 측백생울을 몇포기 찍어내고있는데 느직한 괴춤을 움켜쥐고 고무신을 덜덜 끌며 마당으로 뛰여든 계영세령감이 소리쳤다.

《아니 새애기,전쟁이 일어났다고? 그게 정말인가?》

그것이 벌써 7월달에 잡아들었을 때의 이야기였다. 비록 그의 집이 거리와는 좀 떨어져있었다고는 하나 이렇게 온 세계가 들끓고있는 때 아직 전쟁이 일어났다는것을 모르고 지내는 사람이 있다는것은 정말 믿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경패가 멍하니 바라보았더니 제사 안타깝다는듯이 연신 고추먹은 소리를 하—하— 하면서 누군가를 치원하는것이였다.

《글쎄 이럴 법이 있는가? 내가 아무리 늙었다해도 아무 기별이 없다니…》

경패는 잘 몰랐지만 계영세를 아는 사람가운데는 그를 온전한 사람

으로 보는이가 적었다. 약초를 캔다고 검산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서 사나흘씩, 때로는 근 열흘씩이나 없어졌다가 어디서 수상한 풀뿌리를 캐와서는 꿈에 신선을 만나서 그 인도로 산삼을 캤다고도 하고 호랑이굴에 찾아가서 사흘동안 동침을 하고 왔다고도 하고 별 해괴한 소리를 다하였다. 그래도 식자는 있어서 언제든지 심상치 않은 경우를 당하면 그 송라같은 수염을 쓸며 옛사람의 글구절들을 곧잘 인용하였다. 아마 이번에도 산속에 들어가서 헤매다가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집에 돌아와서야 들은 모양이다. 아무튼 계영세는 이것이 비상한 사태라는것을 인정하고 하늘아래 손바닥만한 땅이라도 나라의 땅이요 비록 초야에 묻힌 늙은이라 하더라도 백성이 아닌 사람이 없는데 어찌 나라고 안연히 앉아있을가보냐 해서 곧장 삽자루를 들고 도로복구장에도 나가고 칡넝쿨로 삼태기를 탄탄히 결어서(그것이 그의 기본생업이였다) 조국보위후원회에 갖다바치기도 하였다.

그 령감은 경패가 파놓은 방공호를 후에 와보더니 자기가 폭격하는 것을 봤는데 이래서는 어림없다고 엄하게 고개를 내저으며 말하였다.

《신체발부는 수지부모하나니 불감훼상은 효지초야라 하였다네. 이 국보로 말해도 그렇지. 모두 상하지 않게 든든히 해야 하느니.》

그래서는 손수 방공호를 손질해주었다.

국보는 그사이 살이 올라서 포동포동해졌는데 소란한 전쟁환경이 그의 성장을 독촉했는지 벌써 뒤치려고 벌떡벌떡하였다.

경패는 남편이 전선으로 떠나던 날부터 야릇하게 모순된 감정속에서 살았다. 날로 격화되고 긴장되는 정세는 그에게 한 애기의 어머니로서 또한 젊은 녀성으로서 비상한 의지와 힘을 발휘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거의 매일이다싶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일거리를 앞에 두고 밤을 밝혔으나 그래도 졸리거나 피곤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는 한편 자기와 남편이 당과 국가 앞에 저지른 죄과—사실 경패는 전쟁이 일어나자 그것이 어마어마한 과오였다는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으나 여적 그 본질이 무엇인지는 똑똑히 모르고있었다—를 씻으러 남편이 전선으로 떠난것이 여간 개운하고 기쁘지가 않았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아버지가 적탄아래 누워있는사이 아들이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고있으며 또 남편이 그렇게도 좋아하던 상추며 쑥갓이 몇번 먹어보지도 못한채 쇄버리고 풋고추가 탐스럽게 열렸으나 그것 한번 빨간 고추장에 받쳐 상에 차려놓을 필요가 없게 됐다는것이 여간만 서글프지 않았다. 하긴 자기

의 그런 서글픔이 지내 사치한 감정이며 한쪽에서 한톤인지 반톤인지 하는 폭탄이 떨어져 거리가 한꺼번에 불바다속에 잠기고있는 이때 저 역시 그런 사사로운 재앙에 잠겨있을 권리가 없다는것을 그자신도 잘 알았다. 그러나 많은 안해들이 그러하듯 그역시 젖먹이아들이 사설을 하고 배밀이를 하며 그리고 터밭에서 매포한 풋고추를 따서 점심상에 내놓거나 자그마한 오지항아리에 나박김치며 오이짠지를 담가서 익히는 등의 자질구레한 일이 생활의 태반이였고 그의 기쁨과 락의 태반이 또한 거기에 있었던것이다. 경패의 가슴을 은근히 타게 하는것은 남편이 전선으로 나간지 벌써 20일 가까이나 되여오는데 한장 소식이 없는 그것이였다. 물론 처음 한동안은 그도 싸움이 이만저만이 아닐테니 언제 편지 쓸 겨를인들 있을가 하고 궁금하면서도 별로 걱정까진 하지 않았다. 그러던것이 며칠전에 보패가 들려 오빠한테서 소식이 왔다는것을 알려주었다. 매부와 종종 만나는데 광산에 있을 때보다 퍽 튼튼해졌다는것 그리고 그들 자매는 보지도 못한 사촌오빠를 만나 큰집에 찾아갔다는것, 뜻밖에도 큰집에서 송경팔일가가 바로 그 공장의 지배인노릇을 하다가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등의 소식이 있었다. 남편이 몸이 튼튼해졌다는 말을 들으니 우선 마음이 놓였고 큰아버지네 식구들을 찾았다는것이 여간만 기쁘지 않았다. 그런데 그렇게 튼튼해졌다는 남편이 왜 소식이 없을가? 오빠는 편지를 했는데 더구나 그는 전사라지만 기술적인 일을 맡아보기때문에 시간이 퍽 많다고 하는데…

경패는 송경팔일가의 소식이 남편의 소식과 한데 얽혀든것이 어쩐지 께름직하였다. 혹 남편이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자기와 국보를 위해 한장 엽서도 낼만한 여유를 못가지게 만든것이 바로 그때문이 아닐가 하는 근심이 연기처럼 서려들었다. 그럴 때면 경패는 국보를 들여다보며 어린 아들과 안타까운 속을 터놓는것이였다.

《아버지는 거기서 또 그놈을 만났단다. 너도 그놈이 얼마나 흉한 놈이라는것을 보지 않았니? 그러기때문에 아버지는 국보에게 편지를 쓸 생각도 할새가 없단다. 그놈들을 다 잡아야 하지 않겠니? 그렇지, 국보? 옳지, 그런걸 엄마는 괜히 걱정이지. 참 엄마는 맹추야…》

어느날 경패는 정거장에 쌓인 군수물자들을 림시로 위장하고 대피시키는데 동원되였다. 국보때문에 걱정을 하고있는데 마침 계영세가 여덟살난 손녀애를 데리고 나타났다. 그들은 할아버지와 손녀라기보다 가장 친한 친구간이였다. 그래서 어린 손녀는 할아버지가 동원을 갈 때도 따라다녔다. 방공호에서 자고있는 아들을 들

여다보며 걱정을 하고있는 경패를 보자 계영세는 어머니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자기 손녀에게 말했다.

《애 학실아, 네가 애기를 좀 봐주어라. 옆에서 놀다가 애기가 깨거든 업어주렴. 그러다가 젖을 먹고파하거든 업고나오너라.》

학실은 처음엔 몸을 꼬며 싫다고 하였으나 경패가 반짇고리에서 고운 천쪼박 몇오리를 내주자 인차 짝자꿍을 치면서 고개를 끄떡거렸다. 경패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계영세령감과 함께 작업장으로 나갔다.

지난번 폭격에 역사의 일부가 불타서 어쩐지 어수선해보이는 역구내에는 날마다 들이닿고 나가는 짐들이 산더미를 이루었다. 중간역이기때문에 도중 하차는 없고 떨어지는 짐은 거지반 광산으로 오는 폭약이나 기계류였다. 나머지 대부분은 전선으로 실어보낼 식량과 기타 전선원호물자들이였다. 그런데 철도의 화물수송능력은 수요에 비해 어방없이 떨어져서 그 산더미들은 좀체로 낮아질줄을 몰랐다. 그 많은 화물들을 순식간에 처리할 방도가 없는 이상 당분간 적기의 폭격에 대처해서 림시적인 대책이라도 세워야만 하였던것이다.

읍내뿐만아니라 린근농촌에서도 사람들이 동원되여왔다. 읍거리와 반대편인 철길 저쪽 산골짜기 여러군데에 자리를 잡고 통나무로 밑을 받친 다음 벼가마니를 널직이 가려서는 방수포를 씌우고 청솔가지로 위장을 하였으며 큰길까지 새로 길을 내였다. 작업량은 엄청난것이였지만 워낙 사람이 새까맣게 모여들고보니 자리가 푹푹 났다. 그것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전투였다. 그러기때문에 동원단체별로 군대식대렬을 편성하였고 각 중대간에 치렬한 경쟁이 무어졌다. 잠시동안의 휴식시간이면 언제부턴지 모르게 보급되기 시작한 군가를 부르며 군대식오락회를 열군하였다. 경패는 여기서 리민청부위원장으로 선거된 보패를 만났고 또 세철이 어머니 최필녀를 만났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긴말을 건넬 사이가 없었다. 보패는 리내인민들을 책임지고 나왔기때문에 눈코뜰새없이 바삐 돌아쳤다.

일이 거의 끝날무렵이였다. 시내쪽에서 다급한 싸이렌소리가 들려왔다. 공습경보였다. 지휘관들은 일을 중단시키고 사람들을 대피시켰다. 그당시 후방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다급한 대피의 구령소리속에 군사적훈련을 받게 되였다. 한곳에 모여 와글거리던 사람들은 삽시에 흔적도 없이 잦아들어버렸다.

경패는 한 농민이 끌고온 달구지에서 벼가마니를 부리우다가 싸이렌소리를 듣자 소잔등에 채찍질을 하여 미처 못다부린 벼가마니를 달

구지채 골짜기 깊이로 끌고갔다. 손에 잡히는대로 나무가지를 꺾어 달구지를 덮는사이 소임자가 와서 채를 벗겼다. 그러자 적기가 나타났다.

에프80형 추격기 12대가 꼭 물초롱같은것을 두날개끝에 달고 경망하게 생긴 꼴을 나타냈다. 그들은 거리 상공에 이르자 별로 겨냥하는 빛도 없이 닥치는대로 갈기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소형폭탄이 떨어졌다. 요란한 폭발소리에 이어 조국보위후원회 부근이라고 짐작되는 곳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순간 경패는 앉아있던 나무밑에서 소스라쳐 일어나 뿌듯하게 불어난 젖가슴을 부여안았다. 국보가… 국보가…

적기들은 폭격을 계속하였다. 따르륵—따르륵— 무엇을 따라다니듯이 적기들은 이리저리 동체를 까불며 거리를 누볐다. 경패는 뜬소문에 미국놈들이 남의집 점심 먹는것을 들여다보며 기총소사를 하더라는 등 밭김을 매는데 고랑에 숨으니까 고랑마다 따라다니더라는 등 하는 말을 들었지만 정작 기총소사소리를 듣고보니 십상 그놈들이 밤나무밑에 빠끔하게 뚫린 방공호문으로 쌕쌕 잠든 국보를 들여다보고 총알을 퍼붓는것만 같았다. 그는 처음 듣는 뚜루룩뚜루룩하는 끔찍한 사격소리에 진저리를 치면서도 면바로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한손으로 한껏 불어오른 젖가슴을 눌러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걸채는 치마자락을 휘여잡으며 마구 달렸다.

《동무, 동무！》

《엎드렷！》

《저런, 발견된다는데！》

이런 소리가 들렸지만 경패는 모든 소리가 심지어 적기의 그 무시무시한 사격소리도 앵—하고 가슴을 허비는듯하는 급강하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으앙으앙 발버둥치며 보채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릴뿐이였고 그 애가 적탄을 맞는 끔찍한 광경이 눈앞에 떠오를뿐이였다.

이에 앞서 경패네 방공호앞에서는 자그마한 사건이 벌어졌었다.

학실은 처음에 밤나무그늘에 홀로 앉아 아줌마에게서 얻은 빨간 헝겊과 노랑천을 차곡차곡 접어서 치마말기에 찔렀다가 다시 꺼내여 펼쳐놓고 그러다간 또 접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다. 방공호속에서는 국보가 함빡 땀을 흘리며 쌕쌕 잠들고있었다. 해가 솟아오르자 무덥기도 하였지만 참을수없이 심심하고 몸이 게나른해졌다. 그런데 국보가 빽—하고 울었다. 얼른 방공호로 들어가서 척척한 기저귀를 뽑아내고 다독거려보았으나 아이는 진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충 둘쳐업고 밖으

로 나왔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몸이 끈적끈적해서 보채던 국보는 바깥바람을 쐬자 어이어이 갑시며 좋아하였다. 한참 주먹을 빨며 무어라고 옹알옹알하더니 제풀에 잠들어버렸다. 학실은 아이를 밤나무그늘에 깔린 거적우에 내려놓고 띠를 똘똘 말아서 베개를 해주었다. 국보가 잠들자 또 심심한 시간이 흘렀다. 나비가 울바자우에 앉았다. 학실은 타래포대기를 들고 나비를 쫓아갔다. 나비는 소녀를 끌고 사택거리앞쪽으로 나갔다. 거기서 학실은 이웃집에 사는 정옥이를 만났다.

《학—실—아— 노—올자—》

《안 놀아—》

《넌 뭘 하니?》

《애기 봐.》

《누구네 애기?》

《아줌마네 애기.》

《피,저네 아줌마가 어딨나?》

《왜 없어. 이거 우리 아줌마네 집이다.》

《정말?》

《정말.》

학실은 상을 찡그리며 시뜩해서 타래포대기를 들고 밤나무밑으로 돌아왔다. 정옥이는 학실이에게 아줌마가 있다는 사실에 경의를 표하면서 저으기 공손한 태도로 따라왔다. 학실은 일부러 그의 면전에서 입을 꼭 다물고 그 빨갛고 노란 천을 꺼내여 접었다폈다하였다. 정옥은 침을 꼴깍 삼키며 학실의 놀랄만한 《재산》을 들여다보았다.

《그거 네거니?》

《그럼,우리 아줌마가 주었어.》

《너네 아줌마 어디 갔니?》

《할아버지랑 동원나갔다. 그래서 난 여기서 애기를 보지 않니.》

한쪽이 상대편에게 그렇듯 충심으로부터의 경의를 보내고보니 쉽게 화해가 이루어졌다. 두 소녀는 다정하게 앉아서 소꿉을 차리기 시작하였다. 얼마후 그들은 다시 다투었고 그러다가 또다시 화해를 하였다. 이번에는 정옥이가 저희집에 주먹만한 포탄껍질이 있다는것으로 학실을 굴복시켰다. 그리하여 학실이는 갖은 간청끝에 결국 정옥이로 하여금 포탄껍질을 구경시켜주기 위하여 자기를 저희집으로 초청하게 만들었다. 아기는 깊이 잠들었으니 제꺽 뛰여가서 한번만 만져보고오면 아줌마도 할아버지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할것이였다.

두 소녀는 언덕아래로 뽀얗게 달려갔다. 그들은 포탄껍질을 신기하게 들여다보는사이 꽃싸움을 하면 더욱 재미있으리라는 새로운 궁리를 하게 되였다. 적기가 나타난것은 바로 이러한무렵이였다.

그늘을 따라 눕히다보니 하얗게 드러난 타래포대기에 싸인 국보는 싸이렌소리가 들릴 때까지도 쌕쌕 잠을 자고있었다. 그러다가 머지않은곳에서 첫폭탄이 폭발하자 눈을 떴다. 국보는 그 엄청난 소리에 무척 놀라서 인차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런데 그 소리는 그치지 않고 새라새로운 흉한 소리가 겹쳐들었다. 한참 울어보아야 소리가 멎지 않자 어느덧 국보는 귀가 익어버렸고 그대신 배가 고파났다. 그래서 땀이 내밴 주먹을 입에 넣고 빠는 한편 계속 울었다. 그러자니 울음소리는 자연 가늘어졌다. 이때 상공에 괴상한 시꺼먼 그림자가 휘 지나갔다. 국보는 깜짝 놀라 울음을 뚝 그쳤다가 앵— 하고 기분나쁜 소리가 나자 다시 불에 덴것처럼 울어제꼈다. 한참 흐느끼며 우는데 또 시꺼먼것이 휘 지나가는바람에 국보는 다시 울음을 그치고 그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뚜루룩—뚜루룩— 아까부터 어딘가 먼곳에서 들려오던 소리가 이제는 바로 눈앞에서 귀청이 따갑도록 날카롭게 울렸다. 난생처음 들어보는 그로서는 도저히 정체를 알길 없는 그 소리가 방금 앵소리를 지르며 휘하고 지나가던 검은 그림자에서 울린다는것을 알아낸 국보는 그만 배고픔을 잊어버렸다. 그리고는 눈이 말똥말똥해서 그것을 바라보다가 따르륵소리가 요란하게 나면 이마살을 찌프리고 발버둥을 치며 울었다. 앵—소리가 나고 꺼먼것이 내려꽂히면 눈물방울이 아롱아롱한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라보다가 재미가 나서 해죽해죽 웃기도 하였다. 한번은 바로 옆의 풀발 바위우에 무엇인가 퐁퐁박히더니 밤나무가지가 뚝 부러지고 잎사귀가 우수수 떨어졌다. 국보는 해볕에 반짝반짝하는 깜찍하게 생긴 원추형의 장난감이 바로 손옆에 흩어진것을 보았다. 그는 토실토실한 손을 뻗쳐 그놈을 집었다. 여간 따갑지가 않았다. 그래서 앙—하고 울었지만 그는 그것을 놓아버려야만 뜨거운것을 면할수 있다는것을 몰랐다. 그래 그냥 움켜쥐고 칵칵 사레가 들리도록 울었다. 그러는 사이 뜨거운것이 식어버렸다. 타고난 호기심이 강하게 머리를 쳐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머니 젖꼭지만한 굵기를 가진 그 노랗고 갸름한 원추형의 정체와 그 끝에 달린 까만 고깔같은것이 자기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것인가를 알아보자는것이 아니였다. 그에게는 아직 손에 잡히는 일체의것을 입에 가져가는 단 한가지 재주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움켜쥔 주먹에 가리워 입에 잘 들어가지

않는 손을 억지로 빨다가 무미건조한데 실망할무렵 그앞에 또 하나 그러한 물건이 노랗게 반짝거리는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얼른 그 아무 맛도 없는것을 집어던지고 모자라는 팔기장을 힘들이게 뻗쳐서 가까스로 그놈을 잡았다. 겨우 주먹밖으로 삐여져나온것을 빨고있는데 또다시 앙—소리가 나고 또다시 따르륵따르륵하는 소리가 났다. 국보는 주먹에 움켜쥔 원추형의 노란 물건을 빨면서 고개를 하늘로 돌렸다. 빨간 불길과 꺼먼 연기가 타래쳐오르고있었다.

경패가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달려온것은 이러한 때였다. 그는 방공호로 뛰여갔다가 그 속이 비였다는것을 알자 미친사람처럼 눈이 희번뜩해서 주위를 살폈다.

《국보야—》

그런데 국보는 바로 눈앞에 있었다. 어머니 목소리를 들은 국보는 자기의 장한 모험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아—아— 하고 알수없는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을 쳤다.

《아이구 국보야—》

경패는 와락 밤나무밑으로 달려가 아들을 그러안았다. 거의 본능처럼 앞가슴을 헤치고 젖을 물리는데 문득 아들이 빨고있는 노란것이 눈에 띄였다. 자그마한 원추형끝에 연으로 까맣게 고깔을 해씌운 미국비행기의 기총탄을 본 경패는 《악》하고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끌어안은채 송충이라도 털듯 몸을 털었다. 아이몸에서와 치마자락에서 털려난 탄알이 풀밭에 주르르 흩어졌다. 적기는 아직 상공에서 맴돌고있었다.

경패는 국보가 어떻게 방공호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그 피덩어리같은것이 미국비행기의 끔찍한 사격하에서도 어떻게 기절하지 않고 살아남았는지 그런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는 작업장에서 전후를 돌볼새 없이 달려오던 때와 마찬가지로 아이를 끌어안고 벌떡 일어섰다. 눈에서는 불이 펄펄 일었다.

《이놈들아, 내 국보를, 내 국보를… 두고보자, 이놈들아…》

적기들은 그 위협에 놀라기라도 한듯 달아나버렸다. 그러나 경패는 오래동안 그대로 서있었다. 전쟁이란 무엇인가? 그에게 닥쳐온 전쟁이란 이기지 않고는, 어떻게나 이기지 않고는 남편도 아들도 그리고 자기자신도 잃어버릴 그런 시련이였다. 여태까지 가슴한구석에 서글픔을 간직한채 무엇인가 기다리는 심정으로 살아온 그의 생활이였다. 녀자란 그렇게 사는것으로 알아왔고 남들 역시 그렇게 사는것을 보아온 그였다. 그러나 기다리고있는사이 국보는 어떻게 될것인가?

남편은 어떻게 될것인가? 그리고 불에 타고 파괴되여서 더욱 정다와지는 이 거리와 고향마을은 어떻게 될것인가? 싸워야 한다고 당에서 그처럼 많은 말을 들어왔건만 경패는 그 싸움의 필요성을 이렇게 사무치도록 느껴보기는 처음이였다. 경패는 아들의 주먹에서 그 탄알을 뽑아내여 땅바닥에 던지고 벌레라도 죽이듯 발로 밟아 몇번이고 뭉갰다. 그러면서 아들의 볼에 뜨거운 자기 볼을 대며 속삭였다.

《국보야, 엄마도 싸우마. 너를 위해 아버지를 위해…》

젊은 어머니의 두볼에는 주르르 눈물이 흘러내려 국보의 턱밑으로 흘러들었다.

얼마후 마음을 진정시키고났을 때야 저쪽 비탈에 웅크리고 앉아 흐느껴 울고있는 학실이를 발견하였다. 경패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점심참으로 삶아놓은 감자 두알을 주어서 돌려보냈다.

폭격이 멎은지 이슥하여 보패가 달려왔다. 경패는 동생을 앞에 놓고 방금 자기가 본 끔찍한 사건을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다. 보패는 시종 말이 없더니 언니를 향해 똑바로 앉으며 말했다.

《언니, 난 군대에 나가겠어요.》

경패는 어안이 벙벙하여 멍하니 동생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니, 네가 갑자기 왜 그러니? 처녀가 어떻게 군대에 나가겠니?》

《갑자기가 아니예요. 난 수령님 방송연설을 듣고 얼마나 생각했는지 몰라요. 언니도 방금 말하지 않았어요. 난 그놈들에게 이 소중한것들을 빼앗길수 없어요. 그리고 언니, 난 그이와 나 사이를 가로막고있는것이 무엇이라는걸 알아요. 언니도 그렇지 않아요. 미국놈이 아니라면 형부가 왜 언니와 국보를 이렇게 두고 갔겠어요?》

경패는 동생의 말을 들으며 묵묵히 고개를 떨구었다. 마음은 천리밖에 있고 몸은 방안에 있었다. 자기에 비하면 보패는 얼마나 자유스러운가? 그는 두렵기도 하고 부럽기도 한 그런 눈매로 동생의 커다란 손을 바라볼뿐이였다.

《며칠전부터 집에서도 가겠다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펄쩍 뛰여요. 그렇지만 어머니가 우리 자식들을 생각해서 그런다는것을 나는 알아요. 그렇기때문에 내가 직접 총을 잡고 나가는것이 내게 제일 큰 기쁨이라는것을 알게 되면 승낙하실줄 믿어요. 민청에서도 걱정을 했지만 난 벌써 마음을 정했어요.》

《보패야, 너 어쩌면… 글쎄 요렇게 깜찍하게 생긴게 그런 당돌한 생각을 하니?》

경패는 글썽해진 눈으로 보패의 하얀 얼굴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또하나 귀중한 살붙이가 싸움터로 떠나간다. 아마 아무도 그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것이다. 그는 적탄이 비발치는 싸움터로 가면서 더 많은 책임과 더 많은 심려를 여기 남은 식구들에게 지워놓게 될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랴, 싸움인걸!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처럼 조선인민 누구나가 한사람같이 궐기하여 참가하여야 할 신성한 전쟁인걸…

×

보패는 언니네 집을 나서자 그길로 군사등록기관에 들렀다가 해빛이 설핏해졌을 때에야 다시 큰길에 나섰다. 조국보위후원회부근의 화재는 인차 꺼지고 그밖에 큰 피해는 없었지만 어쩐지 거리는 전보다 더욱 긴장된것이 뚜렷이 느껴졌다.

언니네 집뒤 언덕에서 꺾어가지고 온 오리나무가지가 벌써 시들시들했지만 그것이라도 어깨에 걸칠수밖에 없었다. 얼른 거리를 벗어나려고 총총히 걸음을 다우쳤다. 아카시아 가로수가 늘어선 들길에 나서자 개울물소리가 한가하게 따라왔다. 길량쪽에 펼쳐진 벌써 이삭이 팬 논들이 새삼스럽게 애틋한 감회를 불러일으켰다. 가리라 가리라 벼르어온지는 오랬지만 정작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보니 길이고 논밭이고 멀리 보이는 산이고 모두가 어제날처럼 심상하게 보이질 않았다. 읍내 영화관으로 동무들과 밀고 닥치며 구경을 가던 길이였다. 군민청회의에 갔다가 밤늦게 돌아오며 《백두산 말기에…》하고 노래를 부르던 길이였다. 그리고 이 길을 세철이와 함께 걸었었다. 앞으로 몇번이나 더 걷게 될는지 모르지만 싸움에 이기고 돌아올 때까지는 느닷없이 지나치는 자동차때문에 둘이 서먹하게 갈라져 서있던 저 수로어방의 울퉁불퉁한 다리목도 어색하게 마주 서있던 비석재 령마루도 다시는 밟아보지 못할것이였다. 참으로 얼마나 자주 걸어가고 걸어온 길인가? 달구지를 끌고 밤이 이슥토록 전선으로 보낼 식량을 나르기도 하였다. 성인중학교에 다니느라고 총각들에게 놀림을 받으며 종종걸음을 치기도 하였다. 이 길로 농촌위원회를 조직하러 공작원들이 내려왔고 아버지를 만나러 군과 도의 간부들이며 신문기자들이 내려왔다. 이 길로 언니 경패의 신혼행차가 읍내로 갔고 일제군대에 끌려갔던 오빠가 돌아왔다. 무수한 추억의 실매듭이 뒤얽힌 길로 홀로 걸으며 보패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수령님, 저도 우리 조국의 자유와 독립이 얼마나 귀중하다는것을 압니다. 장군님께서 찾아주신 이 길을 다시는 그놈들에게 짓밟힐수 없다는것을 저도 압니다.》

보패가 세철이네 집 사립문을 들어서니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다고 작업장에서 귀띔을 해놓고 줄곧 기다리고있던 최필녀는 터밭에서 급히 허리를 일으켰다. 북을 주면서 몇알 뽑아낸 햇감자를 바가지에 담아들고 마당으로 걸어나와서는 보패의 위장을 벗겨주며 물었다.

《읍내는 어떻게 됐더냐? 사람이 상하지는 않았더냐?》

《그런 소린 못들었어요. 조국보위가 조금 불이 붙고 그 옆집이 마사졌어요.》

《에구, 그만한게 다행이다. 그래 경패는 그렇게 달려가더니 다 별일 없었겠지?》

어머니는 보패를 퇴마루에 끌어앉히며 또 물었다.

《별일은 없었어요. 국보가 하마트면 큰일날번했다는군요. 달려가보니 미국놈 기총탄을 빨고있더라구요. 그놈들이 무엇을 보고 쏘았길래 그렇게 애기옆에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구, 얘가 무슨 소리를 하니? 무엇을 보고 쏘다니? 그놈들이 족히 그러고도 남을 인백정들이다. 그놈들이 못봤으면 몰라도 봤다면 왜 살려두겠니? 그 애도 조선사람이 아니냐? 내 아까 거기서도 잠간 말했지만 걔 편지에도 끔찍한 이야기가 적혀있더라. 이리 올라앉아서 읽어보렴. 참 세면을 먼저 하려니?》

《아니예요. 전 곧 가봐야겠어요.》

《가긴, 이렇게 햇감자를 캤는데 얼른 쩌서 먹고 가거라. 그리고 답장을 보내야겠는데 네가 좀 써줘야 하지 않겠니?》

필녀는 감자바가지를 옆에 놓고 방으로 들어가더니 장농에 깊숙이 감추어두었던 아들의 편지를 들고나왔다. 꺼먼 우편국의 도장이 열개도 더 찍힌 군용봉함엽서를 받아든 보패는 일순 그 나들나들 보풀이 피여난 종이에서 확 하고 초연내가 풍기는것을 느꼈다. 어머니는 벌써 수십차례 곱씹어 읽은 편지건만 옆에 바투 다가앉아 소리를 크게 내여 읽으라고 하였다.

어머님전상서

사랑하는 어머님, 기체만강하신지요? 이웃들도 다 무고하시고 직장에도 별일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병아리가 다 자라는지요?

소자는 군대에 나와서 더 몸이 튼튼해지고 밥도 잘 먹습니다. 그사이 어머니가 궁금해하실줄 알면서도 편지를 쓰지 못해 죄송합니다.

보패는 저도모르게 빙그레 웃었다. 집에 있을 때는 그렇게 퉁명스럽게 굴던 사람이 편지에는 이렇게도 고투를 내가며 점잔을 피우는것이 여간 우습지가 않았다.

《왜 그러니? 걔가 무슨 실수를 했니? 오라, 병아리때문에 그러는구나? 걔가 워낙 벗바리가 없어서 그러잖니… 아직 그런 철부지란다. 그런게 어떻게 그 악착한 놈들과 싸움을 하겠는지, 원…》

어머니는 보패의 웃음을 제나름으로 료량하고 아들을 위해 변명을 하였다. 보패는 당황하여

《아니예요. 재미가 있어서 그래요.》

하고는 다시 목청을 가다듬어 읽기 시작하였다.

소자는 지금 충청도땅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그사이 수백리길을 걸었습니다. 물집을 얼마나 터뜨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맨 앞장에 서있습니다. 제가 한걸음을 걸으면 어머님은 우리 나라 땅이 그만큼 해방됐다는 소식을 들으실것입니다. 저는 길을 걸으면서 우리에게 기발을 흔들며 만세를 불러주는 여러 나이 많은 어머니들을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어머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관들로부터 조그마한 칭찬을 받아도 곧 어머님께 알려드리고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어머님께 말씀드릴만한 공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저께 소자는 처음으로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싸움을 처음 해보기때문에 얼마나 덤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어찌하다가 적의 기관총을 하나 빼앗고 장교 한놈을 때려죽였습니다. 상관들은 퍽 칭찬하였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부끄러웠습니다.

여기서 소자는 훌륭한 동무들과 상관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저를 동생처럼 돌봐줍니다. 말씀드리기가 늦었습니다만 우리 부대의 부대장이 알고보니 일전에 우리 집에 형님소식을 가지고 찾아왔던 전학민이라는분이였습니다. 소자는 퍽 반가왔지만 일부러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만날 기회가 생기면 어머님 안부를 전하겠습니다. 부대장동지는 부대에서 얼마나 존경을 받고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부대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칭찬을 벌써 여러차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훌륭한 상관을 모시고있기때문에 전사들이 모두 잘 싸운다고 동무들은

한결같이 말하고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님, 소자는 어떤 거리에서 미국비행기가 폭격하는것을 보았습니다. 그놈들은 꼭 우리 하시원리같은 조그마한 동네를 한시간이나 폭격해서 반반하게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소가 미쳐서 달아나고 너무나 혼이 난 아주머니가 락태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제 소자는 행군을 하다가 한 읍거리를 지났는데 애국자들의 머리를 베여서 전보대에 매달아놓은것을 보았습니다. 미국놈들이 내빼면서 그랬다고 원쑤를 갚아달라고 가족들이 울며 매달렸습니다. 또 목이 말라서 우물로 달려갔더니 거기서도 통곡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들은 우물에서 열두명의 남자들과 아이를 업은채 집어넣은 한 아주머니의 시체를 건져냈습니다. 어머님, 소자는 총을 잡고 나선 군인입니다. 소자는 그 아주머니처럼 울며 원쑤를 갚아달라고 남에게 매달릴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원쑤를 누가 갚아야 한다는것을 소자는 잘 압니다. 어머님, 소자는 어머님의 다리를 분질러놓은 미국놈의 얼굴을 지금도 똑똑히 그려낼수 있습니다.
소자는 지금 한자루 칼을 가지고있습니다. 이 칼은 진작 어머님에게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우리 부대장이 형님의 유물이라고 집에 가져다 준것입니다. 어머니가 장속에서 꺼내다준 꾸레미속에 그 칼이 들어있었습니다. 부대장은 그 칼이 형님이 골드빈네 집을 도망칠 때 가지고 떠난 미국놈의 식탁칼이라고 하였습니다. 소자는 한때 형님의 원쑤를 갚으려고 짬만 있으면 그 칼을 갈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짬만 있으면 그 칼을 돌에다 문질러 날을 죽이고있습니다. 번쩍거리던 칼은 지금 무디여지고 톱날처럼 우툴두툴해졌습니다. 저는 그 무딘 칼로 미국놈의 가슴을 찌르렵니다. 톱질을 하듯 무딘 칼로 가슴을 찔러서 그놈이 한시바삐 숨이 끊어지기를 빌면서 제놈이 우리 조선사람에게 끼친 고통의 다만 몇만분지 일이라도 느끼게 하렵니다. 저의 친한 동무 한사람은 좋은 칼을 못쓰게 만든다고 책망하지만 저는 말을 할수가 없습니다. 소자의 이 마음을 어머니가 아니고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닭모가지도 비틀지 못한다고 어머니가 걱정하시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저도 무서울만큼 마음이 악착해졌습니다.
어머님, 싸움터라고 하면 언제든지 위험한곳으로만 생각했는데 막상 와보니 뜻밖에 조용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돼지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매일같이 고기국을 주고 비계가 희쓱희쓱한 비빔밥을 먹인답니다. 처음 한동안은 비위가 상했지만 이젠 주먹같은

비게덩어리도 막 먹습니다. 싸움터에 나와서 불과 며칠 안됐는데 이젠 정말 어른이 된것 같습니다.

어머님, 몸조심하십시오. 소자는 주야로 한분밖에 안계시는 어머님을 홀로 두고 온것이 걱정입니다. 이럴줄 알았으면 방공호라도 깊이 파놓고 나왔을걸 하고 후회가 막심합니다. 병모아저씨나 성기에게 부탁해서라도 좀 튼튼히 방공호를 꾸리십시오. 그리고 일없이는 나다니지 마십시오. 어머님 성미에 가만 계시지 않을줄 압니다만 그래서 더 걱정스럽습니다. 어머님 몫만큼 제가 장군님과 나라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그러니 어머님, 저를 생각해서라도 옥체를 보전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어 이만 적습니다. 답장은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도 언제 다시 붓을 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소식 없거든 이 아들이 전선에서 몸성히 잘 싸우고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어머님 옥체무강을 빕니다.

아들 세철 올림

최필녀는 옷고름으로 눈굽을 훔치며 듣고있었다. 그는 벌써 몇번이나 그렇게 눈굽을 훔치며 이 편지를 읽었는지 모른다.

믿자 믿자 하면서도 자칫 마음을 놓으면 어느새 남쪽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게 되는 어머니였다. 아들은 벌써 머나먼 전선에 가 있었다. 그러나 그의 앙상한 가슴에는 언제나 붙임성없고 찬찬치 않은 아들, 그러면서도 세상의 어떤 훌륭한 아들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세철이가 안겨있었다.

이젠 쪽박으로 하나만 쌀을 안쳐도 세끼를 먹고 남는 일이랄것도 없는 단출한 동자질이였으나 아들이 퇴근해오군하던 길을 바라보고있는사이 어느새 아들 몫까지 쌀을 안치고는 몇끼를 내리 식은밥을 먹게 되여도 그냥 그 버릇을 못고치는 어머니의 천성이였다.

보패는 편지에 별로 슬픈 사실이 적혀있었기때문이 아니라 그저 가슴속에 와 마치는 불같이 뜨거운 세철의 숨결에 그만 목메여올랐다. 어머니가 눈치챌것이기때문에 참자참자하면서도 어느덧 마지막 대목에 이르러서는 뽀얗게 글줄이 흐려 읽을수가 없었다.

《그 어진 아이를 얼마나 악착스럽게 만들어놓았단말이냐? 그러니 그 인두겁을 쓴 백정놈들이 갓난애라고 살려두겠니?》

보패는 눈시울을 슴벅거려 간신히 눈에 덮인 안개를 가신 다음 편지를 차곡차곡 접었다.

보패가 조심스레 내미는 편지를 받아쥐고 어머니는 멍하니 남쪽하늘을 바라보았다. 보패의 시선도 그리로 달려갔다. 구구하고 터발쪽에서 울바자밑을 뚫고 이젠 거의 연계꼴이 잡힌 병아리떼가 나타났다. 보패는 무심히 빨갛게 변두가 돋아나기 시작한 그 머리수를 세였다. 하나,둘,셋… 일곱… 열… 열한마리를 다 세고나니 어쩐지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그제야 어머니도 마음을 돌려 수선을 떨기 시작하였다.

《참,답장을 써야 하지 않겠니? 그 앤 답장을 쓰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답장을 해야 도리가 옳지.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그 애가 총을 메고 나선 이상 나라의 떳떳한 방패가 아니냐. 어서 네가 좀 써라.》

《아니 제가 어떻게 써요?》

보패는 얼굴이 발개서 질겁한 소리를 질렀다. 은근히 마음속으로 바라던 말이였기때문에 더욱 얼굴이 뜨거워지는지도 몰랐다.

《그럼 네가 안쓰고 누가 쓰겠니? 저기 그 애 책상우에 철필이랑 잉끼랑 그대로 있다. 얼른 써라. 그사이 내가 감자를 찌마.》

《글쎄 뭐라고 쓴단말이예요? 정 그러시면 어머니가 불러주시든지 해야지…》

보패는 이번에는 정말 당황해서 다급히 말했다. 그러나 필녀는 못마땅한듯이 바라보며 말하는것이였다.

《원 애두,주변이 그렇게도 없단말이냐? 촌구석에 박힌 늙은이가 무슨 별다른 말이 있겠니? 그저 그렇게 쓸노릇이지 그리고 제말도 하고…》

필녀는 분부라도 내리듯 엄하게 말하고는 부엌으로 내려갔다. 보패가 한참이나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방안으로 조심스레 들어가는데 부엌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왔다.

《종이랑 봉투는 그 서랍속에 있다.》

보패는 책상앞에 서자마자 히쭉 웃고있는 세철이와 마주쳤다.

흰 노타이를 입고 넙적한 턱을 앞으로 쑥 내밀고 웃고있는 사진 한장이 자그마한 유리틀속에 끼여있었다. 보패는 쓰러지듯 책상앞에 앉아 그 사진틀을 두손으로 움켜쥐고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시울은 또다시 후끈해올랐다. 검산에서 만났을 때의 모습과 어찌도 비슷한지 보패는 당자를 눈앞에 보듯 그 수첩만한 크기로 압축된 사람에게 속삭이는것이였다.

《나도 이제 그 강가에 가겠어요. 그땐 동문 또 더 남쪽으로 가겠지요? 그럼 난 거기까지 따라갈거예요. 아무리 미국놈들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있어도 난 기어코 가닿고야말겠어요.》

수수하게 어머니말로 답장을 쓰고 보패 자기의 말은 한마디도 비치지 않았다. 어머니가 얼마나 씩씩하게 몸성히 살고있으며 또 아들을 위해 주야로 애를 쓰며 얼마나 잘 싸우고있는가에 대해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쓸수 없을만큼 상세히 썼다. 그리고 여백 한끝에다 괄호를 치고 이 회답을 김보패가 대필한다고 밝혀놓았다. 보패로서는 그 말 한마디면 세철이가 자기의 모든 착잡한 심정을 알아주리라고 믿어졌다.

어머니는 푸실푸실 가루가 피여오르는 올감자를 바가지에 담아 들고 그속에 조그마한 소금접시까지 받쳐서 방으로 들어왔다. 편지를 읽으려고 하니 그건 읽어서 무얼하겠니 감자나 먹자 하고 거절하였다. 필경 보패가 제 말을 했을텐데 늙은게 주책없이 그건 들어서 어찌겠니하는 소리였다. 보패는 그런 속을 채자 아무말도 쓰지 않았건만 괜히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우편함번호를 저도모르는새 따로외운것까지 어머니가 다 꿰뚫어보고있는것만 같이 생각되였다.

보패는 아무 맛도 모르고 권에 못이겨 감자를 하나 집었다. 그리고 절반을 쪼개여 들었으나 목이 메여 입으로 가져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런 보패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며 어서 먹으라고 거듭 권하였다. 보패는 마침내 손에 들었던 감자를 도로 놓고 입을 벌렸다.

《어머니 전…》

《왜 그러니? 네가 무슨 할말이 있는게로구나. 어서 말하렴. 왜 그러니?》

《어머니 전… 가겠어요.》

《뭐, 가다니?》

필녀는 일순 감자를 집으려던 손을 멈추고 처녀의 깊숙이 수그린 머리의 반듯한 가리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눈에는 또다시 아득한 그림자가 비꼈다. 인산인해를 이룬 검산역전에서 자기앞에 서있던 아들의 그림자가 처녀의 반듯한 가리마우에 덧놓였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허구많은 사연들이 그우에 가로세로 뒤엉켰다. 가다니, 어디로 간단말인가? 어머니는 그것이 중시원리 저희집으로 돌아간다는 소리가 아님을 인차 알아챘다. 아니다. 이젠 아들의 한부분처럼 그렇게도 살뜰한 정이 가는 이 귀여운 처녀가 포탄의 우뢰가 울고 총알의 비발이 치는 머나먼 싸움터로, 사내들도 뒤를 사리기 쉬운 험한 전쟁판으로 가겠다는 소리임을 어머니는 너무나 잘 알수 있었다. 애국자의 목이 전보대에 매달렸다고 한다. 아이업은 아낙네를 우물속에 처박았다고 한다.

여기 깊은 후방에 있는 거리에서도 그놈들은 잠자는 젖먹이를 겨누어 기총소사를 감행하였다. 소가 미쳐서 달아나고 임신부가 락태를 한다는 그판으로 이 고운 자태를 하고 찾아가겠다고 한다. 어머니는 찌그러져가는 대장간에 민며느리로 팔려온 이래 덧없이 흘러간 자기의 청춘시절과 기구했던 반평생을 생각하였다. 어찌 그런 길을 이 귀여운것들이 다시 걸어야 하겠는가? 그 기나긴 반평생이 다시 지나가듯 기나긴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검산역에서와 같이 푹 가라앉은 목소리로 그러나 어엿하게 말하였다.

《가렴, 정 네 소원이 그렇다면…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말씀 여쭈었느냐?》

《네, 대충…》

보패는 송구스러워서 땅속에 잦아들듯 고개를 떨구고 간신히 대답하였다.

《고개를 들어라. 아이구, 네가 이렇게 어린게 가뜩이나 치마를 두르고 싸움에 가겠다고… 내가 늙은게 한이로구나.》

어머니는 속이 타는지 옷고름을 풀어헤치고 앙상한 젖가슴을 미닫이쪽으로 돌렸다.

손에 잡히는대로 마분지 쓰레받기를 움켜쥐고 가슴을 훨훨 부치는 어머니를 한옆으로 바라보며 보패는 종시 고개를 들수 없었다.

어머니는 불시에 바로 돌아앉더니 은근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군대에 나가면 남정들도 조련찮을텐데 힘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닐게다. 처음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고 떠나야 한다. 네가 몸이 단단한줄은 안다만 그래도 싸움판에 탈이라도 나면 어찌겠니? 그래 군대에 가면 처녀들에게는 무슨 일을 시킨다더냐? 처녀들도 총을 쏘는가?》

《모르겠어요. 병원같은데 많이 보내는 모양이예요.》

《오라, 간호부를 시키겠군. 그게 또 좀 중한 일이냐? 아무튼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하느니라. 이게 좀한 싸움이냐?》

《어머니.》

보패는 이렇게 불러놓고 갑자기 숨을 끊었다. 얼굴이 확확 달아올랐다.

《제 머리를…》

《응?》

《제 머리를 잘라주세요.》

필녀는 말을 잊고 또다시 고개를 깊숙이 떨군 처녀를 멀뚱멀뚱 바라

보았다. 흰 목덜미를 가리울듯말듯 량쪽으로 갈라늘인 탐스러운 머리태가 창끝처럼 아프게 눈을 찔렀다. 치렁치렁 땋아늘인 그 머리에 자주빛 댕기를 드려서 틀어얹고 아래마을에서 가마를 태워 자기집 문전으로 데려오는 보패의 모습을 몇번이나 그려보았는가? 시체 처녀들이 지지고 볶기 위해 머리를 싹독싹독 자르는것을 은근히 언짢게 보아오던 어머니에게는 보패의 그 좋은 머리가 기쁨이요, 자랑이기도 하였다.

어머니는 한참이나 보패의 다소곳이 숙인 얼굴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일어났다. 벽에는 가난하고 설음 많았던 어머니의 반생에 유일한 사치품이였던 빗접고비가 걸려있었다. 퇴색한 봉황의 무늬가 아직도 어렴풋이 형체를 드러내고있는 그 빗접고비에서 접은 자리가 닳아빠진 빗접을 꺼냈다. 자리에 도로 앉은 어머니의 입에서는 저도모르는사이 가벼운 한숨소리가 새여나왔다. 빗접속에는 어머니의 젊었던 시절의 다래 한자루가 말려있었고 그밖에 검은 머리 시절부터 서리가 하얗게 내린 오늘까지 어머니의 머리를 빗던 얼레빗 하나와 참빗 두개가 놓여있었다. 얼레빗은 닳아서 모가 죽고 참빗은 틀이 휘여 실로 동여맸다. 어머니는 반진고리에서 그역시 손때묻은 가위를 찾아들자 땋아늘인 머리를 풀어헤쳤다. 둥그런 어깨우에 날개를 펼치듯 구름같은 머리가 흐트러졌다. 어머니는 얼레빗으로 석석 빗어내리며 혀를 끌끌 찼다.

《에그, 탐스럽기도 하지. 삼단같다더니 옛날같으면 다래값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수선스럽게 하는 말이였으나 그속에는 축축한 물기가 어리여있었다.

보패는 눈을 감고 빗을 때마다 고개를 젖히면서 아득히 남쪽하늘을 머리속에 그려보았다. 머리는 또 자랄것이다. 나는 기어코 총을 메리라. 그래서 머리가 자랄 때까지는 기어코 원쑤를 몰아내고 다 자란 머리를 다시 그이앞에 보여주리라.

《애, 정말 자르라니?》

어머니는 묻는다기보다 너무나 애석해서 거듭거듭 빗질을 하며 중얼거렸다.

《어머니, 섬벅 자르세요. 저에게 귀한것은 머리가 아니예요.》

눈을 감은채 이렇게 말하는 보패의 눈굽에는 제 머리를 그렇게도 아껴주는 뜨거운 사랑으로 하여 맑은것이 괴여올랐다.

《오냐! 내가 다 안다.》

어머니 빗접우에는 묵중한 머리태가 철썩철썩 떨어져서는 척척 가려졌다.

어머니는 보패가 보는 앞에서(어머니는 보패의 짤막해진 머리를 보지 않으려고 일부러 외면하였다.) 그 머리를 꽁꽁 묶어서는 굵직한 다래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벽장에서 백로지 한장을 꺼내여 정성스럽게 싸더니 장농문을 열었다. 주석장식이 아직도 빛을 뿌리지만 군데군데 옻칠이 벗겨지고 속으로 들여다뵈는 흰 오동나무결이 누렇게 바랜 그 장농속에, 집을 비울 때면 잊지 않고 붕어자물쇠를 놓고 나가는 그속에 어머니의 모든 귀중한 재보가 간직되여있었다. 어머니는 그속에서도 가장 깊은곳에 간수해두었던 비단쪽무이 책보를 꺼냈다. 그속에는 아들의 표창장들과 학교때 성적표, 군대에 나갈 때 받은 교과서가 들어있었다. 어머니는 그 책보속에다 보패의 머리카락을 놓고 다시 정성스레 싸서는 간수하였다.

보패는 머리수건을 쓰고 문전을 나서며 말했다.

《어머니, 이젠 올 짬이 없어요. 래일 군으로 나가게 돼있어요. 몸성히 계세요.》

《오냐, 내가 알아서 떠날 땐 정거장에 나가마. 이걸 네가 가져라. 집에는 또 한장 있다.》

보패는 어머니가 치마자락밑으로 쥐여주는것을 엉겁결에 받아쥐였다. 손에 마치는 감각으로 인차 아까 책상우에 놓였던 사진이라는것을 알았다.

《어머니…》

보패는 어머니 두손에 얼굴을 묻고 목메여 불렀다.

《오냐, 내가 다 안다. 부디 몸성히 잘 다녀오너라. 돌아올 때도 내가 마중을 가마.》

어느덧 땅거미가 밀려들고있었다. 비석재 내림받이를 타박타박 걸어가는 보패의 모습이 버드나무숲에 가리워질 때까지 어머니는 사립문기둥을 짚고서서 바라보고있었다. 머리우에서 까맣게 익어가는 오디가 저녁해빛을 받아 반짝하였다.

6

—금강도하를 불허하라.

—금강도하를 불허하라.

—금강도하를 불허하라.

—금강도하를 불허하라.

펜타콘에서, 백악관에서, 포도메드의 륙군본부에서 그리고 도꾜 맥아더사령부에서 이러한 전파가 끊임없이 날아가고있었다. 한편 미국 상,하원 합동 청문회에서는 민주당 행정부의 위선과 우유부단성을 시비하는 공화당출신 의원들의 질문이 울려나오고있었다.

《〈경찰행동〉이라는것은 이를테면 어떠한 개념인가?》

《일본은 7년간이나 중국에서 전쟁을 하면서도 그것이 전쟁이 아니라 하나의 〈사변〉일따름이라고 말했는데 미국의 〈경찰행동〉과 그들의 〈사변〉사이에는 얼마만한 차이가 있는가?》

《대통령은 이 〈경찰행동〉을 얼마나 오래동안 계속할 예정인가?》

《맥아더는 중국본토폭격을 주장하고있는데 무엇때문에 억제하고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앞에서 애치슨과 트루맨은 땀을 벌벌 흘리면서도 배포유하게 침묵을 지켰다.

아들과 남편들을 목적이 뚜렷치 않은 전쟁에 빼앗긴 안해와 어머니들은 련일 자기의 가족을 대통령이 징발한 진의도를 밝히라고 딱한 질문을 들이댔는데 국무성과 백악관사무국의 담당관리들은 날마다 들이쌓이는 그런 편지뭉테기들속에 파묻히고말았다. 트루맨행정부의 고관들은 사개가 잘 맞지 않는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한결같이 웨치는것이였다.

《금강도하를 불허하라!》

《금강도하를 불허하라!》

이리하여 워커는 현해탄을 횡단중인 께이장군에게 한시바삐 금강계선에 출동하라고 독촉하였고 25사를 급거 북상시켰다.

맥아더는 테레콘스크린앞에 불려나와 브레드리에게 소리쳤다.

《내가 한국의 한개 소도시를 고수하지 못한다면 반세기에 걸치는 나의 군대복무의 영예는 물거품이 되고말리라는것을 나자신이 잘 알고있소. 그러니 시끄럽게 굴지 마시오.》

등이 달아난 맥아더는 규슈연안에서 어물거리는 께이휘하의 기갑1사의 급속한 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본수상 요시다에게 일본선박들을 보충적으로 징발할것을 지시하였다. 수송능력을 가진 일체 일본선박들은 선원과 함께 징발되여 련일 항구를 떠나갔다.

아오끼 곤노베에의 둘째아들인 퇴역해군사관 아오끼 겐지로는

정세변천에 각별히 민감한 아버지의 권고로 미군수송선단의 선원으로 취직하였다. 배가 떠날 때 아오끼 곤노베에는 친히 항구까지 아들을 배웅하러 나왔다.

《얘,조선에 가거든 조선사람을 잡고 말해라. 다다미방을 온돌로 고쳐서는 뒤가 재미없을거라고 말이다. 아마 우리는 머지않아 다시 조선으로 건너가게 될게다. 그러니 우리가 온돌방에서 거처할수야 없지 않니? 그리고 가능하면 조선의 광산형편과 철공업에 대해서 좀 알아봐라.》

겐지로는 곰살궂게 머리를 끄덕거렸다. 아버지는 그의 안해를 마침내 타락시켜 양갈보로 만들고말았지만 불과 몇달사이 조선전쟁경기에 편승하여 하나의 고물상을 버젓한 주식회사 《아오끼상회》로 만들어놓았다. 겐지로는 안해가 타락하는바람에 추가적인 자유를 얻었고 신흥전쟁상인의 아들로서 어디 가나 계집들에 궁하지 않는 《훌륭한 처지》가 되였다. 그러니 아버지의 부탁이면 무엇이고 들을 용의가 있었던것이다.

《념려말아요.》하고 겐지로는 아버지의 귀에다 대고 속삭였다. 《난 권총까지 받았답니다. 선원들가운데 혹 빨갱이가 있나해서 감시하라는겝니다. 이 권총이 장차 대포가 될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그래,조심해라. 네가 앞장에 서서는 안된다. 그저 뒤전에서 눈치만 잘 살피란말이다.》

한편 제3차작전을 진행할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전투명령을 접수한 주타격집단의 인민군련합부대들은 7월 7일부터 평택—천안을 당일로 돌파하고 7월 9일에는 구정리,7월 10일에는 전의,12일에는 조치원을 지나 7월 13일 밤에는 태평리와 공주대안의 금강계선에 진출하고있었다.

전선서부의 좌익에서 남하하던 보조타격집단의 련합부대는 7월 7일에 안성을 출발하여 7월 8일에는 벌써 진천을 해방하고 소백산맥의 험한 자연장애를 리용하여 발악적으로 저항하는 괴뢰1군단관하부대들과 가렬한 전투를 진행하면서 미호천을 도하,13일에는 청주를 해방하고 그 남쪽 5키로메터 지점에서 적들의 반돌격을 격퇴하는 치렬한 전투를 벌리고있었다.

금강을 사이에 두고 세계를 집어삼키겠다는 야수적전투전통을 자랑하는 강대한 무력과 조국의 자유와 인민의 행복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의 기치를 든 청소한 새시대의 무력이 대치하게 되였다.

사두봉에서 발원하여 또아리를 틀듯 전북, 충북, 충남 세개도를 에둘러 다시 전북 옥구군의 하구로 흘러들기까지 연연천리의 류수연장과 9,886평방키로메터의 류역면적을 가진 금강은 다가오는 격전의 시각을 예감한듯 희푸른 달빛아래 숨을 죽이고 누워있었다. 전투지역일대의 강폭은 150～300, 수심은 1～1.5메터, 초속 0.3～1.3메터의 류속을 가진 강물은 상공에 으르렁거리는 미국비행기와 총총히 매달리는 조명탄 불광아래 속속들이 알몸을 드러내고있었다.

쿵—쿵—쿵—

공주와 태평리일대의 미군포진지에서 대구경포탄이 날아와서는 우안의 백사장을 파헤치고 소리없이 흐르던 강물의 침묵을 깨뜨려놓았다. 유연하던 강물은 마침내 분노를 터뜨렸다. 아우성치는 포성속에 강물은 거대한 물기둥을 길길이 일으켜세우고 쾅—철썩 쾅—철썩하고 울부짖었다. 대안의 제방에 두더지처럼 구멍을 파고 들어앉은 화점들에서는 뱀의 혀바닥처럼 불길이 날름날름 피여나서는 수면을 찍— 가르면서 주르르 탄알이 날아왔다.

이에 앞서 서울 중앙청에 전개한 전선사령부에는 군단장 리정권이 나타났다. 그는 그가 직접 책임을 진 보조타격집단의 련합부대가 소백산맥의 자연장애와 적들의 발악적인 저항에 봉착하여 필요한 진격속도를 보장하지 못하게 되자 초조해져서 사령부의 방조를 받으러 찾아온것이였다. 그러나 그가 2차작전시초에 보조지휘소 책임자로 있으면서 최고사령부의 작전적기도를 관하부대들에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한강도하에 적지않은 난관과 시간상 지연을 초래했고 또 서해안을 따라 진격하던 련합부대의 지휘관이 특별한 리유없이 김포부근에서 어물거리는것을 묵과하여 제때에 영등포에서 적의 퇴로를 차단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적지않은 적들이 빠져나가게 허용한것과 같은 엄중한 과오를 권혁동지가 낱낱이 꿰뚫어보고있었기때문에 입을 벌리기가 여간 난감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러면 그럴수록 제때에 말을 비쳐 만약의 경우에 책임이라도 모면해야겠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머리를 쳐드는것이였다. 그는 부관의 안내로 드넓은 사령관실로 들어갔다. 키가 크고 골격이 굵은 권혁동지는 뒤짐을 짚고 지도앞에 서있었다. 사복을 입고있을 때나 군복을 입은 지금이나 높이 추어올린 머리며 긴장된 살이며 해별에 탄 얼굴이 변함없이 소박한 인상을 주었지만 말없이 돌아보는 그 눈에서는 또한 그제나 이제나 변함없이 엄격한 광채가 내뻗쳤다. 긴

장된 전선형편에 어지간히 당황하여 달려온 리정권은 물을 뿌린듯 조용한 사령관실의 안정되고 자리잡힌 질서에 어리둥절하여 가뜩이나 뚱뚱한 편인 몸을 더욱 동그랗게 옹송그리고 보고를 하였다.

권혁은 천천히 자리에 가앉더니 지도를 그앞에 펼쳐놓았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동무네 형편을 몹시 걱정하시고계시오. 동무는 언제까지 이 계선에 나올수 있소?》

일상적인 조용한 목소리였다. 리정권은 전선사령관의 그러한 부드러운 목소리에 매번 주눅이 들었으며 자기가 아무리 떠들썩하게 곤난한 형편과 딱한 립장을 렬거한다해도 권혁동지는 또다시 그 조용한 목소리로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하리라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그러나 리정권으로서는 피차 속이 뻔한 건주정이지만 되풀이하지 않을수 없었다.

《대도로변하고는 문제가 다릅니다. 전선사령관동지, 산이 중중첩첩하지요. 게다가 아무리 괴뢰군이지만 한개군단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동무는 언제까지 이 계선에 나올수 있소?》

아니나다를가 권혁은 눈섭 하나 움직이지 않고 리정권의 피둥피둥한 몸매를 바라보며 되풀이해 물었다. 리정권은 손수건을 꺼내여 목덜미를 훔치며 말했다.

《그러게 내 말이 그것입니다. 청주까지 압축해놓으니 그놈들이 한데 어울려서 더 말째게 군단말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리정권동무, 나는 동무에게 이 세천리계선으로 언제면 나올수 있겠는가를 묻고있소.》

리정권은 마침내 입을 다물고 전선사령관의 소박하면서도 근엄한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할말이 없었다. 그에게는 그 험한 산악과 중첩된 적의 저항선을 뚫고 명령에 지적된 시간까지 명령에 지적된 계선에 진출할 방도가 없었던것이다.

《사령관동지.》

한참이나 침묵이 흐른후에야 리정권은 매여달리듯 말하였다.

《나에게 예비대를 쓰게 해주십시오. 예비대를 주시면 견고한 내부전선을 튼튼히 형성하겠습니다. 지금 상태로써는 놈들의 방어선을 돌파하기가 곤난할뿐더러 돌파한다해도 적의 무력이 이렇게 증강된 조건하에서 포위를 형성하기 곤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갑1사가 불일 상륙한다 하는데 그쪽 외부전선도 문제가 아닙니까? 그리고…》

권혁은 참을성있게 그의 이야기를 다 들었다. 리정권의 론거

는 그 자신이 하나의 오솔길과 한개 분대의 무력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꼽아가며 수십번도 더 짚어보고 타산하고 최고사령관동지께 직접 보고도 올린 문제들이였다. 그러나 그 전선에서 직접 싸움을 지휘하고있는 지휘관이 자기앞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밤을 새우면서라도 들을 심산이였다.

마침내 리정권이 더는 할말이 없어 말끝을 더듬거리기 시작하자 권혁은 여전한 투로 말하였다.

《동무는 험한 산악지대에서도 벌판에서 싸움할 때처럼 생각을 하는군. 동무의 그런 고질때문에 아마 우리 전사들은 더 많이 고생을 해야 될가보오. 예비대는 없소. 동무는 장령이요. 우리가 그 예비대를 무엇때문에 장악하고있다는것은 동무도 잘 알고있소. 적들의 발악이 우심하고 또 동무같은 사람의 우둔한 지휘때문에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그 예비대를 예정보다 일찌기 전선에 투입하시기로 결심하시였소.》

《그럼 역시 주타격방향으로?》

리정권은 송구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여 저도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

권혁은 한심한듯이 리정권의 까만 코수염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큼직한 손바닥을 펼쳐 드넓은 호남평야의 퍼런 들을 뻑하고 내리쓸었다.

《제2제대는 이리로 갈것이요.》

《네? 그쪽은…》

리정권의 눈앞에 대문짝만한 의문부호가 떠올랐다. 전투의 국면은 유성평야일대와 중부 산악지대에서 가렬하고 엄중한 양상을 띠고있다. 그런데 조용한 호남평야에 그 귀중한 타격력량을 돌린다는것은 무슨 까닭인가?

권혁은 조용히 방안을 거닐며 말하였다.

《동무는 그 협애한 눈을 좀 크게 뜨고 고집을 버리시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그렇게 타이르셨건만 아직도 결함을 버리지 못한단말이요? 동무가 모르는것이 바로 이러한 작전예술이요. 우리 영명한 수령님의 이 천재적인 조치로 하여 동무는 저으기 편해질것이고 아마 동무가 직접 이 예비대를 끌고간것보다 몇갑절 동무네 전투를 헐하게 해줄것이요. 동무는 이것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동무에게 돌려주신 뜨거운 배려인 동시에 준엄한 비판이기도 하다는것을 알아야 할게요. 만일 동무가 놈들을 그 산악채 내밀려고 맥을 빼지 않고 이렇게 령활한 기동과 우회를 할줄 알았다면 지금쯤 벌써 락동강계선에 나가있을거요.》

리정권이 초연히 머리를 떨구고 떠나간후 얼마가 못되여 전선사령부 통신실은 갑자기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새로 서해안 평야지대에 투입된 제2제대련합부대가 온천리 온양계선에서 전투에 진입하여 론산방향으로 진격중 13일에 례산을 해방하고 홍성계선에 진출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공주대안에 진출한 련합부대에서와 태평리방향에서 공주쪽으로 이동하는 전차 련합부대 그리고 태평리대안의 련합부대들에서 도하준비정형을 보고해오더니 이튿날밤부터 불시에 긴장된 짧은 전문들이 들이닥쳤다.

—공주전면에서 ○○○부대 2개대대 허위도하를 개시함. 이와 동시에 강한 포병준비사격후 공주동쪽과 주의리를 향해 일제히 도하를 개시함.

—×××부대 1대대 8시까지 도하완료.

—×××부대 2대대,3대대,△△△부대 1대대 19시에 도하완료.

—△△△부대 2,3대대 15일 새벽까지 도하완료. 공주—대전간 도로를 차단함.

—×××부대 공주—부여간 도로를 차단함.

권혁은 조용히 앉아 매개 전문들을 깐깐히 훑어보고나서 짤막짤막하게 지시를 주었다.

《공주—론산간의 도로를 장악하라.》

《포병이 강안에 나와있는것은 잘못이다. 계속 대안의 보병행동을 엄호하라.》

《포병의 적시적인 이동대책을 세우라.》

태평리방향에서는 강을 사이에 두고 치렬한 화력전이 전개되고있었다. 미군방어부대는 생생한 부대인데다 중강화력이 많았고 게다가 그놈들이 차지한 대안이 훨씬 높았다. 이에 대해 인민군대가 차지한 북쪽기슭은 개활지대와 100메터폭이나 되는 모래사장이 계속되였다. 부근 산릉선에 전개한 강력한 미군의 중강화력진지에서는 쉼없이 맹렬한 포사격을 들이댔다. 원인걸장령은 부득불 하루 더 시간을 줄것을 간청하였다. 권혁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전화로 말하였다.

《공주는 이미 돌파했소. 동무는 37년 여름을 상기하시오. 그때 만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압록강을 건너 보천보를 치지 않으셨다면 4사는 매우 곤난했을거요. 보천보전투는 거대한 전략적의의가 있는 동시에 성동격서의 작전전술적모범과 크나큰 혁명적동지애를 보여주고있소. 보천보에 올린 홰불이 삼천만인민의 가슴에 광복의 서광을 비쳤다면 우리가 대전을 해방하는것은 조국해방전쟁에

서 중요한 국면을 열어놓게 될것이고 최후승리의 전망을 환히 내다볼수 있게 할거요. 동무는 37년의 작전에도 참가했지만 오늘 다시한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작전적기도를 훌륭히 받들어나가야겠소. 시간은 그렇소, 나는 될수록 빠른게 좋다고 생각할뿐이요.》

원인걸은 《알았습니다.》하고 짤막하게 대답하였다.

×

밤사이 원인걸사단에서는 만반의 도하준비를 갖추었다. 강력한 포병진지가 형성되였으며 포마다 시사를 끝마쳤다. 여울도하장에는 믿음직하게 축성된 공병시설이 이미 위장되였고 도하경무초소가 설치되였다. 출발진지에서 도하장까지의 통로도 제대로 갖추어놓았다.

한편 사단장은 자기 전방감시소에 관하부대장들을 불러놓고 권혁동지의 말을 전하면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의 방송연설을 다시 침투시킬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학민은 자기 련대가 전개한 강가로 나왔다. 아군의 은밀한 행동을 감시하기 위하여 적기들은 한시도 상공을 떠나지 않았고 무수한 조명탄이 매달려 강가는 대낮처럼 밝았다. 푸름푸름 동이 터왔으나 적들은 물리지도 않고 꺼지는족족 새로운 조명탄을 매달았다. 학민은 방금 사단장감시소에서 듣고온 전선형편과 적의 기도를 다시한번 분석해보았으며 대안의 적방어성격을 따져보았다.

오는밤에 단행하기로 된 도하도 필경 간고할것이다. 사포군의 화력습격이 일시 발산리와 장대리의 적포진지를 제압한다해도 강안의 수십개나 되는 화점 특히 제방을 뚫고 들어앉은 화점들을 소멸하기는 곤난할것이다. 그러니 전사들은 로출된 200메터의 강폭을 적기관총의 집중사격속에서 극복해야 한다. 도중에 좌절되면? 학민은 불그레 노을이 물든 동쪽산발을 초조하게 바라보았다.

직사화력으로 대안제방의 화점을 소멸할수는 없는가? 그러자면 조준사격을 할수 있도록 포들을 모래톱으로 끌고와야 한다. 이 반반한곳에 포를 끌고올수 있겠는가? 그는 혼자 강가를 오락가락 거닐다가 련대 포진지로 걸어갔다. 포병들은 닥쳐올 전투에 대처하여 화력진지를 튼튼히 꾸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포탄을 닦고있는 동무, 포바퀴를 고이고있는 동무, 제원을 다시 확인하고있는 동무, 포탄운반을 지휘하고있는 화력부관, 한쪽에서는 식사준비를 다그치고있는

취사병들의 모습이 으스레한 새벽어둠속에 얼른얼른하였다. 학민은 사격속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방순에 사격구역과 호출신호, 제원들을 적어놓은 글자들을 읽었다. 그는 한포진지에 앉아 작업하고있는 포병들을 불렀다. 45미리 반전차포 중대장이 황급히 달려왔다.

《앉소, 앉소. 좀 이야기를 해보기오.》

다른 포 성원들도 련대장의 주위에 커다란 원을 치고 앉았다.

《이 포는 직사거리가 얼마나 되오?》

학민은 누구에게라 없이 가장 초보적인 제원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중대장과 포장은 련대장의 의도를 알수 없어 어물어물하는데 애티가 나는 조준수 한 동무가 벌떡 일어나더니

《600메터입니다.》

하고 힘차게 대답하였다.

《좋소, 앉아서 이야기하기오. 그래 600메터란말이지?… 여기서 저 대안까지는 얼마나 될가?》

《아마 한키로 가까이 될것입니다.》

중대장은 아직 의아심을 가시지 못한채 자신없는 소리로 대답하였다.

《한키로라! 그러니 면바로 갈기기는 바쁘겠군.》

《련대장동지,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요, 나는 동무들의 의견을 좀 물어보고싶어서 왔소. 저놈들의 화점을 봤소? 어제 단숨에 강행도하를 단행하지 못한 주요원인이 저 대안의 화점들이요. 그런데 저놈이 래일엔 꽤 소멸되겠는지 모르겠소.》

포병준비사격은 사포군에서 하게 되여있었고 련대내 포들은 준비사격후에는 보병대렬내에서 행동하게끔 되여있었던만큼 그들에게는 련대장의 질문이 딱하게 들리였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할것인가 토의라도 하듯 서로 마주 바라보며 눈을 껌벅껌벅하였다.

《아마 직사화력으로 갈기기전에는 저놈들의 눈을 멀게 하기 곤난할것 같습니다.》

한참후 중대장이 련대장의 질문의 의도를 딱히 짚을수 없었기때문에 역시 자신없는 투로 대답하였다.

《글쎄, 내 생각에도 그럴것 같애. 그러니 래일 도하도 간단할것 같지 않군.》

학민은 혼자 중얼거리듯 말하고나서 침묵을 지켰다. 몇개 남지 않은 별빛이 점점 희미해지고있었다. 밤사이 상공을 맴돌던 경폭격기와 무스탕 전투기는 돌아가고 추격기들이 나타났다.

학민은 그것들을 못본척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가 입을 벌렸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전선에서 우리가 쟁취한 전과들은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궐기한 우리 인민의 힘은 무진장하며 영웅적인민군대는 우리 조국강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능히 몰아낼수 있으며 또 반드시 몰아내고야말리라는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 대한 칭찬인 동시에 경애하는 수령님의 이 크나큰 믿음에 보답해야 할 큰 책임을 우리에게 지워주고있소. 방금 사단장감시소에서는 회의가 있었소.》

학민은 조용한 어조로 포병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돌아보며 말을 이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대전의 적을 포위섬멸하기 위하여 만반의 작전계획을 조직하시였소. 지금 공주쪽에서는 린접사단동무들이 도하를 끝냈소.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의도하시는대로 대전포위가 성립되는가 안되는가는 우리 사단이 제때에 도하를 하는가 못하는가에 달렸소. 전선사령관동지는 우리 사단의 전투원들이 1937년 6월 보천보를 공격하기 위하여 압록강을 넘어서던 항일유격대원들을 기억하라고 말하였다오.》

학민은 여기서 말을 끊고 다시 둘레에 앉은 전사들을 돌아보았다.

《련대장동지.》

중대장이 답답하다는듯이 무릎걸음으로 다가앉았다.

《말씀해주십시오. 우리는 어떤 난관이라도 극복하고 저 강을 돌파할 각오가 되여있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의 작전계획을 실현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만 주십시오. 우리는 항일유격대원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있는 적들이 아무리 강력하다 해도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유격대가 봉착했던 난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정말 련대장동지, 우리에게 터놓고 말씀해주십시오.》

아까 직사거리를 댄 나어린 조준수가 응석이라도 부리듯 앞으로 다가앉았다.

학민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한층 부드럽게 말했다.

《사실 나도 그때문에 동무들을 찾아온거요. 그런데 내가 가만 보니 저놈들은 우리 포병들이 화력습격을 할 때는 제방 저쪽으로 가있다가 보병들이 도하를 시작하면 저 굴속으로 기여들어갈거란말이요. 그러니 저

놈들을 하나하나 갈겨야겠는데 그럴 방도가 생각나지 않아서 그러지 않소. 마음 같아서는 포를 강가에 끌어내다놓고 직접 조준사격을 했으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좌우간 저놈의 화점들을 쳐부시지 않고서는 많은 희생을 내야 할것이고 또 주력의 도하도 보장하기 바쁠거란말이요. 동무들 생각에는 어떻소?》

《글쎄요. 그럴것 같은데요.》

나어린 조준수가 동무들을 돌아보며 어물어물 대답했다.

이때 함지에 주먹밥을 담아지고와서 아까부터 뒤전에 서있던 취사병이 기웃이 고개를 내밀었다. 그는 심한 사투리로 말하였다.

《련대장동무, 그러닝게 우리 중대가 저 갱변으로 나가면 될것 아닙니까?》

《놈들의 폭격이 심하고 또 인차 포지휘기가 뜰텐데 가능하겠소?》

《허 참, 구데기 무서워 장 못담그겠습니까? 문제 없당게요. 그까진 포탄운반쯤은 내혼자라도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가만 들어보닝게 잘못하다간 도하에 랑패가 생길것 같당게요.》

그제야 좌중이 웅성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비로소 련대장의 의도를 알았다. 젊은 중대장은 미리 터놓지 않는것이 섭섭한 모양 벌떡 일어나며 말하였다.

《련대장동지, 포진지를 이동하겠습니다. 〈시(ㅅ) 시간〉까지는 모든 제원을 구해놓겠습니다.》

《동무들.》 학민은 중대장의 무릎을 눌러앉히며 흥분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나는 이것이 일반 포병전술에서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잘 모르겠소. 그런데 우리 부대앞에 놓인 전투정황은 이것을 요구하고있소. 그러나 이런 특수조건에서 훈련을 못해본 동무들이니만큼 동무들자신의 결심이 무엇보다 중요한것이요. 내가 장황하게 이야기를 한것도 바로 그때문이요. 나는 동무들에게 다시한번 묻고싶소. 포병동무들, 동무들은 적의 항공습격이 계속되는 조건하에서 저 빤빤한 모래판에 화력진지를 꾸리고 대안의 적 화점들을 소멸할수 있는가?》

《소멸하겠습니다.》

힘찬 대답소리가 울려나왔다. 중대장은 자기 전사들의 심정을 대변하듯 발을 달았다.

《련대장동지, 저희들을 믿어주십시오. 저희들은 조선인민군 포병들입니다. 저희들이 사단포병지휘소에서 받은 사격구역의 명칭은 〈워싱톤〉입니다. 조국이 요구한다면 저희들은 백악관이라

도 명중시킬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포탄이라도 될것입니다.》
《좋소, 중대장동무, 나는 안심하고 보병들의 도하준비를 시키겠소.》

날이 밝아오르자 적 포진지에서는 련속적인 집중사격을 퍼부었다. 포지휘기는 낮추 강우를 스쳐다녔고 추격기와 전투기가 모래사장과 잇달린 수림지대의 도로변에다 기총탄을 퍼붓고 소이탄을 떨구었다. 그러지 않아도 7월달 해별에 화끈 달아오른 대지는 확확 열을 뿜어올렸다. 련대포병들은 날이 밝을무렵부터 강가에 바투 접근하여 모래톱을 파고 포진지를 굴설하였다. 포진지로부터 탄약창고까지 교통호를 파고 그리로 포탄을 날랐다. 포병들이 포진지를 새로 굴설하고 위장하는 사이 보병들이 포탄운반을 도와나섰다. 그들은 다섯개씩 포탄을 묶어가지고 끌면서 기였다. 적기들은 얼씬하는 그림자만 보아도 소스라치듯 기체를 떨면서 급선회하여 내리꽂히군하였다. 고사포의 불길이 치달아오르고 기총탄이 모래사장을 파헤쳤다.
세철은 땀과 모래로 뒤범벅이 된 얼굴을 뻑 문지르고 포탄을 묶었던 바줄을 뚤뚤 말아쥔 다음 탄약창고를 향해 줄달음을 놓았다. 홀몸일 때는 살살 기여가느니 냅다달리는 편이 훨씬 덜 위험하였다.
적기가 상공에 나타났다. 세철은 못본채 그냥 달리는데 무엇이 다리를 잡아챘다. 허궁 2～3메터앞에 가서 나딩굴어졌을 때 뒤쪽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났다.
《애무한 뚜꺼비 떡돌에 치인다고 자네 덕분에 나까지 성화를 받겠당게. 좀 얌전히 굴라구.》
곁이 나서 돌아보니 낯이 익다. 넓은 어깨에 바줄을 올려놓고 서투른 동작으로 포복전진을 하는데 그 육중한 엉뎅이뒤에 단단히 동여맨 여라문개나 착실히 되는 포탄이 어슬렁어슬렁 따라간다.
《취사장아바이 아니요? 참 여태 심사를 고치지 못했군요.》
모래톱에 나딩굴어진 세철은 단단히 박아주려고 벌떡 몸을 일으켰다가 그만 입을 쩍 벌리고 이렇게 말했다.
《내 동무 거동을 일일이 살펴봤네. 〈덤베북청〉하고 같이 댕기더니 사람이 통 못쓰게 됐당게. 어서 기여가게, 이담에 대전에서 또 만나자구.》
포중대 취사장 최윤식은 여전히 어슬렁어슬렁 기여가며 능청스럽게 말했다.
《하하하, 참 아바이두!》

세철은 혼자 웃다가 부리나케 모래밭을 기였다.

밤은 그리스도교도들에게 있어서 안식의 시간이다. 낮동안에 저지른 사기와 협잡과 강탈과 살인에 대해 참회를 하는 저녁기도를 드리고나면 그들은 삽시간에 순진한 양이 되여 하느님 문전에서 조용히 잠을 잘수 있다. 이 시각에 설사 그들이 하느님자신을 강간하는 일이 있다해도 하느님은 너그럽게 눈을 감아주는것이다. 그들에게 있어 밤은 하느님이 내린 가장 자비로운 은총이였다.

한여름 기나긴 낮을 비지땀을 흘리며 포를 쏴대던 그리스도교도들은 초연과 피로 어지러워진 손을 깨끗이 씻고 저녁기도를 올리기 시작하였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이시여, 오늘 하루를 또다시 이 불쌍하고 가련한 양을 돌봐주시옵고 마귀들의 탄알로부터 목숨을 보존케 하여주시였으니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래일도 또한 이 불쌍한것을 살려주시옵고 빨갱이마귀들에게는 아무쪼록 멸망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느님아버지시여!…》

금강상공에는 또다시 초생달이 비끼고 또다시 야간폭격기가 조명탄을 매달았으며 포진지에서도 조명탄을 쏘아올렸다. 이따금 대안의 경계진지에서 아직 잠자지 않고있다는 신호인양 단속적인 사격을 하였으나 낮동안의 그 끓어번지고 불타오르던 광란은 숨을 죽인듯 잠잠해졌다.

그러나 조선인민들은 이러한 밤에 인류력사를 야만시대로 되돌리려는 그리스도교도들의 책동을 분쇄하고 새시대에로의 넓은 길을 개척하기로 결심하였다.

1950년 7월 15일 21시 40분 사포군 지휘소에서는 《워싱톤》, 《뉴욕》 등 이미 설정해놓은 구역들을 향하여 일제히 대집중포사격을 퍼부을것을 명령하였다. 군단포와 사단포, 곡사포와 평사포, 구포들이 한꺼번에 포문을 열었다. 종일 숨을 죽이고 분노를 참아오던 포구로부터 류탄이 급속련발로 날아갔다.

쿵쿵쿵쿵—쉭—쉭—쉭—쉭—피유—피유—

쾅쾅쾅—짜르릉 쾅—쿵쿵쿵쿵—

쉭—쉭—쉭—쉭—쾅—쾅—짜르릉 쉬—쾅 쉬—쾅—쉬—쾅—

섬광이 번뜩이였다. 땅속에서 우뢰가 울고 번개가 뻗쳐올랐다. 와—와—와—

이렇게 20분간을 계속된 포사격이 미처 끝나기도전에 피유—

피유— 날아다니는 파편의 메아리를 들으면서 중기를 올려논 마상이며 자그마한 뗴목이며 기타 신변기재들을 앞세우고 보병들이 도하장을 떠났다. 물은 허리까지 찼다. 파편이 윙윙 소리를 지르며 허공을 날아다닌다. 강변을 떠나서 불과 50메터도 못갔는데 상공에 조명탄이 매달렸다. 포사격에 질겁하여 꽁무니를 뺐던 적기들이 다시금 헤살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대안의 제방에서 찍— 하고 시뻘건 예광탄이 직선탄도를 그으며 뻗어나왔다.

따르륵 따르륵! 뚜루룩 뚜루룩 따따따따따—

불줄기를 뿜는 화점은 얼핏 보기에도 30개가 넘었다.

검은 수면에 밀림처럼 물기둥이 솟아올랐다. 머리를 움츠릴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 없는 강속이였다. 도도한 흐름은 아래도리를 휘감고 아래로만 잡아끌었다.

《동무들, 멈추지 말라! 앞으로!》

누군가가 웨친다. 어둠속에 늘어선 도하서렬은 이따금 뭉청뭉청 동강이 났다.

이때 모래사장에 설치된 포병감시소에서는 젊은 중대장이 쌍안경을 들여다보며 제원을 수정하고있었다.

《이깔나무1, 좌로 002, 거리 280, 포주의, 쏫!》

옆에서 전화수가 받아 외운다. 《포 주의 쏫!》

철갑탄이 련발로 날아갔다. 적의 화점들이 하나 둘 침묵한다. 다시 도하서렬이 속도를 높인다. 적의 보총과 경기가 짖어댄다. 도하기재우에서 아군의 중기가 불을 토한다. 어느 방향에서든지 적의 포탄이 날아오고 비행기가 하늘에서 미친듯이 선회하다가 마침내 조명탄 불광아래 내려와서 포탄을 마구 쏟아놓는다.

쾅—따르륵 따따따, 쾅—파르릉 피유, 휘유—픽—파르릉.

모래사장의 포진지에서는 여전히 중대장이 웨치고있다.

《이깔나무 1, 2, 3, 포주의, 련발로 쏫! 쏫! 쏫!》

물기둥이 솟아오르고 파도가 친다. 넘칠듯이 흐르던 강물은 팥죽가마처럼 끓어번진다.

따르륵 따따따 따따따 따르륵—따르륵.

와—와—와—와—

와—와—와—와—

무슨 소린지 알아들을수도 없는 웨침소리가 엇갈리는 적아의 포성사이로 들려온다.

세철은 마침내 대안 자갈밭에 올라섰다. 돌아보니 전우들은 태반이 아직 강속에 있었고 이미 건너온 사람은 얼마가 못되였다. 중기를 실은 떼목이 다가왔다.

소대장이 자동총을 한손에 틀어쥐고 자갈밭으로 뛰여올랐다. 적들은 아직도 저희들의 코밑에는 주의를 돌리지 않고있었다. 이미 강을 건너온 소군부대를 주력과 분리시키기 위하여 적의 화력은 여전히 강심에 쏠리고있었다.

소대장은 전사들을 제방턱밑에 집결시키고 중기의 이동을 재촉하였다.

《동무들, 우리가 이 강안의 적진지를 소멸해야겠소. 공격목표는 저 다리아래쪽 경계진지, 소대 돌격준비, 앞으로!》

중기가 불을 뿜었다. 전사들은 수류탄을 뽑아들고 달렸다.

《만세—》

《만세—》

《마—ㄴ—세—에—》

세철은 제방으로 치달아오르다가 허망으로 뚫린 도랑창에 풍덩 빠졌다. 허리를 무엇엔가 단단히 찧고 벌떡 일어나보니 제방 후면으로 통한 교통호였다.

세철은 교통호를 따라 달렸다. 문득 장승같은것이 마주 달려왔다. 그놈은 우뚝 멈추어서더니 《후? 후유?》하고 소리쳤다. 무척도 낯익은 목소리다. 뜻은 몰라도 그것이 골드빈과 같은 목소리임을 세철은 직감하였다. 정말 네놈이 여기 있었구나!

《개자식!》

세철은 다리를 앞으로 내디디며 힘껏 두팔을 뻗쳤다. 뜨끈한것이 확하고 풍겨오더니

《아—아—으—윽》

하는 비명이 들려왔다. 세철은 그놈을 뛰여넘어갔다. 화점이 나타났다.

높뛰던 가슴은 갑자기 안정되였다. 불을 뿜는 중기가 있다. 엠원을 든놈들이 강안을 사격하고있었다.

《이놈들아, 받아라!》

수류탄 세개를 한꺼번에 굴려넣었다. 쾅— 불기둥이 치솟고 흙사태가 태질을 하듯 덮쳐들었다. 다리 가까이 갔을 때 불시에 사태처럼 전우들이 쓸어왔다. 련대주력이 이미 기슭에 이른것이였다. 린접련대도 강을 극복했고 동남방향에서 도하를 시작한 부대쪽에서도 신호탄이 올랐다.

세철은 중대를 잃고 한참 아래우로 달리다가 련대가 대도로방향으로 공격을 개시했을 때에야 자기앞을 지나가는 문기수를 만났다. 기수는 목에 감긴 흰붕대로 세철을 먼저 알아보고 소리쳤다.

《자네 어딜 돌아다니나? 어서 들어서게！》

《이게 어디로 가는 판인가？》

《대전으로 가는 판이지.》

련대는 공격성과를 대도로변으로 확대하여 일거에 태평리—대전간 대도로를 차단하였다. 린접련대들도 정면과 동남으로 대도로를 차단하였다. 이리하여 적은 발산리와 명암리일대의 전차집결처와 포진지속에 포위되였다.

3중대는 전진과정에 점령한 무명고지에서 련대장의 명령을 접수하였다.

《무명고지를 확보하라. 련대 총공격시간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적의 반돌격을 격퇴하고 진지를 사수하라. 공격신호는 정각 19시 청색신호탄 세발, 지금 린접부대가 동무들을 지원하려 전투를 계속하면서 공격중이다. 평촌리계선에 린접이 나타나면 협동하여 돌격으로 이전하라！》

하나의 이름없는 고지에서 전투의 전반적인 국면을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명령은 련대의 모든 지혜가 결정된것이다.

전사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벌써 동이 터오고있었다. 그런데 저녁 7시까지 이 절해고도와 같은 고지를 단독으로 지켜낼수 있을것인가? 무엇보다도 홍수와 같이 밀려오던 련대주력이 감쪽같이 어둠속에 사라지고만것이 이상하였다. 그러나 어쨌든 련대는 어딘가 승리를 위하여 가장 요긴한 지점에서 지금 명령을 보내고있을것이다.

《무명고지를 확보하라！… 진지를 사수하라！》

세철은 깊숙이 전호를 팠다. 그리고 린접한 전호와의 사이에 교통호를 팠다. 거의 참호가 형성되여갈무렵이였다. 희뜩희뜩 어둠이 벗겨지기 시작한 골짜기를 타고 와르릉와르릉 지동치는 소리가 나더니 6대의 초록색 메돼지같은것이 달려왔다.

《밤나무 2에 승냥이 여섯！》

감시병의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다. 류경환과 함께 방어대책을 토의하고있던 중대장 리택호가 한손에 지도를 움켜쥐고 갓 설비한 엄페부에서 달려나왔다.

《어디 어디？》

감시병이 가리킬 사이도 없이 별로 날카로운 전차포사격소리가 꽝— 하고 울렸다.

중대장은 군관학교시절부터 《하마》, 《하마》하고 불리우던 앞으로 툭 삐여져나온 주걱턱을 슬슬 매만지며 말했다.

《이거 안되겠군. 여보 류동무, 저놈들한테 어떻게 종일 볶이우겠소?》

《류동무도 딱하외다.》

류경환은 하품을 하며 기지개를 켰다.

《허허허, 여보, 그러지말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봅시다.》

《대책이라야 뾰족할게 있습니까? 좌우간 한바탕 겪어보고나서 내가 당원들의 의견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부탁한다니까. 글쎄 이판에… 가만, 우리 엄페호로 돌아갑시다. 저 자식들이 암만 봐야 중대장도 알아볼것 같지 않군. 여보, 그쪽 동무들은 엄페부로 가기오.》

전호설비를 미처 못끝낸 동무들이 중대장을 따라 엄페부로 사라지자 문기수가 아직 얕은 교통호를 살살 기여서 세철에게로 다가왔다. 그렇게 다가온것은 문기수만이 아니였다. 세철의 전호는 벼랑턱이여서 위치도 좋았지만 그중 깊이 파졌다.

《여보게, 자네 보나? 저게 미국땅크라는거야.》

세철은 전호벽에 등을 기대고 돌아앉았다가 기수의 말을 듣고 새삼스럽게 고개를 내밀어보았다.

《그런데 어쨌단말인가?》

《형편없이 초라하거던. 우리 땅크보다 갑삭하고 작지 않어? 까불기만 하지 별수없군. 미국미국하길래 난 대단한줄 알았지.》

《하긴 그렇군. 우리 땅크보다 못해.》

《그놈들 신수가 궁하게 됐는걸. 엠원이라는건 무겁기만 하지, 카빙이라는건 우리 아들놈 장난감같더군. 그러게 내가 뭐라든가?》

기수는 심술이 나서 입을 이기적거리며 미국놈의 변변치 못한 점을 렬거하였다. 사실 이때 태평리일대의 미국놈들은 그가 동정할 정도이상으로 신수가 궁해있었다. 사면으로 죄여드는 포위망에서 벗어나려고 그중 약한 무명고지방향으로 공세를 취한 놈들은 전차포의 사격이 미처 끝나기도전에 보병들을 돌격에로 내몰았다.

꽝—꽝—꽝— 전차들은 여전히 포사격을 계속하였다.

전사들은 전호바닥에 허리를 깊숙이 구부리고 앉아서 그들의 동

정을 바라볼수밖에 없었다.

《여보게.》

기수는 손바닥을 오그려붙여 세철의 귀전에 대고 소리쳤다.

《이 판에 분대장이 보이지 않는것이 섭섭하군.》

《글쎄말이야. 상처가 아물기나 했는지…》

세철의 말을 미처 못들은 기수는 또다시 소리쳤다.

《분대장동무가 없어서 섭섭하단말이야!》

그런데 엄페호에서 와르르 동무들이 쓸어나왔다.

《전투준비!》

구령소리를 듣고 흉장앞을 내다본 기수는 입을 쩍 벌리고 중얼거렸다.

《저게 뭐야?》

고지라고 하지만 가파로운 언덕정도밖에 안되는 아래쪽 기슭에서 소방대물총같은것을 쳐든 놈이 앞장서고 그뒤로 새까맣게 산병선이 밀려왔다. 그 소방대 물총같은것은 물이 아니라 시뻘건 불줄기를 뿜으며 자작나무덤불과 풀밭을 불사르면서 우로우로 올라왔다.

《화염방사기다.》

《흥, 별놈의걸 다 가지고왔군.》

문기수는 더욱 심술이 나서 불평을 말하더니 자기 전호로 돌아갔다.

세철은 총구를 흉장앞으로 내대고 왼편 릉선으로 엇비스듬히 올라오는 적의 산병선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벌써 첫전투때같은 심한 가슴의 고동소리는 들을수 없었다. 어쨌든 저놈들은 미국놈들이다. —이런 생각이 그의 머리속에 하나 가득 들어찼다. 그외의 다른 생각은 감히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자기 전호가 그놈들과 정면이 아니라 한옆으로 비켜서있는것이 섭섭하다면 섭섭하였다. 화염방사기는 띠염띠염 선 나무를 불사르고 퍼런 칡넝쿨과 억새풀들을 불태웠다. 릉선에는 불이 붙고 총알은 아츠러운 소리를 지르며 바위를 파헤치고 잔디를 물어뜯었다.

《경칠놈들! 가뜩이나 더워죽겠는데…》

세철은 부지중 이렇게 중얼거리며 화염방사기 멘놈을 겨누었다. 아닌게아니라 몹시 더웠다. 군복이 등에 착 달라붙어서 팔다리를 마음대로 놀릴수 없었다.

화염방사기수의 등이 한옆으로 바라보였다. 둥그런 구명대같은것이 조척속에 들어왔다. 방아쇠를 당기려던 세철은 문득 《중심하부》하는 생각이 나서 조준을 다시 하였다. 아군 방어계선과 거

의 50메터나 가까이 다가섰을 때 슬그머니 방아쇠를 당겼다. 순간 확하고 불기둥이 솟았다. 연유탕크가 터지자 그것을 메고오던놈은 불기둥에 휩싸여 형체를 감추고말았다.

아군 참호와 전호 그리고 중기화점들에서 사격을 퍼부었다. 적들은 좌익릉선에서 거의 정점 가까이까지 기여올랐으나 그쪽을 방어하던 3소대에서 과감한 반돌격으로 맞받아나가자 쫓겨가고말았다.

해가 높이 솟아올랐다. 무명고지아래 서북방향으로 금강에서 흘러내린 시내가 지나갔다. 그 기슭에 울창한 느티나무숲이 있고 그 숲에 둘러싸여 농촌부락이 있었다. 부락 뒤쪽기슭으로 올라가면서 미군의 야전콘셋트가 띠염띠염 보이였다.

전사들은 밀려가는 어둠속에 눈총기를 모으고 도대체 자기들이 어느 모퉁이에 서있는지 알아보려고 제마끔 고개를 뽑아돌렸다. 그러자 누군가의 입에서 《야—》하는 환성이 올랐다.

《저것 보게— 저것!》

그 전사가 가리키는 고지의 서북방향에 태평리—대전간도로가 지나갔는데 이제는 한결 엷어진 새벽 어스름속에 꼭 물이 다 찐 여름철 개울바닥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무엇인가 몰켜서 오글오글 끓는데 아직은 올챙이떼처럼 끓어번지는 그것들의 형체가 뚜렷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적이라는것이 명백하였다.

《자동차다. 그리고 전차도 있다. 히야—좌우간 굉장히 많군.》

《아니 저걸 다 잡으면 우리도 하나씩 차례지겠군.》

《저게면 차례지고도 남겠는데… 그런데 동무가 운전할줄 알아?》

《좌우간 굉장히 많군.》

전사들이 감탄에 섞어 이런 롱담을 주고받을 때 다시 중대장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한그물 가득 든 고기를 보고 기쁨에 허둥거리는 어부모양 안절부절 못하던 택호가 헤덤비며 송수화기를 틀어쥐였다. 학민의 침착한 목소리가 울려왔다.

《적들은 장대리,명암리,발산리일대에 압축되였소. 자루목은 동무들이 쥐고있소. 한놈도 못빠져나가게… 알겠소?》

도중에 잡음이 들어와서 몇마디 놓쳐버렸으나 택호는 다시 물을 생각도 않고 소리쳤다.

《련대장동지,고맙습니다. 정말…》

《뭐요? 정신차리오. 동무네 바로 뒤가 적의 지휘부요. 이제 린접이 평촌리부근에 나타나면 그때는 동무들의 차례요. 그때까

지 꽤 견딜만하오?》

《정말 나는… 저, 련대장동지, 몸조심하십시오.》

《나는 념려마오. 대원들을 아끼고 쓸데없는 모험을 하지 마오. 동무들은 그저 자루목을 든든히 틀어쥐고있으면 되오. 알겠소? 이것이 결코 헐한 일이 아니라는것을 명심하오. 잡도리를 든든히 하란말이요.》

통화가 끝나고도 택호는 한동안 아쉬운 심정으로 송수화기를 쥐고있었다. 얼마나 멋이 있는가? 이렇게 감쪽같이 몰아넣다니… 택호의 눈앞에는 지금쯤 감시소에서 대전부근 지도를 펼쳐놓고 벌써 대전시가전을 준비하고있을 젊은 련대장의 시원하면서도 반석같은 모습이 떠오르는것이였다.

그제야 전사들에게도 어느 정도 정황이 명료해졌다. 중대는 련대의 최전방 유성면 지경에 쐐기처럼 깊숙이 돌입하여 적들이 전차와 포들을 집결시킨 화력진지의 퇴로를 차단하고있는것이였다. 이것은 리택호가 기뻐서 어찌할줄 모를만큼 신나는 전투정황인것은 틀림없었다. 그러나 따지고보면 기뻐날뛰기만 할 정황은 결코 아니였다. 어쨌든 대도로주변에서 올챙이처럼 오글거리는것들이 일단은 대전으로 빠져나가려고 발악할것이 틀림없기때문이였다. 그런데 훨씬 남쪽 적의 련대지휘부가 있는 안산리부근에서 요란한 폭발소리가 들려왔다. 혼전속에 놓인 무명고지에서는 알아볼 방도도 없었지만 그것은 적후로 뚫고들어간 정찰병들이 안산리일대의 적포진지를 습격한것이였다. 한편 련대주력은 3중대가 퇴로를 차단하고있는 명암리, 발산리구역으로 적의 주력을 압축하고있었다.

《동무들, 대전이 50리밖에 있소. 참호를 튼튼히 꾸리기요. 이놈들을 여기서 단단히 조겨놓으면 우린 정보로 대전에 입성할수 있소.》

중대장 리택호는 턱을 앞으로 쑥 내밀고 석쉼하게 쉰 목소리로 전사들에게 웨쳤다. 그는 평소에도 조용히 말하는 법이 없었다. 그 툭 삐여진 주걱턱(그 턱때문에 그는 《하마》라는 별명과 함께 흔히 리턱호라고 불리우기도 하였다.)에 수염이라도 꺼칠해지는 날이면 그를 25살의 총각으로 볼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기때문에 평소에도 《리턱호》라든가 《하마》라든가 하는 별명은 무서운 사람이라는 뜻으로도 리해됐던것이지만 이런 싸움판에 내다놓고보니 타고난 싸움군이라는것이 완연하여 그 별명들이 더 감칠맛이 있었다.

그런데 택호가 엄중한 처지에 놓인 자기 중대를 두고도 만판 큰소리를 치고 돌아가는것은 타고난 그의 성미탓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비위

에 영 맞지 않는 문화부중대장 류경환의 《두루춘풍》이 여전히 두루춘풍으로 남아있기때문이기도 하였다. 그는 류경환이 어슬렁어슬렁하고 꾸물거리면 입으로 그냥 두덜거리며 무슨 앙갚음처럼 바삐 돌아쳤지만 어쩌다가 류경환이 바빠 돌아치기 시작하면 그는 그만 맥을 놓고 풀썩 주저앉아버리기가 쉬웠다. 그러나 류경환이 태평으로 앉아있는 동안까지는 어지간히 큰소리를 쳐도 별 랑패가 없다는것을 알고있었다.

지금 류경환은 당원들을 엄폐부로 불러들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니 무슨 변통수가 생겨날것은 틀림없었다. 이렇게 생각한 리택호는 릉선으로부터 교예단 오토바이처럼 투덜투덜 소리를 치며 돌아다녔다.

《이게 뭐요? 와짝 깊이 파란말요. 머리가 푹 잠기게…》

《자, 이건 또 뭐요? 저앞의 소나무를 쳐버리시오. 앞이 보여야 쏠것 아니요?》

《괜찮군. 보총수들이 자기 사격호를 이쯤 설비할줄 알아야 한다니까. 아주 장의자에 앉은것 같군. 동무 이름이 뭐더라? 가준이라고 했지? 원 이름도 야단스럽게 지었군. 몇달째 외워도 못외우겠다니까. …》

얼마후 엄폐부에서는 류경환의 사회하에 당회의가 진행되였다. 참호작업을 하다가 달려온 13명의 당원들이 림시로 설비한 조잡한 엄페부벽에 기대앉았다. 그늘이라고는 말뿐이고 삼복더위에 땀배인 체온이 숨가쁘도록 차올랐다. 리택호가 달려오더니 좌중을 돌아볼새도 없이 《미안합니다.》하고 류경환의 곁으로 빠져나갔다. 에헴에헴 기침소리들이 한동안 계속되다가 이윽고 잠잠해졌다.

《당원동무들, 회의를 시작합시다. 림시집행부를 어떻게 구성하겠는지 의견을 말하시오.》

류경환이 그 느릿느릿한 어조로 개회를 선언하자 택호는 벌레라도 기여든것모양 한쪽 어깨를 으쓱거리며 고개를 내저었다. 대체로 그에게는 크게 치나 작게 치나 똑같이 울리는 망가진 종과 같은 류경환의 그런 늘어진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당회의니 어떻게 시비를 걸수도 없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후 뒤쪽에서 한 동무가 손을 들었다. 류경환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 손을 든 동무가 이 엄숙한 판에 과연 그럴듯한 의견을 내놓겠는지 어떻겠는지 따져라도 보듯이 한참이나 눈여겨 바라보다가 《방천석동무, 말하시오.》하고는 자기 수첩에다 무엇인가 적어넣었다.

방천석이 한참 갑자르더니

《사회의 복안을 내놓는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택호는 저도모르게 외면을 하였다. 이때 또다시 산릉선을 문질러대는 적 전차포의 사격소리가 들려왔다. 엄개가 흔들흔들하고 벽에서 주르륵 흙사태가 부스러져내렸다. 무엇인가 우지끈하고 넘어지는 소리도 난다.

《사회의 복안을 내놓으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류경환의 지나치게 침착한 목소리에 약이 오른 택호는 《없습니다.》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경환은 중대장의 안색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엇인가 수첩에 적어넣더니 장내를 살펴보았다. 다른 의견이 없다는것을 꼼꼼히 확인하자 비로소 입을 열었다.

《그럼 제 복안을 발표하겠습니다. 림시집행부는 3명으로 구성하되 3소대 전사 박문진동무 중대장…》

류경환은 여기서 리택호가 과연 림시집행부 성원으로 선거될 자격이 있는지 다시한번 검토해보듯 택호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택호는 부지중 주걱턱을 떨구고 자라목처럼 고개를 움츠렸다.

《…리택호동무 그리고 나, 이렇게 세사람으로 구성하자는 의견입니다. 반대 없습니까?》

장내는 잠잠하다. 오직 적전차의 사격소리만 지동치듯 울려왔다.

《찬성하는 동무들은 거수하십시오.》

모두 손을 들었다.

이때 세철은 처음 한동안 거의 중대장 택호와 같은 심정에 사로잡혀있었다. 당회의가 엄숙하게 진행돼야 한다는것은 알지만 적이 고지를 집어삼킬듯이 접어드는 이 가렬한 전투마당에서조차 이렇게 깐깐히 회순을 따지며 격식을 차릴줄은 몰랐다. 그러나 한참 시간이 지나고 의안이 통과될무렵에는 그의 마음은 어느덧 광산 막장이나 구락부에서 당회의에 참가했을 때와 똑같은 안정된 기분상태로 돌아갔다. 중대장 리택호 역시 림시집행부 성원으로 자리를 옮겨앉자 매번 처음에는 초조해 덤비다가 종당에는 경환의 헤아릴수 없이 큰 당적영향력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는 그 엄숙한 분위기에 다시금 휩싸이고말았지만 세철이에게는 가렬처절한 화선에서의 당회의가 처음이였던만큼 그 감동은 더 컸다.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반석처럼 드놀지 않는 불패의 당이 있다.》 이런 웨침소리가 거의 입밖까지 새여나오려 했

다. 세철은 뒤늦게야 군복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여 깐깐히 회의경과를 기록하면서 한마디 빠칠세라 모든 발언에 귀를 기울이고 집행부성원들의 안색을 살폈다.

류경환은 자기 수첩을 펼치더니 더듬더듬 보고를 시작하였다.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지난번 협의회이래 우리 중대 당원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사업을 옳게 수행했습니다. 금강 강행도하에서 당원 박문진동무는 용감하게 전사들의 선두에서 적의 화점을 까부심으로써 전투승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당원 리택호동무는 령활하게 중대를 지휘하여 불의적인 정황을 능숙하게 처리했습니다. 특히 신입대원인 당원 박세철동무는 수향산전투에서 공훈을 세우고도 한편으로 무기를 버리는것과 같은 과오를 범했다면 이번에는 로동당원답게 침착히 자기 전투과업을 완수했습니다. 이 동무는 작은 교통호에서 불의에 적과 조우했어도 당황함이 없이 총창으로 찔러눕히고 계속 놈들의 화력진지에 수류탄을 집어넣어 그를 소멸했습니다.》

세철은 징— 하고 목이 메여올랐다. 첩첩한 어둠속 작렬하는 포화속에 종횡으로 내달리는 착종된 혼전가운데에서도 자기의 이름없는 한 아들의 행동을 남김없이 꿰뚫어보고 적시에 그 자그마한 공적을 평가해주는 어머니당—진실로 누가 당을 어머니라고 불렀다면 이때의 세철의 심정처럼 그 감정을 그렇게도 참답게 체험한 사람은 없었을것이다. 세철은 어릴 때부터 남의 칭찬도 많이 들었고 표창도 한두번만 아니게 받아왔다. 그러나 어머니가 장농속에 소중히 간직하고있는 금박테두리 번쩍거리는 그 표창장들이 아무리 으리으리하다 해도 여기 포성이 작렬하는 이 흔들리는 엄페부속에서 얼핏 스치고 지나간 당회의보고자의 말 한마디보다 더 귀중할수는 없었다. 이것은 적어도 우리 조국과 우리 혁명의 생사를 결정하는 판가리 싸움에서 그가 당원답게 싸우고있다는 첫평가가 아닌가? 더구나 세철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것은 당이 가렬처절한 싸움의 최첨단에서 그것을 평가했다는 그 점이였다. 당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서 그의 일거일동을 빠짐없이 지켜보고 그의 마음속 깊이에까지 침투해오는가? 세철은 류경환의 손에 쥐여져있는 신문지로 겉뚜껑을 덧씌운 보풀인 수첩을 새삼스럽게 바라보았다. 저기엔 자기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자기가 평상과 닭장을 만들어놓은 뽕나무선 하시원리의 집에 대해서, 거기서 주야로 자기 소식을 기다리고있을 다리 저는 어머니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리가 누구에 의해 그렇게 됐다는

것들에 대해서 빠짐없이 적혀있을것이다. 어찌 그뿐이랴. 할아버지에 대해,아버지에 대해,형님에 대해 그리고 배낭속에 든 이미 날이 무디여진 한자루 식탁칼에 대해서까지 기록되여 있을지 모른다. 동시에 자기의 과오와 사소한 결함에 이르기까지 낱낱이 적혀있을것이다. 당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가는곳 산이든 들이든 깊은 물속이든 그 어디서나 당은 나의 량심을 뻗치고 나의 심장을 불태우며 영광에 빛나는 저 앞 높은 령마루에서 나를 부를것이다. 조선인민이 가는곳 그 어디서나 당은 승리를 조직하고 앞길을 가리킬것이다.

류경환의 보고는 계속되였다.

《…이와 같은 초보적인 성과가 있는 반면에 결함도 적지 않습니다. 아직 민청원들에 대한 교양을 차요시하여 당에서 준 규약학습을 시킬데 대한 분공을 전투를 핑게대고 실행하지 않고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차응필동무는 전투소보원으로서 자기사업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결과 전의부근에서 만든 속보를 아직 들고다니며…》

보고가 마지막대목에 가까와지자 중대장 리택호는 다시금 주걱턱을 내젓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엄숙한 회의분위기에 눌려 가까스로 참고있는데 아니나다를가 류경환은 목전사태를 어떻게 하리라는 말은 한마디도 비치지 않고 당원들의 조직생활상과업만 제시하고는 보고를 끝내버렸다. 부득불 리택호는 일어나서 첫토론을 하게 되였는데 지나치게 흥분하다보니 토론이 아니라 말마디마다 구호처럼 토막쳐서 고래고래 웨쳤을뿐이였다. 천신만고해서 련대로부터의 통신내용과 지금 중대가 처한 정황은 설명하였으나 결국 그자신도 대책에 이르러서는 이렇다할 의견을 내놓을수 없었다. 사실을 말하면 그자신이 어떻게 해야 이 난국을 타개하겠는지 신통한 수가 생각나지 않았던것이다.

그러나 택호의 마음을 그렇게도 안달게 만든 그 필요한 대책은 당원들이 자기의 조직생활상 결함을 극복하기 위한 토론가운데서 자연스레 제기되였다.

당원 박문진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신임에 보답하지 못했다고 심심히 자기비판하면서 자기에게 적 전차를 파괴할 임무를 달라고 말하였다. 문기수는 자기가 남보다 말은 많이 하였으나 전투에 부닥치면 매번 뒤꼬리를 따랐다고 하면서 저 역시 전차파괴조에 나서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류경환은 결론에서 자기를 조장으로 하는 7명의 전차파괴조를 조직할것을 총회앞에 제기하였다. 그의 결론에 따라 총회결정서

가 채택되였다.

두번째 적의 반돌격을 격퇴하였을 때 전차파괴조는 두패로 나뉘여 한조는 류경환의 인솔하에 산릉선을 타고 적전차 집결처를 찾아 동네쪽으로 내려갔다. 나머지 한조는 고지를 사격하러 오는놈들의 통로에 매복하였다.

세철은 패주하는 적들을 추격하여 정신없이 릉선을 내리달리다가 문득 전차의 무한궤도자국을 발견하였다. 그놈들이 여기까지 오는것이다. 세철은 짓이겨진채로 그래도 하늘을 향해 머리를 쳐든 한그루 다박솔포기뒤에 몸을 감추었다. 그리고는 이미 닳아서 새하얀 강철빛이 눈부시게 반짝이는 보병삽을 뽑아들었다. 그 옛날 광산의 수굴군들이 삼태기와 손괭이 하나로 파내군하던 장약구만하게 좁다란 구멍을 팠다. 가까스로 몸 하나 들어가게 파는것이지만 곧 전차가 기여나올것을 생각하니 여간 초조하지가 않았다. 그러나 세철은 방금 포사격속에서 진행된 당회의 분위기를 상기하였다.

《나는 당원이다. 덤비지 말자!》

《내가 왜 덤벼? 제놈들 보고 덤비라지.…》

이렇게 중얼거리며 부지런히 삽질을 하였다.

가까스로 구뎅이속에 옹크리고 앉아 위장을 하는 참인데 와르릉 와르릉 발동소리가 들려왔다. 세철은 한데 묶은 반전차수류탄 세개를 움켜쥐고 앞을 노려보았다. 적 전차는 까맣게 보병들을 뒤떨구어놓고 맹렬한 기세로 전진해왔다. 선두전차는 곧장 세철을 향해 밋밋하게 경사진 땅을 물어뜯으며 질주해왔다. 두번째놈부터는 도중에서 방향을 꺾어 고지 정점으로 포신을 돌려댔다. 지금 그 방향에는 문기수가 엎드려있다. 세철은 몸이 흔들흔들하도록 마구달려오는 전차의 시창을 노려보다가 저놈이 혹 나를 발견한것이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새삼스럽게 위장상태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쓰러진 다박솔을 리용하여 풀과 나무가지를 교묘하게 엇갈아놓았기때문에 수직으로 빵 뚫린 이러한 매복호를 발견할수는 도저히 없을것이라고 푹 마음을 놓았다.

시창이 똑똑히 보이고 포신이 금시 머리를 칠것 같다. 그러자 삽시간에 20메터거리에까지 박근되였다. 집어던질가 하다가 에라, 좀 참자하고 기다렸다. 어찌나 소리가 요란하고 진동이 심한지 절로 눈이 딱 감긴다. 그래도 당원이 적을 앞에 두고 눈을 감을수야 있는가 해서 억지로 눈을 부릅뜨자 벌써 코앞에 시꺼먼것이 닥

쳐왔다. 수류탄묶음을 들고 허리를 솟구려는 순간 그놈이 무엇에 걸채였는지 흠칠하고 몸을 떨었다. 그 서슬에 잠시 주저하는 사이 와릉와릉하는것이 덮쳐들더니 머리우로 굉장히 큰 바위같은것이 지나갔다. 세철은 언제 허리를 꺾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되여 전차가 자기 머리우를 지나갔는지 도무지 리해할수 없었다. 한참 떨떨해있다가 전신에 뒤집어쓴 흙먼지속에서 머리를 뽑자 전차는 5～6메터앞으로 지나가서 정거를 하였다. 적보병들이 까맣게 쓸어온다. 꽝—꽝—꽝—꽝— 뒤꽁무니를 들썩들썩하며 전차는 포탄을 갈겨댔다. 저쪽에서는 언제 누가 깠는지 세번째 전차가 무한궤도를 척 늘어뜨렸는데 그래도 포신을 가로 돌려대고 사격을 퍼붓고있었다.

세철은 골이 멩해서 자기가 무엇하러 여기 앉아있는지 잠시 잊어버렸다. 문득 한밤중에 보패네 집문전에서 어물거리다가 보패 어머니에게 혼이 나던 생각이 났다. 꽝—꽝— 하고 포사격소리가 났다. 무한궤도가 늘어진 세번째 전차 언저리에 살살 기여가는 기수의 모습이 보인다.

꽝! 꽝! 꽝!

세철은 고개를 마구 흔들었다. 그러자 머리속까지 자욱한것 같던 흙먼지가 비로소 말끔히 개여올랐다.

《자 이것봐라, 하마트면 또 실수할번했군.》

그는 황급히 반전차수류탄을 찾았다. 한손에 단단히 움켜쥐인채 제가슴에 꼭 안겨있는 수류탄묶음을 발견하자 비로소 마음을 놓고 천천히 매복호에서 기여나왔다. 적 보병들이 꽤 가까이 다가왔으나 세철은 돌아보지도 않고 들썩들썩하는 전차의 꽁무니로 접근해갔다. 육중한 장갑배때기밑으로 들어가니 확확하고 열기를 내뿜는데 그놈이 들썩하고 솟았다가 털썩 떨어질 때는 영낙없이 편포처럼 납작해질것만 같아 골이 찌프러졌다. 신관을 뽑아놓고 얼른 뒤로 빠져나와 매복호속에 들어가니 미군보병들이 코앞에 다가왔다.

《개자식들, 어딜!》

세철은 제꺽 보총을 내대고 마구 방아쇠를 당겼다. 몇놈이 거꾸러지자 산병선은 갑자기 멈추어섰는데 이때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육중한 전차가 통채로 벌떡 들고일어나더니 쾅하고 치솟는 산더미같은 불기둥속에 박산이 나서 흩어졌다. 세철이도 폭풍에 나가떨어졌다. 미국놈들의 산병선은 혼비백산해서 그대로 꽁무니를 돌려대고말았다.

7

작전, 전술 기타 전쟁수행과 관련된 군사과학의 한 구성부분을 군사예술이라고 부르는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창조적사색과 령감적인 판단을 요구한다. 즉 수백키로에 펼쳐진 전선과 복잡하게 뒤엉킨 국제 국내 정세의 움직임속에서 가장 본질적인 추세를 파악하고 그가 제기하고있는 기본요구를 제때에 포착하며 그 요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디서 어떤 힘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조직동원할것인가를 판단할줄 아는 명철한 두뇌와 만일 필요하다면 기적까지도 창조할줄 아는 완강한 의지를 포함한 고도로 창조적이고 령감적인 인간의 정신활동을 전제로 하기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은 이미 공인된 어떤 공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항상 비반복적으로 전개되는 부단히 변동하는 정세와 정황 속에서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데서 거창한 힘의 예비를 찾아내기도 하고 고도로 완성된 예술작품에서와 같이 이미 다 기울어진 전세를 하나의 소수부대의 적시적인 기동으로써 거꾸로 뒤집는것과 같은 기교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리하여 그것은 승리를 조직하는 부단한 창조이며 가장 장엄한 예술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전쟁을 계급사회의 산물로, 각이한 국가와 계급들이 폭력으로써 수행하는 정책의 연장으로 간주하는 로동계급의 군사사상은 이 부문에서 가장 자유롭고 무진장한 가능성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전쟁에 대한 유일하게 정당한 그러한 관점으로부터 인간을 전쟁수행에서 제1차적인 요인으로 간주하며 전쟁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본요인들을 인간의 힘에서 찾기때문이다.

1950년 7월 5일이후의 수일간 조선전쟁의 각 전선 특히 금강계선에는 획기적인 전변을 앞에 두고 미제침략군과 조선인민군부대사이에 혼전이 벌어지고있었다. 금강계선을 《불철퇴선》으로 선포한 미국놈들에게는 이미 금강이 돌파되였다는 사실은 치명적인것이였으나 그들의 당초의 목적이 대전의 고수에 있는것이 아니라 공화국전지역을 강점하고 중국대륙에까지 침략의 마수를 뻗치는데 있었기때문에 또다시 임의의 지점에서 전세를 만회하려는 망상적인 욕망을 포기할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맥아더와 워커의 강요 그리고 띤의 울음섞인 넉두리

에 의해서 미기갑1사는 18일 동해안 포항에 상륙을 시작했고 미25사는 영동계선으로 쓸어들고있었다. 한편 인민군대로서는 중부조선의 정치행정의 중심지이며 철도와 도로의 분기점인 군사요충 대전은 공화국 남반부 전지역을 해방하는데 반드시 디디고 오르지 않으면 안될 사닥다리의 한계단이였다. 더구나 단순한 지역의 점령이 아니라 거기에서 유생력량을 포위섬멸해야만 차후 남해안에서 벌어질 최후의 작전을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수행할수 있을것이였다.

공주대안에서 도하를 끝낸 부대들은 공주시를 해방하고 주미리 일대의 미군포진지를 섬멸한후 론산으로 육박하였으며 전차련합부대는 사단장의 직접적인 지휘하에 도하에 착수하였다. 세칠이네 전차파피조가 7대의 적전차를 소멸한 이후에도 발산리와 명암리일대에 압축된 적들은 여러 차례 반돌격을 계속하였으나 저녁6시 반경 평촌리 일대로 린접부대가 포위망을 압축함으로써 결정적인 공격으로 이전하여 태평리지역 미19보병련대의 주력을 몇개 지점에서 각개격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선의 서부좌익 련합부대들은 소백산맥에 걸려 대전 동남방전선은 개방된채로 있었다. 이대로 내민다면 미24사의 주력은 추풍령부근에서 증원중인 미기갑1사,25사와 합세하며 험한 자연장애를 의지삼아 더욱 견고한 방어선을 구축할것이다. 정황의 이러한 발전은 두말할것도 없이 정세를 간단히 예측할수 없을만큼 긴장시키고있는것이였다. 서방통신들은 한결같이 미군은 대전에서 결정적인 공격에로 이전할것이며 북조선군은 퇴각을 면치 못하리라는 판에 박은듯한 론설,기사,담화,성명들을 지면을 아끼지 않고 찍어냈다. 행정부의 고위급장군들은 야전사령관들에게 게거품을 물고 호통치는 한편 기자들에게 한사람같이 우리는 이미 퇴각을 멈추었다,우리는 또다시 서울작전을 구상중이다 하는따위 호언장담을 일삼았다. 전선과 후방에서 폭격은 더욱 우심해져서 16일날의 서울 폭격에서는 룡산에서만도 민가 1,520호를 파괴소각하였으며 평화적주민 2,200여명을 살상하였다.

평양도 평천리에 첫폭격을 겪었고 수일전에는 적기 수십대가 3차에 걸쳐 맹폭격을 감행한 결과 상흥리에서만도 주택 400여호가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적들의 이 모든 몸서리치는 만행에도 불구하고 수도시민들의 전투적사기는 앙양되였다. 화물자동차와 기차들은 청년들과 군수물자들을 만재하고 전선으로 떠나갔으며 차광막을 친 방공호와 반토굴 속에서는 전선원호물자를 만들고있었고 직장들은 밤을 밝히며 군수품생산을

다그치고있었다. 밤이 깊도록 전차는 종소리를 울리며 대통로를 질주하고 큰 청사들에서는 비록 사복이지만 전투적으로 차린 당,정권기관일군들이 싸움에 필요한,또는 싸움속에서도 결코 차요시할수 없는 문제들을 처리하기에 바빴다. 낮동안 삼굿속처럼 찌던 날씨가 점점 식어가면서 밤이슬과 같은 는개비가 소리도 없이 내리는 이러한 밤이였다.

싸우는 조선인민의 심장—조선로동당이 자리잡은 수도 평양은 속에서 끓어번지는 불덩어리같은 열정을 겹겹이 둘러친 어둠의 장막속에 깊숙이 감추고 소리없이 지새여가고있었다.

이러한 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께서는 만수대옆에 자리잡은 청사의 사무실에서 주런이 놓인 전화통가운데서 송수화기 하나를 들고계셨다. 바깥은 이미 괴괴한 정적속에 파묻혔고 서늘한 밤기운이 스며들었으나 선풍기가 돌아가는 넓은 방안은 마치 위대한 수령님의 가슴속에 타오르는 열정때문인듯 오히려 무더웠다. 하기는 더위가 녹아서 진득진득 달라붙는 복중이였다. 진중하고 소박한 방안분위기는 그이의 서느러운 안광을 받자 일순 조용하게 가라앉는듯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넓은 이마에 가느다란 땀발이 솟았으나 백회색 반군복을 단정히 입고 앉으시여 벽에 걸린 지도를 가끔 돌아보시며 수화기에서 울려오는 말을 주의깊이 듣고계셨다.

《그놈들이 21일경에는 거기에 와닿겠군.》

수화기의 말이 중단되자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약간 석쉼하면서도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간단하게 말씀하셨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 짧은 침묵사이에 그이의 머리속에 어떤 사상이 움텄는가를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통화의 상대방인 전선사령관 권혁은 방금 우에서 말한 전선형편을 반영했고 겸하여 지금 전선을 향해 기동중인 미25사와 기갑1사의 진격을 저지할 대책을 급속히 세워야하리라는것을 보고드렸던것이다. 사실은 전선사령부수중에 몇개의 예비대가 있다해도 그것을 비행기의 엄호하에 대도로를 타고 발달된 기동기재로 급히 북상중인 미국증원무력을 앞질러 대전 동남방에 출동시킬 방도가 있을수 없는것이였다. 만일 이와 같은 국면에서 그 어떤 힘을 동원하여 사태의 파국적인 진전에 새로운 추세를 부여할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적이며 예술이며 창조라 해야 할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이때 수령님의 짧은 침묵은 허다한 전쟁력사에 기록된 어떤 거대한 폭발적인 사변보다도 더 심각한 내용을 담고있었다. 그것은 모든 조선인민의 운명,조국의 존망과 관련된 최대한으로 압축되

고 정화된 심려의 순간이였다. 마침내 그이께서는 침묵을 깨치시였다.
《권혁동무, 론산계선에서 대전까지 은밀히 기동하려면 몇리나 됩니까?》
《산길로는 150리정도입니다.》
《산이 험할테지?》
《험합니다. 구봉산을 비롯해서 줄곧 산입니다.》
《좋습니다. 그놈들의 자동차를 따라잡을 힘은 조선인민의 애국심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항일무장투쟁시기 조국을 향해 수십만리를 걸어오는 과정에 하루 150리쯤 걸은 날도 있었겠지? 암! 허구많이 있었지요. 그러니 청주남쪽에서 전투하는 동무들을 기다릴것이 아니라 론산에 나간 동무들을 그쪽으로 우회시킵시다. 나는 우리 전사들의 애국주의를 믿습니다. 그러니 태평리쪽에서는 계속 전진 속도를 늦추지 말고 대전서북쪽을 맹렬히 타격하도록 하십시오. 지금 그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원인걸동무네 부대는 다 그쪽에 집중되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금강도하에서 좀 애를 먹었습니다만 그쪽 타격집단은 념려없습니다. 전학민동무가 잘 싸우고있습니다.》
《그렇지, 학민이가 잘 싸울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는 대전남쪽의 퇴로를 틀어막는것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대도로로 쓸어드는 미제의 증원무력을 앞질러나갈 힘을 다른데서 찾을수 없습니다. 우리는 조국보위에 떨쳐나선 우리 전사들의 높은 사상적각오를 믿고 그 힘에 의거해야 합니다. 18련대를 대담하게 우회기동시키시오. 그들은 아마 조국의 신임에 보답할것입니다.》
조선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도 자기들이 무엇때문에 졌는지 의아해하는 미국장군들이 많거니와 그들이 끝내 리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전지전능한 신》의 도움으로도 마침내 리해하지 못하고만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나는 우리 전사들의 애국주의를 믿습니다.》는 이 짧은 한마디 말씀속에 요약된 우리 인민의 거대한 정치도덕적힘이였다.
자본주의 일반적위기의 가일층의 심각화와 붕괴되는 식민지체계의 폭풍속에 첫우뢰로 터져오른 조선인민의 함성—지구우에 새시대가 왔다. 제국주의압박을 감수하면서 노예의 처지에 남아있을 인민은 더는 없다고 력사앞에 선언한 장엄한 조선인민의 조국해방전쟁에서 조선인민의 승리를 담보케 한 힘의 밑바닥에는 다름아닌 자기의 조국과 민주주의적권리를 가지고 자기의 로력으로 인간답게 살아가겠다는, 그러니 너희들은

간섭을 하지 말라는 극히 소박하고 인간적인 결의가 깔려있었던것이다. 그것이 불타올라서는 불멸의 영웅주의가 되고 그것이 얼어붙어서는 서리발찬 증오가 되고 그것이 나래쳐서는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가 되고 그것이 모여서는 슬기가 되고 그것이 빛나서는 세기적인 위훈이 되였다.

조선인민의 영명한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몸소 구현하신 천재적인 작전예술의 이 모범 또한 소박한 우리 전사들의 이러한 인간적인 힘을 믿으신데서 이루어졌던것이다. 미국놈들은 한때 있지도 않는 하느님을 인간보다 더 믿음으로써 어리석음을 나타냈다면 이번에는 인간보다 기계의 힘을 더 믿음으로써 광기를 나타내지 않을수 없었다. 그들의 그러한 광기는 급기야 참담한 패배로써 그들의 온갖 자본주의적고름투성이육신에 다소 혹독한 뜸질을 하였거니와 추후의 사건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그 병은 하도 고질이 돼서 몇천장 뜸을 뜨고도 종내 정신을 못차리고있다.

깊은 밤이였다. 야음을 타고 전파는 군단지휘부로, 론산으로, 태평리로 날아갔다. 이리하여 18일날 이슥히 깊어진 밤 18련대는 구봉산 험한 비탈을 타고 대전남방을 향해 초인간적인 강행군을 시작하였다. 그들은 단순히 빨리 달려가는것이 목적인 운동선수가 아니다. 그들은 목적지에 가닿으면 온갖 중무기로 무장한 미24사의 퇴로를 차단하고 증원되여오는 미기갑1사와 25사의 전진을 불허하여야 한다. 그러기때문에 그들은 몸이 가닿을뿐만아니라 전투기재와 무기와 식량을 가지고가야 하는것이다. 산을 뚫고 계곡을 건너 줄달음치는데 수송차가 따라올수는 없다. 매 전사들은 1.5정량의 탄약, 3주야분의 식량, 1～2발의 박격포탄을 휴대하였고 그밖에 보총과 수류탄, 보병삽 등의 장구를 걸머졌다.

우리 나라에는 걸음을 많이 걸어본 사람도 많고 빨리 걷는다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험한 산길을 하루에 150리씩 걸으라고 하면 저 유명한 황천왕동이도 하품을 하고 나가넘어질것이다. 그러나 우리 전사들은 수령님의 높은 신임에 보답하기 위하여 숙연히 (은밀한 기동이기때문에) 걸음을 다우쳤다. 무거운 장구로 말미암아 더욱 억세게 내짚이는 발걸음소리속에 도란도란 말소리가 새여나온다.

《일제는 그해 한해동안에만도 무려 수만명의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을 감옥에 잡아넣었소. 가만 앉았다가는 조선사람모두가 죽어야 할 판이였소. 이때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몽

강 남패자라는데서 회의를 열고 재차 국내로 진출할데 대한 새로운 방침을 내놓으시였소.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직접 부대를 이끄시고 조국을 향하여 행군을 시작하시였소. 이것이 유명한 우리 조선인민혁명군들의 100여일 동기행군의 시작이요. 행군도중에 무슨 일인들 없었겠소. 놈들은 장군님께서 국경지대로 나오신다는것을 눈치채고 수십만의 대병력을 동원해서 검질기게 추격하는 한편 길목을 지켰소. 그곳의 겨울이 얼마나 춥다는것은 동무들도 잘 알지? 밀림속에 태고로부터 쌓인 눈이 사태를 일으키고 아름드리 고목이 쩡쩡 얼어터지는 가운데 하루에도 수십차례씩 전투를 해야 했소. 옷은 날도 남지 않아서 생살이 드러나고 신발은 다 떨어져서 맨발에 각반을 동인 동무도 있고 소가죽으로 발싸개를 하고 나무껍질로 동인 동무도 있었소. 그런데 또 식량이 있을리 있소? 어떤 때는 맹물도 끓일 시간이 없었다오. 눈을 움켜쥐고 먹으면서 쓰러졌다가는 일어나고 쓰러졌다가는 일어나고 하면서 그래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소.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대렬의 선두에서 자신을 위해 남겨둔 마지막 한홉의 미시가루마저 대원들에게 나누어먹이시면서 생눈길을 헤치시여 길을 내셨소. 〈조금만 더 힘을 내오. 힘을 내여 이 곤난을 극복해야 조국으로 나갈수 있소.〉 그때 대원들을 고무하시던 그이의 말씀이 지금도 내 귀에 들리는것 같소. 자, 우리도 힘차게 걸읍시다. 우리가 이 길을 잘 걸으면 머지않아 통일된 조국의 남해바다를 보게 될것이요.》

깎아지른 경사가 숨막히게 다가서는 험산준령을 누비며 시속 100리를 넘는 미국증원부대의 기동기재를 앞지르려고 줄달음쳐나가는 강행군대렬속에서 그 대렬에 섞여 함께 걸으며 캄캄한 어둠속에 몽강으로부터 북대정자에 이르는 장엄한 조선인민혁명군의 1938～1939년 동기행군의 화폭을 펼쳐보이는 차분하고 소박한 목소리의 임자는 다름아닌 문화부사단장이였다.

8

19일밤에 대전 포위망은 튼튼히 형성되였다. 미기갑1사와 25사가 아직도 250여리밖에서 어물거리고있을 때 18련대는 대전—금산간, 대전—대구간 대도로변인 대별리, 삼정리에 진지를 차지함으로써

대전 동쪽과 동남방에서 내부전선을 형성하였다. 한편 공주대안에서 기동한 다른 한 부대는 대전 서쪽 과태리,당대리의 적 포진지를 육박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전차련합부대는 보병부대와 함께 유성을 공격하여 대전 서북방에 나타났으며 원인결사단관하 한개부대는 대전을 정북으로부터 압축하였다.

전학민련대는 태평리에서 주력을 잃고 옥천방향으로 패주하는 미19련대를 추격하여 단숨에 유성을 돌파하고 187.8고지 류동천쪽으로 성과를 확대하였다.

캄캄한 어둠속에서 진행되는 추격전투인데다 대전이 눈앞에 있다는 흥분으로 하여 대렬은 서로 뒤질세라 숨차게 달렸다. 3중대장 리택호는 줄곧 선두에서 무엇인가 웨치면서 달려갔다.

《꼭 모터찌클이라니까. 아이구 숨가빠…》

문기수 역시 헉헉하면서도 입을 다물지 않았다.

《그러게 내가 뭐라고 하던가? 우리가 꼭 대전을 보게 될거라고 하지 않던가?》

그는 그런 말은 꿈에도 한적이 없었지만 무명고지에서 적 전차 한대를 소멸한 이래 부쩍 배포가 유해져서 허황한 말을 더 자주 하였다. 그러나 자기가 전차를 어떻게 소멸했는가에 대해서는 신통하게도 입을 다물고 얌전한체하였다.

행군속도가 좀 떠지면 기수의 목소리도 가라앉고 이야기내용도 차분해진다.

《난 그 친구가 그렇게 용감한 사람인줄은 몰랐다네. 그러게 내가 하는 말이 사람이란 두고봐야 안다는거야.》

세철은 묵묵히 걸었고 또 묵묵히 달렸다. 목에 감았던 붕대는 너무 어지러워진데다 지난 하루동안 전투에서 언제 어떻게 풀렸는지 다리에 걸채이는바람에 풀어던지고말았다. 목덜미에는 소나무껍질처럼 터슬터슬 딱지가 앉았는데 그때문에 목을 움직이기가 거북하였다. 몸은 초연에 끄슬린 우에 물자루가 되였고 먼지가 더께로 앉았다. 그러나 머지 않은곳에 있을 대전을 눈앞에 그리며 목에서 겨불내가 나도록 걷고 달렸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는것은 《동무들,나를 잊지 말아주게. 대전에 들어가거던 나를 그리로 옮겨다주게.》 하던 신종호의 마지막 말이였다. 방금 문기수가 《두고봐야 안다.》고 하는 사람도 바로 신종호였다.

그저께 무명고지에서는 평촌리계선에 린접부대가 나타나기 직전에

적의 결정적인 반돌격이 있었다. 중대는 이미 적지 않은 희생을 내였고 방어시설들은 몽땅 뒤집혔으며 탄약도 떨어졌다. 이때 신종호는 고지에 기여오른 적들과 처음에는 보총으로 싸우다가 탄알이 떨어지자 수류탄을 던졌고 수류탄마저 떨어지자 종횡으로 내달리며 적을 찔렀다. 비호같이 뛰고 닥치는 그의 모습은 비단 적에게 공포를 주었을뿐아니라 아군전투원들에게도 대중적영웅주의를 불러일으키는 불씨로 되였다. 전투소보원 차응필은 《신종호동무의 모범을 따르자》하고 웨쳤다. 종호는 격전의 마지막무렵에 총창마저 부러지자 이번에는 총탁판으로 적을 후려치기 시작했는데 그가 여러군데 상처를 입고 마침내 쓰러지려 할 때 린접에서 돌격의 나팔소리가 울려왔던것이다. 종호는 가볍지 않은 부상을 당했으나 대전에 들어가기전에는 결코 후송되지 않겠다고 우겨댔다. 그러는 사이 추격전투가 시작됐고 중대는 련대의 선두에서 진격했다. 그런데 앞서나가던 척후들이 멈추어서서 193고지일대에 전기철조망으로 차단된 적 방어진지가 있다는것을 알렸다.

신속히 정황을 판단한 중대장은 머지 않은곳에 있는 변전소를 폭파하기로 결심하였다. 강다짐으로 중대장을 설복한 신종호는 반전차수류탄묶음을 안고 단신 변전소로 달려갔다. 중대는 변전소에서 폭발소리가 울리는것을 신호로 돌격으로 넘어갔다.

종호는 중상을 입고 마침내 대오에서 떨어지면서 전우들에게 애원하였다.

《동무들, 나를 잊지 말아주게. 대전에 들어가거던 나를 그리로 옮겨주게.》

그러나 그의 상처는 험하였다. 대전이 해방될 때까지 숨이 붙어있을것 같지가 않았다.

길은 탄탄하였다. 캄캄한 어둠속에서도 자욱히 피여오르는 희뿌연 먼지구름이 력력히 느껴졌다. 알싸해지는 목구멍에서 모래섞인 침을 돋궈 뱉으며 세철은 말하였다.

《빨리 가세. 그렇게 대전을 보고싶어하더니… 그때까지 잘못되지나 않겠는지. …》

어쩐지 세철에게는 자기의 발걸음이 경각에 달린 전우의 생명과 시간을 겨루며 달리고있다고 생각되였다. 자기가 빨리 가면 구원될수도 있고 무한히 연장될수도 있다. 그러나 자기가 가닿아야 할 지점까지 제시각에 미처 가닿지 못하면 그는 죽을것이다. 사실 생각하면 다가오는 죽음을 앞에 두고 그의 발걸음을 초조하게 지켜보고있는

사람이 한두사람일것인가? 두고온 북쪽땅에 신종호가 있을뿐아니라 달려가는 남쪽땅에 또 얼마나 많은 신종호가 있을것인가?

이러한 생각에 숨가쁘게 달리던 세철은 중대가 187.8고지 릉선에서 저항하는 적을 무찌르자 선참으로 산마루에 뛰여올랐다. 눈아래 불길이 환한 도시가 내려다보였다. 캄캄한 어둠의 바다에 어화처럼 점점한 불길—그것이 괴뢰 《한국》의 《림시수도》 대전이였다.

《대전이다, 대전이 보인다!》

커다란 소나무가지에 한손을 짚고 발돋움을 하며 세철은 정신없이 소리쳤다. 그러나 이때까지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아득히 뒤에 두고 온 종호에게 알려주기라도 하듯 《대전이 보인다!》하고 거듭 웨치고있는동안 화점이며 은페호속에 처박혀있던 적들이 어둠을 타고 도망을 치는 한편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옆에서 무엇인가 시꺼먼 그림자가 바람처럼 달려들었을 때야 세철은 아직도 사방에서 울리는 총소리를 느꼈고 전우들의 함성을 들었다.

그는 얼른 한옆으로 몸을 피하며 다가오는 적을 향해 수류탄을 쥐여뿌렸다. 치솟는 불광속에서 세철은 아가리가 뻥 뚫린 은페호를 보았다. 땅을 차고 그리로 달려가니 어둠속에서 대여섯이나 되는 놈들이 불질을 하면서 쓸어나왔다. 세철은 총창으로 한놈을 찌르고 다른 놈을 발길로 걷어찼다. 그런데 또 한놈이 뒤에서 총창으로 찔렀다. 세철은 앞에 거꾸러진놈을 발로 걷어차면서 자기 총창을 뽑아들기는 하였으나 미처 놈을 피할새가 없었다. 바른편 겨드랑이로 적의 날창이 푹 하더니 군복채 꿰고 앞으로 쑥 나왔다. 옆구리가 불로 지지는것처럼 화끈하는 순간 역한 노린내를 풍기며 미국놈의 몸뚱이가 등에 부딪쳐왔다. 세철은 정신이 아찔하는것을 느끼며 그놈의 모가지를 겨드랑사이에 틀어끼고 안깐힘을 썼다. 그놈의 철갑모가 벗겨져서 세철의 군복에 꿰인채로 있는 총창끝에 걸려 한바퀴 뱅그르르 돌더니 쩔렁하고 땅바닥에 떨어졌다. 《어—어—끄—ㄱ》하는 소리와 함께 그놈은 발버둥을 쳤다. 한자옆은 깎아지른 벼랑이였다. 둘은 그대로 안고 딩굴었다.

세철은 확확 달아오르는 상처를 느끼며 그놈의 목을 으스러져라 지르끼고 지그시 눈을 감았다. 그놈이 발버둥치는대로 딩굴었다. 갑자기 무엇엔가 걸려서 한참 싱갱이질을 하다가 세철이가 한번 용을 쓰니 뒤엉킨 두몸은 그대로 캄캄한 벼랑을 내려구르기 시작하였다. 세철은 허공을 굴면서 자기 정신이 별빛 총총한 밤하

늘로 아득히 날아가는것을 느꼈다.

련대가 187.8고지를 돌파하자 전진은 멈추어졌고 전선은 갑자기 괴괴해졌다. 하늘이고 들이고 산이고 길이고 아무데나 캄캄한 어둠이 까딱도 움직이지 않고 들어차있었다. 하늘에는 별빛이 반짝거리고 땅우에는 반디불이 아물거렸으나 그것들은 그 꽉 들어찬 어둠에 조그마한 틈도 내지 못했고 풀벌레소리와 모기소리가 소란스럽기까지 하였으나 뜻밖에도 전선에 찾아온 이 장엄한 정적을 깨뜨리지 못했다. 최근 수일간 밤낮으로 볶아치던 총포성과 또 미구에 터져오를 격전의 포성을 생각할 때 이날 이 시각에 유성평야에 깃들인 이 때아닌 정적은 하나의 신비경이기도 하였다. 력사는 인간의 개별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런 뜻밖의 정적과 어둠을 마련해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지 않을수 없게 만드는것인지도 모른다.

총공격신호를 기다리며 풀밭에 누워있는 문기수는 얼굴로 목덜미로 팔목으로 마구 달려드는 살찐 모기를 두들겨대며

《에이 더러운것! 내 그럴줄 알았다니까! 충청도 모기란…》

하고 두덜거렸다.

모기도 그의 잠을 방해하였지만 한날한시에 같이 부대에 배치되여 함께 대전을 향해 오던 동무들을 다 잃고 이렇게 류동천물소리를 혼자 듣는것이 보이지 않는 눈물을 자아내는것이였다. 하나는 태평리어방에서 군의소에 후송되였지만 세철이는 어디로 갔단말인가? 기수는 남먼저 187.8고지기슭으로 뛰여올라가던 세철이가 《대전이 보인다!》하고 소리치는것을 분명히 보았었다. 그런데 패잔병들과 한바탕 쏘고 찌르고 하는 사이 그만 형체를 감추고만것이였다. 수색전투가 끝난후 중대장의 명령으로 다시 찾아보았고 후에 대대장이 정찰병 몇명을 파해서 또다시 찾았으나 끝내 형적이 묘연하였다.

전우들은 풀밭에 쓰러져서 벌써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며 잠에 곯아떨어졌다. 그러나 기수는 눈이 마롱마롱하고 정신이 갈수록 맑아졌다.

《넨장, 내 그럴줄 알았다니까. 사람이 그렇게 우둘우둘하는 싱겁둥이니 이 판에 어느 호랑이가 물고갔는지 알턱이 있나. 에끼, 너절한것, 송충이 이상이군.》

기수는 모자를 벗어 목덜미를 후려쳤다. 시큼한 땀내가 뭉클하고 코를 찔렀다.

《동무는 왜 자지 않소? 눈을 좀 붙이오.》

은근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키가 성큼한 군관 한사람이 조심조심 대렬사이를 누비며 혼곤히 잠든 대원들을 돌아보고있다. 그뒤에 따라선 문화부중대장 류경환을 보고서야 그가 련대장임을 알았다. 기수는 벌떡 일어나앉았다.

《잠을 잘수 없습니다, 련대장동지.》

《조용히, 왜 모기때문에?》

학민이가 손가락을 입에 갖다대자 기수도 좌우를 돌아보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모기도 지독합니다. 보리쌀만하군요. 우리 고향 모기는 산골이라도 이렇진 않는데 여기는 모기까지 미국놈을 닮은 모양입니다. 그건 그렇고 공격은 언제 있습니까?》

《공격은 아마 동무들이 푹 한숨 자고나야 있을거요. 그런데 왜 못잔단말이요?》

《난 사실… 글쎄 이게 뭡니까? 난… 우리 문화부중대장동무도 잘 압니다만 난 내 몫도 겨우 할지말지한데 이번에는 기어코 세몫을 해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절로 생각이 많아지는군요.》

《세몫이라니? 그건 누구 몫이요?》

학민은 류경환을 돌아보며 풀밭에 앉았다.

《일이 좀 시시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짝패가 셋이였는데…》

《짝패라니? 군대에 무슨 짝패가 있소?》

《네?》

문기수는 말허리를 잘리우고 어둠속에 눈을 꺼먹꺼먹하였다.

《이 동무가 통 술어를 쓸줄 모릅니다.》

곤경에 빠진 대원을 구출하기 위하여 경환이 앞으로 나섰다.

《짝패가 아니라 친한 동무였지요. 아까 말씀드린 신종호동무와 박세철동무가 이 동무와 함께 우리 중대로 배치돼왔습니다. 그런데 둘다 그렇게 됐으니… 그래서 하는 말일겁니다. 동무, 말을 정확히 해야지 그게 뭐요?》

《글쎄, 그러게 내가 뭐랍니까? 내가 하는 말이 나는 이번 공격에 어떻게 하든지 세몫을 해야 되겠다는것이지요.》

《알겠소.》

학민은 어둠속에 어딘가를 쏘아보았다. 한동안이나 지나서야 허리를 일으키며 말을 이었다.

《자오. 자야 세몫을 할게 아니요? 신종호동무는 중태인것은 사

실이지만 생명은 일없을거요. 그 동무는 아마 동무가 대전해방전투에서 잘 싸웠다는 소식을 들으면 회복이 빠를거요. 그리고 박세철동무는 날이 밝으면 다시한번 잘 찾아봅시다. 죽지는 않았을거요.》

학민은 걸음을 옮겨놓았다.

《련대장동지, 편안히 주무십시오.》

기수는 한쪽다리를 일으켜세우고 고향에서 동네어른들에게 하듯 깍듯이 밤인사를 하였다.

《참…》

학민은 몇걸음 걸어가다가 되돌아와서 물었다.

《동무가 박세철동무와 같이 왔다고 했지? 그 동무 고향이 어딘지 아오?》

《고향이야 알지요. 황해도 검산이라고 합니다. 광산에서 수리공질 하다가 나왔다더군요.》

《흠— 역시 세진동무 동생이군. 이렇게 될줄 알았으면 진작 한번 만나볼걸…》

학민은 강가로 걸어가며 혼자 중얼거렸다. 이슬에 젖은 무성한 잡초가 철떡철떡 발밑에 밟혔다. 군복가랭이가 어느새 축축히 젖어든다. 윙윙 모기소리가 귀청을 울리고 개똥벌레가 자그마한 청사초롱을 켜들고 부지런히 날아다녔다. 형은 조국을 찾겠다고 목숨걸고 싸우다가 꽃피는 청춘을 이역땅 눈덮인 밀림속에 묻더니 오늘은 그 아우가 형의 고귀한 피가 스민 조국을 지키며 둘로 갈라진 나라를 통일시키겠다고 꿈도 희망도 다 버리고 나서서 싸우다가 마침내 통일된 조국은 보지도 못하고 또다시 낯선 산기슭에서 눈을 감았단말인가?

자기는 한 전사의 친지가 아니라 전련대의 상관이라는 립장을 한시각도 잊은적이 없었지만 그래도 중대장 리택호의 보고를 들었을 때는 수향산에서 처음으로 그 이름을 들었을 때와는 반대로 제발 그것이 세진의 아우가 아니였으면 하고 바라지는 마음을 어찌할수 없었다. 세진이가 누워있는 우심산부근의 밀림에서부터 여기 대전 서북방 류동천기슭에 이르기까지 조국의 자유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사랑하는 전우 세진의 몫까지 잘 싸우겠다는 맹세의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온 학민이였다. 뒤늦게야 주소를 알아내여 그의 유가족을 찾아본이래 한편으로는 마음속이 밝게 트이는듯도 하였지만 불구가 된 어머니나 아직 혁명가로 세련되기에는 거리가 먼 그 아우를 봤

을 때 또하나 새로운 짐을 짊어진듯한 느낌이 없지 않았었다. 그러나 그것은 학민에게 있어서 락이요, 기쁨이요, 생활이였다. 오늘의 이 대폭발을 앞두고 나날이 긴장되는 국내의 정세속에서 그의 모든 생활과 사색과 노력은 그가 벌써 열네살 소년의 몸으로 첫걸음을 내떼던 혁명을 위하여, 조국의 자유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기울어지고 있었다. 이제 그자신의 혈족은 이미 다 고인이 되였고 가까운 친지란 모두가 아동단시절이 아니면 유격대에서 만난 동지들이였다. 오직 례외인것은 전쟁1개월전에 낯을 익힌 다리 저는 어머니와 목대 가느다란 작업복차림의 총각이였다. 그들이 가장 가까왔던 혁명전우의 유가족이라는데서 제 살붙이를 만난것만치나 반가왔고 가슴이 설레였던 학민이였다. 세철이란 총각은 또 얼마나 호감이 가는 청년이였던가? 지나칠만큼 순박하고 단순한것이 처음 만난 남남끼리라도 인차 마음을 터놓고싶어지는 사람이였다. 그런데 이제 그 청년은 이미 십중팔구 살아있다고 믿기 힘들게 되였다. 무수한 싸움의 길에서 수도 없이 전우들을 여의여보냈건만 그때마다 살을 저미듯 파고들던 그 가슴아픔이 또다시 학민의 마음속 깊이에서 꿈틀거렸다. 그는 신음하듯 숨을 크게 내쉬며 혼자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세진동무, 나는 믿지 않소. 그 애가 그렇게 죽을것 같지는 않았는데… 하긴 어떻게 알겠소? 이것이 소위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미국놈과의 싸움이니 어찌 희생이 바이 없겠소. 앞으로 더 많은 희생을 낼지도 모르고 더 가슴아픈 일이 닥칠수도 있을거요. 그러니 어찌겠소? 동무자신이 목숨을 내놓고 찾아야겠다고 생각한 조국이 아니요? 나에겐들 그 조국이 귀중하지 않을수가 있겠소? 가령 내가 내 목숨을 내놓고라도 조국을 지키겠다고 결심한 이상 세철이 그 애한테도 목숨을 내놓고 조국을 지킬 권리가 있는게 아니겠소?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섭섭한 일이요. 끌끌한 청년이였는데… 하는수 없지. 개놈들! 이젠 너희차례다. 어디 겪어봐라.》

분노로 살이 떨리였다. 학민은 이슬이 맺히는 풀밭을 조심스레 밟으며 강가로, 강가로 걸어갔다. 주절주절 물소리가 들려왔다. 언젠가 뽕나무잎사귀에 무겁게 밤이슬이 듣던 날 밤 세철이와 나란히 앉아 쌍룡강 물소리를 듣던 일이 생각났다.

(참 그 처녀 이름이 보패라고 했지. …)

다리를 절며 설기를 찐다 닭을 잡는다 하고 바삐 돌아치던 어머니의 모습이 캄캄한 밤하늘에 햇솜구름마냥 뭉게뭉게 피여올랐다.

9

1950년 7월 20일 아직도 캄캄한 새벽하늘에 위력한 전차포의 첫사격소리가 울려퍼졌다. 대전북쪽과 서북쪽 서쪽과 서남쪽 교외에 매복하고있던 전체 부대는 적의 아성 대전시를 향하여 총공격을 개시하였다. 당대리와 파태리의 포진지를 돌파한 부대는 일거에 가수원리를 쓸어엎고 보문산기슭으로 육박하였다. 우선 전차련합부대와 전학민련대가 서쪽과 서북에서 대전시내로 돌입하였다. 원인결사단의 다른 한부대는 북쪽에서 대전시를 압축하였다. 처음 전투는 서쪽과 서북쪽에서 진행되였다. 네거리에 비반충 반전차포(파즈카)와 류탄포 그리고 155미리곡사포를 끌어내놓은 미국놈들은 매 건물과 매 골목마다에서 필사적으로 저항하였다. 부득이 한계선을 내줄 때면 사정없이 불을 달아놓았다. 해볕에 튀여오르도록 마른 목조건물들은 휘발유라도 친듯이 확하고 불이 당겼다. 불은 삽시에 온 도시를 휩쌌다. 시뻘건 불길이 마치 설레이는 파도와 같이 와— 와— 소리치며 태질을 하였다. 폭풍이 휩쓰는듯한 우르릉우르릉소리가 무서운 불길의 파도속에서 터져나왔다. 일찌기 조선에 이와 같이 대규모적인 화재는 있어본적이 없다. 이 무섭게 설레이는 불바다속에서는 보총소리도 포소리도 무색해질수밖에 없었다. 와지끈와지끈 무너져앉는 추녀밑에서 버리고간 미국병사의 시체가 강냉이처럼 부풀어서 튀여오르는가 하면 그 자리에서 숯이 되였다. 시뻘건 불길이 널름널름 기여다니는 골목에는 수도가 터져 신기하게도 맑은 물이 콸콸 쏠아올랐다.

문기수는 한 건물에 뛰여들었다가 피투성이가 되여 달려나왔다. 그러자 키가 껑충한놈이 어디를 맞았는지 하도 뜨거워선지 두팔로 머리를 감싸쥐고 담모퉁이를 돌아갔다. 기수는 번개처럼 달려가며 총탁판을 쳐들었다.

《세철이 몫이다, 옳지！》

그놈이 꺼꾸러지는 순간 반대편 골목에서 박격포같은것을 메고 달려오는 다섯놈일행을 발견한 기수는 제꺽 수류탄을 쥐여뿌리며 소리쳤다.

《이건 종호뭎이다！》
문득 활활 불길이 널름거리는 건물앞에 콸콸 끌아오르는 수도꼭지를 발견하였다. 그제야 기수는 온몸이 땀에 뜨고 불에 그슬렸으며 목젖이 눌러붙을지경 말라들었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한손에 맑은 물을 움켜쥔 기수는 그것을 마실 생각도 끼얹을 생각도 못하고 들여다보며 혼자 중얼거렸다.
《참 이 불속에 이런 물이 있다니… 그 친구들 이런것도 못보고…》
이때 전차 한대가 보병들을 뒤에 달고 돌진해왔다. 기수는 얼른 물을 쥐여뿌리고 전차의 뒤를 따라 달려나갔다.
《만세—》
《만세—》
까맣게 뜬 비행기가 대전교외를 동서남북으로 갈개치며 마구 기총소사를 퍼부었으나 이미 파멸의 구뎅이에 한발을 들이민 미국침략군대를 구원할 방도는 없었다.
대전시 한복판 한 2층석조건물에는 이미 18련대 정찰소대장 권선일이 지휘하는 정찰조가 자리잡고있었던것이다. 그들은 손금처럼 바라다보이는 시내에서 갈팡질팡 우글거리는 적들의 동태를 낱낱이 감시하여 쉼없이 전파를 날려보냈다. 겹겹이 포위된데다 이렇게 저들의 방어진지 한복판에 인민군대의 눈과 귀가 뚫고 들어오고보니 적들은 간데족족 아식보총과 기관단총의 숲을 만났던것이다.
치렬한 격전속에서 굼뜨게나마 시간은 흘렀다. 벌써 인민군전차와 보병들은 도심지대로 뚫고 들어갔다. 어느덧 전투는 서북방에서부터 적들이 혈로를 내고 도망치려는 서남방 금산가도쪽으로 옮겨갔다.
전날 옥천쪽으로 도망친 19련대의 패잔병들을 급히 불러들여 허물어지는 방어선을 지탱해보려던 띤소장은 한낮이 기울어지자 땀을 철철 흘리며 손수 반전차포진지에 나가 포탄을 섬겨주었다.
《저놈을 묘준해라！ 이리로 온다！ 어서 쏘아라！》
그러나 전차는 포탄을 쾅쾅 튀기면서 마구 돌진해왔다. 골드빈이 달려왔다.
《사령관각하！ 큰일났습니다. 우리는 포위당했습니다.》
《포위라니？ 그럴리가 없소.》

《아닙니다, 포위됐습니다. 어서 갑시다. 자 이것을 갈아입고…》

골드빈이 내미는 병사복을 보고서야 골드빈자신이 이미 초라한 병사복을 입고있다는것을 알아보았다. 띤도 그제야 포탄을 쥐여뿌리고 똑바로 섰다.

《이게 무슨 일이요? 만약의 경우에는 자동차로 갈수도 있겠는데 이게 무슨 비겁한 행동이요? 신성한 미국장교가?》

《아이구, 이러질 마십시오. 급한데… 34련대가 금산쪽으로 철수하려다가 길이 차단되여 영등쪽으로 방향을 돌렸는데 지금 오리골 부근에서 대판 얻어맞고있습니다.》

골드빈은 띤의 목덜미를 잡아끌다싶이하여 자동차로 데리고갔다.

《아니 방금 19련대가 그쪽에서 왔는데…》

띤은 아직도 꿈이 덜 깬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새삼스럽게 무서운 불바다로 화한 거리를 바라보았다.

《공산주의자들이 음흉합니다. 들어오는것은 방해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들이 19련대를 못들어오게 차단했던들 이렇게는 되지 않을걸… 자, 어서 갈아입으십시오. 난 월로우비에게 보고를 다 했습니다. 어서 갑시다. 아마 머지 않아 대폭격이 있을것입니다.》

그들은 영등가도를 향해 쏜살같이 내달렸다.

《아이구, 왜 이렇게 뜨겁단말이요?》

띤이 팥죽같은 땀을 손바닥으로 쥐여뿌리며 비명을 질렀다.

《이 불속에서 불고기가 되지 않은것만해도 다행이지요.》

골드빈은 이렇게 대답하며 차를 멈추어세웠다. 띤의 머리에 얹혀있는 장군표식이 달린 철갑모와 자동차 앞에 달린 별을 떼여서 거리에 내동댕이쳤다. 이미 병사로 가장한 그들에게는 그 번쩍거리는 별들이 아무런 리익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것을 깨달았던것이다. 그런데 금산과 영동으로 갈라지는 대도로 갈림길에 가까이 오자 이미 때가 늦었다는것이 판명되였다. 금산가도쪽에서도 영동쪽에서도 인민군대가 지키고 앉아 소탕전을 벌리고있었다. 마치 자동차공장의 완제품창고처럼 번쩍거리는 자동차들이 빼곡이 들어섰는데 그것은 그들보다 앞질러 도망한 미국인들이 어떤 운명의 길을 걸었다는것을 말해주고있었다.

《날 따라오시오.》

골드빈은 오른편 산릉선을 향해 산짐승과 같이 냅다뛰였다. 띤은 이미 물주머니가 다 된 몸을 마구 개사슬로 잡아끌듯 험한 벼랑

으로 달려올라갔다.

《오 신이여, 이 불쌍하고 어린 양을 보호하여주옵소서…》

창졸간 그의 머리에는 언젠가 골드빈에게서 들은 말이 떠올랐다.

(그들은 제네바협정을 지키겠다고 했다지? 하지만 웬걸… 아이구 숨이 가빠!)

그는 적어도 미국장군인 자기가 이 마당에 그런것을 상기하는것이 수치라는것을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막대기처럼 꿋꿋해지는 다리를 억지로 끌며 두덜거렸다.

《빌어먹을놈, 잘도 뛰는군. …》

×

총창끝에 맺힌 이슬이 도르르 굴러서 까슬까슬 마른 입술을 적셨다. 그렇게 극성을 부리던 모기도 군복이며 머리에 축축히 밤이슬이 내리자 덜 접어들었으나 확확 열기가 오르는 얼굴과 목덜미에는 주사침같은 바늘을 들이꽂고 가뜩이나 부족한 피를 빨아냈다. 갑자기 쾅— 하고 포소리가 울리는바람에 세철은 어렴풋이 정신이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희미한 새벽꿈에 대한 추억과 같아서 아무런 현실적인 감각이 없었다. 그저 몹시 거북하다는것을 느끼며 몸을 좀 뒤치려 했으나 무엇이 단단히 물고 놓지를 않았다. 그래서 다시 긴장을 풀고말았다. 포소리는 계속 울려왔다. 칡넝쿨이 바라오른 벼랑에서 흙사태가 무너지면서 머리우에 덮씌웠고 깔고앉은 땅덩어리도 흔들흔들하였다.

세철의 넋은 흔히 이 세상과 저세상의 경계선이라고 말하는 황천어방을 헤매고있었다. 저쪽세상으로 건너가면 모든것이 편안하고 누긋한데 이쪽으로 한발을 건너오면 참을수 없이 목이 마르고 어딘가가 결리고 마치면서 거북해졌다. 한번은 결이 나서 (넨장, 무엇이 이렇게 잡아당겨!) 하고 팔을 뽑으려 했더니 꼭 바이스에 물린것처럼 움쩍도 하지 않았다. (모르겠다. 그런데 이건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나?)

포소리는 그치지 않고 울려왔다. 세철은 또다시 저세상쪽으로 건너가버렸다.

마지막 이슬이 굴러내리고 포연에 꺼멓게 끄슬린 하늘 한끝에

서 별빛이 지새여갔다. 세철은 문득 눈을 떴다. 강철빛하늘이 펼쳐져있었다. 참 하늘도 이상하지.… 꼭 성이 난것 같군.… 순간 세철의 귀에는 분명 포소리가 울려왔다. 아차,이게 웬 소린가? 출근시간이 늦었는가? 어머니,어머니,어머니는 대체 어디 가고 없는가? 그런데 몹시 결리고 무엇인가 깔고 누르는듯 거북하였다. 어떤놈이 다리를 잡아당기는군. 죽일놈! 한번 후려줘야지.… 그는 나른해지는 사지에 힘을 주어 홱 하고 몸을 비틀었다. 그러나 빠져나갈듯이 팔이 아플뿐 꿈쩍 요동을 않는다. 또 눈을 부릅떴다. 강철빛하늘에 이번에는 시꺼먼 연기가 피여올랐다. 포소리가 들려온다. 이것봐라! 옳지! 이게 전쟁판이였지.… 그러니…

세철은 눈을 부릅뜨고 고개를 돌렸다. 자기가 누워있는 근방의 스산한 정경이 으스레한 새벽 어둠속에 떠올랐다. 그렇게 빠져나갈듯이 아픈 바른팔에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미국놈의 노랑대가리가 끼워있는데 그 겨드랑사이로 미국놈의 날창이 비죽이 삐여져나와 입술언저리에 이슬을 떨구고있었다. 자기 품에서 흘렀는지 미국놈에게서 흘렀는지 피가 질퍽하였다. 그런데 왼손에 쥐여져있는 자기 총의 총신이 또 배우를 지나 그 미국놈의 육중한 엉덩짝밑으로 들어갔다. 두사람의 몸은 절반쯤 흙사태에 묻혀있다. 엉망으로 토막진 칡넝쿨이 다리며 어깨에 휘감기여있었다. 어떻게 되여 이런곳에 처박혔는지 가맣게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리고 미국놈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수가 없다. 그러나 자기 박세철이가 살아있다는것은 움직일수 없는 사실이였다.

포소리가 울려온다. 또다시 사태가 무너져내린다. 참 저놈이 살았다면?…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제야 자기가 적의 총창에 찔렸다는것과 제팔이 그놈을 든든히 지르끼고있기때문에 그 팔에서 힘을 뽑고 관절을 꿋꿋이 펴야 빠져나오리라는 큰 발견을 하였다. 나무막대기처럼 굳어진 팔을 펴기란 이만저만 힘이 들지 않았다. 가까스로 팔을 펴고 안깐힘을 써가며 그놈의 목에서 뽑아내니 곰배팔이처럼 아래로 축 드리워졌다. 그런대로 한결 편안하였다. 총창을 잡아뽑고 허리를 일으켰다. 하늘이 휘— 돌아가더니 어느덧 그 강철빛의 하늘이 발아래서 팽글팽글 돌다가 딱 멎어섰다. 세철은 태질을 당한듯 땅우에 나가떨어졌다. 아찔해지는 정신을 이를 악물고 가까스로 붙들어잡았다. 그리고는 누운채 발로 미국놈을 걷어찼다. 기척이 없다. 그제야 마음을 놓고 잠시 숨을 돌렸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됐는가? 신종호가 자기를 대전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하던 말이 떠올랐다. 그렇다면?

세철은 화다닥 뛰여일어났다. 이게 187.8고지로구나. 그리고 저 포소리는 대전 총공격이다. 어— 이게 무슨 꼴인가? 마음은 단숨에 천리라도 날을듯 급했으나 몸은 까딱 말을 듣지 않는다. 겨드랑밑의 상처는 저절로 엉겨붙었으나 어쨌든 몇시간을 피가 흘러버린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머리가 휘휘 도는것을 보면 필경 몸에 있는 피가 깡그리 다 빠져나간것인지도 모른다. 개자식! 너때문이다. 세철은 무엇때문에 죽었는지 모를 미국놈의 송장에 침을 한번 내뱉았다. 그리고는 총을 지팽이삼아 겨우 일어섰다. 이를 악물고 걸음을 옮겨놓았다. 축축히 젖은 풀밭을 헤치고 앞이 탁 트인 벌판쪽에 나서니 퍼런 들 한복판에서 시꺼먼 연기가 뭉클뭉클 솟구쳐오른다. 대전이 불타고있다는것을 느낀 세철은 입술을 앙다물고 중얼거렸다.

《종호, 미안하네. 나는 이렇게 락오자가 됐군.》

무릎이 금시 덜컥하고 접히려 하였다. 그러나 세철은 매여달리듯 총을 의지하고 서서 다리를 뻗쳤다.

《그래도 가야지. 아—아—아.》

몸부림이 나도록 자기의 무력이 안타까왔다. 문득 며칠전에 있은 당회의 생각이 났다. 그렇지, 나를 지켜보고있을테지. 당이 나의 일거일동을… 나의 량심을 평가할것이다. 형! 련대장동무! 용서해줘요. 나는 기어코 갈테니… 가자! 어서 가서 자기 비판을 하자. 다음전투부터라도 잘 싸워야지. 그리고 종호가 그렇게도 가보고싶어하던 대전에 발이라도 들여놔야지. 하긴 남이 다 해방한뒤에 찾아갈 면목이 없기는 하지만 나도 얼마나 그 대전에 가보고싶었던가? 기어코 내 손으로 해방하리라 그렇게 굳게 맹세를 다졌건만… 아니 포소리가 아직 울리는것으로 보아 전투가 끝나지는 않은 모양이다. 가자 다리야, 내 다리야, 어서 빨리 걸어라!

일년감밭이 나타났다. 푸르죽죽한놈을 한개 따서 씹었다. 물기가 흘러드니 그만해도 목구멍이 열리고 제법 산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실상 갈증은 더 심해졌다. 밭고랑에 펄썩 주저앉아 잘 익은놈을 골라서 실컷 따먹었으면 하는 유혹이 불같이 머리속을 지졌다. 그러나 그럴 경황이 어디 있느냐고 자신을 나무라며 걸음을 다우쳤다. 아무 까닭도 없이 모재비로 픽 쓰러졌다. 총을 짚

고 가까스로 일어서니 또다시 휘 하고 하늘이 돌아간다. 도무지 고개를 높이 들수가 없다. 그래서 가까운데 목표를 정하고 거기까지 가닿으면 다시 새 목표를 잡아서 걸었다. 어느 동네 아이가 내버렸는지 풀밭에 반짝거리는 동그랗게 다듬어진 사금파리를 겨누어 한참 걸어가니 일년감밭이 끝나고 싱그러운 물비린내가 풍겨왔다. 갈대가 설렁거리는 시내물이 보인다. 다리를 뻗고 들어서서 확확 달아오르는 머리를 푹 잠갔으면 얼마나 시원하랴. 그러나 시간이 없다. 빨리 가자, 다리야… 강을 건느면 빠를것 같았지만 물이 깊을것 같아 단념하였다. 그대신 강기슭을 따라걸었다.

얼마나 갔는지 징검다리가 나타났다. 그것을 건너뛸 자신이 없어서 그대로 물속에 들어섰다. 이쪽돌에서 저쪽돌까지 쓰러지듯 허우적거리며 건너가서는 그러안듯이 돌에 매달렸다. 강을 건너서니 자갈밭이 나타났다. 작은 돌, 큰 돌 할것없이 모든것이 뒤뚱거리고 흔들렸다. 하는수없이 무릎을 꿇고 네발로 기였다. 우렁찬 포소리사이로 간간이 낯익은 보총소리와 기관단총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이 반갑기도 하고 한편 참을수 없이 안타깝기도 하였다.

해가 높이 솟아올랐을 때 세철은 어떤 산중턱을 내리고있었다. 불타는 대전거리가 발아래 누워있었다. 쏜살같이 내빼는 미국자동차들의 대렬이 보인다. 전투는 거의 끝장이 나가고있다.

세철은 저 대전거리에서 미국놈 한놈이라도 소멸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렇게 분수없이 굴어서 걱정을 끼친 조국을 무슨 면목으로 대할것인가. 형의 아우로서 그리고 련대장의 그런 간곡한 타이름을 들은 내가… 하는 일념에 사로잡혀있었다. 어머니가 이런 아들을 둔것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의 수모를 받아야 할것이며 또 보패가 얼마나 나를 업수이여길것인가?

세철은 자기의 그 몸으로 능히 싸울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하는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가닿기만 하면 그리고 원쑤를 눈앞에 보기만 하면 펄펄 날것만 같았다.

그는 가파로운 릉선에 앉아 두팔을 뒤로 뻗치고 굴러내렸다. 한참 내리다가 앞을 살펴보고 방향을 잡았다.

문득 저아래서 다급한 발걸음소리가 들려온다. 세철은 마침 두다리를 큼직한 돌에 뻗치고 숨을 돌리고있었다. 와삭와삭 나무가지를 헤치며 한사람이 올라오고 그보다 20여메터 떨어져서 뚱뚱한 놈이 숨을 씩씩거리며 올라온다.

《하바！ 하바！》

앞선쪽이 소리친다. 씩씩거리는 숨소리가 들려온다. 미국놈이다. 세철은 삽시에 정신이 한껏 잡아당긴 활시위처럼 긴장되여 상반신을 일으켰다. 다리를 뻗치고있던 방치돌만한 돌에 본능적으로 몸을 감추며 무릎을 꿇었다. 한손으로는 총을 틀어쥐였다.

두 미국놈은 자기들을 지켜보는 활활 불타는 눈이 있다는것도 모르고 그냥 올라온다.

《각하, 빨리빨리！》

앞선놈이 불쑥 자작나무덤불뒤에서 나타났다.

《아！》

세철은 하마트면 소리를 칠번했다. 그는 어릴 때 본 저보다 열살이나 우인 아들골드빈의 얼굴은 기억할수 없었다. 그러나 검은 서양가사를 입고 다니던 아버지골드빈의 얼굴은 생생히 기억하고있었다. 그런데 눈앞에 다가온 미국졸병놈의 얼굴이야말로 바로 그 골드빈선교사의 얼굴이였다. 윌리암 골드빈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를 닮았다는것이 천액이라 할밖에 없다. 그러나 생각하면 그렇게도 아버지의 음흉한 배속을 쑥 뽑아내다싶이 하였으니 얼굴 또한 안닮을수가 없는것이다. 게다가 세철이에게는 방금 눈앞에 다가오는 미국놈이 선교사 골드빈치고는 너무나 젊다는것을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우에서 움직이는 인기척에 골드빈은 흠칠 놀라 걸음을 멈추었다. 고개를 드니 두개의 불달린 도화선같은 무시무시한 눈이 쏘아보고있다. 그는 얼른 무릎을 꺾으며 권총을 뽑아들었다.

이때 세철은 본시 하얗게 피기가 가셨던 얼굴이 그만이야 가을철 달빛처럼 희푸르게 질려있었다. 그의 온몸이 신경이 되여 《그놈이다！ 그놈을 만났다.》하고 아프도록 웨쳐대고있었다. 머리속은 칼끝처럼 날이 섰다. 그놈이 총을 뽑아들었다는것도 그리고 자기가 부상당하였으며 게다가 또 한놈이 뒤따라온다는것도 전혀 깨닫지 못하였다. 다만 배낭속에 든 식탁 나이프를 꺼내려면 시간이 없다는것과 그리고 저놈을 더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해서는 결코 총알을 먹여서는 안된다는 오직 한가지 생각뿐이였다.

세철은 슬그머니 총을 놓고 방패삼아 의지해있던 돌을 그러안았다. 순간 골드빈이 방아쇠를 잡아당겼다. 총알이 돌 한끝에 맞아 쨍！ 쨍！ 하고 불꽃을 날렸다. 세철은 겨드랑이가 결린다는것도

머리가 휘휘 내돌린다는 생각도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서서히 돌을 쳐들었다. 골드빈이 다시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세철은 조용히 말하였다.

《골드빈! 나를 보아라!》

골드빈은 흠칠하여 손끝을 멈추고 눈을 부릅떴다. 다음순간 그의 눈은 공허하리만큼 커졌고 얼굴이 토장빛으로 변했다. 불행하게도 기억력이 비상한 작용을 놀았다. 도망치겠다는 한가지 생각에 앞뒤 돌볼새없이 가파로운 산을 숨가쁘게 달려오던 그는 우선 퍼렇게 증오가 서린 인민군대를 불의에 이런 산속에서 만났을 때부터 제정신이 아니였다. 본시 그는 자기들이 완전히 포위됐다는것을 알고있었기때문에 요행 빠져나갈수 있으면 다행이고 그렇지 못하면 신분을 감추고 잡혀도 하는수 없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변장을 하고 떠났던것이다. 그런데 그 입에서 청천벽력과 같이 제이름이 터져나온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좋은 편인 그의 기억력이 조선의 한 농촌에서 자그마한 폭군노릇을 하던 소년시절의 갖가지 추억을 펼쳐놓았다. 그리하여 그가운데 어느 한 얼굴에서 수십년간 쌓이고 쌓인 증오가 뭉친것을 보았다. 그는 이제는 어차피 죽었구나 하는것을 사무치게 깨달았다. 골드빈은 완전히 발광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악!》하고 비명인지 함성인지 모를 소리를 지르며 얼굴에 가리우는 거미줄이라도 걷어내듯 팔을 휘저으면서 마구 방아쇠를 잡아당겼다. 그러나 인민군전사는 까딱도 않고 쏘아보고있었다. 그런 소경막대질 같은 총알이 맞을 까닭이 없었던것이다. 그런데 골드빈은 자기 권총에서 문득 잘깍 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미 총알이 없다. 그는 풀썩 궁둥방아를 찧으며 주저앉았다.

《오, 하느님!》

세철은 방패로 쳐들고있던 돌을 더 높이 번쩍 쳐들면서 조용히 말했다.

《골드빈! 나를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죽어라!》

어머니와 형과 저자신의 원한이 한데 뭉친듯 그렇게도 크고 육중한 돌이 골드빈의 화경처럼 부릅뜬 눈을 향하여 면바로 날아갔다.

눈을 똑바로 뜨고 넋을 잃은것처럼 얼굴을 꼿꼿이 쳐든채 그 육중한 돌을 맞이한 골드빈은 비명 한마디 못지르고 대전 남방 이름없는 조선의 한 산비탈에서 검붉은 피를 쏟으며 그렇듯 곰살궂게

엎드려 쓰러졌다. 그것은 마치 신성한 대지를 그렇게 그러안고 엎드려서 자기의 추악하고 너절한 생애를 쨍쨍한 태양아래 드러냄으로써 만사람앞에 하나의 우화를 창조해낸듯싶었다. 그는 일견 죽은듯하였다. 그러나 인간에게 유익한 모든 교훈이 그러하듯 골드빈의 우화 역시 그 창조과정이 비상히 간고하였다. 말하자면 그의 우화는 아직도 미완성이였던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의미심장한 사건이 진행되는데는 불과 눈깜빡할 시간밖에 흐르지 않았다.

세철은 무의식중에 온몸에 남아있던 힘의 온갖 예비를 다 동원하여 평소에도 들기가 만만찮았을 큰돌을 집어던지고나자 무서운 반동력으로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고말았다. 그는 아뜩해지는 의식가운데서도 뒤처진놈이 이미 골드빈이 나타났던 그 자작나무덤불뒤에서 우들우들 떨며 얼굴을 내밀었다는것을 느끼고 본능적으로 총을 더듬어 찾았다. 그리고는 눈을 부릅뜨고 총구를 앞으로 내댔다.

뒤따라오던 미국졸병— 전선사령관 떤소장은 우선 총소리에 놀라 선자리에서 엎드려있다가 조용해지자 무엇이 어떻게 됐는가해서 조심히 나무가지를 헤쳤는데 눈앞에 벌어져있는 끔찍한 광경에 그만 혼비백산해서 황급히 두손을 쳐들며 《항복, 항복.》하고 서투른 조선말로 웨쳤다.

그는 골드빈이 무모하게도 권총을 발사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벌써 일은 개판이 됐다고 속으로 넉두리를 하고있었지만 그가 짧은 순간에 상상해본 온갖 경우보다 훨씬 못하게 돼버린것이다. 그러니 눈앞에 엄연히 나타나있는 골드빈의 교훈을 살리지 않고 어리석은 짓을 되풀이하여 여벌이 없는 목숨을 헌신짝처럼 내던질수는 없었던것이다.

그러나 세철은 이미 정신이 희미해지고있었다. 그래도 그의 총구는 원쑤의 가슴팍을 겨눈채 까딱도 하지 않았다. 떤은 무시무시한 조선인민군전사의 침묵앞에서 몸서리를 쳤다.

《항복, 항복.》하고 거듭 소리쳤으나 얼굴이 강철빛으로 된 그 전사는 미동도 않고 쏘아보고있었다. 떤은 땀을 철철 흘리며 끔찍한 골드빈의 몸뚱이를 힐끔힐끔 곁눈질해보면서 울음섞인 소리로 중얼거렸다.

《항복, 항복, 항복.》

US

이때 산릉선뒤로 달려가던 두사람의 인민군전사가 떤의 처량한 목소리를 듣고 달려오지 않았던들 이 《저명한》 미국장군 역시 움직이지 않는 총구와 내려쬐는 한여름 뙤약빛에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을것이다.

10

환규는 대돌아래 내려서서 어두컴컴한 대청밑을 들여다보았다. 헌신들이 여러컬레 거미줄을 뽀얗게 쓰고 나딩굴어있다. 그가운데 과연 꽤 신을만한것이 있겠는지 쉽게 알아맞힐 재간이 없다. 언젠가 윤하응교수가 경상도로 고총을 발굴하러 떠날 때 단단한 롱구화를 신고가던것을 틀림없이 보았으니 그런 롱구화가 대청밑에도 한컬레쯤 굴러있을것 같았다. 다행히 있다면 교수가 등산할 때나 신었겠으니 물론 아직도 신을만한채 남아있을것이 틀림없다.

행랑채 주인은 새로 선거된 리인민위원회로 나가서 없고 안식구들도 들일을 나갔다. 윤하응부녀는 과수원에서 복숭아를 따고 있다. 그러니 이 앞마당에는 그의 거동을 지켜볼 사람은 없었건만 환규는 어쩐지 얼굴이 뜨끈뜨끈하여 감히 대청밑에 몸을 구부리고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서울서 수원까지 백여리길에 벌써 녹초가 돼버린 백구두를 신고는 서울로 돌아가기도, 전선을 넘어가기도 불가능하다는것이 너무나 명백하였다.

한참 주저하다가 문득 윤교수가 거처하는 바깥사랑벽에 새 대패밥모자와 함께 걸려있는 단장을 발견하였다. 그것들은 최근에 마련한 교수의 출입행장이였다.

환규는 조심스레 단장을 벗겨들었다. 그리고는 사위를 한번 살펴본 다음 엉거주춤 허리를 구부리고 대청밑에 나딩구는 신짝들을 단장손잡이로 낚아내였다. 굽높은 녀자의 자그마한 구두가 걸려나왔다. 설란의 헌신이였다.

《재수가 없군. …》

이렇게 중얼거린 환규는 그놈을 구두발로 도로 차던졌다. 이번에는 눈독을 들인 롱구화 한짝이 걸려나왔다. 예상한대로 색이

좀 바랬을뿐 밑바닥에 상표가 그대로 남아있는 새신이였다. 그런데 나머지 한짝을 마저 낚아내느라고 마침내 새로 빨아입은 백세루 양복이, 어깨에는 거미줄이 달라붙고 무릎엔 손바닥만한 흙도장이 찍혔다. 그러나 드디여 롱구화는 코를 나란히 대돌우에 놓였다. 환규는 황급히 결묻어나온 지저분한 헌신들을 대청밑으로 차던지고 단장도 제자리에 갖다 걸었다.

우선 발에 맞는지 신어봐야 할것이다. 윤교수의 발이 제 발과 별로 틀리지 않는다는것은 이미 타산한바이지만 그래도 신의 문수라는것은 겉보기와는 다를수 있는것이다.

먼지를 대충 턴후에 끈을 풀어놓은 환규는 제꺽 뒤축이 너덜너덜해진 백구두를 벗었다. 대돌에 걸터앉아 신어보니 찌이는데도 없고 끓는데도 없이 딱 들어맞았다. 만세라도 부르고싶도록 통쾌한 기분이였다.

이때 윤하응부녀가 대바구니에 먹음직한 복숭아를 가득 담아들고 앞마당으로 들어섰다. 환규는 얼굴이 화끈해서 벌떡 일어났다. 그런 눈치도 모르고 대청우에 바구니를 내려놓은 부녀는 땀을 훔치며 비로소 환규의 수상한 행색과 거동을 살펴보았다.

설란은 얼굴이 발갛게 상기되여 이마전에 달라붙는 머리를 희고 긴 손등으로 쓸어올리더니 불시에 《어마나—》하고 외면하여버렸다. 윤하응교수는 엄한 눈매로 당황해있는 환규를 한동안 훑어보더니 침중한 어조로 말했다.

《웬일이시오?》

《저, 선생님.》 환규는 목덜미까지 벌개서 떠듬떠듬 말했다. 《용서하십시오. 난 떠나야겠습니다.》

《어디로? 춘부장을 찾아갈테요?》

《글쎄요. 어디로든 가봐야지요. 이렇게 무한정 신세를 끼칠수도 없고… 그래서…》

환규는 리해를 해달라는 뜻으로 승낙도 받지 않고 갈아신은 롱구화를 내려다보았다.

윤하응은 목에 걸린 수건으로 얼굴을 훔치며 못보는척하였다. 그런데 설란이가 돌아보지도 않고 중얼거렸다.

《그 신이 어울리지 않을텐데. 그걸 신고 가겠어요?》

환규는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빈말이라도 한번 붙잡을 궁리는 않고… 내가 사랑했던게 이렇게도 랭정한 녀자였던가?)

환규는 쓸쓸하게 떠나갔다. 윤하응부녀는 그가 어디로 어떻게 갈것인지 캐묻지 않았다.

그가 당장 자기 일가를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며칠간 데식데식해진 이 집 분위기에 불안을 느꼈는지 그것은 똑똑하지 않았다. 혹은 전선을 넘어갈수도 있고 혹은 서울로 되돌아갈수도 있었다. 여태까지의 친분으로 보아서는 하응은 말할것도 없고 벌써 환규에게 있던 정 없던 정 다 떨어진듯한 설란이로서도 어디로 가느냐고 각근히 한마디쯤 물어볼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아도 그의 갈 길,그의 운명은 어차피 정해진것이였다. 그 젊은 인민군 부대장의 말과 같이 이 엄숙한 전쟁판에 제3자가 있을수 없는 이상 그가 결국 어디로 가리라는 것은 구태여 물을 필요가 없는것이였다.

환규가 담모퉁이로 사라지자 하응은 쓸쓸하게 웃었다.

《세상사람이 다 미쳤다고 떠들더니 마침내 락오자가 되는 모양이군.》

《아버지.》 설란은 갑자기 두어깨가 홀가분해지는것을 느끼며 잘 익은 복숭아를 골라 앞치마자락으로 보르르한 털을 문질렀다. 《글쎄 그 신은 한컬레밖에 없는데 그걸 신고 가버리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이제 산에 오르실 일이 있겠는데…》

교수는 복숭아를 한입 크게 깨문 딸의 상기된 얼굴을 사랑에 겨운 눈매로 바라보며 말했다.

《어떻게 하겠니? 그것이 너와 내가 잘못살아온 긴긴세월에 대한 보상이라면 너무나 눅은값이 아니냐?》

《아이 아버지두. 언제 그 사람 말버릇을 배우셨어요? 호호호.》

두사람이 웃고있는데 허봉만이가 어제 리민대회에서 인민위원장으로 선거받은 피만종을 데리고 들어왔다. 풀을 꽛꽛하게 먹인 삼베적삼을 걸친 피만종은 반반하게 대패질을 한 큼직한 널판 한장을 메고 대청앞으로 다가왔다.

《선상님,우리 인민위원회 간판을 좀 써주어유.》

봉만이가 히죽이 웃으며 말하자 만종이가 뒤를 받았다.

《멋이 있게 한번 써주십시오. 이젠 두고두고 붙어있을 간판인데 함부로 개발그리듯 할수야 있나요? 선생님 명필을 한번 휘둘러주십시오.》

《내가?》

하응은 불시에 얼굴이 후끈해졌다. 검버섯이 내돋고 주름살이 얼기설기한 늙은 살가죽우에 홍조가 피여올랐다.

《내가 어떻게 그런것을…》

하응은 별로 허둥지둥하며 구원을 청하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버지, 쓰세요. 인민위원회에서 첫부탁인데요.》

설란이가 눈을 반짝거리며 어린애처럼 허둥거리는 아버지를 부추겼다.

《글쎄 그러게말이다. 이것이 부탁이 아니라 이를테면 인민정권이 이 윤하응에게 주는 첫과업이지. 그러니 여보시오. 내 글씨가 어디 쓸모있는 글씨가 돼야말이지요.》

하응의 소박하고 곰살궂은 태도를 바라보며 며칠전까지 남의 집에서 머슴을 살던 피만종은 어엿하게 말했다.

《선생님의 글씨면 그놈들 정부간판보다 더 멋들어지게 될수 있습니다. 하긴 잘 쓰셔야지요. 이게 어떤 간판이게요. 이 간판에 혁명선렬들과 인민군영웅들의 피가 배여있습니다.》

《암, 그렇지요. 그렇구말구요. 어디 봅시다. 얘, 설란아. 그 벼루집 가져오너라.》

설란이 뽀얗게 사랑방으로 달려가더니 증조부 윤수빈의 유물인 육중한 돌벼루집을 내왔다. 하응은 거울판처럼 매끈하게 밀어낸 참나무 널판을 대청바닥에 놓고 손바닥으로 쓱쓱 쓰다듬었다.

《아버지, 우리 글로 쓰셔야 해요.》

설란이가 연적을 기울이며 상냥하게 말했다.

《나도 안다.》

하응이 큰붓에 먹을 듬뿍이 먹여 널판을 쏘아보며 오금을 꺾은채 뒤걸음치기 시작하자 세사람은 일시에 숨을 죽이고 다같이 물결무늬가 어린 널판을 들여다보았다.

설란은 기계적으로 먹을 갈며 꼴깍 침을 삼켰다. 아버지가 비록 적으나마 인민정권을 위해 무슨 일인가 한다는 그것이 그 녀자에게는 얼마나 대견하고 자랑스러운지 몰랐다. 이제 이렇게 첫걸음을 내뗴면 아버지는 절로 밝고 넓은 새 길을 걷게 될것이다. 그리고 저도 그 큰 길을 아버지 손목을 꼭 잡고 함께 가게 될것이다. 듣고도 알수 없는 궤변과 한숨소리, 병적인 의식과잉의 세계에서 빠져나와 쨍쨍한 해빛아래 푸른 하늘을 이고 자유롭게 숨쉬며 살게 될것이다. 그런 밝고 벅찬 생활의 요람— 그것이 바로 인민위원

회가 아닐가?

하응은 한참이나 널판을 들여다보며 몇번이고 먹을 새로 먹이군하더니 마침내 그루박듯 붓을 꾹 하고 내리박았다. 한번 널판에 가닿은 붓은 다음순간 신이라도 붙은것처럼 힘차게 꿈틀거리며 가로세로 휘몰려갔다. 그에 따라 하응의 성성한 백발이 춤을 추듯 바쁘게 흔들거렸다. 《방개리인민위원회》의 여덟글자가 다 씌여졌을 때 하응의 모시노타이 등은 척척히 살에 달라붙었고 이마에도 땀방울이 송골송골 내돋았다.

《좋다!》

피만종이 큰숨을 내쉬며 이렇게 소리쳤다.

《과연 우리 선상님이 명필은 명필이여유.》

《뭐…》

하응은 겸손하게 말을 했으나 그의 얼굴에도 글씨가 괜찮게 됐다는 만족감이 력력히 어리여있었다.

허봉만과 피만종이 떠나간 다음 설란은 복숭아를 깨끗이 닦아서 쟁반에 받쳐왔다.

《아버지, 이제 보도에 들으니 그 떤이라는자가 포로가 됐다는군요.》

설란은 복숭아를 벗기며 사뭇 흥분해서 말했다.

《아니 그 군정장관 하던놈말이냐?》

《그럼요. 그자가 사단장이구 또 전선사령관이였대요.》

《저번 전과발표때는 죽은것 같다고 하더니?》

《그러게말예요. 그놈이 글쎄 병사옷을 갈아입고 포로가 됐다는군요. 그러니 떤인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허허허, 미국장군이라는게 그런게로군. 비겁한것들, 포로가 될바엔 차라리 의젓하게 포로가 될게지. 허허허.》

《아이 아버지두. 포로가 되는데 의젓하고 뭐고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미국사람들이라는게 얼마나 너절하다는것이 더 똑똑해진것 같아요.》

《그렇구말구. 그러니 그걸 잡은 사람도 제가 뭘 잡았는지 모르겠군. 저런 일이 있나? 허허허.》

《아이 참, 그거 정말 분하게 됐네요. 호호호.》

두사람은 어찌나 통쾌한지 한참이나 배를 그러쥐고 웃었다.

《아버지, 그러니 이게 그 부대장동지의 대답의 보충이 안예요?

환규씨에게는 이 대답이 폭탄처럼 들렸을거예요.》
《그래 폭탄이지,이제 우리는 더욱 힘찬 대답을 듣게 될게다. 그 부대장이 말하지 않더냐. 실천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보여주겠다고… 이것은 하나의 서론인셈이지.》
《참 그래요. 아버지,정말 위대한 시대가 시작되였어요.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조선인민의 슬기로운 력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꽃필거예요.》
《그렇다. 나도 그것을 느낀다. 나는 진작 현대에 돌아왔다. 이 위대한 우리 시대에말이다. 나는 력사학자로서,또 이 시대에 사는 한 공민으로서 이 장엄한 시대의 행로를 기록해보겠다.》
이날밤 하응의 일기에는 다음과 같은것이 적혀있었다.

…
오늘 처음으로 복숭아를 땄다. 그중 상등품으로 골라 인민군대에 보내기로 하였다. 나의 딸은 인민군 부대장에게 이 복숭아를 대접하지 못해 여간 섭섭해하지 않는다…
맥아더가 대전의 패보를 듣고 《한국작전 제1단계 완료》라는 중요성명을 발표했다고… 주제에 큰소리는 쳤지만 울상이 된 그의 얼굴이 방불히 떠오른다.
나는 인민군부대장으로부터 검산이야기를 들은후 줄곧 아버지의 유고를 다시 뒤졌다. 나는 아버지가 의병으로 떠나기전해에 황해도를 다녀와서 그러한 전설이야기를 하던 기억이 있었고 그것을 딸에게 옮겨놓기까지 했었다. 그런데 근 일주일을 들추던끝에 마침내 작자미상이라고 해서 따로 제껴두었던 원고뭉테기속에서 그 전설을 읊은 《검산부》 한수를 찾아냈다. 나는 그 시가 잘되였는지 못되였는지 알수 없거니와 어쨌든 설화의 내용은 매우 감동적이였다. 아버지는 그 원고 한끝에 당신이 그 고시를 미국장군 막하덕부자앞에서 읊었다고 쓰고 갑진 4월이라고 그 시일을 밝혀놓았다. 나의 머리엔 언젠가 읽은 일로 전쟁에 관한 누군가의 수기에서 현 《유엔군사령관》 다그리스 맥아더가 당시 일본군측의 관전무관이던 아버지 아더 맥아더장군의 부관자격으로 종군하여 만주에서 로군과의 전투에 직접 참가했었다는 것을 읽은 기억이 떠올랐다. 영어를 몰랐던 아버지가 막하덕이라고 기록한것이 혹 바로 그 맥아더가 아닌지 모르겠다. 만일 그

렇다면 (이것은 그리 힘들이지 않고 밝힐수 있을것이다.) 미국의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의 력사는 얼마나 뿌리깊고 집요한것인가? 또한 그러고 보면 오늘의 이 시대가 얼마나 간고하고 준엄한 투쟁의 진통을 거쳐서 탄생된것인가? 참으로 위대한 시대가 시작되였다. 그속에 깃들인 나의 동포들의,시대의 영웅들의 붉은 피가 보이는듯하다.